이 책을 내면서

율리안 쎄묘노브의 장편소설 《1941년의 봄》은 히틀러도이췰란드의 쏘련(이전)침공전야인 1941년 3월부터 6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유고슬라비아와 뾜스까,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내용으로 담고있다.

소설은 《갈림길》과 《세번째 주패장》의 두편으로 나뉘여져 있다.

《갈림길》에서는 쏘도전쟁전야 중립국이였던 유고슬라비아를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이 벌린 세력권쟁탈전으로 하여 조성되였던 발칸반도의 복잡한 정세와 운명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유고슬라비아정치세력들의 내막을 펼쳐보이면서 히틀러첩보기관에 깊이 침투한 주인공 슈틀리쯔의 활동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첫 부분에서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정치정세를 펼쳐보이고있다. 히틀러는 발칸반도의 중요한 전략적거점이고 중립국이였던 유고슬라비아를 자기 손에 틀어쥐기 위하여 쯔웨뜨꼬위치수상을 강박하여 3국군사동맹에 끌어들인다. 한편 히틀러세력이 발칸반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기 세력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된데 위협을 느낀 영국은 유고슬라비아의 군부를 사촉하여 쯔웨뜨꼬위치정부를 뒤집어엎고 씨모비치정권을 조작해낸다. 그러나 이 정권은 파쑈도이췰란드의 위협앞에서 심히 동요한다. 그래서 히틀러도이췰란드를 몹시 경계하면서도 나라에 총동원령을 내리지 못하고 영국,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 지원이 아무런 실천도 따르지 않는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해지자 씨모비치정권은 이전 쏘련과의 동맹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었다.

유고슬라비아정부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태도, 쓰르비아와 흐

르바쯔까의 민족적 및 종교적모순(쓰르비아는 그리스정교, 흐르바쯔까는 카톨릭교를 믿음)을 리용하여 히틀러는 마체크를 두목으로 하는 흐르바쯔까파쑈분자들을 부추김으로써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며 결국 유고슬라비아가 스스로 도이췰란드의 품에 들어오도록 음모를 꾸민다. 이러한 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 히틀러는 흐르바쯔까에 첩보그루빠를 파견한다. 슈틀리쯔는 바로 이 그루빠의 한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히틀러의 반쏘침략계획과 히틀러동맹자들의 내부동향을 탐지하여 제때에 본부에 통보함으로써 파쑈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조국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소설의 후편인 《세번째 주패장》에서는 주인공 슈틀리쯔의 뽈스까,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을 보여주고있다.

파쑈도이췰란드는 유고슬라비아를 강점한 후 쏘련에 대한 침공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친다. 놈들은 첩보모략수단으로, 강점한 우크라이나땅에서의 경찰력량으로 써먹기 위해 백계망명자들을 긁어모아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이라는 반공조직을 조작해낸다. 그러나 아브웨르(히틀러의 군사정탐기관), 게스타포(히틀러의 비밀경찰), 에쓰디(히틀러의 정치첩보기관) 놈들은 이 반쏘반공조직을 서로 제놈들의 목적실현에 리용하기 위하여 치렬한 암투를 벌린다.

슈틀리쯔는 에쓰디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놈들의 내부모순을 격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히틀러첩보기관의 비밀을 탐지하여 본부에 알려줌으로써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싸움을 벌리고있는 쏘베트조국에 크게 기여한다.

장편소설 《1941년의 봄》은 일정한 지역에서의 정탐활동을 보여주는 고전탐정소설의 추리형식을 벗어나 하나의 대륙을 무대로 하여 벌어지는 중요한 정치사변들을 취급한 새로운 형식의 정치탐정소설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소설은 히틀러도이췰란드의 이전 쏘련침공전야의 유고슬라비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제국주의자들의 세력권쟁탈을 위한 추악한 개싸움과 운명의 갈림길에서 동요하는 유고슬라비아정치세력들의 가련한 몰골, 파쑈도이췰란드의 개로 전락되여 정탐모략행위와 학살만행을 감행하다가 버림받는 백계망명자들의 비렬한 행위를 생

활적화폭으로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준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성과 야수성, 교활성을 똑똑히 알고 그 어떤 미련과 환상을 가져도 안되며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 력사적진리를 다시한번 똑똑히 깨우쳐준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 슈틀리쯔의 형상을 통하여 쏘베트인간들의 높은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 강의성을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슈틀리쯔는 엄혹한 시련과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간다. 파쑈도이췰란드가 일시적으로는 강해보이고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고야만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의 소굴에서 순간순간을 조국과 함께 숨쉬고 조국의 래일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혁명적랑만에 넘쳐 싸워나간다. 독자들은 작품을 통하여 주인공의 이러한 숭고한 정신세계와 애국주의적감정을 뜨겁게 느낄수 있을것이다.

편 집 부

차 례

갈림길 (1941년 3～4월)

세번째 주패장 (1941년 6월)

갈 림 길

(1941년 3～4월)

모든것을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한다

월헬름거리에 있는 외무성청사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출판과장 슈미트의 주관하에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이날도 기자들은 모두 시간전에 모여들었다. 군인들처럼 자세가 꼿꼿한 접대원들이 묵묵히 손님들에게 맥주와 더운 쏘쎄지를 날라왔다. 1941년 봄 베를린에서는 이런 식료품들이 엄격히 구매권에 의하여 배당되였다. 대양너머에서 온 타산이 밝은 기자들, 스칸디나비아사람들, 에스빠냐사람들, 스위스사람들은 회견에 참가하여 푸짐한 성찬을 들면서 맥주와 육류표를 여분으로 남기였다. 좀 멀리 떨어진 커다란 이딸리아식 창문옆에는 아랍사람들과 일본사람들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이슬람교성전은 역시 이슬람교성전이여서 아랍사람들은 돼지고기쏘쎄지냄새에 골살을 찡그렸다. 그런가 하면 일본사람들은 사나이답지 않게 기름진 쏘쎄지를 먹겠다고 남을 밀치거나 뜨거운 음식을 입에 넣고 쉬쉬 소리를 내며 혀로 그것을 이리저리 굴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자제하고있는것 같았다.

슈틀리쯔는 모스크바에서 온 두명의 기자들을 호기심을 품고 주시하였다. 그들은 미국기자들과 유럽기자들속에 섞이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특별히 띄지 않으려고 애쓰고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남먼저 쏘쎄지를 집어먹으려 하지 않았고 접대원들이 되돌아오기전에 맥주잔을 비우고 또 새잔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나니 오히려 사람들의 무리속에서 유표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해수욕장에 옷을 입고 서있는 사람들을 방불케 했다.

(아마 사람들의 눈에 류다르게 보이지 말라고 지시를 준 모양이지.)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점잖게 행동하라.》이렇게 이야기해준것 같애.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어울려보지! 눈에 띄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밀치면서 쏘쎄지도 집어먹지 말고 동료의 잔등에 거품이는 맥주방울도 떨구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헤집고 오스테르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는 다른 기자들보다 아는것도 많고 겝벨쓰와도 가까운 사람이다.)

슈미트는 옆문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기자들은 출판과장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면서 긴 책상쪽으로 몰켜갔다. 다만 미국기자들만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바라볼수 있게 창문쪽으로 물러났다. 그들은 슈미트가 발언을 마치고 제기된 질문에 대답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얻어듣군하였다. 이런 때 두세명의 도이췰란드기자들이 의례히 서면으로 슈미트에게 질문을 제기하군하였던것이다. 미국기자들은 제기된 질문을 미리 준비한 출판과장 슈미트의 대답과 대조해보고 히틀러의 당면한 대외정책방향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예측을 내렸다.

제국안전총국 6국장 쉘렌베르그는 도이췰란드첩보기관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기자들과의 접촉을 위해 슈틀리쯔에게 이러루한 기자회견에 참가하라는 임무를 주군하였다. 슈틀리쯔는 기자회견에 오면 우선 벽에 걸려있는 지도에 눈길을 돌리군하였다. 출판과장 슈미트의 보좌관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도를 내다걸어놓군하였던것이다. 지도는 보기만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였다. 도이췰란드의 갈색반점이 전유럽을 뒤덮고있었다. 뽈스까, 체스꼬와 슬로벤스꼬, 오스트리아, 단마르크, 노르웨이, 벨지끄, 네데를란드, 프랑스령토는 진한 갈색으로 표시되여있고 마쟈르, 로므니아, 벌가리아는 3국동맹에 들어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밝은 갈색으로 칠해져있었다. 알바니아, 그리스땅은 진한 암갈색으로 보기 흉하게 표시되여있었다. 거기서는 이딸리아가 전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유럽에서의 파쑈도이췰란드의 지배적역할은 화가가 가련하고 호젓하게 그려넣은 자그마한 영국과 멀리 떨어져있는 로씨야에 의하여 더욱 두드러져보였다. 헌데 로씨야는 도시들과 도로들이 표시되여있는 영국과 달리 길도 없는 황량한 흰 공간에 모스크바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여있을뿐이였다. 슈미트는 그의 부하들이 준비해준 발언원고를 눈도 떼지 않고 내려읽었다.

《영국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투는 전전선에 걸쳐 벌어지고있습니다. 거만한 영국이 자기의 모든 식민지들에서 손을 뗄 그날도 오라지 않을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런던과 인디아를 련결해주고있는 태줄과 같은 수에즈운하가 동강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원료와 예비물자, 식량이 고갈되게 될것입니다. 이 섬나라사람들의 파멸은 이미 결정된 문제이며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입니다. 금년봄과 여름에는 영국이 우리가 제시한 항복조건에 서명한 후부터 유럽에 평화가 도래할것입니다. 그리스와 알바니아에서의 전투는 위대한 무쏠리니군대의 승리적전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슈틀리쯔는 히틀러가 민족사회주의사상에 대하여 《20세기의 발견》으로 대하도록 세계를 강박한 때로부터 유럽이 얼마나 단합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제 슈미트가 지껄여댈것이라는것을 알았다. 또한 슈틀리쯔는 슈미트가 연설에서 《일반리론대목》이 지난 후에 미국을 공격할것이라는것도 알고있었다. 물론 그는 루즈벨트라든가 백악관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을것이다. 슈미트는 위대한 유럽문명을 질식시킬 목적으로 금융자본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고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대하여 말할것이다. 슈틀리쯔는 이런 이야기를 한두번만 들어온것이 아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온 미국기자 제임스 킬스비를 곁눈질해보았다. 게스타포는 그제 이 미국기자가 로씨야기자와 진행한 담화를 몰래 도청하였다. 킬스비는 유럽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조심성이 없었다. 그는 로씨야기자에게 히틀러가 다음 타격대상으로 준비하고있는 나라는 로씨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기자는 이것은 도이췰란드군대내에 있는 자기 동료들한테서 들은 말이라고 했다. 슈틀리쯔는 지금 게스타포가 킬스비의 모든 접촉에 대하여 감시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로씨야기자는 쾌활하고 능숙하게 미국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킬스비에게 로씨야에 유명한 《오. 게. 게》라는 통신이 있기는 한데 그 통신의 보도에 대하여서는 조심스럽게 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국기자는 자기는 따쓰통신사외에 그 어떤 로씨야통신에 대해서도 아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적어넣으려고 수첩을 꺼냈다. 그러자 로씨야기자는 하하하 웃으면서 《오. 게. 게》통신이라는것은 《한 아낙네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는 보도원천이 믿을만하고 공식적인것이라야 새 소식으로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씨야기자는 도이췰란드에서 3년째 살고있어 행동이 나무랄데없이 자연스러웠고 억양도 정확

했다.
《슈미트씨.》 로스안젤스에서 온 미국기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럽중심에는 스위스를 내놓고도 중립을 지키고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유고슬라비아를 념두에 두고있습니다. 앞으로 베를린과 유고슬라비아사이에 최고위급회담이 있게 될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회담이 진행될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슈미트의 대답이였다. 《유고슬라비아와 우리와의 관계는 호상존중과 완전한 신의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중립이 베를린에 유익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미국기자가 계속하여 물었다.
《스웨리예와 스위스의 중립은 베를린의 마음에 들고있습니다.》 슈미트가 대답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친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중립은 도이췰란드군대의 로므니아, 벌가리아진입과 관련하여 발표한 쏘련외무상 몰로또브의 각서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미국기자 킬스비가 조용히 물었다.
《킬스비씨, 난 이미전에 당신이 도이췰란드제국에서 동요하기 쉽고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전사업을 진행하려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말한바가 있습니다!》 슈미트가 말하였다.
(우리 기관에서는 슈미트에게 킬스비는 추방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었지.)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슈미트씨, 나는 공식적인 자료에 대하여 언급하고있습니다.》 킬스비의 대답이였다. 《일부 스위스신문들은 유고슬라비아의 중립이 제국정부와 크레믈리사이에 각서가 교환된 후에 가능하게 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로씨야와 우리의 관계는…》 슈미트가 대답했다. 《진실한 선린관계로 특징지어져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벌가리아, 로므니아진입은 이 나라 군주들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된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또 물을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이췰란드는 언제 공격을 개시할것인가?)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도이췰란드는 이 봄에 공격을 개시할것이다. 왜 우리는 침묵을 지

키는것일가? 왜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을가? 유고슬라비아가 중립을 포기하면 발칸반도로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 전전선은 히틀러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왜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있는가?)

슈틀리쯔에게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자신과 이야기하고 제기된 질문에 대답해보는것이였다. 이 습관대로 그는 자신에게 말하였다. 1941년 봄에 조성된 세계정세는 그 어떤 행동, 더우기 대외정책상 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예고했다. 그것은 도이췰란드측에서 불가침조약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현상이 없었던만큼 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행동이 성급한것으로 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슈틀리쯔는 히틀러가 조만간에 자기 조국을 침공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충돌을 최소한 지연시키는것이 쏘련에 유익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자명한 리치였다. 앞으로 있게 될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스크바와 베를린의 통계기관들이 강철, 선철, 원유, 석탄생산과 같은 계획수행자료들을 보도하면서 출판물에 싣고있는 수자들에 의하여 달성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 랭담한 수자들은 미래의 승리자를 규정해주고있었다. 헌데 아직은 이 수자에서 앞선것은 쏘련이 아니라 도이췰란드였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자기 나라의 예비가 도이췰란드에 비교할수 없으리만큼 크며 궁극적으로 전쟁의 결말은 이 예비가 결정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슈틀리쯔는 전유럽이 베를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것을 겁나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첫 인상에서 오는 공포심일따름이였다. 이러한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정세를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분석해보면 결론이 저절로 나온다. 민족사회주의사상을 배격하고 강점된 조건에서 자기 힘에 맞게 도이췰란드군대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통일은 날이 갈수록 나치스도당에 대한 강력한 항전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초기에는 항전이 소극적으로 진행될수도 있겠지만 점차 그것은 무장투쟁으로 적극화되여갈것이다. 그러면 히틀러는 군대를 리용하여 강점된 땅들을 유지해보려고 날뛸것이며 도이췰란드후방은 불안정하고 나치즘의 정신과 실천을 적대시하는 곳으로 되고말것이다.

슈틀리쯔는 정세를 분석도 하고 자기 론리를 검토하고 재검토하며 자기자신과 론쟁도 하면서 이 모든것을 터득하였다. 그러나 순간이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또다시 이 증오스러운 갈색지도와 로씨야

지도의 흰 공간에서 모스크바를 표시한 동그라미를 보니 불안스러웠다. 지금처럼 리성에서 벗어나 공포심을 느껴본 때가 없었다. 동시에 관현악의 모든 음향이 순간에 사라지고 《당신들은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는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게 아닌가! 당신들은 전쟁이 곧 터질것이라는것을 알고나 있는가?! 당신들은 전쟁준비를 하고있는가?! 당신들은 전쟁을 기다리고있는가?! 혹시 우리 국경은 조용할것이라고 믿고있는건 아닌가?!》라는듯한 표현할수 없는 질문들이 밀려오는것만 같았다. 이것은 자기에게가 아니라 조국에 묻는 말이였다.

…슈틀리쯔는 파란 색갈로 사랑의 신(로마의 신화에 나오는)을 형상한 나뽈레옹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지은 외무성건물에서 나와 자기 《호리흐》를 타고 자그마한 카페 《거치른 고틀리브》로 향하였다. 거기서는 완고한 전통의 나라, 도이췰란드에서 이미 습관된대로 두배짜리가 아닌 잔으로 꼬냐끄를 마셔도 누가 주시할 사람이 없었다.

미국기자들은 슈틀리쯔에게 피로와 휴식이라는 한가지 흥미있는 경험을 가르쳐주었다. 즉 피로를 느낄 때면 20일동안 산중에 들어가 홀로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지내라는것이다. 슈틀리쯔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러나 《거치른 고틀리브》에는 갈수 있었다. 거기 가면 꼬냐끄를 마시고 주정하는 소리, 손풍금과 바이올린의 구슬픈 선률이 들려오는 창문가에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있을수 있었다. 거기 가면 온몸에 온기가 퍼져가는것을 느낄수 있었고 차겁고 남의것처럼 무감각해버린 손가락끝에 다시 생기가 회복되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쯔웨뜨꼬위치수상은 팔굽이 저려나는것을 느꼈다.

(조카녀석과 장난할 때 힘줄이 켕겨났던가보지. 이 모든것이 끝나면 두브로브니크에 가서 일광욕을 해야겠다. 그러면 안마나 고주파 전기치료를 받지 않고도 나아질거야.)

그는 코안경을 끼고 도이췰란드어, 이딸리아어, 일본어, 쓰르비아어로 작성된 문건을 훑어본 다음 네부에 각각 서명하였다. 그리고는 도이췰란드외무상 립벤트롭프, 이딸리아외무상 치아노, 일본외무상 오시마해군제독 등이 자기처럼 묵묵히 유고슬라비아를 3국동맹에 합류시킬데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기를 기다리며 넓다란

방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는 조형장식을 한 높다란 천정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는 《사랑의 신》의 흐리멍텅한 눈과 눈길이 마주치자 다섯살난 조카 멀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싸움군》녀석은 털로 짠 농촌주단을 씌운 쏘파에서 그와 장난하기를 즐겨했다. 이 주단은 벌가리아수상 게오르기예브가 선물로 보내온것이였다.

(젠장,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담?!)

쯔웨뜨꼬위치는 옆에서 누가 자기 생각을 듣기라도 한것처럼 겁을 먹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순간에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단말인가?!)

쯔웨뜨꼬위치수상은 이 3월 한달동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유고슬라비아의 빠벨국왕을 만났을 때 히틀러는 마치 살갗이 아픈가 검열이라도 하듯 새하얀 오른손 주먹으로 왼팔을 련속 두드리면서 안절부절 못했었다. 그러다가 유고슬라비아대표들의 머리우로 눈을 들어 한마디한마디 씹어뱉듯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두주일을 더 기다릴수 있소! 문제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는데 있소! 유고슬라비아는 군사동맹에 들어오면 전쟁을 피할수 있을것이요. 그러나 중립을 지키려 한다면 나는 관계를 끊어버리고말것이요. 친선협정을 체결하자는 당신들의 제의는 받아들일수 없소.》

쯔웨뜨꼬위치수상은 브레흐테스가덴에서 이 담화가 있은 후 도이췰란드땅크들이 벌가리아에 진입하고 유고슬라비아국경에 달려들었던거며 벌가리아대사가 쏘피아의 이러한 양보는 어쩔수 없는것이였다고 주눅이 들어 설명하던 일을 회고해보았다.

그는 또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온 루즈벨트의 특사 도노완대좌가 그의 사무실에서 호통치던 일을 기억하고있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3국동맹에 가입하면 당신은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길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을것입니다!》

쯔웨뜨꼬위치는 바로 그날 베오그라드에 날아든 영국 안톤 이든외무상의 얼굴을 눈앞에 보는듯했다.

영국외무상은 이렇게 력설했었다.

《히틀러와 결탁하는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전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히틀러를 격멸시킬것입니다! 미국의 힘과

승리에 대한 우리의 신심은 간악한 전쟁광신자들을 이겨낼것입니다! 당신은 그때 유럽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쳐다보려고 그럽니까, 수상각하!》

이 모든것은 환영처럼 쯔웨뜨꼬위치의 눈앞을 스쳐지나갔다. 그는 솟구쳐오르는 한숨을 겨우 누르고 발칸반도의 정세를 변화시켜줄,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에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멀리 한옆에서 자기가 자기를 주시하고있는듯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감득했다. 그는 문득 왼쪽 발뒤축이 죄여드는것을 느끼고 점심식사후에 스담관을 예방하기 위해 제때에 마늘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스담관으로 하여 그의 생각은 이상하게도 쉽사리 다른 문제로 옮겨갔다. 쯔웨뜨꼬위치는 빠벨국왕이 로씨야망명자 밀류꼬브와 마지막으로 만난데 대하여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로씨야망명자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보스포라스해협과 다다넬해협문제가 전유럽적인 위협으로 될것이라고 슬프게 이야기하였었다. 어느덧 그의 사색은 요한 슈트라우스에 대한 생각에로 번져갔다. 쯔웨뜨꼬위치는 어찌하여 지금 슈트라우스를 추억하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리해해보려고 애쓰면서 얼굴을 찌프렸다. 그는 원작곡가의 얼굴이 눈앞에 그처럼 생생히 떠오른것은 닷새전 미국대사관에서 그라우스가 주역으로 출연하는 새 영화 《대원무곡》을 돌렸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서명의식이 끝나고 가스트네르라고 하는 기자가 첫 사진을 찍었는데 촉각이 예민한 영국기자들이 쯔웨뜨꼬위치의 이마에 생긴 주름살을 베를린의 《가혹한》외교로 궁지에 빠진 유고슬라비아수상의 비극적인 고뇌의 표시라고 론평하였었다.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바로 이 사진밑에 도이췰란드외무상 립벤트롭프가 의정서에 조인한 후에 한 말이 진한 활자로 두드러지게 찍혀있었다. 거기에는 《오늘부터 발칸반도에는 더이상 중립국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싼데이》통신은 이 사건을 크게 론평하면서 《1941년 3월 25일 기이한 력사적사건이 발생하였다. 히틀러는 슬라브국가들을 본질에 있어서는 반슬라브족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슬라브족들의 요람인 로씨야를 반대하는 반공군사동맹의 참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전하였다.

유고슬라비아를 히틀러의 동맹국으로 만들어버린 원협정이 서명된지 40분 지나 영국대사 켐벨의 구식 《롤스-로이스》가 베오

그라드외무성청사옆에 서서히 멎었다. 전통적인 까만 나비넥타이에 줄간 회색바지를 입은 강마르게 생긴 켐벨대사는 외무상에게 유고슬라비아의 군사동맹가입을 반대하는 영국정부의 항의각서를 제출하였다.

원문건이 서명된지 한시간반 지나 미국무장관의 보좌관 웰스는 유고슬라비아대사를 불러 그에게 루즈벨트대통령의 서한을 전하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었다.

《유고슬라비아정부가 전반적인 자유를 위해 싸우고있는 영국, 그리스의 리익에 배치되는 협정에 서명한다면 나는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지 않을수 없고 동시에 미국의 대유고슬라비아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웰스씨, 미국은 멀리 있지만 도이췰란드는 지척에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대사의 말이였다.《당신들의 담보는 빈말에 불과하지만 히틀러씨의 담보는 현실적이지요. 그리고 협정은 이미 서명되였습니다.》

영국수상 쳐칠은 수척해진 얼굴에 조소를 머금고 태연하게 윈에서 날아온 소식을 받아들였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한결 젊고 건강해보였다. 지금은 평소의 부종도 없었다. 쳐칠은 서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세가 악화될수록 더 좋소. 물론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좋소. 외무상에게 바로 지금이 행동을 개시할 때라고 알려주오. 그가 베오그라드의 손맥을 짚고있지 않소.

그의 사람들이 우리 유고슬라비아친구들을 도와주도록 해야겠소.》

쳐칠은 책상에서 일어나 넙적한 바지띠를 고쳐매며 뒤뚱뒤뚱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모든 도이췰란드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히틀러는 질서를 문건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하오. 히틀러에게는 단지 자기를 신봉하는 쯔웨뜨꼬위치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자기앞에 굽신거리며 조약에 서명하는 그런 쯔웨뜨꼬위치가 필요할거요. 하지만 히틀러가 발칸반도사람들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 강한가 하는것은 타산못한것 같소. 우리는 이것을 리용하여 그의 코대를 꺾어놓아야 하오.》

영국특수정보국장 히유 달톤은 30분 지나 베오그라드주재 영국대

사관 서기관 톰 매스터슨에게 《공작을 개시할것!》이라는 암호전문을 날렸다. 그리고 그날로 베오그라드에 있는 영국인들은 유고슬라비아의 미르끄위치장령을 만났다.

히틀러는 외무상 립벤트롭프의 보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에 다가가며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싸움을 벌리려고 하오. 우리 부대들이 4월 첫주에 그리스에서 영국군대의 저항을 짓뭉개버린 후에 우리는 력량을 총동원하여 로씨야국경에 진출할것이요. 쓰딸린이 살아남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그것은 아드리아해로부터 발뜨해에 이르는 전유럽이 오늘부터 민족사회주의와 나의 지시에 복종하게 되였기때문이요. 립벤트롭프, 난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오. 나는 유고슬라비아를 굴복시킨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가 하는것을 알고있소. 그것으로 하여 성과는 더 커졌다고 볼수 있소. 당신이 자그레브를 강제로 분리시키고 흐르바쯔까독립국을 세우려는 흐르바쯔까분립주의자들을 리용하여 쓰르비아패권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한것이 은을 냈소. 슬라브족들끼리 싸우게 만든건 잘한 일이요. 거대한 로씨야를 고립시키는 길도 바로 이 길이요!》

히틀러는 고뿌에 물을 부어 한모금 마시였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비껴갔다. 서방출판물들에는 이 야릇한 미소에 대한 혹평이 자주 실리군하였다. 히틀러는 서기국에서 그를 위해 자그마한 흰색 광택지에 이 론평들을 추려서 작성한 자료를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다.

거기에는 《압제자의 미소》, 《선량한 천사놀음》, 《정치배우의 추악한 몰골》이라고 씌여져있었다. 그는 자기의 의사나 욕망과는 관계없는 이 야릇한 미소가 언제 무엇때문에 떠오르는가 하는것을 알고있었다.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는 순간이면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인간은 열렬하고 숭고한 사랑속에 파묻히군하였다. 그는 때때로 수많은 영화화면들과 산원이며 사무실이며 체육행사장이며 침실이며 맥주집 등에 걸려있는 수천개의 초상화들에서 보는 자기가 자기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군하였다. 오래전의 구겨진 회색양복저고리를 입고있던 굶주린 자기를 보는듯했다.

때가 오면 쓰르비아사람들은 북빙양으로, 프랑스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체스꼬사람들은 깜챠뜨까쪽으로 떠나갈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후날에 있을 일이고 지금은 모든 손가락들을 억센 주먹에, 다시

말하여 한때 빼빼마른 몸뚱이와 이마에 내돋힌 누르끼레한 여드름과 까풀로 만든 목깃을 덧댄 어지러운 와이샤쯔때문에 부끄러워하던 자기, 히틀러의 억센 주먹에 틀어쥐여야 한다. 그를 어찌 숭배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는 민족사회주의교리로 분칠한 자기의 복수주의사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오늘 도이췰란드의 구세주로 되여 아득히 올려다보이는 그 모습을 어찌 숭상하지 않으랴?! 서유럽을 굴복시킨 히틀러앞에 과연 머리숙여 인사하지 말아야 한단말인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처럼 열렬히 사랑해주겠는가!

마체크부수상은 자기 서기 쇼흐에게 《도이췰란드무역대표부》에 대한 공작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있는 비밀경찰의 대좌 웨지치를 불러오라고 일렀다. 마체크는 대좌의 름름한 체구와 잘 다듬어놓은듯한 미끈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나서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의 커다란 책상에서 물러나 손님과 마주하여 쏘파에 편안히 주저앉았다.

《대좌, 나는 당신이 재능있는 일군이라는 말을 들었소.》 마체크가 먼저 말머리를 뗐다. 《그래서 당신과 단둘이 비밀이야기를 해볼가하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3국동맹에 가입하는 문건에 서명했다는것을 알고 있을테지?》

《알고있습니다. 방금 윈에서 그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는?》

《아닙니다. 도이췰란드에 저의 믿음직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그곳 이단자들을 대표하는건 아니겠지?》

웨지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요원들은 전적으로 존중할만한 사람들이며 나에게 충실합니다.》

《당신의 대답을 전적으로 진실한것으로 믿기엔 너무나도 정확히 꾸민감이 드오.》

《저는 통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웨지치가 말하였다.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우리가 3국동맹에 가입한 조건에서 통보자들과의 모든 련계를 끊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자신이 생각해보오. 자신이말이요.》마체크는 급히 얼버무렸다. 《난 당신네 정탐기관이나 국가들 호상의 문제를 놓고 당신을 가르치려 하지 않소. 나는 다른 문제로 당신을 불렀던거요.》
《말씀하십시오, 각하.》
《베오그라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자그레브에는 공산분자들이 눈에 띄게 되살아나고있소. 당신은 케르쇼바니, 아쥐야, 쩨싸레쯔라는 성을 놓고 뭔가 생각되는바가 없소?》
《그건 다 알려진 이름들입니다. 흐르바쯔까사람들은 자기 문학을 사랑하고있지요.》
마체크는 다시한번 웨지치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움직일줄 모르는 검고 큰 눈, 억세게 생긴 턱, 젊은 얼굴과는 대조를 이루는 관자노리부근의 잔잔한 주름살…
마체크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 생각에는 도이췰란드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것 같소?》
《십중팔구 그 사람들을 〈도주〉하게 만들어놓고 총살해버릴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향시켜보려고 하겠지요.》
《당신은 미리부터 이 사람들을 협력해나서도록 할수 없다고 생각했소?》
《누구와 협력한단 말씀입니까?》
《우리와말이요.》
《저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싶습니다, 부수상각하.》
《유감이요. 난 당신이 도이췰란드사람
들이 적용하고있는 이단자들과의 공작방법을 알고있기에 궁지에 빠져있는 문학가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생각했소.》
《부수상각하, 그처럼 높이 신임해주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속이고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고수할줄 아는 사람들이라는것을 각하께 여쭈고싶습니다.》
《난 당신네 비밀경찰일군들이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오.》마체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을 알게 되여 매우 기쁘오, 웨지치.》
웨지치는 자기의 여윈 손에 흐르바쯔까수반의 부드럽고 나긋한 손을 감촉하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쥐고나서 묵직한 참나무로 된 출입

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기의 등뒤에 근시인 마체크의 시선이 날아와박히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그 길로 출판사 편집국장 브지크를 찾아갔다.
《안녕하십니까. 난 편집국장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하고 웨지치는 녀자서기에게 말하였다.
《브지크씨는 안계셔요. 오늘은 올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야단이로군.》 웨지치는 고개를 저었다.
《국장이 어디에 계십니까?》
《전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오늘 매우 바쁘셔요.》
《여기서 댁에 전화를 좀 걸수 없을가요?》
《댁에 전화를 거시려는건가요, 아니면 브지크씨에게 거시려는건가요?》
《브지크씨에게 하려고 합니다.》
《브지크씨의 부인은 집에 안계셔요.》 서기는 상긋이 웃고나서 길다란 손으로 자기의 동실한 무릎을 탁 쳤다.
《집에 전화를 걸 필요가 없나봐요.》
(브지크가 잘못된것인가, 아니면 이 녀자가 남의 일에 강건너 불보듯하는건가?) 웨지치는 쓸쓸한 생각에 잠겨들었다.
(이건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이라니까. 살기는 제각기 따로 살고있지만 짐승들처럼 무리로 죽고있거든.)
《댁에 전화도 걸지 않고 브지크씨를 기다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질없는짓일것 같습니다. 그대신 내가 당신에게 이걸 두고가지요.》
웨지치는 자그마한 책상우에 청자색투명지로 싼 쵸콜레트과자를 올려놓았다.
브지크는 자그레브에서 웨지치대좌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가 없었다. 웨지치는 마체크부수상의 사무실을 나선 때로부터 온몸에 피곤이 엄습하였으나 지금에야 그것을 느꼈다.
그는 편집국에서 나와 전화를 걸려고 카페에 들렸다.
《라다.》 웨지치는 조용히 말을 뗐다. 그는 웬일인지 부지중 송수화기가 신비하게 생각되였다. 새까만 구멍에 대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3키로메터 떨어진 저쪽 끝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직하고 선량한 라다가 그 말을 듣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를 못견디게 보고

싶었다.
《제가 어디로 갈가요?》
《나도 바로 당신이 어디로 왔으면 좋을지 생각중이요.》
《당신은 저를 시내에 있는 집에서 만나고싶어요? 아니면 카페에서 만나고싶어요?》
《사람은 청혼이 너무 많이 제기되면 어느 하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오. 욕심이 그렇게 많거든. 하기에 사람에게 영원히 선택의 자유를 주지 말아야 하나 보오.》
《보매 당신은 저를 그리 보고싶어하는것 같지 않군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게 틀림없는데 속이지 마세요.》
《그것도 역시 옳은 말이요. 좌우간 거리에 나와서 나를 기다려주오. 내가 곧 가겠소.》
웨지치는 멀리에서 라다를 알아보았다. 그의 주홍색머리는 비에 젖은 검은 잡관목속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건초더미같아보였다. 흐르바쯔까사람들은 대체로 머리칼이 검고 금발머리는 드물었던것이다. 주홍색머리는 더욱 적었다.
웨지치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라다의 손을 덥석 쥐고 성큼성큼 걸음발을 옮기며 자기한테로 이끌었다. 두사람이 저마끔 용모가 아름답고 나란히 조화를 이루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동이 우스워보일수도 있었을것이다. 세상에 우스운 일이 어디 한두가지인가, 이처럼 조화가 맞기는 정말 드문 일이다.
웨지치와 라다는 옛도시근방의 시장에 와서 사람들의 물결속에 묻혀버렸다.
두사람은 정신이 멍멍하여 사람들속을 헤집고 돌아갔다.
《꽃을 사달라오?》 웨지치가 물었다.
《그렇게 하세요. 헌데 이건 작별을 의미하겠지요?》
《어째서말이요?》
《모르겠어요. 그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실없는 소리요.》 웨지치는 큼직한 설죽화꽃다발을 하나 사들었다. 붉은꽃과 흰꽃으로 된것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이 《상품》이 밤중에 이딸리아에서 배로 몰래 실어온 밀수품이라는데 주의를 돌렸다. 그러고보니 배의 뾰족한 이물밑에 사락사락 자갈이 닿는 소리, 봄날의 새벽안개속에서 들려오는 달마찌아사람들의 속삭임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어리석은 생각을 믿지 마오. 꽃은 언제 봐도

아름답거든.》
《좋아요,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을 믿지 않겠어요.》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겠소?》
《가자요.》
《당신은 커피를 어디서 마셨으면 좋겠소?》
《그럼 당신은?》
《난 당신이 마시자고 하는데서 마시겠소.》
《어디든 좀더 멀리 가자요.》하고 라다는 말하였다.《나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대좌씨는 필요없는 뒤소리를 듣지 않으려거든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요.》
《뒤소리도 필요하오.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소. 우리에게 있어서 뒤소리는 가치와 량과 무게를 가진 상품의 형태를 의미하는것이요.》
《바로 그래요.》 라다가 말하였다. 《머리를 좀 수그려요.》
웨지치가 머리를 숙이자 라다는 그의 볼에 자기의 입술을 가져다댔다. 그것은 그 녀자의 손처럼, 라다의 온몸처럼 부드러웠다.

유고슬라비아수상 쯔웨뜨꼬위치는 아침 10시에 베오그라드에 도착하였다. 그가 탄 기차는 중앙역에 멎지 않고 베오그라드교외에 있는 똡치데르역홈에 와서 멎었다. 그는 윈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시간가량 부다뻬슈뜨에 머물렀었다. 쯔웨뜨꼬위치는 자기를 맞이한《반공조약국》대사들을 거의 떠박지르다싶이 떼여버리고 자기 나라 공사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국내형편은 어떻소? 무슨 새소식이 없소? 난 기차에서 정신이 돌지경이였소.》
《국내에서는 모든것이 제대로 되여가고있습니다. 각하, 마쟈르 젤레끼수상이 각하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외무상 미르꼬위치가 그와 만나라고 하오. 난 지금 누구와도 만날수 없소. 누구와도.》
《젤레끼수상이 당신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리려고 하고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미안하게 되였다고 량해를 구하오. 나는 베오그라드로 가겠소. 어쩐지 이상한 예감이 나를 괴롭히고있소.》
쯔웨뜨꼬위치는 똡치데르역에서 내려 자기 《롤스－로이스》에 타지 않고 어느 한 호위차에 앉아 운전사에게 궁전으로 가기전에 시

내를 한바퀴 돌라고 일렀다.

거리에는 카페와 영화관옆들에 사람들이 몰켜있었다. 수상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있었고 시름없는 얼굴로 무슨 이야기를 재빨리 주고받고있었다. 젊은이들은 처녀들의 부드러운 어깨를 껴안고 걸어갔다. 나무잎새들은 윈에서 본 나무순파는 달리 밝은 해빛에 검푸른 색갈로 보였다.

(마침내 일이 제대로 되였나보군.) 쯔웨뜨꼬위치는 안도감을 느꼈다. (정치에는 행동만이 중요해. 감정이란건 한달만 억누르면 한주일도 못되여 사라져버리지. 이제는 군중을 틀어쥐는것이 중요하다. 군중은 감정의 저축지거든. 력사는 내가 부득이하게 취한 행동에 대하여 용서해줄것이며 백성들은 우리 국경을 전쟁이 에돌아 지나간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할것이다. 정치인은 후대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으려면 모욕을 참을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로운 인간들이 바라고있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다.)

내무상은 수상관저에서 쯔웨뜨꼬위치를 기다리고있다가 방금 2시간사이에 정치경찰청에서 들어온 자료를 탁상우에 올려놓았다. 자료에 의하면 야당에 소속된 일부 장령들이 회합을 가졌고 공산당 지하조직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고있으며 알렉싼드르광장에 군중들이 모여 나라의 3국동맹가입에 관한 조약을 파기할것을 요구하다가 해산되였다는것이다. 그밖에도 영국정탐기관《인텔리젠스 써비스》와 련계를 가지고있는 영국대사관일군들이 유고슬라비아공군사령부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가졌다는것이 알려졌다.

《그래 어쨌단말이요?》 하고 쯔웨뜨꼬위치수상은 물었다. 《내가 시내를 돌아보았는데 사람들은 거리에서 따뜻한 봄날을 즐기고있었소. 우리가 공원이 추워서 젊은이들이 사랑을 속삭일수 없는 가을에 군사동맹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당신의 우려에 동조하였을수도 있었을거요. 소요는 가을이나 이른봄에 일어나는 법이요. 하지만 지금은 3월이요. 두브로브니크에서는 잠풍한곳에서 해별에 살갗을 태울수도 있을거요.》

정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쯔웨뜨꼬위치의 제1대리인이며 흐르바쯔까 수반인 마체크와 련결된 전화였다. 마체크는 유고슬라비아와 도이췰란드간의 친교를 제창한 주요인물의 한사람이였다.

《안녕하오, 나의 친구.》 쯔웨뜨꼬위치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소.》
《귀환을 축하합니다, 수상각하.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한 10년은 젊어진듯한 감이 드오.》
《부러운데요. 내 나이엔 그런 공간이 제한되여있지요.》
《거기 자그레브는 분위기가 어떻소?》
《한마디로 말해서 환희에 휩싸여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평화에 대한 담보를 받게 되였습니다.》
《헌데 여기서는 의심병이 심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있소.》
쯔웨뜨꼬위치는 내무상을 피끗 바라보고나서 안도감을 느끼며 말하였다.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있다고 나를 놀래우고있단말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어디 한사람이라도 말씀해보십시오.》 마체크는 말을 이었다. 《내가 이제 래일 발표될 신문제목을 알려주지요.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마체크는 초인종을 눌렀다. 이완 쇼흐가 방안에 들어왔다. 마체크는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우고 말했다.
《급히 가서 론설을 가져오오. 내가 베오그라드와 이야기하는중이요.》
마체크는 안경을 끼고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글줄을 헛갈리지 않게 하려는것이였다. 그는 시력이 점점 더 나빠져갔다.
《이제 곧 제목을 읽어드리지요. 이제 곧…》 마체크는 수화기에 대고 곱씹어말했다.
잠시후 서기 이완 쇼흐가 방안에 나타났다. 그는 출판관계에 대하여 책임지고있으면서 흐르바쯔까 수반이 주는 미묘한 과업을 수행하고있었다. 때로는 그중에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과업도 적지 않았다.
《〈발칸반도에서의 평화의 승리〉》 마체크는 천천히 기고만장하여 내려읽었다. 《〈력사적인 날 3월 25일을 이렇게 규정함이 마땅하리라 보아진다. 유고슬라비아의 3국동맹가입을 확증하여준 굳은 악수—이것은 도이췰란드제국과 유고슬라비아왕국사이, 다시말하여 중유럽과 남유럽사이의 영원한 친선을 의미한다!〉 이것은 〈흐르바쯔까년대기〉에 오르게 될것입니다.》 마체크는 자기 설명을 덧붙였다. 《이제 신문에 〈쓰르비아, 흐르바쯔까, 슬로베니아사람들은 쯔웨뜨꼬위치의 대담한 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리고있다. 위대한 도이췰란드의 위력은 오늘부터 영원히 자유와 독립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줄것이다.〉라는 표제의 글이 실리게 될것입니다.》

《고맙소.》 수상은 귀가 간지러운것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다. 《고맙소, 나의 친구. 베오그라드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페하는 조약비준이 성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소. 당신이 흐르바쯔까 수반으로서 의회에서 연설해준다면…》

《수상각하, 제가 첫 연설을 하겠습니다. 저는 회의론자는 아니지만 진정으로 다시한번 당신을 축하합니다.》

《잘 있소, 나의 친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쯔웨뜨꼬위치는 송수화기를 슬며시 내려놓고 내무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말을 되풀이했다.

《자그레브는 역시 자그레브입니다. 각하, 우리는 베오그라드에서 살고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수상의 서기가 소리없이 방안에 들어왔다.

《도이췰란드대사 헤렌씨가 전화로 찾습니다.》

《여기에 련결시켜주오.》

내무상은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대사는 수도의 형편에 대하여 물어볼겁니다.》

《그럼 무슨 나쁜 정세라도 도래했다고 생각하오? 》 수상은 놀랐다. 《나는 그런 정세를 목격하지 못했소. 그러고보니 내무상을 〈국가불안상〉으로 불러야겠소.》

일거에 벼락출세를 한 거의 모든 약자들이 그러하듯이 (쯔웨뜨꼬위치는 여섯해전만해도 꿰진 외투를 입고 친구들이 모아준 돈으로 신발을 사신고 다니였었는데 지금은 여기 서방에서 돈많은자들이 권세를 부리듯이 발칸반도의 백만장자가 되고 손에 권력을 틀어쥐게 되였다.) 유고슬라비아수상은 명백한 사실가운데서도 더 명백한것만을 볼줄 알았다. 그가 명백한것이라고 생각한것이면 그것은 아무런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하기에 쯔웨뜨꼬위치는 방금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거리에서 바리케트(그는 도이췰란드외무상 립벤트롭프에게로 떠나기 직전에 보좌관들로부터 바리케트를 없애버리자는 조언을 들었던것이다.)를 보지 않게 되자 아이들처럼 커다란

안도감과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어느 모퉁이에서 누가 군사동맹을 반대하여 떠들어대고 소요를 일으키는것은 부분적으로 있는 일이다.
바로 그것때문에 군대와 경찰이 존재하는것이 아닌가.

각료들은 공화국이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고슬라비아가 3국동맹에 가입한지 하루 지나서였다.
밤 2시 항공사령관 두샨 씨모비치의 부대들은 장령 미르꼬위치의 지휘하에 영국정탐기관《인텔리젠스 써비스》지도관들의 방조를 받으며 빠벨왕궁과 방송국, 통신사, 쯔웨뜨꼬위치수상 관저를 장악하고 어린 뻬뜨로 2세를 왕위에 올려놓았다.

아침 6시 총참모부 집무실에 정변에 참가한 모든 거두들이 모여들었다.
음모가들은 밤잠을 자지 못해 얼굴색이 푸릿푸릿했다. 우묵하게 꺼져들어간 눈들은 희붐히 밝아오는 새벽어둠속에서 류달리 차겁게 번뜩이였다.
씨모비치는 자기 전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중에는 베오그라드종합대학 교수이며 대쓰르비아철학가이며 열렬한 론쟁자이며 쓰르비아구락부 회장으로 전국에 알려진 슬로보단 요바노위치도 들어있었다. 씨모비치는 각이한 정당, 각이한 사회계층의 리익, 각이한 년령을 대표하는 자기 친구들을 다시금 평가나 하듯이 한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겨갔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민족—쓰르비아사람들이였다.
정변에 참가한 자기 동료들을 둘러보면서 씨모비치는 가장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사업을 분담해야 하며 가까운 앞날(그것은 몇달앞이나 더우기 몇해앞을 의미하지 않았다.)에 대한 정책을 작성해야 했다.
베오그라드에서 정권이 그의 손에 넘어가고 항공대장교들이 싸라예보와 쓰꼬쁠레에서 모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을 때 자그레브

의 정세는 여전히 모호했다. 흐르바쯔까농민당 당수이며 전 수상 쯔웨뜨꼬위치의 제1대리인이였으며 적극적인 베를린옹호자인 마체크는 자기 대리인 흐르바쯔까총독 슈바쉬치에게 모든 대화를 진행할데 대한 권한을 떠맡기고 자신은 침묵을 지키면서 전화도 걸지 않았다.

마체크의 태도에 많은것이 달려있었다. 그는 왕궁과 흐르바쯔까민족주의자들사이에서 일종의 완충기와 같은 역할을 놀고있었다.

흐르바쯔까민족주의자들은 쓰르비아로부터의 흐르바쯔까의 무조건적인 분리를 주장하고있었다. 헌데 마체크는 씨모비치가 생각하고있는것처럼 철저한 군국주의자로서 백성들앞에서 방송연설을 한 새로운 국왕을 반대하여나서지는 않을것이다.

뻬뜨로 2세는 쓰르비아와 흐르바쯔까의 통일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다.

씨모비치장령은 빠벨국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기 바쁘게 형식상의 동의도 없이 마체크를 자기 대리인으로 선포할 결심을 내렸다.이제는 이 결심을 확증해야만했다. 유고슬라비아국왕에 대한 흐르바쯔까사람들의 충실성의 상징으로 마체크를 어제날의 직위에 그대로 앉혀놓는것이 필요했다. 더우기 그는 오래전부터 베를린과 련계를 가지고있었으므로 지금 필요한 존재였다.

《제씨들, 나의 친구들.》 씨모비치는 웅글은 목소리로 말머리를 뗐다. 그는 밤새 주요교통지점을 장악한 부대지휘관들에게 전화지시를 주느라고 목소리가 몹시 갈리여 기침을 톺아올려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기침소리는 담배연기가 자욱한 이 방안에 깃든 엄숙한 분위기에 어울릴것 같지 않았다. 《제씨들.》 그는 목에 바싹 힘을 주어 같은 말을 곱씹었다. 목소리가 낮으면서도 위엄있게 울리도록 하자는것이였다. 《왕은 두시간전에 정권에서 물러났소. 여기 이 건물에서말이요. 쯔웨뜨꼬위치의 정부는 전복되였소.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군대가 아무런 저항에도 부딪치지 않고 자기 손에 정권을 장악하고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있소. 뻬뜨로 2세페하께서는 나에게 내각을 조직할것을 위임하였소. 그러나 여기에 각이한 정당대표들이 모인것만큼 나는 군주가 아니라 당신들의 수상재목감으로 될만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하오.》

《씨모비치!》

《두샨 씨모비치!》

《장령 씨모비치!》
《씨모비치!》
씨모비치는 가슴속에 치밀어오르는 싸늘한 랭기와 높뛰는 행복의 감정을 느끼며 한순간 눈을 감고 왼손으로 미간을 어루만졌다. 코안경을 바로잡느라고 그러는지 눈물을 훔치는지 딱히 알수 없었다. 간밤에 일어난 사변은 모두 뒤로 물러갔다.
이 사변은 두 측면을 가지고있었다. 그 한 측면은 력사에 기록될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씨모비치가 자기 친구 미르꼬위치로부터 《시작할 때가 됐소.》라는 짤막하나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해쓱해진 얼굴로 쏘파에 앉아 《아직 이르지 않소?》라고 조용히 말하던 그 순간으로서 그것은 잊어버려야만했다.
여섯시간전에 미르꼬위치가 그에게 《굼벵이! 겁쟁이! 계집년! 침대에 누워 내가 승리를 축하해줄 때까지 기다리게! 가서 녀편네 치마폭에 숨어있기나 하라구!》라고 한 말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되였다. 그리고 누구도 씨모비치가 의지력이 마비되고 무서운 허탈감에 빠져있다는것을 알아서는 안된다.
력사는 미르꼬위치가 아니라 바로 씨모비치가 전화로 수비대직일관에게 《내 이름으로 전달한 명령을 집행하시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있어야 한다.
그는 더이상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는 미르꼬위치가 쯔웨뜨꼬위치수상을 《뒤집어엎는》동안 온밤 쏘파에 앉아만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씨모비치가 명령을 내렸다는것을 알고있었고 명령이 그의 사무실에서 하달되였으며 첫말이 그의 방에서 울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력사에는 첫말이 남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미르꼬위치는 시내에서 질서를 바로잡고있으나 자기, 씨모비치는 내각을 조직하고있는것이다. 그는 다시한번 사람들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하였다.
《제씨들, 표결에 붙여봅시다. …전원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리치와 부디싸블레비치를 국방상과 내무상 후보자로 제기합니다. 반대가 없습니까? 전원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1대리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마체크에게 이 직위를 주면 반대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체크와 이 문제를 토론해보았습니까?》 츄브릴로위치가 물었다.

《마체크와는 항시적으로 련계가 취해지고있소.》

씨모비치는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는 자기가 이처럼 예리한 대답을 할수 있는데 대하여 온몸으로 긍지를 느꼈다. 이 대답에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방금 여기에서 벌어진 사변으로 하여 그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할수 없었다.

이것을 깨달은 상들은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씨모비치수상이 전적으로 옳게 대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위정부관리들의 의식속에 잠재하고있는 전형적인 권력만능주의가 첫순간 씨모비치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것을 승리로 간주하고있었으나 사실은 이것이 패배였다. 국가수반에게 《내 의견만 정당하고 다른 의견은 어떤것이든지 옳지 않다.》는 확신이 생기면 사업에 대한 토론보다 지시와 더 나쁘게는 명령이 앞서게 된다. 명령은 군대에서나, 그것도 일정한 순간에만 필요한것이다.

《수상각하.》밀란 그롤이 말하였다. 《7개나라 대사관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베오그라드에 주재하고있는 기자들이 질문을 들이대고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걱정케 하는 미지의 문제는 미래의 외무상문제입니다. 나는 현재 모스크바에 주재하고있는 대사 밀란 가브릴로위치를 후보자로 제기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영국의 오랜 벗인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대내외적으로 정치적력량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브릴로위치는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헌데 새 외무상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나라의 대외정책을 어디로 끌고가는가, 전쟁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평화의 길로 가는가 하는것을 즉시 세상에 선포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뚜빠냐닌이 말하였다.

《물론 평화의 길로 가야 하오.》 씨모비치가 대답했다. 《만일 이 길이 오늘밤중으로 막히지 않는다면말이요.》

《무슨 평화란말입니까!》뚜빠냐닌이 앙상하게 여윈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무슨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혁명의 참가자들이였습니다. 이 혁명에는 공민전쟁이 뒤따르기마련입니다!》

《나는 이것을 표결에 붙일것을 제기하오.》 씨모비치가 말하였다. 《우리 내각이 지금 이 방에서 즉시 평화정책을 선포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손을 쳐들어주시오. 반대가 두명이고 과반수가 찬성이요.》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미르꼬위치 한사람만을 믿고있습니다.》 꼬쓰띠치의 말이였다. 《평화를 수호하고 도이췰란드와 협정을 맺으려는 미르꼬위치를 외무상으로 선출하는것이 적절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쯔웨뜨꼬위치를 도루 제 자리에 앉혀놓읍시다!》 뚜빠냐닌이 소리질렀다. 《그리고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간밤에 우리가 롱질을 좀 했다고 이야기해줍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들게 아닙니까.》
《교수 닌치치를 외무상으로 제기합니다. 그는 국제법분야에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슬로보단 요바노위치가 말하였다. 《그는 어느 조직에도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이췰란드사람들도 그가 좌익세력들과 련합할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닌치치를 외무상 직위에 올려놓는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시련을 겪고있는 지금 이 복잡한 시기에 외무상의 이름이 평범하고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을수록 사업을 위해서는 좋을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당사자들이 그의 립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부의 립장으로 대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유고슬라비아주재 도이췰란드대사 폰 헤렌은 자기를 방문하여온 외무상 닌치치를 맞아들이였다. 이것은 내각이 형성된지 세시간후였다.
그리고 닌치치자신이 자기가 외무상으로 임명되였다는것을 들은지 두시간후였다.
외무상은 외교실천상의 규범에 어긋나게 대사를 자기한테로 부르는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대사를 찾아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것은 도이췰란드대사관에서 베오그라드를 공식방문한 베를린과학원 대표단을 환영하여 차린 연회때였다. 출판물에는 《친선과 선의의 방문》이라는 표제밑에 글이 실렸었다. 그때 대사는 닌치치에게 온갖 친절성을 다 베풀면서 그가 대학에서 강의를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의 팔을 정중히 부여잡고 베를린 손님들앞을 돌면서 그들에게 《유명한 유고슬라비아학자이며 도이췰란드제국의 오랜 벗》이라고 소개를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헤렌대사는 손도 내밀지 않고 불청객을 경멸에 찬 시선으로 쏘아보며 의자도 없는 방안에서 맞이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단행된 정변은》닌치치외무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쯔웨뜨꼬위치지도부의 그릇된 대외정책의 후과입니다. 그러나 대외정책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전 당국이 규정한 의무를 변함없이 준수할것입니다. 대사각하, 난 당신이 귀국정부에 쯔웨뜨꼬위치가 극단주의자들의 추동에 의해 임의의 순간에 폭발이 일어날수 있는 그런 지경에로 유고슬라비아를 이끌어갔다는데 대하여 통보하여주기 바랍니다. 씨모비치장령이 이끄는 새 내각은 발칸반도와 유럽에서 우리 나라에 부과되여있는 책임을 리해하고있는 세력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습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폰 헤렌은 시답지 않은 투로 말마디를 길게 끌며 말하였다. 《3국동맹에 대한 새 정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닌치치는 이 물음을 기다리고있었다. 헌데 그는 그렇게 인차 단도직입적으로 제기될것이 아니라 오래동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진행된 후 제기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는 의자도 없는 방에서 자기를 맞아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닌치치가 자기의 중요성정도를 아직 채 느끼지 못했다는 그것이 난관을 모면하게 해주었다. 그는 아직도 조국의 위신을 자기자신의 위신과 분리하여 생각하고있었다. 여기에 유익한 점도 있고 실패도 있었다.

《대사각하, 나의 정부는 군사동맹을 파기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쯔웨뜨꼬위치가 윈에서 서명한 그 비밀조약의 조항들을 알려줄것을 주장하는바입니다.》

폰 헤렌은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고있었다. 닌치치는 대사의 시선을 따라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서로 쬥고 까불며 재잘거리고있는 참새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좋습니다.》폰 헤렌의 말이였다.《내가 우리 정부에 이 담화내용에 대하여 통보하겠습니다.》그는 머리를 가볍게 숙이고나서 이제는 자기가 예견했던 시간이 지났다는듯 외무상에게 왼손으로 나들문을 가리켰다.

닌치치는 한순간 이런 환경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겠는가를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의 머리속에서는 모든 국제적인 의례규범이 날아나버렸다. 그는 지금에 와서야 그처럼 갑자기 자기에게 안겨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것을 느꼈던것이다. 그는 대사에게 머리숙여 인사하고나서 천천히 커다란 흰 나들문쪽으로 걸음을

옮겨가며 자기 등뒤에 날아와박히는 도이췰란드대사의 시선을 몸으로 느꼈다.

닌치치의 보고를 듣고나서 씨모비치수상은 즉시 미국대사 레인을 찾아갔다. 대사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하여 오래동안 손을 흔들었다.

《장령각하, 우리는 당신의 용감성에 감동되였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히틀러의 귀뺨을 전세계가 듣도록 맵짜게 후려갈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동되였습니다! 나는 오늘저녁에 베를린의 반응에 대하여 귀외무성에 통보하여줄수 있습니다. 나는 히틀러가 얼마나 미쳐났겠는가 하는것을 상상해보고있습니다.》

《우리를 치기 위해 자기들의 땅크들을 돌려세우겠지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사적행동이 개시되면 유고슬라비아왕국정부는 나의 조국의 가장 방대한 원조를 기대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떤 원조말입니까, 대사씨?》

《도덕적 및 물질적원조입니다. 씨모비치씨, 나는 미국에서 유고슬라비아의 금보유량에 대한 동결조치가 해소될것이라는것을 당신에게 확언할수 있습니다.》

《물질적원조는 어떤것을 말할수 있습니까?》

《가장 광범한 원조이지요.》

《나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조를 바랄수 있을것 같습니까? 내가 총참모부에 어떤 약속을 줄수 있습니까?》

《씨모비치씨, 내가 국무성에 즉각 문의해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당신에게 주지요.》

《그런데 가까운 시일내에 전쟁이 시작되면 어찌겠습니까? 그러면 원조가 늦어지지 않을가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미국대사는 잠시 생각을 더듬고나서 대답했다. 《제가 군사전문가들과 몇차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히틀러가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기전에 오래동안 생각을 해봐야 할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프랑스에는 그의 땅크들이 움직일수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산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벌가리아에 집중되여있는 륙군원수 리스트의 부대들이 지금 기대할수 있는것은 산악도로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히틀러에게는 땅크의

기동을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요. 슬로베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은 산간지대에 살고있습니다.

히틀러는 여기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장령씨, 당신들측이 우월하지요.》

《이것은 물론 론리적인 말입니다.》 씨모비치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론리에서 멀리 벗어난자입니다. 그는 히스테리환자이고 후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타격할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레인대사가 말했다. 《국가수반이 후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수반은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씨모비치는 의아하게 대사를 쳐다보았다.

《난 뻬뜨르 2세국왕폐하를 념두에 두었습니다.》

《폐하는 아직 어리지요.》 씨모비치는 다소 성난 목소리로 말하군하였다. 《폐하는 민족의 상징일뿐이고 진짜 국가수반은 나의 군대입니다.》

《훌륭한 답변입니다.》 레인대사는 금시 얼굴빛이 심각해졌다.

《그런 대답이 히틀러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즉 당신들의 견해에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단말이지요.》 씨모비치는 생각에 잠겨 되뇌이였다. 《당신의 이러한 추측이 그 어떤 자료에 의해 확증된것인가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히틀러가 당신들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개시하면 그리스－영국련합전선과 충돌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히틀러는 로씨야를 타격할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발칸반도에서 또 작전을 벌려놓으려 하겠습니까?》

《련합전선이라…》 씨모비치는 생각에 잠겨 곱씹었다. 《그러나 이 련합전선은 형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련합전선이 형성되면 우리는 히틀러에게 군사적행동을 개시할 구실을 주겠지요. 혹시 히틀러는 이것을 기다리고있는게 아닐가요?》

다만 정치를 위해 정치에 뛰여든 국가활동가들과도 같이 씨모비치는 단번에 여러판의 장기를 동시에 노는 장기군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든 주의는 하나의 장기판에 집중되여있었다. 그는 단번에 여러판의 장기를 놀려면 모든 장기판에 바싹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것을 잊고 장기판 하나에서만 쪽을 두었

다. 그는 《졸》들인 자기 겨레들이 좌익적인 견해를 표방한 죄로 수용소와 감옥에 갇혀있고 국민들이 한주일에 이틀은 고기음식을 못하며(최근 한달동안에 고기값이 껑충 뛰여올랐다.) 쯔웨뜨꼬위치에게 복무하여온 사람들이 히틀러도이췰란드와의 친선이 자기자신들의 행복을 담보해준다고 생각하고있으며 전인민적인 투쟁에 광범히 망라될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지하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있건만 어리석게도 《궁》만 가지고 놀고있었다.

사고에서의 착오, 《균형의 범주》에 대한 부정확한 리해,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경찰의 힘으로 조정할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것이 씨모비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였다. 그는 자기를 장기판에서 궁을 제멋대로 옮겨놓을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왕이 장기판에서도 생활에서도 상징적역할을 놀뿐아니라 장기선수의 마지막기대라는것을 몰랐다. 그리고 드센 공격과 믿음직한 방어를 보장하는것은 결국 《장교》나, 《땅크》가 아니라 《졸》이라는것을 몰랐다. 만일 평화시기라면 정치인이 직업상 일상사에서 유리되여도 어느 정도 변명할수도 있고 쉽게 고칠수도 있지만 전쟁전야에는 이러한 립장이 파멸적인 후과를 가져올수 있었다.

그것은 국가수반에게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들씌워질수 있었다.

이딸리아수상 무쏠리니는 매수와 음모, 당들 호상간의 비밀련합을 공개하고 폭로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국회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적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류혈적인 반란을 통해 정권에 들어앉은 사람들의 대개가 그러하듯이 다른 나라에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흉계를 꾸미는 모든 테로분자들과 정치망명객들에 대하여 공포와 감동이 뒤섞인 감정으로 대하였다. 공포를 가지게 된것은 그가 독재자로 된후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써먹던 구호들, 즉 《로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농민들에게 땅을, 세소기업가들에게는 상업을!》, 《우리 파시스트들에게는 정권이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인민의 자유와 행복이 요구된다.》라는 구호들을 잊어버린것이 원인으로 되였다.

무쏠리니가 독재자로 군림한 후 이 구호들은 금지되여버렸다. 자유에 대한 요구는 《인민재판정》에서 국가범죄로 락인되였다. 검사들은 피고들에게《수상이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또

무슨 자유에 대하여 공상하는가?》라고 묻군했다. 빠벨리치는 이딸리아에서 흐르바쯔까파쑈조직의 민족주의자들을 대표하면서 자기 책과 공개연설들에서 《유고슬라비아위정자들은 흐르바쯔까사람들을 계속 속이고있다. 그들은 〈자유〉를 모독하고 금지시키기 위해 자유를 선사하고있다. 위정자들은 나라에서 추방되여간 사람들을 유혹하여 끌어들인 다음 순진한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대사령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농민들에게 복무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에게서 한쪼각의 빵과 한모금의 포도주마저 빼앗아내려고 마지막즙을 짜내고있다. 베오그라드 위정자들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짓밟고있다. 그들은 자유를 무서워하기때문에 자유를 줄수 없다. 그들은 자유가 어떤것인지 모르고있다. 자유는 오직 유고슬라비아의 유일한 력량인 흐르바쯔까파쑈조직만이 알고있다.》라고 력설하였다.

무쏠리니는 빠벨리치의 방송연설을 듣거나 그의 발언들을 읽으면서 나라안에 자기 의사와 심히 배치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살고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한 말들은 《유고슬라비아》라는 단어를 《이딸리아》라는 단어로 바꾸어놓기만하면 당장에 독감방에 처넣어야 마땅할것이였다.

하지만 무쏠리니는 빠벨리치의 행동에 감동되였다. 그는 연설을 들으면서 자기 청춘시절을 그려보았다. 그것은 사회주의사상을 숭상하면서 청렴하고 황홀한 미래에 대하여 숭엄한 감정으로 그려보던 때였다. 그는 빠벨리치에게서 청년기의 자기를 보는것 같았다. 아니, 자기를 그렇게 꾸며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쏠리니는 국가활동가로 되자부터 감정을 눌러버려야 했다. 그는 자기가 먹여살려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수학자마냥 리익되는 점과 손해될 점을 현재는 물론 먼 미래까지 타산해보면서 대하였다. 그는 빠벨리치의 연설을 듣고 참을수밖에 없었다. 유고슬라비아와의 긴장한 관계가 필요한 시기에 린접국가인 흐르바쯔까수반으로 될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있을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빠벨리치는 쓰르비아에 대한 자기의 적대적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베오그라드에 친도적인 경향을 가지고있으나 이딸리아수상의 실천적행동에 감동을 표시한 사람이 정권에 들어앉은 이때 일종의 복수적인 희열을 느끼면서 빠벨리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것은 결코 흐르바쯔까파쑈조직두목의 연설이 국가

제도에 대한 은페된 비판으로서 국내야당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 아니였다. 그것은 유고슬라비아수상이 로마에 찾아와 알바니아, 그리스 등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을 자기에게 합병하려는 파쑈이딸리아의 리익을 고려한 협정에 서명하였기때문이였다. 무쏠리니는 사형결석판결을 받은 빠벨리치를 베오그라드에 폭로시키지 않고 다만 베네찌아에서 멀지 않은 자그마한 호화주택에 들게 하고 공개적인 연설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무쏠리니는 그를 폭로시킬수 있었을뿐만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여 이딸리아의 리익에 배치될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 흐르바쯔까사람에게 은근히 품고있는 호감이, 그에게서 바로 자기를, 젊고 아직은 순진한 자기를 비춰보는 그것이 빠벨리치를 죽음에로 내던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무쏠리니는 당 최고리사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베오그라드의 불안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 정부반대파인물을 예비로 장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면 발칸반도에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경우 우리는 혀를 빼물고 유럽을 뛰여다니거나 베를린에 앉아있는 민족주의자들에게 간청하지 않고 자기 집에 흐르바쯔까파쑈조직두령을 가지고있으면서 정세의 주인으로 될수 있을것이다.》 라고 력설하였다. 베오그라드에서 정변이 일어난지 3시간후 이딸리아수상 관방실장 필리뽀 안푸쏘는 빠벨리치를 그의 저택에서 불러내여 흡사 맹수를 방불케 하는 《링컨》(승용차는 꼭 도약직전의 아메리카표범같았다.)에 태워 토를 리요로 데리고갔다. 무쏠리니는 거기에서 때때로 비공식적으로 자기 친구들을 만나군 하였다.

이것은 무쏠리니와 빠벨리치의 첫 상봉이였다. 수상은 흥미가 동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 상봉을 기다렸다. 빠벨리치의 얼굴생김은 그의 마음에 들었다. 네모난 턱, 권투선수의것을 방불케 하는 벌름거리는 코, 타는듯한 날카로운 눈초리, 정력이 넘쳐나는 쩍 벌어진 어깨우의 억센 목…

(어딘가 나를 닮은데가 있어보이는군.) 하고 무쏠리니는 생각했다. (아마 우리 당 제복을 입혀놓으면 더 비슷할테지…)

그들은 묵묵히 악수를 나누었다. 무쏠리니는 흐르바쯔까사람에게서 그 어떤 특수한 운명의 흔적을 찾아볼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그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테로분자나 반란분자

는 보통사람들과 눈에 띄게 차이가 있어야 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국가의 수반으로 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않은 사상의 소유자로 남아있을 때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는 빠벨리치의 얼굴에서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다만 그의 내적힘과 광기를 느꼈을뿐이다. 그것은 황황 타는듯한 눈길에서, 손가락마디가 뭉툭뭉툭한 주먹을 사뭇 으스러지게 틀어잡고있는데서 엿보였다.

주먹은 마치 무엇을 당장 들부실듯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격동적인 순간일것이다.) 무쏠리니는 생각했다. (그는 스무해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었지. 만일 지금 내가 그의 의지를 꺾어놓지 못한다면, 만일 그가 자기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한다면 후날 그와 사업하기 어려워질것이다.)

무쏠리니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빠벨리치에게 커다란 책상옆에 놓인 쏘파를 가리켰다. 그는 묵묵히 머리숙여 인사하고나서 자리에 앉아 두손을 무릎우에 포개얹었다. 여전히 주먹을 틀어쥔 손가락은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있었다.

(광기가 있는자로구나…)

무쏠리니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달마찌아는 어느 나라것인가?》

무거운 침묵이 오래동안 어색하게 흐르던끝에 이딸리아수상이 절반 묻는듯한 말투로 조용히 말했다.

《흐르바쯔까의 달마찌아입니다.》

빠벨리치는 이 물음을 기다리고있은듯 얼른 주어섬겼다. 그의 목소리는 연설할 때와는 달리 똑똑하게 울렸다.

《달마찌아말이요.》

무쏠리니는 다시금 곱씹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금전보다 더 낮고 토막토막 끊어지는 목소리였다.

《흐르바쯔까의것입니다.》

빠벨리치는 낮게 기침을 짖고나서 손바닥으로 얼른 입을 가리웠다. 이것은 무쏠리니에게 많은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알겠다는듯 쓸쓸한 눈길로 관방실장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나의 친구. 담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보오.…》

무쏠리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들문쪽으로 걸어갔다. 순간 빠

벨리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가슴에 눌러붙였다.
《좋습니다, 각하!》 그는 급히 얼버무렸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달마찌아가 이딸리아—흐르바쯔까련합의 관할지역으로 될것입니다.》
《련합이라니?》 하고 무쏠리니는 되물었다. 《련합이라는건 뭘 의미하는거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달마찌아가 이딸리아의 관할하에 넘어간다는것을 설명할수 없습니다. 수상각하! 저는 고대로부터 흐르바쯔까땅인 슈베니크와 두브로브니크가 왜 이딸리아령토로 되여야 하는가를 설명할수 없습니다.》
《누가 바로 당신이 흐르바쯔까사람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게 될거라고 말하였소?》 무쏠리니는 뜨직뜨직 말을 이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바로 자기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소?》
《그것은 각하가 흐르바쯔까에 더이상 의거할 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거기에서 누구에게 의거할것이라고 확신했소?》
《그렇습니다.》
《나는 흐르바쯔까의 모든 대도시들에 배치되게 될 나의 수비대들에 의거할것이요.》
《알바니아, 그리스와의 전쟁기간에 후방에 원쑤들을 가지고있기보다 친구들을 가지고있는것이 더 좋습니다.》
《좋소. 그건 현명한 충고요. 나는 그것을 참고하겠소. 그렇다면 달마찌아는?》
《이딸리아령토입니다.》
빠벨리치는 쏘파에 주저앉으며 김빠진 소리로 대답했다.
《흐르바쯔까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있게 설명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오.》 무쏠리니는 이제야 그가 마지막까지 한숨을 내쉬는것을 목격했다. 《흐르바쯔까사람들에게 이딸리아가 언제부터 그의 친구였고 지금도 이딸리아가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다는것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잘 생각해보오.》
《이딸리아수상도 도이췰란드총통도 똑같이 흐르바쯔까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줄것입니다.》

《당신들은 아무 사람과도 친교를 맺을수 있소. 하지만 흐르바쯔까의 운명에 대하여 누구보다 이딸리아가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도이췰란드제국도 우리가 그들이 류블랴나, 마리보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듯이 우리가 당신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소. 당신의 연설문에 대하여 말할것 같으면 필요하면 오늘중으로 작성하여 관방실장에게 보이시오. 그가 수정해줄거요. 력사적으로 달마찌아가 이딸리아에 속해있다는 문건을 당신에게 두시간후에 준비해줄거요.》

무쏠리니는 빠벨리치와 작별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담화가 복잡하고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래서 바로 관방실장을 담화에 참가시켰던것이다. 이 승리를 잊지 말고 력사의 년대기에 수록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테로분자나 민족주의광신자가 아니라 흐르바쯔까본토마저 쉽게 이딸리아에 섬겨바칠 책략가가 서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무쏠리니는 부지중 머리속에 무서운 생각이 번개쳤다. 생각은 나타나기 무서운듯 머리를 내밀었다가 즉시 사라져버렸다. (권리와 명예는 퇴락해버리고만것이다.)

마체크는 자그레브왕국경찰 제1과에서 제공한 보고자료가 적혀있는 파르스름한 종이장을 옆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놓고 자기 개인서기 이완 쇼흐를 불렀다.

《이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이제 〈농촌수비대장〉한테 떠나가게. 하긴 〈시수비대장〉한테로 가면 더 좋지. 이들은 모두 우리 흐르바쯔까사람들이네. 가서 그들에게 여기 자그레브 프란끄빤스카거리에 있는 〈이즈라즈〉잡지사 인쇄소내에 우리 조국을 팔아먹으려는 외국간첩도당들이 배겨있다고 알려주게. 그들의 코밑에서 적들이 활개치고다닌다고 말하게.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범죄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었는지 내가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여쭈게.》

《그들에게 뭘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가요?》

서기는 파르스름한 종이장을 넘겨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체크는 잠시 생각을 더듬어보더니 보고자료를 책상서랍에 밀어넣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어서는 안되네. 수비대장들에게 베오그라드헌병대가 나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있다고 알

려주게. 헌병대가 류언비어를 마구 퍼뜨리고있단말일세.》
《각하, 혹시 수비대에 어떤 권고를…》
마체크는 쇼흐의 말허리를 꺾었다.
《난 수비대에 어떤 권고를 주어야 할지 알수 없네, 쇼흐. 난 자네를 영특하고 실천성있는 나의 보좌관으로 알고있을따름이야. 수비대장들이 시초에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게. 그에 대한 구실은 언제든지 찾을수 있을테니까. 욕망과 다소라도 건전한 사고력만 가지고있다면말일세. 지금 정세로 보아 베오그라드는 우리가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해도 눈을 감고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기만을 고대하고있네. 그래도 〈수비대〉에서 굳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그들을 모두 덜미를 잡아 거기에서 쫓아버려야 하네. 만일 내가 초기에 말한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자들은 적을 잡는것이 아니라 파리나 잡아야 할거요.》
쇼흐는 흐르바쯔까 수반이 이처럼 성난것을 처음 보았다. 그는 당장에 목덜미가 벌겋게 물들었다. 하지만 흰 머리칼은 오히려 더 매력있고 점잖아보였다.
《각하, 문제는 〈이즈라즈〉잡지에 있는것이 아니라 쩨싸레쯔, 프리짜, 케르쇼바니를 비롯한 반도(반도이췰란드인)들에게 있는것만큼 이들을 통하여 거기에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을 밀어넣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넨 내가 흐르바쯔까당수를 그만둘 때나 비법적인 행동을 하라구.》 마체크는 손으로 책상을 탁 치기까지 했다. 《나는 제 집에 있단말이네. 나는 반도들이 나를 반도들로부터 보호해주는것을 바라지 않아. 이젠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완 쇼흐는 조용히 대답하고 소리없이 방안에서 나갔다.
마체크는 한동안 잔뜩 성이 나 생각에 잠겨있다가 송수화기를 들고 헌병대장을 찾았다.
《안녕하오. 장령, 보고를 제출해주어 고맙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보고를 제때에 구체적으로 해주었소. 당수가 아니라 나 개인을 놓고말하면 이런 보고를 읽는다고 노여울것이 없소. 하지만 그자들에 대한 감시를 중지하시오. 장령, 중지하란말이요. 당신은 빠벨리치의 파쑈조직성원들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사건에 관심을 돌려야겠소. 장령, 공산주의자들은 말이나 하고있지만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은 총을 쏘고있단말이요.》

《감시는 계속해야 할것 같습니다.》 장령은 놀란 표정으로 말하고 나서 덧붙여물었다. 《그럼 이제부터 보고를 작성하지 말가요?》
《아니요. 다만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자 대하듯해선 안되겠다는거요. 우리는 누구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나라에서 살고있단말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법적인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중요한것은 계기를 동작시키는것이다

《대사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이췰란드군부대들이 유고슬라비아국경방향으로 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수상의 친구인 미르꼬위치장령은 허리를 조여맨 혁띠를 바로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장령씨. 나는 외무상 립벤트롭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알고있는데 의하면 이 정보는 런던에서 꾸며졌다고 합니다. 도이췰란드는 유고슬라비아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리해를 가지고 대해줄것입니다. 나의 정보는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을 유고슬라비아내부문제로 보고있으며 도이췰란드제국과 친선적인 한 국가의 특전으로 되고있는 문제해결에 개입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미르꼬위치는 다시 혁띠를 고쳐맸다. 그는 군복저고리의 부드러운 목깃이 살갗에 쓸리기라도 하는듯 목을 이쪽저쪽으로 돌려보고나서 자기 말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했다.
《대사씨. 당신의 대답은 우리 정부에 만족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 국경에 도이췰란드군부대들이 대대적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단말입니다.》
《장령씨. 당신이 나의 정부의 립장을 질책하는 립장을 취하고있는 것만큼 나는 윌헬름거리에 당신의 항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구할수밖에 없습니다.》
미르꼬위치장령과 헤렌대사는 한동안 서로 눈씨름을 하며 노려보았다. 대사의 눈에는 교활한 웃음이 찰랑이였다. 그는 장령이 이것

을 보고있다는것을 의식하면서도 멸시적인 거만한 태도를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유고슬라비아수상의 보좌관은 대사의 이런 태도에서 치욕적인 분노의 감정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러한 감정은 수술시에 마취제의 효력이 끝났으나 외과의사가 수술을 계속하여도 어쩔수 없이 그에 순종하는것과도 같았다. 소리를 지르고싶었으나 힘이 없었다. 게다가 의식의 깊은곳에(무엇때문에 모욕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젠 끝장이다, 완전히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틀고앉아있었다.

《대사씨, 우리는 항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 문명국이 전호속이 아니라 책상에 마주앉아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호속에서 싸우는 전쟁은 20세기중엽에 와서야 인기있는 싸움이 못되지요. 장령씨, 당신도 군인으로서 알고있겠지만 도이췰란드가 전격적인 승리를 이룩한 후 진지전에 관한 리론은 자취를 감추고말았지요. 회담에 대하여 말할것 같으면 국가수반들의 새로운 상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선행자가 방금 립벤트롭프외무상과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였으니까요. 나는 지도부가 바뀌였다고 하여 귀국의 대외정책로선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바뀌여도 경향은 변함이 없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쌍방에 달려있는 문제지요.》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질투는 사랑에서나 정치에서나 다 위험한것이지요. 대사씨, 나는 베를린이 로마와 가깝게 지낸다고 베오그라드가 이에 대해 질투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짓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는 이딸리아로부터 우리 령토에 대한 강도적인 침공을 감행하고있는 흐르바쯔까망명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나는 베를린도 베오그라드가 모스크바나 런던과 가깝게 지낸다고 질투한다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평화의 리익을 추구하고있으니까요. 그것은 결코 그 어느 3국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질수 없습니다.》

《나는 유고슬라비아가 자기 대외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3국동맹성원국이라고 볼 때 문제를 이렇게 결정한것이 어딘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혹시 유고슬라비아가 3국동맹의 사상과 배치

되는 그 어떤 행동을 지향하는것은 아닙니까?》
《유고슬라비아는 위협이 어디로부터 도래하든 자기 국경을 수호할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국제법에 모순되지 않으며 또 모순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고슬라비아가 런던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있다는 소문은 근거가 없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가요?》
《당신은 어떤 소문을 알고계시오, 대사씨?》
《나는 베오그라드에 살고있는 까닭에 여기 주위에서 소문을 들었지요. 헌데 로씨야와의 조약은 제3국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진것이 아닐가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하여 나와 론쟁하지 말고 소문과 론쟁해보시오. 당신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던듯이 나 역시 당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소.》
《어떤 질문에말입니까?》
《첫번째 질문에말이요. 대사씨, 첫번째…》

암투속에 진행되는 사업

립벤트롭프는 두가지 원인으로 하여 로젠베르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첫째로, 그들은 외국기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도이췰란드제국의 전체 당 및 국가지도부내에서 《진짜 아리아사람의 표준》이였다. 이것은 그들의 외모만 보아도 리해되였다. 두사람은 다같이 눈알이 파랗고 이마가 훤칠하게 넓었으며 턱이 억세게 생겼다. 그리고 립벤트롭프가 집안사람들끼리 롱담하듯이 좀 부족한데가 있으나 어쨌든 금발머리였다. 둘째로, 이것이 립벤트롭프가 로젠베르그를 질시하는 기본리유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총통앞에 책임지고있는 하나의 동일한 문제 즉 도이췰란드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전혀 다른 원칙을 견지하고있었다. 립벤트롭프는 로젠베르그를 한갖 《리론가》로밖에 보지 않았다.
교육은 적게 받았으나 수완있는 실천가인 그는 이러한 판단에다 자신이 작성한 학설을 따르고있고 모든 행동을 자기 책 《20세기 신

화》에서 인용한 문구들과 일치시키고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해도 민족사회당내의 직급으로 보아 제국외무상의 활동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수 있는 로젠베르그에 대하여 느끼고있는 모든 모멸적인 감정을 포함시키고있었다.

립벤트롭프는 영국에서부터 출세하였다. 그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을 해제꼈는데 전 영국수상 쳄벨렌과 해양협정을 체결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도이췰란드의 유일한 동맹자로 영국만이 될수 있으며 그외에는 누구도 될수 없다.》고 한 총통의 전략적 계획수행에서 발단이 되였다고 볼수 있었다.

전통적인 도이췰란드외교로 능란한 외무상이였던 폰 네이라트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깐깐한 런던주재 도이췰란드제국대사 헤슈가 무의미한짓이라고 힐난하던 일은 현실로 실현되였다.

이것은 도이췰란드제국내각에서 립벤트롭프의 사업계획을 토의할 때 로젠베르그가 야유적으로 비웃던 문제였다. 쳄벨렌은 신사다운 자기의 싸늘한 손을 민첩하고 땀기가 내밴 히틀러의 손앞에 내밀었다.

립벤트롭프의 이 승리는 로젠베르그의 대참패로 되였다. 모든 사람들은 립벤트롭프가 제기한 《민족사회주의의 새로운 외교》에 대하여 그가 비웃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이 새로운 외교는 결코 로젠베르그의 《20세기 신화》가 아니라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공세의 기초로 삼고 이《위대한 저서》의 정신에서 진행되여야 했다. 이것은 도이췰란드인종에게 찬란한 미래에로의 길을 열어준것이였다. 즉 이전날의 외교에서처럼 반드시 장애물을 에돌고 자기 말을 하지 않으며 타협의 길을 모색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확신성있게 밀고나가야 했다. 중요한것은 대담하게 행동하는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파악한 대상에게 빌붙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립장을 받아들이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속도와 질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여준다. 세기를 두고 이어져가고있는 보수적인 전통을 응당한것으로 설교하고있는 서유럽상대자는 새로운 회담방법, 민족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생겨난 새로운 외교와 부딪치면 승리를 이룩하고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보다도 야비한자들과 상대한 조건에서 이자들이 야비한 행동으로 중요한것을 떼먹기전에 차라리 적은것을 미리 던져주는것이 더

좋을것이라고 생각할것이다.
로젠베르그는 가는곳마다에서 히틀러학설의 《인도주의》와 《지성》에 대하여 강조하기에 열을 올렸다. 립벤트롭프는 그와는 달리 히틀러의 학설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인테리나 인도주의자답지 않게 행동하였다.
립벤트롭프는 유고슬라비아에 공작조책임자로 떠나는 웨젠마이어대좌에게 지시를 주면서 민족사회당 대외정책부장 로젠베르그와는 반대로 흐르바쯔까두령 마체크 한사람에게만 의거하는것은 합리적이 못되며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도 말 잘 듣는 도이췰란드의 추종자들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여 웨젠마이어는 복잡한 립장에 처하게 되였다. 제국안전총국장 하이드리히도 립벤트롭프도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단자들과 사업할것을 바라고있는데 로젠베르그는 파쑈조직성원들과 그들의 두목인 빠벨리치의 적수인 마체크와만 접촉하라고 한다. 세 상전을 섬기는 사업은 실패를 면할수 없으므로 웨젠마이어는 오직 하나의 상전—자기자신을 위해 일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모든 방향에 타격을 가할것이다. 그는 마체크와도 사업하고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과도 사업하기로 했다. 그는 《두 측면》에서 얻어지는 진리를 알고있었다. 이것은 임무수행을 쉽게 하여줄수 있었으나 생활에 복잡성을 가져올수 있었다. 아무렴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여기에 습관되여있다.그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모험할것이다.
웨젠마이어는 려권에 붙어있는 사진보다 훨씬 젊어보였다. 그는 이미 만 35살이였으나 방금 대학을 나온 청년같아보였다. 그는 놀랄만큼 수집음을 탔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자그레브공작조책임자가 웨젠마이어가 아니라 디쯔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일으킬수 있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몸매에 어딘가 이상하고 멍청해보이는 그는 말할 때에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말을 가로채기라도 할것 같아 저어하듯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슈틀리쯔는 그의 손에 주의를 돌렸다. 크고 억센 손은 어느 한때 이 사람에게, 령리하고 꿰뚫어보는듯한 까만 눈과 사색이 깊은 이마, 선이 또렷한 배우의 입을 가진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을것 같았다.
《대단히 반갑소, 친구들.》 웨젠마이어는 공작조성원들인 디쯔, 슈

틀리쯔, 죤넨브로크를 쿠르퓨스텐담에 있는 《락원》식당으로 초청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정치첩보국의 능력있는 요원들인 당신들과 함께 사업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오. 나는 당신들이 우리가 수행하게 될 사업에서 나에게 전면적인 방조를 주리라고 믿소. 우선 마시기전에…》그는 상에 놓인 두개의 술병에 눈길을 돌렸다. 슈틀리쯔도 디쯔와 죤넨브로크가 서로 눈길이 마주치는것을 보았다. 《전반적인 우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오.》

디쯔는 량해를 구하고 상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갔다. 홀에 누가 앉아있는가를 세밀히 살피려는것이였다. 웨젠마이어는 그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지나치게 비밀을 준수하느라고 하는것이 완전히 개방해놓는것보다 사업에 더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여왔소. 내가 심히 잘못했을수도 있을거요. 하지만 놀랄건 없다고 보오. 내가 불과 얼마전부터 첩보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니까.》

디쯔가 돌아와 말하였다.

《저기 마쟈르대사관처녀가 에스빠냐기자와 함께 앉아있습니다. 〈뿌에블로〉기자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방해하는건 아니요?》웨젠마이어가 묻는 말이였다. 슈틀리쯔도 디쯔의 손에 자기 손을 얹고 크게 웃었다. 디쯔는 놀라와하며 웨젠마이어에게서 죤넨브로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아니요, 여기엔 주의를 돌려야 할 점이 있소.》 디쯔는 귀속말로 넘어갔다. 《우리는 남자를 통하여 저 계집을 쟁취해보려고 시도해보았소. 그러나 계집이…》

《다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웨젠마이어는 어줍게 웃으며 디쯔의 말허리를 꺾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매우 적소. 우리가 도이췰란드땅에서 마쟈르계집을 두려워한다면 게스타포를 해산해버리는편이 더 좋을거요. 남자를 통해 계집을 나꿔채지 못한데 대하여서는 우리가 걱정할바 아니라고 생각하오. 나의 친애하는 디쯔, 우리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여있소. 모두 거기에 전념해봅시다. 당신은 체스꼬에서 석달동안 있었다지, 죤넨브로크?》

《그렇습니다.》

《쁘라하에 가있었소?》

《예.》

《당신은 체스꼬말과 로씨야말을 알겠구만?》
《로씨야말을 더 잘 알지요.》
《슬라브민화들도 알고있소?》 웨젠마이어가 물었다.
슈틀리쯔는 긴장해졌다. 대좌가 이것을 로씨야말로 물었던것이다.
《로씨야전설들에 대하여서는 아는것이 적습니다. 우스개소리를 더 많이 알고있습니다.》 죤넨브로크가 대답했다.
《리력서에 당신은 로씨야말을 아주 잘 안다고 썼던데…》 하고 웨젠마이어가 말했다.
《그렇게 썼지요.》
《모험이요. 당신은 로씨야말이 매우 서툴구만. 매우 서툴어. 어디서 배웠소?》
《나는 로씨야에서 다섯달 살았습니다.》
《도이췰란드말로 말하시오.》
《난 모스크바에 있는 〈류프트간즈이〉대표부에서 다섯달동안 일했습니다.》
《당신은 로씨야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소?》
《저에게 돼지가 마음에 든것은 오직 그걸로 순대를 만들었을 때뿐입니다.》
웨젠마이어는 이마를 찌프렸다.
《적에 대하여 초기부터 존중하지 않고 리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승리할수 없소. 그렇소, 그렇소. 나는 바로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문제 즉 사랑에 대하여 말하였소. 멸시는 자신의 힘을 느낄수 있게 하는 마음의 충동과는 전혀 인연이 없소.… 책상에 기여가는 바퀴는 멸시하고 털어버릴수 있을거요. 그렇지 않소, 디쯔?》
《그렇습니다.》
《당신은 마쟈르, 쁘라하, 쏘피아에서 일했다지?》
《나는 바로 벌가리아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바로 벌가리아사람을 좋아하오?》
《뭐라고 할가… 거기서는 일하기가 쉬웠지요. 벌가리아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기로 결심하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충실했고 우리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반대하여나섰지요. 거기에는 교활한 프랑스사람들처럼 오늘은 친구가 되고 래일은 원쑤가 되는 그런 인간들이 없었습니다.》

《헌데 벌가리아가 슬라브말의 조상이라는걸 알고있소?》
《알고있지요.》
《언어는 민족주의사상의 도구란말이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벌가리아민족주의사상은 모스크바와 련결되여있소. 벌가리아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나간다는것은 력사적으로 보아도 기이한 현상이요. 그들은 내적으로 우리를 대단히 좋아하지 않고있소, 디쯔.》
《하지만 당신은 적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있는바를 말했던거요. 그러나 당신들도 꼭 나처럼 생각해야 한다는건 아니요. 디쯔, 나는 나의 일군들이 나의 견해를 놓고 론쟁을 벌리는데 습관되였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사업하기를 즐기오. 이건 언제나 허심하고 믿음에 찬 론쟁을 낳는 법인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기 견해를 주장한다오.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오, 슈틀리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좌각하.》
《어째서말이요?》
《왜냐하면 당신은 직무상으로 보나 슬라브나라들에서의 사업경험으로 보나 상급이기때문이지요. 그럴바하고는 아예 당신이 상급장관의 명령에 복종하는것을 취소시키는 법을 만들어내는 상관으로 되여주십시오.》
《아니, 내가 명령을 하달했단말이요?》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를 가르쳐주었지요.》
《당신을? 난 죤넨브로크를 가르쳐주었소.》
《우리는 첩보기관에서 어느 한 공작조에 망라될 때면 서로 떼여놓고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요.》
《당신은 독자적으로 사업해야 하오. 나는 자그레브와 마리보르사이를 왔다갔다 하게 되고 당신도 역시 그렇게 하게 될거요. 그리고 디쯔는 군부와 사업해야 하고 죤넨브로크는 아마 로씨야망명자들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할것 같소. 그가 아니면 누가 망명자들과 사업하겠소? 로씨야망명자들은 왕궁에 드나드는 중요한 연줄을 가지고있소. 따라서 죤넨브로크는 우리의 전반적인 사업에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을거요. 당신들은 나에게 성을 내지 않겠소, 친구들? 제발 성을 내지 말아주오! 나는 동료들이 성을 내면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른답니다. 나를 당신들의 동무로 생각해주시오. 나는 고위승려

들의 복종질서를 증오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오, 디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좌각하.》

《내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서 말하시오, 슈틀리쯔…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뭐요?》웨젠마이어는 어줍게 웃었다. 그의 부드러운 얼굴은 마치 까리브해적들에 대한 신비한 사건이라도 듣게 되려는듯 더없이 상냥해졌다.

《무엇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허락을 줘야 한단말이요? 우리는 아무런 복종질서도 없이 행동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소.》

《내 생각에는 죤넨브로크의 사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당신은 로씨야말을 아오?》

《아주 서툴게 하지요. 나는 강습소를 나왔을뿐입니다.》하고 슈틀리쯔는 대답했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죤넨브로크의 사업이 우리 사업보다 더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오?》

《언어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로씨야사람들, 특히 망명객들은 도이췰란드, 영국, 미국대표들에 대하여 매우 예리한 관심을 돌리고있소. 자기 조국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외국사람들을 특별히 존대하여왔소. 만일 당신들이 모스크바나 뻬쩨르부르그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싶으면 절대로 로씨야말로 말하지 말아야 하오. 반드시 자기 나라 말을 해야 하오. 헌데 만일 당신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로씨야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거나 혹은〈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말을 하고싶으면 꼭 억양을 높여서 말해야 하오. 그러면 로씨야사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할거요. 어찌겠소, 어느 민족이나 괴이한 점이 있는데야. 나는 로씨야망명자들이 도이췰란드기사인 죤넨브로크와 접촉하리라고 생각하오. 게다가 죤넨브로크가 그럭저럭 슬라브말을 리해하고있으니까. 더우기 죤넨브로크가 선발된 대표들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로씨야망명자들에게 어떤 방조를 줄가요? 지금 고생하고있는 망명자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물질적 다시말하여 재정적 및 정신적방조를 주면 좋겠습니까?〉라는 말부터 꺼내게 될거요. 이 도이췰란드사람에 대한 소문은 삽시에 퍼져갈거요. 우리도 리트머스지로 실험하는 화학자들처럼 망명자들중에서 앞으로 누가 우리를 도와줄수 있고 누가 우리의 적으로 될것인가 하는것을 규정할수 있을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슈틀리쯔는 얼굴을 찌프렸다. 《우리는 모스크바를 반대하는 깜빠니야를 위해 떠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오?》 웨젠마이어는 히죽이 웃었다. 《우리의 친애하는 디쯔의 생각은 어떻소?》

《나는 대좌각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저에게 매우 교묘하게 느껴집니다.》

《교묘하단말이요?》 웨젠마이어는 또 악의없이 벙글벙글 웃었다.

《아닙니다. 제가 현명하다고 말하려 했던겁니다.》

《그건 어째서말이요? 〈교묘하다〉는것이 〈현명하다〉는것보다 더 정확한것 같은데…》 웨젠마이어가 말했다. 《하지만 디쯔, 당신은 교묘하게, 그렇소. 바로 교묘하게 공작해야겠소. 친구들, 유고슬라비아가 놀랄만한 나라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이 나라는 전체 슬라브세계가 모인 물방울과 같다고 볼수 있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실험자들이요.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에 살고있는 슬라브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원심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고 구심력의 비결은 무엇에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내야 하오. 바로 이 힘들과 이 힘들중에서 어느 하나가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 큰 나라가 소공국들로 분할될것이요. 그러면 소공국들의 령수들은 큰 주인의 입만 쳐다보게 될거란말이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알고있어야 할 내용이요, 친구들. 슈틀리쯔, 임무를 알겠소?》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모르겠단말이요?》

《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담화를 진행하고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되여있습니다. 저는 허영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능숙한 상급들이 구상하여준것을 집행하기를 즐기지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대좌각하.》

《이런 답답하다구야!》 웨젠마이어는 탄식조로 말하였다. 슈틀리쯔는 자기 대답이 대좌의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들은 자정이 가까와올무렵 자그레브로 떠났다. 디쯔는 녀편네가 와이마르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버려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왔다.

그래서 잔뜩 심사가 꼬여 비행기꽁무니에 앉아 손톱여물만 썰었다.

그의 얼굴에 때없이 어려있던 웃음은 구강의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파서 얼굴을 찌그리듯 이그러져보였다. 죤넨브로크는 웨젠마이어가 슈틀리쯔에게 가극 《짜리신부》를 쓰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쉴새없이 주절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잠을 청하고있었다. 죤넨브로크는 웨젠마이어를 보지 않으려고 어서 빨리 혼자서 독립하기만을 바랐다. 웨젠마이어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멸시할줄 알았고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멸시할수 있다는것을 감추지 않고 기뻐하기까지 했다.

비행사가 10분후에 자그레브에 도착하게 된다고 알리자 웨젠마이어는 자기 동료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나서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친구들, 작별합시다. 당신들은 나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보오. 나는 자기 일을 하고 당신들도 자기 일을 하게 될테니까. 비행장에서 중좌 포흐트가 우리를 맞이할거요. 그가 당신들의 사업을 지도하게 되오. 다만 그를 통해서만 나와 련계를 맺어야 하오. 그를 통해서만말이요. 중앙과의 련계는 포흐트를 통해서 하면 되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뜻밖의 일이였다. 누구나 자기 상급들로부터 이렇게나저렇게나 웨젠마이어를 감시할데 대한 지시를 받고있었던것이다. 그자신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는 그 누구와도 승리자의 월계관을 나누고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기 식의 구상이 있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기대를 걸지 않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대로 일할 결심이였다. 시간은 그를 위해 존재하는듯했다. 승리자에 대하여서는 죄를 묻지 않는 법이다. 히믈러, 립벤트롭프, 로젠베르그는 그의 사업을 높이 평가할것이다. 당분간은 그의 방조자들이 베를린에 아무것도 통보할수 없을것이며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못할것이다. 최악의 경우 그는 누구에게 방조를 요청해야 하는가를 알고있었다. 총통의 세계경제문제담당고문인 윌헬름 케플러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관의 장애물을 피해 직접 총통에게 그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것이다.

《인사하시오, 친구들. 당신들의 직속상관 포흐트중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디쯔라고 합니다.》

《포흐트라고 하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죤넨브로크입니다.》
《난 당신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슈틀리쯔라고 합니다.》
《포흐트요. 제씨들, 모두 내 차에 탑시다. 두번째 차는 당신을 태우려고 온 차입니다. 대좌씨, 이것도 당신에게 전하는겁니다.》
그는 웨젠마이어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뭐요?》
《암호문입니다.》
《벌써 왔소?》 웨젠마이어는 입귀를 실룩하며 웃었다. 《언제 왔소?》
《방금 왔습니다. 오늘 아침 닌치치외무상이 우리 대사를 찾아왔댔다고 합니다. 아마 대사가 베를린과 즉시 련계를 취한 모양입니다.》
웨젠마이어는 암호문을 주머니에 넣고 묵묵히 동료들과 작별했다. 차안에서 그는 두번이나 암호문을 읽어보고나서 그것을 불태워 차창밖으로 재를 날려보냈다. 포흐트의 《호리흐》승용차는 뒤떨어져오고있었다. 희붐한 새벽어둠속에 길은 한적했다. 비행장으로부터 자그레브로 뻗어간 도로 좌우켠 산중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눈석이물이 얼른얼른 눈에 띄였다. 거기에서 습습한 눈냄새가 풍겨왔다.
《나를 어데로 데려가오?》 웨젠마이어는 운전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들게 될 방을 예약해놓았습니다.》
《거기는 후에 가고 먼저 프리드리흐 골프에게 가야겠소.》
골프는 유고슬라비아에 살고있는 도이췰란드인들의 《도이췰란드민주부흥문화인동맹》위원장 얀끄 제프의 방조자였다. 베오그라드에서는 그를 벼락출세한 기사로 알고있었고 베를린에서는 에쓰에쓰소좌로, 나치스당의 해외조직책임자 볼레박사의 개인대표로 알고있었다. 립벤트롭프로부터 받은 암호문에는 즉시 제프의 사람들과 접촉할것과 오늘밤이나 늦어서 래일밤중으로 《폭행》을 조직할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있었다. 《폭행》이란 광신적인 쓰르비아인들의 한무리를 부추겨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사용하고있는 건물을 공격케 하는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아마 겝벨쓰가 요구한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선전깜빠니야가 다른것보다 선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골프는 잠들어있다가 잠옷바람으로 웨젠마이어에게 달려나왔다. 온몸에 번들번들 땀기가 밴것으로 보아 4월달치고는 훈훈한 밤이

였으나 닭털이불을 덮고 잔것 같았다. 골프는 웨젠마이어를 알아보자 기뻐하며 식모부터 부르려고 했다. 그러자 웨젠마이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나서 라지오를 켜고 말하였다.

《당신이 베오그라드와 암호련락을 가지고있으면 지금 인차 얀끄 제프와 련계를 가져야겠소. 얀끄 제프는 아마 믿음직한 사람들을 장악하고있을거요. 그들을 즉시 동원시켜야겠소. 그들은 석유나 화약을 지참해야 하오. 대상은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집이요. 희생이 있겠지만 조국은 그것을 용서할거요. 좋기는 우리 대사관을 공격하여 외교관들을 답새겨주면 좋겠는데 경찰의 손에 걸려들지 않을거란말이요. 이것은 중앙의 지시요. 즉시 행동할수 있겠소? 지금 당장말이요.》

《노력해보지. 우리한테 그런 목적에 리용하려고 선발해놓은 사람들이 있다오. 실패하거나 체포될 경우를 고려하여 대체로 쓰르비아성을 가진 혼혈아들을 선발했소. 빌어먹을거 봄이니까 날이 빨리도 밝아오는구만.》 골프는 갑자기 껄껄 웃었다. 《아니, 우리 군대가 정말 인차 오게 된단말이요? 여기에 몇해를 바쳤소, 몇해를! 좋소, 웨젠마이어씨, 내가 이제 곧 베오그라드와 련계를 가지겠소.》

…그때로부터 2시간 지나 베오그라드에서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상점 3개가 불에 탔다. 음모자들은 자리를 피했다. 도이췰란드기자들이 달려와 불길에 휩싸인 집과 거의 알몸으로 질겁하여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사진찍었다. 그리고는 베를린에 긴급소식을 전하려고 전신전화소로 달려갔다.

베를린에 이 소식이 전해진지 20분도 안되여 헤렌대사는 외무상 립벤트롭프로부터 대사관일군들의 철수를 개시하며 대사자신도 림시대리대사에게 사업을 인계하고 첫 렬차로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는 이미 어제낮에 작성되였는데 베오그라드에서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베를린방송은 아침방송을 장송곡으로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방송원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화적도이췰란드주민들에 대한 강도적행위는 전도이췰란드적으로 분노의 파도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만무례하기 이를데 없는 쓰르비아망나니들은 평화적공민들이 단지 우리의 친혈육들이고 도이췰란드사람들이라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집을 불사르고있다.》

도이췰란드대사 폰 헤렌은 바쁘다는 핑게로 유고슬라비아

외무성 부상이 도이췰란드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이 위험》에 처한 외교관가족들의 철수와 관련하여 대사관 2등서기관이 외무성 부상을 맞이했다. 하급서기관과 신중한 문제를 토의한다는것은 무익한 일이였다.

웨젠마이어의 두번째 방문은 외적감시임무를 맡은 유고슬라비아비밀기관 정보원들을 어리둥절케 하였다.

그들은 대좌가 골프의 집을 떠나 시내중심에 들어왔을 때 그의 승용차를 포착하였었다.

웨젠마이어의 자그레브도착문제가 당수 마체크와 흐르바쯔까총독슈바쉬치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문이 반탐기관의 시야에 들어온것은 처음 있은 일이였다.

이번 경우는 반탐기관의 창발성을 발휘한것이였는데 다음날 우로부터 지시가 있어 그것이 철회되고말았다. 누구에게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알수는 없었지만 흐르바쯔까의 어느 지도자들한테서 내려왔다는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총독이 아니면 비밀경찰책임자가 《그렇지 않아도 긴장한 베를린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무역대표 웨젠마이어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의 명령을 하달한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직 《해제》신호가 내리지 않았는데 반탐기관 밀정들은 웨젠마이어가 흐르바쯔까민족들의 거두들이나 친도적인 경향을 가진 미르꼬위치주위의 사람들과 만나는것이 아니라 제3중학교의 이름없는 쓰르비아어교원 요바노위치와 만났다는것을 알아냈다. 비밀경찰의 밀정들은 웨젠마이어의 이러한 방문을 예견하지 않고있었기에 담화내용을 엿들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 담화자체가 그 내용이 베오그라드에 알려지도록 해주었다.

웨젠마이어가 도이췰란드의 오랜 벗인 요바노위치에게 준 지시는 얼핏 보면 이상하게 보일수 있었다.

《오늘부터 당장 씨모비치통치를 반대하는 로숙한 투쟁을 준비해야겠소. 그는 영국은행자본과 크레믈리국제공산당에 쓰르비아사람들의 리익을 팔아먹고있소. 당신은 친구들과 만나 대가두시위들에서 연설을 벌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해야겠소. 백성들속에 권위가 있는 당신의 친우들의 연설은 반드시 혼돈속에 빠진 쓰르비아정신을 문제시해야 하오. 이것은 유고슬라비아의 존망문제요.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의 친우들이고 당신네 나라가 발칸반도에서

평화의 성새로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있소. 그러나 베오그라드의 립장이 우리의 민족적관심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개시할것이요. 그런즉 당신들의 구호는 〈쓰르비아사람들이여, 씨모비치정부를 지지하라. 그러나 그에게 베를린과 결탁하고있는 흐르바쯔까에 대하여 강경한 로선을 취할것을 요구하라! 흐르바쯔까사람들은 언제나 북을 쳐다보았다! 흐르바쯔까를 경계하라!〉이렇게 되여야 하오. 당신은 내 말을 알만하오?》

《알겠습니다.》 하고 요바노위치는 대답했다. 《허나 당신이 모험적인 행동을 권고하는것이 두렵습니다. 병에서 쏟아져나오는 쥔(영국술의 일종)은 감당해내기가 힘들지요. 후에 우리는 대쓰르비아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될겁니다.》

《그래 어쨌단말이요? 우리가 당신들과 트럼프놀이를 하고있는것이 아니지 않소. 혹시 그렇게 하는것이 씨모비치로 하여금 명확한 행동을 하게 하고 실천으로써 3국동맹에 대한 자기의 충실성을 보여주게 할수 있지 않겠소?》

《저를 철없는 아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웨젠마이어씨. 저는 쓰르비아사람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이 누구에게 유익한가 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무슨 구실을 찾고있다고 생각하오?》웨젠마이어가 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했소.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소. 오히려 당신이 우리의 담보를 요구하고있소. 당신자신이말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시각에 동요하고있는 당신의 그 친우들이말이요.》

요바노위치는 감시에서 벗어나 첫차로 베오그라드로 떠났다. 그는 쓰르비아회관에 와서 몇몇 교수들과 만난 뒤 종합대학에 들렸다가 세개 신문사에서 정치론설원들과 담화를 가졌다.

다음날 여러 도시들에서 웨치는 구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흐르바쯔까사람들은 배신자들이다!》

《마체크는 왜 베오그라드에 오지 않는가? 히틀러가 무서운가?》

《히틀러의 졸개 흐르바쯔까두목들을 처형하라!》

《유고슬라비아의 유일하게 믿음직한 성새—쓰르비아에 영광을!》

《흐르바쯔까카톨릭교도들을 타도하라!》

《쓰르비아정부 만세!》

사람들의 열정은 극도에 이르렀다. 군대는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공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것이 아니라 민족들사이에 살륙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을 순찰하였다.

자그레브는 새로운 정세에 예리한 반응을 나타냈다. 마체크는 몇차례에 걸쳐 베오그라드와 련계를 취했다. 그때마다 베오그라드는 도발이 좌절될것이라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마체크는 흐르바쯔까신문들에 쓰르비아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하여 모호한 형식으로 보도할데 대하여 몰래 지시를 주었다. 베오그라드사태에 관한 보도를 실은 신문들은 압수되였다. 하지만 자그레브에서 발간되는 그 신문들은 엄청난 부수를 가지고있었다. 씨모비치가 집권한 날 유고슬라비아기발을 내걸었던 흐르바쯔까의 모든 집들에서 베오그라드가 쓰르비아대국주의를 지향하고있다는 소문이 자그레브에 들려온 후 기발들을 내리웠다. 쓰르비아사람들의 집은 기발을 보고 알수 있었지만 흐르바쯔까사람들의 집은 기발을 내걸지 않은것을 보고 알수 있었다.

마체크는 정변이 일어난지 2시간후 자기가 씨모비치수상의 제1대리인으로 선포되였다는 보도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씨모비치정부에 들어가는데 동의한다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포흐트로부터 자그레브에 있는 도이췰란드회사대표들과 만날데 대한 임무를 받은 슈틀리쯔는 자동차를 보장해주었으나 마다하고 시내로 향하였다. 그는 슬라브적인 정취와 유럽적인 정취가 기묘하게 결합된 이 도시를 구경하면서 자그레브시내로 걸어갔다. 그는 거대한 중세기사원에서 울리는 웅글은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져가는 상쾌한 공기를 가슴 가득히 마시며 슬라브말을 열심히 듣기도 하고 현관에 써붙인 간판들을 읽어보기도 했다. 간판들에는 《열쇠》, 《의원》, 《목수》라는 글들이 씌여져있었다. 그는 문득 한주일전에 총독부에 찾아갔던 일이 생각났다. 총독부 관할하에 들어있는 그 나라들은 이전에 뽈스까의 소유였던것이 지금은 도이췰란드의 소유로 넘어왔고 거기에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이주하여왔다. 출장은 짧고 대수롭지 않은것이였다. 쉘렌베르그는 뽈스까의 대부호가 내버린 장원에서 개인문고들을 보고 오라는 과업을 주었었다. 제국안전총국 6국장은 첩보국요원들이 현재의 적들뿐만아니라 《근원적으로》본 가상적인 적들까지 연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외정치첩보국에 필요한 문고들

을 수집할것을 공상하고있었던것이다.

슈틀리쯔는 이 사업을 끝마치고 역으로 향하였다.

그는 역간이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했다. 이 뽈스까역은 아직 한번도 폭격당하지 않았건만 창문들은 가리워져있었다. 영국인들은 베를린동쪽의 도이췰란드령토를 한번도 폭격하지 않았었다.

타일을 붙인 뻬치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역홈에서 증기차들이 기적소리를 울리며 분주히 오갔다. 슈틀리쯔는 사람들이란 리해할수 없는 기이한 현상의 집합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주위가 물과 하늘뿐인 대양으로 려행할 때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별로 의의가 없는 사소한 일까지 전부 써넣는다. 하지만 땅에서 돌아다닐때에는 일정한 사람들, 려행할줄 아는 사람들만이 일기를 쓰는것이다. 슈틀리쯔는 종종 도데가 생각났다. 이 쾌할하고 령리한 사람은 어떤 프랑스사람을 묘사하면서 그 주인공이 오스트랄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신기한 나라에 대하여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당신들은 거기서 감자값이 얼마인지 상상도 못할거요.》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노라고 썼다.

슈틀리쯔는 부지중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는 처음에 이게 웬일인지 알지 못하다가 다음순간 바로 아버지가 씨비리류형지에서 몰래 지나가는 기차를 구경하자고 철길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라는것이 생각났던것이다.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라는 신호가 울리자 슈틀리쯔는 맥주를 마저 마시고 다른 장교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간이식당 판매원에게 팁을 준다음 렬차로 향하였다. 에쓰에쓰중좌인 그에게는 1등석이 차례졌다. 그는 은백색머리칼에 얼굴에 주근깨가 감실감실한 댓살가량 되여보이는 총각애를 데리고가는 한 녀인과 같은 차칸에 타고가게 되였다.

(로씨야사람들이구나. —슈틀리쯔는 첫눈에 벌써 그들을 알아보았다. —아, 나의 로씨야사람들! 아마 무역대표부에 있는게지.)

슈틀리쯔는 녀인에게 까딱 머리숙여 인사했다. 그 녀자는 길다란 모자케트단추를 채우고 상에서 커다란 꾸레미 두개를 내리웠다.

그리고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스쩨빠아저씨에 대한 시를 읽어주기 시작하였다. 슈틀리쯔는 이 꾸레미를 보고 이들이 로씨야사람들이라는것을 알았다. 로씨야사람들만이 종이꾸레미에 돼지비게며 검

은 빵이며 삶은 계란이며 치즈같은것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는것이다.
슈틀리쯔는 비옷을 걸어놓고 다시한번 녀인에게 인사한 다음 창문쪽으로 앉아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냈다.
《일리치 초소옆 8호동 1호집에는 깔란챠라고 부르는 우람하게 생긴 사람이 살고있었어요.》녀인은 소곤소곤 귀속말로 읽었다.
《엄마 이거 파시스트가?》 아이는 슈틀리쯔를 찬찬히 훑어보며 물었다.
《조용해.》녀인은 겁에 질려 말했다.《내가 집에서 너에게 뭐라고 하던?》
녀인은 조심스럽게 슈틀리쯔를 쳐다보며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는 스쩨빠아저씨에 대한 시를 계속하여 읽었다.하지만 아이는 진정하지 않았다.
《엄마,》사내아이는 조용조용 귀속말로 물었다.《위찌까가 그러는데 히틀러의 한쪽눈알이 사기눈이고 한쪽다리가 뼈다귀뿐이래. 그게 정말이나?》
《어서 변소에 가자.》녀인은 급히 일어나 아이손목을 잡아끌었다.
《난 싫어. 엄마가 방금전에 데리고갔다오지 않았나.》
《내가 뭐라고 하던?!》
《베를린으로 가십니까?》 슈틀리쯔는 가슴이 몹시 후더워나는것이 녀자의 불안때문이라는것을 깨닫고 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남편이 도이췰란드에서 일하고있는데 그에게로 간답니다.》
《엄마, 파시스트에게 뭐라고 말했나?》 사내아이는 여전히 귀속말로 물었다. 그러자 녀인은 무작정 아이손을 잡아끌고 복도로 나갔다.
(불쌍한게 이제 혼쌀이 나겠구나.—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어린 아이를 다루기란 정말 딱한 일이지.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밖에서 문기척소리가 들렸다. 간이식당판매원이 차칸마다 맥주, 물, 쏘쎄지, 쵸콜레트를 날라다주고있는것이다.
《쵸콜레트를 주시오. 두개 주시오.》 하고 슈틀리쯔는 말하였다.
《커피는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고맙소.》

《벨지끄카스테라는 요구되지 않습니까?》
《좀 봅시다.》
《어서 보십시오.》
카스테라는 포장이 맵시있어보였다. 슈틀리쯔는 그것을 두통 샀다.
녀인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자 슈틀리쯔는 아이에게 쵸콜레트를 내밀었다.
아이는 의혹에 찬 눈길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서 받거라. 이건 너에게 주는거란다.》
《고마와요.》 녀인이 서둘러 인사를 차렸다. 《이앤 방금 먹었어요.》
《어서 받거라.》 슈틀리쯔는 곱씹었다. 《이건 맛있는 쵸콜레트다. 카스테라도 받아라.》
《엄마, 〈맘로크박사〉(도이췰란드의 전설적작가 하인리히만의 소설)에 이런 파시스트들이 있었나?》 사내아이는 홀린듯 쵸콜레트를 바라보며 물었다.
녀인이 아이의 작은 손을 아프게 틀어잡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걸 들어보세요.》 녀인은 큰소리로 말했다. 아마 큰소리로 말할수록 외국사람이 제 말을 더 잘 리해하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그는 서둘러 꺼실꺼실한 로씨야포장지에 싼 음식물을 헤치기 시작했다.
녀인은 종이우에 삶은 닭알이며 돼지비게며 검은 빵쪼각이며 훈제한 순대까지 절반 갈라내놓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슈틀리쯔는 대답했다. 그는 여러해만에 처음으로 조국의 향취를 느꼈다. 향긋한 냄새와 함께 아래껍데기는 갈색으로 굽혀지고 웃껍데기는 거멓게 탄 보로진빵은 오직 로씨야에서만 굽는것이다. 그는 검은 빵을 한쪼각 뜯어내여 진수성찬을 먹듯 조금씩 씹어가며 천천히 먹기 시작하였다.
《맛있어요?》 녀인은 놀라와하며 물었다.
슈틀리쯔는 모르는체해야만 했다. 그는 로씨야말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살아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체하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엄마, 위찌까가 그러는데 히틀러의 한쪽눈알이 사기눈이고 한쪽

다리가 뼈다귀뿐이래…》
녀인은 또 아이손을 꽉 잡았다. 그러자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아파! 내가 어쨌다구 그래? 어쨌다구?!》
슈틀리쯔는 아이머리를 쓰다듬어주고싶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의 손을 피하며 엄마의 품에 안겨들었다. 녀인은 놀라서 검은 제복을 입은 도이췰란드장교로부터 지켜내듯 아이를 품에 껴안았다.
베를린으로 돌아오자 슈틀리쯔는 집에 와서 장에서 노가주나무술병을 내리워 잔이 넘쳐나게 부은 다음 천천히, 마치 나무향기가 풍기는 이 독하고 즐기지 않는 술을 자기에게 박아넣듯 입에 기울이였다.
(그 조꼬만게 파시스트를 그처럼 증오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 어린 아이의 눈에 그렇게 증오와 공포의 빛이 어려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다만 조국에서 안심하지만 말고 이곳에 있는 내 상급들을 믿지만 말았으면… 정말 믿고있단말인가?)
그는 노가주나무술을 또 한잔 부어놓고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잔을 그 아이를 위해 들테다. 하이드리흐가 이 술을 즐기기때문에 나는 이것을 마셔야 하는것이다. 나는 하이드리흐중장의 마음에 들수 있는것이면 언제나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나는 파시스트 슈틀리쯔에 대한 증오심을 감추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그 조꼬마한 인간을 위해 마시련다. 고맙다. 애야, 지금 네가 나를 증오하듯이 언제나 나를 증오하여다오. 너에게서 공포심은 사라질것이다. 나이들면 공포심이 없어지는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토끼로 퇴화되여버릴게다. 다만 순간적이라도 나를 동맹자로 생각하지 말아다오. 아직 나와 싸우지 않는동안만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라. 애야, 부디 건강하거라. 고맙다!)
누구나 생활에서 자기대로 난관을 허용하는 정도가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것은 성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하는것이다.
그러나 적소굴에 침투된 공작원에게는 이것이 특별히 어렵다. 그것은 그의 활동이 위험속에서 진행되며 항시적인 감시를 받고있기때문인것이다. 선의 사상에 복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악의 소굴—히믈러의 첩보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결합시키겠는가? 교형리들과 사업하면서 어찌 교형리로 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극히 조금이

라도 도덕규범과 법규범을 어긴다면 공작원의 일을 수행하여주고있는 그 모든 선은 사라지고말것이다. 비록 선의 종국적인 승리를 위한것이라 해도 악한 행동에 공모한다면 그것은 허용될수 없는 일이며 비도덕적이고 위법행위로 되는것이다.

바로 이 문제가 늘 슈틀리쯔를 괴롭히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히틀러당의 호위대—에쓰에쓰의 검은 제복을 입으면 자동적으로 《범죄자들의 조직》성원으로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방도를 찾았다. 이 구원의 방도는 지식속에 숨어있었다.

비록 꾀가 있고 예리하고 민첩하게 사고하는데 익숙되여있지만 지성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인간들속에 있으면서 슈틀리쯔는 벌써 제일 초기에 자기에게서 구원의 방도는 지식에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쉘렌베르그도 사실 《총명한 머리》때문에 그를 아껴왔던것이다. 그의 지식은 정치첩보사업에서 여실히 실증되고 적절한것으로 인정되였다.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가 외무성이나 게스타포에서 그의 적수들이 내놓은 구상을 론리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다는것을 확신할 기회를 가졌었다.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를 자기 개인고문처럼 리용하고있었다. 그것은 슈틀리쯔로 하여금 쉘렌베르그에게 자기가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있고 무엇은 힘들며 어떤 문제에서는 자신이 있으나 어떤 문제에서는 에쓰디 제6과내 다른 동료들에 비해 훨씬 미약하다는것을 충분히 인식시킬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정치활동문제가 제기될 때 극히 필요한 존재로 지목되였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 중요한 첩보일군들, 외교관들, 군인들에 대한 개인자료집, 대담하고 폭넓은 사색, 이 모든것은 슈틀리쯔로 하여금 제일 초기부터 공작에 참가할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물론 쉘렌베르그의 활동은 제일 초기부터 쏘련정탐기관의 감시속에 놓여있었으며 진리는 악과 대치되여있었다.

이처럼 지식은 슈틀리쯔에게 남의 악독한 의사의 노예로 된 사람들과 그의 맹목적인 집행자들속에서 도덕적인간, 법적인간으로 남아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항시적으로 모든것을 알고있어야 했고 항시적으로 보고자료를 준비해가지고있어야 했다. 그리고 늘 쉘렌베르그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

여있어야 했으며 급작스레 제기하는 그의 여러가지 질문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의도를 깨달아야 했다.

일순간도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고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기 위하여, 손이 권총에 올라가지 않도록 자기를 자제하기 위하여(량심적인 사람들은 불가피한것이지만 자기의 악행을 오래동안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병사로서 그 승리를 맞이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판단해보기 위하여 슈틀리쯔는 남들이 쉬면서 산으로 놀러 가고 물고기잡이를 가고 드레즈덴에 메돼지사냥을 떠날 때에도 일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휴식할 때 그는 고문서를 뒤지고 도서실에 묻혀 일하면서 문건을 작성하고 자료들을 세밀히 분류하였다. 이것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에쓰디사업에서 그를 구원해주었다. 그는 자립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절약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슈틀리쯔가 모든것을 죄다 알고있어 조회를 할 필요가 없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말만 떼면 무엇이나 모르는것이 없었다.

아는것이 많으면 일찌기 늙는다고 한다.

그는 정말 아는것이 많았다. 그러기에 벌써 서른한살 잡혀서부터 겉늙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를 옛날사람으로, 병약한 늙은이로 느끼고있었다. 다만 그는 나치즘이 살아있는한 죽을 권리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여야 했고 피로한체해야 했으며 때로는 상급들에게 불평조로 내쏘기도 해야 했다. 그리고 하이드리히가 즐기는 포도주도 마시고 밤에는 잠을 잊어야 했다. 정구장에서는 승리자가 되여야 했다. 또한 녀자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했고 아랍어도 배워야 했다. 한마디로 그는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 일을 해야 했다. 결코 달리는 할수 없었다.

결심이 늦어지면 위험에 처할수 있다

유고슬라비아수상 두샨 씨모비치는 모스크바, 베를린, 워싱톤에 주재하고있는 대사들로부터 보내온 새로운 소식들을 모두 검토하고나서 영국대사 켐프벨을 만났다. 그는 또한 외무성정치부에서 작성

한 자료들을 깐깐히 료해하여보았다. 보고에는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공장들에서 집회들을 가지고 인민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자료, 좌익신문들이 모스크바와 속히 조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을 명백히 암시하고있다는 자료, 영국외교관들이 거의 매일저녁 《쓰르비아구락부》대표들과 만나고있으며 《경제고문단》과 함께 유고슬라비아에 온 웨젠마이어와 말레트케 등이 지금까지도 부수상직을 차지하는데 동의하지 않고있는 흐르바쯔까농민당 당수 마체크와 접촉하였다는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또한 도이췰란드외교관들이 슬로베니아민족주의조직대표들, 슈쩨이폰장령을 비롯한 3명의 로씨야군사망명객대표들과 만났다는 자료, 총참모부장교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국방성이 반전시체제로 넘어간만큼 장교들에게 접촉을 회피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였었다는 자료도 있었다.

영국대사와 만나기 앞서 수상 씨모비치는 부총참모장을 만났는데 그는 한시간이라도 지체하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신속히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것을 또다시 주장하였다.

《잠간만, 잠간만 기다리오, 장령.》 수상은 성이 나서 반박했다.

《동원준비를 하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회담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오.》

《수상각하, 당신은 군인으로서 동원준비를 비밀리에 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동원령을 선포하면 우리는 22개 사단을 국경을 따라 배치할것입니다. 그러나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면공세앞에 옴짝달싹 못하게 될것입니다.》

《내가 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씨모비치수상이 말했다. 《나는 쯔웨뜨꼬위치를 제거해버렸으니 기본적인것은 실현된셈이고 다만 강경한 립장을 취하는것만이 남아있고 나머지것은 걱정없다고 생각하였댔소. 그러나 아무 일도 되지 않고있소. 아무 일도말이요. 내가 정권을 잡은 이 48시간에서 적어도 12시간은 사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했소.》

《쯔웨뜨꼬위치를 돌아오게 할 생각입니까?》

《떨어진 정치인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아니요, 만일 정권을 넘겨준다면 히틀러에게 즉시 달라붙을 도이췰란드숭배자들에게가 아니면 즉시 동원령을 선포하고 모스크바와 동맹을 체결할 찌또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거요.》

《당신은 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종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있소, 장령. 바로 그렇게말이요. 그리고 당신이 도이췰란드가 강요하는 정책에도 복종하리라고 생각하오. 어떤 문제들은 오늘 낮에 벌써 명백해질수도 있을거요.》
영국대사 캠프벨은 주위의 모든것이 깨여지고 붕괴될수 있어도 행동습성만은 변할수 없다고 주장한 이전 제국류파의 외교관들중에 속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타임스》론설원이 자기가 초청한 오찬회에 와서 져메이커총독이 전통적으로 차리는 초대연에는 나비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참가시키지 않는다고 쓰겁게 말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쁠게 있소? 내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이 훌륭해보이는구만. 전통의 계승은 국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것이요. 헌데 대륙에서 총질을 하기때문에 총독이 카키색옷은 입지 말아야지.》
《대륙에서는 영국병사들에게 총을 쏘고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연이 벌어지고있는 시각에도 총을 쏘고있을수 있습니다.》
《전쟁도 총을 쏘기 위해 하는거니까.》하고 대사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전쟁때에도 평화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가 사소한것이라도 변경시키려든다면 불피코 찾아온 평화는 많은것을 잃게 될것이요. 우리의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것이요.》
영국대사 캠프벨은 유고슬라비아외무상이나 수상과 만났을 때에도 자기가 생각하고있던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였고 제국의 대사로, 다시말하여 거짓을 모르는 신사로 조금도 덤비지 않는것으로 하여 이기군하는 체육선수처럼 행동해야 했다.
《대사씨》씨모비치는 곱씹어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래일중으로, 늦어서 래일중으로 부대들을 유고슬라비아에 상륙시키는 경우라야 지탱해낼수 있습니다.》
《수상각하, 우리 폐하께서 이끄시는 정부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있는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대의 상륙은 귀국을 놓고볼 때 자동적으로 도이췰란드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됨을 의미할것입니다. 전유럽적인 리익의 견지에서 보면 지금의 형세에서 벗어날수 있는 락관적인 출로는 히틀러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귀국령토를 통과하여 자기 군대를 그리스에 진출시킬것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에서말입니다.》

《그것은 공상입니다. 히틀러는 특히 지금, 쯔웨뜨끄위치가 꺼꾸러진 후에 군대를 통과시켜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는 결코 중도반단하지 않을것입니다. 내가 도이췰란드출판물들을 주시하고있는데 그 어조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도이췰란드출판물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것이 귀내각에 대한 정치적압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씨모비치는 대사의 느릿느릿한 말을 들으면서 시간이 푸실푸실 쏟아지는 모래시계처럼 걷잡을수 없이 흘러가는것을 매우 안타깝게 느꼈다.
(무엇때문에 이 모든 놀음이 필요한가? ―씨모비치는 생각했다. ―3월 27일은 무엇때문에 필요했고 군인들과 군중들은 무엇때문에 거리에 떨쳐나섰던가? 그리고 기발은? 과연 이것은 내가 이 사무실에서 저 사무실로 옮겨앉기 위해서였단말인가? 정말 내가 모든것이 바로 이렇게 뒤집혀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가? 과연 내가 히틀러가 광증을 일으킬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단말인가? 그날밤 내가 과연 나라에 대하여 생각한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였던가?)
씨모비치는 갑자기 몸이 후더워났다. 모든 위궤양환자들에게 그러하듯이 약간 꺼져들어가고 누르끼레한 병색이 도는 관자노리에 땀방울이 내돋혔다. 그는 딱하고 손가락소리를 냈다. 켐프벨은 그의 메마른 손을 바라보며 살짝 이마를 찌프렸다.
(일이 이처럼 된이상 무엇인가 해야 한다! 좋아, 내가 지금 모스크바에 손을 내밀수는 없지만 여기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씨모비치는 어린 아이를 달래듯 자기를 위안했다.
(내가 권력의 자리에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얼마전에 품고있던 모든 의심을 털어버린듯 확고한 결심이 떠올랐다. ―내가 수반으로 있는한 남아있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수상관저가 아니라 력사에 남아있기 위해서… 나는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력사를 위해 일할것이다. 력사는 우리우에 있다. 력사는 공담이 아니라 행동을 존중히 여기는것이다.)
《우리에게는 비행기, 땅크, 무기가 필요합니다. 대사씨.》 씨모비치는 느릿느릿 말하였다.
《우리는 귀하의 군인들로부터 문건을 받고 지금 연구하고있는중입니다.》

《당신은 우리 문제를 그렇게 오래동안 취급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나 한사람에게 달려있는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또하나의 출로가 있습니다.》 씨모비치는 소리내여 웃었다. 《좌익세력들과의 련합을 형성하여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선포하자는겁니다.》
《나는 이러한 프랑스식구호가 베를린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모스크바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런던에서는 어떨것 같습니까?》
《나는 오늘중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폐하의 정부와 련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동료들과 토의해보려고 합니다.
수상각하, 정변전야에 당신이 우리와 토론할 때 이런 문제는 예견하지 않았었지요.》
《우리는 지금 도이췰란드외무상 립벤트롭프가 로골적으로 표현하고있는 이런 반응은 예견하지 않았댔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구성하는것이 우리 내부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지요.》
영국대사는 씨모비치수상을 쳐다보고 생각을 굴리였다. (내가 당신에게 정신없는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주고싶지만 당신이 수상으로 있는한 그렇게 할수는 없다. 나는 당신이 모스크바와 접촉하겠다고 《위협적으로》 한 말을 내놓고 축하해줄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로 될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동부사태를 촉진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테니까. 나는 유고슬라비아가 우리의 적인 도이췰란드와 대립되여있는것만큼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는 없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히틀러가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아시아의 제국식민지 교두보인 발칸반도가 깊숙한 유럽후방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시간이 결정할 문제다. 하기에 지금 나는 당신에게 아무 대답도 할수 없으며 당신의 말을 듣기만해야 한다. 우리는 정변을 도와준것으로써 자기 맡은 일을 했다. 이제는 당신자신이 결정하라, 장령 그리고 나를 그렇게 애수와 기대가 어린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
대사는 씨모비치에게 바투 다가와 자못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나는 워싱톤이 이 근간에 렌드리스(제2차세계대전시기 련합국들

에 대한 미국의 군수품 및 식량대여법)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자기 원조를 선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원조를 선대하여 가까운 주간내에 당신들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그러한 전략물자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줄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것은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죽을 각오가 되여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당신은 영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죽을 각오가 되여있겠지요, 대사씨?》

《그야 물론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만 죽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없지요, 대사씨. 자유는 산사람에게 필요한것입니다. 당신들은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뛰르끼예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즉각 단합하도록 협력해줄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유고슬라비아에 군단을 상륙시킬수는 없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어느때면 가능할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미국정부와 함께 우리에게 담보를 줄수 있습니까? 만일 줄수 있다면 어떤 담보를 줄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즉시적인 해답을 기다리고있는것들입니다.》

켐프벨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한숨을 내쉬고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제가 폐하의 정부에 문의하고 래일중으로 제가 받은 답변을 각하에게 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

켐프벨대사와의 담화가 끝난지 한시간 지나 씨모비치수상은 자기의 어느 한 보좌관의 집에서 또 한차례의 담화를 가졌는데 대화상대자의 본명은 알수 없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플라톤과 크롬웰의 말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는 이 사람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대표였다. 씨모비치는 대화상대자가 이것을 알고있는것이 놀랍게 생각되였다. 씨모비치는 브로즈 찌또의 특사가 검은 옷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옷을 입은 로동자일것이라고 추측하였었다.(그가 쏘련영화에서 보아온 혁명가는 그런 사람이였다.) 그러나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산당중앙위원회가 전민족적투쟁에 합류할 준비가 되여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한 그 사람은 박식한 사람이였다. 특히 그는 이전 통치제도에 의해 체포된 공산주의자들의 석방문제를 론리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찌또의 특사는 아무런 중점도 두지 않고 이야기했다.

《세계사회계는 귀정부의 대외정책방향을 세밀히 연구하고있습니

다. 저는 강대국들의 금후 대외정치활동이 많은 경우 새 행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모비치는 모든 강대국들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강대국, 로씨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확인하고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화상대자가 담화형식을 단지 의견교환으로 그치고 당장 결정을 채택하려들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들이 전 수상 쯔웨뜨꼬위치와는 만나려 하지 않았을것이다. ㅡ씨모비치는 불현듯 자기도 모를 기쁨에 사로잡혔다.ㅡ히틀러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그와 다르게 행동했을것이다. 쳐칠도 루즈벨트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다. 내 몸은 이미 자기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나를 인도하여주고있다. 나는 나를 인도하여주는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항시적으로 자기가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라는것을 기억하고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간에 지금 그것은 늘 나와 함께 있을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있는것은 천만번 지당하다. 군법에는 하나에 복종된 전체는 무궁한 영광을 떨칠것이며 지도적위치에 있는 사람은 영생할것이라고 지적되여있다.)

공산당중앙위원회 특사의 말을 끝까지 듣고나서 씨모비치수상은 그에게 친절하게 웃어보였다. 지금에야 그는 다른 세력들을 대립시키거나 련합시키는 놀음의 쾌락을 느끼며 이 특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해줄것인가 하고 한순간 생각을 더듬었다.

씨모비치는 지금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약속하는것은 합리적이 못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오자 두가지 명령을 준비할것을 지시했다. 그 하나는 가두시위를 엄금하며 질서를 지킬데 대한 명령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좌익계인물들을 석방할데 대한 비밀명령이였다. 두번째 명령내용에 대하여 그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가 만났던 그 특사에게 통지해주었다. 공산당특사는 문건을 료해하고나서 사소한 말투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돌려 《동지》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유고슬라비아신문들은 제1면에 《우리는 사회질서를 위반하고 당국의 승인없이 집회를 조직하는자들을 모조리 처벌할것이다.》라는 제목을 크게 달고 씨모비치의 명령을 공포하였다. 두번째 명령

은 재판기관을 통하여 조용히 내려졌다. 명령은 해당 관리들이 그 뜻을 추측하리라는것을 타산하고 내린것이였다.
쓰르비아에서는 씨모비치의 비밀명령이 어느 정도 집행되였다면 흐르바쯔까에서는 이와 달리 정세가 복잡해졌다. 수상의 첫 명령을 극구찬양하면서 신문들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지시를 구실로 만행들이 감행되였다. 흐르바쯔까의 마체크－슈바쉬치지도부는 씨모비치의 의사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면서 어떤 집회나 시위든지 그것을 조직하였거나 혹은 조직할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흐르바쯔까에서 즉시 체포할것을 지시하였다.
년로보장을 받게 될 때까지 앉아있을 작정으로 여기에 새로 부임되여온 감옥장은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가 정치범담당 부소장이며 동시에 경찰서 특수과 특별전권대표인 끄왈리치소좌에게 물었다.
《그들이 흐르바쯔까사람들이요?》
《흐르바쯔까사람들이지요. 프리짜를 내놓고 모두 흐르바쯔까사람들이지요.》
《내 의사대로 하라면 그들의 감방에 새 정부에 틀고앉은놈들을 더 처넣겠소.》
《당신의 의사대로 하지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허나 지금 우리의 의사란 없단말이요. 이 세사람을 석방할데 대한 명령서를 준비하오.》
《저는 그런 명령서를 준비하지 않으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제기하오?》
《저는 아무 의견도 제기할수 없습니다. 대좌각하. 저는 하나만을 알고있습니다. 적의 손에 총을 쥐여주면 나에게 총부리를 돌릴수 있다는겁니다. 자유는 지금 그들의 무기입니다. 저는 죽고싶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그것을 바라고있는듯이 생각할수 있을거요. 나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것을 알게 되는 날 죽고싶소. 나는 죽기전이래야 나의 적들을 몇놈 쏴갈길테요. 그러니까 그자들이 내가 아무쪼록 건강해 있기를 빌게 해야지.》
《그렇게 하라죠.》
《소좌, 난 베오그라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소. 당신도 이걸 잘 알고있지.》

《알고있습니다. 단지 나는 베를린이 얼마동안이나 베오그라드의 무분별한 행동을 참을셈인가 하는것을 자기에게 물을뿐입니다. 히틀러는 언제까지 씨모비치의 놀음을 용서해줄 작정입니까? 간수들이 현 정권에 복무하고있다고 생각할수 있을겁니다. 허나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간수는 현재 누가 통치하고있던 관계없이 자기 리념에 복무하고있는것입니다.》

대좌는 골살을 찡그렸다.

《당신은 나를 지성으로써 내려누르는구만, 꼬왈리치! 나는 당신이 자기의 지성으로 유혹할 여지가 있는 그런 정치가가 못되오. 나는 헌병이고 열성적인 일군에 불과하오. 요술도 피울줄 모르고. 헌데 당신이 담화과정에 전향시킨 사람들은 단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협조에 응해나섰을뿐이지 모름지기 후에는 당신의 제의에 동의했듯이 〈동지〉들에게 모든것을 통보해줄거요.》

《그렇게 하라죠. 하지만 문건은 남아있으니까요. 문건에 첨부된 동의서는 우리 이름을 남겨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날 력사가들이 문건에 씌여진 자료들을 리용할것입니다. 이것은 문건이고 나머지것들은 모두 소문에 불과하지요.》

《또 리론이구만. 그들이 승리하면 문건을 모조리 없애치울거요.》

《당신같으면 문건을 없애버리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건을 보존하려 할것입니다. 승리자들도 년령과 지성, 기질이 각이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중에는 불만을 품고있는 사람들, 불공평하게 승급한 사람들, 바보들, 천재들, 의심스러운 금욕주의자들,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겁니다. 때문에 문건은 사도전(종교에서)과도 같이 될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글줄이든 자기대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업에서 유리시켰소.》 감옥장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큰 소좌의 얼굴을 호기심을 품고 세세히 여겨보며 말했다.

《제가 당신을 사업에서 유리시킨것이 아닙니다.》하고 꼬왈리치는 말하였다. 《반대로 저는 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석방시켜서는 안된다는 자기 립장을 확고히 지키고있습니다. 석방해선 안됩니다. 현 시점에서 그들이 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전인민적운동의 지도자들로 될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거요?》

《그자들중에서 누구든지 장티브스에 걸리게 해놓자는겁니다. 혹은 적리에 걸리게 하던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석방할데 대한 명령서에 수표할것입니다. 그러나 면역기간이 적어도 20일은 될테니까 그들은 감옥에서 이 기간을 보내야만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포하라는 자그레브의 명령도 석방하라는 베오그라드의 명령도 모두 집행할수 있습니다.》

감옥장은 일부러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당신이 오늘 내대신 취사장을 좀 검열해주오. 아침부터 뼈가 쏘면서 몸살이 나는구만. 봄이 오니 또 병이 괴롭히오. 기침이 나서 견딜수가 있어야지. 귀에서 윙-소리까지 나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알려주오. 잘못하다간 한주일을 내처 드러누워있을것 같소.》

《그들은 당신을 선참으로 목매달겁니다.》 뾰왈리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양조로 웃었다. 《나야 용서해주겠지요. 그들에게 관대성을 베풀어주었으니까. 이것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해줄거요. 목을 매달던지 견장을 쥐여뜯던지 하겠지. 친구, 만일 현 정권이 나에게서 견장을 뜯어내면 끝장이요. 새 정권이 그렇게 해도 역시 끝장이요. 도대체 내가 할줄 아는게 뭐요? 나는 문을 잠궜는가 하는것을 검열하는것외에 아는것이 없소. 바로 그렇소. 아무것도 할줄 모르오. 하지만 정권은 아직 이 정권이요. 이 정권이란말이요, 친구. 당신은 젊었으니까 싸워야지.》

즈보니미르 브지크는 교정지에서 눈을 뗄수가 없어 오래동안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신문에 실을 리치치교수의 론설을 보고있는것이였다. 교수는 국제법상 요구에 립각하여볼 때 상속정부는 이전에 체결된 협정들을 페기할수 있는 합법적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였다. 베오그라드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전민족의 통일적인 견해를 시위하기 위하여 바로 자그레브에서 이 론설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치는 외무성 출판보도국에서 구상한것인데 이와 같은 행동은 대체로 《소경놀음》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유고슬라비아정부도 도이췰란드정부도 흐르바쯔까의 진짜형편을 알고있었고 흐르바쯔까에 파쑈조직이 움직이고있을뿐만아니라 그 조직의 두목 빠벨리치의 특사 두명이 베를린에 날아가 거기에서 에쓰에쓰와 군부대표들을 만났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나 각이한 국가기관들이 저마다 자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군부에서 공격을 계획할 때 외교관들은 친선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겉으로는 이렇게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취하는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상 칼집에서 장검을 빼지 않고 자기 목적을 실현하려는것이다.

브지크는 간나가 전화를 걸어온게라고 생각했다. 안해는 보통 이맘때 점심식사하러 오겠는가 묻군하였던것이다. 결혼한 초기에 브지크는 동무들과 함께 식사하러 갈 때 안해를 데리고가고싶어하였었다. 그러나 안해는 《저는 낯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거절하군하였다. 언제인가 한번은 브지크가 알바니아총참모부의 대좌를 만난적이 있었다. 대좌는 녀자처럼 알랑거리는것으로 소문난 사람이였다. 브지크가 안해에게 함께 가야겠다고 말하자 안해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거니와 당신이 만나려는 군인이 무서워요. 당신이 〈실무면담〉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지 않나요.》라고 대답하였다. 브지크는 《실무면담이 아니라 우리의 상봉이요.》하고 말을 고쳐주려다가 그만두었다. 성격이란 꺾을수는 있어도 변경시킬수는 없는것이다. 그는 자기 속기원을 오찬회에 데리고가기로 했다. 처녀는 그의 정부였다. 브지크는 이렇게 하면 간나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대좌에게 적당히 교태도 부리면서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겠다고 처녀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처녀가 자기, 편집부장을 사랑하고있을뿐아니라 필요하다면 대좌에게도 응해줄수 있다는것을 암시해주라고 귀띔해주었다. 오찬회는 만족하게 진행되였다. 대좌는 혀를 끌끌 차며 남자가 이처럼 고운 처녀의 사랑을 받는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고 하면서 처녀가 어딘지 모르게 자기 딸과 비슷한데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브지크에게 참으로 령리한 안해가 있다고 말했다. 릴랴나라고 부르는 처녀가 자동차를 부르려고 자리를 뜨자 대좌는 브지크에게 자그레브의 어느곳에 좋은 유곽이 있는가고 물었다. …

브지크는 교정지를 계속하여 읽으면서 수화기를 쳐들었다.

《안녕하오, 브지크, 어떻게 지내오?》

《아니, 이거 대좌로구만! 뻬따르! 웬일이요?》

《이게 다 사변덕택이지.》 대좌가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사변덕을 입고있네. 자넨 오늘 어데서 점심식사를 하려나?》

《난 점심을 그만두겠네, 뻬따르! 나한테는 일이 산더미같이 쌓

였네.》
《유감이로구만. 내가 자네를 고급료리점에 초청하려고 했더니, 새끼노루도 주문해놓았는데.》
빼따르 웨지치대좌는 브지크와 함께 종합대학을 다니였는데 후에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였다. 웨지치는 졸업연회때 브지크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평화는 더욱더 힘에 끌려가고있네. 그리고 국가의 사상가들은 국민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하고있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걸세. 유고슬라비아는 무의도식하는 인간이 아니라 행동강령을 제시할 위인이 나타날 시각을 기다리고있네. 나는 그 시각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네. 자넨 내가 〈강권〉을 키우는 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했다는것을 알게 되여도 성내지 말아주게. 나는 자네가 명백한것만이 제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명백한것을 이루고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는 자유주의자들처럼은 되지 않기를 바라네.》
그들은 연회와 극장관람때 서로 만나군했으나 대학생시절과 같이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다. 브지크는 자기가 바로 자유주의자로서 웨지치의 결심을 이상하게 대하여왔다고 인정하고있었다. 그는 경찰과 같은 강권에 복무하는 사람을 꺼려하는것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기본감정이라고 생각하였다.
《혹시 래일로 미룰수는 없겠나?》
《그렇게 하세.》 웨지치는 선선히 응하였다. 《내가 자네에게 서둘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한번 만나고싶어서 그러는거네. 또 요즈음 뭐가 바쁘게 있겠나? 당국자들자신이 분주히 뛰여다니고있는데. 그들이 어찌나 바쁘게 달리는지 거기에 비하면 다른것은 다 거북이나 다름없네.》
브지크는 자기 대학동창의 목소리에서 뭔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내가 일을 미루고 가야겠구만. 우리가 만나본지 너무 오래되여 기회를 놓쳐선 안될것 같네. 주소를 알려주게.》
그들은 건포도주를 한잔씩 찌웠다. 료정에서는 포도주를 염소가죽냄새가 풍기는 가죽주머니에 담아 부어주었다.
《자네를 보게 되여 반갑네.》 웨지치의 말이였다. 《정말 반갑네!》

《나도 역시 반갑네. 자넨 몸도 나구 건강해뵈는구만, 대좌.》
《국가가 우리 세대를 귀중히 여기고있는덕에 차를 타고다니네.》
《일요일마다 등산도 좀 하라구.》
《자넨 걸어다니나?》
《난 일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네. 일요일신문이 특히 흥미있어야 하니까.》
《나한테도 일요일에 일감이 제일 많네.》
《자네한테야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겠나?》 브지크는 허허 웃었다. 《일요일에야 태업을 일으키지 않지 않나.》
《일요일마다 나는 이딸리아외교관들과 술놀이를 해야 하네.》
《월요일에 하면 안되나?》
《월요일에는 파업이 일어나군하지. 자네가 옳게 말했네. 아니야, 한주일치고 정말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네. 대야회나 연회가 련속 맞물려있네. 그러나 여느날에는 혼잡이 보통이네. 파쑈조직성원들이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기도할 때도 있고 만디치교수가 종합대학에서 쩨싸레쯔의 반정부적인 연설을 조직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자네들의 론설원 리치치교수가 도이췰란드특사 웨젠마이어와 접촉하는 일도 있군하지. 리치치는 비밀경찰의 해당 부서와 련결되여있네.》
브지크는 웨지치가 결코 청년시절의 친구가 그리워서 초청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웨젠마이어와 리치치와의 접촉에 대하여 말해주려고 한것도 아니였다. 《리치치는 웨젠마이어와 접선하기로 꿈꾸어왔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신문사에 오면 범죄기사부에 갈것을 바란단말일세.》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흥미있고 론리적이니까 그런거지. 따기군색출은 론리적인것이 특징적이네. 사실 따기군이야 사회의 오물이나 다름없지. 이건 도시의 훌륭한 변호사들을 고용하고있고 자기의 행동을 경제적진보를 위한 투쟁에로 묘사하는 그 어떤 두목은 아니네.》
(만디치에게 혼자서나 찾아가라지. 나는 여기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테다.) 하고 브지크는 생각했다.
《간나는 어떻게 지내나?》 웨지치가 묻는 말이였다.
《고맙네. 잘 있네.》

《자네의 처는 정말 매혹적이야.》
웨지치는 정보망에서 입수된 자료를 통하여 브지크녀편네의 정부인 미오가 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비밀경찰은 의회에서 흐르바쯔까대표들이 살해된 후에 벌어진 청년들의 시위에 미오가 참가한 때로부터 그를 감시하고있었던것이다. 후에 미오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철학을 전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과학잡지들에 발표되는 그의 론문들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왔다. 웨지치는 낮에 적어도 3시간은 브지크의 녀편네 간나가 미오의 형의 집에서 보내고있다는것과 브지크가 녀편네와 사이가 나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리고 간나가 녀자들이 남자를 몹시 사랑하거나 혹은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듯이 별치않은 일을 가지고 소동을 피우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웨지치는 간나에 대한 문제를 우연하게 건드렸다. 그는 자기의 옛 친우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것을 보고 그의 내심을 판단해보고싶었던것이다.
《고기가 마음에 드나?》
《훌륭하구만. 노루고기요?》
《그렇네. 노루새끼고기보다 더 맛있는 료리는 없다네.》
《그럼 새끼돼지는 어떤가? 그리고 새끼메돼지는?》
《간에 부담이 크네, 브지크.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슬람교도들이 우리보다 현명한가보네.》
《난 아무거나 닥치는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기체는 스스로 무엇은 섭취할수 있고 무엇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네. 나는 담배나 포도주, 메돼지고기같은것은 무익한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신경을 과도하게 쓰는것도 인체에 해롭다는것을 알고있네. 자넨 어떤지 몰라도 난 통 알수 없구만. 요즘 사흘동안은 잠도 자지 못하네. 어떻게 생각하나, 싸움이 있을것 같나?》
《나는 히틀러가 아니네. 나는 자기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의 위치에 세워보고싶지 않네, 브지크.》
《난 어쩐지 싸움이 곧 일것 같구만.》
《싸움이 아니라 끔찍한 도륙이 벌어질거네.》
《자넨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나?》
《난 우리가 조직으로 뭉치지 못했다고 보네. 우리는 말공부만 하

고 공상만 하고있지.》
《자넨 뭘 말하려는건가, 웨지치?》
《나는 마시자는걸 다시한번 말하고싶네.》
《자네 밀리짜를 만나봤나?》
《언제인가 한번 만나봤네. 몸이 굉장히 났더구만. 자넨 그 녀자를 쳐다보지도 못할거네.》
《그럴것 같애. 우리모두가 새것과 맞다들어보기를 두려워하고있으니까. 더우기 우리가 숭배하여온 리상과 말일세.》
《젊음과 순박성 그리고 리성은 모두 흥미있는것이라고 생각하네.》
《자네한테도 한때 힘에 대한 리상이 있지 않았나, 웨지치.》
《왜 있었다고 하나? 지금도 남아있네.》
《그럼 자네 우리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에게 대답해보라구.》
《우리는 다소나마 서로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보네. 고기를 더 들려나?》
브지크는 길숨한 고뿌에 찬물을 부었다. 그리고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웨지치는 그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자네와 나는 어른들의 놀음을 놀고있구만. 사나이들은 죽을 때가 되여야 이런 놀음을 그만두는거라네. 나는 강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천품은 아무나 가질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자네 우리 신문에 일요일마다 펠레톤을 내고싶지 않나?》
《돈은 얼마나 주겠나?》
《그거야 사람나름이지. 옛 친구들에게는 최고로 줄수 있네.》
《나는 자네의 담화수법을 높이 평가하네. 허나 우정으로 놓고 말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 말이 여기에서 어쩐지 류다르게 들리는것 같구만. 자네는 내가 신중한 이야기를 시작하기만 기다리면서 나에게 질문을 했어야 하겠는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네. 그러니 우정에 대하여 말할 여지가 없지 않나. 나의 리상에 대하여 회고하여준것은 좋은 일이네. 문제는 웨젠마이어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만디치에게도 있네. 자넨 이것도 역시 리해하였어. 오늘 그를 보지 못했나?》
《보지 못했네.》
《30분전에 나는 인테리문제를 담당한 나의 한 동료로부터 온 지시

문을 읽어보았네. 거기에는 래일부터 만디치를 감시할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있었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모두 공산당지하조직에로 이끌어갈걸세.》

《모르겠네.》

《작가 쩨싸레쯔의 연설은 그들이 서로 련결되여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네.》

《믿을수 없구만.》

《어째서말인가?》

《만디치교수는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니말이네.》

《바로 그렇네.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나치스트가 아니면 국제공산당과 밀착되여있단말일세.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자네가 오늘 당장 그에게 가서 〈동지들〉과 일체 련계를 끊어버리라고 전해주기 바라네. 정부가 아직 그들을 비법화하기전에말이야.

만일 련계만 취해지면 나는 어쩔수 없네. 그들을 즉시 체포할걸세. 이것은 당면한 투쟁에서 유고슬라비아를 구원할수 있는 세력들에 대한 또하나의 타격으로 될거네.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체포되였네.》

《그건 어떤 사람들인가?》

《쩨싸레쯔, 케르쇼바니, 프리짜, 아쥐야, 리흐트만과 같은 사람들이네. 이만하면 충분한가? 계속하라나?》

《자넨 공산주의자들이…》

《그렇네. 그렇네.》 웨지치는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그렇네, 브지크. 그들은 여기서 자기 당을 유고슬라비아당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들이네. 자넨 경찰한테서 이런 말을 듣는것이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경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인것은 아니지. 경찰에도 누구인가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자네와 마찬가지로 나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있네. 그러나 청맹과니가 되여서는 안되지! 우리가 국가를 보존하려면 그들의 력량을 전반적인 투쟁대렬에 망라시켜야 하네.》

《자넨 무엇때문에 바로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나?》

《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죄다 알아야 하기때문이네. 나는 자네에 대하여도 모든것을 알고있네. 브지크, 알겠나? 모든걸 알고있단말이야.》

《놀래우는건가?》
《아니네. 대답해주는거네.》
《난 자네가 사업상—임무를 어길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이 료정에 질좋은 말린 파실이 있네. 주문하라나?》
《난 커피를 마시고싶네.》
《벌써 끓이고있네. 여기 주인이 재미있는 사람이야. 뛰르끼예사람이지. 그는 우리를 돕고있네. 나한테 아주 믿음성있네. 내가 그를 사업에 인입했지. 여기가 조용한곳이고 음식도 잘하니까 흥미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군하지. 사람들은 모두 마메드라고 하는 주인이 흐르바쯔까말을 잘 모르는줄로 아네. 대체로는 그렇다고 볼수도 있지. 그러나 그는 내 말을 잘 리해하고있네.》
《자넨 사업상 임무에 대하여 언급한 내 말에 그렇게 대답하는건가?》
《그렇네.》 웨지치는 조용히 응수했다. 《자네가 나를 옳게 리해하였네. 사업능력을 소유하자면 믿음직한 보장사업이 필요하네.》
웨지치는 자기 동료들보다 하루 앞서 만디치교수에 대한 감시를 조직하였었는데 감시조에서 대상의 움직임에 대하여 보고하여왔다. 브지크가 떠나간 후 교수는 기관사 피치를 찾아갔다. 기관사는 법률가 리치치에게로 갔다. 법률가는 또 자기대로 종합대학 학생 슬라비치와 만났는데 그날저녁 그의 집에는 찌또와 직접 련계를 가지고있는 지하중앙위원회 위원 다섯명이 모여들었다.
대좌 웨지치는 감시조가 공작임무를 그처럼 정확히 수행한데 대하여 칭찬해주고 아지트주소와 그 주인들의 사진을 철궤속에 감추어넣었다. 그러나 규정의 요구대로 상급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어떻게 발전할것인가 기다려보기로 했다. 밤마다 계속되고있는 내각회의에서는 토의된 문제를 결판지어야 했다. 다시말하여 르—41계획에 따라 동원령을 선포하고 이딸리아, 도이췰란드, 마쟈르, 벌가리아, 로므니아와 맞서기 위한 총방어선을 설정하기 위해 그리스와 접촉을 가지는가 아니면 위기의 정치적해결을 모색하며 히틀러와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규정하는가 하는것이였다. 베를린은 연극을 놀고있었다. 외무성관리들은 유고슬라비아대사를 만나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듯이 암시하였다. 그런데 베오그라드주재 도이췰란드림시대리대사는 그러한 타협을 불가능

한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사람은 두가지 출로가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몰라 동요하게 되는것이다. 도이췰란드군 총참모부에는 오직 이러한 동요만이 요구되였다. 하루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적을 늦춰놓아야 했다. 유고슬라비아는 3천키로메터의 국경에 부대들을 전개하여야 했던것이다. 이것은 석탄과 휘발유로 움직이는 수백대의 증기기관차, 자동차, 천여개의 화차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후방일군들이 군인들에게 병영과 식량과 의약품을 보장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헌데 이 거대한 수단은 정부가 동원령을 선포할 때라야 움직일수 있었다.

나라에는 동원령이 박두한듯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소문은 비밀경찰의 조용한 방안에서 꾸며질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도이췰란드첩보기관의 임무는 사실을 확증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견되는 일들에 대하여 베를린에 정확히 보고하는데 있었다. 웨젠마이어는 이러한 임무가 그의 《특수조》에 부과된것은 없었으나 바로 이 문제를 디쯔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소문가운데 꾸며내지 않은것들이 있음을 정확히 감촉했다. 그는 물론 쯔웨뜨꼬위치가 전복된 날 동원령을 선포할것을 요구한 총참모부와 수상 씨모비치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었다는데 대하여서는 모르고있었다. 그는 또한 씨모비치가 량면적인 결심을 내렸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즉 수상은 4월 3일경에 《비밀동원령》을 선포하기로 결심한것이다. 씨모비치는 정치적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목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와 같은 인간과 정치적분쟁을 해결하는것이 곧 힘과 힘의 대결이라는것을 미처 몰랐다. 씨모비치는 《무사의 명예》와 《군인의 신사적인 행동》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있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당에게는 론거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하였을 때 씨모비치는 얼굴을 찌프렸다. (당신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있다. 어쨌든 그들도 야만이 아니라 유럽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사건을 재촉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관망하려는 그의 립장, 사람은 자기가 알고있는 명백한것만을 표명하여야 하며 알수도 없는 공허한 미래에 서둘러 뛰여들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신조는 그에게 좋지 않은 작용을 놀았다. 그는 싸우지 않고 말만 했으며 행동할대신 앉아서 저울질만 했다. 그리고 사건에 뛰여들려고 하지 않고 흉내만 냈다.

바로 이 시각에 룩군원수 리스트의 부대들은 이미 유고슬라비아 동부국경을 따라 출발계선에 진출하였다.

극한점의 극한점

히틀러는 로젠베르그, 카이젤, 립벤트롭프, 보르만 등을 저녁식사에 초청하였다. 손님들에게는 가두배추료리와 탕을 친 돼지고기료리를 들여오고 총통에게는 지진 물고기와 올레브기름으로 튀긴 감자를 들여왔다.

《프랑스포도주는 당신을 위하여 병을 터쳤소, 립벤트롭프.》히틀러가 말하였다.《만일 료리사들이 오늘 저녁 당신이 여기서 저녁을 먹게 되리라는것을 몰랐더라면 내가 그들에게서 이 붉은 색갈의 시큼한 혐오스러운 물건을 얻어내지 못했을거요.》

《총통각하!》 하고 립벤트롭프는 대답했다. 《저는 모든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매일 프랑스포도주를 한잔씩 마시라고 말해주고싶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고유한 자연의 불공평성을 평등하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쁘로방스의 포도원에는 메클렌브에서보다 일조률이 한배 반은 더 높습니다. 프랑스포도주는 해빛으로 얻어진 비타민농축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해를 담판에 불러내오.》히틀러는 빙그레 웃었다.《해를 여기 윌헬름거리로 불러오란말이요. 그러면 카이젤이 포도주를 즐기는 정치가들에게 군사적지원을 주기 위해 준비를 갖출것을 군인들에게 명령할거요. 생채가 어떻소?》

《아주 좋습니다.》 로젠베르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생채를 로씨야식으로 한것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히믈러가 없구만.》 히틀러는 비양조로 웃었다. 《그는 즉시 료리사의 족보를 캐보라고 명령할거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보르만이 말하자 하하하 웃음소리가 터졌다.

《총통각하, 만일 각하의 료리사에게 슬라브적인데가 있다면 훌룽한 귀족의 피가 섞여있을겁니다.》

로젠베르그의 말이였다. 《로씨야에서는 가두배추를 생채로 거의 먹지 않습니다. 감자, 홍당무, 염장오이, 푸른완두콩같은것을 생채로 먹습니다.》

《나는 로씨야생채를 먹어보았소. 이것은 내가 윈에서 뮨헨으로 떠나기 두주일전에 있은 일이요.》 히틀러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였다.

보르만이 포크를 옆으로 밀어놓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것을 보고 만찬회참가자들은 게링그, 겝벨쓰, 히믈러, 헤쓰 등이 참가하는 《최고위급들을 위한 오찬회》로 불리우는 이 자리에서 총통의 연설이 시작될것이라는것을 알았다. 히틀러는 군인들을 믿지 않았고 륙군원수들이 있는데서 속마음을 터놓기를 즐기지 않았다. 카이젤만 놓고보아도 그에게 붙어있는 《무슨 일에서나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총통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눈에 항시적으로 비껴있는 호기심이 탐욕으로 불타오르는것을 보며 히틀러는 마음이 긴장해지는것을 느꼈다. 물론 그는 이런 초대연에 자주 초청되는것은 아니였다.

《나는 윈시내의 한산한 거리를 걸으면서 이상하게 슬픈 감정에 사로잡혔소.》 히틀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윈은 파르스름한 연기로 가볍게 덮여있었소. 별안간 나는 슈트라우스의 음악이 울려오는것 같은감을 느꼈소. 나는 원래 슈트라우스의 재능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의 음악에는 어딘가 간교한데가 있소. 간교한것은 모두 유태놈의 기질에서 생겨난것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저녁 나는 부드러운 감정에 사로잡혔고 슈트라우스가 나를 성나게 하지도 않았소. 그것은 뮨헨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이미 알고있었기때문이였소. 거기서는 투쟁과 열정, 승리가 나를 기다리고있었던거요. 이 세가지 개념은 하나의 이름－와그너와 같은 뜻이였소! 모든 진실한 힘은 경쾌한 바이올린소리에 감정이 뒤따르는것을 접나하지 않소. 감정의 대조는 위대한 음악을 낳고 그에 상응하게 음악에 대한 위대한 지식을 낳는것이요.》

히틀러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윈의 고급재봉공이 지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있는 립벤트롭프를 얼핏 쳐다보았다.

《나는 배가 고팠소.》 히틀러는 잠시 끊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었다. 《내가 수채화를 팔아서 번 동전 몇잎을 가지고는 어느때나 점심을 먹을수 있는건 아니였소. 그러나 나는 로자로 마련한 돈에서 몇푼가

량 갈라내여 저녁식사나 하고 떠나려고 마음먹었소. 나는 식당과 카페옆을 지나가면서 내 돈으로 사먹을수 있는것을 골라보았소. 그러다가 문득 로씨야간판을 띄여보았소. 윈은 그때 더러운 체스꼬백작의 딸에게 장가든 우유부단한 프란쯔—페르디난드의 명령으로 로골적으로 슬라브화되여가고있었소. 백작의 딸은 이 불행한 프란쯔를 보고 점심이건 아침이건 식사를 하면서 체스꼬말을 하게 했소.로씨야사람들이 윈사람들을 무엇으로 매혹시켰는가? 하고 나는 그때 생각해보았소. 적들의 모든 특성을 알아야 하오. 그래 료리법이 선전의 한 형태가 아닌것 같소? 과연 료리사가 일정한 순간 사회민주주의의 한 엉터리신문기자와 같지 않단말이요? 그리고 료리사들의 무기인 후라이판과 남비가 사상에 복무하지 않는단말이요? 그들은 〈내 음식이 네것보다 더 맛있고 더 훌륭하고 건강에 더 좋다.〉라고 말하고있소.》

히틀러는 두꺼운 사기고뿌에서 망고즙을 한모금 마시였다. 의사들은 점심식사후 매일 망고즙을 300그람씩 마셔야 한다고 그에게 권고하였었다. 그는 한순간 생각에 잠겨 얼굴을 찌프렸다. 자존심을 상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종종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지 자신도 모르고 말을 시작하군하였다. 다른 사람같으면 입을 다물고있거나 롱담으로 슬쩍 피하거나 이야기를 다른데로 돌렸을것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죽은 사람처럼 하고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위엄있게 말하는 자기 천품을 믿었으며 글로 쓴 말보다 입으로 한 말이 더 우월하다고 확신하고있었다. 그는 자기 말을 앞으로 력사의 연구대상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보통 주연때에 벌리군하는 간단한 담화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것인가 늘 고통스럽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객관의 눈으로 담화를 주시해보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이런 좌석을 피해보려고 했다. 이것은 그에게 한곳에 정신을 집중할수 있게 해주었고 자기 의지와 생각을 더욱 가다듬게 해주었다. 그는 고르롭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단호히 멈추고 어느때인가 자기가 말하였거나 글로 적은것을 여러가지 표현으로 곱씹어 말했다.

《나는 생채, 잡채, 기러기고기를 섞은 메밀밥을 주문했소. 나는 지금도 이 료리이름을 어제 있은 일인듯 생동하게 기억하고있소. 그리고 그 음식맛도 기억하오. 그때 나는 〈풍부한 재부를 가진 거대한 나라, 발라라이까(로씨야의 악기이름)를 서투르게 타고있는 인간에

채 이르지 못한 미개한자들에게 속해있는 이 나라가 도이췰란드인종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묵묵히 서있구나.〉하고 생각하였댔소. 도이췰란드보습으로 거대한 이 나라 땅을 갈아엎고 도이췰란드낫으로 수확을 해들인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강해지겠는가. 다음순간 나는 어째서 머리에 식민지들에 대한 아픈 생각이 떠올랐던가 하고 생각해보았소. 왜 영국과 싸워야 하는가? 로씨야를 반대하여 강대한 해양국 영국과 동맹한다면 영국은 미래의 대륙의 강대국 도이췰란드와 아무것도 나누어먹을것이 없게 될것이요. 그때 내가 반대하기를 잘했소. 그럼 영국을 반대하여 로씨야와 동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안된다고 대답하였댔소. 이것은 무의미한짓이요. 지금 로씨야가 체스꼬사람들과 같은 자기의 유럽졸개들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오스트리아사람들을 멍텅구리들로 만들고 슬라브영향이 도이췰란드어소유국인 오스트리아에 침투하여 들어갔는데 무슨 동맹에 대하여 말할수 있단말이요? 만일 로씨야가 강대해지면 침묵을 깨치고 자기 정책을 강요하는데로 넘어갈것이며 남새국선전으로부터 무력선전으로 넘어갈것이요. 안되오. 절대로 안되오. 후대들은 쳐칠이 과거 쳄벨렌의 순진하고 미숙한 정신력을 리용하여 영도동맹에 관한 구상을 교묘하게 짓밟아버린데 대하여 그를 규탄할것이요. 로씨야에 괴멸을 가져오고야말 우리의 타격은 런던에서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정치가들을 권력의 자리에 들여앉힐것이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매국적인 영국의회제도의 썩어빠진 사상과 더불어 쳐칠을 매장시켜버릴것이요. 이제 도래할 영국의 수반은 앵글로 쌕쏜족들에게 〈대륙을 보라. 거기에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미개한 인간들을 타승할것이다!〉라고 말할것이요. 나는 교활한 체스꼬접대원놈이 내앞에 로씨야남새료리를 담은 접시를 차려놓을 때 예리한 증오의 눈초리가 화살처럼 나에게 날아와 박히던것이 지금도 생각나오. 접대원은 야만들이 사용하는 자기 말로 〈많이 잡수십시오.〉라고 말했소. 그러자 나는 그의 말을 끊어버리고 〈우리 나라 말로 말해주시오!〉라고 했소. 그는 모욕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하고말았소. 나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혹시 너무 가혹한건 아닌가? 그가 세 자식을 거느린 아버지일수도 있다. 밤이 깊어 그가 이구유통같이 어두운 구석에서 빵쪼각을 가져가면 자식들은 작고 여윈 손으로 이 찌꺼기를 덮치듯하여 게걸스레 먹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나는 나의 정신이 확고하다고 생각했소.

이 정신은 나에게,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상처입은 나의 심장에 속한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여야 할 도이췰란드민족에게 속한것이기때문이였소. 그것은 도이췰란드민족의 피와 두뇌, 근육만이 이 세계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줄수 있기때문이요. 그때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귀에 선 야만들의 말을 하는 인간들을 소멸하는 광경을 보아야 한다, 내 심장이 고통스러워 떨릴수도 있고 눈에 눈물이 고일수도 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죽음을 보는것이 숙명적이라면 그리고 도이췰란드민족의 성장과 번영만 가져올수 있다면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눈물로 하여 실명한다고 해도 좋다… 하고 생각하였댔소. 우리는 베오그라드, 와르샤와, 쁘라하에서 다른 두령들을 정권에 들여앉힐수 있을거요. 우리는 이 두령들이 위대한 도이췰란드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맹세를 다지게 할수 있소. 하지만 국가제도나 사상이 현실적인 힘을 규정하겠는가? 어리석은 생각이요. 맑스주의 류포자들의 잠꼬대같은 소리요. 두령이 아무리 나를 존대하겠다고 맹세를 해도 그는 슬라브사람으로, 렬등인종의 한 인간으로밖에 되지 못할거요. 사상이 아니라 인종과 혈통만이 이 세상모든것을 규정하는것이요. 아니요, 좋고 나쁜 슬라브사람이 있을수 없소. 슬라브사람들중에 작곡가, 시인, 화가와 같은 재능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소. 바로 이런 슬라브놈이 무엇보다 위험한것이요. 바로 그런놈이 정신을 낳고 그것을 보존하는것이요. 공포심—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귀족들을 짓부셔버릴거요. 그렇기때문에 타격은 무엇보다먼저 슬라브의 재능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져야 하오. 자기 넋을 낳을수 없는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복종하거나 사멸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고 잘 조직된 노예로 전환되여야 하는것이요. 하기에 카이젤은 유고슬라비아를 반대하는 깜빠니야가 벌어지는 첫날에 벌써 이 슬라브족에 무시무시한 타격을 안겨야 하오. 그들의 후손들이 공포에 질려 넋을 잃고 도이췰란드사람을 보기만해도 저도모르게 모자에 손이 올라가게 하고 승리자들앞에 허리굽혀 인사하게 하기 위해서말이요. 친구들, 박두한 깜빠니야의 경험은 앞으로 있을 반로씨야깜빠니야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슬라브정신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실험실과도 같이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해야 하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복으로 깔려있다면 지상락원으로 가는 길은 시체를 밟고 통과해야 하지 않겠소?》

총통은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어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방에서 나가는것이였다. 그의 뒤를 따라 보르만이 식당에서 자리를 떴다.

(총통의 말을 기록하려고 가는거겠지.) 하고 로젠베르그는 생각했다. (어쨌든 보르만은 누구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언제나 천재와 접촉할수 있고 그의 구상을 접할수 있지 않은가.)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립벤트롭프는 서기에게 전보문을 불러준 다음 그것을 암호로 변신하여 속히 웨젠마이어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흐르바쯔까파쑈조직 거두들과의 접촉을 촉진하라. 런던에 매수된 쓰르비아반역자들에 대한 복수의 테로가 무시무시해질수록 살아남은자들은 도이췰란드병사들의 구두발에 더 비굴하게 매달릴것이다. 타격은 정확히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즉 암둔한 군중과 정신적재부의 소유자들에게 가해져야 한다. 쓰르비아놈들보다 흐르바쯔까이단자들을 더 가차없이 소멸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분방한 흐르바쯔까정신의 숯에 불을 달아놓으면 어느때인가 가서 쓰르비아놈들을 징벌하여야 할 사람들속에서 반항의 불길이 타오를수 있기때문이다.》

로젠베르그는 자그레브에 있는 자기 대표 왈터 말레트케에게 암호문을 날리였다. 암호문의 내용은 립벤트롭프의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신은 마체크를 단지 우리 동맹자로만 만들어서는 안된다. 필요한 경우 마체크가 쓰르비아의 압력에 대한 흐르바쯔까사람들의 분노를 세계에 설명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이 분노를 설명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종주의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해야 한다. 당신은 자그레브에서 공작임무를 수행하고있는 도이췰란드제국의 다른 대표들을 개입시키지 말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꾸준하고 정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륙군원수 카이젤은 리스트장령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공격시초에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에 수천톤의 폭탄을 퍼부어야 한다. 폭격은 전략적의의만 가지는것이 아니라 복수의 타격으로, 공포심을 동반한 징벌로서 시위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문건의 사본은 외무상 립벤트롭프에게 발송되였다. 그것은 첫째로 외무상에게 총통의 말에 군대가 어떻게 호응해나섰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둘째로는 외무성이 베오그라드에 살고있는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공습이 준비되고있다는것을 통보하여주며 어떤 구실을 붙여서든지 4월 6일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베오그라드를 떠나도록 예고해주도록 하자는데 있었다.
영국군참모장 죤 딜은 이딸리아추격기들의 공격이 두려워 밤중에 아테네에서 베오그라드로 날아왔다. 그는 사복차림을 했다. 씨모비치가《도이췰란드사람들을 성나게 하지도 말고 그들의 손에 주패장을 쥐여주어서도 안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기하였던것이다. 영국군참모장은 비행장에서 곧바로 씨모비치수상에게로 찾아갔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방조를 주려고 합니다.》하고 죤 딜은 말하였다. 《그러나 현실적가능성이 허락하는 한계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스에는 우리에게 3개 사단이 있고 닐스크집단군은 수에즈운하를 떠날수 없는 형편입니다. 도이췰란드장군 롬멜이 아프리카에서 무력을 증강하고있기때문이지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한개 사단과 한개 기계화려단을 보내줄수 있습니다.》
《헌데 도이췰란드장군 리스트에게는 적어도 12개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있습니다.》 딜은 한숨을 내쉬였다. 《나는 모든것을 죄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기에서 병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연구된것이 없지요. 나는 우리 참모부장교들이 유고슬라비아군대의 쌀로니키(그리스의 항구도시)까지의 후퇴문제, 당신들과 그리스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사이의 련합문제, 공동방어선형성문제를 가지고 즉시 회담을 벌리게 하자는것을 제의합니다.》
《원수각하, 이것은 근동과 중동에서 영국의 리익을 보호할데 대하여 말하는것이지 결코 유고슬라비아를 수호할데 대하여 말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씨모비치의 말이였다. 《우리 련합부대들이 쌀로니키에서 전선을 고착시킬수도 있겠지요. 허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조국을 히틀러의 영향하에 밀어넣는다는것을 의미할것입니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수상각하. 그러나 로씨야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한 유럽재생의 유일한 담보는 대영제국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슬픈 일이지만 당신들은 제국의 리익을 위하여 싸워야 자기 조국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일 당신들이 정식으로 히틀러와 싸울것을 결심했다면 그렇게 해야 할것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군인으로서 병사들처럼 솔직하게 믿고 말하는것입니다.》

《그럼 모스크바에 의거하면 어떨것 같습니까?》 하고 씨모비치는 물었다. 《나는 발칸반도에서 당신들의 군사적지원의 가능성을 종국적으로 확정짓기 위하여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즉 모스크바에 의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크레믈리가 당신들과의 회담에 응해나서는것으로써 히틀러를 반대하는데 동의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여러모로 보아 긍정적의의를 가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뿐만아니라 앞으로 그럴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실망시킬것 같아 두렵습니다만 저에게는 크레믈리가 당신들과 회담을 벌리는 모험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로부터 2시간후 씨모비치는 쏘련림시대리대사 레베제브를 면담에 불렀다.

《차를 준비하라고 하시오.》 그는 자기 서기에게 말하였다. 《면담이 아마 오래 걸릴것 같구만. 나는 이틀밤을 꼬박 자지 못했소.》

씨모비치는 도이췰란드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방도를 탐색해보았다. 베를린은 도이췰란드주재 유고슬라비아대사에게 《베오그라드에 살고있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이 당하였던 그 테로행위가 있은 후 앞으로 우리의 외교관계는 령사급으로 이행할것이다.》라고 통고해주었다.

유고슬라비아최고사령부는 영국군참모장 딜원수와 밤중에 회담을 가지고 영국의 군사적지원은 상징적성격을 가질뿐이라고 명백히 결론지었다. 씨모비치는 흐르바쯔까두령 마체크가 여전히 그의 정부에 참가하기를 회피하면서 자그레브에서 분렬로선을 취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씨모비치수상은 벌써 사흘전에 쏘련과의 회담을 개시할수 있었고 또 개시해야겠으나 우에서 이야기된 모든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결심을 다졌다.

쏘련림시대리대사 레베제브는 씨모비치수상이 친선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것을 제기해왔다는 암호문을 외무인민위원 몰로또브에게 보냈다. 몇달전 쏘련은 도이췰란드외무상 립벤트롭프가 베오그라드를 3국군사동맹에 즉시 끌어들일것을 요구하였을 때 베오그라드에 이런 조약을 체결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었다. 암호문은 쓰딸린에게 보고되였다.

《놀음에 정신이 팔려돌아가더니 이젠 우리한테 달려붙는단말이지.》 쓰딸린은 대통에서 이따금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조심스럽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방안을 거닐었다. 《정보국에서는 뭐라고 하오? 그들이 발칸반도정세에 대하여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소?》

《정보국에서는 벌가리아에 있는 리스트의 집단군이 서부국경에로의 이동을 개시하였다고 통보하여왔습니다.》 하고 몰로또브는 대답했다.《마쟈르에서는 베오그라드로 향한 전략도로와 린접한 지역들에 도이췰란드군부대들이 집결되고있습니다, 쓰딸린동지.》

《그건 뭐요, 전쟁이요?》

《혹시 힘의 시위가 아닐가요? 씨모비치에 대한 압력일수도 있고…》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요? 전쟁이요 아니면 힘의 시위요? 더 정확히 말할수 없겠소? 전쟁이라면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 친선을 제기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오. 그러니까 미래의 력사가들은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과 친선조약에 서명한 몰로또브와 쓰딸린을 남을 믿기 잘하는 멍텅구리들로 비웃을게 아니겠소?》

쓰딸린은 벽옆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몰로또브는 오른쪽어깨가 약간 아래로 처지고 등이 구부정한 그를 바라보면서 쓰딸린이 곧 어떤 동작을 하리라는것을 알아맞혔다. 쓰딸린은 마침내 몸을 돌렸다. 파르스름한 그의 눈길이 외무인민위원의 얼굴을 연구하듯 서서히 어루만지고있었다.

《우리가 만일 친선조약을 체결한다면 이것은 유럽에서 이러한 형태의 첫 조약으로 될것입니다.》 몰로또브의 대답이였다.

《이것은 어느 한때 세계전쟁의 대상으로 되였었고 유럽에서 의심할바없이 전쟁추동자로 되였던 슬라브국가와의 첫 조약으로 될것이요.》 쓰딸린은 보다 정확하게 주를 달았다. 《그런즉 미래의 력사가들은 몰로또브와 쓰딸린이 발칸반도에서 전통적인 짜리로씨야정책에 얽매여있었다고 비난할게 아니겠소?》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책상쪽으로 다가갔다. 회색뚜껑을 씌운 책을 펼치여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다.

《전보를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월헬름이 니키와 평화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는 소식을 반갑게 들었습니다. 세계전쟁은 만회할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것입니다. 나는 전쟁을 방지할수 있으리라는것을 전적으로 믿고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받은 지시와 차이난다면 이러한 불일치는 누구에게도 비밀로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동료요… 역시 외무상인데 체르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스트리아사람이요. 읽어볼 필요가 있소.》

쓰딸린은 마치 이야기대상자와 그리고 자기자신과 놀음을 놀듯 소리없이 몰로또브를 에돌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고 책상에 앉았다.

《프랑스정신, 다시말하여 우리 대륙에서 유럽정신의 유일한 계승자는 지금 슬라브강대국인 로씨야뿐이요. 여기에 력사가 자기의 시대에 체험하게 되는 궤변들도 있는것이요. 공화국들이 련맹에 속해있는 슬라브 로씨야가 아니고 누가 슬라브 유고슬라비아에 손을 내밀겠소? 정치가는 파멸당할수도 있는것이요. 또 국가는 일정한 시기에 가면 지도상에서 사라질수도 있소. 그러나 인민은 영원한것이요. 더우기 지금 우리는 정치위원회가 우리의 견해를 지지해준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요. 나는 미래의 력사가들이 우리가 있을수 있는 침략에 직면한 이 시각 슬라브인민과 친선조약을 체결하기를 거절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고 하여도 우리를 비겁분자들이라고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오.》

《히틀러와 전쟁을 하려는 모험은 불가피하게 증대될것입니다, 쓰딸린동지.》

《모험?》하고 쓰딸린은 되뇌이였다. 메마르고 희끄무레한 그의 입술에 얼핏 미소가 스쳤다.《모험은 항시적인 개념이요, 몰로또브동무. 모험은 객관적인 실체로서 매 순간마다 존재하는것이요. 우리가 유고슬라비아와의 조약으로 히틀러를 때리지 않는다면 모험은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하오. 이것은 예리한 외교적타격이요. 우리는 히틀러의 외교적공세를 인내성있게 참아왔소. 그놈은 우리와 그리 례의도 차리려 하지 않고있소. 다른 측면에서 히틀러의 통치밑에 들어간 유럽인민들은 쏘련의 이러한 행동을 평가하지 않을수

없을거요. 청맹과니나 모스크바의 이러한 행동을 리해하지 못할거요. 혹은 바보들이나 모를거요. 그리고 또…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가 하고 런던과 워싱톤에서 기다리고있을수 있소. 만일 긍정적반응이 있으면 우리는 잠재적인 동맹자들을 얻게 될것이요. 분쟁에 말려들어간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것이 조금도 나쁠것이 없소. 이것은 량쪽에서 압력을 가하게 해줄것이며 어차피 우리를 높이 추켜세워줄것이요. 정치위원회에 제기할 문제를 준비하시오. 베오그라드의 제기를 토론해봅시다. 만일 그들이 조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문제가 제기될것이 없소. 어쩨지 나는 정치위원회가 나와 당신의 립장을 반대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되오. 좋기는 외교관들, 군인들, 정보일군들의 세 견해가 하나로 일치되면 좋을텐데. 설사 론쟁이 있더라도 그것이 적어야 좋지. 기본은 전쟁이냐 힘의 시위냐? 하는것을 명백히 하는것이요.》

…이 담화가 있은지 한시간후 정치안전국장은 앙까라를 거쳐 슈틀리쯔에게서 온 정보를 쓰딸린에게 보고하였다.

《당신은 어찌하여 늘 히스테리병에 걸려있소?》쓰딸린은 암호문을 읽고 성이 나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생각엔 히틀러가 4월초에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공은 5월달에 진행한다는거겠구만. 그렇게 겁을 먹어선 안되오. 설사 히틀러가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한다 해도 쏘련에 대한 침공이야기는 있을수 없소. 또한 히틀러가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지 않는다 해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도록 당신네 사람들을 계속 들볶아놓아야 하오. 쳐칠도 역시 졸고있지는 않소. 쳐칠은 꿈속에서 우리를 분쟁에 끌어들이는것을 보고있소. 당신네 사람들이 과자속에 들어있는 독약에 유혹된 천진한 어린애들이 아니요?》

《죠르게, 마네비치, 라도, 이싸예브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하고있습니다. 쓰딸린동지.》

《쳐칠도 그것을 통보하고있소.》 쓰딸린은 여전히 성을 내며 말했다. 《쏘베트로씨야에 대하여 결코 호의를 품고있다고 볼수 없는 쳐칠말이요.》

《이번 경우에는 쳐칠이 사실을 말하고있다고 가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쓰딸린은 놀라와했다. 《왜 쳐칠의 말이 옳다고 가상해

보자는거요? 당신네 일군들에게 말해주오.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있는 사람들을 더 세밀히 연구해보라고말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벌써 두번째로 제기하는 질문에 대답하시오. 히틀러가 유고슬라비아에서 깜빠니야를 개시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문제말이요. 만일 개시한다면 언제 할것인가? 현 시점에서 대략적인 답변은 나를 만족시켜줄수 없소. 기간과 날자—기껏해서 두가지뿐이요.》

그날밤 로농적위군 군사외교국장은 유고슬라비아군사무관 막씨모비치대좌의 집에 기척도 없이 들어섰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막씨모비치는 놀란 기색으로 물었다.

《벌써 시작되였는가요?》

《당신을 쓰딸린동지가 부르십니다, 대좌씨.》

…막씨모비치는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쓰딸린동지를 보았다. 이전에 그는 연회석상에서 보았었는데 후에 그가 한 말에 의하면 쓰딸린이 손님들과 잠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도 강대국대사들과만 이야기했다는것이다.

《이렇게 늦게 당신을 걱정시켜서 성내지 않겠소?》쓰딸린의 목소리는 감기에 걸린듯 석쉼하게 울렸다. 그의 파르스름한 눈은 막씨모비치의 외모를 어루만지다가 가슴에 주런이 달린 략장에 와서 멎었다. 그는 화려한 색갈의 이 략장을 그의 나이와 대조해보았다. 분명히 제1차세계대전에는 참가하지 못했을것이다. 그때는 나이가 어렸겠으니까.

쓰딸린의 눈은 대통에 갖다댄 황록색성냥불에 비치여 한순간 밝아졌다가 곧 자기 색갈로 돌아갔다.

《쓰딸린각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것은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예입니다. 저에게는 어느 시간이건 상관없습니다.》

《당신들한테서는 로동시간이 아침 6시에 시작되였다가 낮 3시에 끝난다지.》 쓰딸린이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한테서는 낮 3시에 시작되였다가 아침 6시에 끝나오.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수도원에 와서 다른 규정에 따라 살아야겠구만.》

《더우기 이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장도 다르지요.》 막씨모비치는 롱말로 되받아넘겼다.

《어떻소, 수도원장이 무섭소?》

《엄격하지요.》

《좋소. 수도원이야기는 후에 하기요, 대좌.》 쓰딸린은 싱긋이 웃

었다. 《나는 유고슬라비아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당신을 초청했소. 사람들은 내가 행동이 무례하다고 종종 힐난한다오. 물론 이것은 랭혹한 힐난이요. 그래서 내가 무례한 질문을 한다고 성내지 말아주오.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상하면 당신네 군대가 얼마동안 적을 견제할수 있을것 같소?》

《우리 군대는 결사적으로 싸울것입니다.》

쓰딸린은 막씨모비치의 판에 박은듯한 대답에 실망을 감추려 하지 않고 이마를 찌프렸다.

《그건 선언서나 같은 말이요. 우리는 당신들보다 시랑송을 더 잘할줄 안다오. 나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있소.》

《우리는 40개 사단을 출동시킬수 있습니다.》

《40개말이요?》 쓰딸린은 곱씹어물었다. 막씨모비치는 그의 질문에서 믿지 않아하는 기미를 알아차렸다. 공연히 수자를 높이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딸린이 총동원령을 내릴 경우 40개 사단이 아니라 35개 사단을 동원시킬수 있을것이라는것을 정확히 알고있는것 같았다.

《약 40개 사단입니다.》 막씨모비치는 얼른 자기 말을 수정했다.

그는 쓰딸린과 담화하면서 어쩐지 몸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소심해지는것을 느끼면서 이야기방향을 똑바로 잡을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극상해서 30개 사단을 출동시킬수 있을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하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35개사단입니다.》 막씨모비치는 속으로 우스운것을 느끼며 거짓말을 했다.

《그럼 35개라고 합시다.》 쓰딸린은 너그럽게 수긍했다.

《이건 즉시 총동원령을 내릴 경우에만 가능하겠지? 평화시기 같으면 유고슬라비아가 35개 사단을 동원태세에 두고있지 못할거요.》

《옳은 말씀입니다, 쓰딸린각하.》

《무장상태는 어떻소? 고사포는 있소? 그리고 땅크는?》

막씨모비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동안 그는 사뭇 주도권을 잃고 엄하고 따분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만을 해야 하는 사람의 처지에 놓여있었던것이다. 지금 쓰딸린은 자기의 이 질문으로써 막씨모비치가 공격으로 이전하도록 해주었다.

《한해전에 우리는 귀국과 회담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무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인민위원부의 존경하는 제씨들이 거절하였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지금 물론 무장장비에서 곤난을 겪고있습니다.》

《국방인민위원부가 거절한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였댔소.》 쓰딸린은 웅글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느린 동작으로 대통을 코수염쪽으로 가져다가 뻐금뻐금 몇모금 빨았다.

그리고는 역시 그렇게 느린 동작으로 양벗색갈의 크지 않은 대통이 쥐여진, 주근깨가 많은 작은 손을 옆으로 내리웠다.

그는 반응을 기다리듯 대좌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러나 대좌는 아무 말도 없었다. 쓰딸린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두 어머니의 젖을 동시에 빨수는 없다고 생각하오. 당신들은 도이췰란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와 회담을 가졌댔소. 이거나저거나 다 무기구입문제 한가지 내용이였소. 나는 세개의 각이한 세력들과 동시에 회담을 벌리는 사람들을 믿을줄 모르오.》

《두 세력입니다.》 막씨모비치가 뒤를 받쳤다. 《영국과 프랑스를 한 측면으로 보고 도이췰란드와 쏘련을 다른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쓰딸린은 눈을 쪼프렸다. 한순간 그의 얼굴은 타격을 받은듯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몇초가 지난 후에야 그는 대통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세개 세력들이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두개의 싸우는 세력들과 쏘베트로씨야요. 로씨야는 평화적상태에 있는 세번째 세력이요. 두 세력에 대하여 말할 때 나는 모스크바와 베를린사이의 조약을 념두에 두었댔소.》 쓰딸린은 그의 말을 반박했다.

《우리는 단지 쏘련 하나에만 집중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모두 배척할수는 없었습니다.》 막씨모비치의 말이였다. 《결국 매개 국가는 회담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비교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투쟁경험을 정책에 비춰보면서 쓰딸린은 대외정책실천상 광범한 접촉의 결여가 지금 자신을 복잡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유고슬라비아사람은 어느 하나에만 머무르지 말고 모든 제안들에 대하여 여러모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있는데

물론 그의 말이 옳다. 막씨모비치의 말이 옳다고 리해하면서도 쓰딸린은 속으로 그의 론거에 동의할수 없었다.
《지금 당신들의 무장상태는 어떻소?》
《우리는 침략에 맞설수 있습니다.》막씨모비치는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침략에 맞설수 있다.〉는게 무슨 말이요? 》쓰딸린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적에게 맞서는것이 아니라 70프로정도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서는 신중한 대책을 취할수 없소. 적들의 침략이 최대한으로 적극화되고있는데 맞설 생각만 하는것은 소극적이요.》
《제 생각에는 각하의 첫번째 질문이 저의 대답속에 정식화되였다고 봅니다. 쓰딸린각하, 각하께서는 우리 군대가 적을 얼마동안 견제해낼수 있겠는가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 질문을 다르게 정식화할 권리가 없소. 이것은 사촉으로 평가될수 있소. 대좌, 당신은 나에게 선언서를 랑독하듯 대답하지 않았소. 지금도 당신은 시를 읊듯하고있단말이요. 우리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당신들에게는 낡은 체스꼬땅크가 있고 고사포는 거의 없소.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당신들에게 낡아빠진 무기를 팔아먹었소. 우리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당신들의 주력은 기병이요. 이건 기술의 세기에 우습단말이요. 나는 당신들의 새 정부가 군대의 현 상태에 대하여 걱정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고싶소. 나는 당신들의 새 정부가 가장 가까운 기한내에 군대를 기술로 장비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취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고싶소. 어떤 대책을 ? 량적으로 어느 정도? 누구한테서 구입하고있는가? 나는 귀국을 반대하는 침략이 개시되였다고 가상할 때 당신네 사령부가 타격이 어느쪽으로부터 어떻게 가해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대략적이라도 알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고싶소. 나는 한순간 침략을 허용하고 유고슬라비아군대가 일시적으로 실패하였다고 가상하였을 때 당신네 사령부가 벌벌 떨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알고싶소.》
《아닙니다. 우리의 군사지휘관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싸움을 계속할것입니다. 일시적인 실패가 우리의 의지를 꺾을수 없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우선 외교관이요. 그다음에 군인이요. 만일 당신이 군인이였다면 내가 당신에게 제기한것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나한테 했을거요. 보매 당신네 지휘관들이 당신에게 아직 그런 행동방향을 주지 않은것 같소. 할수 없지. 그거야 그들이 더 잘 알테니까.

그러나 당신은 자기 지도부에 쏘련이 당신들의 요청을 검토하고 가장 짧은 기간내에 원조를 줄것이라는것을 통보해줘도 좋소. 더우기 당신은 유고슬라비아군대가 결사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여있다고 나에게 확언하였소. 비록 이 확언이 선언적으로 제기되고 아직 실천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말이요.》

《제가 즉시 정부와 련계를 가지겠습니다.》

《련계를 가져보오.》 쓰딸린은 이렇게 수긍하고 책상에서 일어났다.《나는 덤벼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소. 그리고 역시 느린 사람도 질색이요. 특히 사업이 제기되였는데도 늦장을 부리는 사람을 말이요. 늦장을 부리는것은 치밀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요. 참 당신네 나라는 도로상태가 어떻소?》쓰딸린은 벌써 문어구에 이른 막씨모비치에게 문득 물었다. 《봄철에 땅이 몹시 질어서 다니기가 힘들지 않소?》

《산간지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강류역의 저지대는 어떻소? 우리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당신네 나라의 전략도로들, 땅크부대들이 리용할수 있는 도로들이 산간지대와 강류역의 저지대를 통과하고있다고 하오.》

《지금은 강들이 범람하는 계절입니다.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싸바강이 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싸바강? 그게 흐르바쯔까에 있소?》

《그렇습니다.》

《그럼 쓰르비아에는 어떻소? 벌가리아와의 국경지대에말이요?》쓰딸린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거기에는 강이 없지 않소. 그러니까 거기서는 땅크들이 자유롭게 기동할수 있겠소?》

쓰딸린은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씨모비치와 작별했다. 그에게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상대가 군인이 아니라 사민이라고 해도 그 뜻을 깨달았을것이다. 그러나 쓰딸린은 오산했다. 막씨모비치는 비본질적인것을 리해했을뿐이였다. 쓰딸린은 상대방이 바라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쓰딸린의 이야기가 담고있는 커다란 의의는 막씨모비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신비성의 상징이였다. 그는 쏘련지도자를 잘못 리해하거나 또 거기에 상응하게 씨모비치수상이 리해를 잘못 가질것 같아 그 뜻을 풀이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에 진행된 담화에 대하여 보고를 어떻게 작성할것인가 하는것을 궁리해보았다. 사건의 본질은 뒤로 물러나 대좌에게 일정한 정도로 자극을 격발시켰을뿐만아니라 본신사업에 정신을 집중할수 없게 하였다. 그는 주연석상에서, 집무실에서, 극장에서의 짤막한 공연휴식시간에 군부성원들, 정치가들과 담화를 가진 후이면 의례히 보고를 작성하군하였는데 그것은 명백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였다.
…쓰딸린은 이 대좌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속으로 대좌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그는 로씨야사람과 비슷한데가 있지 않은가. 로씨야사람들처럼 허심하기도 하고 싸워도 결사적으로 싸울것 같다. 그는 이에 대하여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그에게는 어딘가 그루지야사람같은데가 있어. 눈길도 얼마나 맑고 청신해보이는가. 곧바로 쳐다보는 그 눈길에서 간계의 빛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이런 눈은 믿을수 있는것이다.)
마체크는 이른아침 웨젠마이어를 맞이했다. 그는 도청당할 념려도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다는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저택이 아니라 정원에서 손님과 만났다.
로젠베르그의 대표 말레트케박사는 벌써 두번이나 마체크를 만났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담화에 대하면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서는 주위를 빙빙 돌기만할뿐 명백하고 공식적인것만 골라가며 이야기했다. 말레트케는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결심은 자체로 채택할 권한이 없는 통보자에 불과했다.
마체크는 자기 서기 이완 쇼흐에게 웨젠마이어와의 상봉이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그가 이 상봉을 마련하기로 결심한것은 이 도이췰란드사람이 이태전에 슬로벤스꼬에서 티쏘를 정권에 들여앉히였다는 자료를 서기 쇼흐가 작성하여 제공하였기때문이였다.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웨젠마이어는 들가방에서 장식무늬가 도드라진 가죽뚜껑을 씌운 큼직한 책을 꺼내놓았다. 《나는 이 선물이 당신에게 커다란 만족을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마체크는 안경을 끼고 뚜껑에 씌여진 글을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저명한 물리학자이며 발명가인 니꼴라 떼슬라의 생애와 창작수기》라고 씌여있었다.
《떼슬라는 여기서 태여나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흐르바쯔까의 물리

학자로 되여야 합니다.》 마체크가 말하였다. 《훌륭한 출판물입니다. 나는 언제나 뉴른베르그의 인쇄기술에 감탄하군하지요. 감사합니다. 귀국에서 나의 동족에 대하여 이처럼 관심을 돌려주고있는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내용도 잘되였습니다. 불행한 떼슬라가 자기 조국에서 창작사업을 할수 없어 대양너머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이 책의 중심사상으로 되고있습니다.》 마체크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그왕국이 흐르바쯔까를 통치할 때 떠나갔습니다.》 《아, 그때 벌써 떠났군요.》 웨젠마이어도 한숨을 내쉬였다.

《나는 왜그런지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있는데서 오스트리아사람들을 공격하면 우리를 모욕하는것같이 생각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윈사람들과 베를린사람들사이에 계선을 명백히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에서 흐르바쯔까사람들뿐만아니라 도이췰란드사람들도 고통을 겪었다는것을 늘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바쯔까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해왔지요, 웨젠마이어씨.》

《지금 그들이 쓰르비아사람들한테서 고통을 당하고있단말입니까? 아니면 그때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겁니까?》

《오스트리아사람들은 물론 문화적인 민족이지요. 오스트리아통치하에서 우리가 당해온 멸시는 우리의 민족적자존심을 손상시켰습니다. 헌데 지금 질서도 서지 않은 쓰르비아민족에게서 당하는 멸시는 전례없이 무시무시합니다.》

《마체크각하, 저는 당신에게 속심을 툭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할것이 있습니다. 실무적제안말입니다. 당신은 쯔웨뜨꼬위치내각에서 부수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데 의하면 당신이 씨모비치내각에 들어가려고 한다지요. 저는 당신이 공민적인 희생정신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그처럼 힘을 들여 쟁취한 흐르바쯔까자치권을 어떤 일이 있어도 고수하려는거겠지요.》

《옳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기의 자그레브동료들을 규합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씨모비치내각에 들어가지 말자고 권고해나서게 하면 어떻겠습

니까? 당신은 제 1 부수상의 직책을 거절할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까?》
《폭도들에 의하여 유린된 정권을 복귀하기 위하여 유고슬라비아에 군대를 보내줄것을 총통에게 요청한, 비법적으로 전복된 쯔웨뜨꼬위치내각의 제 1 부수상으로부터 베를린이 전보를 받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법적으로 놓고보아도 이러한 요청은 당당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견지에서 봐도 역시 그렇지요. 베오그라드가 3 국동맹을 포기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동맹국에 응당 원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요.》
마체크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러한 요청을 할만한 근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젠마이어는 잠시 끊었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라안에서 제 3 국의 리익을 대변하는 볼쉐위크앞잡이들이 머리를 쳐들고있지 않습니까. 베오그라드의 거리들은 시위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안에서 무정부주의가 오늘래일 승리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정세가 극적으로 변하면 당신들이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할 권한도 없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무정부주의가 승리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어째서말입니까?》
《우리 력량은 강하고 그들은 약하기때문이지요.》
《여기서는 당신들이 강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힘을 축적할것입니다. 보십시오, 시위자들은 로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구호밑에 일어서고있습니다.》
《웨젠마이어씨, 우리가 이 운동을 통제하고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예측할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것을 알고있지요.》
《좋습니다. 그럼 영국사람들은 어떨것 같습니까? 당신은 영국과 군사동맹을 맺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까?》
《당신은 발칸반도에서 영국인들의 현실적인 력량을 알고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동맹은 지어 그것이 상징적인 력량과의 동맹일지라도 우리는 도이췰란드제국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것입니다. 피를 흘릴수 있지요. 허나 나는 피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에게 찾아온것입니다.》

《군부에서 도이췰란드군대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것을 반대하지 않을것이라는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그런 담보를 줄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제가 만일 그것을 담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담화로 되돌아올수 있습니다.》

《마체크각하, 저는 당신을 도이췰란드의 친구로서 찾아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도이췰란드의 원쑤에게 찾아왔더라면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것으로 하여 체포되고말았을겁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원칙적인 동의를 얻는다면 앞으로 일하기는 더 쉬워질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당신을 수상으로 임명할데 대한 문제도 결속지어질것입니다.》

《흐르바쯔까 수상으로 말입니까?》

《유고슬라비아수상이지요.》

《웨젠마이어씨, 당신은 도이췰란드대표로서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리우는 국가적개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지만 나는 무엇보다먼저 흐르바쯔까가 걱정입니다. 게다가 내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이미 흐르바쯔까 수상 후보자가 지목되여있는데 그것이 빠벨리치라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베를린으로부터 흐르바쯔까 수상직위가 당신에게 차례질것이라는 담보를 받으면 자기 립장을 명백히 밝힐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나는 군부에 대한 당신의 담보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마체크는 시간적여유를 얻었다. 그는 찬성할것인가, 반대할것인가 모든것을 가늠해보아야 했다. (만일 원조를 요청하면 히틀러가 군대를 들이밀지 않겠는가? 루즈벨트가 전쟁으로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히틀러가 외교적소동을 일으킨것으로 그치고말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후대들의 기억속에 외국에 원조를 요청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겠는가? 웨젠마이어는 물론 신중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의 땅크들이 이미 쁘라하를 점령한 후에야 브라찌슬라브에 날아오지 않았는가. 그는 정탐군이다. 지금은 정치가들과 군인들이 행

동을 개시하라지. 총통이 이 마체크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지. 극단한 경우에는 립벤트롭프라도 쓰면 될것이다. 그들이 이 마체크에게 담보를 주게끔 하자. 그러면 마체크는 웨젠마이어의 제의에 동의해나설것이다. 그들에게도 결국 다른 출로야 없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여기로 들어오기 위한 구실이 필요한것이다. 히틀러는 여기에서 수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였다고 하여 유고슬라비아에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을것이다.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히틀러는 씨모비치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이 마체크의 요청을 리용할수 있다.) 헌데 마체크는 놀음에서 트럼프장으로는 되고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놀음을 놀고싶었다. 놀음에서는 인내성이 필요한것이다. 그는 때가 오기를 기다릴것이다. 마체크는 며칠전 정변이 일었던 그날밤에 벌써 사건을 촉진시키려고 시도해보았었다. 그때 블레드로 가고있던 빠벨친왕이 탄 기차는 자그레브에서 씨모비치의 락하산륙전대에 의하여 봉쇄당했었는데 전화소리에 깨여난 마체크는 이 소식을 듣고 경찰청장 벨레베트와 함께 역으로 달려갔다. 그는 왕위에서 물러난 친왕과 만나게 해줄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페하.》마체크는 자기가 내린 결심에 스스로 겁을 먹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가 벨레베트에게 명령을 하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씨모비치의 졸개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페하께서는 백성들에게 방송연설을 해주시옵기 바랍니다.》

빠벨은 딱 소리나게 손가락마디를 꺾고나서 차창을 통해 희붐히 밝아오는 봄날의 새벽을 침울하게 응시하다가 물었다.

《그러다가 씨모비치가 자그레브에 륙전대를 투하하면 어찌겠소?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그리스로 보내주겠다는 담보라도 받아야 할게 아니요. 담보를 받지 않고 모험한단말이요?》

마체크는 친왕의 눈길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는 반대의견이 있기를 지꿎게 기다리고있는것 같았다. 친왕은 흐르바쯔까 수반이 자기에게 생명을 담보해줄것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마체크는 부지중 커다란 만족을 느꼈다. 싸늘하던 뒤통수가 차분히 더워나면서 목이며 어깨에 열기가 퍼져갔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친왕의 말에 수긍했다.

《그렇습니다. 담보가 없이 모험하는것은 분별없는 짓이지요.》

마체크는 자기로서도 뜻하지 않게 반작용을 놀아보려 했으나 그렇

게 되지 않았다. 정말 성격은 꺾을수는 있어도 변경시킬수는 없었다.

…중요한 정치계에 휘말려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시대의 요인으로 될수 있는 경우에만 지위를 공고히 할수 있는것이다. 마체크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몰리해는 그를 실패에로 이끌어갔다. 많은 흐르바쯔까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있수다.》라는 말투를 즐겨쓰는 보스니아사람들을 조롱하여왔다. 이것은 그들의 느리고 게으른 성품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마체크는 지금 꼭 이 말투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있었다.

…

대위 디쯔는 식당에서 유고슬라비아중좌 끄쏘리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의 성을 그에게 알려준것은 중좌 포흐트였다. 12년전, 아직은 왕국군대의 애젊은 소위에 불과했던 끄쏘리치는 하이델베르그종합대학에서 실습을 하고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두명의 권위있는 교수들과 낯을 익히게 되였는데 교수들은 젊은 소위를 위해 사냥도 조직하고 극장과 미술전람관에 초청하기도 하였으며 가족오찬회에 데리고가기도 했다. 베르사이유조약후 해산된 도이췰란드군 군사첩보부장 왈터 니꼴라이대좌의 친구들인 이 제씨들은 도이췰란드의 미래에 대하여, 특히 린접국가 청년장교들과의 련계를 여유있게 가질데 대하여 줄곧 구상하여왔었다. 자기들이 새로 사귄 슬라브친구와 헤여지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군인들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다만 한가지만 봉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것은 끄쏘리치에게 그들의 친구들이 찾아가면 그들을 도와줄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달라는것이였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제 조만간에 승리자들과 패배자들사이에 놓아질 다리의 한고리로 된셈이다.) 끄쏘리치는 생각을 더듬었다. (내가 만일 사령부에 이러한 상봉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나를 신임하지 않을것이며 승급도 정지되고말것이다. 나이 스물일곱에 직업을 바꾼다는것도 이미 때가 늦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비밀을 루설한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들에게 아무 비밀도 루설한것이 없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동안 나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사귄 사람들에 대하여 잊고말았다. 사람들이 찾아갈것이라고 이야기해준것은 1933년초였다.)

하루는 쾌활하게 생긴 뮨헨신문기자가 듀러의 훌륭한 저서와 슬라브어문학교수 지베르가 보낸 소개신을 가지고왔다. 지베르가 바로 마지막작별순간에 총참모부 대좌로 소개하던 그 사람이였다.
뮨헨신문기자는 정말 《발전도상에 있는 슬라브나라》의 문화생활분야에서의 새로운 소식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능숙하고 쾌활하게 담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날 그는 끄쏘리치에게 해안선을 보여줄것을 부탁하였다. 차를 타고가면서 그는 지중해연안의 경치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 이딸리아국경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건설되고있는 항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끄쏘리치는 방어대상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것은 기자로서의 호기심으로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몇차례 사진을 찍고나서 차에 올라 끄쏘리치의 옆에 앉으며 무슨 금지된것을 위반한것은 없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끄쏘리치는 여기에 롱담으로 대할 대신 물론 위반행위를 하고있으며 좀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이렇게 대답한데 대하여 자기를 질책했다. 그것은 뒤늦게 이 대답이 자기에게 새로운 약점, 공모자라는 새로운 죄를 덧씌워주었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지베르교수의 조카가 찾아오기전까지 3년동안은 그를 불안케 하는 일이 없었다. 지베르의 조카는 아무 사진도 찍지 않고 이틀저녁을 끄쏘리치와 함께 보내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폭넓은 담화를 진행하였다. 지베르의 조카는 헤여지면서 끄쏘리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과 같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도와주고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당신은 진실한 장교입니다.》
정말 이 담화가 있은 후 끄쏘리치는 급격히 승급하기 시작하여 총참모부에까지 임명되였다.
… 도이췰란드말 억양이 다분한 웬 사나이가 끄쏘리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지베르교수의 인사를 전한 다음 상면시간과 장소를 대달라고 요구했다. 끄쏘리치는 잠시 동요하던 끝에 상대자가 나타내고있는 관심이 그에게 도이췰란드사람들의 립장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더 정확히 알수 있게 해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선히 응해나섰다. 집에서 떠나오면서 그는 불현듯 《적의 관심》을 알아내려는 자기 생각이 자기자신과 벌리고있는 연극에서 그 어떤 방어형식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달았다. 웃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동차에 타기

도 하고 총참모장방에 드나들기도 하였으며 국방성 출입구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병사들에게 미소도 지어보였고 안해의 얼굴을 귀엽게 다독거려주던 끄쏘리치는 남모르는 공포속에 살아온 다른 끄쏘리치와 사이좋게 살아왔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허울좋은 첫번째 끄쏘리치를 매우 사랑했다. 그러나 제일 초기에 저주로운 지베르와 그룬센바흐에 대하여 상급에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 두번째 끄쏘리치에 대하여서는 절망과 동정이 어울린 마음으로 증오하였다.

… 디쯔는 끄쏘리치의 옆에 앉아 자기의 그 하많은 웃음중에서 여기에 꼭 알맞는 웃음을 그에게 《선사》하면서 《매혹적인 도시》를 돌아보자고 권고했다. 그가 비록 매혹적인 도시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그의 매몰스러운 얼굴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지워질 줄 모르는 웃음은 끄쏘리치에게 서투른 배우의 찡그린 얼굴처럼 보였다.

《그래 일이 어떻게 되여갑니까?》그들이 식당을 나섰을 때 디쯔가 이렇게 물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지베르교수가 당신에게 열렬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교수가 소개신을 보내던가요?》

《지금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승용차가 기관용입니까?》

디쯔는 고개를 돌려 뒤차창을 통해 꼬리가 달리지 않았는가 살펴보았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용차는 자가용이지요.》

《전반적으로 일이 어떻게 돼가고있습니까? 근무상으로 모든것이 잘되고있겠지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겁니까?》

《당신은 끄쏘리치씨지요. 나는 지베르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는 내 부서에서 일하고있지요.》

《그 사람이 당신의 부서에서 일하고있단말입니까?》끄쏘리치는 이렇게 철면피하게 거짓말을 하는것이 가소로와 피씩 웃었다. 《교제방법이 썩 훌륭하지 못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내 부서에서 슬라브인들과의 사업을 맡아보지요.》디쯔는 끄쏘리치의 억양에 비양조가 섞여있는것도 포착 못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그는 나에게 옷을 입은채로 누가 헤염을 더 잘하나 당신과 내기를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꼬쏘리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디쯔를 쳐다보았다. 디쯔는 중좌가 무엇때문인지 불만해하고있다는것을 느꼈으나 이 유고슬라비아사람이 왜 볼이 부어있는지 자기로서는 알수 없었다. 디쯔는 굳어진 얼굴(간첩학교에서는 《랭담한 눈길과 마주치면 웃음을 거두어야 한다. 이것은 곧 밀정을 틀어쥘수 있게 해줄것이다.》라고 가르쳐주었다.)로 말을 이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가 제기되고있습니다. 래일아침까지 군대내에서 벌어지고있는 사건들과 관련한 당신의 견해를 써주시오. 군부의 우두머리들중에서 누가 우리와 회담의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할수 있습니까?》

《써달란말입니까?》 꼬쏘리치는 놀랐다.《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과 혼돈하고있습니다. 나는 정보원이 아닙니다. 나는 한번도 그 누구에게 그런걸 써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겁니다. 꼬쏘리치씨, 내가 만일 당신의 상급들에게 당신이 지베르와 가졌던 담화에 대하여, 당신이 울만과 함께 진행한 려행에 대하여 보고자료를 제공해준다면 그들은 기절초풍할겁니다.》

《누구하구요?》

《울만과 함께 뮌헨에서 온… 아, 그렇지, 그는 여기 당신들한테서 잘쯔라는 성으로 소개되였던거지요. 기자가 생각납니까? 당신과 함께 군항들을 촬영한 사람말입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기억하고있고 모든것을 알고있습니다.》

꼬쏘리치는 왈칵 울분이 치밀어올랐다. 허나 그는 그것을 누르며 지그시 눈을 쪼프렸다. 그의 머리에는 지성인다운 지베르의 얼굴, 그들이 가졌던 그림, 말 점성학에 대한 담화, 교수를 각별히 존경해오던 자기 동료들, 학식있고 재능있는 장교들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에게는 이 바보같은 사람과 이야기를 계속하는것이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이자는 단지 게스타포에 있는 비밀문건에 손을 뻗칠수 있은 그것으로 하여 이처럼 허세를 부리고있는것이다. 꼬쏘리치는 갈림길에서 차를 멈춘 다음 문을 열고 조용하나 격한 어조로 말하였다.

《썩 나가시오! 당신은 우선 이야기하는 방법부터 배워야겠소!》
《뭐요?》
《나가시오! 그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테요! 나가시오!》

포흐트는 모든 면에서 웨젠마이어를 본따고있었다. 그는 동정어린 마음으로 디쯔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멍청히 슈틀리쯔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하품을 하며 물었다.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나는 그자의 뼈다귀를 분질러놓았으면 하오. 이게 바로 내 의견이요. 개자식같으니라구! 나와 마치 청렴한체하고 말하지 않겠소.》
《뼈다귀는 왜 분질러놓는다는거요? 그런 일은 병적이고 잔인한짓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하는거라오. 잔인한짓이라는게 뭔지 아오, 디쯔? 이건 일종의 정신착란증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기 약점과 정신적락후성을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메꾸어보려는 욕망을 가리켜 말하는거요.》
포흐트의 얼굴은 한순간 탈바가지를 쓴듯 무표정했다. 슈틀리쯔는 문득 카불에서 만났던 인디아사람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혈액순환조절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심장의 박동을 멈추고 2분동안 숨을 쉬지 않고 견딜수 있다는것이였다.
《가보오, 디쯔.》 포흐트가 말했다. 《아침에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디쯔가 문밖으로 사라지자 포흐트는 담배를 붙여물고 고뿌에 물을 따랐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 디쯔가 장한짓을 했소. 나는 그가 일을 전부 망쳐먹을가봐 걱정이요.》
슈틀리쯔는 포흐트를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가 벌써 일을 망쳐먹었다고 말하고싶지는 않소?》 포흐트가 물었다. 《아니요. 그는 땅을 파헤쳤소. 모든 책략에는 바보가 필요한거요…짧은 기간에 말이요. 알만하오?》
《모르겠는데.》
《당신은 알게 될거요. 웨젠마이어는 나보고 당신에게 의거하라고 했소. 당신은 령리한 사람이 아니요. 슈틀리쯔…》
《그렇기때문에 모르겠다는거요.》
《정치에서나 군대에서나 과학에서나 기자활동에서나 할것없이 언제나 신인들을 정보원의 흡수대상으로 하고있소.》

《언제나 그런건 아니요. 때로는 현재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소.》
《옳게 말했소. 그러나 현재 사업하고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는건 주로 책임자들이요. 나나 웨젠마이어 혹은 직접적으로 당신의 상관인 왈터 쉘렌베르그같은 사람이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흡수라기보다 고위체약쌍방간에 친선을 도모하려는 일종의 미봉책이라고 봐야 할것이요. 이러한 례외적인 현상은 내가 지금 말하고있는 규칙을 확인해주는것이 아니요. 그런즉 협조에 응해나선 정보원이 출세를 했다고 상상해보오. 다시말하여 끄쏘리치처럼 돼보란말이요. 자기를 중시하는 비밀기관은 〈균형법칙〉을 지켜야 하는것이요. 그런데 정보원을 흡수한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후견하에 있는 사람이 비쳐주는 반사광이 자기를 더 높이 떠받들어올리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상급에게조차 자기 승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소. 여기에 바로 수수께끼가 있는거요. 슈틀리쯔, 당신네 기관이 와이마르관료주의에서 물려받은 이런 낡아빠진 체계는 허물어져야 하오. 나는 디쯔와의 시험적인 사업이 여기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하오.》
《어떤 방법으로 말이요? 디쯔는 공작을 파탄시켰고 균형은 보장되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잃었소.》
《디쯔는 자기를 망쳤을뿐이요. 공작은 일없소. 끄쏘리치는 지금 성이 독같이 올라있소. 나는 그를 알고있소. 디쯔는 그가 접수할수 없는 방법으로 담화를 진행했소. 돈에 매수된 정보원들과나 할수 있는 방법을 적용했거든. 끄쏘리치는 문건상의 등록체계로 볼 때 우리의 정보원이 아니였소. 그는 도이췰란드의 친구였을따름이요. 그런데 디쯔는 끄쏘리치에게 자기가 이래라저래라 할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는듯이 행동했소. 그러니 끄쏘리치의 기분상태가 어떠했겠는가 한번 상상해보오. 영향력있는 군인이면 우리 탐정에게 복종해야 하오. 그런대로 끄쏘리치가 디쯔와 담화를 했더라면 나는 즉시 그가 누구에게 적과 다시말하여 우리와 가졌던 접촉에 대하여 통보하였는가 하는것은 검토해보았을거요. 그는 지금 누구에게도 통보하지 않을거요. 너무도 큰 치욕을 당했소. 나는 래일 당신네 일군을 대신하여 그에게 용서를 빌고 디쯔가 정탐기관에서 해임될것이라고 약속해주겠소. 끄쏘리치는 만족해할거요. 그는 나를 위해 오늘 디쯔에게 해줄수 있었던것보다 백배나 더 큰 일을 해줄것이요. 만일 당신네 정보원

이 당신을 위해 활동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정보원은 당신에게 매혹된 사람으로 되여야 하며 당신을 위해 결사적으로 싸울수 있는 당신의 친구로 되여야 하는것이요. 그리고 그의 앞에서는 아무런 비밀도 없는 당신의 형제로 되여야 하오. 그러나 정보원이 자기를 당신의 손에서 놀아나는 하졸로 느끼거나 자기와는 상관도 없고 또 알수도 없는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이나 수행하는 하나의 존재로 자기를 느낀다면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거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것이 아무런 흥미도 없고 그가 자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기때문이요.》

(능력있는 젊은이군.) 슈틀리쯔는 포흐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능력있는자야. 나는 이런자가 더 높이 게바라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자는 매우 위험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벌써 기여오르고있지 않는가.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그가 반역적인 히믈러정탐기관의 시점에서 볼 때 생각만 쏟아놓는것이 아니라 사업에서도 솜씨를 보일줄 아는 능력있는자임에 틀림없다.)

《왜 웃고있소?》 포흐트가 물었다.

《내가 웃고있단말이요?》 슈틀리쯔는 놀라와했다.

그는 정말 놀랐다. 슈틀리쯔는 얼굴표정을 바꾸지 않고 포흐트에 대하여, 그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히믈러기관과 상극인 로젠베르그의 기관을 대표하는 이 사람이 오직 자기자신과 자기 출세를 위해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모든것을 계획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총체로 도이췰란드의 운명은 이 개인에게 속해있었다. 그는 디쯔에게 행동방향을 알려줄수도 있었고 끄쏘리치와의 사업에서 그를 도와줄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첫째로는 게스타포장교에게 모욕을 주고싶었고 둘째로는 그의 실패를 기화로 자기가 상급들의 눈에 더 들고싶었던것이다.

(어차피 네놈들은 망하고야말것이다.) 슈틀리쯔는 이 순간만은 자기가 미소를 짓고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조만간에 모든것이 지옥으로 굴러가고 말것이다.)

아침에 슈틀리쯔에게 이상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측면으로서는 인간의 나약성에 대한 동정과 분한 생각이였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복수의 희열이였다. 끄쏘리치가 간밤에 자총해버렸던것이다. 슈틀리쯔는 쉘렌베르그에게 끄쏘리치가

자살한 원인이 디쯔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들을 정확히 타산하지도 않고 공작을 구상한 로젠베르그기구에 속해있는 포흐트라고 통보할수도 있었다. 그리고 통보하지 않을수도 있었다. 이제는 포흐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모든것이 달려있었던것이다. 그는 이제부터 자기가 슈틀리쯔의 손에 놀아나게 됐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가 만일 슈틀리쯔에게 마음속의것을 터놓지 않으면 이 사건의 장본인이라는것이 명백해질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슈틀리쯔의 연극에서 디쯔뿐만아니라 포흐트도 동맹자로 될수 있었다. 슈틀리쯔는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포흐트가 일정한 방법으로 자기를 사과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래사람들을 희생하여 떠받들린 나치스국가의 구조자체가 슈틀리쯔의 이러한 확신을 보증해주었다.

모든 사업을 운명의 갈림길에서

이완은 미슈끄 쇼흐의 가정에서 외아들이였다. 미슈끄는 처음에 농사를 지었었는데 후에 푼전을 모아 시내근처에 자그마한 주막집을 차려놓았다. 그는 늘 극성스럽게 아껴서야 근근히 살림살이를 유지해나갈수 있었다. 녀편네는 반슈바를 사달라고 조르고 동생은 운전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리자를 받쳐줄테니 돈을 꿔달라고 성화이다. 그러나 미슈끄는 말없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농짝안에 돈을 꿍져넣고 내놓지 않았다. 돈이란 한푼 나가면 두푼 나가기마련인데 언제 천원돈을 쥐여보겠는가 하는 생각이였다. 그가 이렇게 구두쇠짓을 하는것은 돈을 좀더 모아서 주막집에 잇달아 려인숙 비슷한 자그마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빤또챠브까는 자그레브로 들어오는 길목에 놓여있어 위치가 더할나위없이 좋았다. 여기서는 시내물도 가까왔고 산에서 바람이 내려불 때에는 향긋한 나무잎 뜬 냄새가 풍겨왔다.

미슈끄는 유일하게 이완 쇼흐를 위해서만은 돈을 아끼지 않았다. 소년은 령리했다. 그는 누나들에게 옛말도 해주고 여섯살때에는 벌써 시까지 썼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미슈끄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다. 당국에서

도로를 넓힐데 대한 계획을 내놓자 기술자들이 현지에 나와 측량기를 뻗쳐놓고 주막집가운데로 줄을 쭉 그었다. 여기에는 이미 반나마 건설된 려인숙도 들어갔다.

미슈끄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보았다. 그는 자기들의 생활에서 모든것이 경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지방경찰서장을 극성스럽게 대접도 하고 교회에 희사금도 푼푼히 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두번씩이나 찾아갔다. 변호사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할 말을 장황하게 엮어대면서 미슈끄에게는 아예 캄캄한 쓰르비아끼릴문자로 출판된 법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대신 적지 않은 돈을 받아냈다. 지방행정당국에서 제정한 기한이 다가오자 로동자들이 와서 집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미슈끄는 멍청히 앉아서 자기 집을 허물고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품에 바싹 붙어앉은 아들녀석의 머리를 아무 생각없이 어루만지며 무둑히 쌓아놓은 보짐옆에 서있는 마누라에게 침울한 눈길을 던졌다. 마누라는 엉엉 목놓아울며 바스라지는듯한 소리를 지르는 앓고있는 젖먹이계집애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미슈끄는 자기가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모르는 모양 천천히 일어나 도끼를 들고 마치 무디지 않았나 하여 검열이나 하듯 날을 만져보았다. 그러다가 별안간 앗! 하는 소리와 함께 로동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자리에서 묶이여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 사실에 대하여 기자들이 알게 되여 신문에 사진이 공개되였다. 두주일사이에 미슈끄는 만천하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되였다. 경찰서에 갇혀있는 그에게 머리칼이 흐트러진 대학생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로동과 자본간의 모순을 도끼로 해결하지 못한다느니 부르죠아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정한 투쟁방법을 포괄하고있는 정치과학을 신중히 연구하여야 한다느니 하면서 미슈끄와 오래동안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변론을 맡아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물론 무상으로 해주겠다는것이였다. 다음날 미슈끄에게 새로운 방문객이 나타났다. 역시 법률가라고 했다. 그는 얼마전에 만났던 반군복차림의 젊은 사람과는 달리 옷차림도 점잖았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받쳐맸다.

간수가 그들 두사람을 남겨놓고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리고있다가 변호사는 미슈끄에게 담배를 권하며 말문을 열었다.

《어제 당신에게 한 사회주의자가 왔다갔지요. 협오스럽게 생긴 녀석말입니다. 미슈끄, 당신은 근본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포도주

를 대접한 그 경찰서장이 혈통으로 보면 쓰르비아사람입니다. 당신의 코밑에 법전을 들이밀던 그 알량한 량반은 누구이고? 그는 아버지켠을 따르면 흐르바쯔까사람같은데 어머니켠을 따르면 쓰르비아사람입니다. 누구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주막집을 꿰질러 도로를 넓히고있는가요? 쓰르비아사람들의 계획에 따라 하는짓이지요. 미슈꼬,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흐르바쯔까사람입니다. 어제 와서 지껄여대던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했습니다. 스떼삐니쯔신부가 신도들에게 당신의 불행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돈도 역시 그럭저럭 모으게 했지요. 래일 당신에게 수다스러운 사람이 찾아오면 그가 쓰르비아사람이라는것을 기억해두십시오. 그는 당신을 희생물로 리용하여 자기의 더러운 배속을 채워보려는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벌어놓은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사람들을 절대 노엽히지 않습니다. 무슨 피로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모두 함께 그것을 이겨낼것입니다.》

사건은 재판에 제기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풀려나온 후 미슈꼬는 말수더구가 적어졌다. 그는 오래동안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들은 집에서 생긴 슬픔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는듯 혼자서 자작시만 중얼중얼 읽었다. 누나들에게 말해주던 옛말도 들려주지 않았다. 미슈꼬는 스위스사람이 경영하는 큰 호텔로 일자리를 옮겼다.

이완 쇼흐가 다니는 학교의 문학교원은 쓰르비아사람이였다. 그는 수업은 재미있게 하였으나 점수에서는 엄격하였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필법과 문법규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위반하면 사정없이 1점과 2점을 주군했다. 하루는 미슈꼬가 학교에 불리워갔는데 아들 이완이 2점을 련속 세번이나 맞았기때문이였다.

《댁의 아들은 매우 게으른 소년입니다. 내가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그 애는 창문밖에 있는 까마귀를 세고있단말입니다. 학생을 어루만지지 말고 좀더 요구성을 높여야겠습니다.》하고 선생은 말하였다.

《학교에서 최우등생들은 모두 쓰르비아아이들인가요?》하고 미슈꼬는 조용히 물었다.

선생은 이 물음에 놀라와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어디서 일하시는가요?》 선생이 물었다.
《문도 열어주고 트렁크도 날라다주는 일을 하지요.》
《거기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에쓰플라나다〉호텔이라고 하지요.》 미슈꼬는 아니꼽게 대꾸했다.
《로임이 적은가요?》
《그러면 지금 로임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사람들한테서 흐르바쯔까사람들만이 일하고있습니까? 쓰르비아사람들도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럼 로임은 어떻게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쓰르비아사람들에게 더 많이 줍니까?》
《우리 주인이 흐르바쯔까사람인데 쓰르비아사람들에게 더 줄리가 있겠습니까?》
선생은 호탕하게 웃었다.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하는군요. 하지만 내가 데리고있는 쓰르비아학생들에 대하여 말할것 같으면 나는 그 아이들을 흐르바쯔까학생들과 차별하지 않는답니다. 내자신이 쯔르나고라사람이니까요.》
(그런즉 너의 어머니가 쓰르비아녀자인게로구나.) 하고 미슈꼬는 생각했으나 그 말을 입밖에 쏟아놓지는 않았다. (어쨌든 선생이 아닌가. 그는 아들을 통제하고있는 사람이다.)
이완이 자기의 첫 시작품을 잡지사에 가져갔을 때 거기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되돌려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기다리거라, 아들아.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시를 너에게 가져올 때가 있을거다. 그때 너는 그들을 문밖으로 쫓아버려라. 이완아, 우리 흐르바쯔까정권이 섰으면 좋겠구나. 같은 혈통의 우리 정권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완 쇼흐는 흐르바쯔까사람들이 쓰르비아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우화를 쓰기 시작했다. 우화는 빼앗긴 땅에 대한 비애로, 한 가족이 오붓하게 자기 집을 쓰고 살던 지난날에 대한 추억으로 엮어진것이였다. 하기에 우화는 자본의 힘에 눌리워 파산당한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우화에서 살길을 찾아 정처없는 류랑의 길을 떠나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결코 쓰르비아사람들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도시로 흘러든 겨우 글귀나 알아보는 농민들은 이완의 우화를 베껴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후에 작가 밀레 부다크처럼 인민들속에서 《저명한 인물》로 알려진 《선량한 사람들》이 윈에서 이완의 작품 《국민의 울음》을 출판하였다. 이완은 그리스정교의 쓰르비아심장에 그처럼 귀중한 야만적인 끼릴문자로 글을 쓰지 않고 모든 흐르바쯔까사람들처럼 라틴문자로 썼다.

자선단체는 이완 쇼흐를 종합대학에 추천하였다. 그는 승리자로 대학에 갔다. 대학생들중에는 외국에서 출판되는 자기 작품을 자랑할만한 사람이 적었었다. 대학생들은 이완의 작품을 비웃으며 《자넨 지난 세기에 살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랬구만! 뒤만 돌아보고있으니말이야. 그렇게 뒤걸음질쳐서는 안되네. 저도모르게 웅뎅이에 빠져버릴수 있어.》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이완은 혼자서 악에 받쳐 돌아갔다. 그의 시들에는 이그러진 공명심에서 생겨난 분노가 넘쳐있었다. 다른 대학생들이 그에게 블라지미르 나조르, 뾜 엘류아르, 이완 고란, 울라지미르 마야꼽스끼의 시를 읽어주었을 때 그는 아파서 그러는듯 얼굴을 이그러뜨렸다.

《그래 이 시들은 무엇을 노래하는거요? 무엇을?》이완은 흥분하여 부르짖었다. 《이 시들이 인민들속에서 나온거요? 인민들이 이 시를 리해하겠느냐말이요? 전부 암시와 부자연스러운 몸짓, 헐벗은 도시의 풍경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새로운 형식을 탐구하고있는거요.》

《형식은 찾을것이 없소. 사상만 있으면 형식이 필요없단말이요. 내가 〈흐르바쯔까사람들이여, 교형리들을 반대하여 일어서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무런 형식도 없이 리해할수 있는것이요.》

《그럼 쓰르비아사람들은 일어서지 말아야 하는가?》

《누구를 반대하여? 쓰르비아사람은 바로 쓰르비아사람인것이요. 그들이 교형리인가, 희생자인가? 나는 그들사이에 차이가 있다고는 믿지 않소. 믿지 않는단말이요. 어쨌든 그들 매 사람의 뒤에는 쓰르비아국왕이 서있고 쓰르비아수상과 은행업자가 서있소. 그럼 내 뒤에는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소. 우리는 쓰르비아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되는것이요. 쓰르비아사람들은 기생충처럼 흐르바쯔까사람들의 몸에서 피를 빨아먹을것이고 거마리처럼 달려들것이요. 우리는 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땅에서 태여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달콤한것을 싫도록 처먹는것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소!》

미슈꼬로인은 1929년 민족주의자들의 반란때 희생되였다. 그때 이완은 갓 열아홉살난 젊은이였다. 그는 처음 한달동안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후에 자연발생적으로 반란의 여파가 일었을 때 거기에서 풀려나와 어디라없이 사방으로 떠다니였다. 그러다가 선량한 사람들이 이완에게 려비를 주어 뮨헨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떠나보냈다. 그는 말을 모르는데다가 열정마저 식어져버려 인차 공부를 그만두고 일리치의 민족주의신문사에 취직했다. 초기에 신문사에서는 그에게 정치기사들을 쓸데 대한 과업을 주었었다. 그러나 일리치는 이완에게 이 사업이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사장은 이완에게 《자넨 나이도 어리지만 머리가 그 방향에 적합치 못해. 너무 감성적이거든. 정치에는 더 랭담한것이 필요하네.》 하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완은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리치는 이것도 반대하면서 《여기는 신중한 기관이네. 우리는 서사시에 머리를 쓸새가 없어. 시를 쓰는 련습은 집에서나 하라구.》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완은 《완성공》으로 되였다. 그는 독자적으로 마치 흐르바쯔까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기사를 투고해오고있는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사들을 꾸며내여 새로운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도 인차 싫증을 느끼고 흐르바쯔까로 돌아오고말았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 집에 모여들던 사람들, 자기가 전야와 말, 사랑과 락조에 대한 자작시를 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처럼 심금을 울린 시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던 사람들의 눈을 보고싶었던것이다.

그에게는 도이칠란드에 대한 추억도 살아있었다. 한측면에서 그는 그곳 도시들의 위용이며 울부짖는 기계의 동음이며 상품들로 가득찬 상점들을 영원토록 기억해두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그는 자기가 도이칠란드에 필요없는 존재라는것을 통절히 느꼈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자신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동정은 때때로 그에게 시인의 천품으로서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 값싼 눈물을 쏟게 했다.

자그레브주재 도이칠란드령사관의 령리한 사람들은 이완 쇼흐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마체크박사가 그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해놓았다.

도이칠란드령사와의 담화에서 이완 쇼흐는 자기는 외국인에게 봉

사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도이췰란드제국의 협력이 필요한것은 단지 자기가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그 사업, 독립된 흐르바쯔까를 창설하는 사업을 백방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였다.

이완 쇼흐는 자기가 흐르바쯔까시문학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수 있으리라는것을 이미 의심치 않고있었다. 그는 능력없는 창작가인 대신 왕성한 실천가였다. 그는 베오그라드, 싸라예브, 쓰끄뿔레의 시인들과는 겨룰수 없겠지만 자기가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수 있거나 또는 차지해야 할 사람에게 신뢰와 진실성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흐르바쯔까시인들은 능히 감당할수 있으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이런 사람은 빠벨리치가 아니였다. 그는 멀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마체크가 되여야 한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그를 마체크와 련결시켜주었다. 이완은 이러한 방조를 기억하고있을것이지만 봉사는 흐르바쯔까두령에게 할것이다. 이완은 자기의 책 두권을 발표하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자기를 서기국에 받아들여 문화문제를 담당케 하여준 사람에게 봉사할것이다. 이완은 자기의 재능에 대한 기사를 세개의 신문에 발표하도록 해준 사람에게 봉사할것이다. 그는 편집국장들인 즈보니미르 브지크, 라도 노바크, 이보 슈리메크가 이렇게 하는것을 반대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완은 자기가 해외민족주의자들의 신문사에서 일하였다는 자료를 경찰이 들춰냈을 때 위기에서 구원해준 사람, 자기에게 승용차와 주택, 재산을 준 사람에게 봉사할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잊지 않는 법이다. 이완 쇼흐는 더우기 그러했다.

웨지치대좌가 물러가자 마체크박사는 바로 이 사람, 이완 쇼흐를 자기한테로 불렀다.

《여보게 이완》하고 마체크는 허두를 뗐다. 《나는 경찰에서 하는 어지러운 일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일이 매우 긴급하게 제기되고있네. 나는 당신의 친구들중에서 누구든지 자기 계통을 통해 여기 비밀경찰책임자 웨지치가 분명 베오그라드의 지시에 따라 도이췰란드무역일군들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있는것 같다고 통보하게 했으면 하네. 그 어떤것이든 나쁜 소문이 흐르바쯔까의 수도에서 베오그라드로 새나가게 하는것은 좋지 못한짓이네. 성을 기억해두게. 웨젠

마이어, 포흐트, 디쯔, 슈틀리쯔, 존넨브로크… 웨지치대좌는 나를 보고 도이췰란드손님들의 〈파괴활동〉에 대하여 직접 베오그라드정부에 통보해줄것을 요청했네. 그에게 론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들과 증거들이 있는 모양이요. 그는 자기들의 행동을 승인해줄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행동할것인가 하는것을 내가 결심해주기를 바라고있단말일세. 나는 결국 베오그라드와 련계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네.》 마체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네 사람들한테 통보해주게.》 마체크는 이완 쇼흐를 찬찬히 쳐다보다가 다시금 곱씹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겠나? 일이 너절하게 됐네. 내가 웨젠마이어와 만난것을 웨지치가 알고있지 않는가 하는것이 걱정스럽구만. 그는 이에 대하여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무엇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하는것을 마치 암시하듯이 이야기하더란말일세. 알겠나? 그는 자기 손으로 적을 쳐보자는거지. 다시말하여 우리 손으로 말이야.…》

《그 사람은 뭘 달성하자는겁니까?》

《그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을 당장 유고슬라비아에서 추방시켜버리자는거야. 그는 우리가 나라의 모든 력량을 단합시키는데 찬동하기를 바라고있네. 그는 좌익그루빠들이 지금 자기들이 웨치던 비타협적인 구호들을 철회하고 공동방어전선에 합류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네…》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당장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정형에 대하여 나에게 알려주도록 하게. 최악의 경우엔 내가 개입하겠네. 허나 이 어지러운 일에 끼여들 생각은 물론 없네.》

마체크는 흐르바쯔까총독 슈바쉬치나 내무국장을 자기한테로 부를수도 있었다. 허나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자기의 립장을 설명해주어야만 했다. 즉 흐르바쯔까당수로서 《개인적인 문제》로 찾아왔던 웨지치대좌가 통보한 소식을 전달이나 하는것으로 그칠수 없다는것이였다. 그의 립장은 웨지치의 견해를 지지한다든가 혹은 배격한다든가 명백하고 확고해야 했다. 이 대좌는 단지 통보해준 내용으로써만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었다는 사실자체로써 마체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확고한 립장을 취한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였다. 웨젠마이어가 그에게 《전쟁이다》하고 명백히 이야기만 했어도 웨지치가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하는것을 알았을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영국과 동맹한다든지 총동원령을 내린다든지 혹은 백

악관에 공개적으로 원조를 요청한다든가 모스크바와 조약을 체결한다든가 랭혹한 립장을 취한다면 이랬든저랬든 확고하게 행동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이 뒤흔들리고 모두가 암중모색하고있는 순간에는 바보나 혹은 풋내기정치가만이 확고한 결심을 내릴수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마체크는 아직까지 씨모비치의 내각에 들어가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흐르바쯔까여, 나를 따라오라》하고 경솔한 행동을 할 권리가 없었다.

마체크는 쇼흐가 직접 맡아서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사건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건을 통과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할수 있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마체크의 서기로 된 후 이완 쇼흐는 상서기들, 사령관의 부관들,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직접 련계를 맺고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상급들이 채택한 결정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문건은 《좋게 익히기 위해》얼마동안 철궤속에 넣어둘수도 있는것이고 또 문건에 밝혀져있는 론리보다 사건의 운명에 더 영향을 미치는 글들을 몇마디 첨가하여 모든 절차를 뛰여넘어 책상우에 슬그머니 올려놓을수도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편집국에 베를린, 모스크바, 런던에서 진행된 회담과 관련한 보잘것없는 자료를 한통 보내주고 친구인 편집국장에게 신문사일군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중요한 론설을 만들어 그의 상급이 정부내에서 놀고있는 진짜 역할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상급을 떠받들어올려달라고 은근히 부탁할수도 있는것이다. 물론 모든 부탁은 쇼흐와 그의 상급인 마체크에게 방조를 주고있는 사람에 의하여 실행될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언제나 전화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공작시간에 성이나 출판사 편집국에 찾아다닐 시간도 없었다. 그러므로 방도는 한가지뿐이였다. 일요일같은 때 술판을 크게 벌려놓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는속에서 친절하게 그리고 비밀로 모든 사업을 토의하는것이 좋았다.

이렇게 술상을 벌려놓고 사업을 진행하는것은 이완 쇼흐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활로 되여있었다. 바로 이런 주연이 벌어지는 속에서 쇼흐는 흐르바쯔까내무국장 보좌관의 아들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청년을 대학생교류형식으로 힐덴베르그종합대학에 보내주어야 했다. 쇼흐는 이 약속을 곧 실행해주었다.

중좌 쇼쉬치는 당직서기에게 자꾸 전화를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장령에게 긴급한 일이 제기되면 자기가 손님과 함께 8호실에 있겠으니 거기에 알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나서 쇼흐의 손을 잡고 조용한 방으로 이끌었다. 방안에는 치즈며 과실이며 포도주가 가득찬 미국산랭동기가 있었다.

《전시태세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있소.》 쇼쉬치의 말이였다. 《그래서 인차 랭동기를 하나 더 가져와야겠소. 나의 상급은 식성이 대단히 좋다오. 랭동기 하나로써는 두사람에게 부족하지. 포도주를 부을가?》

《감사하오, 블라지미르, 포도주를 마실 시간이 없구만. 게다가 내가 찾아온 용무는 맑은 정신을 요구하고있소. 당신은 웨지치를 알고 있소?》

《웨지치? 비밀경찰에 있는 사람말이요? 알지.》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소? 그가 어떤 사람이요?》

《이완, 당신은 서로 다른 두가지 질문을 하는구만.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오. 헌데 그는 령리한 사람이지. 아주 령리한 사람이요. 아는것도 많고…》

《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오?》

《글쎄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는지…》

《명백하게 대답해주오.》 쇼흐는 빙그레 웃었다. 《내가 깨달을수 있도록 말이요.》

《당신은 시인이니까 느끼는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 경찰요원들은 알아야 한다오.》

《나는 웨지치에 대하여 시인으로서 묻는게 아니요.》

《마체크의 서기로서 묻는가?》

《아니요. 나는 웨지치에 대하여 그의 적으로서 묻고있소. 그는 리유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있고 또 그렇게 할수도 있다고 보오.》

《어떻게 말이요?》

《내가 꼭 대답해야만하겠소?》

《어찌겠소, 이완. 나에게는 웨지치가 어떤 사건과 관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밝혀내는것이 중요하오. 애정관계나 행표관계라면 일반경찰에 가야 할거요. 혹시 정치경찰에 가야 할 문제가 아니요?》

《당신에게 그것이 왜 중요하오?》

《왜냐하면 일반경찰국장이 당신처럼 내 친구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사건이든지 처리할수 있소. 만일 당신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떤 불쾌한 일이 있으면 그를 당장 여기로 초청하여 이 자리에서 모든것을 해결할수 있소. 웨지치는 무력한 존재로 될것이요. 우리는 벌들처럼 벌의 집에서 적용되는 법칙으로 살고 있지 않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란말이요, 쇼쉬치.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있다고 말할 때 나는 자기를 당신과 분리시키지 않았소. 같은 혈통의 우리 4백만형제들도 역시 따로 분리하지 않았댔고 그는 당신에게도 해를 주려고 하고있소. 그것은 우리모두를 도이췰란드의 앞잡이들로 취급하고있기때문이요. 그는 또한 평화와 선을 바라고있는 모든 사람들을 히틀러의 앞잡이들로 생각하고 있소.》

《당신이 형편을 설명해주길 잘했소. 그러나 그는 든든히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가 비록 흐르바쯔까사람이긴 하지만 베오그라드는 그를 밀정으로서 여기에 파견하였소. 만일 직위가 좀 낮은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된다면 문제없을거요.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여기서뿐만아니라 베오그라드에서부터 뒤를 파야 하오. 하긴 어떤 경우든지 그에 대한 자료는 사무부를 통과해야 할것이요. 즉 나를 통과해야 한단말이요.》

《그는 우회로를 선택했소. 뒤통수를 후려치려고 하고있소.》

《그렇다…》

《그가 먼저 우리를 치기전에 우리가 그를 쳐야 하오. 즉시에말이요. 오늘래일중으로. 후에는 늦어질수 있소. 당신이 그에 대한 자료를 뭘 좀 가지고있는것이 없소?》

《아무것도 없지. 전혀 없어. 잠간만… 내가 문건을 뒤져보겠소. 그러나 만일 그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좌우간 당귤이나 들라구. 내가 인차 돌아올테니.》

쇼흐는 속살이 드러나도록 당귤껍데기를 벗겼다. 당귤은 울퉁불퉁 고르롭지 못한 뿔이 솟아있고 꼬리는 강아지꼬리처럼 길고 곧게 뻗었다. 이완은 아버지가 어느날 호텔에서 당귤을 가져왔던 일이 생각났다. 진귀한 이 과실은 과자나 양고기, 치즈에 습관된 소년에게 마치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듯 매혹적이고 신기해보였었다. 아버지가 껍데기를 벗기였을 때 이완은 그렇게 고운것을 망그러뜨린것이

분했다. 그는 당귤을 껍데기에 싸서 창문턱에 올려놓았다. 언제나 그렇게 고운대로 있게 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껍데기가 오그라들고 당귤이 쵸들쵸들 말라들자 소년은 서러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아마 동심에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할수 있을듯한 환상이 틀고앉아있는것 같다.

《자, 갔다왔소.》 쇼쉬치는 방안에 들어서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았지. 부아가 날 정도로 깨끗하였소. 사업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소. 모범적인 일군이지. 어머니와 함께 자기 집에서 살고있는데 주위에서도 아무런 자료가 제기된것이 없소.》

《집은 산지 오래 되오?》

쇼쉬치는 빙그레 웃었다.

《외국사람들의 돈으로 사지 않았는가 하는거요? 그럴리가 없지.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소.》 그는 문건갈피를 벌컥벌컥 뒤지다가 《집은 1927년에 〈웨가〉공장 지배인인 웨지치의 아버지가 구했음.》라는 대목을 읽었다.

《독신이요?》

《리혼했소.》

《아이들은 있소?》

《그럼, 아들이 있소.》 쇼쉬치는 카드를 들여다보고 대답했다. 《여덟살 났소.》

《아이를 버리지 않았단말이요? 가정토대는 잘 유지하고있구만.》

《당신은 인사과장처럼 말하는구만. 그 사람이 꼭 그렇게 간명한 자료들을 리용하고있지. 아니요, 녀편네는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렸소. 달아났단말이요.》

《술을 마셨소? 늘 술판을 벌려놓지는 않았댔소? 녀자가 괜히 떠날리야 없지 않겠소.》

《이완, 용서해주오!》

《늘 술판을 벌려놓지 않았는가 묻지 않소?》 쇼흐는 지꿎게 캐물었다.

《아니요, 그 녀자가 다른 사람에게 반했던거라오. 그런 일이 있군하지.》

《그는 몇살이요?》

《서른아홉살.》

《좋소. 그런데 그 로친네라는건 웨지치에게 있어야 하오? 그건 무

슨 로친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나타날건 아니요? 나에게는 더이상 요구되는것이 없소. 다만 배반당한 남편만이 필요하오. 이게 전부요.》
《당신은 경찰에서 일해본적이 전혀 없소? 당신은 진짜 탐정의 지혜를 가지고있소, 이완. 신호가 있어야겠소.》
《무슨 신호말이요? 그건 무엇때문에?》
《신호라는건 동기를 말하는거요. 나는 동기가 없이 웨지치에 대한 감시를 조직해달라고 요구할수 없소. 나한테 직접 편지를 써주오. 야간구락부에서 술에 만취된 웨지치가 갈보들을 끼고 돌아가는것을 보았다는것과 웨지치가 외국인들을 빈민굴로 끌고다닌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여기에 정확한 날자를 적어야 하오. 그러되 달력을 보고 교회성자절과 일치된 날자가 아닌가 하는걸 검토해보아야겠소. 그런 때에는 그가 사업상용무로 술집에 갈수 없으니까.》
《내가 편지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오.》
《그럼 어느 친구에게 부탁해도 좋소.》
《그럼 내가 친구를 보고 부탁하지.》 이완은 벌씬 웃었다.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 없다면 30분후에 내가 편지를 조직하겠소. 누구의 이름으로 써야겠소?》
《장령 네디치에게 써보내오. 직접 그에게 쓰도록 하오. 손에 직접 들려주어야 국가적중요성이 강조되거든. 그럼 이 편지가 나에게 오게 되오. 그렇지 않으면 편지가 문서부에서 굴러다니겠는데 이런 편지따위에는 누구도 주의를 돌리지 않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내오고있는지 알지 않소.》
《좋소. 그게 제일 쉽겠구만. 헌데 어느것이 더 엄중한가 시험해보면 어떻겠소? 실례로 당신들이 감시하고있는 사람과의 련계요? 적과의 련계요?》
 쇼쉬치는 이완 쇼흐를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밀어넣었다.
《그건 썩 좋지 못하오. 그에 대한 감시는 조직하기요. 전화도 도청하구. 허나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말고 연극을 놀아보기요. 당신이 날자를 바투 제기하지 않으면 별문제요. 그리고 연극을 시작하자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있어야겠소. 믿을만한 자료말이요.》
《혹시 량쪽에서 때리면 어떨것 같소?》
《그건 너무 무리한것 같구만. 그러다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수

있소. 교묘하게 적의 꼬리를 짓밟고있는 우수한 우리 일군을 적이 망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거든.》
《좋소, 나는 떠나가겠소. 30분후에 신호를 주지. 제자리에 앉아있도록 하오.》
《그다음엔 어떻게 하겠소? 이를테면 우리가 웨지치에 대한 그 어떤 자료를 얻는다치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소?》
《뭘 좀 궁리해보기요, 블라지미르. 중요한것은 속히 일을 시작하는것이요.》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로 오는동안 모든것을 궁리해보았었다. 그는 우선 첫 행동을 개시해야 했다. 그것은 웨지치에게 흑점을 남겨놓는것이였다. 흑점은 어떤것이든 좋았다. 지어 엉터리없고 후에 씻을수 있는것이라도 문제가 아니였다. 두번째 대책은 니꼴라 우쉐니츠니크가 취할것이다.
《호르바뜨스끼 노비네》출판사 부사장 니꼴라 우쉐니츠니크는 작은 숟가락으로 검은 차를 휘저어 뜨거운것을 한모금 꿀꺽 삼켰다. 그러다가 새 양복에 차를 몇방울 떨어뜨렸다.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 의자에서 일어나 분주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내가 우리 신문들에 해를 끼치면 어찌겠소?》그는 걸음을 우뚝 멈추고 물었다. 《우리 신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비난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소? 그러지 않아도 흐르바쯔까출판보도일군들이 살아가기가 힘든데…》
《최악의 경우에는 신문을 차압하고 벌금을 물릴것이요. 이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요, 니꼴라.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극히 드물것이요. 천에 한번정도나 있겠는지.》
《담보는 뭐요?》
《내 말이 담보요.》
《당신의 말이요, 아니면 마체크의 말이요?》
《내 말인가, 마체크의 말인가?》 이완 쇼흐는 그가 분노에 휩싸여있다는것을 느끼며 이렇게 되물었다. 《내 말이기도 하고 마체크의 말이기도 하오. 당신은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도와줄것을 요청했소? 나요 아니면 마체크요? 누가 당신에게 5백만디나르의 돈을 절약해주었소? 나요 아니면 마체크요?》
《여보 이완, 제발 우쭐거리지 마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절약해준것은 오직 마체크의 서기로 되였기때문이요. 당신이 시인 쇼흐라면

아무것도 절약해주지 못했을거요. 헌데 지금 당신은 나에게 어느 한 경찰우두머리를 족쳐달라는 부탁을 하고있소.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알고있소. 설사 내가 족친다 해도 후에 이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될것이요. 마체크가 이것을 나에게 위임했다면 문제가 다르다고 볼수 있소. 나는 그의 지시를 집행할거요. 그것은 내가 당국에 봉사한것으로 될터이니까. 이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허나 내가 어디 적게 갚음을 했소. 당신의 시가 우리 신문들에 얼마나 많이 발표되였소? 나는 이것으로써 당신을 책망하려는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당신은 내 눈을 찌르고있단말이요.》

(나는 너에게 돈을 절약하여 자기 집을 짓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이완 쇼흐는 때맞게 노여움을 표현할줄 알았다. 그리고 이야기상대자가 겁을 먹지 않고 자기 잘못과 결함을 깨닫게 하면서 그와 헤여질줄도 알았다. 쇼흐는 누구에게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취미가 생기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사람은 이 취미에 자기의 모든 사색을 복종시키는것이다. 쇼흐는 무슨 문제에서나 그 내용을 모르는것이 없는 현숙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가지고있었으므로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와 리해관계의 교차점에서 그리고 사건의 긍정적 및 부정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의 호상관계에 기초하여 매우 복잡한 전술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그려볼수 있었다. 이러한 호상관계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우정과 적대감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군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나와 다투면 너는 불피코 절반이상의 내 친구들과도 다투게 될것이다. 헌데 내 친구들은 나를 지지해줄것이다. 따라서 나와 관계를 끊는다는것은 네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다는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너를 도와주었지만 오늘부터는 소극성을 보일것이다. 이것은 사업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성이 진짜 사업을 방해할수 있는 가장 무서운것이기때문이다.

《좋소, 니꼴라.》 쇼흐는 뜨직이 말을 끌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청을 해서 안됐소. 잘못했소. 하지만 괜찮소. 어느때든지 내가 자기 잘못을 씻겠소. 우리가 더 만나게 되지 않을 사이도 아닌데. 또 우리는 생활에서 이런 일을 처음 당하게 되는것도 아니지…》

쇼흐는 서둘러 떠나려고는 하지 않았다. 조급성은 극단한 경우에만 필요한것이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이야기를 해도 상대자가 대답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대답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여기에 찾아온 쇼흐자신을 위해서뿐만아니라 미래의 사업, 현재의 사업, 현실적인 사업, 있을수 있는 사업을 위한 많은것이 달려있었던것이다.

《가족들에게 인사나 전해주기 바라오.》 이완은 상에서 담배를 거두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 특별히 인사를 전해주오. 그는 참 명석한 늙은이요.》

《어디로 가려는거요? 좀 기다리오. 내가 곧 점심상을 차리라고 이르겠소.》

《아니요. 고맙소. 니꼴라. 나는 일이 제대로 처리되여야 점심을 먹을수 있소. 이젠 당신의 경쟁자들한테로 가보아야겠소.》

《그런 글을 발표해주지 않을거요. 이완.》

《발표해줄거요. 그들에겐 내 말이면 충분할테니까.》

《원 사람두, 변덕스럽다구야. 꼭 계집들같이 노는구만.》

《우리는 친구들에게는 성을 내지 않소. 니꼴라이.》

《그럼 내가 당신에게 친구가 아니라는건가? 그렇소?》

쇼흐는 랭담하게 웃었다.

《계집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참.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아니요. 잠간 기다리오.》 우쉐니츠니크는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앉소. 잠간 기다리오. 일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요. 앉으라니까.》

화창한 봄이 왔다. 밖은 4월초순이 아니라 6월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따뜻했다.

자그레브의 봄은 류다른 계절이였다. 근처의 산들은 아직 초록색 나무잎들로 단장되지 않았고 눈이 녹아 그 자태를 드러내 파란 색갈의 우중충한 교회당건물은 어느 유명한 화가의 손에 의하여 물기오른 거밋거밋한 차거운 나무가지들이 그려진 무대장치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아직은 공명이 잘되는 숲속에서 새들이 호젓하고 조심스럽게 지저귀는 거기에, 유리알같이 맑은 시내물의 열정적인 주절거림속에, 저녁해빛이 희망에 부풀어오른듯한 나무가지의 순들을 비쳐주고있는 거기에, 한마디로 이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갖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그속에 꽃피는 계절이 다가오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루밤사이에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겨울숲이 설레이는 무성한 숲으로 단번에 변해버리는 옛말에서처럼 갑자기 찾아오는듯했다.

슈틀리쯔는 자그레브시내를 걷고있었다. 일리짜중앙거리에서 굽어들어 《오호뜨니크》식당옆을 지나 경사가 급한 뚜슈까네쯔골목길을 따라오르면 수림속에 이를수 있다. 거기서 작은 골목길을 지나 내려오면 다시금 소란스럽고 유쾌한 봄날 사람들의 무리속에 섞이게 된다.

본부는 슈틀리쯔가 흔히 달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외등이 컴컴한 수면에 불빛을 던져줄 때 바로 여기와 같은 큰 다리옆에서 련락원에게 첫 비밀접선장소를 알려주군하였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본부는 슈틀리쯔가 새 도시에 와서 모스크바쪽에서 볼 때 다리 오른쪽 첫 외등옆이나 혹은 외등이 없으면 오른쪽 첫번째 장의자에서 접선할것을 제기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접선시간은 9시로 약속되였었다. 그리고 접선암호는《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몸을 던지는 일이 많은가요?》라고 하면 《그들은 거의 다른 장소를 선택하지요. 여기는 강바닥에 감탕이 많이 깔려있으니까요.》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련락원은 오른손에 빨간 끈으로 맨 꾸레미를 들고있어야 했다.

슈틀리쯔는 다리옆에서 즉시 한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깃을 올린 흰색고무천옷을 입고 중절모를 푹 눌러썼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꾸레미를 들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였다. 낡아빠진 자전거의 왼쪽손잡이를 놓지 않고 부산하게 길을 따라 오르내리고있었다.

슈틀리쯔는 다리를 건는 다음 불을 끄고 자동차를 길섶에 세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동차문을 열었다. 강쪽에서 차거운 랭기가 올라왔다. 강물은 시커먼 연기처럼 보였다. 둔중하게 들리는 물소리는 쉬임없이 돌아가는 발전기의 작업을 련상케 했다. 하지만 슈틀리쯔는 불필요한 다른 음향이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건너 손에 꾸레미를 들고 홀로 산책하고있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아직은 까닭을 모르고 슈틀리쯔는 이 사람을 어디에서 보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 사람이 목을 돌리는것과 기침을 하는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기침을 하고있다는것은 고무천옷을 입은 어깨가 들썩거리는것을 보고 알수 있었다.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 각이한 사람들과 접선하러 갈 때마다 슈틀리쯔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서서히 젖어들군하였었다. 그것은 련락원과의 접선시에 공작원을 파멸에로 이끌수 있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게다가 위험성은 언제나 련락원으로부터 초래될수 있었다. 그것은 련락원이 무전수와 접촉하였다는 사정과 관련되는것이였다. 반탐기관에서는 무전기를 탐색하고있다. 슈틀리쯔는 몇달동안 수사그루빠에서 이 일을 해보았기때문에 이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슈틀리쯔는 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가 다리끝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련락원에게 다가갈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려 이 사람을 보았다. 그의 몸은 삽시에 굳어지는듯했다. 그의 앞에는 뽀뽀브장령의 집에서 죤넨브로크가 소개해준 대학 촉탁강사 로드이긴이 서있지 않은가. 슈틀리쯔는 그 자리를 떠나고싶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휘둥그래진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로드이긴에게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절모를 약간 추켜올리고 말을 걸었다.

《력사가들이 이처럼 봄향기에 취해있으리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드이긴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같은 거쉰 소리로 대답했다.《유감스럽지만 난 밤의 자연을 즐긴답니다.》

《흥미있는데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몸을 던지는 일이 많은가요?》 슈틀리쯔는 이렇게 하고싶지 않았지만 그 어떤 이상한 추측에 순종하면서 기계적으로 암호를 되풀이하여 물었다.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로드이긴은 어깨를 움츠러뜨리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말했다.《그들은 거의 다른 장소를 선택하지요. 여기는 강바닥에 감탕이 많이 깔려있으니까요.》

슈틀리쯔는 온몸이 삽시에 솜처럼 나른해지는것을 느꼈다. 아마 로드이긴도 자기 자전거에 몸을 의지하는것으로 보아 그런 감정을 느끼고있는것 같았다. 슈틀리쯔는 자기들 두사람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려보고 갑자기 소리내여 웃었다.

《왜 그러십니까?》 로드이긴은 놀라와했다.《내가 당신을 방해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슈틀리쯔씨.》

《당신은 언제 자기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합니까?》
《누구한테말입니까?》
(아,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고있다.— 슈틀리쯔는 생각했다.—존넨브로크가 괜히 나를 뽀뽀브장령의 집으로 끌고갔댔군. 가지 않았어야 했을걸…)
《자, 난 자기 사람입니다, 로드이긴. 마음을 놓으시오. 본부에서 나에게 뭘 전해왔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자기 사람이란 말입니까?》 로드이긴은 정말 아이들처럼 놀라와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사람이 아닙니까, 슈틀리쯔씨.》
《그게 어쨌단말입니까? 엥겔스도 역시 뽀르뚜갈사람은 아니였지요. 암호문을 넘겨주고 다음번 상면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로드이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어떤 암호문도 당신에게 줄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슈틀리쯔는 담배를 붙여물고 생각해보았다. 그도 아마 로드이긴이라면 그렇게 행동했을것이다. 그는 타협조로 말을 건넸다. 《좋습니다. 성내지 마십시오. 본부에 문의해보십시오. 〈유쓰따쓰를 믿을수 있는가?〉라고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외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전문을 본부에서 읽어보고 나에 대한 사망통지서를 준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어리석은짓을 그만두십시오. 당신과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습니까, 슈틀리쯔씨? 나는 무슨 황당한 소린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시내로 들어가 뭘 좀 마시기나 합시다. 내가 좋은 술집을 알고있으니까.》
(또 시험사격을 해보려고드는군. 제길할것, 이거야말로 문제로군.)
《와씰리 뻘라또노비치》 슈틀리쯔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난 당신이 몹시 놀라와하는것을 보고 나와 접촉하러 와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못지 않게, 아니 더 모험을 하고있습니다. 허나 난 당신이 응답암호를 대자 곧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의심한다면 본부에 문의하십시오. 〈유쓰따쓰를 믿을수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탁인데 절대로 내 성만은 창공에 날리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만납시다. 두시에 만나도록 합시

다. 본부에서는 인차 대답을 줄겁니다. 거기서 나의 정보를 기다리고있으니까.》 슈틀리쯔는 로드이긴에게 담배곽을 내밀었다.《이 안에 들어있는 암호문을 본부에 즉시에 날려보내십시오. 알만합니까? 나를 믿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 〈에쓰플라나다〉료정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슈틀리쯔는 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 려관에서 세를 낸 작은 승용차 《레노》에 앉아 윙 속도를 내여 방향을 돌린 다음 시내로 향하였다.

로드이긴이 낡아빠진 자전거를 타고 무전수의 집을 떠나 이리저리 길을 에돌면서 가고있는동안 모스크바에서는 슈틀리쯔가 보낸 정보를 다시 옮겨베껴 크레믈리에 있는 뽀스크레브이쉐브에게 보내기전에 그것을 다른 정보원천에서 들어온 자료들과 대조하면서 세밀히 연구해보았다.

…슈틀리쯔는 《에쓰플라나다》려관 료정에서 어두컴컴한 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가려볼수 있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그는 풍만한 젖가슴이 불쑥 삐여져나오고 엉치가 커다란 나무통같은 우람하게 생긴 접대원을 보고 제일 건 산골포도주 한병과 치즈를 한접시 가져오라고 청했다.

《이건 외국인들이 모르고 하는 주문입니다.》하고 접대원은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산골포도주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베쎌리유리〉포도주를 가져다드리지요. 달마찌아지방의 붉은 포도주랍니다. 그리고 흐르바쯔까민족료리 폴렌타를 가져오겠어요.》

《폴렌타라는건 뭐요?》

《폴렌타라는건 흐르바쯔까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접대원은 믿기 어려울만큼 억양이 특수했다. 그러나 그는 도이췰란드말과 프랑스말을 섞어가면서 자신있게 대답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이것을 〈쥬간쯔이〉라고 하며 달마찌아에서는 〈폴렌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쓰르비아에서는 〈까챠마크〉라고 하지요. 강냉이가루로 만든 민족료리인데 농민들이 먹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제일 비싸고 진귀한 료리로 치고있습니다. 외국손님들을 위해서말입니다.》

《폴렌타면 폴렌타고… 나는 배가 고파 죽겠소.》

《또 뭘 가져다드릴가요? 쓰르비아의 절인 삐로그와 보스니아삐로

그를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큰 고추를 갖다드리겠어요. 좋아요?》

《당신들의 구미대로 가져다주오.》

《당신의 구미와 우리 구미가 다르지 않겠나요?》 접대원은 몸을 기웃거렸다. 《좋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갖다드리겠어요.》

손님들은 탐욕스런 눈길로 접대원을 바라보았다. 신기하게 생긴 베레모를 쓴 보스니아사람 세명이 혀를 끌끌 차며 보기가 구차한지 눈을 감았다.

(이건 바로 뛰르끼예의 영향이다.) 슈틀리쯔는 쓰겁게 웃으며 생각했다. (유럽사람들은 활동성있고 민첩하고 호리호리한 스포츠형의 녀성을 좋아하지만 동방에서는 부드럽고 침착한것을 좋아한다.)

…로드이긴은 1시 30분에 찾아왔다.

《그래 어떻게 되였습니까?》하고 슈틀리쯔가 물었다. 《마음을 놓았습니까, 와씰리 뻴라또노비치?》

《마음을 놓았습니다.》

로드이긴의 얼굴은 지금까지 상대해보지 않은 적수를 바라보는 권투선수처럼 무척 조심스러워보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하고 슈틀리쯔는 말하였다. 《앞으로 더 편리하게 만나기 위해 래일 전화를 거십시오. 나도 당신을 점심식사에 초대하겠습니다. 존넨브로크는 진짜 게스타포성원입니다. 난 그가 있는데서 당신에게 우리를 협조해줄것을 요청할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집행하십시오. 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당신을 만날수 있습니다. 약속했지요?》

《만일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자그레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자기의 친한 동무들을 모두 기억해두십시오. 그들은 당신과 나의 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전쟁의 위기가 내포되여있다는걸 알고있습니까?》

《내 생각엔 모르고있는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이 싸울것 같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좋은 무기를 주고 대오를 편성해주면 결사적으로 싸울것입니다.》 로드이긴은 확신에 넘쳐 말했다.
《결사적으로 싸울것이란말이지요.》 슈틀리쯔는 생각에 잠겨 되뇌이였다.
《래일 9시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나를 보고 당신에게 한가지 문제에 대하여 물어봐줄것을 부탁하던데…》
《누가말입니까? 본부에서요?》
《아닙니다.》
《당신의 동료들이?》
《이 사업을 맡아보고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믿지 않고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하지요. 웨지치라는 성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말해주는것이 없는가 하는것을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관 사람입니까?》
《비밀경찰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가 당신네 공작조와 련계가 없는가요? 난 죤넨브로크를 념두에 두고 묻는겁니다.》
《그 사람과 련계가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게스타포에도 역시 그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와씰리 뾸라또노비치, 당신이 비밀규정을 그렇게 엄격히 지키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대답할줄 모릅니다. 나는 동지들이 사업에서 나를 믿어주는데 습관되였습니다. 당신은 웨지치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묻는겁니까, 무엇과 관련하여?》
《난 이것을 설명해줄데 대한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할수만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알수 있는 모든것을 알아봐주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여기서 공작을 진행하고있지 않습니까. 슈틀리쯔씨.》
《와씰리 뻴라또노비치, 당신은 출판계와 련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성이 없습니다. 출판물검열이 아주 횡포합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답새겨보려고 시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통과시켜주어야지요.》
《바로 누구를 답새기려고 했습니까?》
《히틀러주의자들이지요.》 로드이긴은 근시안적인 눈을 쪼프리며 설명했다. 《성내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도이췰란드사람은 모두 히틀러주의자가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슈틀리쯔는 매몰스럽게 말했다.
《나는 모스크바본부에 도이췰란드에서 소환시켜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내가 로씨야망명자들속에 로씨야의 〈해방〉을 위해 게스타포와 협력하라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매우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당신을 도발자로 생각하고 당신과 접선하러 오지 않았을겁니다. 이젠 그만합시다. 난 앞으로 당신이 이런 문제로 되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내지 마십시오.》
《당신도 성내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옳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헌데 여기 출판검열자들의 단속이 심하던가요?》
로드이긴은 양복주머니를 뒤져 여러가지 규격의 구겨진 종이장을 몇개 꺼냈다.
(저러다가는 단번에 폭로되지 않겠는가.)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감정만 앞세우고 비밀사업규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업한것이 그처럼 오랜 세월 그를 구원해주었는지 누가 알랴.)
《자, 이것 보십시오. 전지불이 밝은데 읽어보십시오.》

정다운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

웨지치대좌는 라다와 우연히 사귀게 되였다. 점심시간이 되였는데 그는 커피끓이는 도구가 못쓰게 되여 그것을 사용할수 없었다. 웨지치는 전기곤로에 커피를 끓이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에 비옷을 걸쳤다. 사흘째 련속 잔잔한 가을비가 내리고있었던것이다. 아직도 여름철의 온기가 가셔지지 않은 집벽에 바싹 붙어 슈트로스마이어거리에 나섰다. 거리 한쪽 모퉁이의 아담하게 생긴 자그마한 빵집에서 영업을 하고있었다. 여기서는 늘 갓 구워낸 구수한 뻬로그냄새가 코를 찔렀다. 뻬로그는 소기름, 와닐라, 들쭉쨤 그리고 밀가루반죽을 약간 섞어 만든것이였다.

빵집은 벌써 자리가 차서 빈자리가 없었다. 녀학생들이 쉴새없이 재잘거리며 고양이혀처럼 뾰족한 혀끝으로 노르끼레한 에스키모를 핥고있었다. 대학생들은 처녀들을 넘겨다보며 푸르스름한 빛갈의 《청량음료》를 담은 길죽한 잔을 연방 권하였다. 사무원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커피를 마시였고 빠리에서처럼 뾰족한 뿔모양으로 덧쌓은 빵을 씹었다.

빵집은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웃음소리, 숟가락소리로 동강나는 이 소음은 불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사업을 긴장하게 진행한 후 신경을 휴식시키면서 안정을 얻을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었다.

웨지치는 여기에 될수록 드물게 나타나려고 애써왔다. 그것은 경찰국에 돌아가면 다시 새로운 눈으로 거칠은 벽돌과 어두운 복도들을 보아야 했고 더우기 무엇인가 밝혀내려 하고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기만하고 매수하고 서로 잡아먹으려드는 동료들의 사귐성없고 우울한 얼굴을 보면서 오래동안 초조한 감정을 느껴야 했기때문이였다.

자그레브와 런던 그리고 쏘르본느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웨지치는 처음 한때 비밀경찰사업에 청춘의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부었었다. 그는 민족적의무에 대한 자각이라고는 꼬물만치도 없는 색다른 세력들

이 자기 조국, 오—마제국의 멸망후에 생겨난 슬라브조국에 대하여 방해책동을 놀고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였다. 초기에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뿌리뽑아치우면 모든것이 제대로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29년 안떼 빠블로비치에 의하여 시작된 혼란이 현실로 도래하였을 때 웨지치는 공산주의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위협, 분렬주의위협이 더 현실적이며 그것이 유고슬라비아의 존재를 반대하는데로 돌려지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민족주의자들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시기부터 그는 공산주의자들, 체포된 사람들, 자기가 의심하여 오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전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즉 선입견적으로 악의를 품고 대하지 않았고 그들이 모험하고 체포된 동기는 무엇이며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보려고 애썼다. 그는 이전에 자기들의 사업에서 위험하고 해로운것으로 생각되여오던 많은것들이 정말 자기 조국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현대적으로 국가를 지도할 능력이 없는 관료들을 내세운 그 사회제도를 반대하는데로 돌려진것이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나라의 경제운영에서 발로된 엄청난 결함들이 크레뮬리의 탓으로 생겨난것이라고 떠들고있을 때 사회적질병의 진짜 원인은 깊이 숨겨져버렸으며 오랜 궤양으로 생긴 천공에 대하여 시급히 외과적대책을 취해야겠으나 백일해병치료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웨지치는 상에게 상세한 보고를 제출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경험을 본받아 공산당을 합법화하는것이 합리적일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익세력들을 광범히 묶어세움으로써만 어느정도라도 침략자들과 맞설수 있기때문이였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안슐류쓰협정이후 도이췰란드가 잠재적인 침략자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보게 소좌.》하고 내무성 부상은 말하였다. 그는 친밀한 담화를 나누기 위해 웨지치를 베오그라드로 불렀던것이다. 《감히 어떻게 이런 글을 쓸수 있소? 아무데 가서든지 말해보오. 더우기 가까운 친구들과도말이요. 내가 이 문건을 여러 부수로 등사하여 우리 일군들에게 나누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리해하지 못할거요. 당신을 투항주의자로 취급할거요. 웨지치, 만일 당신이 이 문건을…》부상은 매끈한 손가락으로 또 종이장을 건드렸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작성했더라면 당신을 모스크바에서 거액의 돈을 얻어먹은 변

절자로 취급했을거요. 나로 말하면 물론 당신을 리해하오.》 부상은 웨지치가 항의하는 몸짓을 하는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리해하오. 하지만 우리는 경찰이 아니요. 비밀경찰이란 말이요. 우리는 현존하는것들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에 대하여 모든것을 알고있어야 하오. 우리 경찰들은 정치가들에게 적합한 시간에 제때에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자료, 다시말하여 그들의 목적과 련계, 대중속에서의 인기 등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줄 알아야 하오. 당신은 아직 정치에서 자기를 시험해보는것이 늦지 않았소. 문제는 나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정치가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는데 있소. 우리가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위정자들은 우리의 지식정도를 알고있기때문에 우리를 그리 믿지 않을게 아니겠소. 그래서 말이 났으니말이지 군주는 흔히 군부의 로출된 력량과 경찰의 숨은 력량간의 균형을 유지하는것이요. 그러나 력사는 군인이 집권자로 된 실례는 알고있지만 직업적인 경찰이 집권자로 된 실례는 모르고있소. 우리가 더 많은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집권자에게 위험한 세력으로 될것이요. 여기에 모든 요술이 있는것이요, 친애하는 나의 소좌. 우리는 무엇이든지 알고있어야 하지만 꼭 물을 때만 대답해야 하오. 허나 건설적인 제기에 대하여서는 될수록 멀리 해야 하오. 여기에 숨은 도발이 있을수 있거든. 오직 로출되여있고 규정되여있는 한가지 뜻을 가진 문제에만 대답해야 하오. 이런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나에게는 바보가 아니라 대담한 구상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들이 필요하오. 나는 당신을 능력있는 일군으로 평가하고있소. 그렇기때문에 이 보고를 돌려주면서 이것을 없애버릴것을 권고하는바이요. 그리고 또한 당신에게 도이췰란드의 간첩행위를 맡아보는 국을 책임져볼것을 권고하고싶소. 당신은 기본위협이 서북부로부터 오고있다는것을 정확히 보고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맡아보라고 하시오. 우리 성에서 도이췰란드담당국이 매우 크기때문에 당신은 대좌의 견장을 달고 국을 지도해야 하겠소.》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며 웨지치가 특별관직을 수여받은 바로 이즈음 그는 슈트로스마이어거리의 한모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빵집에서 라다와 만나게 되였다.

유일하게 빈자리는 키가 큰 금발머리녀자가 앉아있는 옆자리 하나뿐이였다. 매대옆에 몰켜선 대학생들은 그 녀자에게 감히 다가앉을

엄두를 못내였다. 웨지치는 처음에 이 녀자가 그렇게 고운 녀자인줄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그 녀자는 웃입술에 우습게 생긴 기미가 박혀있었고 부리부리한 눈은 파란 색갈이였다. 웨지치는 량해를 구한 다음 의자를 당겨놓고 어떤 삐로그를 주문할가 하여 차림표를 들여다보았다. 삐로그는 종류가 아홉가지씩이나 있었다. 이윽고 그는 눈을 쳐들고 그 녀자를 세세히 살펴보았다.

웨지치는 반년전에 안해와 리혼하였었다. 드라기짜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두브로브니크에 있는 쉰두살 난 머리가 허연 호텔주인에게 가버렸다. 그는 문학, 예술을 보호하는 자선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었다. 드라기짜의 새 남편은 바이올린도 타고 그림도 그릴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재부를 수치스러워하는 《새로운 형》의 자본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웨지치는 후에 드라기짜가 왜 가버렸을가 하고 오래동안 생각해보았다. 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던 그 분노는 차츰 안해에 대한 불쌍한 생각으로 변하였다. 웨지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몹시 사랑하였다. 그는 며느리를 시샘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림살이를 가르쳐주고 남편의 생활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잘 돌봐줄것을 요구하였다. 드라기짜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초기에 웨지치는 안해에게 자기 사업을 알려줄수 없었을뿐만아니라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늦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아침 일찌기 집을 떠나갔다. 그리고 자주 다른 도시로 떠나가군했다. 젊은 안해는 혼자서 남아있을 때가 적지 않았다. 그 녀자는 방안에서 이쪽저쪽으로 가구를 옮겨도 보고 창가림을 거의 매달 바꾸어보기도 했으며 방바닥을 유리알처럼 알른알른 윤기나게 닦아놓기도 했다. 그리고 웨지치가 늦지 않게 돌아오고 자기가 아직 잠자리에 들기전일 때에는 옆집에서 벌어진 일이며 오늘 식모 조르까가 하마트면 전기가마에 량다리를 몽땅 델번했다는거며 아이가 점심을 먹으며 무슨 말을 했다는것까지 자자구구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결혼초기에는 안해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웨지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었었는데 후에는 그것이 그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다. 그는 누구인가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아야하겠는데 누가 그의 고충과 의심을 리해하여주겠는가. 어느 하루 웨지치는 안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러자 안해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침울해지는것이였다. 무슨 말인지 전혀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 녀자는 오직 집안을 질서있게 정돈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을줄만 알았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집밖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녀자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드라기짜는 남편이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그날 저녁 의혹에 찬 그의 눈길을 목격했다. 안해는 이 눈길을 생각하면 부아가 나기 짝이 없었다. 과연 아담하고 정결한 환경이 집에서 남편을 맞아주게 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지 않았단말인가? 왜 그는 안해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웨지치는 안해와 함께 2년동안 바다가에 가있자고 약속하고 두브로브니크로 떠나갔다. 그런데 자그레브에서 갑자기 그를 불러들였다. 드라기짜는 혼자 남게 되였다. 온 해수욕장의 눈길이 이 아름다운 녀인에게 쏠렸다. 안해는 귀여운 아들을 데리고있었다. 호텔주인은 아들과 안해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자기의 요트에 태워 아드리아해가 좁다하게 돌아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게 되였다. 그는 자기 호텔에 찾아오는 괴상망측한 손님들에 이젠 싫증이 난것 같았다. 그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연극을 놀 필요도 없어진 자기 나이에 젊은 녀자와 안온한 생활만 보장되면 만족했다. 한편 드라기짜 역시 가정생활이 차차 힘들어지고 리해할수 없이 되여갔다. 게다가 시어머니마저 아들을 끔찍이 여기던 나머지 며느리를 집에 찾아온 손님이하로 대하였다.

그러나 그후 웨지치에게서도 드라기짜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그 녀자가 평범하고 꾸밈새없는 글로 지나간 생활에 대한 애수에 젖은 편지를 보내왔을 때 더욱 그러했다.

(어리석은 녀자를 사랑할수는 없다. 그런데 똑똑한 녀자란 없지 않은가. 어디서 그런 녀자가 나타나겠는가? 그러니 사업에 전념하자.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겠지. 어머니가 옆에 없다면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부족한것은 무엇인가? 스웨또자라? 그렇다. 아이는 물론 기형아로 되고말것이다. 그러나 드라기짜가 나와 함께 있는다면 아이에게 더 나빠질수도 있을것이다.)

웨지치는 지금 억실억실한 눈에 금발머리의 이 아름다운 녀자를

보고 외로운 생각이 칼끝처럼 가슴을 허비였다. 그는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아래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저녁에는 도이췰란드령사관에서 초청받은 초대연에 갈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으로, 머리수건을 쓰고 졸음에 취해 상머리에 앉아 기다리고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갈것이다. 그 다음에는 방안으로 들어가 널직한 침대에 누워 지나간 나날들을 추억하며 연방 담배를 피울것이다. 그리고나서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잠들기전에 불을 켜고 주단우에 담배재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아래를 굽어볼것이다.

그 녀자는 녀학생들처럼 고양이같은 혀로 에스키모를 핥아먹었다. 장미빛의 정다운 혀는 흡사 깜찍하게 생긴 숟가락같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에스키모를 혀로 핥아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혀를 어떻게 놀리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었다. 웨지치는 그때 지금 이 녀자의 옆에 앉아있듯이 어머니의 옆에 앉아있었다. 어머니는 그때 젊은 나이였고 매우 아름다왔었다. 머리칼은 금발이 아니라 검은 색이였지만 어쨌든 곱게 생겼었다. 그는 그때 어머니와 함께 거리에 나다니기를 좋아하였으며 사람들이 어머니를 쳐다볼 때 어깨가 으쓱해지군했었다.

웨지치는 녀인을 바라보며 웃어보였다. 녀인도 역시 미소를 지으며 제편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삐로그가 아주 맛있어요. 꼭 주문하세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8월의 밤〉이라고 해요.》

《허나 그건 노란 색갈이 아닙니까. 8월의 색갈은 초록색이 되여야지요.》

《명칭에서 정확성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건 듣기가 좋은거예요. 〈8월의 밤을 먹고싶어요.〉이게 얼마나 유쾌하게 들려요. 이건 기억에 남게 되여요.》

녀인의 목소리는 약간 석쉼하고 낮았다. 그는 눈가녁에 잔잔한 주름살을 모으며 사뭇 웃고있었다. 이 주름살은 녀인의 젊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웨지치는 녀인을 바라보며 부지중 오래전에 잊어버린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어머니곁에 있는 집에서조차 자기에게 평온한 감정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거기서도 줄곧 사업에 대하여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존재로 되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를 리해하여줄수 없었던 드라기짜의 옆에서도

안정된 마음은 없었던것이다. 그는 늘 자기 사업, 자기 생각,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야십가들, 재능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라를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그는 바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에 복무하고있는 사람이였다. 그의 모든 사색에서 《나》는 언제나 첫째였다. 그는 《나》라고 하는 자기의 행동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보았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갔다.

헌데 지금 이 녀자를 바라보며 그는 저도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하여,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녁에 이 금발머리의 녀자와 함께 조용한 집안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창밖에서 가을비가 내리고 뻬치까에서 장작불이 타는것도, 처량하게 울리는 귀뚜라미소리도, 마음을 아늑하게 해주는 밝은 등불도, 웃고있는 이 녀자의 억실억실한 파란눈도 모두 그에게 안정을 가져다줄것 같았다.

《아가씨, 난 당신에게 공세를 취해볼가 합니다.》하고 웨지치는 말하였다.

여러해동안 외국사람들과 교제도 해보고 비밀아지트에서 도이췰란드회사의 대표들과 담화도 하였으며 대상들에 대한 감시도 해오는 과정에 웨지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정확히 말하여 그는 조심성과 공포심, 재검토로써 자기의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담화를 위해 자기에게 데려온 외국사람에 대하여 아래일군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자기, 웨지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즉 장기간에 걸친 믿음직한 접선을 조직해주는 일만 남겨놓으면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녀인은 그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웃음을 거두게 하는것을 읽은것 같았다.

《당신은 어디가 편치 않으세요?》 녀인은 애틋한 목소리로 물었다. 《몹시 편치 않으세요?》

(안된다—웨지치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그 어떤 특이한 련민의 정으로 자기자신을 동정하며 시틋한 마음으로 생각했다—아무것도 안된다. 늦었어. 모든것을 놓쳐버렸어. 환상으로 자기를 위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당신은 좋습니까?》

《정말이예요? 아, 저는 좋아요.》 녀인은 자기 상대자의 기분이 돌

아서는것을 느끼고 삐로그를 마저 먹었다. 그리고는 자그마한 대리석상에 엽전 세잎을 올려놓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아니, 왜 공격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다리고있어요.》
《병사들이 사방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웨지치가 말하였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굶주리고… 그러니 당신은 자기를 자유로운 성시로 느껴도 좋습니다.》
녀자가 자리를 뜨자 웨지치는 자기도 일어나 자기의 《뛰르끼예커피》를 집어던지고 그를 따라가고싶었다. 그러나 또 누구인가 다른 사람, 보다 리성적이고 마음속에 틀고앉아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고있는 사람이 그를 제지시켰다. 그는 주눅이 들어 사무실로 돌아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방안공기를 환기시키지 않았다고 서기를 성이 나서 꾸짖었다.
다음날 그는 점심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웨지치는 그 녀자가 자기처럼 우연히 빵집에 들어온것이 무엇보다 놀라왔다. 그는 그 녀자가 바로 그 상에 앉아있는것을 보고 벌씬벌씬 웃으며 거기에 다가가 《나는 당신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하고 말을 걸었다.
웨지치는 그 녀자를 시외의 산정에 있는 자그마한 료리점으로 데리고가서 자기가 시내에 있는 식당들에는 함께 갈수 없노라고 말했다.
(무엇때문에 수다쟁이들한테 말밥을 주겠는가. 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다는 까르르 웃었다.
《당신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난 죄많은 가문의 녀자예요. 그러니까 20세기 1930년대말에 통용되여오던것처럼 그렇게 모든것이 시초에 결합되여야겠군요.》
《당신은 죄를 진 녀자같지 않은데요.》
《그럼 당신은 가족을 가진 사람같지 않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공세에로 넘어가기전에 자기에게 아름다운 안해가 있고 믿음직한 동무들이 있으며 다심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부터 시작해요. 술 석잔을 마신 다음 자기 애인의 무르팍에 손을 올려놓기전에 보통 그런 말을 하지요.》
웨지치는 자기가 내심 라다의 말을 두가지로 받아들이고있다고 느껴졌다. 직업경찰인 첫번째 웨지치는 이 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틀

림없이 체험해보았다고 강조하고있다. 이 녀자가 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며 자기 녀동무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웨지치는 첫날 처음으로 만났을 때 라다의 말을 그의 눈가장자리에 생긴 잔잔한 주름살과 련결시켜보던 일이 생각났다. 두번째 웨지치, 즉 뻬따르 웨지치는 이 녀자가 가족을 가진 남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해보았을가 하는 시새움을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세번째 웨지치, 첫번째와 두번째 웨지치를 이상하게 결합한 웨지치가 나타났다. 이 세번째 웨지치는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것 같다. 내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 녀자를 노엽히지 않았는가. 나는 이 녀자를 시외로 초청해옴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여기로 오는것은 저녁식사를 가볍게 치른 후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인것이다. 여기서는 숙박인들에게 공민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녀자는 아무런 죄도 없는 녀자이다. 그저 변명하고있을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슴을 아프게 하고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가정을 가진 남자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안해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던가요?》

라다는 천정으로 눈을 쳐들고 이마에 주름살을 모으며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였다. 소리없이 남자들의 이름을 외우며 그의 입술이 우습강스럽게 움직이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이름을 불렀는가 하는것을 알아맞힐수 있었다.

《여섯사람이예요. 일곱번째 사람은 괴물이였어요. 그는 제일 처음부터 자기 마누라에 대하여 하소연하면서 시샘이 강한게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는 줄곧 술집문만 쳐다보았어요. 보매 이미전부터 마누라와의 관계에서 그런 전례가 있은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리혼을 하지 않는가고 물으니 〈나한테 가족이 있지 않소.〉라고 그는 대답했어요.》

《난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는걸 들으니 왜 그런지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난 당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썩 좋은줄 아세요?》

《내 생각엔 남자가 인차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는 자기의 정직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약속도 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렴. 누가 뭘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혹시 당신은 오직 남자에게만 녀자가 마음에 들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예요? 당신은 녀자가 그런 권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이제보니 편치 않은건 내가 아니라 당신인가봅니다.》 웨지치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 녀자가 묻던 말이 생각났다.
《왜 말이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편치 않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걸 느끼지 않았어요. 나는 기슭을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구름을 쳐다보면서 물에 떠다니는 녀자예요.》
《당신은 출가할 생각도 없는가요?》
《뭐라고 할가… 시집을 가기 위한 시집은 싫어요. 내가 사랑하였던 그 남자들은 모두 가정이야기부터 꺼내는것이였어요.》
《나이가 같은 독신자들이 없단말입니까? 당신은 몇살인가요?》
《스물여섯이예요.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는 갑갑할거예요. 녀자는 더 빨리 셈이 들어요. 나는 나의 동년배들보다 훨씬 령리한 녀자예요. 모르긴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잠자리에 함께 누우려고 시집을 가는건 비렬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홀아비의 안해가 되기보다 결혼한 똑똑한 남자의 정부가 되는것이 더 좋다는거겠지요?》
《물론 그래요.》 라다가 대답했다. 《당신은 〈안해〉와 〈정부〉의 말만 귀담아들으세요. 정부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그런데 안해라는 건 뭐예요?》
《그에 대하여서는 체호브가 이미 해석을 했지요.》
라다는 호호호 웃었다.
《〈안해는 역시 안해다.〉 라는거겠지요? 당신은 이걸 말하는건가요?》
《그런데 나는 리혼한 사람입니다.》
《여보세요. 삐따르씨. 난 당신의 안해가 되려고 달라붙진 않겠어요. 나는 보통 내가 보고싶은 사람만 보군해요. 당신에게서 돈도 요구하지 않겠어요. 난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세가지 어학을 배워 생활도 넉넉해요.》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나의 안해가 되여달라고 요구하면 어찌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성내지 않겠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겁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어째서말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떠다니는것처럼 떠다니고 싶고 구름을 쳐다보고싶다고…》
《당신은 나와 또 만나고싶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어떠세요?》
《꼭 만나고싶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그렇지요.》
《당신도 역시 그래요.》
《녀자들에게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아유, 그거야 많은걸 의미하지요! 미남자는 초시기에 어리석은짓을 해도 용서해줘요.》
《내가 당신을 보자 마음이 평온해지니 좋았소. …그렇소.》그는 문득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다. 《자, 이거 나만 자꾸 포도주를 마시고 당신은 입에 대지도 않는구만.》
《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라다는 호호호 웃었다.
《왜 그러십니까?》 웨지치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아니, 정말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정신이 맑은 녀자를 방에 끌어들일줄은 모르는가요?》
웨지치는 갑자기 화를 냈다.
《난 그렇게 할줄 압니다. 너무도 잘 압니다.》
주막집주인이 불을 끄고 자그마한 방안에 그들 둘만 남게 되였을 때 라다가 말하였다.
《제발 저를 웃층으로 부르지만 말아주세요. 내 집으로 가는 편이 더 좋겠어요.》
…웨지치는 이 녀자와의 관계가 처음이자 마지막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잠을 깨자마자 그 녀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생각났고 그 녀자가 한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저도모르게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녀자가 자기 몸의 어느 부분처럼 느껴졌던것이다. 그도 역시 그 녀자처럼 거짓말을 하고싶지 않았고 그 녀

자처럼 자기 생각대로 처신하고싶었다. 그러나 라다는 지금의 그 녀자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살고있었지만 그는 두쪽으로 갈라진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있었다.

웨지치는 라다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안녕하십니까?》

《그건 제가 당신에게 해야 할 아침인사군요. 제가 변변치 않은 번역을 시작한지 벌써 세시간이 되였어요.》

《나를 보고싶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라다는 잠시 생각하는듯하더니 말을 이었다. 《안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는것이 맞을것 같애요.》

《과자점에서 만날가요?》

《만나자요.》

웨지치는 라다를 보았다. 헌데 그는 그 녀자가 평범하게 보일것 같아 그 녀자를 보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라다는 어제보다 더 아름다와보였다. 그는 심장이 조여드는듯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있지 않은가, 사랑하고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처음에 그에게는 라다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하는것이 중요치 않았었다. 그는 행복했다. 영원히 잃어버린줄 알았던 그 감정을 느낄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후 몇달 지난 뒤 라다가 두번에 걸쳐 그와 결혼하기를 거절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라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다가 대답했다. 《그렇기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법이 사랑을 보증하는건 무서운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법을 믿지 않아요. 나는 자기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있어요. 당신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있음을 느끼는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것이 없어요.》

웨지치가 라다와 자기와의 관계를 감추려하지 않았기때문에 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다만 감추려하는것만은 기어코 알아내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알아낸것은 중좌 쇼쉬치의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웨지치가 라다와 자그마한 방안에서 한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옷을 벗고있을 때 옆집 지붕에서 밤에 사진을 찍었던것이다. 라다는 이태전에 빠리로 떠나간 옆집 화가 촐리치라는 사람에게서 이 작업장을

세냈었다.

라다에게로 떠나기 한시간전 웨지치는 자기가 믿고있는 베오그라드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친구들의 공민적인 립장에 공감하고있었다. 친구들은 마체크가 아무 전화도 걸어오지 않았었다고 알려주었다. 마체크는 웨지치와 헤여질 때 고맙다고 하면서 웨젠마이어의 임무에 대하여 베오그라드지도부에, 특히 내무성에 꼭 통보해주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웨지치는 래일의 행동계획을 구상하기 위하여 라다를 찾아왔다. 그는 라다가 참여하면 꼭 행운이 있을것이라고 믿었다.

이완 쇼흐는 래일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밤중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라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나이, 교육받은 장소와 직장, 친구들과의 교제관계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블라지미르 쇼쉬치는 이런 설을 내놓았다. 라다는 번역사무국에서 일해온만큼 많은 외국사람들과 광범한 접촉을 가졌었다. 이리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련쇄고리에서, 즉 제3국의 리익을 대표하는 미모의 인물 라다와 조국을 반역한 웨지치대좌사이에서 련락지점을 추리할수 있었다.

이완 쇼흐는 몸이 달아올랐다. 그는 쇼쉬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중좌에 비기면 죠세프 푸쉐는 중위도 아깝노라고 그를 춰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쇼쉬치의 구상을 뒤로 미루기로 작정했다. 처음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가하고 그후에 최종적으로 대좌의 공민적인 성실성을 분쇄해버리는 타격을 가할것이다. 이완 쇼흐는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웨지치와 라다의 사진을 들가방에 넣어가지고 일리야 슈문디치에게 찾아갔다. 그는 이름난 펠레톤기자로서 흐르바쯔까출판물에서, 특히 마체크의 《흐르바쯔까드네브니크》와 《오브조르》에서 날카로운 문체로 하여 유명해진 사람이였다. 일리야 슈문디치는 다른 사람은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어냈다. 그는 정권당국을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심하게 욕질하였고 당국자들의 부정부패행위를 무섭게 때렸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려들이 소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하여 비난을 퍼부었다. 좌익적인 지식층들은 일리야 슈문디치가 비밀경찰에 흡수된자이기때문에 자기가 쓰고싶은대로 글을 쓸수 있고 다른 사람들같으면 떼내거나 잘라던져버릴것도 발표할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은 그가 강력한 비

밀공제회조직과 련결되여있기때문에 완벽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를 시기하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억측이 빠른 자유주의자들과 총명한 승려들은 이 경우에 잘못 판단하고있었다. 슈문디치는 비밀경찰과 련결되여있지 않았으며 비밀경찰에는 오래전에 벌써 그에 대한 감시기록부가 작성되여있었다. 그는 비밀공제회성원도 아니였다. 그가 말하고싶은대로 말하고 쓰고싶은대로 쓰도록 허용해준것은 단지 그가 당국의 견지에서 볼 때 자기 사람이였기때문이였다. 그의 두 삼촌은 대은행가들이였고 7년전에 죽은 그의 아버지는 당당한 전투영웅이였으며 알렉싼드르왕의 시종무관이였다. 일리야자신만 보더라도 7천헥타르의 땅과 아드리아해의 자다르와 네움근방에 두키로메터의 해수욕장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주목되는것은 그가 당국자들이 나약성을 보이고있다고 조소하면서 정권당국을 비판한것이였다. 공산주의출판물에 정부를 비판한 기사가 실리기만하면 편집일군들은 감옥과 집중수용소에 잡혀갔다. 허나 일리야 슈문디치는 정권당국을 비판하면서도 연회에 참가하였으며 상들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판주의자》로 인정받는 희귀한 권리를 쟁취하였다. 령리한 당국자들은 자선가의 이 비판이 겉보기에는 거친것 같으나 자기들의 사업에 복무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것 같았다. 그것은 일리야 슈문디치의 힘을 빌어 자신과 자기 행복, 자기 땅 그리고 토요일마다 친구들이 찾아오는 산중의 자기의 성지, 크고 화려한 도시의 자기 주택들에 대한 불안을 표시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어조가 날카로운 자기 펠레톤으로 일리야 슈문디치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고있는것처럼 제도를 비판하였으나 그만큼 정권당국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였으며 《물어라!》 하고 부추겨주었다. 그는 반란과 반정부사상, 개혁의 요구에 강하게 맞서지 못한자들에게 물라고 꼬드겼다. 그리고 말공부쟁이, 환상가들을 쏴죽이고 감옥에 처넣고 목을 비틀대신에 말만 떠벌이고있는자들에게 닥치는대로 물라고 추겼다.

…이완 쇼흐는 한밤중에 슈문디치를 깨웠다. 그러나 그는 성을 내지 않았다. 최근 이태동안 그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왔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리익을 보고있었던것이다. 일리야는 자기 삼촌들과 오래전부터 경쟁을 벌려오고있는 은행들의 사업을 대상으로 몇권의 펠레톤을 발표하였었다. 쓰쁠리트출판사는 자기대로 이완 쇼흐의 책《분노의 노래》를 출판해주었다. 슈문디치의 친척들이 출판사

의 주권을 뭉테기로 사주었던것이다.
《형님, 내가 잠을 못자게 한다고 성내지 말아주시오.》하고 이완은 말하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져온 이런 자료는 아직 형님한테 있어보지 못했을거웨다.》
…한시간반 지나 일리야 슈문디치는 이완 쇼흐에게 《누가 우리를 판결할것인가?》라는 제목의 펠레톤을 넘겨주었다. 웨지치의 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뻬따르라는 성을 가진 모 경찰대좌》는 슈문디치에 의하여 부화방탕한 생활에 빠져든 너절한 인간으로 그려졌다. 펠레톤은 독살스럽고 명민하게 씌여졌다.
쇼흐는 이 펠레톤을 들고 당장 편집국으로 가고싶었으나 벌써 새벽 4시가 되여 집으로 향하였다. 아침 8시에 잠을 깨자 그는 우쉐니츠니크에게 가지 않고 도이췰란드령사관으로 갔다. 거기에 쇼흐의 오랜 벗인 출판담당서기관 오토가 있었다. 오토는 자료를 보고나서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발표하는건 좀 기다리오, 나의 친근한 쇼흐. 래일 저녁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오.》
《시간을 놓쳐서는 안되겠는데…》
《시간은 당신에게 유익하게 흘러가고있소. 그리고 자료도 훌륭하고… 그러나 이 자료를 훑어보면 우리 동료가 하나 관계되여있소. 그의 그루빠에서 누구든지 한사람 당신에게 배속시켜주지. 어떻소?》
…중좌 포흐트는 오토의 말을 듣자 곧 슈틀리쯔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그는 슈틀리쯔가 끄쏘리치사건에 대하여 지도부에 보고하겠는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겠는가 점을 치면서 자주 그에 대하여 생각해왔던것이다. 포흐트자신은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유고슬라비아중좌가 왜 자결했는지, 웨지치가 거리에서 그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하는데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작은것이 큰것속에 용해되여버릴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이 발전되여가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성공이 저절로 그에게 굴러온것이다. 웨지치를 꺾어버리는 일이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잘못하다간 자신을 망칠수도 있었다. 그런즉 이 일을 슈틀리쯔가 하도록 해야 한다. 그에게 앙갚음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것이다. 자기, 포흐트는 물론 슈틀리쯔를 구원해줄것이며 웨지치가 제국안전총국 제6국의 《동지》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를 타격에서 건져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은 《참패》한 회수에

있어서 꼭같이 될것이다. 만일 슈틀리쯔가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면 이것은 그에게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만일 웨지치가 승리하기 시작하였다면 자기, 포흐트는 웨지치가 슈틀리쯔를 끝까지 죽이도록 도와줄것이다. 오직 이렇게만 해야 한다. 달리 해서는 안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고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꺼꾸러뜨리고 발로 짓뭉개버려 뼈도 건지지 못할것이다.

…30분후 슈틀리쯔는 이완 쇼흐와 인사를 나누고 그가 준비한 웨지치에 대한 자료를 료해하였다.

독신생활에는 유리한 점도 있다

즈보니미르 브지크는 밤 열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보통 그는 새벽두시전까지 편집부를 떠나지 않고 모든 지면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군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쩐지 머리가 몹시 아프고 눈알이 깔깔한데다가 척척히 물기가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일찌기 집에 들어가 자기로 마음먹었다. 브지크는 가까운 며칠사이에 정세가 특별히 긴장해지고 나라의 운명에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할것 같은감을 느꼈다. 그렇게 되면 아예 휴식이라는 말조차 할수 없게 될것이다.…

아들녀석을 돌봐주려고 방에 들어온 보모가 브지크를 보자 《아가씨는 숙모한테 가면서 거기서 지체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숙모가 심장이 말쨍가봅니다.》하고 말하였다. 브지크는 저녁을 먹고 편집부에서 가져온 최근 영국신문과 도이췰란드신문을 기계적으로 몇장 벌컥벌컥 번지다가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머리가 베개에 닿기바쁘게 잠들어버렸다. 그는 이상한 꿈을 꿨다. 자기가 물속에서 헤염치는것 같은데 수천마리의 물고기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미끈미끈한 물고기몸뚱이들을 뚫고나가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다가 자기 머리우에서 밝은 빛을 보았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거품투성이의 이 밝은 빛뒤에 하늘이 시작될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기름지고 동작이 굼뜬 잉어들이 그가 우로 올라갈수 없게 길을 막았다.

브지크는 금시 숨이 막히는듯한감을 느꼈다. 그는 놀라서 고함을 지르며 잠에서 깨여났다. 간나의 침대는 비여있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시침은 3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간나.》 그는 조용히 불러보았다. 《간나…》

방안은 쥐죽은듯 고요하고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을 걸치고 어린애방으로 갔다. 보모는 등받이 없는 쏘파에 누워 코를 골고있었다. 이불밑으로 내놓인 그의 발가락이 마치 발바닥에 파리가 앉아 싫증나게 간지럽히기라도 하는듯 이상하게 꼼지락거렸다.

브지크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급히 옷을 주어입었다. 차거운 손으로 구두끈을 조이느라니 불길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숙모네 집에서 돌아오려면 무인지경을 통과해야 하지 않는가!)

그는 자기가 그처럼 자주 노엽힌 간나가 어지러워지고 얼어든 체소한 몸으로 길바닥에 누워있는것을 상상해보았다. 브지크는 특별히 생각은 없으면서도 거의 매일같이 안해에게 달려들었었다. 그는 그렇게 하기전에 생각을 가다듬으며 안해를 찬찬히 뜯어보는 버릇이 있었다. 이것이 간나에게 노여움을 주었다. 때로는 간나가 싫증을 느끼며 그의 요구에 코웃음을 치군했다. 그러면 그는 다른 계집을 끼고잤는데 이것 역시 간나를 노엽힌 일이였다. 또한 그가 안해에 대한 이전날의 사랑을 깡그리 아들에게 쏟아부으면서부터 간나는 노여움을 탔다. 브지크는 처음에 자기가 생활에서 굉장한 운이 텄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간나가 모든것을 리해하여주는 안해이고 친구라고 느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간나는《나는 그렇게 강한 녀자가 못돼요. 즈보니미르, 난 당신보다 나이도 많지 않고 똑똑치도 못해요. 당신도 역시 어린애처럼 사랑해주고 어린애처럼 모든것을 용서해줄수 있는 천재는 못돼요. 난 당신을 남자로서 사랑해요. 정확히 말해서 남편으로말이예요. 이게 전부예요. 내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걸 알고계세요. 모든것을 하고픈대로 해도 좋아요. 허나 나는 그 어느때든지 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야만 해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 브지크는 계단으로 내려와 차고에서 자기 차를 끌어냈다.

(오자마자 인차 데리러 가야 했을걸 그랬구나. 간나가 거기 앉아서 내가 걱정하며 찾으러 올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을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돼지처럼 잠만 쿨쿨 자다니…)

브지크는 격하기는 쉬우나 오래도록 그것을 후회하는 형의 사나이였다. 후회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시 분석해보고 잘못의 전체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을 자기가 그러안는 성미였다. 그리고는 후에 씻은듯이 노여움을 잊어버렸다. 모든 진실한 신문사일군들이 그러하듯이 매일, 매 시각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 대하여 생각하였으며 사업에 철저히 복종하였다.

브지크는 차에서 내려 숙모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니, 이게 누구야!》 잠옷바람의 숙모가 잠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손벽을 탁 쳤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간나가 떠나간지 오래됐어요?》

《간나라니? 그 애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댔어…》녀인은 갑자기 말을 중둥무이했다.《혹시 내가 니꼴라네 집에 갔을 때 왔다갔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즈보니미르? 무슨 일이 있었어?》

브지크는 금시 온몸이 나른해지며 쓰겁게 웃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그는 차에 앉아 보모가 무엇인가 혼돈한게라고 생각하고 도시의 다른끝에 있는 고모에게로 찾아갔다. 그러나 간나는 거기도 없었다. 그는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들려 무슨 불상사가 없었는가고 물었다. 거기서는 아무런 불상사도 신고된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 질서유지대뿐만아니라 군대가 시내를 순찰하고 있었던것이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간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밑까지 당겨덮고 성난 목소리로 종알거렸다.

《편집부에서 이젠 야간작업으로 넘어갔어요?》

간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불을 켜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의 침대가 저녁에 보모가 침구를 펴준대로 있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누가 자면서 침구를 구겨뜨려놓은것을 보지 못했던것이다. 그 녀자는 미오를 비행장으로 바래우고 늦어서 돌아왔다.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곁을 훌쩍 떠나버릴수는 없었다. 간나는 남편이 정말 전쟁이 일어날가봐 두려워한다면 자기와 함께 아들 미르꼬를 산으로가 아니라 스위스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자기 정부인 미오와 약속하였던것이다. 간나가 미오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그들은 자칫하면 비행장에 늦어질번하였다. 두사람은 종일토록 서로 껴안고 누워있었다. 잠시 물을 마시려고 상에 다가왔다가는 다시 침

대로 돌아갔다. 간나는 미오의 목이며 어깨며 턱에 마구 입을 맞추고 눈물에 쩝쩔해진 입술로 속삭이였다.
《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미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가말이예요.》
미오는 별안간 이 발작에 정신이 긴장해졌다. 그는 간나를 조용하고 사려깊은 녀자라고 생각해왔었다. 그러므로 내심 지금 혼자서 떠나게 된것을 기뻐하고있었던것이다. 아들에 대한 그 녀자의 끝없는 이야기가 그를 놀라게 했던것이다. 간나는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가 하는데 대하여 쉴새없이 주절거렸다. 그러나 미오는 간나가 오직 한사람, 자기만을 사랑해줄것을 바라고있었다. 그는 누구와 자기의 사랑을 나누는데 습관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역시 간나를 그러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겨 천정을 바라보았다. 천정은 지금 그에게 더럽고 파렴치해보였다.
《숙모가 좀 어떻소?》 브지크가 물었다.
《좋아졌어요.》 간나는 눈을 쪼프리며 대답했다. 그처럼 남편의 목소리와 배가 뚝 삐여져나오고 언제나 땀기가 번들번들한 밭은 목을 가진 작달막한 그의 몸전체가 불쾌하게 느껴졌던것이다. 간나는 다시금 미오를 보는것 같았고 잘 울리는 그의 바스성대를 듣는듯했다. 그리고 자신이 외롭고 누구에게도 필요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다만 자리를 차고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비행장으로 달려가 첫 비행기를 타고 미오를 쫓아가서 로잔느에서 그를 만나고싶은 생각뿐이였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묵직하고 억센 그의 손길을 느껴보고싶었으며 발뒤축을 한껏 쳐들고 그의 예리한 턱까지 닿고싶었다.
《내 말을 들어라, 개같은년.》 브지크는 설익은 레몬을 파식한듯 안면근육이 마비되여 말하기가 힘든것을 느끼며 천천히 씹어뱉듯 뇌까렸다. 《이제 당장 옷을 벗고 여기서 썩 나가라! 숙모한테 가란말이다! 숙모가 너를 오래전부터 보고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음탕한년.》
… 소동은 아침녘에야 가라앉았다. 브지크는 차에 앉아 편집국으로 나갔다. 그의 사무실이 자리잡고있는 청사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져있었다. 소동을 부린 후 때이르게 자기 《소굴》로 찾아온것이다. 자기 죄책감이 곧 간나와 화해하도록 그를 떠밀어주었다. 그러나 지

금 이 시각 그 녀자가 자기에게 충실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그 어떤 다른 녀석에게 반해돌아가는것 같은 생각이 들자 브지크는 울컥 분기가 치밀어올랐다. 허나 그것은 횡포하고도 무력한 분노였다.

편집국은 3층을 차지하고있었다. 브지크는 청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을 때에야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오래도록 앉아있었다. 첫 전화종이 울렸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드문 일이였다.

《익살군인가?!》 웨지치의 목소리는 쾌활하게 울렸다. 《문필강도인가?! 내가 지금 자네한테 가겠네. 반대없나?》

브지크는 오지 말라고 대답하고싶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뒤번지는 생각이 그를 방해하였다. 그는 마지못해 삐따르를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이하겠노라고 대답했다.

… 웨지치는 신비하게도 이완 쇼흐가 가지고왔던 바로 그 문제로 하여 찾아왔다. 그는 브지크의 신문에 웨젠마이어공작조의 비법적활동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유서를 남기고 죽은 끄쏘리치의 죽음, 《도이췰란드문화부흥단》과의 접촉들,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과 이렇게 저렇게 련계가 있는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비밀접촉 등을 만천하에 고발하려는것이였다.

웨지치는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것이 모험적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사회생활분야에서 발표되고있는것처럼 명확성이 없으면 그것이 불피코 새로운 로선의 출현을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부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확인된 공개되고 명백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려는것이였다. 웨지치가 직접 정부에 자료를 제기하는것을 방해하고있는 관료주의적기구, 사회적혼란, 갈팡질팡하고있는 기관들이 그로 하여금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였다. 웨지치는 통일전선의 형성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고 방위를 조직할수 있게 하여준다고 확신하였다. 방어조직을 하는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속히 해야 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온 나라가 하나로 단합된다면 사태가 히틀러와의 무장충돌에까지 이르지 않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단합된 력량은 이겨내기 힘든것이다. 이런 력량과는 차라리 국가의 존엄을 유린하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더 좋은것이다.

밤에 그는 라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라다, 당국에서는 극단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내 머리를 자를수도 있을거요.》
《아,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라다는 잠에 취해 웃었다. 《난 바로 그 머리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였어요.》
《그럼 다른건 어떻소?》
《다른건 부차적이예요. 다른건 기분이나 돋구기 위해 필요한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되여요.》
《당신에게는 다른것이 필요치 않소?》
《아니예요.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수는 있어요.》 라다는 쓰겁게 웃었다. 《어떤 때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나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머리를 자르겠어요? 웨젠마이어때문에?》
《그렇소.》
《그렇다면 그를 안다칠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수도 있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가요?》
《아무 일도 없을거요. 머리도 제자리에 있게 될거구. 헌데 나라를 뜯어먹을수 있소.》
《당신은 국왕이 아니예요. 모든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보세요. 만일 당신이 웨젠마이어를 건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당신에게 매우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가요?》
《대단히 좋지 못하오.》
《어째서말이예요?》
《나는 자기가 가련한 존재라는것을 느끼게 될거요. 아마 이런 감정은 늙은 남편이 자기의 젊은 녀편네가 정부에게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느낄거요.》
《자기를 늙은 남편으로 느껴보기는 싫은게지요?》
《아주 싫소.》 웨지치는 라다를 꼭 그러안았다. 그는 라다의 옆에 있으면 자기를 힘있고 평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느꼈다. 그것은 자기가 라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것과 라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것을 좋아한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라다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기가 라다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시샘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였

다. 또한 그것은 지나간 과거가 모두 꾸며낸 키메르(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괴물)와 같은것이고 현재는 오직 하나의 현실뿐이기때문이였다. 현재를 믿어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것이다.…

(대체적으로 보아 확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살림에 포로될 필요가 없다.) 웨지치는 편집국장사무실로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실례로 나는 가정을 가져야 한다. 참된 경찰관으로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자리와 가족들의 밥통을 떼우지 않을가 하는 오직 한가지 위구심으로 상관의 눈치를 살피고 상관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가정을 가져야 하는것이다. 애착을 느끼는 가정— 이것은 그 어떤 선서보다도 더 믿음직한것이다.)

《안녕하오, 즈보니미르.》 웨지치는 브지크의 방에 들어서며 인사를 했다. 《자넨 왜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인상이 그런가?》

《그렇게 보이는가?》

《그렇구말구.》

《간나와 관계를 끊었네.》

《간나가 다른 사람과 치정관계가 있다는걸 알았던가?》

《누구와말인가?》 브지크는 긴장해졌다.

《그저 묻는거네.》

《자넨 뭔가 알고있지?》

《난 그 어느때도 내 친구들의 가정문제에 개입해본적이 없었네. 즈보니미르. 한마디로 말해서 끊어버렸으면 잘했네.》

《왜말인가?》

《어떤것이나 명백한것은 지저분한것보다 좋으니까. 여보게, 난 자네한테 긴급하고 중요한 용건으로 찾아왔네. 이건 자네가 간나와 가타부타하고있는 시시한 일보다 훨씬 중요한것이네.》

브지크는 얼굴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웨지치도 지금 자기가 벗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라다의 사랑으로 떠받들린 그 높이에서 결심채택이 자유롭고 따라서 생각도 대담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는 저속한 행동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브지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서 말하라구.》 브지크가 말하였다. 《계속하게나…》

《용서하게, 즈보니미르. 난 자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있을 경황이 못된다는것을 알고있네. 허나 내가 지금 찾아온 일은 우리모두에게

관계되는것이네.》
《어서 말하게.》 브지크는 곱씹었다. 《말하라는데두.》
(만일 이 친구가 거절한다면) 웨지치는 깨닫고있었다. (이 친구가 지금 거절할수도 있어. 그럼 나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을 찾아가는 한가지 방도밖에 남는것이 없게 되지.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나에게 이처럼 유익할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신문은 부수가 적고 비합법적으로 배포될뿐만아니라 그것을 믿지도 않고있다. 아니야, 브지크, 오직 이 사람이 모든것을 끌고가게 해야 한다.)
브지크는 웨지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웨지치가 별로 흥취없이 자기 말을 듣고있다고 느꼈다. 브지크의 눈에는 그를 정열적인 이야기상대자로 되게 하여주던 보통때의 그 생기가 없었다. 그의 눈길과 이야기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그가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판단할수 있었다.
《즈보니미르.》 웨지치가 말하였다. 《자넨 내 말을 안듣고있지 않나.》
《듣고있네.》
《자넨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있는지 알만하나? 혹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정불화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있는게 아니야? 갈라졌으니 잘했네. 이 문제는 그만하세. 자네 녀편네가 어떤 녀석과 산다고 해서 세계가 없어지지는 않을테니까. 세계는 계속 존재하고있지 않나.》
《뻬따르, 난 자네가 부탁하는걸 전부 실행해주겠네.》
《난 자네가 내 말을 명심해듣고 후에 편집국론설을 써주었으면 하네.》
《그건 내가 할수 없네.》
《자넨 이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없네.》
《뻬따르, 사람은 자기 키이상으로 도약할수 없네. 난 사소한 다툼질에 습관되였네. 나는 이 책상에 앉으면 자기를 잊어버리네. 나는 새로 나온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생각해왔네. 나는 늘 간나가 자기대로 열중하고있는것이 있다고 생각했네. 난 그것이 깨끗하고 순진하고 내가 언제나 몰두하고있는 일처럼 정신적인것이라고 생각했네. 허나 나는 이 몇해사이에 간나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어느때인가 아뽈론(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의 몸뚱이나 제우스(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의 힘을 빌지 않고도 내가 그를 유혹시킬

수 있었던것을 복수나 하듯 교묘하게 그리고 악에 받쳐 나를 기만해온것을 눈치채지 못했단말이네. 난 지금 망해버렸네. 뻬따르, 나는 노여움을 인차 잊어버리는 사람이네. 하지만 나를 배반한 행동에 대해서는 참을수 없네.》

《자넨 계집처럼 놀고있구만.》

《그런것 같네.》

《내가 자네를 노엽혔나, 즈보니미르?》

《아니야, 자넨 진실을 말했네.》

《그러니까 자넨 집을 떠날텐가?》

《난 거기서 쫓겨났네. 난 자기를 숨길줄 몰라, 뻬따르.》

《그럼 자넨 자기 조국을 돕지 않을셈인가?》

《무엇으로말인가?》

《사업으로 도와야지.》

《내가 이제 기자를 한명 불러서 자네가 한 말을 골자로 글을 써서 신문에 내도록 하지.》

《그걸 내 말을 듣고 인차 써서는 안되네. 그리고 당장 신문에 발표해도 안되고… 난 자네가 내 말을 듣고 신중하게 글을 써서 교정지를 뽑아주기를 바라네.》

웨지치는 이제서야 브지크의 랭담한 얼굴을 보면서 먼저 그 교정지를 가지고 부상에게 가서 그의 답변을 받아야 하며 그다음에야 비로소 신문에 발표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이건 매우 모험적인 일이네, 즈보니미르.》

웨지치가 말하였다.

《이 모험적인 일에서 나한테는 자네의 방조가 요구되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자네가 부탁하는걸 다 실행하겠다구.》

《나와 함께 자네 목을 자를수 있다는걸 알아야 하네.》

《이전에는 나한테 머리가 필요했었네. 가정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야 했으니까. 허나 지금은 내가 자유롭게 되였으니 무슨 일이나 할수 있게 됐네. 나에게는 모든것이 흥미가 없어졌네. 알겠나, 뻬따르?》

웨지치는 쏘파에서 일어났다.

《평화는 불속에 잠겼네. 사람들은 죽을결세. 히틀러의 땅크의 무한궤도가 우리를 짓뭉갤수 있네. 그럼 자넨 어떤가?》

《나말인가?》 브지크는 여전히 무관심한 투로 말하였다. 《누가 나를 짓뭉갰는가 하는것이 나한테 무슨 차이가 있겠나? 땅크든 혹은 인간의 저속성이든 매한가지가 아니겠나. 사람이 누구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누구의 손에 죽는가 하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네. 중요한건 결과지. 자네 소리치지 말아주게. 난 지금 머리가 달아오르네.》

그는 녀자서기를 불러 조용히 말하였다.

《이보, 일리치를 나한테 좀 오라고 하오.》

웨지치와 이보가 편집국에서 나오자 중좌 쇼쉬치의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하였다.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보는 수첩에 몇몇 사람들의 성과 주소를 적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웨지치는 경찰국으로 떠나갔다. 이보는 난생처음 진짜 자료를 손에 쥐게 되였다. 그는 저녁때까지 글을 완성해야 했다. 이제 그의 자료가 전국을 들었다놓을것이다. 그는 이 자료 하나로써 집을 살만한 돈은 받지 못한다해도 큰 개는 한마리 꼭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신문 《오브조르》에 발표된 광고에 금메달을 받은 《돌리까》의 주인이 개를 일곱마리 팔겠다고 했던것이다. 두마리는 수컷이고 암컷은 다섯마리라고 했다.

쇼쉬치는 웨지치가 신문사일군에게 웨젠마이어와 그의 전체 그루빠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주었다는 정보를 이완 쇼흐에게 알려주었다. 이완은 자기대로 이 소식을 즉시 도이췰란드령사관에 통보하였다. 령사는 곧 슈틀리쯔에게로 갔다. 이런 말을 전화로 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호텔에 없었다. 그는 다시 포흐트에게로 갔다. 포흐트는 사태가 긴급한것을 고려하여 대좌 웨젠마이어의 방으로 찾아갈것을 결심했다.

슈틀리쯔는 웨지치와 함께 《일리짜》식당의 베란다에 앉아 대좌의 굳세게 생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있었다. 이맘때가 되면 식당은 텅 비다싶이했다. 이보다 한시간 앞서 슈틀리쯔는 로드이긴과 만났었다. 그는 전날밤에 약속한대로 로드이긴을 디쯔와 함께 점심식사에 초대하였던것이다. 로드이긴은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주었다. 그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련계가 많았다. 디쯔는 정보원천이 매우 흥미있다고 하면서 슈틀리쯔의 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이것이 있은 후에 슈틀리쯔는 웨지치와 만나러 왔다. 그는 지금 조

급성을 누르고 특별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더듬어가며 이야기해야 했다.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본부에서는 암호전문을 보낸 순간부터 답변을 기다리고있을것 같았다. 모스크바는 두번째 암호문을 보내왔다. 본부에서는 《유고슬라비아와의 전쟁이 있을것 같은가? 만일 있을것 같다면 언제 있을것 같은가?》라는 짤막한 전문에 대답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요구였다. 웨지치는 무엇을 말해줄수 있을가? 그는 슈틀리쯔가 알아내야 할 그 답변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있을가? 그는 여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 같다. 물론 미리 속단해서는 안된다. 로드이긴이 간밤에 웨지치에 대하여 쓸데없이 물은것 같지 않다. 웨지치는 슈틀리쯔가 웨젠마이어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수 있는 디딤돌로 될수도 있다. 헌데 웨젠마이어는 모든것을 알고있다.

《대좌씨, 당신은 어떤 담화형식을 좋아하십니까?》

《슈틀리쯔씨, 당신은 열개의 판자우에서 동시에 널뛰기를 할 때 널뛰기명수가 갖가지 조건부를 제기하듯하는군요.》

《나는 판자 열개는 당해낼수 없습니다. 세개나 네개는 힘을 내여 뛰여보지요.》

《당신은 나와 함께 놀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한판자우에서 놀게 될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담화형식에 대하여 물을 때 이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슈틀리쯔는 침착하게 가방을 열고 웨지치와 라다의 반라체사진이 붙어있는 문건과 일리야 슈문디치의 펠레톤을 꺼내여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어디 한번 보십시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여기에 사소한 결함이나 실제적으로 부정확한데가 없습니까?》

웨지치는 펠레톤을 대충 훑어본 다음 사진을 깐깐히 살펴보았다. 합성한것이 아닌가 하여서였다.

그리고나서 정색하여 물었다.

《당신은 이것을 발표하리라고 믿습니까?》

《그거야 론의할 여지가 없지요.》

《언제쯤말입니까?》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끝낸 후에 인차 해야지요.》

(석간신문은 두종류가 있다.)

웨지치는 생각하였다. (그들중에서 하나는 브지크이다. 나는 부상과의 담화를 기다리지 말아야 할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중으로 발표할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은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의 견해가 흥미있어 그럽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말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여기에 제시된 사실중에서 어느 하나도 론박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자체로서는 보잘것없는것이지요. 더 흥미있는걸 생각해낼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헌데 이 사실은 일반대중에게 호소한것일뿐만아니라 무엇보다 군중의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문제를 다치고있단말입니다. 여기에 써있는것을 반박하기는— 슈틀리쯔는 새끼손가락으로 글줄을 가리켰다.—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을 규탄한것은 없으니까요. 당신을 방탕한 법수호자로서 취급하고있습니다. 나는 자기의 속성에 있어서 이것이 궤변이라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나 점수로 매기면 10점을 쏘았습니다.》
《궤변이 10점을 쏘았단말입니까?》
《당신이 그 생각을 잘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 험악한 문구가 무엇을 보여주려는것 같습니까?》
《당신들이 불안해하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여주려고 했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동료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바로 념두에 두는겁니까?》
《포흐트씨지요.》
《그는 당신과 담화하면서 매우 불안해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불안을 감춰보려고 헛되이 시도하였지요.》
《매개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우를 어떤 특성의 인간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고상한 특질을 가진 인간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저속한 특질의 인간으로 보겠는가?》
《배우는 신의 도구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슈틀리쯔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배우는 낮은 수준의 생활을 그리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구체화되고 기질적인 생활말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이 생활을 실감있게 그릴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자체가 고상한 특질을 가진 존

재로 되는것입니다. 배우는 자기 직업으로써 부단히 새로운 현상을 파악하게 되는것입니다. 즉 배우는 사유활동에서 타고난 천품을 소유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웨지치는 이 대답에도 놀랐지만 슈틀리쯔가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데 더욱 놀랐다. 그는 시간을 재촉할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유익한 모양이였다. 하기는 지금 그는 시간쟁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있었다.

웨지치는 엮어서 만든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과정 처음으로 담배를 붙여물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말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슈틀리쯔가 물었다.

《윈에서 배웠습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말을 류창하게 합니다. 아마 당신을 가르친 교원들이 도이췰란드사람이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공민권을 가진 도이췰란드사람들이였을테지요. 그들은 당신네 선전자들인 뮨쩨와 월프의 말을 비웃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교원들과 훈시격의 담화를 진행한 후 그것을 록음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영국제록음기를 사용합니까?》

《미국제이지요.》

《도이췰란드제록음기가 더 좋습니다.》

《그럴수 있겠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리석은짓이지요. 나같으면 팔았겠습니다. 기술로써 선전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지요.》

《다행히 당신네 나라에선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그렇게 예리하게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치즘을 좋아하지 않지요.》

《왜서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는 여러가지 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당신네 친척들중에서 누구를 건드린것이 있는가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나는 소요의 단계에서 사회적악의가 매개 사람

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형태의 악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네 왕권제도가 진실로 공정한 국가의 표준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다음번 나의 질문에 대답한 후에 담화를 그만두어야할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당신은 다음번 질문에 건너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재미나는 담화를 중지하는것이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 자료를 보여준 후에도 싸움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반드시 싸워야지요.》

《어떻게 싸울 생각입니까?》

《방법이야 많지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대좌 웨지치가 싸움을 진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평범한 웨지치가 싸운다면 어떨것 같습니까?》

《평범한 웨지치는 싸우기가 퍽 힘들겁니다. 하지만 웨지치의 칭호를 빼앗기도 쉬운일이 아니지요.》

슈틀리쯔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웨지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이건 당신이 인위적으로 꾸며낸 말입니다. 사소한 놀음에서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내지 마시오. 이건 단지 당신이 나에게 인상적이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사소한 놀음에서나마 지지 말아야지요. 헌데 〈인상적이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나를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연출가를 모욕했다고 말하고싶습니까?》

《그건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요. 대좌. 자, 우리 서로 말을 존중해서 합시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요?》

《무엇보다먼저 나는 지금 바다가에 가보고싶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초청합니다.》

《바다기슭에 비밀아지트가 있는가요?》
《몇개 있지요.》
《제기해주어 고맙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한 말들에 대하여 생각해볼것을 권고하고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싸운다면 파멸당하고말것입니다. 혹시 림시나마 타협해야 하지 않을가요? 싸움을 계속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하지 않을가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전쟁이 개시되고 유고슬라비아가 강점된 후에도 내가 경찰에서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두 나라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경찰에 계속 복무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우선 대답하기전에 나는 전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지금 벌리고있는 싸움의 1회전을 끝낼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다음번 싸움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나에게 유익한것이다. — 슈틀리쯔는 단번에 깨달았다. — 나는 이 사람을 줄곧 이 질문에로 유도해왔던것이다. 내가 도이췰란드제국을 위해 웨지치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록 모스크바에 더 빨리 대답할수 있게 되는것은 이상한 일이다.)
《당신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당신의 말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즉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릉가하고있으며 지금 당장 당신을 곤경에 빠뜨릴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는가?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기한 랭철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나의 솔직한 대답이 앞으로 우리들사이의 우정을 전제로 한다는것을 리해하고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흡수할것을 념두에 두었습니까?》
《당신같은 거물급의 사람들은 흡수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당신들은 나와 같은 급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들과는 친교를 유지하는것이 더 편리하지요.
혹시 유고슬라비아첩보부가 다른 규칙을 견지하고있는게 아닙니까?》
《문제는 어느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지요. 좋습니다. 오

늘저녁까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웨지치가 말하였다.
《오늘저녁까지 나는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덟시에 만납시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편리합니까? 내가 〈올레니〉구락부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메드베슈챠크거리 10번지입니다. 동의하지요?》
(동의해주시오, 동의해주시오. —웨지치는 눈으로 이렇게 애결하고있었다. —제발 동의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중으로 나의 자료를 발표할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도 후에 자기에게 요구되는것을 다할수 있을것이다. 어쨌든 나는 당신을 완전넘어뜨리기로 넘어뜨릴것이다. 힘이 부족하여 승리할수는 없다. 그러나 욕망만은 충분하다. 결국에 가서 누구에게나 차례질 그 재판정에서 우리모두를 재판할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달성할수 없었다면 그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힘이 부족했기때문이였다. 여기에서 나는 하느님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고대로마사람들이 무엇보다먼저 최초의 욕망을 귀중히 여긴것이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동의합니다.》 슈틀리쯔는 마치 실수할것 같아 그러는듯 한마디한마디 천천히 말하였다.
(이 사람은 이젠 돌아가면 무전기를 설치해놓고 베오그라드로부터 자기가 내놓은 안에 대한 확답을 받을것이다. 그는 타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얻고있다. 그는 나보다 한수 더 뜨려고 한다. 그렇게 하라지. 어서 그렇게 해. 그대신 나는 웨젠마이어보다 한수 더 앞설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헌데 웨젠마이어가 《올레니》구락부에 혼자 가버리면 모든것이 실패로 돌아가고말것이다. 그가 왜 부하들과 월계관을 나누려하겠는가? 나는 웨젠마이어가 저녁에 있게 될 이 담화를 나에게 위임하게 해야 한다. 혹은 나를 데리고 가든지… 만일 그가 나와 달리 행동한다면 나는 공연히 시간을 랑비한것으로 되고말것이다.)

아브구스트 쩨싸레쯔

(이건 뭔가?) 아브구스트 쩨싸레쯔는 놀랐다.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정말 바다란말인가? 왜 입안이 이렇게 찝찔할가? 내가 정말 울고있는가?)

그는 눈을 뜨고 한동안 청록색 아드리아해를 바라보고있었다. 항에서 무르떼르산으로 오르면 주변의 바다가 한눈에 안겨온다. 그것은 마치 쇠물로 주조해낸것 같았다. 다만 바다가에 가까이 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바다라는것을 알수 있다. 가까이에서 보면 바다색갈도 무시로 변한다. 특히 밤에 산꼭대기에서 찬바람이 불어내려오고 낮에는 아프리카의 열풍이 불어오는 5월말경이면 심하게 변한다. 바다는 물밑 바위돌들에 청록색 바다이끼가 덮여있어 색갈이 어두워보였다. 그러나 저녁이면 파란 색갈로 투명해진다. 그것은 마치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일요일에 있은 일》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의 머리글을 랑독하는 까찰로브의 눈처럼 그윽해보인다. 쩨싸레쯔는 까찰로브의 눈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만일 이것이 조판중에 있는것이라면 나는 그어버리고말것이다.) 하고 쩨싸레쯔는 생각했다. 바다는 정말 투명해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알고있는것이다. 나는 바다에 머리를 숙이고 요드냄새를 느껴본다. 그때는 마치 어느 명의한테 가있는듯이 느껴진다. 명의의 눈은 그렇게 맑은것이다. 하지만 환영처럼 보이는 바다를 까찰로브의 눈과 대비할수는 없는것이다. 그의 눈은 특별했다. 이 세상에 그런 눈은 없을것이다. 그의 눈은 내가 늘 마리아와 함께 저녁을 먹는 니끼쯔까야거리의 빵집으로 허물없이 찾아오고 내가 좋아하는 일리짜거리의 한증탕에 와서 옷을 벗고 나에게 썩썩한 수세미로 잔등을 밀어달라고 부탁도 하던 그리스도의 눈과도 같았다. 그는 똘레도(에스빠냐 도시이름)에서 전투가 끝난 후 우리를 찾아와 텁텁한 술을 우리 잔에 부어주고 눈을 끔뻑하며 《그래 어떤가, 나의 아들,쓸쓸할테지? 그럼 나는 어떤것 같은가?》라고 묻기도 하였었다.

쩨싸레쯔는 눈을 쪼프렸다. 아드리아바다는 사라졌다. 그리고 머리칼로 이마를 스치며 그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미소를 짓던 보쥐나의 얼굴도 사라졌다. 보쥐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마리아는 나에게 성을 내지 않을거예요. 내가 떠나면 영원히 마리아를 방해하지 않을게 아니예요. 나는 마리아처럼 병을 고칠줄 몰라요. 나는 그저 가장 어려운 시각에 잠시 당신을 찾아왔을뿐이예요. 우리는 헤여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 불러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보쥐나를 부를수 있었던가?) 하고 쩨싸레쯔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괴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창문에 달린 쇠살창과 발에 채운 족쇄를 보았다. 수갑이 채워진 손은 물에 빠진 사람의것처럼 푸릿푸릿해지고 몹시 저리고 아팠다. 그는 자기가 보쥐나를 부른것이 아니라 그 녀자가 스스로 찾아왔었다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보쥐나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비애와 그의 종말을 느끼고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서둘러 온것이였다. 그렇다면 더욱 가슴아픈 일이다. 헌데 웬일인가. 이것이 고통을 덜어주고있으니 고통도 좋은것과 나쁜것이 있는것이다.

《일어나!》 쩨싸레쯔는 간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약 5분가량 졸고있었다는것과 무시로 감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조금만 졸아도 《일어나!》하고 소리지르는 간수가 벌써 한두번만 《일어나!》하는 소리를 반복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목소리가 옐라치브광장뒤의 일요일시장에서 자리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사군녀자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을것이다.

쩨싸레쯔는 팔굽에 몸을 무겁게 실으며 땅에서 일어났다. 그는 팔굽에 굳은살이 생긴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깍지낀 손으로 턱을 고이고 한점을 응시하며 오래도록 사색에 잠기군하는 문학가의 직업병이 지금 이 순간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거칠은 나무침대에서 뼈처럼 딱딱한 이 굳은살에 의지하여 몇분동안씩 자군 하였던것이다. 간수는 처음에 수인이 자는것이 아니라 생각에 잠겨있다고 생각했었다. 간수도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기대로 해석하는것이다. 그는 자기같으면 거칠은 판자에 팔굽을 기대고 깍지낀 손으로 불면증과 갈증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오래동안 앉아있을것 같지 못했다.

《물을 달라.》쩨싸레쯔는 혀가 별스레 크고 무거운것을 느꼈다. 그는 문득 어느해 봄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소혀를 눈앞에서 생생히 보는것 같았다. 숨막히는듯한 메스꺼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숨이 차올랐다. 무서운 악마, 아니 밤에 눈알이 번뜩거리는 가지빛 독파리가 달려들 때와 같은 공포심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차겁고 예리한 발톱으로 관자노리와 목에 달려들었다.

쩨싸레쯔는 며칠동안 지하감방에 갇혀있었다. 그는 자기가 며칠째 어디에 있는지 혼돈하고말았다. 그에게 물도 주지 않았다. 체포된 첫날에는 겉에 노르끼레한 굵은 소금이 발린 맛있게 지진 물고기도

주었었다. 그는 감옥에 새로운 시기가 도래한것을 놀랍게 생각하며 물고기를 먹었다. 쇠로 만든 상을 훑어보아야 수인들에게 주는 껍진 껍진한 차를 담은 알루미니움고뿌는 없었다. 그는 이렇게 훌륭한 물고기를 먹이는걸 보니 이제 커피도 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커피는 말할것도 없고 차도 주지 않았다. 껍진껍진한 차마저 없었다. 물도 안주었다. 시원한 단물도 없었고 미지근한 흐린 감탕물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 자기 집 2층에서 입으로 훌 불어버리면 허공에서 바르르 떨며 바람에 실려 길쪽으로 떠가는것을 보군 하던 비누거품을 방불케 하는 석유방울이 섞여진 녹물도 없었다. 그는 이 비누거품이 터지지 않고 어느 촌집 지붕에 살며시 내려앉아 다른 아이가 다음날 그것을 찾아내여 보드라운 손바닥에 올려놓고 불어던져주기를, 그래서 바람이 이 낯익은 비누거품을 다시 자기한테로 날라다주고 자기가 그것을 해빛이 잘 드는 창문턱우에 솜을 받쳐 올려놓을수 있도록 하느님에게 얼마나 빌었던가…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신음소리를 내듯 조용히 물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자기가 이처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물을 달라고 한것은 숨쉬기가 힘들고 목구멍에 걸린것을 삼키려하나 삼킬수 없었을뿐아니라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이건 내가 꾸며낸 생각이 아니겠는가? 내가 목구멍에 걸린 이 저주로운 덩어리를 꿀꺽 삼켜버릴수 없단말인가? 내가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건 아닌가? 내가 처음 붉은광장에 가서 열병식을 보았을 때 목구멍에 무엇이 꺽 막히는것 같아 그것을 삼키려 하였으나 삼킬수 없다는것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후에도 나는 여러번 이렇게 느꼈었다. 내가 뜨빌리씨의 빠올로 야쉬빌리에게로 갔을 때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시를 읊으면서 빠스쩨르나그를 보고 나에게 통역해줄것을 요구했는데 나는 그것을 만류할수 없었다. 지금처럼 목구멍에 덩어리같은것이 걸려있었던것이다. 시인은 이상하게 들리나 듣기 좋은 자기 민족어로 시를 읊었다. 나는 시를 리해하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할수가 없었다. 베토벤에게 통역이 필요했겠는가? 혹은 선률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중국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춤을 출 때 그에게 통역이 필요하였겠는가? 혹은 무스타파가 오마르 하이얌의 시를 랑독할 때 그에게 통역이 필요하였겠는가? 지금도 나는 목

구멍의 덩어리를 삼킬수 없다고 꾸며내고있다. 이전에는 행복에 겨워 목구멍에 그런것이 치밀었다면 지금은 쓰라린 감정으로 하여 치밀고있는것이다. 그래 어쩔텐가? 자, 삼키라. 저놈들을 성가시게 굴지 말라. 저놈들은 어쨌든 너에게 물을 주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갈증으로 너를 고문하고있고 네가 굴복하기를 기다리고있다. 나는 1938년에도 굴복하지 않았었다. 1939년 8월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잃고 굴복하였을 때도 나는 굴복하지 않았었다. 그래 과연 내가 지금 이자들이 물을 주지 않는다고 굴복해야 하겠는가?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있는가를 알고있다. 나는 다른 길을 택할수도 있었다. 나는 빈민굴을 찾아다니지 않고 호화저택에서 살수도 있었고 내 이름을 백과사전에 올리고 나를 저명한 작가로 떠받들어올리게 할수도 있었다.

나는 진실한 작가로서 선과 악,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다. 군국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요, 자유주의자들이요, 파시스트들이요 하는 이 세상의 정치적페물들은 참다운 창작가인 나를 매혹시킬수 없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나를 찬양하였던것이며 오직 항시적인 도덕적재부만이 영원한것이다. 나는 목욕탕도 없고 세수대도 없는 코구멍만한 모스크바《호화주택》에서 비좁게 살지 않을수도 있었고 우에스크근방에서 꼴쪼브와 함께 토굴에서 자지 않을수도 있었으며 말로와 레마르크 두 작가와 함께 칸네베르부근에서처럼 생선국값이 비싸지 않은 술집을 찾아 온밤 마르세이유시내를 헤매고다니지 않고 호화저택에서 배불리 먹으며 만족하게 살수도 있었다.)

《물을 달라!》 쩨싸레쯔는 꽥 소리질렀다.《물을 달라!》

《계집은 요구되지 않아?》간수가 물었다. 《너에게 계집을 줄수 있다. 작가, 우리는 모든것을 줄수 있다.》

(에크, 어떻게 이처럼 될수 있담, 쩨싸레쯔. 너는 어떻게 되여 자기 몸을 주시하지 않았는가? 나는 언제나 사람들을 놀랍게 생각했었다. 우리는 사자, 뱀, 전갈, 시라소니들이 살고있는 이 거대한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고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여 사막 한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는가? 누가 밀림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가리켜주었는가? 아, 우랄의 밀림은 얼마나 황홀한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바다속에 빠져들지 않았고 강물을 건늘수 있었는가? 우리는 흑사병에서 어떻게 구원되였는가? 이 세상 모든것이 우리를 반대하고있는데 우리는 그

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있다. 진리는 이처럼 단순하다. 헌데 왜 누구도 이 명백한 진리에 동의하려 하지 않는가? 내가 이 명백한 진리에 대하여 웨쳤을 때 나를 감옥에 처넣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교형리들은 나를 죽도록 괴롭히고있다. 무엇때문인가?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수치스러운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이 세상과 하직하는것이다. 나는 지금 벌써 죽은 몸이다. 그것은 나를 이 세상과 련결시켜주는 유일한 태줄이 이 간수이기때문이다. 그런데 간수는 나를 구원해주려 안하고 갈증으로 고문하고있다. 그는 나의 고통에 희열을 느끼고있다. 그러나 그가 내 곁을 떠나간다는것은 내가 이 돌집에서 진짜 죽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한다. 교형리는 나의 생명과의 마지막련계이다. 죽음… 이것은 물론 무서운것이다. 아직도 많은것이 수행되지 못한채 남아있다. 자아중심주의자들은 내가 떠나가면 다른 그 누구도 내가 구상한것을 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혹시 다른 수백만의 《내》가, 내가 구상만 해놓은것을 끝낼수 있지 않을가? 과연 그렇게 될수 없단말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것은 새것이다. 새것이 출현하기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새것은 철갑을 쓰고 이 땅우에 도사리고있는 낡은것에 대해 공격해온다. 이것은 산모의 아픔과도 같은것이며 이것은 아늑한 오솔길을 따라 쯔르나고라의 스뜨루가산정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의 오흐리드호수와 같은것이며 이것은 베찌나산호에서 바다물이 흐려지는 5월말에 산바람이 남풍으로 바뀌는것과 같은것이다. 새것은 우리모두에게서 서서히 태동하는것이다. 다만 이 새로운것의 탄생에 항상 준비하고있어야 하며 우리가 언제나 미지의것을 무섭고 막연한것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듯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언제나 미지의것을 암야의 공간처럼 막연한것으로 보고있지 않은가? 과연 아침은 밤에서 태동하지 않는단말인가?)

《물을 달라! 물! 물!…》

(참, 이상도 하지. 쩨싸레쯔동무. 이 간수의 눈에 네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련하게 보이겠는가. 과연 너는 쇠잔하고 무력해진 자기 몸을 가늠할 의지가 없단말인가? 과연 너의 정신력이 그렇게 약해졌는가? 나는 자유로운 사람,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가. 나는 자신이 자기의 길을 택하였다. 누구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수 있는

고통을 나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자신이 택하였다. 나는 내가 어느 길로 가고있는가를 알고있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있는 이 젊은이는 나를 구원해주려고 하지 않으며 자기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있다. 하지만 더 자유로운것은 내가 아닌가. 나는 더 자유롭다. 그것은 자제력이 자유에로의 첫발자국이기때문이다. 누가 이 감방으로, 이 암흑으로, 갈증으로 나를 구속하였는가? 그들인가? 아니다. 나자신이다. 나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있는가를 알고있었다. 나는 사고와 욕망에서 자유롭다. 그것은 내앞에 열려져있다. 자유—이것은 행복을 의미하며 그것을 향유하려면 그에 대한 값을 치를줄 알아야 한다.

나를 지키고있는 간수는 잔인무도한자이다. 그는 압제자의 사상에 복무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나에게 들씌우는 그 고문에 자기가 참가하는것이 필요하고 또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다. 그는 자기 상급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고있는 내가 투쟁을 포기하면 좋아서 어쩔줄 몰라할것이다. 아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내가 투쟁을 포기하는것만이 필요한것이 아닐것이다. 적대적인 사상을 가지고있는 이 인간들에게는 나의 량심이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자신을 규탄하며 나를 반대하는 고문의 무기로 되게 하는것이 필요한것이다. 왜 내가 이들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내가 생각밖에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되였기때문인것이다. 생각은 말로 표현되여야만 힘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내가 자기 생각을 글로 적으려 해도 손이 움직이여야 하는것이다.…)

《물… 여보시오. 인자한 나으리, 물…》

(손이 필요하다. 이자들이 이제 하루만 더 손에서 족쇄를 풀어주지 않으면 손은 영원히 움직일수 없게 될것이다. 허나 나는 지금 생각하고있는것을 써야 할게 아닌가? 케자르와 호메로스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박식가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국한된것만을 알고있었을뿐이다. 그렇다고 호메로스의 지식을 케자르의 지식과 대비할수 있겠는가? 12월파인사들(1825년 12월 농노제도와 전제제도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로씨야귀족출신 비밀결사원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그들을 유혹시킨 니꼴라이황제나 뿌슈낀의 지식과도 대비할수 없단말인가? 뿌슈낀… 그는 선과 악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가지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였다. 그는 악속에서 선의 싹을 보았으며 선을 주의깊게 살피는 과정에 그속에 숨어있는 악을 보고

몹시 놀랐었다. 그는 과거를 현재로 돌릴줄 알았으며 미래에서 지나간것의 반복을 예측하였다. 그속에는 일치한것이 존재하고있었다. 일치란 곧 각이한 사물현상의 결합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내가 처한 고문속에서 삶의 기쁨을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즉 나는 내가 존재하고있고 나에게서 조화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있다. 그 조화는 어제와 래일, 쓰라린것과 기쁜것을 하나의 점에서 포착함이 없이는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래일도 있을수 있고 기쁨도 있을수 있다.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아침도 있을것이다. 나는 지금 갈증을 이겨낼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거기에 대하여서만 생각하지 않았던가. 사실 사람은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생각은 세겹으로 된 삐로그처럼 존재하고있는것이다. 나는 이 첫겹에서 즉 아픔, 갈증, 절망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때 글라샤아주머니가 만든 삐로그가 얼마나 맛있었던가. 구름나무열매를 넣고 기름에 바른 퍼석퍼석한 뜨거운 삐로그… 그때 마리아는 접시를 깨뜨리는 일을 얼마나 서투르게 도와주었던가. 거기 우랄에서는 접시를 구하기가 힘들었었다. 내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구름나무열매를 넣은 삐로그와 깨진 접시에 대한 추억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 갖가지 생각으로 자기 사색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있는것이다. 동시에 나는 나의 자유에 대하여, 나의 교형리들의 극단한 구속에 대하여, 해토계절 흐르바쯔까강냄새가 풍기는 구름나무열매에 대하여, 알뜰한 살림군은 못되였으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줄 알았던 마리아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물론 보줴나만은 역시 그렇게 사랑할줄 알았었다.)

《물! 물을 달라! 물…》

힘은 부족해도 욕망은 충분하다

호텔에서 슈틀리쯔에게 미하노비체브거리에 있는 령사관으로 급히 오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령사관은 역시 그 거리에 있는 《에스플라나다》료정에서 멀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있었다.

령사 프레인트는 《웨젠마이어를 감시할것》이라고 씌여진 쉘렌베르그에게서 온 암호문을 슈틀리쯔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서로 사귄 이래 처음으로 《무역, 과학관계발전문제》담당 전문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잘것 없는 존재로 알려졌던 아래사람이 갑자기 베를린의 지도부로부터 《극비, 뜯지 말것. 직접 전달할것.》이라는 압인이 찍힌 전보를 받게 됨으로써 생긴 존경심이였다.

《나의 방조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총령사는 특수임무수행에서 상대자에게 방조를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방장관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특별한 억양과 동시에 웨젠마이어의 작전에서 슈틀리쯔의 진짜 역할을 인정한 지방관리의 정중성을 자기 질문에 담고 물었다.

《감사합니다.》 슈틀리쯔는 령사의 말뜻을 리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극히 필요한 경우에 제가 당신에게 방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내 전화번호입니다.》 프레인트는 자기 명함장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슈틀리쯔는 곱씹었다.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지 않을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있습니다. 오늘 조국에서 무슨 새 소식이 없습니까?》

령사는 라지오를 켜면서 설명했다.

《대체로 베를린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든 방들을 다 검열하기는 했지만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이 록음기를 가지고 벽난로를 통해 어느 곳에 몰래 기여들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말을 엿듣는 일이 있다면 여하간 그것은 베오그라드의 소행일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그레브는 아주 수가 깊고 또 우리를 믿고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랑패가 없지요.》슈틀리쯔는 라지오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나는 대체로 우리가 조심한다 조심한다 하지만 런던이나 모스크바에서 우리 암호문을 읽고있을뿐아니라 당신과 우리가 알고있는 비밀정도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국가적비밀을 알고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 암호문은 읽을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암호문을 당신의 철궤속에 넣어둘가요?》

《매우 중요한건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안됩니다.》
《왜말입니까?》
《우리는 철수준비를 갖추라는 구두명령을 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매일 준비하고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것은 웨젠마이어의 성과에 달려있습니다. 여하간 흐르바쯔까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슈틀리쯔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그는 암호문을 불태워 재를 부스러뜨렸다.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있습니다. 》 그는 불평조로 말하였다. 《모든것을 다 알고있습니다. 상급에서 최종결정을 채택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동안 어림짐작으로 일을 해가면서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 10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외교관들의 가족들을 도시에서 소개시키라는 명령이 하달되였습니다. 베오그라드에 있는 우리 대사관성원들의 가족들은 속히 수도를 떠나야 합니다. 자그레브는 폭격하지 않을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동맹자로 될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석연치 않은것은 사업에 해를 끼칠수 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사업하다가 갑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어찌겠습니까?》
《그럴수 없습니다.》 슈틀리쯔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치에서는 사소한 가능성도 례외로 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씨모비치가 쯔웨뜨꼬위치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쯔웨뜨꼬위치가 우리 군대를 그리스로 통과시켜주며 영국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만 타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쓰르비아, 보스니아, 쯔르나고라의 거리들에서 〈히틀러와 동맹하느니 차라리 전쟁이 낫다!〉는 구호가 울리고있습니다. 게다가 승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승리를 양보하려고 하겠습니까?》
(할수 없지.)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여기에 동의하는수밖에 없다. 도이췰란드가 매일같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다는것을 모스크바에 통보해야 한다. 령사의 의견에 의하면 타협의 가능성은 없다. 그

련 방향에서 행동하여야 할것 같다. 령사는 연극을 노는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있다. 물론《보충적인 정보는 후에 전하겠음》하고 예고해주어야 한다.)

《안되오.》 웨젠마이어는 슈틀리쯔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웨지치는 나에게 흥미없소. 당신은 쓸데없이 나를 직접 찾아왔소. 내가 포흐트를 통하여 련계를 취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포흐트가 없는 사이에 이처럼 흥미있고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는 도이췰란드비밀경찰 지부책임자의 사업이 매일 거리에서 못장사나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말하고싶습니다.》

《슈틀리쯔, 앞으로는 꼭 내가 요구하는 일만 해주오.

나는 다른 사람의 발기에 대하여 그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것이라야 좋게 평가하오.》

《그럼 웨지치가 일으킬 소동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거요.》

《나는 그와 40분동안 담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는 리지적인 청년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시간동안 마체크부수상과 담화를 진행하였소. 그는 더 리지적인 〈청년〉이였소. 나는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알려주었소. 마음놓이오? 당신은 나의 구상에 피해가 있을가봐 계속 걱정이요?》

《저는 우리의 구상을 대하는데서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재산을 대하듯하는데 습관되였습니다. 대좌씨, 만일 웨지치가 끝까지 우리 사람으로 될수 있다면 마체크는 필요없게 될것입니다. 저는 믿음성있는것을 좋아합니다.》

《현명한 생각이요.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지켜주기 바라오. 주의를 돌려주어 고맙소. 슈틀리쯔.》

(드디여 내가 너를 굴복시켰다.) 슈틀리쯔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젠 내가 정세의 주인이다. 네가 련계를 가진다고 그것이 너를 구원해줄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무엇도 너를 구원해주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네가 계속 대좌로 있을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총통으로 될 생각을 하고있기때문이다. 에쓰디기관은 너를 파멸시키고야말것이다. 웨젠마이어, 거기서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자들을 좋

아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직속상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머리를 내밀지 않고 자기 상관이 《발전》하는 경우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허나 로젠베르그는 더 이상 발전할곳도 없다. 립벤트롭프도 마찬가지다. 웨젠마이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올것이다. 하이드리흐나 쉘렌베르그는 그 자신들이 로젠베르그의 서기부에 전화를 걸어 만날 시간을 정해줄것을 요청하려 하겠는데 그들의 부하가 직접 로젠베르그를 찾아가면 대노할것이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웨젠마이어는 나의 말대로 담화에 응할 준비가 되여있는 웨지치와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수많은 사람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유고슬라비아헌병대 대좌는 우리 사람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웨젠마이어는 보는것처럼 이러한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있다. 그는 순수 정치령역에서 승리자의 월계관을 쓰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가 나라의 령수로 되여야 할것이다. 헌데 그는 대좌에 불과하며 극상해야 립벤트롭프, 로젠베르그, 하이드리흐의 부하에 불과하다. 하이드리흐는 웨젠마이어에게 주는 지시를 쉘렌베르그에게 위임하였다. 중좌 슈틀리쯔는 웨젠마이어가 자기자신이 올라선 그 높이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의 중요성을 리해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이 실천적으로 에쓰디첩보기관과 관련되는것이며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슈틀리쯔는 《올레니》회관에서 여덟시반까지 웨지치를 기다렸다. 대좌는 끝내 오지 않고말았다. 슈틀리쯔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깨달았다.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웨지치는 정말 회관으로 오려고 했었다. 그는 경찰국에 들려 아브구스트 쩨싸레쯔의 친구인 력사학부장 교수 슈문디치에 대한 정보자료와 공산당 련락원들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버리고 카페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교수에게 전화로 동무들이 속히 다른 주택으로 옮겨앉게 하라고 일렀다.

그리고나서 웨지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마디가 굵은 억센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오래도록 책상에 앉아있었다. 그는 반쯤 열려진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라다에게 자기 작업장을 세내여준 그 화가를 생각했다. 화가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 성격을 알수 있듯이 손의 형태를 보고 성격을 판단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발이 안쪽으로 오그라든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병사들처럼 곧은 자세로 씨엉씨엉 걷는 사람은 소탈한 성품을 가졌지요. 그리고 손톱이 짧고 넙적한 사람은 죄를 범할 위험성이 많고 손톱이 길고 곱게 생긴 사람은 천성적으로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것이랍니다.》

웨지치는 자기 손톱을 곁눈질해보다가 눈을 시계바늘에로 돌렸다.

(떠날 때가 된것 같구나. 이보가 좀 서투르기는 하나 기사를 끝내야 하겠는데… 나는 그와 함께 브지크에게로 갈것이다. 그러면 브지크는 그 기사를 발표하라고 명령할것이고 나는 그 걸음으로 《올레니》회관으로 갈것이다.)

그는 《특수부》에 전화를 걸어 《올레니》회관에 담화장소를 하나 마련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두사람자리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묻는 말이였다.

《그렇소.》 웨지치가 대답했다. 《다만 악단쪽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해주오.》

그는 기자 이보에게로 갔다. 젊은이는 그에게 길을 정확히 알려주었었다. 웨지치는 삐그덕거리는 사립문을 열고 자그마한 결채로 갔다. 문은 잠겨져있지 않았으나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는 어느 시골에서 가져온 자작 만든 종이 문옆에 걸려있는것을 보았다.

바로 시골에 놋으로 만든 이런 종을 문옆에 매달아놓는 관습이 있었던것이다. 딸랑딸랑 울리는 가벼운 종소리는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축하해주는것이였다.

초인종소리에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웨지치는 이보가 길을 잘못 알려준게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을 비스듬히 열고 물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웨지치는 컴컴한 작은 현관방으로 들어가 어둠에 익숙해지느라고 잠시 서있었다. 얼마후 그는 방으로 통한것 같은 유단을 씌운 문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었다. 순간 억센 손아귀가 그의 목과 팔목을 벼락같이 덮쳤다. 그러나 그를 놀라게 한것은 이것이 아니였다. 그는 피가 랑자한 마루바닥에 누워있는 이보를 보았다. 그리고 피가 휘뿌려진 침대에서 그의 안해같아보이는 젊은 녀자를 보았다. 책상에는 마치 부러진것 같은 로파의 시체가 이상하게 누워있었다. 빨래통에서 삐죽이 내민 어린애의 푸릿푸릿해진 누런 발이 눈에 띄였다. 웨

지치는 목구멍에 메스꺼움이 왈칵 치밀어올랐다.

《대좌님!》 그는 경찰대위의 의혹에 찬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왜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사복차림의 낯선 사나이가 대위를 책망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조용해, 아직 한사람이 또 올수 있다.》

…30분후 웨지치는 감옥으로 끌리여갔다. 대위는 주눅이 든 목소리로 이런 명령이 있었노라고 변명했다. 그는 젊은 기자의 죽음은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지치가 대위에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확신하는가고 묻자 그는 대답을 못했다.

《대좌님, 이건 흔히 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복차림의 사나이가 말하였다. 《살인사건은 해당한 형식을 구비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첫 심문을 위해 당신을 감옥에 데리고오지 않으면 검사는 우리 목을 떼려고 할것입니다. 예심원도 거기에 벌써 불려갔지요.》

허나 감옥에는 예심원이 없었다. 웨지치를 데려간 그 사무실에는 끄왈리치소좌가 앉아있었다.

웨지치는 이보의 집에서 몸을 수색당하던 순간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그를 해치기 위한 공작이 벌어진것이다. 헌데 그는 여기에서 패하였다. 웨지치는 모든것을, 다시말하여 등을 내려치는 타격도 도발도 베오그라드의 배신행위도 가정해볼수 있었다. 하지만 책임적인 첫 기사를 위임하였을 때 그처럼 기뻐하던 불쌍한 기자의 살인사건에 자기를 《끌어들이리라고》는 상상해보지 못하였다.

《그래 어떻습니까?》 끄왈리치가 물었다.

《당신은 공연히 이 사건에 말려들었소.》 웨지치의 대답이였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모험만 하는게 아니요. 당신은 지금 선서를 위반하고있소.》

《리해되지 않는데요…》

《내가 억류되였소?》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말이요?》

《당신은 혐의가 있기때문에 억류당했습니다.》

《무슨 혐의요?》

《당신은 기자 이보를 알고있었지요?》

《알고있었소.》

《당신은 그와 어디서 사귀였습니까?》
《소좌, 변호사의 참가하에 담화를 진행하는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겠소.》
《웨지치씨, 당신은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잊었나봅니다. 우리는 단둘이서 담화를 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심문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나는 우리의 담화가 심문으로 되기를 바라오.》
《그건 래일 진행될것입니다. 오늘은 전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 안된다는거요?》
《늦었습니다. 로동시간이 3시면 끝나게 됩니다. 검찰소에서는 살인사건심의를 예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특별히 지체했소?》
《아니지요. 나는 일을 두몫 해야 한답니다. 감옥장이 앓고있으니까요.》
《끄왈리치, 당신은 나를 놓아주는것이 좋을것 같소.》
《지금말입니까?》
《지금.》
《당신같으면 혐의자를 놓아주겠습니까? 당신이 내 처지에 있다면 범죄가 감행된 집에 들어온 사람을 놓아주겠습니까? 당신은 사건을 도울 목적에서 내가 질문을 하자 대답을 거절하고 변호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국장에게 통보하여주오.》
《나는 내가 할 일을 알고있습니다. 웨지치씨.》
《당신은 장령이 벌써 이 사건을 알고있다고 말하자는거요?》
《아마 당신은 아래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내가 물어봐야겠소?〉하고 자주 말했을것입니다.》
웨지치는 화가 치미나 어쩔수 없음을 느꼈다.
(어떻게 하든지 일만은 망쳐먹지 말았으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들은 시간을 얻고있다. 아니, 벌써 시간적여유를 얻었다고 볼수 있다.)
《내가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면 놓아주겠소?》
《그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자는 전적으로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있다.) 웨지치는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을가?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놓았을가?)
《보매 당신은 나한테 제기할것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소?》
웨지치가 물었다.
끄왈리치는 괴상한 기하학적도형을 그리다가 그것을 중지하고 연필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동정하는듯한 눈길로 웨지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제기할것이 없습니다. 그대신 물을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만나려고 했습니까?》
(옳지, 이자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의 각본에 따라 놀고있다. ―웨지치는 생각했다.― 그런즉 그들은 무엇인가 나에게서 바라는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직 모든것을 잃지는 않았다. 동의해야 한다. 모든것을 동의해야 한다. 그다음에 속히 베오그라드에 가야 한다. 곧바로 수상에게 가야 한다. 수상은 자신을 놓고서도 뭔가 생각해봐야 할게 아닌가?!)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과도 만날수 있도록 해줄수 있겠소?》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보겠다는건 애매한 대답이요.》
《당신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도 접촉을 조직해줄수 있습니다.》
《지어 외국사람들과도말이요?》
《외국사람들과말입니까?》 끄왈리치는 몹시 놀라와했다. 《그것만은 제외입니다.》
《그럼 시내에 있는 나의 한 친구를 찾아 그에게 〈동의하오.〉라고 말 한마디만 전달해줄수 없겠소?》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끄왈리치, 내가 담화를 중지하고 감방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든지 혹은 당신이 나에게 〈하겠다.〉, 〈안하겠다.〉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나는 당신에게 다르게 대답할것입니다. 〈벌써 늦지 않았는지 걱정됩니다.〉라고말입니다.》
웨지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7시 45분이였다.
《아직 늦지 않았소. 아직 시간이 있소.》
《당신은 내 말을 리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청을 들어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래일 그것을 들어주지요. 당신이 오늘 나에게 그것을 말해준다면말입

니다.》
《좋소.》 웨지치는 손끝이 저려나는것을 느끼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부탁을 알려주겠소. 헌데 당신은 8시전에 〈올레니〉회관에 전화를 걸어 슈틀리쯔씨에게 전화를 바꾸어달라는 말을 해주어야겠소.》
《그건 누굽니까?》
《박사 웨젠마이어의 일군이요.》
《웨젠마이어박사란 누구입니까?》
《내 생각엔 도이췰란드대외무역부문의 책임적인 일군인것 같소.》하고 웨지치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대외무역일군들과 접촉할데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까?》
(만일 이자가 이 담화를 록음하고있다면 나는 함정에 빠지고 출로가 없게 될것이다. —웨지치는 문득 소름이 쭉 끼쳤다. —만일 내가 웨젠마이어는 베오그라드를 우회하여 마체크와 접촉하고있다는것을 이자에게 말하면 이들은 당장 나를 체포할것이다. 만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도이췰란드사람들과의 나의 접촉이 상의 면전에서 나의 체면을 손상시킬것이다. 나는 진퇴량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자가 록음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가?)
웨지치는 자기를 가늠할 힘조차 없었다. 그의 눈길은 오른쪽 벽에 있는 큼직한 통기구멍으로 쏠렸다. 끄왈리치는 벙글벙글 웃으며 곱씹어물었다.
《그래, 당신은 적과 접촉하라는 허가를 받았습니까?》
웨지치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나서 대답했다.
《허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건 내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될것이요.》
《그럼 당신은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들과의 접촉을 조직해줄 때 내가 슈틀리쯔와 웨젠마이어에게 말하겠소. 다만 당신은 이보가 죽고 그의 자료가 탈취당하였다고 모든것이 끝장났는가 생각하지 마오. 나는 언제나 안전대책을 취하고있다오.》
《당신은 수수께끼같은 말을 하고있습니다.》
끄왈리치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다시 시계를 바라보았다.
(이자는 록음테프가 끝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것 같다.) 웨지

치는 생각했다. (아니면 《올레니》회관에 전화를 걸어야 할것인가 하는것을 타산해보고있는건 아닐가?)

…브지크는 처음에 라다를 만나주지 않았다. 녀자서기가 사무실밖으로 나와《국장님은 일이 바빠서 손님에게 시간을 낼수 없다고 하셨어요.》하고 말하였다.

《국장님에게 내가 웨지치대좌에게서 왔다고 일러줘요. 아마 내가 온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수 있어요.》

서기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라다는 웨지치가 금시 접수실에 들어설듯이 느껴졌다. 그러한 느낌에 쫓기여 그 녀자는 쏘파에서 일어나 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복도는 한적하고 다만 위생실입구우에 설치한 전등만이 침울하게 빛을 뿌리고있을뿐이였다.

《어디로 가세요?》 서기는 놀라와하며 물었다. 《국장님이 당신을 기다려요.》

…브지크는 의자에서 일어나 라다에게 쏘파를 가리켰다. 아침에 웨지치가 앉아있던 쏘파였다.

《당신은 대좌의 서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뉘신지요?》

라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저를 보고 10시까지 여기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보가 준 그 자료를 출판하도록 관심을 돌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어요.》라다는 가방에서 웨지치가 몇자 적어준 글쪽지를 내놓았다. 웨지치는 예견성있는 사람이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브지크는 곱씹어물었다.

한시간전에 경찰관들이 기자의 살인과 관련하여 브지크를 심문하였었다. 그는 이보의 온 가족을 칼로 찔러죽이고 어린애를 빨래통에 빠뜨려죽였다는것을 알려주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인차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조용하고 수집음을 잘 타며 낡아서 반질반질해진 옷을 입고다니던 이보가 자기, 브지크가 거절한 그것을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는것을 깨닫고 그는 응접실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주택전화번호를 돌렸다.

《간나, 귀여운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소?》

《〈귀여운이〉?》 간나는 얼굴에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그만하오. 간나, 그만하오.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마오. 알겠소? 누구한테도말이요. 내 일군이 한명 살해되였소. 온 가족을 칼로 찔러죽였소. 그것은 내가… 알겠소, 여보?!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오.》
그는 전화를 콱 놓으면 안해를 노엽힐것 같아 수화기를 살며시 내려놓고 사무실에 있는 경찰관들한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금 브지크의 대리인과 편집국서기와 담화하고있었다. 경찰관들이 제기하고있는 질문을 들으면서 브지크는 자기가 소심하기 짝이 없는 속물이라는것과 이보의 죽음을 사실상 간나에게 전화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자기 사람들이 보는데서 자기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기회로 된다는데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래 어쨌단말인가? — 브지크는 자기자신에게 반문했다. — 그렇다, 나는 간나를 사랑하고있다. 혹시 간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끼는건 아닌가? 그럴수도 있지. 그러나 이처럼 어수선한 세월에 제각기 따로 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다간 아들을 죽일수 있다. 자식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수 있단말인가?)
브지크는 눈을 가늘게 쪼프렸다. 그리고는 물병을 이쪽저쪽으로 소란스럽게 움직이였다. 그러나 그 무엇도 지금 그에게서 결핵균처럼 검질기게 붙어있는 그 생각을 덜어줄수 없었다.
(나는 계속 연극을 놀아왔다.) 브지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젠 시간이 지나고 연극도 종말에 다가왔다. 이보의 죽음은 우리 집 문에 울리는 초인종소리와도 같은것이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브지크는 자기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게 중요한가요?》 라다는 또 어깨를 으쓱했다.
《중요합니다.》
《나는 웨지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까?》
《그는 거기에 없어요. 그는 도이췰란드사람과 만나러 갔어요.》
《어느 도이췰란드사람과말입니까?》

《그의 성은 슈틀리쯔입니다. 그는 웨젠마이어의 그루빠성원입니다.》
《당신이 웨지치의 부탁을 받고왔다는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당신은 제정신이예요?》 라다는 놀랐다. 《웨지치는 당신이 그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내가 이걸 묻은겁니다.》
《당신은 웨지치의 자료를 발표해야 합니다.》 라다는 담배를 붙여물고 아까 한말을 다시금 되뇌이였다. 《제가 당신에게 그의 부탁과 초고를 전하겠어요. 헌데 무엇때문에 제가 그이한테서 왔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침에 웨지치가 자기의 자료를 보여준 그 기자가 살해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빨래통에 빠뜨려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송곳으로 찔러죽이고 안해도 역시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라다는 자기 손에서 담배대가 가늘게 떨리는것을 느꼈다. 브지크가 이것을 띄여보았다.
《당신은 웨지치때문에 무서운가요?》
《물론 그래요.》
《나는 자기 아들때문에 무섭습니다.》
《당신이 이 자료를 발표하지 않으면 웨지치를 곤경에 빠뜨릴거예요.》
《그러다가 반대로 건져낼수도 있지 않을가요?》
《그럴수도 있겠지요.》
《당신은 훌륭한 자제력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내 안해가 당신같은 처지에 있다면 통곡을 했을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통곡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브지크는 어줍게 웃으며 라다에게라기보다 거의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통곡했을거예요. 녀자들은 울게 되여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렵니까. 브지크씨?》
《그는 어디서 도이췰란드사람과 만나게 되여있습니까?》
《〈올레니〉회관에서.》
《그리로 가십시오.》
《나와 함께 동무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일이 바쁩니다. 신문을 내야 하겠으니까요.》
《그러다가 거기에 웨지치가 없으면 어찌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가요?》
《그래야지요. 그러나 당신에게 물을겁니다. 당신이 웨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걸말입니다.》
라다는 문득 자기가 알고있는 남자들과 자기 작업장이 생각났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또다시 혼자 있게 되던가 혹은 안해가 울것이라고 말한 바로 이 사람과 비슷한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곤이 느껴졌다.
(원 참, 이런 바보라구야. 웨지치가 자기 목을 자를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내가 왜 그런 일에 머리를 들이밀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왜 나와 함께 있자고 간청하지 않았담.)
《브지크씨, 당신은 웨지치의 청을 들어줘야 해요.》라다는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웨지치를 알아요. 그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가 당신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게 행동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다예요.》
《라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도 당신에게 대답하듯이 웨지치에게 대답할수 있을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극을 놀고있습니다. 계속 연극을 놀지요. 그러나 죽음이 닥쳐오면 그것이 자기의 연극때문에 닥쳐왔다는것을 알게 될겁니다. 나는 이 자료를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말아주시오.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의 생명을 놓고 모험할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혼자라면 당신이 부탁하는걸 들어주었을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브지크는 라다의 뒤를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나는 혼자 있더라도 이 부탁을 실행하지 않았을것이다. 나는 보잘것 없는 비겁한 거짓말쟁이다. 나는 간나를 꾸짖을 그 무엇도 없다.)

웨젠마이어는 자정이 가까와 슈틀리쯔를 총령사관으로 불렀다.
《건강이 어떻소, 슈틀리쯔?》 그는 상대자의 얼굴을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신경을 몹시 써야 할 여기 일에 피곤하지 않소?》

《솔직히 말해서 피곤합니다.》
《나도 역시 그렇소. 신경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소.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것 같소?》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고프지는 않구?》
《물론 가고싶지요.》
《내가 기꺼이 그런 일을 도와줄수 있을거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수 있겠는지 모르겠소. 혹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당신을 보내면 어떻겠소? 상급들이 좀 꾸짖다가 곧 용서해주겠지. 그대신 당신은 휴식을 할수 있거든. 동의하오? 나한테 성을 내지는 않겠소?》
《나는 상급에게 어떻게 성을 내는지 모릅니다. 대좌씨, 그런걸 배우지 못했지요.》
《상급에게 성을 내는건 꼭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성을 내는것과 같소. 내심으로 강렬하게 그러나 말없이 숭배하면서 성을 내는거요.》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지. 펜을 들고 내앞으로 청원서를 쓰오.》
《어떻게말입니까?》
《당신은 집으로 가고싶다면서? 그렇게 쓰란말이요. 혹은 당신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올레니〉회관에서 웨지치와 만날것을 약속했는데 그 원인을 나에게 써도 되오. 이거나저거나 다 당신이 속히 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오. 첫번째 경우에는 당신이 도주했다고 꾸짖을것이고 두번째 경우에는 명령을 위반했다고 꾸짖을거요. 당신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뭐요?!》
《저도 역시 당신에게 선택의 권리를 준단말입니다.》
《슈틀리쯔…》
《왜 그러십니까.》 슈틀리쯔는 벌씬 웃었다.《나는 이 이름을 벌써 41년동안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있는지 알고있소?》
《알고있지요. 당신이 제 말을 리해하려면 여기 이 사무실에 총령사를 초청해와야 합니다. 그는 제가 하이드리흐에게서 받은 암호문

을 확인해줄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암호문에 무엇이 씌여있었는가 하는것을 설명해주지요.》
《그 암호문에 무엇이 씌여져있었소?》
《그러니까 프레인트령사를 불러오지 않아도 되겠다는건가요? 당신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당신의 말을 믿고있소.》
《암호문에는 특히 웨지치와 관련한 저의 활동을 허락한다는것이 씌여져있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제껴놓고 베를린과 련계를 가지고있소?》
《저는 실무일군이지요. 대좌씨, 저는 저의 상급에게 복종하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가 되오?》
《제가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상급에게 복종하는데 습관되여있다구. 저는 당신을 저의 상급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저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배속되여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저의 상급이지요.》
《내가 아니요.》 웨젠마이어는 그의 말을 시정시켜주었다. 《내가 아니라 포흐트요.》
《포흐트는 지금 어렵게 되였습니다. 그는 저의 상급이라기보다 차라리 당신의 일군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저는 자기의 리속을 채우면서 공작을 말아먹는 그런 상급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포흐트가 무슨 공작을 말아먹었소?》
《중좌 끄쏘리치사건이지요. 자총한 사람과 관련한 사건말입니다. 저는 그가 당신에게 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을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중입니다.》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소?》
《당신이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혹은 웨지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끄쏘리치의 유서가 보관되여있습니다. 거기에 명백히 씌여져있습니다.》
《웨지치는 감방에 갇혀있소.》 웨젠마이어는 그의 말을 무뚝뚝하게 잘라버렸다. 그의 얼굴이 가늘게 떨렸다. 보건대 별로 흥심없이 이에 대하여 말한것 같았다. 그는 슈틀리쯔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웨젠마이어는 가까운 시일내에, 특히 침공이 개시된 후 도이췰란드에 방조를 주게 될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과 가지려는 앞으로의

담화를 위해 그에게 그처럼 필요한 힘을 주는 그 어떤 자극제와 같은것을 이 이야기에서 느꼈다. 자기의 역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자기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좋지 않습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만일 그가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조를 반대하여 수집해놓은 다른것은 어떻게 하구요? 만일 그를 체포한것이 공모자들에 대한 신호로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외무성이 이것만 기다리고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겠으면 기다리라지. 우리는 정세의 주인들이요. 슈틀리쯔.》
《아닙니다. 대좌씨, 우리는 아직 정세의 주인이 못됩니다. 우리는 흐르바쯔까에서 모든 중요한 위치들에, 이를테면 군대, 정보기관, 공업분야에서 형식상 누가 지도하든지 관계없이… 마체크가 하든 빠벨리치가 하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하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올라앉게 될 때 정세의 주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앞잡이 하나보다 친우들의 회합이 더 귀중하지요.》
(만일 그들사이에 항시적으로 간교한 음모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공명심, 사리사욕, 개인의 리익들이 늘 서로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나치스트오물탕속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일할수 없었을것이다.)
《당신은 웨지치를 흡수할수 있다고 확신하오?》 웨젠마이어는 조용히 물었다.
《그가 나의 친구로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친구로?》
《나의 친구지요.》
《얼마전에 당신은 〈자기〉를 〈우리〉와 분리할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게 할줄 모르지요. 나의 친구로 되면 그는 곧 우리의 친구로 전환될것입니다.》
《나의 친구로도 되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수정을 가하지요. 그는 나의 친구, 당신의 친구, 다시말하여 우리의 친구로 될것입니다.》
《동의하오. 난 우리가 만난 첫순간부터 당신을 평가했소. 슈틀리쯔, 그러나 웨지치가 당신의 친구로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것이요. 동의하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해야지요.》
《좋소. 내앞으로 청원을 내오.》
《집으로 보내달라는 청원말입니까?》
《그건 당신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소. 그러나 처음에는 웨지치와의 공작을 끝까지 성공하고싶다는 리유를 서술한 청원서를 쓰시오. 우리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말이요. 당신에게는 베를린에서 온 문건이 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제출한 문건이 필요하오.》
(나는 지금 지나치게 놀음에 몰두했다.) 슈틀리쯔는 알아차렸다. (내가 지금 웨지치와의 담화에서 그에게 하려던 질문을 웨젠마이어에게 해서는 안된다.)

…1941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정권은 단지 자기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였다. 군주도 수상도 나라의 공업발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농촌경리는 심히 령락되였다. 민족적알륵으로 분렬된 이 나라는 국가적인 사상이나 국가적인 사업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슈틀리쯔는 웨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반정부사상과 접촉하면서 지식분야에 진출한 관리들중에 속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자기자신을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반드시 복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그 사상을 도와줄 행동에 떨쳐나설것을 결심하였다. 대좌 웨지치에게 있어서 이런 사상은 그의 조국이 진행해야 할 사업이였다. 슈틀리쯔의 견해로서는 이러했다.
이렇게 결론지으면서 슈틀리쯔는 자기 판단의 전과정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았다. 그는 과오를 범할 권리가 없었다. 그의 앞에는 웨지치와 진행하여야 할 마지막담화가 놓여있었다. 이 담화에서 대좌와 공통점을 찾아야 하는것이다.
(웨지치는 그 어떤 행동도 단행할 결심이였다.)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령리한 사람인 웨지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리상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시기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즉 힘에 복종하고 그 힘과 평행선을 그으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 힘에 반기를 들었다. 악을 선으로 부르고싶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리고 검은것을 흰것으로 받아들일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슈틀리쯔는 밤 2시 감옥정문옆에서 웨지치를 만났다. 웨젠마이어와의 대결은 명백히 그리고 즉시 효력을 나타냈다. 도이췰란드특사의 명령은 수백명의 사람들이 인입되여있는 그 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대좌의 전화 한통이 수십개의 다른 전화종을 울리게 했고 밤거리에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게 만들었으며 비밀아지트들에서 긴급상면들이 이루어지게 했다. 또한 그 한통의 전화는 해당한 량해의 말로 웨지치에게 사죄를 표시하고 그를 즉각 석방시키라는 명령이 끄왈리치소좌에게 전화로 통지될 때까지 극장의 무대막뒤에서, 소란스러운 편집국건물에서, 의사의 조용한 진찰실에서, 철창을 단 경관들의 사무실들에서 분주탕을 피우게 했다.

《대좌씨, 솔직한 말로 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자정이 되여서야 알았습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하여 대답해주십시오. 나를 믿습니까?》

《물론 믿지 않습니다.》

《차에 타십시오.》 하고 슈틀리쯔는 말하였다. 《어디로든지 갑시다. 우리가 가는 도중에 말하지 않으면 빨리 갈수도 있고 당신은 자기 생각에 전념할수 있을겁니다.》

슈틀리쯔는 방울나무와 피나무가 량옆에 우중충하게 서있는 막씨미로브거리로 차를 몰아가다가 크바쩨르니크광장부근에서 니쥬니방향으로 꺾어들어 일리짜중앙거리를 지나 베르흐니구역쪽으로 치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뒤에 꼬리가 달리지 않았는가 하여 줄곧 주시하면서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에돌아가다가 대사원옆에서 차를 세웠다. 슈틀리쯔는 차문을 열고 말소리가 잘 울리는 캄캄한 공지에 나섰다.

《차안에 도청장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뒤를 따라 내리는 웨지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 사람들이 당신을 가두었댔는지 우리 사람들이 가두었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십중팔구는 우리 사람들일것이라고 봅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싶어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역대표〉 웨젠마이어에 대하여 더 호감을 품고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완전히 쓰레기들이라고 말하고싶습니까? 혹은 아메바들이라고?》

《그거야 〈우리〉라는 대명사를 어떻게 리해하는가 하는데 따르지요…》

《〈우리〉라는건 명백치 않은 사람들의 무리지요. 당신들은 이 무리속에서 누구든지 골라내여 데리고놀다가 실컷 놀아본 다음에는 오물장에 집어던지고말았습니다.》

《그건 일면적인 견해입니다. 나는 〈우리〉라는 개념은 수많은 〈나〉로서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나〉가 자기의 개별적인 책임을 정확히 리해하게 될수록 이 〈나〉는 자기자신에게뿐만아니라 〈우리〉로서 규정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국민을 념두에 둔것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격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미안합니다. …》

《나는 게스타포에 령리한 사람들이 있을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그처럼 현명한 간부장교들이 있을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스타포가 훌륭합니다.》

《다행입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나는 마침내 당신이 눈을 뜬것이 반갑습니다.》

《내가 눈을 뜨기야 떴지요. 하지만 난 당신들에게는 복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더 일찌기 눈을 크게 떴더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을것입니다. 이젠 늦었습니다. 나는 기차에 늦었습니다. …》

《당신에게는 승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슈틀리쯔는 껄껄 웃었다. 《베오그라드에 놓쳐버린 기차로 갈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타고 가십시오. 거기 가서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다는것과 전쟁이 시작되면 베오그라드는 폭격에 없어지고말것이라는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웨젠마이어가 자그레브에서 분렬주의자들과 사업하고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베오그라드가 눈을 크게 뜨고 대책을 취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원하신다면 래일 아니 오늘중으로… 벌써 새벽 두시가 아닙니까. 자그레브로 돌아와 나를 찾아서 내 의견에 동의한다는것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중앙지도부가 웨젠마이어그루빠의 한 성원과 사업을 벌리려는 당신의 제의를 허락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하지 않는것보다 그래도 늦은것이 더 낫지요. 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나와 친교를 맺자는것이 전부니까. 이 단순한 의견에 동의 못할것도 없지요. 당신은 가까운 시일내에 도이췰란드가 자기 친구들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낼것이라는것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슈틀리쯔는 이번 이야기과정에 처음으로 웨지치를 곧바로 쳐다보았다. 《이 친구들은 이딸리아동맹국의 진의

도에 대하여 도이칠란드에 통보하여줄것입니다. 모든것을 미루어보면 우리의 동맹국인 이딸리아는 흐르바쯔까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달리말하여 마체크가 아니라 빠벨리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체크는 무능력한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결심도 못하고있지요. 그러나 빠벨리치는 무쏠리니에게 복무할것입니다. 이딸리아와 도이칠란드 두 세력에 배치되게 공작을 벌리는것이 당신의 조국에 유익할것이라고 봅니다. 베오그라드에서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명백히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당신과 관계되는것이 아니라 여기에 앞으로의 당신의 모든 행동이 달려있기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자기 조국에 도움을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에 현실적인 방조를 주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취할것인가 하는것을 결심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와 그리고 나의 동료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중요한 결심을 채택하게 될것입니다.》

슈틀리쯔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차에로 갔다. 그에게는 웨지치의 대답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웨지치의 얼굴을 세세히 살폈다. 똑똑한 사람과는 일하기도 쉬운것이다. 만일 예견치 않던 일만 생기지 않으면 웨지치는 베오그라드에서 돌아오자 오늘중으로 찾을것이다. 저녁 7시경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전에는 암만해도 불가능한것이다. 어쨌든 가까운 길은 아니니까.

《와씰리 뽈라또노비치.》 슈틀리쯔는 로드이긴을 깨웠다. 그는 웨지치와 담화한 후 곧바로 이리로 왔던것이다. 《무전수들에게 조심하라고 전해주시오. 지금 내 뒤를 감시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시야에 둘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놈들을 무전기에로 이끌어갈수 있단말입니다.》

《우리는 공작선을 통하여 사업하고있습니다. 나는 무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얼굴색이 왜 그렇게 누렇습니까?》

《간염이지요.》

《치료를 받습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요? 약이 금값이 아닙니까.》

《모스크바에서 돈을 보내줄수 없을가요?》
《나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합니다. 슈틀리쯔씨.》 로드이긴은 한자한자 씹어뱉듯 말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웨지치의 승용차를 알고있습니까?》 슈틀리쯔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물었다.
《검은색 〈링컨〉입니다.》
《바로 맞혔습니다.》
《자그레브에 그런 〈링컨〉이 불과 몇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가지 부탁할게 있습니다. 아주 큰 부탁입니다. 3시 혹은 4시경에 베오그라드도로를 따라 뻬스첸짜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섯!〉표식이 걸려있는 굽인돌이에서 웨지치의 〈링컨〉을 멈춰세우십시오.》
《웨지치는 감방에 갇혀있습니다. 슈틀리쯔씨. 우리는 동지들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방금 베오그라드로 떠나보냈습니다. 낮이나 저녁에 돌아오게 되여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낮 3시부터 당신은 거기서 그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의 차를 멈춰세우십시오. 당신의 그 위력한 자전거로말입니다.》 슈틀리쯔는 벙글벙글 웃었다. 《설사 그가 8시에 온다고 하여도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를 멈춰세운 다음 그에게 털어놓고말하십시오.》
《털어놓으란말입니까?》
《당신이 로씨야사람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가 제국안전총국과 협조하는데 동의한다면 그에게 방조를 줄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여기서 맺고있는 련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웨지치가 증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끄나불〉이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만일 할수 있다면 여기 친구들중에서 누구든지 알려주십시오.》
슈틀리쯔는 연극을 개시하자 즉시 제국안전총국 6국장 쉘렌베르그에게 웨지치가 협력에 응하였다는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그는 관료주의적기구가 웨지치대좌를 해당한 번호와 가명을 가진 카드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요구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슈틀리쯔는 웨지치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임의의 형식으로 작성할수 있었으나 명백히 슈틀리쯔에게 제출된것

으로 되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웨젠마이어도 여기에 인입된만큼 베를린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 벌어질수 있었다.
《본부앞.
자그레브에서 이딸리아사람들에게 웨젠마이어그루빠의 사업을 알려줄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베를린과 로마사이에 신중한 마찰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유쓰따쓰.》

베오그라드는 웨지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여기는 모든것이 자그레브와 달랐다.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무리들도 기본도로들과 정부기관들, 대사관들을 순찰하고있는 군인들도 매대들에서 팔리고있는 신문들의 어조도 모두가 다르고 불안에 차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국민들을 괴롭혀온 그 무엇에서 해방된듯한 느낌과 결합된 이러한 불안은 웨지치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기가 어느 주소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있었다. 그는 이 주소를 기억하고있었다. 공산당원인 변호사 슬라브꼬 구바르는 한때 종합대학에서 좌익적인 연설을 벌려 웨지치에게 적지 않은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었다. 그는 극좌적인 인물로서 웨지치가 충돌하지 않을수 없었던 타협할수 없는 공산주의자였다.
구바르는 그를 인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그의 얼굴은 삽시에 조소와 멸시로 이그러졌다. 그는 불그스레한 색갈의 나무로 만든 옛날 가구들로 가득찬 넓은 서재를 웨지치앞에 활짝 열어제꼈다.
《경찰관나으리, 당신의 방문을 무엇으로 축하해드릴가요?》하고 구바르는 물었다. 《이젠 당국에서 나한테 아무런 불만도 없겠는데요?》
《경관은 당신에게 당국의 대표로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대로 미래의 정권대표를 찾아왔습니다.》
《도발적인 연극을 계속하랍니까?》
《그 어떤 솜씨있는 도발이나 시간을 요구하는것입니다.》웨지치가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라니요? 〈우리〉에게라는건 누구에게란말입니까?》
《유고슬라비아에말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웨지치는 얼굴을 찌프렸다. 《나는 당신이 나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어떤 대책을 취할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당신을 감옥에 처넣으면 나를 총살해치울것입니다.》

《그런 과격한 발언은 삼가해주십시오. 대좌, 당신의 이런 롱담은 오래전부터 알고있는것들입니다.》

《여보시오, 구바르, 나에게도 역시 신경이 있다는걸 알아두시오. 나는 당신이 당을 대표하고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잡속에서 질서의 발효제로 될수 있는 그런 당을 대표하는 당신에게말입니다! 나는 일부러 자그레브에서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갈곳이 없습니다. 주위는 온통 리해할수 없는 일들과 혼잡뿐입니다. 그런데 흐르바쯔까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 분립주의자들이 때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중앙정권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자기 법대로 살아가고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하중앙위원회의 주소를 공개하라는건가요? 다행히도 나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도부와 견해상 차이로 헤여진 이후로 그들과 련계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합니까? 이젠 내가 마음을 놓을수 있을가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고있습니다.》 웨지치는 확신성있게 그러나 피로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엇보다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일 무서운것은 내가 당신을 탓할 권리가 없는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다른것을 간청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지들과 만날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함께 갑시다. 혹은 그들을 데리러 가십시오. 내가 여기에 남아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무엇때문에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구바르는 다소 너그러워지면서 《흠》하고 소리를 냈다. 《당신은 자기의 제기가 현실성이 없다는것을 느끼고있지 않습니까, 대좌…》

《여보시오, 구바르, 당신들의 예언자 쓰딸린은 히틀러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를 히틀러로 생각하고 나와 조약을 체결해보시오. 그것은 나보다 당신에게 더 유익할것입니다. 나는 모든것을 걸고 모험하고있습니다. 구바르, 그러나 당신은 적은것을 놓고 모험하고있

습니다. 당신네 사람들이 주시해보라고 하시오. 그러면 경찰이 당신을 〈유인하지〉않았다는것을 확신하게 될겁니다.》
한순간 구바르는 신중한 기색으로 연구하듯 웨지치를 살펴보았다. (총체적으로 보아 그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구바르는 생각했다. —나는 조직과 화해할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가질수 있다. 《화해해라》—그는 자기 생각에 쓰겁게 웃었다.—얼마나 순진한 아이들의 말인가. 또다시 자기를 잊어야 하고 래일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을지 모를 이전날의 생활이 시작될것이다. 그들자신이 이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라지. 어쨌든 《좌경적행동》이라고 조소하는 그들의 비난은 당의 방조와 당의 중재하에서 자기의 견해를 고수할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이겨낼수 있는것이다. 나는 이것을 자기자신이 할수 있다.)
《당신의 베오그라드 전화번호를 남겨두십시오.》 마침내 구바르는 타협조로 말하였다. 《당신의 제의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나한테는 여기에 전화가 없습니다.》 웨지치가 대답했다. 《나는 베오그라드에 두시간동안 있을 차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십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이보의 기사와 관련한 자료를 꺼냈다. 순간 구바르의 눈에 공포의 빛이 번뜩했다.
《걷어넣으시오!》 구바르가 말했다. 《도발을 그만두시오. 나는 그것을 읽지 않겠소. 도로 치우시오. 내 말을 들었소?》
웨지치는 애틋한 눈길로 구바르를 바라보고 아무말없이 그의 방에서 나왔다.
웨지치의 종합대학 친구인 론설원 즈덴꼬 가브리치가 일하고있는 편집국은 조용했다. 성원들은 모두 점심식사하러 가고 없었다.
즈덴꼬는 웨지치가 이보를 위하여 준비한 자료를 읽어보았다. 그리고는 담배를 붙여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구석에서 저쪽구석으로 잰 걸음을 놓기 시작하였다. 창밖에는 봄이 한창 무르녹고있었다. 호득호득 해빛이 쏟아져내리는 날이였다. 어제까지 적막속에 도사리고있던 추위는 갖가지 소리로 우짖는 새들의 지저귐소리로 변하였다. 그러나 전차의 종소리, 쏜살같이 내달리는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삼켜버렸다.
《자넨 우리가 이것을 발표해줄것을 바라는건가?》마침내 즈덴꼬가 침묵을 깨쳤다. 《친애하는 뻬따르, 지금은 어디에 가든지 또 누구

도 이걸 신문에 내주지 않을걸세. 우리는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로씨야 민족주의문제와는 일체 관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네. 이 모든것이 없었던것처럼 행동하라는거야.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도이췰란드사람들의 뒤를 핥고있는 마체크의 사람들과도 련계가 없었던것처럼 하고있고 광신적인 쓰르비아사람들이 의회에서 흐르바쯔까두령들을 살해하지 않은듯이 하고있으라는거지. 뿐만아니라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이 그 누구를 복수하겠다고 벼르면서 흐르바쯔까에 있는 쓰르비아사람들을 모조리 찔러죽여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도 모르는체하고 모든것이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는거네. 알겠나? 신문에 민족주의문제에 대하여 하나도 쓰지 않으면 그런것이 없다는걸 의미한다는거지. 론리를 알만하나? 혹시 잘 리해하지 못한건 아닌가?》

《알만하네.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할셈인가? 내가 어떻게 해? 자넨 여기에 있으니 환상을 가지고서라도 살아갈수 있겠지. 허나 난 저기서 살고있네. 저기는 환상도 끝장나고 역적행위가 판을 치고있네.》

《뻬따르, 여기에 있는 우리는 쉬운줄 아나? 환상을 가지고 사는것이 진리와 맞서있기보다 더 좋아뵈나? 우리는 매일아침 이제 무슨 변이 일어나고 누가 오겠지, 그러면 모든것이 변하고 모든것이 제대로 자리잡힐것이라고 하고 자신을 위안하고있네. 하지만 누구도 오지 않을것이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거네.》

…웨지치는 승용차를 쓰까다를리야근방에 세워놓았다. 오늘낮에 여기에는 보통날 저녁때처럼 사람들이 많았다. 깔레메그단성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베오그라드의 이 옛 구역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군했다.

특히 두나이강에서 시원한 랭기가 실려오기는 하나 지금이 봄이 아니라 무더운 8월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더운 5월이 오면 음악소리가 대기를 흔들고 수도에서 제일 오랜 술집들인 《두사슴》, 《세모자》들에 사람들이 차넘치였다. 그리고 시내 한복판의 계단들에는 민족의상을 한 손풍금수들이 앉아 경쾌한 곡을 울리고 젊은이들이 처녀들의 손목을 잡고 춤판에 뛰여들어 음악에 맞추어 서로 안고돌아가며 춤을 췄다. 곳곳에서 젊음이 약동하고 공포와 슬픔, 혼란이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전히 젊음을 느꼈고 생활에서 아무것도 잃은것이 없을뿐만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어김없이 수행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웨지치는 달마찌아포도주단지를 그려보다가 문득 달마찌아의 어부 이완 씨미치가 《우리 고장에는 질이 나쁜 포도주나 늙은 녀자들이라고는 없지요.》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허나 포도주는 좋지 못하였다. 아마 새로 만든 통에 보관하여 그런것 같았다. 참나무냄새가 진하게 풍기였던것이다. 베오그라드에서는 붉은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시였다. 그러나 한때 거품이 일고 색갈이 진했을 붉은 포도주는 지금 시큼시큼한 맛이 돌았다. 포도주의 초기 색갈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해버린것 같았다. 이것은 보관할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 사진과도 같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해가 비치는 벽에 사진을 걸어두면 바로 그렇게 색갈이 바래는것이다.
…지금의 수상과 련계가 밀접한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뜨라쁘끄 쥬치치는 전화로 웨지치의 목소리를 듣고 무등 기뻐하였다.
《뻬따르,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스카다를리아에 있네. 포도주를 마시고있지.》 웨지치가 대답했다. 《자그레브에서 온밤 차를 몰고왔는데 두시간후에는 돌아와야 하네.》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래일까지 묵었다 가라구.》
《서둘러야 할 리유가 많네. 자네가 〈세 모자〉식당으로 오겠나, 아니면 내가 자네를 찾아가라나?》
《자네가 나한테 오면 더 좋지, 뻬따르.》
《좋네. 20분후에 내가 가지.》
웨지치는 돌포장을 한 옛날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승용차를 세워놓은곳으로 가서 차를 타고 쥬치치에게로 갔다. 한시간후 쥬치치는 그와 함께 수상보좌관의 방에 와있었다. 수상보좌관 장령 미르끄위치는 반란의 실제적인 조직자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손님들은 보좌관을 그의 문지방에서 만났다. 장령은 뻬루대사관에서 차린 연회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중이였다. 연회는 왜서인지 너무 이르게 조직되였다. 아마 뻬루사람들이 4월 6일 부활제명절을 그리스정교도들이 쓰르비아사람들과 함께 쇠려고 그렇게 한것 같았다. 그래서 거리에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고 상점옆에는 길다란 줄이 늘어져있었다. 녀인들이 고깔모양의 달콤한 빵을 만들려고 닭알과 밀가루를 사고있는것이였다.
《래일 이야기하면 어떻겠소?》 미르끄위치가 물었다. 《아니면 뭔

가 매우 신중한 문제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쥬치치가 말하였다. 《이 사람은 자그레브에서 온 대좌 웨지치입니다.》
《각하, 당신이 그렇게 시간이 바쁘시면 각하께서 연회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있겠습니다.》웨지치의 말이였다.
《누가 연회가 끝난 다음 사무실로 돌아오겠소?》미르꼬위치는 피씩 웃었다. 《연회가 끝난 후에야 집으로 가야지. 게다가 공작시간도 그때쯤 되면 끝날텐데. 아무래도 3시까지는 갈테니까. 공작시간을 제때에 끝마치는건 유고슬라비아에서 신성하게 준수되고있는 유일한것이 아니요.》
《지금도 그렇단 말씀입니까?》웨지치가 물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른게 뭐요? 그리고 〈오늘〉이 〈래일〉과 다른건 또 뭐고?》
《각하.》웨지치가 말하였다. 《자그레브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그레브에서 배신행위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게다가 에쓰에쓰대좌 웨젠마이어의 소조가 들어배겨있는데 이들은 마체크, 흐르바쯔까민족파쑈조직성원들과 회담을 벌리고있습니다.》
《정세를 극적으로 평가하지 마오.》
《장령각하.》웨지치는 고집스럽게 곱씹었다. 《자그레브형편은 당신들이 여기서 주시하고있는바와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모든것이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배신행위가 전면적으로 벌어지고있습니다. 웨젠마이어그루빠의 한 성원이 저에게 우리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말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파쑈조직성원들이 폭동개시신호가 내리기를 기다리고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르꼬위치는 동정하는듯한 눈길로 웨지치를 바라보았다. 쥬치치에게는 왜서인지 그 동정의 빛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각하, 이것은 모두 신중한것들입니다.》 쥬치치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웨지치가 방금 저에게 자그레브정세에 대하여 자상히 알려주었습니다. 각하는 공연히 그의 말에 회의적으로 대하고있습니다.》
《나는 웨지치에게 아주 좋게 대하고있소.》미르꼬위치가 대답했다. 《내가 만일 그를 나쁘게 대했더라면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였을거요. 흐르바쯔까총독 슈바쉬치가 당신에 대하여 암시해왔소.

그렇소. 나의 친근하고 정직한 웨지치, 그들은 당신이 도이췰란드렴탐군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다고 제소하고있소. 하지만 이건 모두 시시한것들이요. 4월 6일 이른아침 사람들이 새벽례배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 히틀러가 우리를 반대하는 연설을 할것 같소. 우리는 파산될것이요. 우리는 강점당할것이요. 그후에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싸움을 시작할것이요.》웨지치는 눈까지 쪼프려졌다. 장령에게 이것이 놀랍게 생각되지도 않는가 하는 위구심에서였다.
《당신은 이에 대하여 어찌 그처럼 태연하게 말씀하실수 있습니까?!》쥬치치는 부르짖었다. 《당신은 어찌 우리에게 그처럼 태연하게 패망이 닥쳐올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모비치는 이런 말을 안하고있지 않소. 그는 4월 6일을 자기 딸의 잔치날로 정하였소. 그는 지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않소. 그는 우리가 그를 정권에 올려놓은것을 잊어버렸소. 그는 자기를 새 나뽈레옹으로 생각하면서 자고자대하고있소. 아이구, 마옵소서. 그는 지어 뮤라트도 따라못갈 사람이요. 그는 연설하기를 아주 좋아하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것을 속기원들이 전부 기록하는가 하는것을 주시하기를 좋아하오. 그는 평온과 인내력이 행동을 대신해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는 행동의 순차성을 혼돈하고있소. 처음에 행동을 개시하고 평온과 인내성을 과시해야겠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소.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씨모비치를 제거해버리겠는가? 이건 어렵지 않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지 않겠소. 이건 국가가 아니라 경가극이라고 할게란말이요. 씨모비치가 새로운 강령을 내놓아야 할 시기에 내놓지 못하면 제거할수 있소. 알겠소? 공산주의자들을 정권에 끌어들일수야 없지 않소. 나는 당신들과 털어놓고 말하오.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믿는데도 있지만 내가 전쟁이 일면 제일먼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있는 사람이기때문이요. 난 당신들이 내가 지금 말한것을 기억해두기를 바라오. 우리가 아무리 쓰라린 운명에 처해있어도 결국 우리는 후세에 우리를 인정해줄 그런 일을 해놓지 않았소. 우리는 불평등조약을 반대하였고 우리는 히틀러의 코대를 튕겨놓았으며 우리는 히틀러가 발칸반도를 운테르 덴 린덴처럼 버젓이 짓밟고 지나갈수 없게 해놓았소.》
《그렇다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쥬치치가 말하였다.

《각하,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해야지.》장령이 수긍했다. 《자네 말이 옳아, 면목을 지켜야지. 아니면 하다못해 면목을 지키려고 애라도 써보든지. 우리의 마지막 기대는 크레믈리와의 동맹에 있소. 혹시 이 길만이 히틀러를 멈춰세울수 있는 길인지도 몰라. 영국사람들은 3월 27일에 우리를 도와주었소. 그러나 그들이 4월 6일에 우리를 도와줄 힘은 없을거요. 이제 남아있는것은 쓰딸린에 대한 기대뿐이요. 그러나 나는 쓰딸린이 우리와의 조약에 서명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소.》
《전쟁이 시작될것이라고 누가 통보해주었습니까, 각하?》웨지치가 물었다. 《제가 이렇게 허물없이 질문을 제기하는데 대하여 용서해주십시오. 허지만 이것이 가짜통보일수도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군사무관 바우흐니크가 통보하여왔소. 그는 자기 정보에서 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소.》
《무슨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쥬치치는 장령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것을 살펴보고 되뇌이였다. 《각하, 당신은 어떻게 되여 그처럼 태연하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오? 내가 태연한것 같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자기를 자제할수 있다는거겠구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에게 무슨 안이 없소? 만일 안이 있다면 나는 래일 당장 당신을 내무상 보좌관으로 임명할데 대한 명령서에 수표하겠소. 그럼 당신은 나에게 웨지치의 정보를 보고할수도 있을거요. 지금은 그것을 옷자락밑에 감추어놓소. 제씨들, 용서해주오. 5분이상 늦어지는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요. 더우기 내가 수상보다 늦어가면 나를 잘못 리해할수 있소.》미르꼬위치는 또다시 쓰겁게 웃었다. 《미국신문들에 씨모비치가 정권에 올라앉은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친구들이 억지로 그를 정권에 올려놓았다는 기사가 실렸소. 그리고 뻬뜨르국왕이 쓰르비아사람이고 젊었기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롱담이 모스크바에 생겨났다는 말도 있소. 마지막 말을 바꾸어서 당신들이 〈낫과 망치〉라는 맑스주의자들이 즐겨쓰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오. 기지가 있어보이지 않소, 어떻소? 영광을 바라오, 제씨들.》
자그레브로 돌아오면서 웨지치는 다문 한개 련대의 병력이나 고사포중대 혹은 경찰부대라도 길에서 보았으면 했다. 또한 땅크종대를 하나만이라도 보고싶었다. 그는 혼자서 줄곧 중얼거렸다. 《그들은 3시에 일을 끝내지 않는가, 이 답답한 친구야! 그들은 로동시간을

끝마치는것을 신성하게 지키고있어! 3시에 일을 끝마치지 않나, 언제나 제정된 질서대로 일을 끝마쳐.》

자그레브교외에 들어서고있을 때 난데없이 자전거가 웨지치의 길을 막아나섰다. 대좌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길에서 비켜나도록 경적을 연방 울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자리에서 버티고 서서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낡아빠진 자전거손잡이를 꽉 틀어잡고 왼손으로 코마루에 걸린 자그마한 코안경손잡이를 매만지고있을뿐이였다. 길에는 인적이 없었다. 차를 세우기전에 웨지치는 한순간 생각을 굴리였다.

(일부러 이렇게 나를 지체시키고있는게 아닌가? 이것이 도이췰란드사람들이나 끄왈리치의 작간은 아닐가? 나를 체포하려는것인가? 내가 베오그라드에 간것도 알고있고 내가 무엇때문에 갔댔는가 하는것도 알고있는것 같다.)

다음순간 그는 목을 찔리운 이보의 안해, 피가 랑자한 바닥에 딩구는 기자 이보, 빨래통에서 삐죽이 내민 어린 아이의 누런 발이 눈앞에 떠오르며 여기서 자기도 그렇게 죽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코안경을 낀 이 사람은 겉보기에 지성인같이 가련해보이는데가 있으나 보잘것 없는 밀정에 불과할것 같았다. 그러나 수풀속에 헌병대가 마체크의 《농촌수비대》혹은 블라지미르 쇼쉬치의 관할하에 있는 제2부의 건장하고 우둔하게 생긴 청년들이 숨어있을수 있었다. 우에서 주는 명령이라면 그 무엇이건 마다하지 않을 떨거지들이 좀 많은가. 그들은 이제 여기서 저녁시간에 이것을 실행할수 있다. 이들은 도시 한복판에서도 무엇이건 못해내는 일이 없는자들이다.

웨지치는 제동변에서 발을 떼고 가속답판을 눌러 위력한 《링컨》이 더 속력을 높이면서 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달아나는 소리를 듣고싶었다. 그는 경찰에 강제로 끌려들어온것 같아보이는 자전거를 가진 이 사람의 깨진 코안경이 포장도로우에 가련하게 딩구는 광경을 그려보고싶었다. 웨지치는 실눈을 지으며 제동변을 눌러 차를 길옆 물도랑쪽으로 바싹 붙여세웠다. 차가 멈춰섰을 때에야 그는 자전거를 가진 사람에게 무기가 없다는것을 알았다. 경찰에 방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나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것이다. 비밀경찰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와 힘을 권총에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 일할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씌여진 문건의 갈피속

에서 느끼는데 익숙되여있는것이다.
《고맙습니다.》로드이긴은 차에 다가오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이 나를 깔아뭉개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예 깔아치울 생각이였소.》웨지치는 피로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물도랑뒤에서 자기가 그처럼 강한 적의와 멸시를 품고 눈앞에 그려본 그 젊은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여기에 혼자 있습니다.》마치 그의 심중을 헤아리듯 로드이긴이 말하였다. 《나는 당신을 4시간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5분이상 더 지체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 뭡니까?》웨지치가 물었다. 《다만 에돌지 말고 직방 말하시오. 당신은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는 다르게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당신은 누구요?〉하는 질문으로부터 말을 시작했을겁니다. 그런즉 나는 쏘련정탐기관을 위해 일하고있습니다. 웨지치씨.》
《당신은 로씨야사람인가요?》
《그건 내 억양을 보고 쉽게 판단할수 있을겁니다.》
《당신은 로씨야사람입니까?》웨지치는 고집스럽게 곱씹어 물었다. 《당신은 로씨야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로씨야사람입니다.》
《자전거를 버리고 차에 타시오. 가면서 마저 이야기합시다.》
《그럼 후에 자전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로드이긴은 놀라와했다. 《나는 뭘 타고다니겠습니까? 여기 둬두면 훔쳐갈수 있습니다.》
《새걸 사시오. 앉으시오.》
《웨지치씨, 난 새 자전거를 살 돈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말할것도 몇마디밖에 안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슈틀리쯔가 당신에게 제기한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웨지치는 비양조로 웃었다.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있던 공포심은 얼음같이 차거운 랭기를 대신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속에 서서히 묻혀버렸다.
(도이췰란드사람들한테서 온것이 명백하다.) 웨지치는 생각했다. (슈틀리쯔에게서 왔다. 이 사람은 단순히 죽이지는 않을것이다. 그런 인간은 아니다.)
웨지치는 차에서 내려 팔을 량껏 좌우로 벌렸다. 어깨에서 우적우적 소리가 났다. 이제야 그는 베오그라드로 갈 때와 거기서 구바르,

즈덴끄, 뜨리쁘끄, 미르끄위치와 이야기하는동안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장령이 하던 말을 되새겨볼 때 자기가 끊임없이 느끼고있던 그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것을 느꼈다. 정세가 여전히 정부의 통제속에 있다는것을 적에게 보여주려고 헛되이 노력하고있는 이 나라에서 로동시간은 이전에 제정해놓은 규칙대로 평화시기와 같이 3시에 끝내야 한다고 장령은 말하였다.

동맹자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있다. 마치도 이것이 지금 적에게 힘을 보여주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이기라도 한것처럼…

《그럼 두번째는 무엇입니까?》웨지치가 물었다.

《두번째, 나는 유고슬라비아동지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부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지금 경찰의 손에 아쥐야, 프리짜, 케르쇼바니, 리흐트만, 크라이스끼들이 체포되여있습니다. 쩨싸레쯔는 어느 다른 곳에 갇혀있습니다. 이들은 당의 정수분자들이며 이들은 언제나 히틀러와 비타협적으로 대하여온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베오그라드와 련계를 맺고 이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해줘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수 있을뿐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웨지치가 물었다. 《교수 슈만디치는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그와 련계를 가지고있는 동무들도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프리짜와 그의 동무들을 누가 체포하였습니까?》

《그럼 당신은 모르시는가요?》

《나는 당신에게 묻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있습니까?》

《마체크의 〈농촌수비대〉가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웨젠마이어와의 연극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체포하였지요. 이들을 체포함으로써 자그레브는 간접적으로 히틀러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시위하였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는것으로써 마체크는 히틀러에게 빠벨리치의 도움이 없이 결탁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체크나 슈바쉬치는 이들을 체포한것으로써 3국동맹 성원국들에게 이 성원국들의 리익에 대하여 론할 때 자기들도 독자적이고 무자비하다는것

을 확신시켜주었습니다.》
《그 부탁을 나는 알고있습니다.》웨지치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헌데 여기에 슈틀리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당신이 슈틀리쯔와 〈친교〉를 맺기로 동의하였다는데 있지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는 더 쉬울것입니다.》
《당신들을말입니까? 쏘련정탐기관을?》
《우리지요. 쏘련정탐기관을.》
《여보시오, 당신은 제정신이요?》
로드이긴은 두번째 손가락으로 코등우에서 연송 흘러내리는 코안경을 바로잡고나서 별안간 자기자신으로서도 뜻밖일만큼 새된 소리를 질렀다.
《바보! 도박군! 서푼짜리 가극배우! 당신 생각에는 누가 진짜 히틀러와 싸워야 할것 같습니까?! 누가?!》
이 절망적인 웨침소리는 웨지치에게 이상하게 작용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의 안정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기가 갈길을 택하던 오래전 그때 누구든지 얼굴에 땀이 번지르르한 이 사나운 사람처럼 자기에게 새된 소리를 질러주고 자기가 이 웨침속에서 아픔과 무력감, 공포를 느꼈더라면 자기의 생활이 달리 흘러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웨침소리뒤에 숨겨진 진실성을 보았다. 그렇다. 그는 진실성을 느낀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 만일 느끼기만 하였더라면 로드이긴과 털어놓고 이야기하기전에 오래동안 생각해보았을것이다. 웨지치는 정치경찰에서 일하는 여러해동안 느낌과 눈으로 보는것 사이의 명확한 계선을 긋는 법을 익혀왔던것이다.
《당신은 슈틀리쯔가 나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부호를 알고있습니다.》로드이긴은 자기자신도 믿기 어려울만치 능숙하게 꾸며댔다. 그의 마음속에 신심이 자라났다. 그것은 동심과 같이 기쁘고 긍지에 차넘친것이였다.
(이젠 모든것이 슈틀리쯔가 예견한대로 될것이다. 모든것은 이 아름답고 좀 랭랭해보이는 사람, 우리를 위해 일하고있는 매우 의로와보이는 도이췰란드사람이 구상한대로 바로 그렇게 될것이다.)
《당신이 로씨야사람들을 대변하고있다는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증거를 당신에게 제시할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슈틀리쯔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리해합니다.》로드이긴이 말하였다. 《나는 모든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는것이 더 좋습니다. 당신들앞에는 싸움이 놓여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싸움에서 누구인가에게 의거하여야 할것입니다. 누구에게 의거하겠습니까? 우리를 내놓고 의거할 사람이 없을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에게 어떤 방조가 요구됩니까? 내가 즉시 이것을 본부에 전하겠습니다.》
《무슨 방조이냐구요?》웨지치는 한숨을 내쉬였다. 《4월 6일에 도이췰란드가 우리 국경을 침공한다면 무슨 방조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 자료는 내가 받은것이 아니라 정부가 받은것입니다. 도이췰란드에 있는 우리 군사무관이 전한 자료입니다.》
《나는 그의 성을 알고싶습니다.》
《당신이말입니까? 당신은 무엇때문에 이 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습니까? 성에 대하여서는 우리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성은 바우흐니크입니다. 군사무관 대좌 바우흐니크.
우리가 당신네 무관들을 모두 알고있듯이 당신네 사람들도 그를 알고있을겁니다. 아쥐야, 케르쇼바니를 언제 체포했습니까?》
《사흘전입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하지요.》
《당신은 왜 슈틀리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있지요. 본부에서는 당신이 그의 제의에 동의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필요하면 베오그라드지도부에 통보하십시오.》
《당신은 자그레브에서 비법적으로 살고있습니까?》
로드이긴은 또다시 코안경을 바로잡고 한동안 망설이였다. 그는 아무말없이 주머니에서 공민증을 꺼내여 대좌에게 내밀었다.
그는 록색종이장을 번지며 물었다.
《어디서 일하고있습니까?》
《종합대학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정기간행물실에서.》
《일하고있은지 오래됩니까?》
《4년째입니다.》

《당신들에게 쩨싸레쯔와 그의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한 방도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는 없습니다. 우리 동지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그들을 대변하여 말할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물론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대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책임자와 만날수 있을가요?》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만날수 있습니다.》
《언제 만날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만날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말입니까?》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래일 저녁 10시 〈두 사냥군〉술집옆에서 만납시다.》
《술집이 뚜슈깐짜거리에 있던가요?》
《옳습니다.》
《술집에서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서 만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내겠습니다.》
《나는 우리 동지의 생명을 가지고 모험할수 없습니다.》
《그럼 내 생명을 놓고서는 모험할수 있다는겁니까?》
《좋습니다.》 로드이긴은 수긍했다. 《우리는 10시에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슈틀리쯔를 찾을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84－51이지요.》
《이건 〈에쓰플라나다〉에 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빠찌츠크거리에 비밀아지트가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를 알고있습니까?》
《그들에게 베르흐니구역에는 아지트가 없습니다. 그들은 막씨미르구역에 호화주택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슈틀리쯔에게 필요한것보다 슈틀리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라니요?》 로드이긴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를 념두에 두었습니까?》

웨지치는 담배를 붙여물고 대답했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흐르바쯔까사람들과 쓰르비아사람들을 념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당신네 나라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요.
그렇기때문에 우리라는건 우리고 당신들이라는건 당신들이지요.》
《당신이 제기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나의 상급이 대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슈틀리쯔와 만난데 대하여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나보고 당신에게 그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을 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수 있는것의 전부입니다. 체포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는 슈틀리쯔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나 나의 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케르쇼바니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는 자주 우리 실에 와서 일하군하였으니까요.》
《그것뿐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그를 흡수한줄로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흡수하지 않는 법입니다.》로드이긴은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그 사람이나 나는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일했지요. 그러나 이를테면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했지요.》
《당신은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흡수할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요?》
《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싶었습니다.》
《내가 모욕을 느낄가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세가 아니라면 걱정할수도 있겠지요.》
《안녕히 가십시오.》웨지치는 차에 앉으며 말하였다.
《10시에 만납시다. 아마 래일도 당신의 방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라다는 문을 열자 《아!》소리를 지르며 손을 가슴에 붙이고 벽쪽으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울어서 부석부석해졌다. 웨지치는 처음으로 라다의 이런 모양을 보았다.
《하느님 마웁소서.》라다는 조용히 말하였다. 《뻬따르, 나의 사랑, 난 벌써 당신을 장사지냈어요.》
웨지치는 라다를 그러안았다. 그는 목구멍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기간 라다는 그와 한번도 이렇게 말해본적이 없었다. 때때로 그는 라다가 자기를 사랑해주는것이 전부일것이며 자기 웨지치는 이 녀자가 부단히 찾고있는 그 일에서

이 녀자에게 필요한 휴식으로나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만났던 첫날저녁 라다는 《강물에 떠다니고싶고 구름을 쳐다보고싶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고싶지 않고 모든것이 저절로 찾아오기만을 바라고싶어요.》라고 말했었다.

《당신은 울었소?》

《당신의 신문사 친구 브지크는 개같은 자식이고 계집이예요.》

《당신은 왜 나를 장사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소?》

《나는 이전에 남자들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하여 눈물을 흘리는것은 영화나 지난 세기 소설들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이전에 내가 한번도 누구를 사랑해보지 못했다는것과 당신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어요. 만일 당신이 생각을 달리하지 않았거나 코가 이렇게 붓고 머리도 빗지 않은 내가 당신에게 싫지 않으면 지금 당장 교회당으로 가서 결혼하자요.》

《당신은 그리스정교도이고 나는 카톨릭교도이니까 누구도 우리를 결혼시켜주지 않을거요.》

《아유, 내가 이슬람교도로 다시 세례를 받든 유태녀자로 다시 세례를 받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목사에게 내가 카톨릭교도이고 나의 아버지도 카톨릭교도이며 증조할머니도 카톨릭교도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웨지치는 라다를 껴안고 부어오른 억실억실한 눈에 입을 맞추었다.

《고맙소.》웨지치가 말하였다.

《뭐가 고마와요?》

《그 계집이라고 한 나의 친구가 종종 나에게 말하기를 그가 일이 바빠서 지체되거나 아침녘에 집으로 돌아오면 녀편네가 울고있었다는거요. 헌데 소동은 그 녀자가 불안에 잠겨있었기때문에 일어났소.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 녀자는 자기 남편때문에 불안해있은것이 아니였소. 자기가 가련해서 울었다는거요. 그러나 당신은 자기가 불쌍해서 운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울지 않았소. 그래서 고맙다는거요. 옷을 입소. 교회당으로 가기요. 우리를 결혼시켜달라고 해야지.》

《둘러리가 필요해요.》

《있을거요.》 웨지치가 대답했다.《내가 곧 돌아오겠소. 곧 오겠소, 라다》
그는 여기서 도이췰란드령사관에 전화를 걸고싶었다. 그러나 이 전화는 아마 도청당할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술집에서 령사관으로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슈틀리쯔에게 그의 결혼식에 와서 둘러리를 서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 뜨라쁘끄 쥬치치의 말이 옳았다. 무엇인가 해야 했다. 무엇이든. 그러나 자기자신의 무능력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령사관에서는 슈틀리쯔씨가 자그레브를 떠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다고 웨지치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오래동안 의아한 생각에 잠겨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한참후에야 그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라다가 있는 방으로 뛰여올라갔다.
웨지치는 이 10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라다가 옷을 갈아입은것이 놀라왔다. 이 십분사이에 그는 아래로 내려가 자동전화를 걸기 위해 디나르를 엽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담배를 한곽 사서 성냥을 그어 한대 붙여물고 슈틀리쯔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그는 대답을 기다렸다가 다시 령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웨지치는 자기가 체포되였다가 분명 도이췰란드사람들이 끄왈리치에게 지시를 줌으로써 이상하게 풀려나온 후 경찰국과 헌병대에서는 물론이고 《농촌수비대》에서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있으며 마체크의 토벌기구들이 전쟁이 일기전에 벌써 이러저러한 형태로 점차 새 질서에 복무하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 자기가 슈틀리쯔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고 태일 로드이긴과 만나지 않고서는 이 도시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웨지치가 전화기에서 《붕》울리는 소음을 들으며 최근 며칠동안의 자기 생활의 토리에서 댕기를 풀어내듯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고있은 이 10분동안 라다는 동색머리칼의 이전의 아름다운 라다로 돌아왔다. 하나 억실억실한 눈만은 이전과 달랐다. 눈에는 특이한 빛이 차넘쳐있는것 같았다. 물론 화장을 해서 그렇게 되였겠지만 울고난 흔적도 없어졌고 눈은 다시 맑고 파란빛으로 변했으며 거기에는 웨지치가 베오그라드에서 돌아온 첫 순간에 보았던 그것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이것은 이전에 그가 라다의 눈에서 아무리 보려고 공상하고 아무리 세세히 들여다보아도 볼수 없었던것이였다.
교회당에서 목사가 전날밤이라도 약속을 했어야지 지금은 결혼식을 할수 없다고 하자 라다는《우리는 오늘저녁에 떠나갑니다. 우리

는 여기서 태여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결혼식을 할수 없지만 하고싶지도 않아요.》하고 말하였다.
목사가 자리를 뜨자 웨지치는 라다를 바라보며 눈을 끔벅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날쌔게 거짓을 꾸며내는 재간을 가지고있는줄은 몰랐소.》하고 웨지치는 귀속말로 말했다. 그러나 소곤거리는 그의 말소리는 휑뎅그렁한 교회당안에 별스레 크게 울리는것같았다.
《나는 사실을 말했어요.》라다도 역시 그렇게 울리는 귀속말로 말하였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떠나가자요. 우리는 여기에 필요없는 사람들이예요. 뻬따르, 당신은 여기에서 나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필요되지 않아요. 나도 역시 당신을 내놓고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아요. 반란이요 전쟁이요 혁명이요 감옥이요 하는 이 모든것들은 저주를 받으라지요. 오직 당신과 나 둘만이 있을뿐이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아서는 안돼요.》
《라다, 난 떠나갈수 없소.》
《알고있어요.》라다가 대답했다. 《나도 알고있어요. 뻬따르, 이젠 언제나 그렇게 느껴질거예요. 우리는 길든 다람쥐들처럼 뱅글뱅글 타고돌아갈 채바퀴를 자신들이 고안해내야 하겠으니까요. 그런데 이 채바퀴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어떤 관람자들에게? 도대체 그런 관람자들이 있어요, 뻬따르? 만일 이 채바퀴에서 제때에 뛰여내리지 않으면 머리가 돌고말거예요. 사람은 다람쥐가 아니예요. 당신은 떨어지면 몸이 부서지고말거예요.
남의 채바퀴에서 낯선 관람객들에게 심심풀이가 되도록, 더 나쁘게는 관람자들도 없이 혼자서 다람쥐처럼 돌아가다가 떨어져죽으면 얼마나 미련하고 우스운 일이겠어요.》
《래일 떠나가기요. 혹은 모레 떠나든지. 내가 하려고 하던것을 해놓고 떠나기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의 눈을 쳐다보기가 부끄러울거요.》
《만일 당신의 눈이 감겨져있고 내가 차거운 손가락으로 아직도 따뜻한 눈시울을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자기 눈을 보기가 부끄러울거예요. 뻬따르, 나는 무엇인가 느껴지는것이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거예요. 녀자는 생각해보는것이 아니라 느껴본답니다. 녀자는 생각할줄 몰라요. 하기에 자기대로 살아가는거예요. 그러나

일단 누구를 사랑하면 그때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거예요.》
《조용하오. 목사가 오오.》
《당신은 나와 함께 남아있겠어요?》
《오늘밤에 당신에게 돌아오겠소.》
《안돼요.》
《조용하오, 라다.》
《싫어요! 그럼 결혼하지 말자요. 난 오늘로 과부가 되고싶지 않아요.》
목사가 그들의 옆에 멈춰서서 말하였다.
《성단소로 갑시다.》
라다는 움직이지 않았다.
《좋소.》웨지치는 이렇게 말하고 라다의 팔을 잡았다. 라다는 웨지치가 방금 이 회색눈의 젊은 목사에게 말한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대답한것임을 깨닫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목사는 온 얼굴에 병색이 돌고 바세도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대개가 그러하듯이 눈이 툭 불거져나온 선량해보이는 사람이였다.
라다는 얼음같이 찬 손으로 웨지치의 억센 손을 잡아 자기 입술에 가져다댔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 몸을 그에게 꼭 붙이고 서있었다. 웨지치는 이 순간 라다의 온몸을 그대로 느꼈으며 이러한 느낌과 함께 미르꼬위치, 로드이긴, 끄왈리치, 슈틀리쯔, 브지크를 보는것 같았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굳어진 마스크마냥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라다는 옆에서 걸어갔다. 그의 동색머리칼에서 노가주나무냄새가 풍겼다. 이 나무는 슈베니크근방의 무르테르섬에서 자라는데 5월초순이면 기묘하게 생긴 자주빛 순들이 함께 돋아나는것이다.
슈틀리쯔가 웨지치를 베오그라드로 떠나보낸지 한시간 지난 이른 아침 죤넨브로크가 그를 깨웠다.
《이거 정말 미안하오.》하고 죤넨브로크는 말하였다.
《잠들었댔소?》
《아니요, 춤을 추었소.》하고 슈틀리쯔는 볼이 부어 투덜댔다.
《무슨 일이요? 좀더 일찌기 올수 없었소? 그랬더라면 내가 자지 않았을텐데. 방금 누웠소.》
《성내지 마오. 우리들중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없구만.》죤넨브로

크는 라지오를 켜고 대답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말하는것은 몸에 깊이 밴 그의 습관이였다.
《당신에게 영어는 왜 필요하오?》
《포흐트가 나에게 영국, 미국사람들이 로씨야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는데 그 문제를 담당해볼것을 명령했소.》
《포흐트가 환상소설을 쓰려는게로구만.》
《그는 여기에 아무 관계도 없소. 이건 베를린의 명령이요.》
《무슨 일인지 좀 보여주오.》
《자, 이거요.》 죤넨브로크는 슈틀리쯔앞에 영어로 씌여진 종이장을 내놓았다.
《이건 어디서 났소?》
《사업해봐야겠소.》죤넨브로크는 거만하게 지껄여댔다. 《〈데일리메일〉지 기자 제임스 콜비의 글이요. 이런 기사는 단번에 두 주소로 날아갈거요. 편집국과 인텔리젠스 써비스에말이요.》
슈틀리쯔는 본문을 읽어보았다.
《정보원천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모스크바는 쯔웨뜨꼬위치정부가 꺼꾸러진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고있다고 한다. 나는 내무성에서 출판보도부의 한 책임적인 관리와 만났는데 그는 나에게 〈베오그라드가 있을수 있는 침략에 맞서겠는가 하는 문제는 다우닝거리, 백악관, 크레믈리 등이 베오그라드에 원조를 줄것을 담보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 사태는 베오그라드의 기대가 옳았는가 하는것을 보여줄것이라고 보아진다.》
《여기에는 이름을 인용한것이 없구만.》슈틀리쯔가 말했다. 《〈한 관리〉라고 했는데 이건 정보가 아니요.》
《〈한 책임적인 관리〉라고 했소.》죤넨브로크가 정확히 주를 달았다. 《게다가 그 사람이 출판보도부의 관리라는것도 명백치 않소. 우리가 그 사람을 확인해보고 그의 주위사람들과 사업을 벌려보자는거요. 그런 다음에 그를 우리 리해관계에 끌어들이잔말이요. 그 콜비라는 기자가 영국과 미국이 로씨야와 결탁할수 있다는것을 암시했소. 그러고보면 베를린에서 우리에게 묻고있는것이 우연하지 않소. 포흐트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매우 중요하오.〉라고 말했소.》
마치 그 누가 이 며칠동안 슈틀리쯔가 줄곧 고심하고있는 문제에 대답해주기라도 하듯 단번에 해결되였다. 이전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즉시 포착하기 위하여 며칠밤을 새워가며 모대기였었다. 그러나 해가 감에 따라 그는 성급한 대답을 요구하면서 두뇌를 혹사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진리에는 각이한 길로 도달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로 되는가 하는것은 많은 경우 결심의 정확성에 달려있는것이다.

죤넨브로크가 가져온 자료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아 중요한것이였다. 첫째로 영국, 미국사람들과의 접촉이 정말 정상화되였다면 그것은 축하할만한 일이다. 히틀러는 오직 힘만 믿고있으며 다른것은 그 무엇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접촉이 없다면 본부는 이런 정보가 누구한테서 제기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세밀히 연구할것이다. 도이췰란드놈들은 제3자를 통하여 까다롭고 복잡한, 그러면서도 어떤 의미에서인가 자기들에게 유익한 가짜정보를 퍼뜨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사람들은 오늘의 복잡한 유고슬라비아정세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시험적으로 공을 굴려보고있다. 둘째로 베를린에서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토의되였다는것은 조국을 반대하는 전쟁이 준비되고있다고 본 슈틀리쯔의 확신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었다. 만일 그렇다면 모스크바, 런던, 워싱톤사이에 접촉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도와줄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로 죤넨브로크의 이 자료는 슈틀리쯔의 구체적인 사업을 도와줄것이다.

웨젠마이어는 웨지치와 사업할데 대한 어려운 과업을 맡기였다. 이것은 슈틀리쯔자신이 맡은 과업이였다. 그는 얼마간 가능성을 잘못 타산했었다. 결심은 그가 내렸는데 뜻밖에 죤넨브로크가 로씨야와 영국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있다고 한 포흐트의 말을 전하는것으로써 이에 답변을 준것이다.

슈틀리쯔는 찬물로 샤와를 하고나서 옷을 입고 귤물을 마시였다. 그리고는 휑뎅그렁한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의 생각같아서는 지금 웨지치가 베오그라드에서 돌아오다가 로씨야—영국사이의 접촉과 관련한 특별히 중요한 자료를 전해줄것 같았다. 쉘렌베르그에게 보내는 보고에 리용할수 있는 《후보자》들을 고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의해야 했다. 정보제공자들은 외교계나 혹은 총참모부의 고위급장교들과 련계가 있는 신중한 사람들이여야 했다. 이리하여 웨지치는 슈틀리쯔의 특별히 귀중한 정보원으로 될것이다. 그는 쉘렌베르그의 강력한 기구의 보호를 받을것이다. 많은것을 알고있고 도이

췰란드제국을 협력할 준비가 되여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다. 슈틀리쯔는 이 통보가 어느 정도 베를린을 긴장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쟁은 두 전선에서 벌어질수 있었다. 히틀러와 같은 그런 광신자조차도 이런 모험은 하려고 안할것이다.

그에게는 두번째 통보가 웨지치와 관련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였다. 그는 전쟁의 위협이 드리워있는 자기 조국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늘 고통스러운 무력감을 느꼈다.

일손이 날랜 사람은 일을 두몫 한다

《본부 앞. 웨젠마이어는 마체크와 접촉하고있다. 이 접촉은 로마에 엄밀히 비밀로 되고있다. 웨젠마이어는 마체크의 주되는 적수들인 흐르바쯔까파쑈조직대표들과도 만났다. 이딸리아출판담당서기관 카스미니와 담화하는 과정에 나는 외교기관과 비밀기관들이 자그레브정세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카스미니의 말에 의하면 자그레브정세는 3국동맹성원국들의 방임상태에 있다고 한다. 카스미니는 자기 말에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는가 하는것을 알아내려고 정세가 방임상태에 있다는 말을 한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웨젠마이어가 진행한 담화에 대하여 알려줄수 있었으나 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유쓰따쓰.》

슈틀리쯔의 이 짤막한 정보는 매우 복잡한 련쇄반응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이 발생했다. 정치적연극은 효력을 나타내면서 그에 상응하게 실책을 범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상 연극이 아니라 신중한 과학이였다. 이 과학은 시험할 필요조차 없는것이 특징적이였다.

《베를린. 외무성. 폰 립벤트롭프 귀하.

나의 친애하는 상각하!

우리들사이에는 모든것을 서로 터놓고 허심하게 때로는 공정하게 이야기할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있는만큼 나는 이 전통에 따라 나를 불안케 하는 이러저러한 의견을 나누고저 합니다. 내가 우리들사

이의 관계에서 균형을 보장해줄수 있는 대책을 취할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필요한 대책을 취하는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두번째 발을 놓을 자리를 봐야 하겠으니까요.

내가 알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신의 수하에 있는 일군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당신께서도 알고계시겠지만 가장 심중한 사업은 당신의 사람들에 의하여 흐르바쯔까에서 진행되고있는데 흐르바쯔까로 말하면 이딸리아수상과 도이췰란드총통사이의 회담결과에 이딸리아의 리익권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의 고문들이 진행하고있는 사업에 대하여 로마주재 도이췰란드대사로부터 알게 된것이 아니라 자그레브에 있는 나의 통보자들로부터 알게 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기의 어느 한 대리인에게 가장 가까운 앞날 흐르바쯔까에서 벌어지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그레브에서 활동하고있는 전문가들에게 해설해주도록 한다면 그들이 마체크와 진행하고있는 공작이 더 큰 리득을 가져다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도이췰란드뿐만아니라 이딸리아의 리익 다시말하여 두 나라의 리익을 고려하고있기때문입니다.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친선은 새 유럽의 기본토대로 되고있습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당신의 치아노로부터》

…도이췰란드외무상 립벤트롭프는 책상에서 물러나 성이 독같이 오른 얼굴로 자기 대리인 와이쯔제커를 쳐다보았다.

《이건 뭐요, 엉?! 이 아끼로니료리같은자는 자기 군대가 알바니아사람들, 그리스사람들, 아비시니아사람들을 후려갈겼는데 감히 〈기본토대〉에 대하여 쓰고있소. 다만 총통의 선의만이 나로 하여금 이 멋진 사나이와 이야기할 때 례절을 지키게 하고있소. 아마 그 이딸리아형식주의자들이 웨젠마이어에 대하여 뭔가 알아가지고 흐르바쯔까에서 진행되고있는 우리 공작에 대하여 혀바닥을 놀리고있는것 같소. 마체크는 앉아서 기다리고있을대신 놀라서 베오그라드에 뛰여갔소. 아직은 씨모비치가 마체크로 하여금 자그레브에서 우리를 쫓아내게 하고 빨갱이들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게 하기까지는 안되였소. 친구들과 동맹자들로부터만 나를 구원해주면 적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해내겠소!》

립벤트롭프는 창문가에 서서 뚝 삐여져나온 이마를 지그시 유리창

에 붙이고있다가 한참후 자기 책상으로 돌아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답전을 준비하시오. 될수록 친절하게 써야겠소. 저녁에 내가 수표하겠소.》

와이쯔제커가 물러가자 립벤트롭프는 이것이 아무리 이상하다 해도 이딸리아외무상 치아노의 편지가 마체크에게 중요한 기대를 걸고있는 로젠베르그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자기 손에 쥐여진 주패목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로젠베르그의 사람이, 참, 그의 이름이 뭐라든가? 슬라브사람들의 이름처럼 이상하게 들리였는데… 말레트케? 그래, 말레트케지. 그 사람이 자그레브에서 놀라서 펄쩍 뛰게 하라지. 그와 함께 로젠베르그도 총통이 《진실하고 전통적인 도이췰란드—이딸리아친선》에 방해를 놀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있다고 꾸짖을 때 놀라서 한길이나 뛸것이다.)

《웨젠마이어 앞.

마체크와의 접촉을 중지하라. 그는 오물단지이지 정치가가 아니다. 흐르바쯔까파쑈조직과도 련계를 끊으라. 그대신 흐르바쯔까파쑈조직과 련결되여있는 마체크의 당조직성원들과 접촉하는데 주의를 집중하라. 앞으로도 실천적으로 우리의 로선을 지어는 그것이 다소 마체크의 로선과 모순된다하더라도 우리의 로선을 실현할 능력이 있으면 그들과의 접촉에 력량을 집중하라. 도이췰란드제국에서 파견된 다른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것을 방해하지 말라. 너의 그루빠는 새로운 환경에 복종해야 한다. 새 흐르바쯔까의 지도적 및 핵심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인물들을 선발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일 히틀러!

립벤트롭프》

이 암호문을 받기 몇시간전에 웨젠마이어는 얀끄 제프의 그루빠와 테르쪠고 미나, 보스니아에서 온 그의 방조자들이 제공한 정보자료들을 연구하였다. 포흐트는 웨젠마이어에게 자기 사람들이 자그레브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하였다.

웨젠마이어는 립벤트롭프의 전보를 받기전에 벌써 마체크가 정세가 완전히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것이라는것을 알았다. 따라서 로젠베르그가 말한것처럼 마체크에 의거하는 문제와 그리고 흐르바쯔까두령을 민족사회당 대외정책부와 직접적으로 련결

시킬 임무를 지닌 말레트케의 사명은 깨진 사발이나 다름없게 되였다. 웨젠마이어는 마체크가 말레트케와 만난 후 베오그라드로 떠나갔다는것을 알았을 때 벌써 이것을 깨달았다.
웨젠마이어는 자기가 외무성만을 대표하고 또 말레트케가 하이드리흐의 사람이였다면 조성된 정황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하는것을 오래동안 심사숙고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로젠베르그가 그를 담화에 불렀을 때 흐르바쯔까파쑈조직에 의거하는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웨젠마이어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즉시에 결심하고 말았었다. 립벤트롭프의 담화문은 그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을 할수 있게 하여주었다.
그는 마체크와의 공작에서 실패하였다. 이 실패가 말레트케의 죄로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제때에 손을 씻고 나앉아야 한다. 중요한것은 몇주일, 몇달, 몇년이 지난 후 자기, 웨젠마이어에게 마체크에 대하여 상기시키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하나 흐르바쯔까두령과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는 어려울것이다. 그가 베오그라드로 떠난것을 감추지 못하듯이…
…웨젠마이어는 말레트케를 점심식사에 초청하여 그와 만났다.
《나는 당신에게 새 소식을 통보하여주려고 하오.》 웨젠마이어의 말이였다. 《나는 여기서 몇사람과 함께 일하고있지만 당신은 혼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있는 자료들이 당신의 자료보다 어딘가 범위가 큰것 같은 생각이 드오.》
《친애하는 웨젠마이어, 매우 친절한 말씀입니다.》
《나한테 들어온 그 자료들은 오직 마체크에게 드센 압력을 들이대야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소.》
《나는 당신이 오산할것 같아 두렵습니다. 마체크가 베오그라드로 떠나갈것을 결심한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씨모비치정부에 들어갈것 같습니다. 그는 회담을 위해 떠나간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내 통보는 이 문제에서 매우 믿음성있는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웨젠마이어는 곱씹어 말했다.《나는 그가 아직 완전히 절망했다고 보지 않소. 완강성을 발휘해보오.그리고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려보란말이요.》

《그러면 문을 가리키며 나를 보고 나가라고 말할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흐르바쯔까파쑈조직에 의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끼를 물었군.) 웨젠마이어는 깨달았다.
(그는 빠벨리치에게 매달리고있다. 이제 정확히 그리고 더 비싸게 사상을 팔아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믿을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이 된다. 자, 말레트케,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라. 너는 꾀를 부리지만 실패하고 말것이다.)
《친애하는 말레트케, 무쏠리니는 우리에게 흐르바쯔까파쑈조직을 넘겨주지 않을거요. 나는 총통이 흐르바쯔까에서 세력권을 가지고 무쏠리니와 충돌하려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오. 나도 한때 흐르바쯔까파쑈조직과 이러저러한 접촉을 가졌댔소. 빠벨리치는 모든데서 로마를 쳐다보고있소. 나와 그리고 나의 일군들이 당신에게 어떤 방조를 줄수 있을것 같소?》
《웨젠마이어씨, 난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중에서 누가 혹시 디쯔가 그렇게 하든지, 당신을 위해서 마체크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자료를 준비할수 있을거요.》
《그렇게 하는것이 현명한 생각일가요.》 말레트케는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성을 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여기서 주인이니까요.》
《그가 오래갈것 같소?》
《그건 중요치 않지요. 여하간 그는 지금 소동을 피울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 어떤 소동도 피우지 않도록 억제할수 있는 수단이 있소. 〈북을 치고 겁을 먹지 말라.〉 이 말을 하이네가 아니라 쉴러가 했더라면 좋았을거요. 그러나 력사는 고칠수 없소. 모든 일에서 나를 념두에 두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때건 나를 찾아와도 좋소.》
(이마로 계속 마체크의 집대문을 받도록 만들어놓자.)
웨젠마이어는 접대원이 말레트케앞에 에스키모그릇을 놓는것을 보며 생각하였다. 여기서는 과실제품을 잊어버리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제일 좋은것은 쵸콜레트와 와닐라제품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만일 그가 모든 면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거대한 승리를 달성할것

이다. 슈틀리쯔의 말이 옳다. 여기에서 형식상 어떤 정치가가 권력을 잡고있든 우리가 정세의 주인으로 되자면 우리 사람들을 더 많이 인입하여야 한다.)
《나의 일군들도 역시 당신의 통제하에 두겠소.》하고 웨젠마이어는 덧붙였다.
《오직 민족사회주의자만이 이렇게 진실한 동지애를 가질수 있을겁니다.》
말레트케는 에스키모를 마저 먹고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옳게 말했소.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승리를 이룩하고있는것이요. 에스키모를 더 들지 않겠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로젠베르그가 마체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진행할데 대한 활동방향을 주었소?》하고 웨젠마이어가 물었다.
《예.》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흐르바쯔까파쑈조직파의 사업을 개시할것을 결심했소?》
《그렇습니다.》말레트케가 대답했다. 《이건 저의 발기입니다.》
《모험적이요. 나는 당신이 걱정스럽소. 베를린에서 잘못 리해할수 있소.》
《결국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는것보다 하는것이 낫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당신이 저를 도와줄것이니 제가 물론 마체크에 대하여 공세를 계속 들이대겠습니다. 헌데 당신이 여기서 맡은 과업은 무엇입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사업이요. 외무성은 전반적인 정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소.》
《그들은 흐르바쯔까파쑈조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까?》
말레트케는 아무 생각없이 되물었다.
(미끼를 물었구나.) 웨젠마이어는 다시금 이렇게 생각했다.
(그에게는 자기의 통보자들이 있다. 그는 내가 흐르바쯔까파쑈조직과 련계를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알고있다. 그는 흐르바쯔까파쑈조직을 미끼로 물었다.)
《흐르바쯔까파쑈조직에 대하여서도 역시 관심을 돌리고있소.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 대표들과 만날수 있도록 해주지.》

《내가 어찌 그런 청으로 자꾸 당신을 괴롭히겠습니까. 극단한 경우에는 내가 할수도 있습니다.》
말레트케는 무엇이나 기대하고있었지만 이것만은 기대하지 않던것이였다. 그는 흐르바쯔까에 도이췰란드제국이 의거할수 있는 두 력량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만일 베를린을 따라갈것을 동의하면 마체크를 그 하나의 력량으로 볼수 있고 다른 하나의 력량은 마체크가 맹목적으로 베를린으로 따라가기를 거절하는 경우 흐르바쯔까파쑈조직을 그렇게 볼수 있었다. 웨젠마이어는 마체크와의 사업을 계속할것을 꾸준하게 권고하였다. 말레트케는 그가 자기를 적수의 타격에 밀어넣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웨젠마이어는 그에게 두번째 력량도 넘겨줄것을 동의하였는데 이것은 말레트케가 예견치 않았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에스키모 다음에 들어온 커피잔을 앞에 놓고 뜨거운 눈시울로 웨젠마이어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그는 민족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는 벗의 허심하고 고마운 얼굴을 알아보았던것이다.
《슈틀리쯔가 어디 있소?》웨젠마이어는 말레트케를 바래우며 포흐트에게 물었다. 《지금 나한테 그가 당장 필요한데.》
《상면하러 갔습니다. 아마 자그레브밖으로 나간것 같습니다.》
《누가 그에게 자그레브를 떠나는것을 허락했소?》
《베를린의 지시지요.》
《누구한테서 온 지시요?》
《하이드리흐에게서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높은 보호자가 있구만. 슈틀리쯔한테말이요. 그렇지 않소, 포흐트? 돌아오면 즉시 나한테 보내주시오. 나는 혼자 있는것이 아니라 웨지치와 함께 있소. 슈틀리쯔가 5시경에라도 나한테 왔으면 좋겠소. 약속한것처럼 저녁식사때 오지 말고.》

《총통각하!
우리 외무상은 현재 흐르바쯔까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도이췰란드외무상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립벤트롭프에 의하여 그것이 사실상 일축되였다고 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립벤트롭프가 치아노에게 보낸 회답서한은 매우 애매몽롱하고 그것은 제3국들에 그가 보내고 있는 각서와 류사하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들사이에 세력권 구분에 관한 합의가 이미 결정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쓰르비아는 도이췰란드

제국에 의해 강점된 령토로 되여야 하며 류블랴나와 마리보로지역은 예로부터 우리 령토로서 자기 조국과 통합되여 이딸리아의 한 부분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바쯔까독립국가는 그 어떤 완충적인 민족기구로 될것인바 그것의 도움으로 쓰르비아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유고슬라비아와 린접한 령토에 대한 통제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그레브에서 활동하고있는 에쓰에쓰대좌 웨젠마이어의 그루빠는 우리들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직접적으로 배치되게 사업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웨젠마이어와 그의 그루빠는 우리 대표들과 자기들의 활동을 협의하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사업은 도이췰란드측의 특권으로 되고있으며 이딸리아동맹국은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하고있습니다.

나는 대 헬웨쯔(고대로마시기의 알프스지방)에 대하여 추억을 더듬어봅니다. 위대한 친선동맹은 만일 그것이 자기 리익과 공명심, 기타 이와 류사한 의도에서 맺어진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쌍방간에 동일한 사상과 감정을 전제로 하는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네가 나를 보고 누구와 가까운가고 물으면 나는 너와 가깝다고 말할것이다.〉라는 격언을 낳았습니다. 나는 친구들속에서 혹은 교형리의 고문을 받으면서도 총통의 사상은 나에게 친근하며 그것은 나의 사상과 동일하다고 말할것입니다. 총통각하, 나는 당신도 응당 나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도함을 높은 영예로 생각하고있는 그 운동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웨젠마이어를 움직이게 한것이 사리사욕이나 명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단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지나친 욕망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가의 수위에 서있는 당신이 새 유럽에 입힐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매듭들을 일일이 기억해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용감하고 정직한 정치가로서 진실로 존경을 품고 대하고있는 립벤트롭프에게 〈임무수행은 사람에게 영광을 안겨준다. 그 영광에서 얻어지는 리득은 있을수 있는 적에게서 입은 손해보다 더 크다.〉라고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해당 일군들에게 도이췰란드제국에서 채택된 결정을 우리 외무상 치아노에게 통보해줄데 대하여 지시를 줄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딸리아수상, 파시즘의 령수 베니또 무쏠리니.》

《수상각하!
나는 관방실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준 후 밤늦게야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는 이 자료에 기초하여 당신에게 상세히 그리고 매우 진실하게 대답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우리들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특별히 좋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밤의 불안한 정적에 귀를 기울이며 이 편지를 쓰고있습니다. 나는 누가 누구를 오해시키고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나는 아래사람들과 그리고 주위사람들을 믿어야 하는것이 우리 령수들의 괴로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당신을 오해시킨것 같은 인상을 받고있습니다. 자그레브에서 웨젠마이어의 사명은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민족간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흐르바쯔까국가를 창건하는 오직 하나의 임무를 실행하는것뿐입니다. 그 〈민족간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수단〉은 대내외정책에서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상화에 기초하여 세워진 우리 제도와 류사한 정책을 지향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안떼 빠벨리치가 흐르바쯔까수반으로 선포되여야 하며 그의 흐르바쯔까파쑈조직이 귀하의 〈검은 샤쯔〉친위대, 우리 나라에서의 당의 호위대 다시말하여 에쓰에쓰와 비슷한 부대들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수상, 흐르바쯔까에서 특수한 〈도이칠란드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또 이야기되고있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되고있는것은 〈작전－25〉의 개시를 앞두고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더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해결하자는것입니다. 문제는 도이칠란드군대와 이딸리아군대가 들어갈 때 자동총련발사격으로써가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맞이할 〈믿음직한〉사람들로 적의 후방을 꾸리자는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평범한 외무성관리인 웨젠마이어의 임무가 있을뿐입니다. 이것뿐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흐르바쯔까에 도이칠란드의 리익을 대변하는 운동을 조직하며 남슬라브문제에서 이딸리아의 역할을 무시할수 있는 운동을 조직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될수도 없는것입니다.
허나 나의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만일 지금 웨젠마이어의 활동을 귀하의 해당 기관들의 활동과 통일시키면 당면한 깜빠니야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잃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서면으로 확인한 모든것이 신성하게 준수될것이라는데 대하여 당신에게 확언하는바입니다. 귀하의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전민족적파시즘운동의 리익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서한을 중국의 유명한 유교학자의 말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유익한 친구 셋이 생기면 해로운 친구도 셋이 생긴다. 유익한 친구란 가식이 없고 진실하고 말이 적은 친구를 말한다. 해로운 친구란 위선적이고 아부아첨하고 수다스러운 친구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의는 우리들을 이 마지막 세 〈친구〉들로부터 보호해주었습니다. 귀하에게 가장 열렬한 인사를 보내면서.

진실한 귀하의 아돌프 히틀러.》

외무상 립벤트롭프는 총통으로부터 공작을 서툴게 위장했을뿐만아니라 일을 되는대로 하고 경각성을 높이지 않은데 대하여 꾸중을 들었다. 꾸지람은 립벤트롭프에 의하여 훨씬 더 보태지여 웨젠마이어에게 들씌워졌다. 외무상은 새로 보내온 암호문에서 자기자신을 질책하면서 마체크건 빠벨리치건 관계를 일체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사업을 군사적측면에 집중할것을 지시하였다. 암호문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었다.

《고위급 정치령역에는 머리를 들이밀지 말라. 자기 위치를 알고있으라. 너는 쥬피터(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최고신)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황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지시받은것만 집행할것을 명령한다!》

립벤트롭프는 웨젠마이어에게 직접 제기된 상황을 설명해주고 앞으로 정보교환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그레브주재 이딸리아령사와 속히 접촉할것을 요구하였다.

웨젠마이어는 투덜거리며 이딸리아령사관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서는 고비령사가 국경쪽으로 떠나갔는데 오늘 이딸리아공민들을 싣고 유고슬라비아를 떠나간 려객선을 기다리며 피우마에서 하루밤 묵을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웨젠마이어는 피우마로 속히 떠나기 위해 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흐르바쯔까총독 슈바쉬치의 해당 기관과 사전에 아무런 장애없이 그쪽으로 통과시켜줄것을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그가 기다렸던 웨지치와의 저녁식사도, 웨젠마이어가 미래의 흐르바쯔까군 총참모장 재목감으로 점찍어둔 마리안 돌란스크

와의 담화도 더는 그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앉으며 포흐트에게
《이제부터 공개된 접촉들은 일체 끊어버리고 우리의 위신을 저락시킨자들을 고립시켜버리시오.》라고 말하였다.
웨젠마이어는 운전사에게 어느 길을 통해 이딸리아국경으로 가야한다는것을 알려주기전에 차안에서 잠시 생각을 더듬어보며 《흐르바쯔까문제》에서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그려보았다. 립벤트롭프가 보낸 마지막 암호문을 받은 후 그를 사로잡았던 분노는 공포로 변하였다. 그에게 여기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들씌울수 있었다. 그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수 있었다. 귀신이나 슬라브사람들과 숨박꼭질을 놀아야지 그의 론리를 가진 아리아사람이 놀아서야 되겠는가. 아니다. 자기, 웨젠마이어에게서 흐르바쯔까를 인계받고싶지 않아하는 립벤트롭프에게 성을 낼 권리가 없다. 총체적으로 정치에서는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죽음과 수치를 배태하고 있는것이다. 정치—이것은 체육경기, 싸움과 같은것이다. 체육에서는 경기에서 이긴 륙상선수와 력기선수에게만 메달을 수여하는것이다. 패한 선수에 대해서는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허나 정치에서 패한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 완전히 육체적으로 사라져버리는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웨젠마이어는 사라지고싶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범한 과오에 대하여 책임지고싶지 않았다. 그는 살아서 자기의 《나》를 느끼고싶었다. 이것을 위하여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나드비스꾸쁘대주교궁전으로 가기요.》
웨젠마이어는 갑자기 운전사에게 지시했다.
《어느 가까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오. 카프톨을 지나 우로 올라가다가 오빠치카쪽으로 돌아서 어느곳에 서있소. 거기서 내가 찾겠소. 광장에 차를 세워두어서는 안되오.》
비록 마체크로부터 웨젠마이어의 그루빠가 전적으로 안전하게 공작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여기는 베오그라드와 달리 아무런 사건도 있을수 없다는 담보를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웨젠마이어는 언제 어디서나 《조금이라도 목숨을 내걸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운명에 의해 미리 결정지어져있다. 그것을 반대해야 무의미한짓이다. 외교관과 첩보일군은 파멸될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그는 다시 일어설 욕망만 있으면 절망할 권리가 없다.》라는 규칙을 따랐다.

웨젠마이어는 《마이바흐》가 자그레브대주교 알로이즈 쓰쩨삐나쯔의 소박한 수도원을 둘러싼 벽뒤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묵직한 문손잡이를 밀었다. 그는 영화들에서 흔히 본 중세기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삐—익 하고 둔중한 금속소리가 길게 울릴줄 알았는데 문은 소리없이 가볍게 열리였다.

검은 옷차림의 그리 크지 않은 젊은이가 그를 마중하여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웨젠마이어가 말하였다.

《나는 알로이즈신부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알로이즈신부님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당신을 맞이할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참회를 해야겠으면 내가 당신과 함께 대사원으로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게다가 온밤을 참회해야 할것 같습니다. 4시간후에는 피우마에 도착해야 합니다. 알로이즈대주교에게 도이췰란드외무상 고문 웨젠마이어가 접견을 요청한다고 보고해주십시오.》

청년은 웨젠마이어의 준수한 몸매와 리지적인 그의 얼굴을 훑어보고나서 머리를 약간 숙이며 말하였다.

《좋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잠간 앉아계십시오.》

청년은 소리없이 물러갔다. 웨젠마이어는 딱딱한 쏘파에 앉아 향긋한 향냄새, 성대하고 화려한 첫 성찬냄새를 맡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자기가 나치스당에 들어간 후 랭담하고 슬픔이 어린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던 어머니를 그려보았다.

《우리 온 가족은 교회에 충실해왔다.》

어머니가 한 말이였다.

《그런데 너는 새로운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을 배척해버렸다. 나는 히틀러의 저조한 말버릇과 례절없는 행동, 지나친 광증을 허용할수 있지만 히틀러의 예언자로 되기를 거절한 예수의 숭배자들을 체포하는것만은 용서할수 없다.》

웨젠마이어는 이 모든것이 림시적이며 과도적인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설명하였다. 그는 교인들을 체포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바티칸과는 리탈되지 않는 새로운 운동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예수를 반대한다고 한 나치스분자들의 말은 이 땅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불행한 도이췰란드사람들에 대해서만 생각

하고있는 새로운 구세주, 위대한 총통의 주위에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것이였다고 어머니를 설복하려고 했다.
《그래서는 안된다. —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 다른 사람들의 불행의 대가로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에드문드야, 그러한 행동은 어느때 그 누구에게도 성공을 가져다줄수 없다. 너는 죄와 악의 길에 들어섰다. 나는 어머니로서 그러한 행동에 동의할수 없다.》
《알로이즈대주교님이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청년은 조용히 말하였다. 웨젠마이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몸을 떨었다. 젊은 신부가 소리없이 들어와 문턱에 서있었던것이다. 검은 법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아득히 흘러간 어린 시절과 청춘시절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 시절 그에게는 신부와 함께 이른아침 교회당에 들어가 달콤한 풍금소리와 높다란 홀에 장중하게 울리는 웅글은 목소리를 듣는것보다 더 행복한것은 없었다. 홀의 벽들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공포로부터 사람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해줄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알로이즈대주교님.》
웨젠마이어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이 이처럼 맞아주신데 대하여 감사…》
《앉으시오.》
쓰쩨삐나쯔는 그의 말을 중동무이했다.
《아니요, 아니요. 이 쏘파에 앉으시오. 이건 손님용이요. 다른것들처럼 그리 딱딱하지 않소.》
쓰쩨삐나쯔의 얼굴은 약간 길쑥하고 젊어보였다. 회색눈은 그 얼굴에서 다른 사람의 눈같이 보였다. 눈은 랭랭해보이기는 했으나 생기있고 민첩하게 돌아갔다.
쓰쩨삐나쯔는 성격상 특질로 보면 시골사람같았다. 한때 그는 벼슬할 꿈으로 모대긴적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군인으로서 출세해보려는 공상도 해보았었다. 바티칸에서는 그의 정신적기질로 보아 세계적인 인간으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외교관이나 정치인으로 되는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열렬한 론쟁자로, 배우로, 웅변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왔다. 이야기상대자와 호흡을 맞출줄 아는 능력과 낯선 사람과 교제할 때 자기 교제방법을 강요하는 그 수완을 바티칸은 세속적인 번잡한 행동으로, 정신적품위

를 낮추는 부족점으로 보았다.
《알로이즈대주교님, 나는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
《그렇지 않소.》
쓰쩨삐나쯔는 또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희망의 단일성은 사도들과 성자들의 숙명이요. 당신은 속세의 사람이요. 당신들에게는 희망과 사색과 구상에서 무한한 자유가 펼쳐져있소.》
《저의 어머니는 제가 교회 복무자로 될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당신이 하느님에게 복무하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걸 그랬소.》
《그렇습니까? 왜서말입니까?》
웨젠마이어는 이처럼 확신성있는 대답에 놀랐다.
《당신은 이악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믿고있는 거기에 복무할줄 알기때문이요.》
《신성한 교회당이 속세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문건을 만들고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세계가 오래전에 교회의 세계를 눌러버렸을거요.》
《그럴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비종교적인 세계는, 파멸적이고 저렬한 인간들의 열정은 오직 신성한 교회만이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이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정의 수단으로서 교회에 흥미를 가지고있소? 당신은 교회에 정신적헌병의 역할을 주입시키려는거요?》
《그럼 당신은 자기의 위력으로써 무신론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는 세속정권의 위력에 대하여서는 흥미를 가지지 않는가요?》
《당신은 누구를 념두에 두고있소?》
《나는 공개적으로 신성한 교회를 반대하는 투쟁을 선포한 로씨야를 념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도 나의 신의 교리와 그의 복무자들을 반대하고있지 않소.》
《그건 완전히 그런것이 아닙니다. 알로이즈대주교님, 완전히 그런것이 아닙니다. 베를린은 총통의 사상에 대하여 자기의 적의를 감추지 않는자들, 다시말하여…》
웨젠마이어는 쓰쩨삐나쯔가 다시 말을 끊을것 같아 저어하듯 급하

게 엮어댔다.
《지금 전도이췰란드민족을 틀어잡고있는 그 사상을 적대시하는자들을 반대하고있습니다.》
《당신도 알고있는것처럼 나는 나의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소. 나의 민족은 예수의 교리와 즉위식에서 로마법왕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황제의 신념을 따르고있소.》
《대주교님은 흐르바쯔까사람들을 념두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말이요? 나는 불행한 유고슬라비아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을 념두에 두었소. 그들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정교를 받아들였소. 이것은 쓰르비아사람들의 죄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의 불행이요.》
《그것 보십시오.》
웨젠마이어는 단번에 주교의 속대사를 알아맞히고 말하였다.
《그런즉 대주교님에게는 할수없이 그리스정교를 받아들인 방랑아들을 신성한 카톨릭교의 품안으로 돌려보내게 해줄수 있는 강력한 세속정권이 필요되는것입니다.》
《로이올라의 시기는 지나갔소. 그 천재자신이 이 세속세계의 류형살이를 무섭게 겪은 사람이였소. 그의 말을 하는건 오늘 류행이 못되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량자간에 서론은 명백해졌으니까.》
《대주교님의 의견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웨젠마이어는 주교의 말에 수긍했다.
《나의 전우들이 그런 운명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어떤 담보를 줄수 있소? 도이췰란드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담보할수 있겠소?》
《티쏘가 담보해줄수 있습니다.》
《뭐요?》
《주교 티쏘의 이름을 알고계십니까?》
《난 당신의 말을 인차 리해할수 없구만. 당신은 너무도 불의에 이야기론조를 흐트러뜨렸소. 나는 티쏘를 알고있소. 나는 바티칸에서 그와 만난적이 있소.》
《제가 티쏘에게 민족의 거장으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알로이즈대주교님, 그와 련계를 가지십시오. 대주교님도 전민족적인

소식을 받게 될겁니다. 도이췰란드제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은 우리 내부문제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단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중재재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인 유태사람들을 만들어내는거나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도이췰란드제국밖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자기 민족의 운명, 자기 교도들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 교회의 주교들과 협력할뿐만아니라 그들을 지원해줄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확정적이요?》

웨젠마이어는 담배곽을 꺼냈다가 얼마간 당황해하며 얼른 집어넣었다. 쓰쩨뻬나쯔는 웨젠마이어의 눈에 비낀 그 놀라움을 알아보았다. 순간이 지나자 웨젠마이어의 얼굴은 다시 평온해졌다.

《대주교님은 정치가들처럼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치가와 이야기하고있지 않소.》

《대주교님은 외교관과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외교관들은 땅을 파헤치기만 하고 씨는 정치가들이 뿌리지요.》

《내 생각에는 땅은 첩보일군들이 파고 씨는 외교관들이 뿌리는것 같소. 그리고 열매는 정치인들이 따먹고…》

《알로이즈대주교님, 당신은 하느님에 대한 복무를 속세의 일에 대한 복무로 바꾼다면 미래의 흐르바쯔까령수로 될것 같습니다.》

《속세의 가치를 종교세계의 가치와 비교할수 있단말이요?》

《할수 있지요.》

웨젠마이어는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대주교님, 우리 시대 속세의 령수들은 사람들의 육체적지배자일뿐만아니라 정신적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거의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그레브에서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앞날에.》

《전쟁이 6일에 일어나오?》

웨젠마이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누가 새 흐르바쯔까의 세속령수로 될것 같소? 빠벨리치?》

《그럴수도 있지요.》

《빠벨리치라.》

쓰쩨뻬나쯔는 혼자말로 곱씹었다.

《더이상 누가 할 사람도 없지. 게다가 이딸리아수상이 이미 그에게 이 자리를 약속도 했고…》

(바로 그래서 립벤트롭프가 아스팔트바닥에 주저앉은 신세가 되였구나.— 웨젠마이어는 깨달았다. —대주교는 이딸리아에서 통보를 받았다. 립벤트롭프가 성이 독같이 오른 수수께끼가 여기서 풀렸다. 그들이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하여 냄새맡은게 분명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웨젠마이어는 그 사실자체를 알고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다는것을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주교님, 또 빠벨리치는 다른 사람과 지도권을 나누려고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분렬하여 통치하라.〉그런 의도인가?》
쓰쩨삐나쯔는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 참회승의 훈시를 따르기로 결심했댔소?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복잡한 일이 제기되면 내가 꼭 당신의 친절한 충고를 받도록 하겠소.》
《알로이즈대주교님, 나는 어떤 충고도 당신에게 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속합시다. 대주교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지어 그것이 가장 시시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방조를 요구하십시오. 즉시 전면적인 방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그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소?》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에게 전권을 위임할수 있소?》
《총통입니다.》
웨젠마이어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는 달리 대답할수 없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는 지금 립벤트롭프의 패배를 자기, 웨젠마이어의 승리로 전환시켜 전반적인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총통은 외교관들이나 첩보일군들의 놀음과 관련된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어한다. 그는 흐르바쯔까에서 도이췰란드군대를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쓰쩨삐나쯔가 군대를 맞이할것이다. 그는 친그리스정교 야만들에게 팔리운 모든 예수의 방랑아들을 카톨릭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줄 그 사람들의 도착을 높이 찬양할것이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쓰쩨삐나쯔가 말하였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마체크, 슈바쉬치, 기타 선행자들과의 담화

에 그처럼 많은 시간을 돌리면서도 나와 만나려 하지 않은것이 놀라왔소. 나는 당신이 왜 이제야 찾아왔는가를 알고있소.》
《그렇다면 제가 모든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요.》
《그렇게 하오.》
《나는 대주교님이 친히 기도로써 도이췰란드군대의 자그레브입성을 축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싶습니다.》
《그런 행동이 베를린과 로마사이에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가?》
《만일 이런 행동이 없다면 나는 두말할것도 없이 일정한 정도로 마찰이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세속정권을 통해 주교에게 압력을 가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죄다 얘기한다면 로마가 제기된 사태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대주교님의 뒤에 바티칸과 베를린이 서있기때문입니다. 두 힘은 언제나 하나의 힘보다 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네 군대가 흐르바쯔까에 머물러있게 되오?》
《이러저러한 형태로 남아있게 되지요.》
《당신네 군대가 쓰르비아광신자들의 만행으로부터 주교들의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소?》
《우리는 어떤 원조든지 다 주겠습니다. 알로이즈대주교님.》
《또 뭘 물을게 없소?》
《나는 대주교님이 친절하게…
안녕히 주무시오.》
쓰쩨삐나쯔는 먼저 딱딱한 쏘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편안히 다녀가시오. 행복을 바라오.》

령사관으로 돌아오자 웨젠마이어는 프레이트령사의 의혹에 찬 눈길에 아무 대답도 없이 거의 뛰다싶이 빠른 걸음으로 변신원들에게 올라가 베를린에 보내는 전보를 불러주었다.
그는 하이드리히와 로젠베르그에게 짤막한 두통의 전보를 보낸 다음 외무성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우마로 떠나갔다. 그는 뜻밖의 중요한 놀음을 재빨리 끝내고 선행한 자기의 모든 승리와 패배가 사실상 기본승리에 접근하기 위한것이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바다의 심연속에 깊이 도약하여 들어갈수록 밖으로 솟아올라 후—크게 숨을 내쉬며 푸르청청한 하늘의 해를 보는 그 순간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것이다. 지금 나는 해를 보았다.)

웨젠마이어는 대형《마이바흐》차의 한쪽구석에 좀더 편안하게 몸을 묻으며 생각하였다.
(이젠 내가 눈을 감고 졸수도 있다. 어머니가, 이전의 그 선량한 어머니가 꿈에 보이도록 해달라.)

일어날수 있는데도 누워있는것은 소심한 행동이다

다음날 웨지치는 라다에게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기로 약속하였다. 그는 라다에게 지금은 자기뿐만아니라 그들 두사람에게 위협으로 될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킬수 없었고 왕국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리우는 이 소란스러운 물건을 귀신한테 집어던질수도 없었으며 이즈음 자기가 겪은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잊을수가 없었다. 자기 량심앞에서 꼭 하여야만 했고 또 할수 있었던 일을 수행하려는 욕망과 나란히 그의 마음속에는 라다와 같이 떠나버리려는 열망이 자리잡고있었다.
웨지치는 자기에게 지워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그들에게서 이것이 늘 마음을 허빌것이라는것을 알았다. 즉 마음 한구석에는 늘 너는 할수 있는것도 하지 않았다, 네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십명의 사람들을 아니 수백명의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죽음에로 몰아넣었다 하는 생각이 살아서 숨쉴것이다. 밤중에 해를 볼수 없듯이 죽음우에 생겨난 사랑, 배신으로 얻어진 행복, 배반에서 생겨난 진실성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카프톨근방의 블라스크에 차를 세워놓고 웨지치는 시름없이 떠들썩하고 유쾌한 시장을 지나 걸어갔다. 희붉은 옷을 입은 녀자들과 검붉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법석 고아대며 상품을 팔고있었다. 여기에는 나무로 만든 세공품, 구쓸리(로씨야민족악기), 모직천에 수를 놓고 한쪽 어깨에 메게 되여있는 목동가방, 낡은 편상화, 치마, 바지, 손으로 지은 싼다루, 코가 뭉툭한 가죽구두, 은가락지, 달마찌아에서 가져온 금도금을 한 목걸이, 류블랴나의 두터

운 뜨개양말, 남새, 당콩, 마카로니, 랭동한 생물고기 등 없는것이 없었다. 웨지치는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섰다. 그는 한때 흥성거리던 이 상업거리가 이처럼 조용해진데 놀랐다. 상점들은 문이 열려있으나 진렬장들은 텅 비여있었다. 바닥에서 종이장들이 딩굴었다. 아마 간밤에 주인들이 집을 떠난것 같았다.

여기 구 자그레브의 중심부에는 선박사무소, 고급호텔, 보석상점들가운데 얀꼬 와이스펠드의 리발소가 기적같이 비비고 들어앉아있었다. 웨지치는 여기에 머리깎으러 오기를 좋아했다. 그는 수다쟁이 리발사령감과 물론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이야기를 듣군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구상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생각을 가다듬게 해주었다.

웨지치는 지금 와이스펠드의 옆에 앉아 머리를 곱게 빗어주고 얼굴이 미끈해지도록 안마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싶었다. 령감이 면도칼을 솜씨있게 놀려가며 수염을 미는동안 그는 마음을 안정할것이고 다음에는 보통때와 같은 모습으로 동료들속에 나타날것이다. 그는 지금 경찰국에 가지 않을수 없었다. 로드이긴이 그에게 체포된 케르쇼바니와 쩨싸레쯔에 대하여 이야기해준것이 있었던것이다. 보통때 그는 자기의 이 적수들에 대하여 궁지를 가지였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배웠다. 지금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감옥이 아니라 신문과 집회장, 종합대학이라고 확신하였다.

(신문들에 무엇을 쓰고있나보지.)

그는 《우뜨레니 리스트》, 《흐르바쯔까 드네브니크》, 《오브조르》신문들을 생각해보고 피씩 웃었다.

신문들은 《순결한 사랑》에 관한 달짝지근한 련애소설들을 련재하고있고 프랑스의 비시에서 있은 새 류행전람회소식이며 미국 백만장자들이 무슨 신을 신고다니는가 하는 시시껄렁한 소식을 전하였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는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팔을 펼치면 마주선 집 벽에 손이 닿을듯 좁고 한적한 골목을 따라 걸어가면서 웨지치는 괜히 여기로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이스펠드도 역시 거의 모든 그의 동족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미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잘못 생각하고있었다. 로인은 리발소문간에 서서 달게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그는 담배불이 검붉은 가락지를 그리며 서서히 종이를 먹어들어가고 담배가 회색재로 변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숄롬!》하고 웨지치가 먼저 말을 뗐다.
《하일 히틀러!》로인이 응대했다.
《면도를 합니까?》
《당신은 이틀만에 온 첫 손님입니다. 앉으십시오, 대좌님.》
웨지치는 리발의자에 앉았다. 얀끄 와이스펠드는 파르스름한 리발앞치마를 대좌의 머리우로 휘둘러 솜씨있게 둘러치고 말하였다.
《모든 리발사들은 흰 리발보를 사용하지만 나는 그게 수의처럼 보여서 녀편네를 보고 파란 물색을 들여달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끝장입니다.》
와이스펠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되물었다.
《아니, 보지 못하고있는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한테 그렇게 모르쇠를 하지 마시오. 대좌님, 그러지 말라는데두. 나도 어깨우에 머리가 달려있는 늙은 유태인이올시다. 4월 6일 여기에 아돌프 히틀러의 륙전대가 내린다는것을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정확한 정보인가요?》
웨지치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정확한 정보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유태인들이 이딸리아나 미국으로 도망가도록 쓰쁠리트항구에 보내주지 않았을거웨다.》
《그럼 당신은 왜 쓰쁠리트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와이스펠드는 부드러운 왼손 둘째손가락으로 볼에 재빨리 비누칠을 하고 대답했다.
《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갔지요. 나야 뭘 가지고 떠나겠수? 깎아낸 머리털을 가지고는 돈을 못만들지요. 지어 그걸 뮬라덴 루히모비치의 상점에 판다고 해도 돈이 될게 없지요.》
《6일에 륙전대가 내린다고 누가 말합디까?》
《믿을만한 사람들이지요. 은행가들은 그저 훌쩍 도망가지 않을거웨다.》
《그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걸 당신이 나한테 물으시우?》
와이스펠드는 허허 웃었다.

《나를 보고 어떻게 되겠는가고 묻다니. 사람들은 태여날 때 그저 사람으로 태여나지요. 대좌,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만 그들을 카톨릭교도로, 유태교인으로 혹은 그리스정교도로 만들지요. 사람들은 부모들한테서 슬픔과 기쁨을 상속받는답니다. 히틀러가 흐르바쯔까카톨릭교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것이 그들이 카톨릭교도들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우. 히틀러가 일시적이나마 승려의 궁둥이에 입을 맞추는것은 그 승려가 광장에서 자기를 욕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거라우. 히틀러는 무례한 행동의 기본비호자이지요. 만일 목사가 이에 대하여 크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가 흉악한 적이라는것을 알게 될거웨다. 야만들과 무례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비호하고 그들이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고 말하는자는 극악무도한 폭군 헤로데랑(유태족)보다 더 나쁘고 유다(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절자)보다 더 나쁘지요. 당신은 히틀러의 무례한짓이 흐르바쯔까 카톨릭교도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질것 같소? 그렇게는 안되지요. 당신은 카톨릭교도이기는 하지만 말은 도이췰란드말을 안하지요. 당신들의 노래는 로씨야노래와 아주 비슷합니다. 나의 할머니가 호멜태생인데 나에게 로씨야노래를 곧잘 불러주군했다우. 그 노래도 역시 당신들의 노래처럼 쓸쓸한 노래였지요. 안마를 해드릴가요?》

《예, 여기에 남아있을 작정입니까?》

《당신한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가요?》

《쓰쁠리트로 걸어가십시오.》

《고맙쉐다. 아흔셋나는 할아버지와 두달 지난 손녀를 데리고 가지요. 고맙쉐다. 쓰쁠리트에 가서 선장에게 〈나를 태워주면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겠수다.〉하고 소리치지요. 헌데 녀편네와 할아버지, 세 딸과 두 손녀를 쓰쁠리트로 끌고가는동안 뭘 먹인다? 요술을 부릴가요? 나는 불을 입에 물줄은 모르지요. 다만 머리를 깎고 면도할줄밖에 모르지요. 대좌, 우리가 왜 이렇게 쓸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와이스펠드는 역시 와이스펠드지요. 그러니 그가 갈길은 저쪽이 아니겠수. 이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세다. 나는 여기에 새 정권이 서면 당신이 이 와이스펠드를 불쌍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웨다. 당신이 새 정권에 필요하면 나도 당신에게 필요하지요.》

《와이스펠드, 그래도 당신은 떠나는것이 더 좋을것 같은데. 가락지도 팔고 리발소도 팔고 떠나시오. 이딸리아로라도 가야

합니다. 무쏠리니는 이딸리아유태인들을 유태인으로 치지 않지요.》
《헌데 여기서 나는 이딸리아유태인이 아니라 슬라브유태인이 아니우. 무쏠리니가 무엇때문에 나한테 마가린(인조빠다)표를 주겠수. 여보시오 대좌님, 차라리 당신에 대한 이야기나 합세다. 나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혐오스럽쉐다. 그건 말할만한게 못되지요. 우리 조상들은 죽은 후에는 모두 암흑이 되고 황야가 되는거니 이 속세의 생활에서 상을 타먹을 생각,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이제 암흑이 올거웨다. 마치도 지금 나한테 술한 복이 차례진것 같이 보이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여섯시에 리발소문을 열지만 나는 다섯시에 열지요. 왜 그런지 아시우? 이 늙은이가 돈을 더 많이 긁어모으고싶어서 그러지요. 이 와이스펠드는 로친네와 함께 2층의 맨 다락우에서 자는데 밑에서는 할아버지가 가스를 올려피우지요. 딸과 사위녀석은 등받이없는 쏘파에서 자고있으니까 내가 계속 포대기로 손녀를 덮어줘야 한다우. 그 애들은 잠만 들면 무사태평이니까요. 허나 여기서는 내가 왕이나 다름없지요. 여기엔 내 쏘파가 있고 여기엔 미남자를 그려붙인 유리창도 있지요. 나는 여기서 휴식한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지요. 대좌, 사람은 고통을 찾고있지요. 아마 고통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거라고 생각하는게지요. 하느님이 한번도 웃어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하느님의 사진을 보지 않았수. 늘 심각한 표정이거나 혹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거의 울상이지요. 그래서 나도 고통을 겪고있지요.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지만 이승에 가면 만사가 태평스럽겠으니 걱정이 없쉐다. 머리기름을 바를가요?》
《바릅시다.》
웨지치는 주머니에서 라다가 살던 화가의 작업장 열쇠를 꺼냈다. 작업장은 래일 나게 될것이다. 지금 그는 국으로 가기전에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러 갈것이다. 작업장에서는 와이스펠드가 살라고 하자. 거기서 사는데까지 살라지.
《자, 받으시오.》
웨지치는 열쇠를 내밀었다.
《주소를 기억해두시오. 빤또브샤크거리 7호동 3층, 거기에는 문이 하나뿐입니다. 주택사용증명서는 책상우에서 찾아보시오. 래일 아침에 가보시오. 거기에서 살수 있습니다. 샨끄.》

《대좌님이 슬라브조국에 〈마지막 인사〉를 할 생각을 한게지요?》
《그런 말 마시오.》
웨지치는 서글프게 웃으며 와이스펠드의 주름잡힌 늙은 얼굴을 어루만져주었다.
《열쇠를 주어 고맙쉐다. 대좌님, 고맙쉐다. 하지만 그걸 나한테 맡기지 말아주시우. 어쨌든 나는 불행한 유태인이 아니우. 내가 만일 거기로 이사하면 어김없이 짓밟혀죽을 유태인이 되고말거웨다. 내가 새 정권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요. 잠도 2층다락에서 자는것이 더 편안할거구요. 거기에서 암흑으로 가는것이 더 편안할거웨다.》
웨지치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아무 시름없이 얼굴에 약간 미소를 지으며 국에 나타났다. 그는 복도로 걸어가면서 자기가 알고있는 일군들의 눈에 특별히 띄울가봐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장교들은 복도로 분주히 뛰여다니며 그에게 고개를 까딱 하고 가볍게 인사할뿐 누구도 주의를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
웨지치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한순간 까딱 않고 서있었다. 마치 기진맥진하게 추격당하다가 정신을 차린 때처럼… 한참 있다가야 그는 책상이며 책장이며 쏘파며를 천천히 휘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은 마사진 철궤에서 멎었다. 암호자물쇠를 설치한 철문은 마치 약한 사람앞에서 쓸모없는 갑옷처럼 한쪽 돌쩌귀가 빠져 비뚤서해지고 가련하게 보였다.
또다시 공포가 싸늘하게 심장을 엄습했다.
(내가 왜 여기로 왔는가? —웨지치는 생각했다. —그자들이 여기서 나를 체포하여 지하감방에 처넣을수 있지 않는가. 혹은 케레쓰티네쯔로 끌어가든지 혹은 끄왈리치에게 넘길수도 있고 《농촌수비대》를 부를수도 있다. 내가 유고슬라비아에 남아있을것을 결심했다면 여기로 와야 할것이고 장령에게 찾아가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도이칠란드사람들을 반대하는 공작을 계속할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는 몸이다. 무엇때문에 여기로 왔는가?)
그는 전화기에 다가가 슈틀리쯔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여전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내가 령사관과 하는 전화를 엿들을것이다.)
웨지치는 성이 나서 생각했다.

(그것은 나를 잡아가기전에 무엇인가 생각을 가다듬게 할것이다.)
《미안하지만 슈틀리쯔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를 찾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대좌 웨지치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대좌씨.》
상대방은 간사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인차 돌아올겁니다.》
《내가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슈틀리쯔에게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12 — 62입니다.》
웨지치의 전화는 즉시 총령사 프레인트와 중좌 포흐트에게 보고되였다. 그들 두사람은 동시에 《이제부터 모든 공개적인 접촉은 중지하고 우리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웨젠마이어의 말이 생각나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웨지치는 무모한 용감성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단행했다. 그는 《정치적위험분자들》의 자료를 뒤져보려고 공산주의자들을 취급하는 부서로 찾아갔다. 거기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물었다.
《나한테 우리 〈모스크바사람들〉의 자료를 좀 보여주시오. 주소, 아지트, 예비아지트를 알아봐야겠소.》
《대좌각하, 그 자료들은 모두 쇼쉬치가 요구해서 가져갔습니다. 벌써 어제 아침에 가져갔습니다.》
늙수그레한 대위가 대답했다. 드라고비치라고 하는 이 대위는 웨지치를 각별히 존경하여 대하는 사람이였다.
…쇼쉬치는 웨지치를 반갑게 맞이하여 쏘파에 자리를 권하며 한잔하자는 말부터 꺼냈다.
《오늘 나에게 달마찌아술을 가져왔는데 기막힌 술이요.》
《고맙소. 기꺼이 마셔보지.》
《당신은 왜 요즘 우리한테서 보이지 않았소?》
《베오그라드에 좀 갔다왔소.》
《그래 어떻소? 뭐 도움이 될만한게 있었소? 혹시 반대로 모든게 망쳐진건 아니요?》
《도움이 될만한것도 있었고 망쳐진것도 있었지.》
《그렇게도 되는수가 있단말이요?》

《그렇게 되는 법이지. 우리 세계에는 모든것이 다 둘이 합쳐서 하나로 된것들이요. 모든것이 다 그렇소.》
《한잔 더 들겠소?》
《그렇게 하지.》
《베오그라드에서 무슨 새 소식이라도 가져온게 있소?》
《가져왔지. 다만 그 이야기는 좀 후에 해야겠소. 삼사일후에 하겠소.》
《그렇게 하겠단말이지. …》
《바로 그렇소. 헌데 누가 내 철궤를 마사뜨렸소?》
《우리가 그랬지.》
《왜 그렇게 했소?》
《당신이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장령이 비밀문건을 모두 한곳에 집중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았겠소.》
《더 편리하게 넘겨주려고말이요?》
웨지치가 물었다.
《누구에게말이요?》
《정권의 대표들에게.》
《어느 정권이기에?》
《정권도 규정되여있소? 정권이면 정권이지. 그렇지 않소, 쇼쉬치?》
《정권은 정권이라.》
쇼쉬치는 생각에 잠겨 되뇌이였다.
《당신은 약속을 했소?》
《누구와 말이요?》
《약속이야 응당 다른 상대방과 하는 법이지. 반탐과 말이요.》
《나한테는 반탐일군들이 많소. 구체적으로 누구와 말이요? 총체적으로 나는 약속을 할줄 아는 사람이요. 특히 정황이 나보다 더 우세할 때 약속을 하게 되는것이요.》
《장령에게 보고를 쓰오. 무슨 일로 급작스레 국제공산당성원들의 자료를 보려고 하는가 하는것을 설명해야 하오. 내 생각에는 장령이 지시를 주리라고 생각하오. …》
(도이췰란드사람들이나 혹은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이 즉시 행동을 개시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건을 통채로 넘기려고 하는구나. 그 대가로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받자는거겠지.)

웨지치는 깨달았다.
《당신도 알고있는것처럼 체포된 국제공산당성원들과 이제 체포해야 할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나 혼자만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요.》
웨지치가 말하였다.
《옳게 말했소. 당신처럼 우리도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소. 다만 이미 체포된 사람들만은 우리가 놓쳐버렸소. 이 문제는 현 정권이 다루고있소.》
《〈시수비대〉를 통해서말이요?》
《그렇소. 〈시수비대〉와 〈농촌수비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과 나보다도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에게 더 유익하겠구만. 당신은 〈농촌수비대〉에 지성인들이 적다는것을 알고있지 않소.》
《알고있소. 그러나 재삼 말하지만 우리와 관계없이 벌어진 사건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정확히 리해하여주기 바라오. 체포된 국제공산당성원들은 연극의 대상으로 되여야지 고문의 대상으로 되여서는 안되오. 나는 〈농촌수비대〉의 우리 적수들이 이 극적인 견해상 차이를 정확히 리해하지 못할가봐 걱정이요.》
쇼쉬치는 웨지치의 말을 긴장하게 들었다. 그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웨지치를 꼬왈리치의 사무실에서, 감방에서 빼내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런즉 웨지치는 그들과 합의한것이다.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이 여기로 온다고 한 말은 허황한 소리다. 쇼쉬치는 자기가 예견한대로 정세의 주인은 도이췰란드사람들이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완 쇼흐는 전화도 걸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있다. 그리고 마체크는 별안간 베오그라드로 떠나가버렸다. 허나 알아본데 의하면 쇼흐는 마체크와 함께 수도로 떠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보아야 쇼흐가 쇼쉬치에게 필요한 존재로는 될것 같지 않다. 쇼흐가 도이췰란드사람들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보아야 그럴것 같지도 않다. 그는 마체크가 없고 또 자기가 없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있지 않았다. 게다가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보다 웨지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다.
《나는 당신을 충분히 리해하고있소.》
쇼쉬치가 말하였다.

《전적으로 당신과 동감이요. 유감스럽게도 나 혼자서는 문제를 결정할수 없지만 내가 장령에게 즉시 당신의 보고를 전해줄수는 있소.》
《나는 체포된 국제공산당성원들을 즉시 여기 우리한테로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오. 이것은 모든 문건들을 한곳에 모으는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인것이요.》
《슈바쉬치가 그들을 내주지 않을거요.》
《그와 이 문제에 대하여 벌써 이야기해봤소?》
《아니요, 그저 그렇게 생각된다는거요.》
《그리스정교도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는 다시 세례를 하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것이 아니요.》
《〈농촌수비대〉에 명령하여 그들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총독 이브꼬비치뿐이요.》
쇼쉬치는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국회에서 반대파는 언제나 다수를 획득하려고 발판을 고일 준비를 해놓고있는것이요. 게다가 이브꼬비치는 베오그라드와도 련결되여있소.》
쇼쉬치는 자기 잔과 웨지치의 잔에 포도주를 부었다.
《한번 그를 통해 해보지 않겠소?》

만디치교수는 집에 없었다. 하녀는 웨지치에게 《교수님은 지금 종합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보고계세요.》하고 말하였다. 웨지치는 자그마한 교원들의 방에서 교수를 만났다. 그는 처음에 어정쩡해서 대좌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얼마후 그의 얼굴에 서렸던 의혹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변하였다. 허나 웨지치는 력사가의 얼굴에서 무서운 공포심을 읽었다.
교수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빈방에 혼자 있었다. 웨지치는 교수가 책으로 이렇게 바리케트를 쌓고 세계와 분리되여있을 때에는 자기를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자로 느끼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웨지치는 귀속말로 말하였다.
《여기서 즉시 떠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떠나라고 일러주십시오. 가까운 2~3일사이에 대검거가 시작될것입니다. 나는 웨지치입니다. 편집국장 브지크가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전화를 건것은 나였습니다. 쩨싸레쯔는 감옥에

있습니다. 당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망명하여 숨어있어야 합니다.》
만디치도 역시 귀속말로 뇌이였다.
《망명하여 숨어있어야 한단말이지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합니까? 누가 싸우느냐말입니다.》
《조용하시오.》
《여기는 밀정들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나 밀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서관과 종합대학에서는 밀정들이 없이 살아갈수 없습니다. 교수선생,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문건이 도이췰란드사람들한테 넘어간다고 알려주십시오. 인차 검거가 시작될겁니다. 대중적인 검거말입니다. 모레 도이췰란드가 침공해옵니다. 베오그라드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 만시름을 놓고있을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을 반대하여 전쟁을 개시하는것입니다.》
《내가 만일 당신의 말을 경찰의 도발로 해석하면 어찌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저 우리를 놀래우느라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찌겠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망명하여갈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당신이 자기자신을 생각해서 누구도 당신이 악한짓을 하는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디치가 물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교수선생, 당신은 그 어느때도 국가지도일군은 아니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그 열정때문에 당장에 조직을 망쳐먹었을겁니다. 내 말을 당신의 동무들에게 전달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옳게 평가할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당장말입니다!》
웨지치는 국제려행사에서 일하고있는 이완 크레츠메르의 집옆에 차를 세우며 생각했다.
(그는 나를 믿지 않고있다. 물론 그를 리해할수 있다. 나는 그가 믿을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다. 그들과는 다르게 말해야 하는것이다. 나는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금은 몸을 숨기고 지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야 할것이였다. 그렇게 하면 그는 믿

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자신과 말하듯이 그와 말하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더 드러내놓게 되고 이것으로써 악을 더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있는것이다.)

국제려행사에서 웨지치는 라다에게로 갔다.

《자, 받소.》

그는 책상우에 비행기표를 올려놓고 말하였다.

《우리는 밤 3시에 떠나게 되오. 트렁크를 준비하오. 제일 필요한것만 가지고 가야겠소. 나는 친구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소.》

라다가 말하였다.

《당신에게는 친구들이 없어요. 당신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뻬따르, 가지 말아요.》

웨지치는 라다를 자기옆에 앉히였다.

《소동을 일으켜보자오? 우리는 지금 남편과 안해가 되였소. 우리는 정상적으로 소동을 벌려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야 무슨 도깨비장난이지 생활이 아닐거요. 자, 시작해보자구, 라다.》

라다는 생글생글 웃었다. 그의 억실억실한 눈은 눈물이 고여있어서 그런지 별로 커보였다.

라다가 말하였다.

《아니예요, 나는 소동을 피우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걸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바보예요. 배워야 할걸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당신이 가지 않고 남아있을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만일 녀자가 고집을 부리면 남자는 녀자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줄 몰라요. 나는 그런 바보예요. 스위스에 가서 리혼하자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좋아지고 자유롭게 될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좋으려면 내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볼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오. 라다, 나를 기다리고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의 눈을 들여다볼수 없소. 이 상봉이 그에게 매우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에게만 필요한것도 아니요. 이 상봉은 나에게도 필요하오. 만일 집에서 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올 계단도 없는 마지막 층 어느 방에 갇혀있다면 나는 떠나갈수 없소. 알겠소?》

《내가 당신과 함께 갈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소. 정확히 말하여 상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오. 만일 함께 가려면 내가 혼자 가지 않는다는것을 미리 약속해야 하오.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겁이 많소.》

《당신이 겁이 많다면 떠나지 않을거예요.》

웨지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만일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을 여기 남게 설복하고 당신에게 지지 않을거요. 그러나 나는 기쁘게도 당신에게 졌소. 나는 놀랐소. 라다, 베오그라드에서 놀라서 돌아왔소. 나는 지금 당신외에 누구도 믿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남았을거요. 알겠소? 그 누구와 싸움을 한다면 내가 힘을 합쳐 싸우려고 하던 그 사람들을 믿어야 하는것이요. 경찰은 나에게 조심성, 간교성, 분석하는 방법,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을 따로 문건에 기입하면서 그들을 부류별로 구분하는 능력, 선한 행동, 열정, 나약한 행동 등을 배워주었소. 경찰은 많은것을 배워주지만 그것을 배워주고 신념을 없애버리는것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사람, 당신만을 믿소. 그렇기때문에 당신과 함께 떠나는것이요. 도망치고있소. 당신과 함께… 알겠소?》

…로드이긴의 옆에는 그리 크지 않은 키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웬 사람이 앉아있었다. 첫눈에도 벌써 그가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데 습관되여있고 자기 주위에 접대원들이 맴도는데 습관되여있다는것이 알렸다. 그리고 그가 교외의 이런 고급료정에서 점잖게 머리를 끄덕이거나 말없는 시선으로 빈자리를 가리키며 자기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익숙되여있다는것도 느껴졌다.

《아브둘라씨, 웨지치씨입니다.》

로드이긴이 그들을 소개시켰다.

웨지치와 아브둘라는 서로 찬찬히 여겨보았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 말로 말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아브둘라씨는 이슬람교도이고 유고슬라비아말을 모릅니다.》

웨지치는 빙그레 웃었다.

《유고슬라비아말을 모른단말이지요. 내가 만일 자그레브에 있는 당신들이라면 우리 말에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을겁니다. 나는 도이췰란드말이나 영어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둘라는 쓰르비아말 억양이 진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프랑스말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도이췰란드말과 영어는 어느 정도 나에게 구속을 느끼게 하여줍니다. 나의 시는 라틴어로 씌여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과 영어로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시간이 제한되여있습니다.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웨지치는 로드이긴의 의혹에 찬 눈길을 감촉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도망치지요. 그러나 여기에 오겠다고 약속을 한만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에 대하여 말하면 〈농촌수비대〉가 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있는 마체크와 슈바쉬치의 행동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당신의 동료들을 석방시켜주지 않을것이라는것과 이를 위해 빠벨리치를 자그레브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것을 베를린에 보여주려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정권을 위한 놀음에서 주패장과도 같지요.》
《당신은 이 주패를 마체크와 슈바쉬치만 놀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브둘라가 이 말에 수긍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대책을 취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브끄비치부총독이 이 문제를 론의해보려고 한다는것과 그가 당신들을 도와줄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브끄비치와는 이미 론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옳은 립장을 취하고있습니다. 그는 슈바쉬치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케르쇼바니, 프리짜, 쩨싸레쯔, 아쥐야를 석방하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당신은 누구한테서 이브끄비치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쇼쉬치에게서 알았습니다. 당신들에게 이 이름이 무엇인가 말해주는것이 없습니까?》
아브둘라는 비양조로 웃으며 말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쇼쉬치의 이름은 나에게 뭔가 말해주는것이 있습니다.》
《나는 만디치교수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자료가 새 정권에 넘어갈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예고해주었습니다. 당신들도 떠나야 합니다.》

《다만 지도적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동정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념두에 두고 말하는겁니까?》
《내 생각에는 볼쉐위크사상을 동조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념두에 둔것 같습니다. 례외없이 모두말입니다.》
《당신은 왜 떠나려고 합니까, 웨지치씨? 왜 당신은 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복하는게 아니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베오그라드에는 당신들이 갔다온것이 아니라 내가 갔다왔습니다. 베오그라드에서 수상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눈것도 당신들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아브둘라가 말하였다.
《옳습니다. 나는 수상보좌관과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바로 수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수상에게 있는것이 아니지요. 유고슬라비아에는 다른 력량들이 있습니다. 이 력량들은 투쟁을 진행할것입니다.》
웨지치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말하고있는 그 력량을 반대하여 싸워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신네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있는줄 아십니까? 이것이 쉽게 잊어질것 같습니까? 자기를 반역자로 느끼면서, 그것도 2중반역자로 느끼면서 그런 상태에서 싸울수 있을것 같습니까? 나는 베오그라드에서 당신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보았습니다. 나를 배격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요구되고 나를 불러주면, 만일 나를 불러준 그 일에서 내가 유익한것을 발견한다면 오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리해하여야 합니까?》
《그건 리해하기가 간단하지요. 내가 당신들과 련계를 가질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편지를 써보내지요. 다만 반드시 벌어져야 할 투쟁이 벌어지게 하고 내가 그 투쟁을 보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투쟁을 보고싶습니다. 진정한 투쟁을… 알겠습니까?》
《당신은 아직 슈틀리쯔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는 지금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찾을대로 다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둘라가 말하였다.
《더이상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에 대하여 흥미를 잃었습니까?》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 대하여 매우 흥미를 가지고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드리드나 혹은 리스봉에 있는 나의 우편대호를 알려주자면 나에게 한가지 담보가 요구됩니다. 이 주소는 나보다 당신에게 더 필요할겁니다. 대좌, 내 생각에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경찰에 들어간것도 자기의 사리사욕으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고 다른 보다 신중한 원인으로 인한것이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소는 당신에게 필요될것입니다. 여기에서 응당 벌어져야 할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당신은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라다의 눈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웨지치는 술잔을 앞으로 내밀다말고 말했다.
《당신들은 신중하게 사업하고있습니다.》
《달리야 할수 없지요.》
로드이긴은 단호하게 말하였다. 웨지치는 너그럽게 웃고있는 아브둘라의 입술이 떨리고있는것을 보았다. 아브둘라는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자그레브에 남기로 결심한다면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런 담보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가는것만큼 서신으로 담보가 있어야겠습니다.》
웨지치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줄은 모릅니다. 내가 맑스주의소조에 침투시켰던 략취사건관계자들과 그렇게 사업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들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재삼 말하지만 당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짤막한 편지를 중좌 슈틀리쯔의 주소로 써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편지는 당신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는 편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의를 타산해보았는데 조성된 정세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쓰고 아무 이름으로든지 수표를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것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왜 당신에게 필요한지 설명해주어야겠습니다, 아브둘라씨.》
《나에게는 이것이 여기 남아서 나치스트들을 반대하는 사업을 계속하여야겠기에 필요합니다.》
《내 편지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게 됩니까?》
《그것은 나에게 슈틀리쯔를 주게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기대를 걸

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에 의하여 체포되여있던 당신을 석방시켰습니다. 그가 아니였더라면 당신은 처형되고말았을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체크가 관심을 가지고있었고 마체크를 매우 좋아하지 않는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이 관심을 가지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체크와도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과도 똑같이 연극을 놀고있는 민족들도 관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씨야망책인 당신에게 나치스분자들과 합력하겠다는 나의 동의를 바치는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다음과 같은것을 써주십시오. 〈쏘련의 리익을 대변하는 나, 아브둘라는 웨지치대좌로부터 도이췰란드제국의 리익을 위해 슈틀리쯔와 가상적으로 사업할것을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 동의는 합리적인것이라고 본다.〉 이렇게말입니다.》

《좋습니다. 다만 내가 좀 수정하지요.》아브둘라는 이렇게 말하고 주머니에서 금촉만년필을 꺼내여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당신이 도이췰란드제국의 리익을 위하여 일할것을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나는 이 가상적인 사업을 현시기 전술적목적에서 볼 때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한다. 71.〉 이렇게 고치는것이 마음에 듭니까?》

웨지치는 아브둘라가 내민 종이장에 씌여진 글을 읽어보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수첩을 좀 주십시오.》하고 부탁했다.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한 뒤장 뜯어내겠습니다. 종이 한장에는 당신의 주소를 쓰고 다른 종이에는 슈틀리쯔에게 보낼 편지를 쓰겠습니다.》

《주소는 쓰지 마십시오. 주소는 기억해두는것이 더 좋습니다. 마드리드. 중앙우편국 우편통 2713. 쎄르히오에만두엘미리야 라쌀리오나으리. 어디에 가있든지 사흘후 내가 당신의 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웨지치는 슈틀리쯔에게 보내는 편지를 급히 쓰고 다시한번 소리내여 중얼거렸다.

《쎄르히오에만두엘미리야 라쌀리오나으리. 2713.》

《맞았습니다. 나에게 도이췰란드말로 써보내는것이 더 좋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일기며 쩨잔느의 자연풍경에 대해서도 쓰십시오. 중요한것은 당신에게서 편지가 오는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싸울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을게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웨지치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3시에 떠나지요.》 아브둘라가 말하였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만디치교수가 이젠 아지트에 갔을가요?》 웨지치는 자그마하고 거만하리만큼 태연한 이 사람의 동료들이 하루종일 자기를 시내로 《끌고다녔다는것》을 깨닫고 물었다.

《내가 괜히 당신에게 볼쉐위크사상을 공감한 사람들에 대하여 물은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도 역시 타격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고 그를 은폐시켜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에게 바우흐니크대좌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었지요. 누가 당신에게 그것을 말해주었습니까?》

《미르꼬위치장령이 알려주었습니다.》

《미르꼬위치라는 이름이 둘 있는데 어느 사람입니까? 보리보예입니까?》

《예, 맞았습니다.》

《무슨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당신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였습니까?》

《그는 내가 절망감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가 당신을 검토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가 당신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을수도 있지 않을가요? 당신은 더이상 질문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더불어 정보사업에서 십여년의 근무년한을 가지고 있지요?》

아브둘라는 호방하고 진실하게 웃었다. 웨지치는 미국영화배우 헴프리 보케트의 이발처럼 가쯘하게 박힌 그의 이발을 보았다.

《왜 그랬는지 내가 미처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나봅니다.》

웨지치도 웃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내 잠간 갔다오려고 합니다.》 로드이긴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절반 묻는투로 말하였다.

《예, 그렇게 하시죠.》 하고 아브둘라가 대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웨지치가 물었다.
《당신을 감시하지 않는가 하여 검토해보려고 갔습니다. 거리에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외이니까 낯선 사람은 인차 발견되지요.》
《당신은 남아있겠습니까?》웨지치가 물었다.
《무슨 말인지 잘 리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료정을 말합니까, 아니면 자그레브를 념두에 두고 말하는겁니까?》
《나는 유고슬라비아를 념두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으려고 합니다.》아브둘라가 대답했다.
《리상주의는 당신들의 종교가 아니지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남아있으려는겁니다. 대좌, 우리는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기에 남을것을 결심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하고 아브둘라는 대답했다.《우리는 동지들을 도와줄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둘라는 비밀사업규칙을 위반하였다. 그는 웨지치와 만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선을 통해 슈틀리쯔가 웨지치와의 사업에서 성공을 확신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있었다. 그래서 비밀사업규칙을 위반하게 되였던것이다. 타격에서 동지를 구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것이였다.
그는 슈틀리쯔와 세번에 걸쳐 만났었다. 두번은 빠리에서 만났었고 한번은 부르고스에서 만났었다. 아브둘라는 빠리에서 무쓰타파라는 이름을 가졌고 부르고스에서는 라씰리오라는 이름으로 브류쎌취인소에서 거대한 재정임무를 주관하였었다.
…그날밤 로드이긴의 말을 듣고 슈틀리쯔는 다시한번 웨지치의 편지를 읽은 다음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물었다.
《그러니까 바우흐니크란말이지요. 당신은 아직 정확한 침공날자를 밝힌 암호문을 보내지 않았지요?》
《암호문은 한시간전에 보냈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을겁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당신은 공연히 서둘렀습니다.》
슈틀리쯔는 이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쉘렌베르그가 녀자들을 리용하여 바우흐니크를 전향시켰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후 쉘렌베르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녀자가 없이 첩보기관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소? 녀자가 없으면 첩보기관은 외무성등록소로 전환되고말것이요.》
바우흐니크는 도이췰란드제국의 극비군사비밀들을 알아냈었다. 그는 세사람, 네사람을 거쳐 본때있게 일을 해제꼈다. 그러다가 그는 유고슬라비아대사관의 전신부호비밀이 새여나가는바람에 우연히 걸려들었다. 하이드리히는 도이췰란드주재 유고슬라비아군사무관 바우흐니크의 암호문을 읽어보고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그는 지어 히뮬러부총통에게마저 그것을 보고할 엄두를 못내였다. 그저 그는 베를린의 비밀정보가 새나가는 통로가 존재하고있다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통보나 해주었을뿐이였다. 바우흐니크의 모든 련계를 알아내는데 석달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였다. 쉘렌베르그가 직접 이것을 담당하였다. 쉘렌베르그는 바우흐니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에게 제국안전총국과 협력하겠는가, 아니면 총살당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우흐니크무관은 쉘렌베르그와 협력하는데 동의하고 자기가 가지고있는 프랑스, 영국사람들과의 모든 련계를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그런데 지금 웨지치의 말에 의하면 이 바우흐니크라는 사람이 바로 4월 6일 이른 아침 히틀러의 땅크들이 유고슬라비아국경을 돌파할것이라는 정보를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면 연극이 아닐가? —슈틀리쯔는 생각해보았다. —그런즉 히틀러는 《공포작전》으로 베오그라드에 압력을 가하려는것인가? 그런즉 아무런 군사적대결도 있을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쉘렌베르그가 더욱더 혼란을 조성하고 신경을 돋구기 위하여 바우흐니크에게 침공날자를 공개하게 한것인가? 쉘렌베르그에게 앞으로 이 바우흐니크가 필요할것이므로 대좌의 활동을 적극화할 목적에서 그에게 비밀정보를 주었을수도 있지 않을가? 어떻게 되였든간에 이틀동안에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할수 없는것이다. 침략개시날자를 시간까지 정확히 통보한 사람은 매우 귀중한 정보원이며 이런 사람은 있었대야 극히 드문것이다.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쉘렌베르그는 영국사람들과 미국사람들이 이 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정확히 타산한것 같다. 바우흐니크를 영국사람들속에 침투시키기 위한 준비가 아닐가? 그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두말할것없이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것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쉘렌베르그는 영국에 보잘것 없는

첩자들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고위급의 중요한 정치가들과 직접 접촉을 가질수 있는 신중한 사람을 가졌으면 하는 꿈을 꾸어왔었다. 유고슬라비아군사무관이 이런 역에 꼭 적임자일수 있었다.)

바우흐니크가 통보한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해답은 순식간에 끝났다. 수학자는 문제에 접근하는데 해를 두고 피타는 노력을 바치지만 종결단계에서는 수자 몇줄을 놓고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하는것이다. 정탐일군은 수학자와 비슷한데가 있다. 만일 바우흐니크가 정말 베오그라드에 정확한 공격날자를 통보해주었다면 슈틀리쯔의 추측은 정확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바우흐니크가 힘의 외교에 놀아난다면 어찌겠는가? 히틀러가 베오그라드를 놀래울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일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공명과 리익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도 여지없이 짓밟을 마체크나 슈바쉬치 혹은 빠벨리치를 정권에 들어앉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좋습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우리 둘이 함께 책임을 집시다. 내 암호문을 전달해주십시오. 나는 날자를 확인합니다. 만일 오산한다면 함께 오산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은 신임받는 바보가 되고 다른 사람은 현숙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으로 되기보다 낫습니다. 다만 바우흐니크의 통보에 우리의 기본자료들을 보충합시다. 조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리해할것입니다. 웨지치가 떠나간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가 떠난것이 아니라 그를 떠밀어보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로드이긴이 말하였다. 《그는 베오그라드에 갔을 때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웨지치를 핀잔하며 모욕을 주었다는게 아닙니까. 웨지치는 그가 당에서 나간 사람이라는걸 몰랐습니다. 내가 만일 의혹을 품고 웨지치를 대한다면 그는 그러건말건 우리와 동의할것이며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함께 일할것입니다. 웨지치는 돌아올겁니다. 왜서인지 나는 그렇게 믿고싶습니다.》

《좋습니다. 와씰리 쁠라또노비치. 나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슈틀리쯔는 한숨을 내쉬였다. 《〈나의 동료들〉은 내가 싸라예브에 갔다온데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있습니다. 당신은 래일 베오그라드로 가서 민족문제에서 도이췰란드와 백파의 론리의 류사

성에 관한 론문을 가지고 로씨야회관에서 출연하게 되여있습니다. 빌리모위치의 견해와 더 가깝게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하십시오. 그는 지난날에 성 울라지미르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지금 그는 류블랴나에 있습니다.》

《옳습니다. 〈구신주의자들, 유럽, 아시아주의자들, 로씨야의 광복〉 그의 이런 저서들을 기억하고있습니까?》

《두말할게 있습니까.》로드이긴은 슈틀리쯔의 어조에 맞게 대답했다. 《그의 형은 매우 령리한 사람이였는데 이전 노보씨비르스크종합대학 총장이였습니다. 일류급 수학자였습니다. 나는 한때 〈기본축에 대한 힘의 균등한 작용에 대하여〉라는 그의 론문에 대하여 철학적분석을 가해보려고 시도한바가 있었습니다. 놀랄만한 론문이였습니다. 헌데 그의 형도 정치에 관계하고있습니까?》

《관계하고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당신이 그를 장령 쓰끄로두모브 슈테이폰과 밀접히 결합시켜주십시오. 이건 내가 당신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정말 우리한테도 기여들셈인가요?》로드이긴이 이렇게 말하자 슈틀리쯔는 그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인지 인차 알아차렸다.

《기여들려고 합니다.》슈틀리쯔는 확고하게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썩 오래지 않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젠장, 피를 얼마나 흘려야 하겠는지.》로드이긴은 조용히 말하였다. 《로씨야의 피가 얼마나 흘러야 하겠습니까.》

라다는 열려진 문곁에 앉아 삐 — 익 하고 들리는 자동차의 급정거소리에도, 거리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에도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트렁크에 걸터앉아 자기앞의 한 점을 망연히 바라보고있었다. 얼굴은 해쓱해보였다. 라다는 지금 자기가 혼자 남아 자유로이 강에 떠내려가며 구름을 쳐다보고 옆으로 멀어져가는 기슭을 바라볼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었지만 울지 않았다. 어느덧 시계는 석점을 쳤다. 그러나 웨지치는 없었다. 더는 영영 없을것이다. 이 모든것은 라다가 강물에 떠가고싶지 않아했고 자기 고집을 부릴줄 몰랐기때문에 벌어진 일이였다. 싸울것처럼 떠들썩하게 미친듯이 자기를 주장하는 녀자들만이 이기는 법이다. 허나 그들은 웨지치나 혹은 이와노브를 위해 고집을 부리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 혹은 아이들이 생겨나면 아이들을 위해 고집을 부리며 남편을 이런 길에 떠나보내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라다는 모든것이 있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였고 고집을 부릴줄 몰랐다. 그러다보니 웨지치도 없고 더는 어디로 떠나갈데도 없게 되였다. 갑갑하지 않아서가 아니였다.

라다는 트렁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다가 거울옆에 멈춰서서 오래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눈가장자리와 입주위에 주름살이 보였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눈을 끔뻑하며 조용히 말하였다.

《주여, 모든것이 빨리, 빨리만 끝나게 해주옵소서.》

라다는 등받이없는 쏘파에 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문득 가을의 그날과 그 에스키모맛이 생각났다. 그는 자기 어깨에 웨지치의 손이 조심스럽게 놓이는것을 감촉했다. 그때 창문밖에 후두둑 비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다는 사람들이 온 생을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고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든것이 끝장나고 과거를 되돌려세울수 없는 그때에야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것이다. 허나 그것은 전혀 필요없는 일이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있는것이 아니다

래일아침 히틀러군대가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한다는 정보국의 보고를 받고 쓰딸린은 오래도록 집무실 구석에 서있는 육중한 나무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한번 베른과 자그레브, 베를린과 스톡홀름에서 보내온 암호문을 주의깊게 읽어보았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매수할수는 없는것이다.) 쓰딸린은 생각하였다. (그러면 후에 교묘하게 또는 각이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짓말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책상에서 물러나 창문쪽으로 걸어갔다. 푸릿한 봄날의 이밤 크레믈리의 별들이 화려하게 빛났다.

(히틀러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두석달만 지체되고 씨모비치가 방어

를 조직할수 있다면 유고슬라비아군사무관이 말한것처럼 그들은 결사적으로 싸울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이에 시간을 얻어 그들을 확고히 도와줄수 있을것이다.)

쓰딸린은 아직도 경제에서 많은것을 해놓지 못했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혁명을 시작한 때로부터 스물네해가 지나갔는데 방대한 경제에 대한 관리경험은 이제야 축적되기 시작한데 불과하며 공업생산 전통도 역시 같은 형편에 있다.

도이췰란드와 조약을 체결하고 쓰딸린은 인차 커다란 곤난을 느꼈다. 그는 국가정책을 사상에서 분리할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출판보도부문에 국가의 전술과 당의 전략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게 할수 없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단일한 로선을 내세워야 했다. 쓰딸린은 인민들에게 1940년에 채택된 엄격한 법령들이 전쟁준비에 필요한것이였다고 내놓고 설명할수도 없었다. 그는 영국신문들이 히틀러가 로씨야를 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쓴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자신은 쳐칠이 연극을 놀고있는지 아니면 침략이 있을수 있다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고해주는것인지 딱히 결론지을수 없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유럽에서 오직 영국만이 도이췰란드의 동맹자로 될수 있다고 지껄였다. 영국수상 쳐칠은 볼쉐위즘에 대한 자기의 적의를 감추지 않았다. 쓰딸린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믿고싶었다. 새로운 국경을 강화하고 땅크와 무기를 현대화하며 비행기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새로운 비행장들을 더 건설하자면 그에게는 적어도 한해가 요구되였다. 게다가 이 모든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일치시키고 조정하고 확정하여야 하는것이다.

3월달에 히틀러는 자기 군대를 벌가리아에 들이밀었다. 정치위원회에서 쓰딸린은 회의참가자들이 의견을 말할것을 바라면서 묵묵히 어두운 안색으로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국방인민위원 찌모쉔꼬는 간부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그는 고위급 지휘관들의 년령기준이 지금 공민전쟁시기와 같이 서른살까지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는거요 나쁘다는거요?》 쓰딸린은 찌모쉔꼬원수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한 측면에서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쓰딸린동지, 젊음은 용감성을 의미하는것이여서 도시들을 쉽게 장악할수 있게 하여줍니다. 다

만 경험이…》
《경험은 쉽게 얻을수 있는거요. 찌모쉔꼬, 싸움을 하느라면 경험이 생기는 법이요.》
쓰딸린이 찌모쉔꼬에게서 돌아서는 순간 뽀스크레븨쉐브가 쏘피아에서 온 소식을 가져왔다.
《그래 어떻게 하겠소?》 쓰딸린은 물었다.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소?》
워로실로브가 남부국경에서 기동연습을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그 어느때도 놀래우는것은 해로울것이 없습니다.》
쓰딸린은 천천히 담배를 피우며 몰로또브에게 말하였다.
《각서는 나라의 존엄을 깎지 않을 정도로 친절하게 작성되여야 하오. 내가 히틀러라면 격분을 쏟아놓을만한 어떤 구실이든지 찾을거요. 허나 나는 쓰딸린의 위치에서 구실을 주고싶지 않소. 외무인민위원부에서 각서내용을 생각해보도록 하오. 위쉰스끼가 세심히 작성하라고 하시오. 그 사람이 그런걸 할줄 아는 사람이요. 전쟁은 영화도 아니고 쏘련국방 및 항공화학건설후원회의 집회도 아니요. 전쟁은 역시 전쟁이요. 현대전은 기술전쟁으로 될것이요. 이 전쟁에서는 비행기 계기판을 더 잘 아는 사람, 땅크조종장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승리할것이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쓰딸린은 마치 자기말을 끊듯 서둘러 말하였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는 지금 도이췰란드군대가 벌가리아에 진입한지 극상해서 한달밖에 안되는 이 시각 히틀러가 래일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쓰딸린은 각서문제에 대하여 두가지 견해를 가지고 대하였다.
그는 형식이라는것은 다만 작성된 내용을 담는것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각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각서가 그자체로서는 중요한것이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도구로서는 중요한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쓰딸린은 부분이라는것을 총체적인것, 다시말하여 기본적인것을 규정하는 구성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쓰딸린이 이 주되는것을 수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수 있다면 이 각서를 사업에 유익하게 전환시켜야 할것이고 자기에게 복종되게 만들어야 할것이다. 날이 갈수록 국제무대에서는 더 많은것들이 해결되여갔다. 바로 여기에서 각서는 자기의 세련된 솜씨로 많은것을 설명해주군하였던것이다. 정치인들은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서라고 하는 짤막한 술어로써 말하군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서는 훌륭한 세간살이군이고 사업에서 종종 사람을 대신하여주는 훌륭한 대리인으로 되는것이다.

…열한시에 몰로또브외무인민위원은 크레믈리로 돌아왔다. 그는 외무인민위원부에서 도이췰란드대사 폰 슐렌부르그를 만났었다. 도이췰란드대사와의 첫 면담은 어제밤에 진행되였다.

《우리가 알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폰 슐렌부르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유고슬라비아와 회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유고슬라비아와 진행하고있는 회담은 어느 3국을 반대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하고 몰로또브가 대답했다. 《우리는 발칸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오직 한가지 념원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을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도이췰란드제국의 지도자들도 역시 이 지역에서 평화를 고수하려는 자기들의 희망을 변함없이 강조하고있을줄로 믿습니다.》

《나는 쏘련정부가 유고슬라비아반란자들과의 친선회담시간을 썩 좋지 못한 때에 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도이췰란드대사의 말이였다.

《반란자들과라니요? 그럼 베를린은 새 유고슬라비아정부를 인정하는것을 거부하였는가요?》

《아직은 그런 견지에서 문제를 볼수 없습니다.》하고 슐렌부르그대사는 말하였다. 《유고슬라비아정부를 반란자들의 정부라고 부른것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것입니다.》

《더우기 한주일전에 립벤트롭프는 유고슬라비아를 3국군사동맹에 인입시키는 문건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쏘련정부는 도이췰란드의 동맹자와 회담을 벌리고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몰로또브가 말하였다.

《외무인민위원각하, 나는 유고슬라비아와의 이 회담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져다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말입니까?》

《전세계에》

《전세계에 대하여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대사씨, 나는 영국과 미국정부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이 나라들의 대사들을 부를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도이췰란드의 격분을 자아낼것입니다, 외무인민

위원각하.》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견해인가요?》몰로또브는 코안경을 닦으며 물었다. 《아니면 귀정부의 의견인가요?》

《이것은 내가 대표할 영예를 지니고있는 우리 정부의 의견입니다.》

오늘 몰로또브는 또다시 슐렌부르그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그는 도이췰란드대사의 립장을 더 정확히 리해할뿐아니라 의례적인 표현의 외피에서 그에게 베를린에서 올수 있는 새 소식을 알아보려고 애썼다. 대사는 다시한번 곱씹었다.

《나는 그처럼 갑자기 진행된 유고슬라비아와의 회담이 무엇을 위한것인지 도이췰란드제국외무상 립벤트롭프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발칸반도문제에서 쏘련의 철저한 적대적립장과 관련하여 도이췰란드외무성이 응당 질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도이췰란드군대의 벌가리아진입과 관련한 쏘련정부의 각서, 당신들이 뛰르끼예에 준 담보, 끝으로 유고슬라비아와의 회담 ― 이 모든것은 쏘련정부가 새로운 로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 어쨌단말이요.》쓰딸린은 몰로또브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쏘련정부의 새로운 로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의 이러한 확신을 확인해줄수밖에 없소. 나는 지금 당장 유고슬라비아대사 가브릴로위치를 불러 유고슬라비아와의 친선조약에 서명하였으면 하오.》

쓰딸린은 자기의 결심이, 전통적인 외교관계로 보면 무모하다고 볼수 있는 이 결심이 외무인민위원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려고 애쓰며 몰로또브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가브릴로위치는 조약을 자기 혼자 서명하지 않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군인들과 함께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할수 없지.… 그 사람의 의도는 알만하오. 그는 이것으로써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의의를 강조하려고 하고있소.》

《위쉰스끼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위쉰스끼를 시정시켜주오. 시정시켜주란말이요.》

몰로또브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자정이였다.

《가브릴로위치가 아마 자고있을겁니다.》

《당신이 그를 깨우시오. 조약조인식에 사진기자들을 더 많이 불러

와야 할것 같소. 내가 참가해도 조약서명에 방해가 될것 같지는 않구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몰로또브?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이 쏘련측에서 쓰딸린이 조약조인식에 참가했다는것을 알게 해야겠소. 정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는 그들에게 방해될것이 없다고 생각하오.》…

도이췰란드륙군원수 리스트는 유리쟁반우에 놓인 물병처럼 심하게 진동하는 자그마한 비행기 《포케－불페》를 타고 쏘피아 서남쪽에 주둔하고있는 자기 두 집단군련합부대들을 시찰하였다. 새벽녘에 클레이스트의 땅크들은 국경을 넘어 하나의 무쇠주먹에 집결된 일곱개사단의 전력량으로 베오그라드를 타격할것이다. 사단들의 두번째 그루빠는 쓰꼬쁠레를 치게 된다. 북쪽으로부터는 오스트리아와 마쟈르에 전개되여있는 웨이흐스집단군이 밀려들어오게 된다. 먼지로 뒤덮인 이 집단군의 땅크들은 두나이강류역과 유고슬라비아수도에서 리스트의 병사들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타격은 새벽녘에 일격에 진행된다. 그때는 아직 선선하고 숲속에서 새들이 우짖는 소리도 두꺼운 안개장막속에서 어렴풋이 들린다. 그러지 않아도 차겁고 초연해보이는 자연의 위대한 신— 태양이 자기의 첫 빛으로 어루만져주어서야 회백색으로 빛나는 새벽이슬이 아직은 무겁고 진회색으로 보일때이다.

원수는 파란 풀밭에 수건을 펴놓은것같은 벌가리아의 농촌길을 따라 굳어진듯 까딱 않고있는 땅크대렬의 형태를 정확히 내려다보았다. 우에서 내려다보면 땅크들은 그의 손자들이 가지고 장난하는 놀이감같아보였다. 리스트는 지어 장난꾸러기들이 땅크의 동음을 흉내내며 와르릉와르릉 하고 소리내는것을 듣는것만 같았고 《적》을 타격하기 위해 수지땅크들을 집결시키면서 그것을 움직일 때 조그마한 손에 잔뜩 힘을 주어 긴장해진것을 보는것만 같았다.

리스트는 부지중 어린 시절 자기는 땅크가 무엇이고 수지가 무엇인지 몰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람에 푸른 띠가 휼날리는 높다란 기병모를 쓴 용감한 기병들의 공격에 대하여 공상하여왔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어린 시절의 전쟁도 무서운것이였다고 생각했다. 그 전쟁에서는 적이 휘둘러치는 장검에 맞아 쓰러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포신으로 날려보낼 포탄이 보이지 않는 적을 족치는것이다. 땅크병은 사격단추를 누르면서 자기처럼 산 사람의 눈에서 죽음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것이다. 병사들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면서 피와 연

기에 범벅이 되고 손을 뻗치면 손가락에 무엇인가 껍진껍진하고 꿈틀거리는 뜨거운것이 느껴질듯 그렇게 가까이에 죽음이 있다고 늘 생각해서는 안되는것이다. 리스트는 이전에 병사들이 더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혈서로 맹세를 다졌던것이다. 지금 기술의 세기에 병사는 순간적으로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병사는 다만 방아쇠를 당길뿐이다. 그러면 그에게서 천여메터 떨어진 곳에서 적이 몸을 비끄면서 길게 마지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적도 역시 푸른 옷을 입었는데 다만 어깨의 견장이 다르고 모자의 모표가 다를뿐이다. 그러나 도이췰란드병사는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 비명소리도 듣지 못한다. 전쟁에 바쳐진 기술이 거리를 단축해주는것이다.

비행사가 몸을 돌려 원수에게 자그마한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무전수가 까불까불한 필체로 쓴 글이 적혀있었다.

《항공사령관 디스크장령이 그의 참모부염에 착륙할것을 권고합니다. 메도요사냥과 저녁식사를 약속하고있습니다.》

리스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7시를 가까이하고있었다. 10시에 총통의 대본영에서 전화가 올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 디스크의 참모부로 전화를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 어제 여기로 직통전화선을 늘였으니까.

리스트는 손가락으로 무전수의 뒤잔등을 꾹 찔렀다. 그의 등은 바람에 얼어든 보드라운 가죽잠바때문에 그런지 산 사람의것 같지 않았다. 무전수가 몸을 돌리자 원수는 고개를 끄덕했다.

디스크는 이름난 쏘피아의사의 교외별장에 자리잡고있었다. 의사는 도이췰란드군대가 들어오자 곧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나라에는 인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독립가옥은 산경사면의 참나무숲속에 있었다. 숲속에서 썩은 나무잎냄새가 풍겼다. 눈섭같은 초생달이 떠있던 하늘중천에 종달새가 한자리에서 퍼덕이고있었다.

리스트는 등뒤에서 디스크와 그의 수원들이 정중히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을 느끼며 종달새를 바라보았다.

《신이 준 저 생물에 얼마나 정답고 고립무원한데가 있소.》원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저 종달새가 우짖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알이 여문 호밀과 금빛태양이 내려쪼이는 먼지이는 길, 아버지가 메추리사냥에서 돌아올 때 타고오던 부드러운 탄력을 가진

판용수를 댄 마차가 생각나오.》
《그저께 내가 여기 우리 비행장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댔습니다.》
디스크가 조용히 말하였다.《비행기가 고도를 취할 때 나는 무엇인가 비행기동체에 세게 부딪치는것 같은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새와 부딪쳤던것입니다. 속도가 빠른 비행기가 작은 고기덩이에 너무나도 드센 타격을 안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말하는구만.》리스트가 말하였다.《〈작은 고기덩이에〉라니.》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원수각하.》
《그런 끔찍한 사실을 내 손자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야겠소.》리스트는 디스크에게로 돌아서서 마치 처음 그를 보듯 장령의 랭담한 얼굴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당신들은 준비가 어떻게 되여가고있소?》
《비행사들은 전투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원수각하.》
《그들은 어데서 휴식할데가 있소?》
《활주로옆에 천막을 치고 식당을 전개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병들이 산속에서 어린 봇나무로 탁상과 긴의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집에서 휴식하게 하지 않았소?》
《원수각하, 여기 길들은 진짜 슬라브사람들의 길입니다. 좁은것은 말할것도 없고 온통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땅크들은 아침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것 같습니다. 비행사들은 천막에서 아주 훌륭히 휴식할겁니다.》
《그들에게 줄 저녁식사는 뭘 준비했소?》
《쵸콜레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사냥군들이 메도요와 토끼, 노루같은 짐승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노루를 잡았단말이요? 지금? 노루들이 이맘때면 새끼를 낳지 않소.》
《이렇든저렇든 여기는 전선이 될겁니다, 원수각하.》
《여기가?》리스트는 놀랐다. 《여기는 전선이 되지 않소. 저기가 전선이 될거요.》 그는 산쪽으로 기울어진 해를 보고 방향을 판정하고나서 고개로 서남쪽을 가리켰다. 《우리가 메도요사냥을 할새가 있겠소?》
《만일 당신이 시찰할 결심을 했다면 사냥이 늦어질겁니다.》디스크는 정중히 롱말을 했다.

《다음번에는 손님으로 초청하지 마오. 앞으로 사령관을 어떻게 초청해야 하는가를 알아야겠소.》

디스크는 리스트를 낮은 지대로 안내해갔다. 작은 내물이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이 즐겁게 주절대며 흘러가는 거기에서 두갈래의 촌길이 합쳐졌다.

《해가 지자마자 메도요 수컷들이 암컷을 찾아 이 종비나무숲을 날아다닙니다.》 디스크가 설명했다.

《조용조용히 말하오.》 리스트가 귀속말로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러 가서는 귀속말로 말해야 한다고 나에게 가르쳐주었소.》

《용서하십시오. 오른쪽으로 공지를 지나갑시다.》 디스크는 목쉰소리로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든 군인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람도 큰소리로 말하는데 습관되였다.)

《메도요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때라야 날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기 멀리에 있는 오리나무숲에서 잠자리를 찾는것 같습니다.》

《저기 종비나무들이 있는데말이요?》

《약간 왼쪽으로.》

《좋소. 고맙소. 당신은 어디에 있겠소?》

《허락하신다면 옆에 있겠습니다.》

《왜서말이요? 다른 자리가 없소?》

《나는 당신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고싶습니다.》

《당신은 어리석게 말하오. 장령,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필요하오?》

《어쨌든 슬라브놈들이…》

《자, 그만두고 다른 자리로 가보오. 나는 사냥할 때 혼자 있기를 좋아하오.》

하늘은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주위는 고요한 정적속에 묻혀있었다. 귀를 기울이니 주절거리는 시내물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린 시절에 즐겨부르던 노래를 되살려주었다.

여덟명의 아이들아, 우리는 다름슈타트로 떠나간다!

(유년시절은 언제 있었던가?) 리스트는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어느때인가 그런 시절이 있기나 하였던지? 인간의 생활이 늙어서부터 시작된다면 유년기로 되돌아갈수 있으련만… 그렇게 될수는 없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죽음이 더욱더 아쉬운것으로 될것이다.

영원한 안정에 가까이 접근해갈수록 생각은 더더욱 자주 유년기로 돌아간다. 마치 랭담하고 차거운 망각의 바다 《그리스신화에서》에 던져진 구명환을 잡으려고 하듯이.)

바람이 휘—익 앙상한 나무가지들을 휩쓸고 지나자 거기에 붙어 겨울을 난 참나무잎들이 금속성같은 아츠러운 소리를 냈다.

원수는 숨을 죽였다. 멀리에서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어디인가에서 메도요가 날고있었다. 리스트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으면서 허리를 굽히였다. 아버지는 짐승이나 새들은 사람의 몸을 보는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본다고 가르쳐주었었다. 그는 농촌길을 따라 날고있는 메도요를 발견했다. 새는 사랑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숲속에 들어박혀있는 암컷이 여기에 화답하는가 귀를 기울이고있는듯했다. 리스트는 총을 쳐들었다. 그는 자기 마음이 가벼운 완충을 가진 쌍엽총의 총탁과 총신 그리고 쏜살같이 날아가는 새와 하나로 융합되는것을 느끼며 방아쇠를 당겼다. 메도요는 공중에서 뒤집혀지며 그의 코앞에 살같이 떨어졌다. 리스트는 새를 쳐들었다. 몸뚱이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손에 피가 묻은것을 발견하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바로 그런 냄새로구나.) 리스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의 피냄새가 바로 이렇지. 그러나 내가 쏨메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후에 악몽이 계속 나를 괴롭히지 않았는가. 나는 밤마다 울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쁨을 느끼고있고 료리사가 이 작은 새를 어떻게 가공할지 그리고 총을 쏘던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나게 나눌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고있다.)

디스크가 성대하게 차린 저녁식사에는 노루고기며 시큼시큼한 월귤쨈을 바른 메도요고기가 상에 올랐다. 빠리에서처럼 진귀한 음식상에는 이 지방의 치즈도 몇가지 올랐다. 수원들중의 어느 한 장교가 초불을 켜놓고 피아노를 탔다.

《대단히 황홀하오.》 리스트가 말하였다. 《나는 마치 유년시절로 돌아온듯싶소. 나의 맏형도 역시 응접실에서 낡은 피아노를 치군했는데 그런 때면 어머니가 두툼한 고뿌에 차를 따라주고 아버지는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댔소.》

《나는 당신에게 적으나마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니 반갑습니다.》 디스크가 말하였다.

《베를린에서 오는 전화를 당신의 전화번호로 돌리라고 이야기했소?》

《했습니다, 원수각하.》
《총통이 전화할것 같소.》
《모두 함께 우리 총통을 위하여 들수 있도록 잔을 붓겠습니다.》하고 디스크는 말하였다.
《옳게 말했소.》리스트는 다시한번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과연 진실로 그 신경병환자를 위해 잔을 들자는건가? 하긴 우리 정신병환자가 필요한 일을 하고있는건 사실이다. 그는 우리 슐리펜의 구상을 실현하고있다. 그가 제 할 일을 끝내면 우리는 그를 제거해버려야 한다. 도이췰란드를 위하여 한때는 이 히스테리환자를, 《군대의 정권교양담당 상등병》을 뒤두어야 한다. 17년전에 그를 이렇게 불러온것 같다.… 물론 상등병이 새로운 군대의 사상을 창시한것은 분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안하기보다는 낫지 않은가.)
지하실에서 포도주를 두병 내오기전에 리스트는 피아노를 타고있는 장교에게 슈벨트곡을 연주하라고 했다. 그는 등받이가 높다란 쏘파에 몸을 젖히고 눈을 감고서 음악을 들었다. 리스트는 긴긴 겨울밤 형이 피아노를 타던 일이 추억에 떠올랐다. 밖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져내려 령지로 가는 길들을 전부 메워버렸고 바람에 배수관이 이상하게 울부짖었다. 마치 어디인가 가까운 눈속에 날카롭게 생긴 시누런 이발을 가진 승냥이가 숨을 죽이고 먹을것을, 코가 뭉툭한 농촌장화를 신은 작은 소녀를 기다리고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는 이 소녀를 얼마나 구원해주고싶어했던가. 파란 치마우에 깃이 달린 빨간 앞치마를 입고 부리부리한 파란 눈에 아마빛 머리를 가진 이 소녀를…
…밤에 히틀러와 전화로 이야기한 후 리스트원수는 디스크를 보고 자기를 제일 가까운 비행장으로 안내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비행사들이 휴식하고있는것을 직접 확인하고싶었던것이다.
그들은 10월 첫눈이 때이르게 내린듯 밤에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길을 따라 12키로메터가량 달려서 리룩장에 가닿았다.
《여기가 폰 우스만대좌의 폭격기들이 있는 곳입니다.》하고 디스크는 설명하였다.
《왜 자지 않고들 있소?》리스트는 높다란 두 소나무사이에 친 큰 천막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물었다.
《아마 흥분해있는것 같습니다.》디스크가 대답했다. 《나한테는

여기에 신입대원들이 많습니다. 어제 방금 군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천막에 들어서는것을 보자 비행사들은 하얀 봇나무의자들에서 벌떡벌떡 일어섰다. 의자주위에는 역시 봇나무로 만든 깜찍하게 생긴 탁상들이 놓여있었다.

《아니, 장난꾸러기들이 아직도 자지 않고있소?》 리스트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래일은 어려운 날이요. 자, 당장 침대에 눕소. 장난꾸러기들!…》

그는 젊은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초불이 그들의 얼굴을 옛날 그림처럼 비쳐주었다. 그는 이처럼 키가 크고 튼튼하게 생긴 자기 병사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이름이 뭐요?》 리스트는 아직도 완전히 애숭이같아보이는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젊은 비행사를 보고 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원수에게 더 가까이 서있었던것이다.

《프리쯔 트로트입니다, 원수각하!》

《고향이 어디요?》

《케니히스베르그입니다, 원수각하!》

《군인가족이요?》

《아닙니다, 원수각하! 저의 아버지는 중학교 문학교원입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배반했소?》

《그는 시를 씁니다, 원수각하!》

폰 우스만대좌가 대신하여 대답했다. 《좋은 시를 쓰고있습니다.》

《그럼 어디한번 읽어보오.》 하고 리스트는 말하였다.

《그는 수집음을 잘 탑니다, 원수각하.》 폰 우스만은 빙그레 웃었다. 《처녀들처럼 수집어합니다.》

《괜찮소, 괜찮소. 그는 나한테 자기 시를 읽어줄거요. 그렇지 않소, 프리쯔 트로트?》

《옳습니다, 원수각하.》 하고 비행사는 대답했다. 《그런데 아직 시가 완성되려면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좋소, 그 완성정도는 우리가, 다시말하여 듣는 사람들이 결정하겠소.…》

프리쯔는 눈을 감고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밤은 나무잎의 설레임속에 몸을 숨겼다

술을 마시고 어머니집으로 돌아온
방랑아처럼…
밤은 밝아올 아침에 대한 쾌감과 기대로 넘쳐있다
우리는 모두 밤에 살고있다, 밤—
이것은 공상가들, 시인들, 녀인들의 나라
아침이 어떤 아침으로 되든
그것은 본래의 자기대로 찾아온다
그것은 사업의 시작
그것은 우리를 공상에서 깨워 싣어가는
기차의 동음, 기차의 제동소리
기차는 우리가 낮의 병사로 되여야 할
채벌장으로 우리를 싣고
협궤철도를 따라 달려간다
어서 빨리 밤이 깊어졌으면
어서 빨리 꿈나라로 가보았으면…

《당신은 진짜 시인이요.》리스트는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나는 당신이 참된 병사가 되기를 바라오. 이것도 역시 영예로운 직무요.》
《고맙습니다, 원수각하! 저는 총통앞에 지닌 자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도이췰란드는 자기 병사들을 잊지 않을것이요.》리스트는 엄숙하게 말하였다. 《도이췰란드병사들—승리자들의 이름은 력사의 기록에 아로새겨질것이요! 당신들에게 승리가 있기를 바라오! 승리는 각자가 성실하게, 용감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할 때 오게 될것이요. 달리는 될수 없소!》
바로 이 시각에 크레믈리에서는 쏘련과 유고슬라비아왕국사이에 《친선 및 불가침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마체크는 웨젠마이어를 자기 집무실에서 맞이했다. 그는 엄엄하게 검은 양복을 입었는데 팽팽한 구식쎄르로이드목깃이 그의 허연 머리를 고이고있었다. 그는 대좌를 마중하여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뒤에 붙어선 슬라브꼬 크바쩨르니크대좌를 보자 다리맥이 일시에 탁 풀리는것을 느끼며 쏘파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웨젠마이어는 마체크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머리숙여 인사했다.

《마체크씨, 지금 우리앞에는 가까운 며칠사이에 사태가 어떻게 발전해나갈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류혈적인 참극을 바란다면 그렇게 될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귀국인민들의 행복을 바라고 불행한 흐르바쯔까사람들의 생명을 아낀다면 귀국은 류혈적인 참극을 면할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류혈적인 참극을 바란다면 침묵의 길을 택하십시오. 도이췰란드제국에 대한 반항을 운운하는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베오그라드는 페허로 변하였고 씨모비치는 도주하였습니다. 재삼 말하지만 흐르바쯔까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면 정권을 새 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새 정부는 수세기에 걸친 인민들의 소원을 실행하여 흐르바쯔까독립국가창건을 선포할것입니다.》

마체크는 슬라브꼬 크바쩨르니크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생기없어보였다. 눈밑에 무겁게 부종이 오고 주름살이 확연히 눈에 띄였다.

《나는 당신의 제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웨젠마이어씨.》마체크가 대답했다.《말레트케씨와 만난 후 인차 당집행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방금 그가 만나줄것을 간청해왔습니다.》

웨젠마이어는 말레트케의 이름을 상기시킨 그 속에 숨은 뜻을 인차 알아차렸다. 그것은 두번째 도이췰란드력량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는 이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고 앉은채 하하 웃었다.

《내가 말레트케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마체크씨, 나는 자체의 결심으로 당신을 찾아온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총통의 리익을 대변하고있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당신의 제의를 토의해봐야 하겠습니다.》마체크는 자기 운명이 끝장났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는 어쩔수없이 매를 받게 되였다고 느꼈을 때처럼 자신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예리하게 치밀어올랐다.

《마체크씨, 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공격중에 있는 도이췰란드군에게 즉시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인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새 정권을 지지할것을 호소하든지 혹은 내가 여기에서 손을 떼고 군대에게 전쟁시기에 그들이 하게 되여있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게 하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내 당은 어떻게 됩니까?》

크바쩨르니크가 웨젠마이어를 앞질러나섰다. 그는 베틀린특사보다 자기 동족의 성격과 그리고 그의 질문속에 담겨진 숨은 뜻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있었던것이다.

《당신의 안전과 당신의 행복은 새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것입니다.》 크바쩨르니크는 엄숙하게 말하였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후에 회담석상에서 해결합시다. 당신은 흐르바쯔까사람이고 흐르바쯔까사람들은 말값을 알고있지 않습니까.》

마체크는 쏘파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눈을 가리웠다. 그는 한동안 까딱 않고있었다. 그의 왼쪽관자노리에서 가느다란 피줄이 팔락거리는것이 보였다. 이 가느다란 파란 피줄을 보면서 크바쩨르니크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선의를 리해할줄 압니다. 마체크씨, 지어 그 선의가 악의 테두리밖에서 억제되고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리해하여줄수 있습니다.》

웨젠마이어는 마체크가 완전히 굴복하였다는것을 순간적으로 알아맞추고 랭담하게 말하였다.

《호소문을 작성하느라고 고통을 겪을것없이 인민들에게 보내는 당신의 호소문을 내가 불러주지요.》

마체크가 초인종을 누르자 이완 쇼흐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기실이 아니라 지금 흐르바쯔까령수의 고문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나왔다.

이완 쇼흐는 여전히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웨젠마이어와 겉으로 표현된 승리의 쾌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크바쩨르니크를 보았다. 마체크는 쏘파에 잦아든듯한 자세였다. 일순 쇼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환희가 숨가쁘게 치밀어올랐다. 그것은 무엇인가 똑똑치 않고 불안전하고 흐리터분한것이 끝장나고 정확하고 엄격한 대답의 시기가 도래한데로부터 오는 기쁨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하일 히틀러!》

마체크는 쓰겁게 웃었다.

《나는 니꼴라 쩨슬레가 부럽소.》하고 마체크는 말하였다. 《그가 제때에 떠나가기는 했지만말이요. 나의 보좌관들에게 읽어주오. 그리고 후에 그들이 필요한 문장교열을 하라고 하오.》

…지금 쩨싸레쯔는 입안에서 달콤한 물을 느꼈다. 시원하고 거품

이 이는 물이였다. 소금기가 있는 약수같았다. 거품은 입안과 목구멍에서 살갗을 파고드는것 같았고 태우는것 같았다. 그리고 배에서도 여러갈래로 파고드는것 같았다. 그처럼 오래 기다려온 이 차고 달콤하고 정다운 물은 그에게 행복을 주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을 주었다.

(눈을 뜨지만 말았으면,—쩨싸레쯔는 의식이 되돌아오자 이렇게 생각했다.—다문 한순간이라도 거품이 작열되고 쓰겁게 느껴지고 거품이 타래송곳처럼 겨우 후두를 통과하는 그런 달콤한 고통이 지속되여봤으면, 그런 아픔이 있건말건 나는 실컷 마실테다. 나는 참을수 없다. 이 불행하고 보잘것 없는 경관에게 계속 소리치면서 그 앞에 비굴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그에게 결국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내 잘못이고 내 동무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우에 리상에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힘에만 복무할수 있는 무식하고 너절한 인간들이 살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약자의 고통을 즐겨보고 있다. 그것은 누구도 그들에게 약한것이 조만간에 강한것으로 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약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것이 힘을 강화해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며 항시적인 공포의 감정을 낳는것이다. 공포는 행동을 방해한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무엇인가 겁나하고 공포의 환각속에 사로잡혀있으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볼 경황도 없고 자제력을 잃고마는것이다. 그리고는 점차 자기도 모르게 삶을 재촉하게 되는것이다. 달리 말하여 죽기를 재촉한다.)

《조심스럽게 먹이시오.》쩨싸레쯔는 석쉼하나 힘있는 목소리를 들었다. 《목에 걸릴수 있소.》

쩨싸레쯔는 물을 한모금 마시고 기침을 했다. 그는 이것이 환영이 아니라 물이라는것을 알았다. 정말 물이 서서히 힘들게 입안에 흘러들었다. 그는 놀라서 머리를 쳐들고 눈을 떴다. 그것은 자기 팔굽밑에서 딱딱한 판자를 느낀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쏘파가 닿는것을 감촉하였기때문이였다. 쩨싸레쯔는 자기우에서 크바쩨르니크의 얼굴을 보았다. 크바쩨르니크로 말하면 빠벨리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였고 프란크의 손자였다. 크바쩨르니크를 형상한 쩨싸레쯔의 희곡은 자그레브에서 세번에 걸쳐 공연된 후 중지당하고말았었다.

《살았구만.》크바쩨르니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네한테 늦어질가봐 크게 걱정했네. 나는 자네에게 고통을 주는것 같아 속을 태웠네.》

그는 쩨싸레쯔의 목을 그러안고 일어나앉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쩨싸레쯔의 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에서 수갑을 벗겨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갑은 누렇고 푸릿푸릿하게 부어오른 손에서 잘 벗겨지지 않았다. 크바쩨르니크는 애무에 찬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면서 쩨싸레쯔를 안심시켰다.

《자네가 디도가 맞는가 ?》하고 쩨싸레쯔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는 이 말이 자기 목안에서 생겨나 울리고는 있으나 밖으로 나올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혀가 너무도 커서 온 입을 막아버린것처럼 느껴졌기때문이였다.

《조금만 더 참으라구.》크바쩨르니크가 말하였다. 《지금은 아프겠구만. 그건 마지막 아픔이네.》

쩨싸레쯔는 크바쩨르니크의 얼굴에 송골송골 땀이 내밴것을 보았다.

(정말 그가 수갑을 벗기느라고 그렇게 힘을 뺐는가?) 쩨싸레쯔는 생각했다.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고통을 보는데 습관되지 않아서인가? 그는 알렉싼드르왕과 프랑스외무상 바르뚜에 대한 살해를 조직하였었고 그후에는 왕을 죽인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그들을 살해한것은 아니였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을 상상해볼수도 없었다. 그런즉 그는 고통을 보기 무서워한다. 징벌을 구상하고 살인흉기가 날이 잘 섰는가 하는것을 손톱으로 검열해보는 교형리이다. 그러나 그는 살해당하는 사람이 예리한 칼날에 찔리워 소리지르기전의 그 순간에 자리를 피해버리군했다. 그것은 칼날이 머리를 자르기전에 공포심이 먼저 자기 목을 자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사형은 그자체가 무서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것이 무서운것이다. 사형을 집행하는 교형리가 무서운것이 아니라 사형할 권리를 주는 그 사람이 무서운것이다. 사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누가 이 젊고 아름답고 건장하고 이마에 땀기가 내밴 디도 크바쩨르니크에게 사상을 징벌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젠 다 됐네.》크바쩨르니크는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골막염이 생긴 어금이를 처음으로 뽑은 구강과의사처럼 의기양양했다. 《몹시 아플테지?》

쩨싸레쯔는 손가락을 눌러보았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명령한것은 생각뿐이였다는것을 알았다. 손가락은 움직여지지 않

았다.
그것은 삶아낸 굵은 쏘쎄지같았고 손톱은 피가 차서 퍼렇게 물들었다.
(손톱에 왜 피가 차있을가?) 쩨싸레쯔는 생각했다. (아 그렇지, 그가 수갑을 벗겨주니 피가 통하기 시작하누나.)
교형리들이 손톱밑에서 바늘을 빼냈을 때에는 피가 통하지 않았다. 바늘을 빼자 곧 수갑을 채웠는데 수갑이 혈관을 압착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혈관이 다시 열리니 손이 저려나도록 피가 통한다. 피는 출로를 찾아 맴돌다가 그들이 내가 소리치는가 혹은 의식을 잃는가 하는것을 보려고 손톱밑을 바늘로 찌를 때 생겼던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왔다.
쩨싸레쯔는 초들초들 마르고 터갈라진 두툼한 입술을 놀려보았다. 그리고는 무릎에서 남의 손같은 커다란 손을 들어 크바쩨르니크의 얼굴에 갖다댔다. 그러자 그는 뒤로 물러나며 피가 묻은 이마를 손으로 싸쥐고 얼른 무릎을 세워 일어났다.
《자네 왜 그러나?》하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나?》
《고맙네.》쩨싸레쯔가 귀속말로 말하였다. 《고맙네, 디도.》
《지금은 내가 예브겐이네.》하고 크바쩨르니크는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사라졌다. 《내가 망명해있을 때 부르던 이름이네. 지금은 디도가 아니라 예브겐 크바쩨르니크네.》
쩨싸레쯔는 얼굴에 정겨운 미소를 짓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그는 나지막한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바스에 가까운 그 속삭임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였다. 《자넨 크바쩨르니크가 아니야, 교형리가 영웅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자네를 교형리들의 손에서 구원해주었네. 나는 자네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주려고 몹시 서둘렀지. 그래서 결국 성공하지 않았나.》
(계승성의 법칙이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볼수 없다.) 쩨싸레쯔는 객관의 견지에서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매우 정확한것이다. (만일 그가 자기 할아버지의 특질을 가지고있다면, 위대한 할아버지의 특질을 따르고있다면 내가 고백의 희곡을 쓸것이 아니라 가짜희곡을 썼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는 자신을 기만했다. 그리고 그후에는 나의 희곡을 읽은 모든 사람들과 이 희곡을 무대에 올린 연극을 본 사람들을 기만했다. 아니다. 나는 아무도 기만하지 않았다. 디도는 오

직 히틀러, 무쏠리니와 함께 여기로 올수 있었다. 혼자서는 올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나의 크바쩨르니크, 우리 크바쩨르니크는 빠리와 윈에 희망을 가지지 않고 혼자서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올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인민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박으려 한다는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총칼의 비호밑에 네가 왔다면 자유를 가져올수 없다. 나의 예브게니는 이것을 알고있다. 디도는 모르고있다. 교형리는 자기의 교형리적행위를 계속할것을 구걸하기 위하여 적을 동정하는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쩨싸레쯔는 잘 움직이지 않고 줄칼처럼 거치른 혀를 간신히 놀려 물었다. 《누가 나를 고문했나?》

《쓰르비아사람들이지.》디도는 랭담하게 대답하고 체육복주머니에서 금빛담배곽을 꺼냈다. 《한대 피우고싶지 않나?》

쩨싸레쯔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묵직하고 매끈하게 생긴 금빛담배곽을 주머니에 도로 넣는것을 방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촌수비대〉에서 일한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겠구만?》

《그건 자네한테 그렇게 느껴졌을뿐이네. 말하자면 착각이라고 볼수 있지. 사람이 무서운 고통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되는 법이네.》

《디도, 자네가 그들에게 말해주게. 그렇게 오래오래 고문하지 말라구. 그렇게 오래 고통을 주다간 죽일수 있어. 한계점이 있지 않나.》

《무슨 말인가?》디도는 얼떠름해서 물었다.

《한계점말이네.》쩨싸레쯔는 다시금 곱씹었다. 《아무 일이나 한계점을 지켜야 하네.》

《뭘 먹고프지 않나?》

《먹고프지 않네.》

《이제 리발사가 올걸세. 자넨 면도를 해야겠네. 내가 의사도 벌써 불렀네. 의복은 어떤걸 요구하나? 흰색? 밖에 해가 비치고있네.》

《자네 왜 그렇게 말하고있나?》

《뭘 말인가?》

《지금 말하고있는걸말이네.》

《아브구스트, 이제는 자네가 자유로운 몸이 됐네. 내가 석방시켜줬지. 듣고있나? 자네 나와 함께 나가세. 우리 함께 광장에 가서 사람들이 웃고 노래부르는걸 들어보세나. 그다음엔 카프톨에 가세. 사

람들이 자유를 맞이하여 얼마나 기뻐하고있나 보잔말이네. 사람들이 안떼 빠벨리치의 말을 얼마나 행복하게 듣고있는지 아나? 자네 나와 함께 그의 말을 들어보세. 우리도 싸웠고 자네들도 싸웠지. 우리는 다같이 하나의 적, 베오그라드군주제도와 베오그라드독재를 반대하여 싸워오지 않았나. 우리는 승리하였네. 아브구스트, 이젠 우리 함께 흐르바쯔까를 건설해보자구. 새 흐르바쯔까에서 자네가 할 일이 있네. 자네나 우리나 결국 각이한 방향에서 각이한 방법으로 하나의 목적,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았나.》

쩨싸레쯔는 도리를 저었다.

《우리는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것이 아니네. 디도, 우리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네.》

《좋네.》디도는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것에 대해서는 신문을 통해 끝까지 론쟁해보세나. 이젠 자네가 쓰고싶은대로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됐네! 자넨 지금 흐르바쯔까에서, 독립국가 흐르바쯔까에서 살고있네, 아브구스트!》

《내가 쓰고싶은것을 전부 자유롭게 쓸수 있다구?》

《전부 쓸수 있지. 전적으로 전부.》

《그럼 자네들 신문에 내 론설을 싣도록 해주게. 좋나?》

《그건 우리의 영예이지.》

《헌데 내 론설제목이 뭔지 아나?》

《뭔가?》

《제목이 아주 아름답지, 아주 아름다워. 이 제목은 내가 한평생 꿈꾸어온거네. 뭔지 아나? 〈쏘베트 흐르바쯔까 만세!〉 이거야.》

사형집행을 위해 정렬한 경무소대 소대장이 프리짜에게 눈을 싸매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놈들은 악당들이다. 흔한 악당들이다. 나는 악당들을 똑똑히 보는데 습관되여있다.》

첫 일제사격이 진행되자 프리짜와 그의 동료들은 따스한 해빛이 내리비치고 바다냄새가 풍기는 흰벽옆에 쓰러졌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서서히 쓰러졌다. 다만 오쓰까르 케르쇼바니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죽지 않았던것이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다. 그는 자기 피냄새를 느꼈다. 피는 숨결과 함께 서서히 가슴에 흘러내렸다.

《네놈들은 먼저 총쏘는 방법부터 배워야겠다.》케르쇼바니는 이렇

게 말하고 파쑈무리들의 대오쪽으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갔다. 놈들은 서리발이 돋힌 격발기소리를 찰칵거리며 뒤걸음쳤다. 그러면서 자기 지휘관을 쳐다보았다. 소대장은 소대장대로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지하실에서 쩨싸레쯔를 지키던 제일 나어린 대원이 뭐라고 소리지르며 케르쇼바니를 향하여 걸어갔다. 케르쇼바니의 눈길은 그 대원을 밀어던지지 않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였다. 대원은 눈을 쪼프리며 손을 앞으로 내뻗치였다. 그는 권총이 무엇인가 부드러운것에 닿는것을 감촉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쩨싸레쯔는 총살하지 않았다. 놈들은 디도 크바쩨르니크의 명령에 따라 가늘고 긴 나무몽둥이로 곤죽이 되게 그를 두들겨팼다. 디도는 자기 생애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것을 보았다. 존넨브로크의 명령을 받은 흐르바쯔까파쑈조직성원들이 그것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게스타포의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하고싶은대로 했다. 쩨싸레쯔를 오래동안 괴롭히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꼈다. 적이 무서운 고통을 겪을수록 자기들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고있는 모양이다.

슈틀리쯔는 자그레브광장에 서서 무장한 파쑈조직 대원들이 위대한 총통을 위해 승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느라고 사람들을 강제로 사원에 몰아넣는것을 보고있었다. 바흐의 음악이 울려왔다. 화살모양의 창문을 통해 울려나오는 풍금소리는 주위를 거대한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것은 위대한 행복을 낳는 음악이 지금 슬픔의 눈물을 낳고있기때문이였다.

세번째 주패장

(1941년 6월)

간나 뾰로꼬뾰츄크 (1)

녀인은 천천히 시내로 걸어갔다. 몽마르뜨르우에 여전히 파르스름한 연기가 서려있고 6월의 뜨거운 해빛에 사원의 지붕들이 반짝거렸으며 사람들의 말투도 예나 다름이 없건만 도시는 그전과 다르게 보였다. 프랑스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도 웃을줄 알았다. 하기에 그들의 말은 언제나 태평스러워보이는것이다.

녀인은 자그마한 몽스 엘리제공원쪽으로 꺾어들었다. 무거운 장대같이 쏟아져내리는 해살이 방울나무잎사귀들을 거멓게 물들였다. 이전에 여기서는 언제나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치는 때가 없었다. 간나는 여기로 자주 찾아오군했었다.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있노라니 금시 야네크가 냉큼 무릎에 뛰여올라 따스한 손으로 목을 휘감는것만 같고 뒤미처 막내아들 니끼따가 야네크를 밀어던지느라고 매부리코로 씩씩 숨을 내쉬다가 울음을 터치는것만 같았다. 니끼따는 무엇인가 자기 욕망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언제나 막무가내로 슬프게 울어댔다. 어찌도 서럽게 우는지 듣기에 가슴이 저릴 지경이였다.

그러나 지금 공원에는 아이들도 없고 애완용 삽살개를 끌고 푸른 잔디밭에서 산보하는 사람도 없다. 머리가 하얀 로파들이 앙상한 무릎우에 뜨개감을 올려놓고 앉아있는것도 안보인다. 젊은이들도 신기한 무쇠공굴리기를 하지 않았다.

뿔스까에는 이런 놀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공원은 휑뎅그렁하고 적막에 잠겨있다. 한마디로 강점된 공원인것이다.

(제발 《왜 이렇게 되였는가?》하는 저주로운 생각이 다시 떠오르

지 말았으면.) 간나는 무서워났다. (이러다간 정신이 돌것 같애. 정말 내가 바보지. 알짜 바보야. 참 내가 어리석게 죄많은 행동을 했어. 하지만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를 질책하기만 해선 안된다. 그러면 내가 맥을 놓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것이다.)

간나는 울음이 나왔다. 볼을 타고 쭈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는 가방을 열고 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다. 그리고는 거울에서 불깃해진 눈시울을 보고 약간 분칠을 하고 속눈섭을 칠하였다. 그리고나서 뜨겁고 뿌잇한 해를 향해 얼굴을 쳐들었다.

(내가 거기에 이그러진 얼굴로 가서는 안된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는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 관리들은 오직 매혹적인 녀자들만 도와주는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신청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광기를 부리는것을 무서워한다. 관리들은 모두 외교관들처럼 되고싶어하고 대야회에서 대사들과 지껄여보고싶어한다. 또한 그들은 연미복을 차려입고 입에 파이프를 꼬나물어보기를 공상하고있다. 이것은 건축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성격을 리해하도록 도와준것이다. — 간나는 자기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 그건 정말 그래.

유리의 경쾌감과 아름다움, 알루미니움과 콩크리트의 조화, 이것은 단순히 구조물을 형성하는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생활을 안정시켜주며 아름답게 하여준다. 코르부제가 《건축학, 이것은 인류의 기본교양자이다.》라고 말한것은 옳게 한 말이다. 만일 사람들을 주위의 아름다움에 《숙명적으로 대하도록》만들어놓으면 그들은 더 훌륭해질것이다. 허나 나의 이 건축학과 나의 태양의 도시는 모두 저주로운것들이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하단말인가? 나에게는 아이들이 필요하고, 내 무릎에 기여오르려고 서로 밀치며 코를 씩씩거리는 그 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침에 애들이 나한테로 달려올 때 맨발로 마루를 스치는 그 소리가 필요하다. 애들은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내 침대에 뛰여올라 내 이불밑에 기여들려고, 그 매부리코들을 내 귀에 묻고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두려움과 행복과 긴장감에 휩싸여 빨간 혀를 내밀고 살금살금 달려오는것이였다.

아, 지금 나는 또 울고있다. 30분후에 거기에 가면 꼬락서니가 볼품없는 이 녀자에게 꼭 퇴를 놓을것이다. 나는 여기 이 한적하고 휑뎅그렁하고 지금은 벌써 낯설어진 도시에서 미칠것만 같다.)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망명자들속에서 빠리신문사 편집국장 보그다노비치가 전쟁이 인 때로부터 최근 두해동안 사방으로 분산된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온 그 고장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통행증발급을 도와주는 특별부서를 꾸리고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간나는 보그다노비치를 찾아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비록 뽈스까사람은 아니고 로씨야사람이지만 그래도 도이췰란드사람보다는 잘 리해하여줄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게다가 간나는 도이췰란드말을 잘하지 못했다. 프랑스관리들은 모든 권력을 죄다 빼앗기고말았다. 그들은 단지 강점당국에서 지시하는것을 집행할따름이였다.

바그라마거리에 있는 편집국에서 국장서기 쑤르구체브라는 사람이 간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간나를 몹시 동정하며 청을 다 듣고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며 신문을 보라고 했다.

《보그다노비치씨는 10분후에 나올겁니다. 우크라이나말로 이걸 뭐라고 하던지.》그는 빙그레 웃었다. 《〈라스까〉라고 하던가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간나는 서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냥하고 례절있는 웃음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신문을 펼쳐들었다. 그는 도안을 만들줄 아는 사람의 숙련된 눈으로 지면이 전혀 균형이 잡히지 않은것을 제꺽 알아보았다. 그는 언제나 균형과 빛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왔었다. 간나의 설계도면은 헤그와 빠리에서 진행된 국제건축가콩클에서 1등으로 입선되군하였었다. 그래서 남편 라지슬라브와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와르샤와에서 빠리로 온것이였다. 그때 라지슬라브는 《우리가 헤여지든지 당신이 자기 일을 그만두든지 해야겠소.》라고 말했었다. 간나는 이 말에 타협할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야 할것이였다. 그랬더라면 아이들도 옆에 있을것이고 더는 아무 시름도 없을것이다. 자기옆에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뿐일것이다. 라지슬라브는 간나를 리해못할수도 있었지만 지어 리해하지도 말아야 했다. 아직까지 누구도 서로 진실하게 리해하여주는 일이 없지 않았던가. 남자는 녀자를 리해하지 못하고 녀자는 남자를 리해하여주지 못하고…간나는 여기에 순종해야만 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가 옳다는것을 리해하여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 이 무더운 작은 방에 앉아 신문을 읽어야 했다. 신문은 감미로운 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어느 교회당지하실 사진에 크게 지면을 주고 《위대한 민족사회주

의》에 대하여, 《겝벨쓰박사의 탁월한 활동》에 대하여 력설하였다. 간나는 대좌 까르따쇼브의 론설에서 론리를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는 로씨야말이 더 잘 리해되도록 입속말로 읽기 시작하였다. 소리내여 읽은 글만이 진짜 자기것으로 섭취되였던것이다.

《당신들은 제발 비밀공제조직(18세기 영국에서 종교철학조류로 발생하였다가 그후에 유럽나라들에 비밀조직의 형태로 전파되였다.)을 전쟁방화자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선진적인〉 밀류꼬브, 오쓰르긴들이 당신들을 몽매한 사람들이라고 사회적비난을 퍼부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들을 겁나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선언한다. 전쟁은 단지 볼쉐위크들, 유태인들, 비밀공제조직에만 필요한것이며 전쟁방화자는 비밀공제조직이라고. 오직 이들 하나만이 전쟁을 도발할수 있다.》

《간나 뽀로꼬뻬츄크부인입니까?》간나는 등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이 나를 만나자고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보그다노비치씨. 저를 위해 이처럼 시간을 내주어 감사해요.》

《당신은 로씨야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모바말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바말은 전혀 몰라요.》간나는 말하였다. 《저는 자기의 말, 우크라이나말을 알고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뽈스까말로써도 통할수 있지 않을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뽈스까말을 잘 모릅니다. 도이칠란드말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말로 합시다.》

보그다노비치는 약간 낯색이 흐려졌다.

《그럼 프랑스말로 합시다. 당신은 무슨 일로 나한테 왔습니까? 한때 나는 당신의 태양도시에 대하여 읽은바가 있습니다. 당신은 코르부제의 제자인가요?》

《예.》

《로씨야에서 태여났습니까?》

《아니예요. 크라꼬브에서 태여나 후에 와르샤와에서 살았습니다.》

《와르샤와는 로씨야도시였지요. 제국에 속해있었단말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게 뭡니까?》

《크라꼬브에 저의 아이들이 남아있습니다. 가족이… 저는 당신에게 거기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줄것을 간청하고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쁘로꼬쁘츄크부인,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어머니가 필요하지요. 특히 어려운 시절에 민족별로 보면 당신은…》
《우크라이나녀자예요. 뾜스까공민이고.》
《당신의 남편은?》
《산림기사 라지슬라브 쓰따후르쓰끼라고 합니다.》
《뾜스까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되여 우리한테 오게 되였습니까, 쁘로꼬쁘츄크부인?》
《제가 생각한것은…》
《어떻게 생각했다는겁니까?》 보그다노비치는 녀자를 심문하듯 급히 질문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당신이 슬라브사람으로서 저를 리해하여 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로씨야사람들을 대상하고있습니다. 부인, 다만 로씨야사람들을. 만일 당신이 로씨야녀자라면 당신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도이췰란드당국과 교섭해볼수 있을겁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저에게 의견을 좀 주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사람들을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어머니로서 부탁하는거예요.》
《아이구, 우리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야 참, 저는 혼자 떨어져있습니다.》 간나는 울음이 터져나오는것을 참으며 말하였다. 《어머니들을 무슨 잘못이 있다고 꾸짖겠어요.》
보그다노비치는 악이 치밀었다. 그의 얼굴이 알릴듯말듯 가늘게 떨렸다.
《자기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다니는 녀자들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간나는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신문사에서 지성인들이 일하고있는줄 알았어요.》
《당신은 잘못보지 않았습니다. 지성인들은 자기 견해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응당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된 말을 되풀이한다면 천민의 운명이지요. 이게 전부입니까?》
《그래요. 나한테는 전부예요. 떠나면서 한마디 하고싶은데 당신의 그 박정한 태도는 당신에게 복수를 안기리라는것을 명심하세요. 보그다노비치씨.》
《나에게 복수하면 나는 거기에 앙갚음을 하겠습니다.》 보그다노비치도 일어섰다. 그는 표독하고 거만한 눈길로 녀자를 흘겨보았다.
간나는 나들문쪽으로 걸어가면서 자기 등과 목과 다리에 그리고 구역질은 나지만 류행으로 되여 받아들인 그 파마머리에 보그다노비치의 검질긴 시선이 날아와 박히는것을 느꼈다.
(이제 나를 소리쳐 부를게다.) 간나는 거칠게 색칠하고 터갈라진 문에 붙어있는 신비하게 생긴 싸늘한 구리손잡이를 잡으며 생각했다.
《쁘로끄쁘츄크부인…》 보그다노비치는 나지막하게 기침을 했다.
《왜 그러세요.》 간나는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자기 전화번호를 남겨두는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이췰란드당국과 토론해보지요.》
간나는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두사람의 시선이 부딪쳤다.
《제가 전화번호를 도이췰란드당국대표에게 남겨두겠어요.》 간나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중재인이 필요없어요.》
보그다노비치는 피씩 웃었다.
《당신이 알고있는것처럼 결심을 채택할 때 그들은 반드시 나와 협의하게 될겁니다.》
《저야 우크라이나녀자가 아니나요.》
《그야 물론이지요. 그러나 빠리에는 우크라이나부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심대로 하십시오. 나한테는 하여간 당신을 방문하는것이 흥미있을것 같습니다.》
…이태전 간나가 빠리의 초청을 접수하기로 결심하고 라지슬라브와 아이들의 곁을 떠나올 때 남편은 간나의 출발을 완전한 리혼으로 생각할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간나는 지쳐서 이 말에 동의해버리고말았었다. 밤을 지새며 끝없이 진행된 이야기는 두사람을 모두 지쳐버

리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들 두사람에게 안겨졌던 이전날의 익숙된 생활이 영원히 되돌아올수 없게 되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빠리에서 간나는 초시기 창작에서 행복과 안정을 찾았었다. 그는 으리으리한 건축설계실에서 일하였는데 그의 설계들은 동료들속에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였다. 간나는 첫 원고료로 받은 돈을 크라끄브에 보내면서 라지슬라브에게 편지도 함께 보냈다. 친절하고도 애수에 찬 이 편지에 그는 남편더러 아이들을 데리고 빠리에 오라고 간청하였다. 간나는 매일매일을 여러가지 색갈로 채색하면서 날자를 세여갔다. 그는 한주일치고 어느날이나 자기의 독특한 색갈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했다. 토요일은 가볍고 밝은 황색이 섞인 진한 록색으로 칠해졌고 수요일은 전환의 날이였다. 일요일은 일하지 않는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쓸쓸한 날이였다. 간나에게서도 이 날은 제일 나쁜 날이였다. 일요일은 그가 여느때처럼 창작적열정을 발휘할수 없는 날이였다. 간나는 아직 작업장을 세내여 꾸릴만한 돈이 없었다. 작업장만 있으면 일요일에도 일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이날은 록색으로 표시될것이다. 록색보다 더 고운 색갈은 없지 않는가. 그것은 봄을 의미하고 6월의 여름을 의미하기때문인것이다.

고요한 정적도 새들의 지저귐소리도 보이지는 않으나 정겹게 느껴진다.

두주일지나 열넉장의 종이에 행복한 기대의 색갈이 칠해졌을 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크라끄브에서 돈이 돌아왔다. 그날저녁 간나는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미쉘 쉐누아와 함께 이브리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새벽에 그 녀자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미쉘을 보고 월요일까지 전화를 걸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전신전화국으로 가서 크라끄브에 《희망한다면 내가 돌아가겠음.》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날렸다. 그러나 라지슬라브는 이 전보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간나에게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사람의 슬프고 공허한 생활이 시작되였다. 밤이면 고통속에 모대기고 낮이면 작업장에 불박혀 살았다.

더는 미쉘과 만나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 라지슬라브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그렇게 몸집이 우람하면서도 몸매가 없고 결핏하면 성을 내군했다. 간나는 그에게 정이 들가봐 무서워했다. 10년세월을 함께

사느라면 아무래도 생활에 흔적을 남기기가 일쑤인것이다. 습관은 두번째 성격이라고 하지 않는가.

간나는 이전날의 간나에게서 떠나가고싶었다. 그는 자기의 리성이 항시적인 비애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였다.

9월 1일 아침 간나가 라지오에 다가가 하얀 손잡이를 돌렸을 때 방송원은 지금 히틀러가 와르샤와를 폭격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간나는 놀라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풀썩풀썩 담배를 피우며 태연하게 다른 생각을 쫓고있었다. 그때 간나는 나에게 보복이 닥쳐왔구나, 야네크와 니끼뜨까만 거기에 남아있고 나는 홀몸으로 되여버렸다, 내 설계문건들이란 모두 무의미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것이 건설에 바쳐지고있는것이 아니라 파괴되고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다.

간나는 그때 커피를 진하게 끓였으나 자기는 한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 목이 꽉 메여 마실수가 없었던것이다. 다만 자기 남동무를 생각에 잠겨 무심하게 바라보았을뿐이였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떠나면서 《당신에게는 얼굴이 없어요. 해골바가지가 나를 바라보고있어요.》 하고 쏘아붙이였다.

그러나 건축설계실에서는 이전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였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띠나, 메히꼬들에서 련이어 주문이 제기되였다. 저녁마다 남자들은 (그들중 많은 사람들은 동원령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벌써 반군복차림으로 다녔는데 이것은 하나의 류행으로 되였다.) 녀자들을 골라잡고 카페로 돌아다녔다. 카페는 8월달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다만 창문에 검은 차광막이 드리운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였다.

간나는 지금 아무데도 다니지 않았다. 시간만 있으면 적십자단체에 가있거나 혹은 미국령사관, 일본대사관에 가있었다. 뽈스까로 가는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느곳에서도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도와주려고도 하는것 같지 않았다. 그후 적십자단체 스위스부서에서 키가 작고 얼굴이 원숭이상판처럼 생긴 매우 신경질적이고 민첩해보이는 젊은 사람이 간나에게 저녁식사를 권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간나를 자기한테로 데리고갔다. 간나는 역스러운 감정을 겨우 감추면서 거기에 남아있다가 이틀후에 통행증을 받으려고 다시

거기로 찾아갔다. 그때 스위스대표부에서는 빠울 프로만이 어린애가 앓아서 급히 베른으로 떠나갔는데 석달전에는 올것 같지 못하다고 알려주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단말인가?) 간나는 텅빈 몽스 엘리제로 돌아와 이렇게 생각했다. (누구를 보고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하는가?)

그 녀자는 보그다노비치의 떨리는 얼굴과 그의 잽싸게 움직이는 손가락이 눈앞에 떠오르자 역겨운 생각이 치밀었다.

(옳지,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가봐야 한다.) 하고 간나는 생각했다.

(더는 갈곳이 없다. 만일 그들도 거절하면 걸어서라도 국경을 넘을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엇인가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돌고말것이다.)

와르샤와가 폭격당하던 그날 그에게는 그러다가 우리 애들이 없어졌으면 어쩐다? 내가 혼자 남아서야 뭘하겠는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이 두번째 물음은 그에게 무섭게 생각되였다. 간나는 미쉘에게 찾아가 그의 삐걱거리는 싸늘한 넓은 침대에 드러눕던 그 첫날밤처럼 자신에 대한 께름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과거와 인연을 끊으면 그것이 앞으로 구원을 가져다줄것이라고 천진하게 생각하였었다. 애인이나 혹은 적은 차던질수 있어도 자기자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과거를 잊을수도 없을것이다.

…신비하고 알려지지 않은 인간들의 운명의 교차점에는 세계의 중요한 비밀들중의 하나가 숨겨져있었다.

이싸예브 슈틀리쯔의 아버지 울라지미르 알렉싼드로비치 울라지미로브는 뻬쩨르부르그종합대학 법학교수였는데 자유주의적인 사상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계층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것으로 하여 해고당하였다. 그는 올레샤와 결혼하였다. 그들의 결혼은 특별하게 진행되였다. 자바이깔류형지 이주민들의 관례에 따라 결혼식에서는 네크라쏘브, 뿌슈낀, 레르몬또브, 쉡첸꼬의 시들이 랑송되였다. 류형살이를 하는 우크라이나혁명가 오스따쁘 니끼또비치 쁘로꼬쁘츄크의 딸 올레샤는 느리고 긴 노래를 불렀다. 거기 자바이깔에서 아들 브쎄볼로드가 태여났다.

류형살이를 마치고 오스따쁘 니끼또비치 쁘로꼬쁘츄크는 아들 따라스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가 그후 다시 체포될 위험이 있

어 크라꼬브로 떠나갔다. 여기 크라꼬브에서 따라스는 눈알이 파랗고 머리칼이 검은 반다 크루샨스까야라는 처녀와 결혼하였다. 그들에게서는 전쟁전야에 딸 간나가 태여났다.

오스따쁘 니끼또비치와 따라스는 뻬쩨르부르그에 있는 울라지미르 알렉싼드로비치 울라지미로브에게 편지를 띄워 브쎄볼로드의 사촌누이동생이 태여났다는것을 알리였다. 그러나 이 편지는 울라지미로브가 아들과 함께 스위스에서 망명생활을 하고있었으므로 주인들에게 닿지 못하고말았다.

그후 세계전쟁이 터지고 혁명이 수행되였다. 그때 스무살난 브쎄볼로드는 그때까지 아직 막씸 이싸예브도 슈틀리쯔도 아니였다. 체까의 글레브 이와노비치 보끼로부터 뽈스까에 고아로 된 사촌누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버지 오스따쁘 니끼또비치는 1915년에 전사하고 아들 따라스는 1918년에 총살당했었다. 브쎄볼로드는 누이동생을 찾아 로씨야로 데려올수 없었다. 삘쑤드스끼정권이 동부국경을 엄밀히 감시하면서 누구도 쏘련으로 놓아주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사람들은 더욱 그러했다.

이싸예브 슈틀리쯔의 어머니 올레샤 오스따뽀브나는 아들이 다섯살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씨비리류형지에서 급성페결핵이 수많은 사람들을 땅속에 몰아넣었던것이다. 이싸예브 슈틀리쯔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과 부드럽고 우아하고 잔잔하고 상냥한 우크라이나말을 기억하고있을뿐이였다.

글레브 이와노비치 보끼가 롱조로

《여보게, 자넨 나쁜 우크라이나사람이야. 우리 노래도 모르고.》라고 말하였을 때 브쎄볼로드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나는 알고있네. 우리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두가지 기억하고있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니까…》

…그후 그는 비합법적상태에로 넘어갔다. 그리고 1922년부터는 해외에서 살아왔다. 그는 지금 자기가 입고있는 그런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리에서 자기의 사촌누이동생 간나 쁘로꼬쁘츄크에게 무서운, 그러나 그 시기로서는 전형적인 운명을 들씌우려 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히틀러주의의 민족구성체계에서 《슬라브사람들》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았다. 다시말하여 로씨야사람, 우크라이나사람, 벨라루씨사람, 쓰르비아사람, 뽈스까사람으로 나누지 않았다. 히틀러는 슬라브종족의 문화는 말할것도 없

고 그 씨와 피마저 완전히 말리워버릴 심산이였다.
만일 문학가나 혹은 력사가가 인류력사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을 앞둔 그 나날에 간나 쁘로꼬쁘츄크의 오빠가 자기 누이동생을 도와 줄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누구도 여기에 똑똑한 답변을 할수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가혹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인것은 총체적인것에 종속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부정하는것은 인도주의적이 못되기때문인것이다. 여기에는 궤변이 있을수 없다. 누이를 위하여 모험하는것은 1억 5천만 동족을 배반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슈틀리쯔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무의 요구에 따라 이 사람들에게 복무하고있는 것이다.

서 문

(1941년 6월 베를린)

접대원이 가벼운 동작으로 커피잔을 거두어가지고 방에서 소리없이 나가자 하이드리흐의 부관 리체대좌는 제국안전총국 제6국 3과장 우즈너쪽으로 유리재털이를 밀어놓고 두꺼운 청자색유리의 진기한 면을 황홀하게 바라보며 놀라움이 섞인 어조로 말하였다.
《이런 투명체의 시원이 보통모래라는걸 좀 생각해보오. 하긴 군단장도 갓난애기의 울음소리로부터 시작되는거지. 교예사의 아름다움의 시초에는 산모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다오. 한대 피워도 좋소.》
《고맙소. 대좌.》
《그럼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고있는바를 큰소리로 계속하겠소. 동쪽에서 진행되는 작전이 우리 앞에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주고있소. 군부는 프랑스,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승리한 후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소.
〈히틀러청년단〉은 우리 운동의 로장들보다 얼마전에 있은 전투에서 영웅이 된 사람들을 더 잘 알고있소. 볼쉐위즘을 꺼꾸러뜨린 후에 군부는 도이췰란드제국에서 가장 위력한 력량으로 될수 있소.

에쓰에쓰보다도 더 강하고 당신과 나보다도 더 위력해질수 있소. 그러니까 파업은 무엇이겠소. 내 견해로서는 군부의 요직에 점차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올려놓는데 우리 임무가 있다고 나는 강조하고싶소. 이를 위해 우리는 일정한 대책을 취할 준비가 되여있소. 남을 믿기 잘하는 하이드리흐중장에게 최고사령부가 자기 식의 정책, 특수한 개인주의적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쳐서는 안되오. 지금은 이것이 시기상조요. 우리 앞에는 전쟁이 놓여있으니까. 적은것을 다쳐야 하오. 이것이 전반적인 리유로 보아 유익하다고 볼수 있소. 첫째로 이것은 몹시 아프면서도 전혀 뜻밖의 타격으로 될것이요. 둘째로 이런 적은 타격은 필요한 경우 어떤 사람과도 쉽게 타협할수 있소. 나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중에서 범죄자들을 리용하여 우리가 타격할수 있는 가능성을 토론해보자는거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리해하였다. 리체는 특출하게 뛰여난 존재로 되여보려는 욕망에서 자기 구상을 실현하고싶었던것이다. 그는 우즈너가 여기에 협력해나설것을 호소하면서 그에게 이런 가능성을 안겨주었다.

…우즈너는 그날저녁을 넘기지 않고 자기 방조자 아이스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즈너의 사업능력은 정말 놀랄만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첩보망과 관련한 자료들을 깐깐히 뒤져 불필요한것들은 모두 제껴버리고 다만 세명의 민족주의거두들인 우크라이나두령 스끄로빠쯔끼, 안드레이 멜리니크, 스쩨빤 반데라에 대한 자료만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 친구들, 자신을 뮬러의 부서를 통해 여러차례 검열된 게스타포의 믿음직하고 능숙한 첩자로 자처하는 믿을수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우즈너는 자기가 무르익힌 그 책략에서 누구에게 맹목적인 집행자의 역할을 맡길것인가 하는것을 타산한 다음 쉘렌베르그를 찾아갔다.

우즈너의 보고를 듣고 쉘렌베르그소장은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지도상에서 없어질것이요. 우리 인종리론의 견지에서 볼 때 슬라브인들의 민족주의는 한번 쓰고 내버릴 종이손수건이나 같은거요. 물론 지금은 박자를 맞추어야 하며 우크라이나민족주의조직에 국가를 창건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도 우크라이나가 슬라브세계밖에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거요. 총통의 위대한 사상은 세계지도에서 슬라브민족들을 없애치울것을 의도하고있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극을 놀아야 하고 그들을 리용해야 하오. 위생청소원들의 봉사를 거절할 필요는 없소. 이 잡다한 인간들은 위대한 힘에 매혹되여있소.》

쉘렌베르그는 담배를 꼬나물고 쏘파에 등을 기대였다.

《이게 전부요.》그는 이야기를 끝냈다. 그의 얄팍한 입술에 얼핏 미소가 스쳐갔다. 입술은 그속에 숨겨져있는 항시적인 조소의 흔적으로 하여 이그러져보였다.

그날밤 제국안전총국장 하이드리흐의 부관은 게스타포책임자 뮬러의 방조자를 자기한테로 초청하였다.

뮬러의 방조자는 크라꼬브에서 중좌 디쯔를 불러 명령을 실천에 옮길것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를 불렀다. 몇분후 서기는 소장에게 슈틀리쯔가 없다고 하면서 바벨쓰베르그의 집까지는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관심을 두었다가 월요일아침 정각 아홉시에 그가 나한테 오라고 하시오.》

쿠르트 슈트람 (1)

…다만 제일 첫날만 찌르는듯한 아픔을 느꼈었다. 특히 손을 나무틀에 압착하고 다리를 띠로 결박한 다음 짱짱하게 풀을 먹인 흰 위생복을 입은 사람이 쿠르트와 마주앉아 처음에는 천천히 손톱을 누르고 다음에는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 그다음에는 둘째손가락을 누르기 시작할 때 몹시 아팠다.

처음에 이 일을 당하였을 때 쿠르트는 몸을 비틀며 고함을 질렀고 빨리 의식을 잃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손톱이 서서히 시커멓게 죽어가다가 나중에 짬새기로 피가 터져나오는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첫날을 치르고 그는 허리를 펴고 일어설수도 누울수도 없는 어둡고 침침한 지하독감방에 앉아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그는 자기가 몸부림을 침으로써 풀을 먹인 흰 위생복

을 입은 그 의사와 그리고 눈시울이 따가와나도록 바투 갖다댄 등불뒤 컴컴한 곳에 앉아있던 에쓰에쓰요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고문을 당할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픔은 더해질뿐이며 그것은 결국 참을수 없는 극한점에 이르게 될수 있다는것도 깨달았다.
(모든것이 끝장이다. —쿠르트는 똑똑하게 깨달았다. 사실에 대한 이와 같은 리해만이 그로 하여금 생각을 더듬게 해주었다. 이런 처지에서 환상은 사람을 변절자로, 바보로, 정신병자로 전락시키는것이다. —이젠 나에게서 모든것이 끝장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시련은 사랑이나 병이 아니라 죽음인것이다. 바로 죽음이다.)
…쿠르트는 독감방의 차거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선뜩선뜩한 물방울이 느껴졌다. 그는 이러한 느낌이 오히려 좋았다. 그는 가을비가 내린 후 탄탄한 참나무줄기에 머리를 기대고있는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가을비가 내릴 때 수림은 거무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하늘은 마치 사람들에게 내려온 위안자처럼 가까와지는것이다. 그리고 참나무잎사귀에서는 늙은 로파의 눈물마냥 서서히 비방울이 떨어진다. 허나 봄에는 비방울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것은 아이들의 눈물을 련상시킨다. 아이들의 눈물은 언제나 웃음끝에 혹은 웃음전에 있는것이다. 아이들의 눈물은 정답고 아프지 않다.
(아마 우리가 자기자신들을 잊고있는것 같다.) 쿠르트는 자기 생각을 고쳤다. (제일 달래기 힘든것이 아이들의 눈물이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아이들의 슬픔이 허망한것으로 느껴지고있을뿐이다. 우리는 사실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다. 첫 모욕과 첫 고통 그리고 첫 슬픔은 사람의 한생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다. 특히 모욕이 부당하고 고통이 우연한것이며 슬픔이 리해할수 없는것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는 모든것이 끝장났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자기앞에 무엇이 놓여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했다. 지금도 그리고 후에도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밤에도 래일에도 마찬가지다. 아니, 지금은 벌써 래일일수도 있다. 그는 련락원과 접선하다가 체포되여 자동차에 실려온 이후 아직 해를 보지 못한것

이다.
(놈들이 련락원을 체포할수 있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왔었다. 그가 외교려권을 가지고있었지.) 쿠르트는 몇번이고 자기를 위안했다. (놈들이 그를 추방하고 항의를 제기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놈들은 나를 체포하듯 그를 체포할수는 없는것이며 수색하고 고문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런 일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아니 단순히 내가 모를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야, 나는 알았을것이다. 후고 슐쯔가 나한테 그걸 말해주었을거야. 그는 게스타포와 련결되여있지 않는가. 게스타포는 그의 경제지식을 보호해주고있다. 그는 게스타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고 언제나 밝은 미래가 올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또 내가 어리석게 말하는군. 아니, 내가 말하는것이 아니지. ―그는 자기 생각을 고쳤다. ―나는 말하는것이 아니라 생각하고있어. 내가 생각하고있지 않는가, 아차,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는 소름이 쭉 끼쳤다. ―정말 내가 이것을 소리내여 말하지 않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놈들은 아마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있을것이다. 모든것을 결판지어야 한다. 놈들이 더 횡포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놈들이 인차 나를 죽여버릴것이다. 그러면 모든것이 끝장이다. 첫날 그들은 나를 죽일수 있었다. 그들은 다섯명이였다. 놈들은 구두발로 내 갈비대를 걷어찼었다. 젠장, 나는 저도 모르게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머리를 감추고 손을 갈비대에 갖다댔던거지. 나를 죽이라고 내버려두었을걸 그랬어. 나는 환상으로 살아왔다.)
쿠르트는 마음속에 치미는 분을 누르려고 생각을 다른데로 돌려보았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내여 그것과 론쟁해보기로 결심했다.
(행복한 아이들은 더 정직하고 용감하게 자라나겠지.)
그는 감방벽에 뒤머리를 비비며 자기 생각과 론쟁해보려고 애썼다. 그것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마 이건 성실치 못한 론쟁으로 될것 같다. 나한테는 론쟁할 욕망이 없다. ―그는 스스로 자인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단지 놈들이 묻는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아이들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으며 그것으로 하여 감동되였었다. 다시말하여 자기를 어린 시절의 행복한 사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계에서 가장 귀엽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후고 슐쯔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났다. 아버지는 칠레에서 살았고 어머니는 어느 마쟈르 지주와 결혼하여 몽떼 까를로(모나꼬의 도시)로 떠나갔다. 할아버지는 엄하기가 그지없어 손자에게 입도 한번 맞춰주지 않았으며 령지에서 함께 살고있는 료리사들, 종들, 운전사의 아이들과 노는것을 금지시켰다. 그리고는 종일토록 가정교사들을 붙여 라틴어와 고대그리스음악과 론리를 배워주게 했으며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매질을 하군했다. 그러나 후고는 나보다 더 힘있고 더 선량하고 더 대담하게 자라났다.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힌덴부르그가 죽은 후 도이췰란드에서 벌어지고있는 어리광대같은짓들을 느끼고 있으나 그것을 느꼈을뿐이지 누구와 이에 대하여 말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후고는 나에게 소극적인 반항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서슴없이 말하였다. 그리고 소극적인 반항은 나치즘이 대두한 조건에서의 반항이 전혀 아니며 비겁한 자기 변명의 한 형태라고 말하였다.)

…밤중에 그를 심문에 불러냈다. 그는 이것을 교형리들의 잠에 취한 얼굴을 보고 알아맞췄다. 쿠르트를 감옥에서 끌어오자 당장 그에게 무서운 매질이 안겨졌다. 지금은 처음과 같이 게스타포교형리들이 다섯명이 아니라 일곱명이였다.

(하지만 나는 수자 《7》을 더 좋아한다.)

쿠르트는 생각했다. 자기를 본능적인 타격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동물로서가 아니라 환상을 거부한 사람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그는 둔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바늘이 손톱을 들어올리며 파르스름하게 색갈이 죽은 부드러운 살갗에 박히던 때의 그 아픔보다는 훨씬 가벼웠다. 뒤이어 그는 몸이 더욱 노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빌기 시작하였다.

(제발 빨리 끝장났으면, 나는 배신하지 않을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테다. 그러나 이제 닥쳐올 그 일이 빨리만 닥쳐왔으면. 오, 주여 제발 비나이다. 어서 죽음이 닥쳐오기를, 다른것은 더 바라는것이 없소이다. 살려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나 죽음은 닥쳐오지 않았다. 감방안으로 머리는 허옇게 셌으나 얼굴은 젊어보이는 대좌가 달려들어왔다. 그는 높고 째는듯한 목소리로 《이 야만같은짓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소!》하고 꽥 소리

쳤다.

쿠르트는 부러진 앞이 두대를 내뱉았다.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는 그의 이발이 미국영화배우 두브린의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특히 앞이 두대가 매혹적이라고 말했었다.

《혼자서 일어날만 하오?》대좌는 둘만 남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쿠르트는 팔굽으로 마루에 의지해보려고 했다. 오른손은 말을 듣는데 왼손은 떨리면서 통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는 일곱명중의 어느 한 교형리가 발뒤축으로 손가락을 짓뭉개놓았다는것을 알았다. 왼손은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었다.

(사람은 아픔을 느낄 때까지 살수 있다.) 쿠르트는 생각했다. (만일 이 머리 흰 대좌가 30분만 늦게 왔어도 모든것이 끝장날걸 그랬어.)

《내가 도와주지.》대좌는 쿠르트의 겨드랑이를 끼고 일으켜세워 쇠의자에 앉히며 말하였다. 《이런 야만적인 행동은 영원히 끝장났소. 슈트람, 내가 당신을 데려가겠소. 이제 의사가 올거요. 우리는 당신을 제대로 해주겠소.》

(이 사람들한테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쿠르트는 생각했다. 그는 후고가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술어를 애써 찾아보았다. (《연극》? 아니, 《영화》? 아니야. 《영화》는 아니야. 《영화》는 게스타포에서 한주야 혹은 두주야동안 까딱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게 할 때 쓰는 술어이다. 《연극》은 남편이 보는데서 안해를 강간할 때 쓰는 술어이고. 아니야, 지금 이 머리 흰 대좌의 행동은 다르게 불리웠어. 게스타포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던가? 《이브쎈》, 맞았어. 그렇게 불렀어. 그는 이제 나에게 커피를 먹이고 싼드위치를 권할것이다. 그는 지금 내가 자기한테 마음이 끌릴것을 기대하면서 내 친구의 역을 놀것이다. 동물을 대신하여 우리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끌려오라는것이다. 교형리의 의복을 입고도 그렇게 해보라. 자, 놀아보라.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내가 봐줄테니.)

숨막힐듯한 6월의 무더위

베를린 동쪽역은 몹시 무더웠다. 낮에 한껏 달아오른 지붕이 후더운 숨결을 내뿜었다. 여기서는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

슈틀리쯔에게는 금시 꼬치불고기냄새가 풍겨올것만 같이 느껴졌다. 이것은 그가 30년전에 관절염이 생기여 아버지와 함께 예브빠또리야로 치료받으려갈 때 로스또브역구내에서 맡아본 냄새였다. 거기에서 거칠게 다듬은 꼬챙이에 꿴 꼬치불고기를 팔았었다.

얼핏 보기에는 숯불에 채 굽지 않은듯하나 잘 구워지고 만만하고 냄새가 구수한 즙이 많은 고기덩이에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져 포장도로에 얼룩얼룩 반점이 생겼었다. 그때 소년에게는 여기에도 인간생활에서 보게 되는 그런 우연성이 있다고 생각되였었다. 왜 바로 여기에 반점이 생겼는가?

포장도로를 얼룩지운 꼬치불고기반점은 뜨거운 6월의 해빛에 점차 사라져갔다. 또한 욕설을 퍼붓는 승객들도 베를린역전도 1941년 6월도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인간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욕망도 점차 사라져갔다.

슈틀리쯔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브레쎌라우에서 기차가 떠날 시간까지는 10분이 남아있었다. 그런데도 함께 가야 할 우크라이나출판사 사장 오멜첸꼬는 아직도 부인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께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를 자기한테로 불렀었다. 그는 지금 장령의 견장을 달고 새로운 방에서 일하였다. 책상에는 기관총 두정이 고정되여있었고 호위성원들의 특수실과 련결된 신호장치가 있었다. 그 특수실에는 다섯명의 에쓰에쓰성원들이 주야로 대기상태에 있었다. 책상에는 또한 록음기와 사진기도 준비되여있었다.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에게 책상을 뽐내면서 《이것은 도이췰란드제국의 관등급상 나에게 새로운 질적변화가 있었다는것을 말해주오.》하고 말했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의 한 성원과 크라꼬브에 가게 되오.》쉘렌베르그가 말하였다.

《오멜첸꼬는 출판업자이며 비밀공작원이요. 그리고 스꼬로빠쯔끼두령과 가까운 사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슬라브문제에서 자신이 없습니다.》하고 슈틀리쯔는 말하였다.
《하긴 유고슬라비아이후 이것이 흥미있는 문제라는데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집중도가 높기때문에 민족의 고통과 유럽정치사이의 계선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쉘렌베르그는 담배를 꼬나물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문제의 본질을 설명해주겠소. 이번주말에 떠나야겠소.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소. 먼저 장령 비스꿈스끼와 만나시오. 그는 우리한테서 로씨야문제를 담당하고있소. 그리고 스꼬로빠쯔끼두령을 만나시오. 반데라에 대한 자료는 내가 아브웨르에 요구하겠소. 그에 대한 자료가 매우 흥미있소. 까나리스해군제독이 나에게 그 자료를 보여주었소. 때로 나는 문학적기질이 없는데 대하여 한탄하군하오. 정탐이야기가 보마르쉐와 메리메와 같은 훌륭한 작가들을 낳았소.》
《문학이지요.》이렇게 수정하고 슈틀리쯔는 묻는듯한 눈길로 재털이를 보다가 장령에게 시선을 옮겨갔다.
《그렇소. 그렇소. 담배를 피우시오.》쉘렌베르그는 그 눈길을 포착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의 〈케믈〉을 피우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저는 〈카로〉를 피우는것이 더 좋습니다.》
《슈틀리쯔. 당신은 문구에 갖가지 색조를 넣어 감미롭게 할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있소. 당신은 어느 령수의 보좌관이 마디마디 골라 글로 적듯이 말하고있소. 두마디말에 세가지 생각을 담고있소.》
《감사합니다.》
《괜히 고맙다고 하오. 당신은 령수의 보좌관이 아니지 않소.》
《십년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슈틀리쯔. 나에게 도발을 걸지 마오. 나는 10년후에도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거요. 다만 경험보따리가 커질뿐이요.》
슈틀리쯔는 성냥을 그어 상급의 눈을 비쳐보았다. 쉘렌베르그는 탈바가지를, 표독성과 탐욕을 감추지 못한 탈바가지를 쓴듯했다. 지어 장령에게 갑자기 《숭냥이 맛》이 생겨난듯 매끈한 아래턱이 앞으로 쑥 나온것 같아보였다.

(네가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있는것은 사실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슈틀리쯔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그러겠지.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보군. 정치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이 로출된데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자기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더욱 그러하다. 상대가 동급인 경우에도 그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도 그런 티를 내지 않는 법이다. 비록 악의는 숨기고 무엇인가 양보는 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자기 속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자신이 속심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

쉘렌베르그는 서기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슈틀리쯔에게 《리큐르》술을 권하였다. 이것은 에스빠냐군사무관이 장령에게 선물한 술이였다.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가 또 단통《소설이요, 문학이요.》하는 말을 하지 않게 스칸디나비아민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하얀 전화기가 따르릉 몸부림치며 울렸다. 히믈러와 직접 련결된 전화였다. 쉘렌베르그는 상급의 목소리를 듣자 금시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것은 볼우물이 진 행복한 장난꾸러기아이의 얼굴이였다.

슈틀리쯔는 어망결에 일어섰다. 그 순간에 게링그의 보좌관이 들어와 쉘렌베르그에게 봉투를 넘겨주었다. 쉘렌베르그는 보기 어색하리만큼 보좌관에게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슈틀리쯔가 그것을 보지 못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굽신거린것을 어줍어했다. 슈틀리쯔는 전화종이 울리자 곧 자리를 떠야 할것이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쉘렌베르그는 자기 일군의 생각을 알아맞추기라도 한듯 그를 멈춰세우고 종이장을 내밀었다.

《료해하여보오.》

쉘렌베르그의 얼굴은 여전히 천진한 아이의 얼굴이였다. 다만 보조개가 생겼다 없어졌다 할뿐이였다. 소장은 그 어떤 중요한 결심을 채택하기전이면 입술을 가지고 장난하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오랜 배우가 주름살이 오래동안 없어지게 하느라고 거울앞에서 피곤하게 체조를 하듯이…

슈틀리쯔는 종이장을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쏘련주재 영국대사가 런던으로 돌아가기도전에, 특히 그가 돌아간 후 영국과 전반적인 세계출판물들에는 쏘련과 도이췰란드사이에 전쟁이 박두하고있다는 과장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 소문

에 의하면 첫째로 도이췰란드가 쏘련에 대한 령토적 및 경제적성격의 불만을 표시한것 같다. 그리고 현재 도이췰란드와 쏘련사이에는 보다 밀접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있는듯하다. 둘째로 도이췰란드가 쏘련을 침략할 목적에서 쏘련국경에 자기 군대를 집중시키기 시작한것과 관련하여 쏘련은 이러한 행동을 배격하고있는것 같다. 셋째로 쏘련은 자기대로 도이췰란드와의 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군대를 마지막 국경에 집결시키고있는것으로 보아진다.

모스크바의 책임적인 계층들은 이러한 소문이 허황하게 날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 소문이 쏘련과 도이췰란드에 적대되는 세력들, 다시말하여 전쟁의 가일층의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있는자들에 의하여 엉터리없이 꾸며진 선전이라는데 대하여 성명을 발표할것을 따쓰통신사에 위임하였다.

따쓰통신사는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1) 도이췰란드는 쏘련에 그 어떤 요구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새로운, 보다 밀접한 협정도 제기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한 회담도 있을수 없었다.

2) 쏘련의 자료에 의하면 도이췰란드는 쏘련과 마찬가지로 쏘도불가침조약의 조항들을 변함없이 준수하고있다. 이로부터 쏘련계층의 의견에 의하면 협정을 포기하고 쏘련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며 최근 발칸반도작전에서 벗어난 도이췰란드군대의 도이췰란드동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로의 이동은 쏘련과는 인연이 없는 다른 동기와 련관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3) 쏘련은 자기의 평화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쏘도불가침조약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왔으며 준수할 의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쏘련이 도이췰란드와의 전쟁준비를 하고있다는 소문은 위선적이고 도발적인것이다.

4) 현재 진행되고있는 붉은군대 예비력량의 하기집결과 박두한 기동훈련은 다른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예비군을 훈련시키며 다알고있는것처럼 매해 진행되는 철도의 통과능력을 검열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붉은군대의 이러한 행동을 도이췰란드에 적대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것으로 볼수 있다.

따쓰.》

《어떻소?》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가 성명을 다 읽었다는것을 알고

이렇게 물었다.
슈틀리쯔는 기침을 했다.
(내가 기침을 한것은 좋지 못하다.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것은 사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소한것이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시작된것 같습니다.》
쉘렌베르그는 천천히 눈을 쳐들어 슈틀리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자신에게 항의하듯 대답했다.
《그렇소.》
《매우 속한 시일내에 시작될것 같습니다.》 슈틀리쯔는 여전히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22 일이요.》
《나뽈레옹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당신의 생각엔…》
《나는 생각하기가 무섭습니다. 소장각하, 나는 애당초 생각해보기가 두렵습니다. 더우기 이에 대하여.》
《까나리스는 그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있소. 그리고 로젠베르그는 민족문제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승리할것이라고 보고있소. 우리 상급은 쏘련사람들이 첫 타격을 받고 저절로 주저앉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내부문제에 기대를 거는것은 천진하고 합리적이 못된다고 보고있소.》
《그러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슈틀리쯔, 당신이 그 증거에 대하여 추측해보오. 자그레브에서와 같은 그루빠가 조직되였소. 다만 그 지도를 웨젠마이어가 하지 않을따름이요. 외교관들은 거기에서 할 일이 없소. 중좌 포흐트가 지도할것이요. 그렇소, 그는 벌써 임명되였소.》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의 의아해하는 시선을 느끼고 마치 자기 혼자만 알고있는 그 무엇을 분석하듯 급히 덧붙였다. 《그루빠를 로젠베르그의 사람이 지도하게 되오. 당신은 이것도 알고있어야 하오. 지금은 연극을 놀고 공명을 바랄 때가 아니요.》
《오멜첸꼬는 그루빠와 함께 가게 됩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가게 됩니까?》
《오멜첸꼬는 당신과 함께 가게 되오. 당신은 포흐트와 그리고 게스타포를 대표하는 디쯔를 크라꼬브에서 만나게 될것이요. 슈틀리쯔,

당신은 포흐트를 도와주고 오멜첸꼬를 돌봐주면서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하오. 첫째로는 전반적인 슬라브문제에서 로젠베르그고문들의 로선이 얼마나 전망성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내야 하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문제에서 아브웨르의 로선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까나리스해군제독의 고문들의 로선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것을 알아내는것이요. 이게 전부요.》

《소장각하, 제가 실제 겪어보지는 않고 하는 말이지만 빨갱이들에게는 앞잡이들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이요? 그렇게 말할만한 근거가 있나말이요?》

《있습니다. 그들의 력사가 보여주고있습니다.》

《력사는 글로 지어낼수 있소. 력사를 쓰는것은 사람이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하오. 그러면 우리가 보고싶은 그런 력사도 생겨날거요.》

《제가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오.》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요.》 쉘렌베르그는 이야기를 마치였다. 《나머지 문제들에서 나는 당신의 경험에 의거하려고 하오.》

《소장각하, 저에게는 제가 하여야 할 사업의 기본목적이 석연치 않습니다.》

《당신은 자료를 료해한 다음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의 거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동료들과 만나보시오.》 쉘렌베르그는 이 말에 힘을 주면서 명백히 포흐트와 디즈에 대하여 암시하였다. 이들은 쉘렌베르그기관의 리익과는 맞지 않는 다른 기관의 리익을 대표하고있었다. 《나는 당신이 많은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오. 만일 혼돈하거나 결심을 채택할수 없으면 나와 련계를 가지도록 하시오.》

《유쓰따쓰 앞. 전쟁이 박두하였다는것을 확신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하라. 주타격방향과 거기에 참가하는 력량,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라. 련계는 크라꼬브에서 가지라. 본부.》

오멜첸꼬는 키가 작고 옹골차게 생긴 사람이였다. 땀기가 번질번질한 너부죽한 얼굴은 처녀들처럼 홍조를 띠고 수집게 웃고있었다. 그의 안해는 몸매가 날씬하고 아름답게 생겼다. 대체로 마흔고개를 넘어서면 미가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왔다. 늙어서까지

그렇게 곱게 남아있겠는지 아니면 이제 곧 지꽃은 홀아비들의 눈길마저 끌지 못할 미운 녀자로 변모해버리겠는지 그것은 알수 없다.
《인사하십시오. 슈틀리쯔씨.》 오멜첸꼬는 더 환하게 웃으며 급히 말하였다. 《저의 안해 엘레나입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까딱했다. 그 녀자의 얼굴에는 피로하고 무엇이나 귀찮아하는듯한 이상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내 안해는 도이췰란드말로 말하는것을 창피스러워합니다.》 오멜첸꼬는 짐군과 회계를 하면서 서둘러 말했다. 《오직 로어로만 말합니다.》
《로어로요?》 슈틀리쯔는 놀랐다. 《혹시 우크라이나말을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레노치까는 로씨야녀자입니다. 출신이 로씨야녀자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물론 우리 사람이지요. 그의 할머니는 로씨야녀자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녀자였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레나는 우크라이나말을 하지는 않지만 괜찮게 리해는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성격이 그저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들면 아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침해지지요.》
《훌륭한 성격입니다.》 슈틀리쯔는 엘레나에게 손을 내밀어 차칸에 오르도록 도와주었다.
에쓰에쓰 후방국에서는 크라꼬브로 가는 렬차의 좌석을 엄격히 등급에 따라 주문하였다. 슈틀리쯔에게 따로 한칸을 주고 그 옆에 오멜첸꼬와 엘레나를 위해 또 한칸 마련해주었다.
렬차원은 저녁식사에 건빵과 연한 커피를 가져다주었다. 최근에 식료품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3월부터 시작하여 1인당 한주일에 빵 2키로반, 고기 반키로, 인조빠다 250그람을 공급했는데 그것도 카드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엘레나는 상보를 펴놓고 가방에서 희붉은 비계덩이를 꺼내여 그것을 칼로 얇게 썰었다. 그러자 저녁상은 이채를 띠였고 가정에서처럼 아늑하게 느껴졌다.
《승리자들의 저녁식사예요.》 엘레나는 오멜첸꼬에게 약간 머리를 돌렸을뿐 그를 보지는 않고 남자들에게 식사를 권하였다.
《정신만은 똑똑해야 합니다.》 오멜첸꼬는 이발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는 커다란 돼지가죽가방을 분주히 뒤졌다.

(이제 술병을 꺼내겠지.)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먹던 술을 뚜껑을 꼭 막아가지고 다닐거야.)

오멜첸꼬는 정말 나무마개를 막은 납작한 술병을 꺼냈다. 병에는 시퍼런 긴 혀를 쑥 내밀고 눈알이 붉은 귀신같은 그림이 붙어있었다.

《고릴라입니다.》 오멜첸꼬는 병을 바라보며 설명하였다. 《두령이 즐기는것인데 이보다 더 좋은 술은 없답니다.》

엘레나는 조소하듯 이상하게 웃었다.

슈틀리쯔는 오멜첸꼬가 거짓말을 하고있다는것과 이것이 결코 두령이 즐기는 술이 아니라 베를린의 보통술이라는것을 알았다.

(저 사람이 자기 리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것은 아니다.)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를 더 좋게 해주느라고 거짓말을 하고있다. 자기자신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리익을 위하여 조금씩 거짓말을 섞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동심과 같은데가 적지 않은것이다. 아이들은 거짓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아이들에게서 놀음은 생활의 연장이며 거짓말은 진실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것이다.)

오멜첸꼬는 수선을 떨며 술잔을 쫓고 단숨에 쭉 입에 기울이였다. 그리고는 녀자들처럼 재치있는 동작으로 건빵에 비계점을 집어놓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내가 어렸을적에 쥐또미르에 있는 할아버지네 집에서 음식을 먹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거기에서 비계쪼각을 이렇게 썰은줄 압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그는 손바닥을 가리켰다. 《이것보다 크게 썰었지요. 그리고 찌불라는 또 맛이 어떻구요!》

《찌불라는 뭡니까?》 슈틀리쯔가 물었다.

《파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달콤한 사탕냄새가 코를 찌르지요. 냄새가 신통히도 당밀시룹 냄새입니다. 그리고 빵을 뚝 끊으면 아침에 증기가 피여오르듯 알곡냄새가 물씬 풍기지요. 거기서는 들냄새, 가을작물냄새, 자연의 냄새가 풍깁니다.》

《당신은 진짜 시인입니다.》 슈틀리쯔는 엘레나의 얼굴에 여전히 그 이상한 조소가 어려있는것을 띄여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멜첸꼬는 안해의 비웃음을 잘 알고있는것 같았다. 하기에 그는 어느 한순간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부딪친듯 멍멍해졌다. 그의 얼굴은 단번에 해쓱해지고 눈시울이 부석부석해지며 병적으로 부종이 오

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그는 다시 자기를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기가 그 어떤 시인도 아니며 출판업자라고 하였다.

《하지만 거사가 실현되면 나도 시를 써볼 생각입니다.》하고 오멜첸꼬가 대답했다.

《무슨 거사가 실현된단말입니까?》

《그거야 뻔한 일이지요. 나는 우크라이나의 해방을 념두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실현될것 같습니까?》

오멜첸꼬는 하하하 소리내여 웃고나서 잔에 또 술을 나누어 부었다.

《참, 정치가들은 모든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처음 듣는 소리처럼 시치미를 뻑 따고있습니다.》

《당신은 동쪽에서 진행될 작전을 념두에 두었습니까?》슈틀리쯔는 오멜첸꼬가 비밀을 알고있는 사람들중의 하나라는것을 알고 이렇게 물었다.

《그거야 물론이지요. 제 안해는…》그는 자기 처를 고개로 가리켰다. 《빨리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십시오.》

슈틀리쯔는 엘레나의 입술이 움직이고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의 얼굴과는 련계가 없이 자기대로 살고있는것 같았다.

《당신은 그렇게 확신합니까?》

《물론입니다. 령리한 사람은 누구나 감수력이 있지요. 녀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않겠는가 하고 위구를 느끼지 말고 말해도 좋습니다.》

《헌데 우크라이나가 해방될것이라고 누가 당신에게 말했습니까?》

《다시말해서 그 말을 어떻게 리해해야 좋겠습니까?》 오멜첸꼬는 무엇에 부딪친듯 과자를 집으려던 손을 문득 멈추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리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해방에 대한 말을 했나말입니다.》

《해방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볼쉐위크들은 도망가고 우리가 들어갈게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슈틀리쯔는 그의 말을 고쳐했다. 《당신

들은 우리와 동행하게 될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봉사하게 될거예요.》하고 엘레나가 느닷없이 말하였다. 《그들의 심부름을 들어주게 된단말이예요.》

《정신빠진 소리 하지 마오.》 오멜첸끄는 부산하게 술을 부으면서 이새로 씨벌였다.

《로씨야말이 매우 어렵습니다.》슈틀리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내쉬였다. 《내가 엘레나부인에게 말을 배우려고 애써보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젠 휴식합시다. 래일은 어려운 날입니다. 저녁식사를 훌륭히 차려주어 고맙습니다.》

그는 자기 칸에 누워 천정밑에 매달린 푸르스름한 전등을 올려다보며 옆칸에, 까닭없이 라지오를 크게 틀어놓지는 않았을 저 옆칸에 보잘것 없는 더러운 인간이 타고가고있다는데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슈틀리쯔는 저 인간을 틀어쥐고 막씸 이싸예브의 조국에서 가까운 장래에 실시하게 될 강점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을 의논하여야 한다. 때때로 그에게는 주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이 현실처럼 보이지 않고 불가능하고 횡포한것으로, 피로와 쇠약해진 신경의 후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 의식속에서 그렇게 자장가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즉시 자기를 멈춰세웠다. 그것은 주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이 사실이였기때문이였다. 그는 이것을 알고있었다.

(내가 그의 코대를 꺾어놓기를 잘했다.) 하고 슈틀리쯔는 판단했다. 그는 몸이 긴장해지고 덮고있는 하불이 내려누르는듯한 중압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니 베개도 별로 딱딱해보이고 밑에 깔고있는 털깔개도 울퉁불퉁하고 고르롭지 못하게 느껴졌다. (저자가 누구에게든지 제소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테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총통의 병사다. 총통은 도이췰란드보습으로 갈아엎어야 할 동쪽땅을 강점할데 대하여 늘 말하고있다. 동쪽은 아리아인종들을 진출시켜야 할 생활적공간이다. 슬라브사람들은 인종정치의 순서에서 유태인과 집시들 다음가는 사람들이다. 채 완성되지 못한 종족들은 죽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도이췰란드인종으로 동화되여야 한다. 오멜첸끄가 과연 이것을 모른단말인가? 그가 모를수도 있다.)

간나 쁘로꼬쁘츄크 (2)

도이췰란드경무부에서는 간나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다. 보그다노비치와는 대비도 할수 없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친절한지 지어 쁘로꼬쁘츄크부인에게 담배냄새가 방해되지 않는가고 묻기까지 하였다.

《나는 검은 담배를 피웁니다. 아주 냄새가 독하고 역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쥐딴〉을 좋아한답니다.》 간나는 애써 웃어보였다.

도이췰란드사람은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 냄새는 남자들에게나 맞을 냄새입니다. 전쟁이 불행한 녀자들에게는 적게 차례지게 해주나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피워요. 아닙니다. 이건 남자들의 냄새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검은 담배가 아주 좋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우리 주문자들은 바로 그런 담배를 피웁니다.》

《추위에 싫증이 났습니다.》 매끈하게 생긴 관리는 그렇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간나의 증명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마 나도 후에는 눈을 그리워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늘 따뜻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울에 매우 추운 총독부 관할지역으로 가는 통행증을 요구하는군요. 하긴 지금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집도 춥습니다. 석탄이 문제지요. 전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간나는 그의 말에 공손히 수긍했다. 이 사람은 벌써 첫눈에 신중하고 정직해보였다. 어딘가 그의 표정에서 쓸쓸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는것이 엿보였다. 더우기 간나에게는 그가 모욕적으로 떠보려 하지 않는것이 마음에 들었다. 지능이 높은 좋은 남자들만이 녀자를 이렇게 리해하여줄수 있는것이다.

《쁘로꼬쁘츄크부인, 나는 당신의 청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심정을 리해합니다. 자신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간나가 앞으로 몸을 내미는것을 보고 안심시켰다. 《아

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절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형식을 지켜야 한다는겁니다. 우리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매우 형식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빠리에 우크라이나사람들과 사업하는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로씨야부서처럼말입니까?》

《예, 어느 정도 그렇지요. 그럼 당신은 로씨야망명자부서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그다노비치씨한테 갔댔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로씨야제국 공민들만 취급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영국사람들이 쏘련사람들과 우리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파괴하기 위해 어떻게 책동하고있는지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씨야부서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들의 손에 주패목을 쥐여주지 않기 위해서말입니다. 우크라이나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련계를 취하게 될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 푸아씨 42, 거기에 쁘로꼬뽀비치씨의 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찾아가보십시오.》

간나와 담화한 관리는 프랑스에 있는 우크라이나사람들을 담당해보는 제국안전총국의 한 부서책임자였다. 이 부서는 벌써 한해동안이나 뻬뜰류라《우크라이나내각》대표 쁘로꼬뽀비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있었다. 그는 도이췰란드와 히틀러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그리 숨기려 하지 않았다. 어려운 망명생활기간에 적지 않게 각성된것이다. 처음에 그는 프랑스와 영국에 기대를 가졌었다. 그들이 경제적봉쇄와 외교적압력으로써 그리고 자기들의 그 위력자체로써 쏘련을 궁지에 몰아넣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여러해가 지나서 특히 뾜스까가 격멸된 후 쁘로꼬뽀비치는 서방이 자기 《내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것이며 거기에 기대를 걸것이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제 코도 못씻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겠는가?! 이리하여 히틀러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였다. 도이췰란드제국에서 살고있는 모든 망명자들에게 상점과 도서관들에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로젠베르그의 《20세기 신화》를 팔거나 빌려주는것이 금지되여있었다. 그러나 쁘로꼬뽀비치는 이 저서들을 구입하여 손에 연필을 들고 그것을 연구할수 있었다. 그는 히틀러와 로젠베르그가

우크라이나사람들과 그리고 로씨야사람들에게 영국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강요한 그런 운명을 들씌우려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쁘로꼬뽀비치는 안드레이 멜리니크나 스쩨빤 반데라와의 모든 접촉을 결정적으로 거부하였다.

고향사람들중에서 《동정심 많은 사람들》이 쁘로꼬뽀비치와 여러차례 만나 새 정권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설복도 하고 점차적으로 민족사회주의자들과 대화의 방법으로 베를린에 영향을 줄데 대하여 충고도 주었으며 도이췰란드민족주의는 사상적조류로서 결국 외부로가 아니라 내부로 지향하고 세계적으로나 유럽적으로 그 어떤 지도권도 노리지 않는데로 지향하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쁘로꼬뽀비치는 겝벨쓰 선전성지부인 《반꼼민테른》(국제공산당반대기구)에 있는 우크라이나중재자들의 충고도 에쓰에쓰 선동부 마르틴대좌의 말도 선전성 동부담당과 타우베트박사의 조언도 그리고 도이췰란드해외문제연구소의 동부담당과장인 로젠베르그수하의 기본전문가의 말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는 지금 정치로선이 아니라 그저 자기 개인의 인격이나 지키고있는 정도였다. 정말 흘러간 세월이 덧없는것이였고 그가 믿어온 그 모든 일들이 환상이고 부질없는 일이라고야 인정할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1941년 6월 빠리에 살고있는 우크라이나사람들을 취급하고있는 부서의 담당자는 쁘로꼬뽀비치에 대하여 베를린에 보낼 자기의 의견을 작성하기전에 모든것을 알고싶었다. 이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게스타포는 쁘로꼬뽀비치와 같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문제를 여러모로, 가능한 모든것을 다하여 연구해보아야 한다. 쁘로꼬뽀비치는 간나를 만날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벌써 1930년초에 게스타포에 흡수된 사람들이 알아본것이다. 이 재능있는 우크라이나녀자와 진행된 담화를 기록한 테프는 담당자의 철궤속에 들어오게 된다. 쁘로꼬뽀비치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 사람과나 술덤벙물덤벙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매우 세심한것이다. 간나 쁘로꼬쁘츄크는 쁘로꼬뽀비치가 어느 계선까지 마음을 터놓을수 있을지 모를 녀자이다. 이 미지의 계선이 빠리의 우크라이나사람을 도이췰란드제국의 비밀경찰에서 바라고있는대로 떠밀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게스타포의 담당자는 오산했다. 이전 우크라이나령수는 간

나의 말을 듣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한테서 방조를 기대하지 마오, 아가씨. 내가 뭘 하자고 해도 힘이 없소. 나는 괴뢰로 될줄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라왈리가 아니라 쁘로꼬뽀비치요. 우리는 그들한테서 아무런 존재도 못되오. 슬픈 일이지. 나는 이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소. 달리는 어떻게 할수 없을 때에야 알았소. 두 의자에 앉는것은 연회에서나 허용될수 있지 정치에서는 허용할수 없소. 성을 내지 마오. 나는 다 산 인간이요.》

간나가 쁘로꼬뽀비치의 사무실에서 나오자 어딘가 비애에 잠겨있는것 같고 동정심이 있어보이는 서기가(그는 게스타포의 밀정으로서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M》지도자 멜리니크와 련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이것은 에쓰디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였다. —이전 《내각》의 최고권력자였던 쁘로꼬뽀비치의 모든 발언과 행동들을 분석하고 의견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있었다.) 친절하게 말해주는것이였다.

《쁘로꼬쁘츄크부인,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진실한 형제적인 충고입니다. 우크라이나사람인 내가 아니고서야 누가 우크라이나녀자인 당신에게 이런 충고를 주겠습니까. 도이췰란드사람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진실한 애국자들이 가까운 장래에는 당신의 슬픔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도와줄수 있는 그런 힘과 〈자립성〉을 찾을것 같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니끼뜨까와 야네크를 돌려줄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십시오. 정말 솔직한 말입니다. 도이췰란드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노엽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상하기 쉽고 동요하기 쉬운 배우의 마음

뜨루슈니쯔끼는 살며시 사이문을 열었다. 그러나 돌쩌귀에 기름칠을 잘하지 않아《삐거덕》하고 길고 예리한 음향이 작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 집에서 방 한칸을 세내여 쓰고있었다.

뜨루슈니쯔끼는 이 듣기 아츠러운 소리가 반다할머니며 주인인 라지슬라브며 그의 애들인 니끼뜨까와 야네크까지 잠을 깨게 할것

이라는 생각이 들자 눈을 찡그렸다. 그는 못박힌듯 문옆에 서서 컴컴한 집안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러나 방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는 안심하고 공중체조선수처럼 손을 허공에서 휘휘 저으며 작은 방을 통과하여 자기 칸으로 들어갔다.

《합창지휘자님, 담배가 있습니까?》 느닷없이 라지슬라브의 석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누가 자기를 보고 물었는가 하는것을 가려보기전에 뜨루슈니쯔끼는 무서운 생각이 번개쳤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두운 곳에서 무섬증을 탔다.

《내가 당신을 깨웠나보군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뜨루슈니쯔끼의 말이였다. 《래일 내가 돌쩌귀에 기름을 치지요. 반다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는가요?》

라지슬라브는 맨발로 스적스적 마루를 밟으며 걸어가 아이들과 함께 자고있던 자기 방문을 비스듬히 닫고 뜨루슈니쯔끼에게로 갔다. 뼈가 굵고 키가 늘씬한 그는 흰 잠옷바람이였다. 눈밑에서부터 시작하여 터부룩하게 자란 수염이 온 얼굴을 가리웠다.

(머리가 없는 기수같군.) 하고 뜨루슈니쯔끼는 생각했다. (저렇게 나서면 얼마나 무서워보이겠는가.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수염을 부러워할수도 있을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서는 상상해보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한 흥미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발을 붙이고 이 세계에서 살고있다. 그러나 그대신 그들에게는 마음이 아플것이란 없는것이다.)

《어머니가 래일은 자리에서 일어날겁니다.》 라지슬라브가 말하였다. 뜨루슈니쯔끼는 역한 담배냄새를 느꼈다. 《어머니가 오늘 일어나겠다는걸 내가 아직 하루 더 누워계시라고 설복했지요. 우리가 주술의원(주술이나 마구잡이로 병치료하는 의원)을 비웃었더니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내가 크로이챤스끼를 어머니한테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래일은 어머니를 공동묘지로 실어가게 되였을겁니다.》

《잘됐습니다. 라지슬라브씨. 담배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냥불빛에 라지슬라브의 커다란 얼굴이 드러났다. 마치 우랑종개의 처진 아래턱처럼 무겁게 늘어진 볼따귀, 눈밑에 생긴 예리한 주름살, 단단하게 생긴 눈섭우의 이마, 이것이 그의 얼굴용모였다. 라

지슬라브가 담배를 주먹안에 감추자 어둠은 더 한층 무겁게 가라앉은듯싶었다. 그는 한평생 수림에서 살면서 담배를 아끼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주먹안에서는 담배가 서서히 타들어간다. 그러나 센 바람앞에서는 담배가 순식간에 허연 재로 되여버리는것이다.
《주술의원이 어머니에게 뭘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면술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자기가 떼가지였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등을 만져보더군요. 그의 손가락은 내것보다도 더 길었고 손톱은 푸르스름한 색갈이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지고있을 때 내가 여겨보니 귀바퀴에 땀기가 내배지 않았겠습니까. 긴장해서말입니다.》
《왜 긴장하단말입니까?》 뜨루슈니쯔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저 더워서 그랬겠지요.》
《더워도 정상이였습니다. 그는 사실 부담이 컸습니다. 그는 눈으로 책상우의 숟가락도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숟가락을 바라보니 그것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기 갑시다. 내가 식은 차라도 부어줄테니.》
좁은 부엌안에서 시큼한 가두배추냄새가 코를 찔렀다. 라지슬라브는 석유등을 켰다.
《한잔 하지 않겠습니까?》 라지슬라브는 의자를 움직여놓으며 물었다. 《나한테 좀 건사해둔것이 있습니다.》
뜨루슈니쯔끼는 래일 아침 자기가 씨르이한테 가야 한다.
거기에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지도부에서 세사람이 오게 되여있었다. 씨르이는 오늘 왜서인지 합창련습을 가까운 앞날로 미루어야겠다고 이상하게 말하면서 뜨루슈니쯔끼에게 반데라를 제일 먼저 축하해줄 영예가 차례질것 같다고 암시하는것이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술 한잔이 방해될것은 없겠지만 신경은 극도로 긴장해질것이다.
《동무를 해서 마셔봅시다.》 뜨루슈니쯔끼가 말하였다.
라지슬라브는 작은 술잔에 집에서 담근 뿌연 술을 나누어 부은 다음 빵과 파 그리고 소금을 가져왔다.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국을 덥힐가요? 내가 주술의원에게 국을 맛있게 끓여주었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배가 부릅니다. 반다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듭시다.》 뜨루슈니쯔끼가 말하였다.
《건강을 위해.》 라지슬라브는 저금통구멍같은 자기 입에 술잔을 기울이였다. 안나 따라쏘브나할머니가 뾜따브쉬나에서 그들의 령지로 왔을 때 이렇게 생긴 저금통을 뜨루슈니쯔끼에게 선물로 가져왔던것이다. 빨간 머리수건에 왼쪽귀에 귀걸이가 달린 입을 벌리고있는 해적이였다.
뜨루슈니쯔끼는 빵을 한쪼각 끊어 소금에 묻혀 입에 넣었다.
《진단이 됩니까?》
《진단도 없습니다.》 라지슬라브가 대답했다. 《주술의원은 현대의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최면술을 믿습니다. 최면술은 한시간동안 걸렸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젠 아프지 않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일어나라고 하니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반다할머니가 두주일동안 약을 잡숫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데려온 도이췰란드의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조금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술의원은…》
《좋습니다. 하지만 약이 효과를 나타내던 순간에 주술의원이 나타났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술의원이 그 순간을 리용하여 그렇게 할수도 있었겠지요. 우연히 말입니다.》 뜨루슈니쯔끼는 라지슬라브의 못마땅해하는 눈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약이 나타낸 효과를 리용한게 아닐가요?》
라지슬라브는 긴 손가락이 뜨거워지도록 마지막까지 담배를 빨고나서 판자로 거칠게 주어맞춘 탁상모서리에 꽁초를 비벼껐다.
《나는 지금 이 주술의원을 내가 죽는 날까지 믿기로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자기의 확신을 저버리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필요있는 확신일가요?》 뜨루슈니쯔끼는 조용히 물었다.
《그건 어떻게 리해해야 합니까?》 라지슬라브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얻어맞은듯 음악가에게서 몸을 뒤로 젖히였다. 《무슨 말인지 리해할수 없습니다.》
《확신, 이것은 욕망이고 이것은 희망입니다. 공허한 희망이란말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기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결국 불신임이지요. 왜냐하면 종당에 가서 모든 사람을 기다리는것은 절망과 진공뿐이니까요. 평범하게 사는것이 더 좋습니다. 살아갈 날이 있으니 먹을것도 있을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말입니다. 나는 아무것

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주술의원도 믿지 않습니다.》
《어쨓든 그가 와서 비지땀을 흘리며 손가락을 놀리더니 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지슬라브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당신의 불신임이 무슨 관계가 있단말입니까? 그저께까지 우리는 위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년세에 페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것은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내가 어머니없이 어디로 간단말입니까? 어디로요? 나는 또 그런대로 살아갈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니끼뜨까와 야네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시오, 라지슬라브, 난 오래전부터 묻고싶은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편안히 주무시오.》 라지슬라브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몸을 일으켰다. 《어두운데서 옷을 벗겠습니까, 아니면 불을 켜달랍니까?》
《옷을 벗지요. 내가 쓸데없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술기운에 아마 그렇게 했나봅니다.》
《그렇다면 불을 켜주지요.》
뜨루슈니쯔끼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육체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는 다시 입속말로 말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는 해도 아침 일찌기 거뜬하게 술을 깨지요. 헌데 나는 솔직한 말로 강제로동판에 가있는것 같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머리만은 깨끗해야겠는데.》
《과음하면 몹시 고통스러운가요?》
《그럼요. 우울해지고 간이 쑤셔나지요.》
《그럼 당신은 더운 국을 마셔야 할걸 그랬습니다. 국을 먹으면 고통이 퍽 덜어지지요. 더운 남새국, 양파, 더운 빵쪼각을 먹으면 땀구멍이 열리고 이마에 땀이 내돋는데 그때 반잔가량 마시고 오이에 약간 소금을 쳐서 먹어보십시오.》
《당신은 경험자군요.》 뜨루슈니쯔끼가 말을 이었다.
《대단한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군이고…나는 당신이 아이들에게 옛말을 들려줄 때면 귀를 기울이군하지요.》
라지슬라브는 등불을 들고 뜨루슈니쯔끼와 함께 그의 방으로 갔다. 작은 창문이 한쪽으로 기우뚱해진 울타리쪽으로 뚫려있었다. 라지슬

라브는 합창지휘자가 한쪽발로 묘하게 소리없이 몸을 들추며 가랭이가 넓은 바지를 벗는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녀편네가 어떤 녀자라는걸 알았더라면 즉시 그 녀자한테서 달아났던지 아니면 그를 성자처럼 바라보았을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안해로 보았습니다. 자기 안해로말입니다. 남편과 안해는 한몸이나 같지 않습니까. 안해는 결국 나지요. 그럼 남편은 어떻습니까? 역시 같게 봐야지요. 누구나 하느님이 정해준대로 혹은 혼자서 살던가 혹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느님이 지어준 운명은 초기에는 사람의 몸에 숨겨져있다가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것입니다. 나의 녀편네는 간나 쁘로꼬쁘츄크라고 합니다.》
뜨루슈니쯔끼는 팔굽을 작은 상에 아프게 고이며 침대에 앉았다.
《빠리에 있는 그 녀자말입니까? 건축가지요?》
라지슬라브는 석유등을 끄고 중얼거렸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친애하는 이웃.》
《안녕히 주무십시오, 친절한 주인… 당신은 마치 칼등으로 어둠을 치듯 나를 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나 쁘로꼬쁘츄크란말이지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면 됐습니다.…》라지슬라브는 문을 닫으면서 말하였다. 《아이들이 그 녀자를 알아서는 안됩니다. 불행한 아이들은 유명한 친척들에 대하여 모르고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의지를 꺾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년기에도 꺾을수 있지요. 아이들이 나한테서 떨어지면 어디로 갈데가 없습니다. 강물은 한쪽기슭이 없이도 흘러갈수 있습니다. 지휘자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도 될수 있지요.》
뜨루슈니쯔끼는 음악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반다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라지슬라브에게 법랑고뿌에 있는 겨자를 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음악은 계속 들려왔다. 목가적이고 경쾌한 음악이였다.
뜨루슈니쯔끼에게는 반다할머니의 목소리도 커다란 발로 어지러운 마루바닥을 밟는 라지슬라브의 발자국소리도 찬장에서 파란 법랑고뿌를 꺼내느라고 딸깍거리는 소리도 모두 꿈속에서처럼 느껴졌다. 뜨루슈니쯔끼는 이 높은 곡조의 목가적인 음악이 보통 아침녘에, 소나기가 내리기전에 무더운 시간에 있군하는 현실로, 사실로

느껴졌다.

(눈을 뜨고싶지 않지만 떠야 한다.) 뜨루슈니쯔끼는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음악이 사라졌다. 그는 기억속에서 음악을 붙들어보려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 어떤 살아있는 물건처럼 추억의 이상한 흰 반점으로 그에게서 달아나버렸다. 음악대신에 그는 지금 로파의 기침소리만 들었다. 정말 어제보다 기침이 훨씬 가벼워졌다. 오래동안 지속된 숨막힐듯한 정적속에서는 로파가 앓던 초시기에 생겨났던 죽음에 대한 무서운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다. 때때로 로파가 힘들게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무겁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도 없고 코를 푸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뜨루슈니쯔끼는 로파의 방으로 달려가 그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교예사처럼 몸을 베개우에 꼬부리기도 하고 마치 공기를 더 많이 모으려는듯 손으로 허공을 그러안군하는것을 보았었다. 로파는 끝내 숨은 돌렸으나 기침을 짖을수 없었다. 그럴 때면 로파를 침대에 일으켜앉히고 머리를 고여주었다. 파리한 얼굴은 백지장처럼 되였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마치 풀무질을 하듯 가르릉가르릉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후에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런 때면 로파의 얼굴은 기이하리만큼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젊고 아름다와졌다.…

(정말 스트렙토찌드가 도와준것이 아니라 그 주술의원이 도와준것이 아닌가?—뜨루슈니쯔끼는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나 절망에 빠져야 주술의원에게 달려가군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약 한첩 주지 않는다고 비웃지 않았던가. 그럼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여 그런것이였는가?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리해할수 없었기때문인가? 우리는 신에게서 방조를 바라며 교회당에도 달려가는것이 아닌가. 기쁜 순간에야 누가 하느님 생각을 하겠는가?)

《어머니, 몸이 좀 어떻습니까?》 뜨루슈니쯔끼는 저쪽에서 자기 말을 듣고있을뿐만아니라 벽을 통하여 자기를 보고있는듯하여 제풀에 웃으며 물었다.

《내가 이젠 살아났나보우.》 로파는 웅글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벽은 얇은 합판으로 막혀있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느라 할것도 없었다.

《그거 정말 다행입니다.》 뜨루슈니쯔끼는 옷을 입으며 말하였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세수를 하고 커다란 귀를 닦다가 주술의원의 귀바퀴에 땀이 흐르더라고 한 라지슬라브의 말이 생각나자 깨끗치 않은 누런 바둑무늬수건으로 귀가 빨개지도록 세게 문질렀다. 그리고나서 차관을 석유곤로에 올려놓았다. 차관에는 물이 바닥에 약간 깔려있었다. 그는 곤로심지를 돋구어놓고 의자에 앉아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젠장, 언제면 나의 이 불편한 생활이 끝나겠는지?) 그는 부지중 쓸쓸한 생각이 치밀었다. (언제면 집을 얻을수 있을가? 우크라이나로만 갈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자기 집을 얻어 마음놓고 음악을 할수 있고 주인에게 페를 끼칠가봐 걱정하며 옹색하게 살아갈 일도 없을게 아닌가. 《주인들》이라니.—그는 이 말에 피씩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라지슬라브와 반다로파는 나의 주인들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것은 비웃을것도 못된다. 모든것을 비웃을수 있어도 현실만은 비웃을수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 현실에 자기자신을 밀어넣는다 해도 본질을 리해하기 위하여 비웃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침에 일터로 떠나기에 앞서 라지슬라브는 커다란 주먹에 대고 헛기침을 하더니 매우 옹색해하며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한가지 이야기할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제밤 당신과 이야기한 후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사람들, 새 정권과 련계를 가지고있지요?》

《나는 새 정권과 련계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뜨루슈니쯔끼는 첫마디로 그 말을 부정해버렸다. 두령의 보좌관 레베지의 훈시가 생각났던것이다. 레베지는 《우리가 프란크총독의 대표들과 접촉하고 있다는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되오. 우리는 정직한 조직성원들이요. 우리는 도이췰란드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특권도 받고있는것이 없소.》라고 말했었다.

《그만두시오, 뜨루슈니쯔끼씨, 장교들이 당신을 집으로 실어오지 않았댔습니까?》

《그건 우연한 일이였습니다.》

《뜨루슈니쯔끼씨, 나는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나가 빠리에서 나올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를 위해 좀 수고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제 내 마음을 얼마나 들쑤셔놓았는지 가슴이 저려

듭니다.》
《처가 당신에게 편지를 했댔는가요?》
《몇번 보내왔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회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간나가 나를 거기로 오라고 부르면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애걸했지요. 하지만 나는 뾜스까사람이 아닙니까. 뜨루슈니쯔끼씨, 나는 무엇이든지 용서해줄수 있지만 모욕으로 느껴지는것은 용서해줄수 없습니다. 내 이 더러운 성격이, 에이, 이 더러운 성격이…》
《어제 당신은 아이들이 어머니를 알아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지슬라브는 급소를 찔리운듯 이마를 찌프렸다.
《아.》 그는 한숨을 내쉬였다. 《당신이 그걸 모르겠단말입니까? 당신도 남자가 아닙니까.… 나는 녀편네를 잊어버리자고 자신을 채찍질하여왔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홧김에야 무슨 말인들 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안해가 돌아오고싶어한다는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한 장교가 빠리근방에서 체포되였는데 그가 간나의 동무를 만났다고 합니다. 간나가 나에게 어떻게 대할수 있든지간에…》라지슬라브의 커다란 얼굴이 또다시 떨렸다. 자기를 너그러이 웃게 하려고 헛되이 애쓴 까닭이였다.《나는 인간적으로 그를 불쌍히 생각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의지가지할데 없는 순 혼자의 몸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약속할수 없습니다.》
《아무 약속도 필요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쩌다 주선해줄수 있으면 주선해달라는겁니다.…》
뜨루슈니쯔끼는 《우크라이나위원회》에 들려 레베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레베지는 반탐사업뿐만아니라 민족주의자들속에서 문화사업까지 맡아보고있었다.
《좋소, 친구, 지금이라도 찾아오오.》 레베지는 수화기에 대고 말하였다.
그는 뜨루슈니쯔끼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나서 한마디 물었다.
《그 간나란 녀자가 정말 재능이 있소?》
《뾜스까에서 매우 재능있는 건축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녀자인데 뾜스까사람과 결혼했단말이요?》 레베지는 유감스럽다는듯 얼굴을 찡그렸다. 《혈통에 대하여 잘 기억해야 하오. 좋소, 내가 친구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보겠소. 헌데 당신 자신이 이걸 발기하여 제기하는거요?》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지…》 뜨루슈니쯔끼는 망설이였다. 《총체적으로 보면 저의 발기가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자기의 가슴아픈 문제를 약간 건드리는걸…》

《나는 결국 우리만이 뾜스까사람들을 도와줄수 있다는걸 깨달았소. 다른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수 없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뜨루슈니쯔끼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자기가 라지슬라브의 가정을 죽음에로 몰아넣었다는것도 모르고 철없이 이렇게 좋아하였다.

뜨루슈니쯔끼가 떠나자 즉시 레베지는 디쯔중좌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게 해줄것을 간청하였다. 디쯔는 자그레브에서 크라꼬브로 옮겨와 게스타포의 망책으로 일하고있었다. 디쯔는 또마슈거리 22번지에 살고있는 철학박사 유제프 쉽멜드박사의 아지트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야기과정에 레베지는 《보호》문제를 언급하였다.

《우리가 련계를 가지고있는 뾜스까사람들이 정보가 새여나갈수 있는 구멍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베지가 말하였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격날자를 공개할수 없습니다. 디쯔씨, 사람은 역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인 뾜스까사람, 유태인, 로씨야사람들과 련계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소.》 디쯔는 고개를 끄떡이였다. 《나는 당신이 불안해하는 점을 알만하오. 그래 의견이 뭐요?》

《나는 오래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방을 따로 주자는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모두 방을 따로 가지고있는건 아니지 않소. 레베지씨, 우리 사람들이 모두 독방을 가지고있지 못하단말이요. 그러니까 제기하는게 뭐요?》 디쯔는 집요하게 캐고들었다.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저렇게 접촉하고있는 뾜스까사람들을 분리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그걸 벌써 꾸몄소? 문건으로 작성했나말이요?》

《아닙니다. 내 의견에는 우리 이야기면 충분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소. 총독부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면 나는 당신의 구상을 서면으로 받아야겠소.》

반시간후 레베지는 레또르이크거리에 있는 반데라지도부 아지트에 와있었다.

《물론 그렇소.》 반데라의 가장 가까운 방조자인 야로슬라브 스떼쯔꼬는 레베지로부터 디쯔와 진행한 담화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공작시간이 끝나기전에 당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디쯔의 책상우에 가져다놓아야겠소. 지금은 건축가인 간나에 대한 문제를 론의하여보기요.》

《뜨루슈니쯔끼의 말에 의하면 그 녀자는 우크라이나지성인들의 〈꽃〉이라고 합니다.》 레베지가 대답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오.》 스떼쯔꼬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던지오. 총통은 지성인들을 멸시하는 자기의 태도를 숨기지 않고있소. 우리도 이것을 따라배워야 하오.》

《그러나 쁘로꼬쁘츄크는 우크라이나녀자입니다.》 하고 레베지는 말했다. 《그 녀자는 혈통으로 보아도 지성인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르슬리스까 뜨치나와 함께 꼬르네이츄크는 에스키모사람이였소? 아니면 모스칼리였소? (혁명전 뽈스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씨사람들이 로씨야인민들과 병사들에게 붙인 배타주의적별명) 바로 그거요. 나는 〈사색하는 그루빠〉라는 개념을 일상생활에 써먹자는 의견이 있소. 알겠소? 이 두마디의 말은 동일한것이 아니오. 〈그루빠〉는 누구인가에게 복종한다는것을 의미하고 〈사색〉한다는 말은 목적지향성을 의미하오. 바로 그렇소. 간나 쁘로꼬쁘츄크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해보겠소. 우리 총통은—그는 반데라를 도이췰란드식으로 총통이라고 불렀다. —프란크총독과 련계를 취해보겠다고 약속했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프란크가 한때 건축학에 열중하였었다고 하더구만, 그들의 슈페처럼…》

다음날 밤 요란한 문기척소리가 뜨루슈니쯔끼를 깨웠다. 게스타포에서 찾아온것이였다.

가택수색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게스타포요원들은 라지슬라브와

아이들 그리고 반다할머니에게 옷을 입고 필요한 물건가지들을 손에 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라지슬라브는 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어머니는 폐염을 심하게 앓고있는데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병원이 있소.》 책임진 장교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지슬라브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 울었다. 로파는 금시 숨넘어갈듯이 오래동안 기침을 깇었다.
《당신들에게 죄가 없으면 인차 놓아줄거요.》 게스타포장교가 하는 말이였다. 《빨리 준비하시오.》
로파는 목구멍에서 연송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침을 끊지 못했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고싶어하는것 같았다.
라지슬라브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순간 에쓰에쓰놈들이 즉시 반응을 나타냈다. 놈들은 그의 팔을 비틀어 우로 쳐들었다.
그는 아파서도 그랬지만 새된 소리를 지르며 자기한테로 달려오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공포심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문옆에 서있던 손가락마디가 짧은 병사놈이 아이들의 목덜미를 틀어잡았다.
《여보시오. 나으리들.》 뜨루슈니쯔끼는 벽에서 물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긴 뭔가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 조직성원입니다. 나를 당신들의 대표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요구하고있는것이 아니요.》 하고 장교는 말했다. 그는 부드러운 장갑을 낀 손에 들고있는 문서장을 들여다보고 덧붙여 말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것이 없소, 뜨루슈니쯔끼.》
라지슬라브는 뜨루슈니쯔끼의 얼굴을 피뜩 쳐다보고 다시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이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장교나으리.》 뜨루슈니쯔끼는 목청을 가다듬고 계속하여 말하

였다. 《당신들은 내가 아이들을 돌보게 해줄수 없습니까?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내가 아이들을 돌봐줄수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소.》 장교는 랭담한 표정으로 군복상의를 바로잡았다. 《사람들을 차에 끌어가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는 뜨루슈니쯔끼를 쳐다보았다. 《아무 방이나 자기에게 마음드는 방으로 옮겨앉으시오.》

막내아들 니끼따는 헌 싼다루를 신은 작은 발로 마루를 통통 구르기 시작하였다. 어린것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고 뺨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빠, 난 아빠한테 갈래.》

《오냐, 얘야, 이제 함께 가자. 이제 차에 올라 너를 무릎에 앉혀주마. 울지 말아, 이 귀여운것아, 응, 울지 말아. 뜨루슈니쯔끼씨, 그 애의 눈물을 좀 씻어주시오.》 라지슬라브는 헉-하고 흐느꼈다.

《그리고 수고스러운대로 코를 좀 씻어주시오.》

뜨루슈니쯔끼가 아이들한테 다가가려고 하자 장교가 그를 제지시켰다.

《그만두시오.》

야네크는 참으려고 애썼다. 그는 여덟살이였다. 그러나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는 할머니를 보자 어미한테서 떨어진 강아지처럼 슬피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를 하였다. 그의 떨리는 아래다리로 오줌이 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이 뜻하지 않은 수치에 더욱 놀란듯 새되게 소리질렀다.

《아버지, 저 사람들에게 말 좀 해줘요. 아버지.》

《뜨루슈니쯔끼씨.》 라지슬라브는 앞으로 몸을 내뻗치며 목멘 소리로 불렀다. 《제발 애들을 좀 돌봐주시오!》

로파는 드디여 기침을 그쳤다. 그는 부어오른 입술을 문지르고나서 아들을 바라보며 꾸짖었다.

《그만둬라. 애들아, 가자, 어서 가자. 너희들은 겁날것이 없다. 너희들은 풀려나와 놀게 될거다. 가자, 걱정은 잘못을 저지른 우리가 해야 할거다.》

쿠르트 슈트람 (2)

머리흰 대좌는 다섯번째로 쿠르트를 불러냈다. 처음에 그는 쿠르트에게서 의심을 해소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신이 만났던 그 사람은, 당신은 내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있는지 알고있을거요. 그는 스위스에서 빨갱이들과 련결되여있소. 이건 우리가 철저히 확인한 사실이요.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그와 알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나에게 설명하시오. 내가 묻는건 오직 이것뿐이요.》

쿠르트는 침묵했다. 그는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있는 자신이 증오스러웠다. 그는 이 침묵이 이젠 필요없는것으로 되여버린 환상으로부터 오는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젊은 사람처럼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는 이 머리흰 대좌에게 달려들면 자기가 야만들로, 교형리들로 마구 부르던 그 일곱명의 에쓰에쓰놈들이 달려올것이며 그러면 모든것이 빨리 끝장나게 될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쿠르트는 아직 죽음을 앞당길 힘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죽음을 받아들일 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오.》 대좌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이 본래부터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체포하기는 고사하고 단두대에서 벌써 목을 베고말았을거요. 당신은 쉐르너장령의 가정, 위쫄레벤장령의 가정과도 가깝게 지냈고 공군산하 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있는 후고슐쯔 그리고 집에 외무성의 거룩한 인사들이 많이 드나드는 보덴 그라우제백작의 가정과도 련계가 깊었소. 어찌겠소. 우리 게스타포에는 의심병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어쩔수 없구만. 내가 그들을 안심시켜주어야겠소.》 대좌는 서글프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얼굴을 더 보기 좋게 해주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안심시키는것도 형식적이나마 당신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것이고 당신이 그런 일을 그만두고 본래의 자기 사업으로 돌아가겠다는 대답을 들어야만 할수 있을것이요. 우리는 당신이 체포되

였다는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소. 하긴 당신은 체포된것도 아니요. 체포령장도 없을뿐만아니라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사람이 없소. 그렇게 하면 도이췰란드제국의 너무도 많은 우수한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할수 있기때문이요.》

《당신은 공연히 이런 기도를 꾸며냈습니다.》 쿠르트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설명해야 하오. 모든것을 다 요구하지는 않소. 다만 어디서, 언제 무엇때문에 스위스에서 온 그 신사와 사귀였는가 하는것만 요구하오.》

쿠르트는 설레설레 도리를 저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자기를 범죄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형식적인 놀음을 끝내주시오. 대좌씨.》

《당신이 자기를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나의 상급들을 확신시켜주시오. 나도 당신을 범죄자로 보지 않소.》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쿠르트는 곱씹었다. 《도이췰란드제국에 복무하여왔으니 상급에서 준 임무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소. 그것은 집행되여야만 하는것이요. 나는 과업을 받았소. 나는 그것을 집행하고있소. 나는 당신의 정직성을 증명해야 할 과업을 받았소. 나는 당신이 적들과 우연히 만났다고 확신하오. 그러나 우리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는자들이 당신을 기만하였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그자를 들춰내려는거요. 혹은 그것이 우연성이라는것을 알아내고 우연성의 원인을 재촉하지 않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속 완강하게 나오면 나는…》

《내 손톱밑에 바늘을 찔러넣으라고 명령할텐가요?》 쿠르트는 참지 못하고 말하였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소. 나는 당신의 친구들을 심문에 불러내오는수밖에 없소. 후고 슐쯔, 에곤 브렘,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백작같은 사람들을 말이요. 그들은 아마 사실을 확정하는데서 나를 도와줄거요.》

(이것이 바로 제일 무서운것이다.) 쿠르트는 생각했다. (이것은 바늘보다도 구두뒤축보다도 독감방보다도 더 무서운것이다. 제일 무서운것은 육체적무력감이 아니라 도덕적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

《극비, 제국안전총국 4국 지하조직담당과 앞
체포되여있는 쿠르트와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전화도청을 포함하여 그의 가장 가까운 친우들에 대한 감시를 조직하여줄것을 바란다.
그의 친구들로서는 공군산하 경제고문 후고 슐쯔, 에곤 브렘백작, 기자인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백작 등이다. 사진을 첨부한다.

과장 에쓰에쓰대좌 벡케.》

《동의함. 벡케의 요구를 지지해주기 바랍니다.

에쓰에쓰소장 뮬러.》

《반대없음. 하이드리흐.》

《공군산하 경제고문 후고 슐쯔를 감시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제국원수 게링그에게 통보하지 말것. 히믈러.》

때가 오면 먹을것도 생길것이다

차광막사이로 이글거리는 쇠물빛같은 아침해살이 흘러들었다. 주단이며 백구두며 매끈한 쏘파에 예리한 검은 그림자가 던져졌다. 쏘파우에는 푸른색 원피스와 곽담배 그리고 책이 펼쳐진채로 놓여있었다. 책읽기를 즐겨할뿐만아니라 읽을줄 아는 사람의 손으로 펼쳐진 책이였다. 책은 뒤등에 조금도 흠집이 가지 않았다. 이것만 보아도 주인이 물건을 되는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라는것이 느껴졌다.

인그리드는 자기 침실을 동강낸 억센 선의 랭담한 빛광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녀자는 정원사 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벌써 아까부터 정원에서 잔디풀을 깎고있었다. 인그리드가 스웨리예대사가 차린 연회에 갔다가 돌아온 후 인차 깎기 시작한것 같았다. 칼은 여전히 백작의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하였는데 지금은 아마 자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 모양이였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떠올랐던것이다. 그리고 하녀가(이것은 엠마의 목소리같았다.) 두번째로 정원사에게 아침식사를 하라고 소리쳐

불렀다.
인그리드는 라지오를 켰다. 방송원이 보도를 전하고있었다. 총통은 제국의 《방위성금》으로 도이췰란드제국 내각청사의 동문을 뜯어바치기로 하였다. 게링그원수의 호소에 따라 전도이췰란드적인 범위에서 영국은행가들을 타승하기 위한 파철모으기깜빠니야가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방송은 로씨야와의 경제적련계가 강화되고있다고 전하였다. 프랑스수상 삐에르 라왈리가 도이췰란드대사를 만나두 나라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허심한 담화를 진행하였다. 자그레브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자주적인 흐르바쯔까독립국가》수반 안떼 빠벨리치는 새로운 질서가 모든 유럽인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줄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그는 천재적인 총통과 이딸리아수상이 그리고 대재벌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자기의 용감성과 불패의 위력을 과시한 그들의 군대의 위력이 자유를 담보하여준다고 말하였다. 베를린의 온도는 23도이고 서남풍이 약하게 불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녁녘에 소나기가 예견된다고 했다.
인그리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벽에 고정시킨 커다란 거울에서 자기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살아있을적에는 베를린가극극장에서 발레무용지도원을 처녀에게 초청해오군하였었다. 두해전에 인그리드는 운전사에게 자기의 발레동작을 비춰보군하던 그 거울에서 틀을 떼버려달라고 부탁했다.
욕실은 회색대리석판으로 장식되여있었다. 어느 하루 처녀는 아버지에게 《나는 욕실에 있으면 우리 조상의 분묘에 들어와있는것 같은감이 들어요. 아버지.》하고 롱담을 했다.
인그리드는 대리석색갈로 하여 연록색으로 보이는 물에 침엽수액을 풀어넣었다. 그러면 물은 어두운 황색으로 변하면서 수림냄새가 풍겼다. 그것은 여기 수림이 아니라 여름 한철 보덴 그라우제백작가족이 가군하던 바바리아수림냄새였다. 인그리드의 손아래동생들인 백작의 두 아들이 와르샤와근방에서 전사하고 그후 어머니마저 심화병으로 죽었으나 딸과 아버지는 베를린을 떠나지 않았다.
아들들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백작은 이렇게 말했었다.
《이것은 나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이다. 〈상등병〉(히틀러

를 말함)의 우매성에 대하여 말로만 지껄이지 말고 그를 반대하여 싸웠어야 할것이였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나는 자기를 용서할수 없고나.》

그는 집에서 드물게 말하듯이 조용히 이 말을 하였다. 감각이 없는듯한 아버지의 이 조용한 말투는 무엇보다 인그리드를 무섭게 했다. 처녀는 집안에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서 그 어떤 비장한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정말 아들들한테로 갈것을 결심하고 정확한 날자까지 정하였다. 그는 필요한 수속을 끝내자 곧 뽀메리니와 바바리아의 령지관리자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고 자기가 《상등병》의 전권대표들과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되는 경우 안해와 딸을 후원해주도록 자기 친구들과도 만날 결심이였다.

그러나 인그리드의 어머니가 자식들이 죽은 후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심화병으로 죽게 되자 백작은 딸이 시집을 가기전에 자살하려던 자기의 결심을 취소하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던것이다. 그는 딸을 자기한테로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인그리드야, 네가 귀족으로 태여난만큼 나는 뻔한 일을 되풀이하고싶지 않다. 지금은 일확천금하여 갑자기 갑부가 된 사람들에게만 모든것이 허용될수 있을것 같다. 너는 어려서부터 화려한 생활속에서 교양을 받아왔다. 이것은 이미 몸에 밴 생활로 되였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에게 진짜 귀족들에게는 차례지는것이 그리 많지 못하다는것을 주입시키려고 애써왔다. 사내자식들이 베를린에 남아있을수도 있었지만 우리 씨족의 명예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도이췰란드사람들처럼 전선에 나가 희생되였다. 나는 자식들이 도이췰란드의 승리를 위해 죽었다면 신을 탓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이췰란드의 멸망을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이러저러한 생각을 좀 나누어보려던것이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랭담하고 그 어떤 감정도 없이 메말라보였다. 다만 그가 자기의 길다란 손가락으로 덧쌓인 종이뭉치를 매만지고 있는것을 보고서야 불안에 잠겨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네가 〈찬송가〉에 열중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백작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청춘시절에는 누구나 그런 때를 거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찬송가〉의 시기는 끝났다. 어쨌든 히틀러〈상등병〉이 정신병자짓을 하는한 이것이 성립될수 없다. 모든 사람들

에게는 악몽이 강요되고있다. 어느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나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그런 악몽이 차례지고있다. 만일 이 악몽이 림시적인것이고 그것이 교회이단자들을 처벌한 고문과 같은것이라면 그들이 설사 야만적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해도 나는 안심할수 있다. 국가통치를 맡아나선 사람은 이 복잡하고 창조적인 사업을 감당할만한 준비가 되여있어야 국가를 운영할수 있다는것이다. 비행기와 땅크, 지하철도가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해서 안됐다. 내가 좀 흥분하였는가보다.》

인그리드는 아직 이런 아버지를 본적이 없었다. 딸은 자기의 넓은 손바닥을 아버지의 큼직한 손우에 올려놓았다. 한순간 아버지의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어딘가 이상해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이였다. 아버지는 보통때의 고르롭고 예리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너의 무모한 죽음이 동족의 위업에 리익을 가져다줄것이라고 믿는다면 십자가와 어떤 고통이든지 받아들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네가 너와 너의 가정에 들씌워진 빈궁이 응당한것이고 론리적인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빈궁과 쉽게 타협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성도 없고 력사도 모르며 도덕규범도 없는 악당들이 자기들의 법칙대로 나라를 통치하는것을 보고도 참는다면 그것은 저속한 행동으로 될것이다. 우리 보덴 그라우제가문에는 차례지는것이 많지 못하다. 우리 재산이 허용하는것이 이게 다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을수 없다. 〈상등병〉이 느끼고있는 힘과 그의 승리는 무서운 보복을 배태하고있다. 그 보복은 〈상등병〉을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국가를 소멸하게 될것이며 그의 악당들을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도이췰란드인민들을 소멸하게 될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상등병〉에게 맞설수 있는 힘은 서방에 있는것이 아니라 동방에 있다. 한해전에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 행동을 개시할데 대하여 의논하였었다. 이것이 뽈스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전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서방이 정치협잡배들을 꺼꾸러뜨릴것이라고 믿었던것이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끌고나갔기때문이였다. 아니야,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고 도이췰란드 사람들이였다.》 백작은 딸의 눈에 비낀 놀라운 기색을 읽고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나는 이전의 자기 과오를 시정하였다.

아니다. 과오가 아니다. 나는 지금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한다. 파거앞에서 죄가 씻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타우드스산줄기와 같이 영원한것이다. 한마디로 나한테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네가 나를 행동에로 이끌어준 그 동기들에 대하여 알고있기를 원한다.》

《만일 우리한테서 무슨 일이 생기면.》하고 인그리드는 아버지의 말을 고쳐했다.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않는다. 나는 재산의 절반을 넘겨주었다. 너는 나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들과 종종 관계를 끊고있지 않느냐. 내가 나의 새 동료들과 협의하고 적당한 구실을 너에게 마련해주마.》

《아버지는 저를 잘못 리해하셨어요. 저는 팔짱끼고 앉아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말이 옳아요. 우리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차례지는것이 너무도 적어요.》

인그리드는 북실북실한 하얀 거품이 이는 욕탕으로 뛰여들었다. 거품은 자기밑의 암갈색물을 덮어주었다. 그것은 흡사 바바리아의 시내가에 있던 소용돌이에 감돌던 그 거품같았다. 거기서는 이따금 나무가지와 밤나무잎들이 그 거품과 합류하였는데 그것들은 별안간 소용돌이에 감겨돌아가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군하였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에 끌려 신비한 심연속으로 들어가버렸던것이다.

거기 바바리아에서 소용돌이를 바라보며 인그리드는 어째서 진짜 강한 힘은 흔히 보이지 않으며 그것은 생활에서 하나의 최고비밀로서 눈에 안겨들지 않는가 하는데 대하여 처음으로 생각해보았다.

처녀는 자기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와 같은 가문의 남자들에 대하여 자세히 눈여겨보았다. 그에게는 이들이 진짜 힘을 잃은 사람들로 느껴졌다. 그들에게서는 겉으로 표현되고있는것이 전부였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민첩한 행동과 존엄, 해학과 너그러움과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그리드가 진짜 남자라고 특징지을만한것들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두가지 감정—죄의식과 주위사람들에 대한 항시적인 동정심이 없었다. 이것이 결국 힘을 이루는것이다. 자기를 귀족으로, 진짜 프로씨아귀족정신의 계승자로 생각하면서 이

처녀와 같은 계층의 남자들은 모든데서 서로 모방하려고 했고 바로 이런 행동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본래의 귀족의 근본마저 잊고있다는 것을 모르고있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서 그런지 인그리드는 어려서부터 자기는 바로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로 되여야 한다는 자기의 권리를 고수하여왔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 되기를 원치 않았다. 처녀는 거짓말을 하고싶지 않았다. 오히려 주위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자기의 《나》를 주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 어떤 특권계급의 그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개성적인 녀성인 인그리드로 남아있고싶었다.

인그리드는 옷을 입고 식사칸으로 나갔다.

《엠마.》 그는 하녀를 불렀다. 《나한테 커피를 가져와요.》

하녀는 고뿌와 쨤 그리고 검은 커피가 담긴 은차관을 가져왔다.

《백작이 집에 있어요?》

《백작님은 나가셨어요. 아가씨가 아침식사하러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늦게 돌아오신줄 알고 혼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이는 기분이 어떻든가요?》

《저에게 웃으시면서 날씨가 좋아질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이의 얼굴은 몹시 부었어요?》

《아니예요. 안색이 여느때와 다름없었어요.》

《차를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나는 편집국으로 가야겠어요.》

《자동차는 벌써 준비되였어요.》

《운전사에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참, 서기한테 물어보세요. 쿠르트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는가?》

잠시후 하녀가 돌아왔다.

《서기의 기록부에 쿠르트 슈트람씨의 이름이 없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쿠르트 슈트람에 대하여 생각하자 처녀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사무쳐올랐다. 동생들이 죽은 후 인그리드는 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일부 쿠르트에게로 돌렸다.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가.) 인그리드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그렇게 처녀들같담. 빰에 보조개가 지는것도 얼굴이 활딱 붉어지는것도 신통히 처녀들같다니까. 그는 아이들처럼 뿌루퉁하는 법도 없고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지. 거짓말이라고는 조금도 할줄 모르고.)

인그리드는 쿠르트 슈트람을 투쟁에 인입하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만이 싸움을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각오는 나이도 먹고 생활의 번민도 아는 사람에게서 생기는것이다.

그러나 쿠르트 슈트람은 너무도 젊고 늘 행복하게 지내온 사람이였다. 인그리드는 아직은 그가 있을수 있는 희생에 맞설 준비가 되여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혹시 그 녀자가 마음속으로 청년을 아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인그리드는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알고있었고 가장 무서운것에 대처할 준비도 되여있었다. 그는 이 사업에 행복감을 가지고 자신을 깡그리 바칠 각오가 되여있었다.

후에 자기의 상급으로 된 후고 슐쯔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인그리드는 그에게 자기의 명예와 존엄에 모순되지 않는것이라면 무엇이든 집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집행할줄 몰라요.》 인그리드는 그때 계속하여 덧붙였다. 《나는 자기가 하고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야만 집행할수 있어요.》

그러자 후고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나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는 이 순수 귀족적인 감정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알고있기때문에 타고난 감수성을 없애라고 하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업에 리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느 한 녀성같지를 말아달라는 의견에 동의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단번에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도이췰란드와 린접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뭘 좀 써주어야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실행하여줄수 있겠습니까?》

인그리드는 인차 함부르그로 떠났다. 후고가 가르쳐준대로 거기서 그는 《임페리알》호텔이나 《카잉제르호프》호텔에 들지 않고 추운 변소가 복도 한끝에 있는 자그마한 항려관에 들었었다. 모스크바와 련결된 반히틀러그리스도교지하조직의 한 지도일군의 구상에 따라 인그리드는 특별히 신임받는 련락원으로 되여야 했다. 그것은 첫째로 게스타포로 하여금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백작이 아무곳이나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괴벽한 행동(려행기간에 그가 빈민굴에도 들게 함으로써 귀족녀인의 생활이 괴벽스럽다는 표상을 주기 위한것이였다.)을 버리지 않고있다는 인식을 주게 하였고 둘째

로는 이러한 려행이 인그리드에게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생활에 대한 파악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리해관계에 대한 리해로써 자기 계층의 테두리를 본격적으로 벗어날수 있게 하여주었다.

인그리드는 정원으로 나왔다. 커다란 유리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바람에 창가림이 가볍게 흐느적거렸다. 인그리드는 큼직한 흔들림의자에 몸을 잠그고 눈을 감았다. 노란 장미를 둘러심은 드넓은 화단주위에서 마치 폭격소리처럼 윙—호박벌들이 날아예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처음에 후고는 인그리드가 식당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앓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두 어린 소녀의 운명에 대한 글을 쓴데 대하여 나무람했다. 기사에 의하면 소녀들이 어머니를 찾아 취사장에 오군하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자기 몫으로 차례진 국을 주군하였다. 그리고 동정심많은 료리사가 아이들에게 고기점도 쥐여주었다. 어느날 이것을 본 감독이 이에 대하여 주인에게 고발하여 청소부어머니는 당장 퇴직당하고말았다. 불행한 녀인은 엎친데덮친격으로 폐결핵까지 걸려 병원에 몸져눕게 된다. 인그리드는 잡지에 내려고 이 비극에 대하여 썼다. 물론 출판검열이 간섭하여 기사가 발표되지는 못하였지만 소녀들을 고아원으로 보내주었다. 그때부터 주필은 인그리드가 《부분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처럼 경솔하게 결론짓군하는데 대하여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편집부로 가는 길에 인그리드는 이따금 후고가 오군하는 그 집에 들리였다. 후고는 공군산하의 책임적인 관리로서 시간에 매여있지 않았으며 아침식사도 흔히 친구들과 함께 하든가 혹은 어느 자그마한 식당이나 완제이에 있는 조용한 호화저택들에서 하군하였다. 이 귀족들의 집에서 인그리드와 만나는것은 리해할만한 일이였고 그 누구의 의심도 살수 없었다.

어느 하루 후고는 하이드리흐 수하의 에쓰에쓰장교들과 함께 여기로 찾아왔다.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에쓰에쓰성원들을 데리고오겠다고 미리 예고해주지 않았었다. 그는 인그리드와 쿠르트 에곤 그리고 이밖에 앉아있던 두사람이 당황해하는것을 이상하게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후고는 후날 인그리드에게 《만일 에쓰에쓰놈이 당신을 차에 타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자이건 롱조로 체포장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을 무서워하는것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가 대답하는것을 보고 당신은 본성이 어떤자인가 하는것을 알게 될겁니다.》하고 말하였다.

오늘 후고는 저택에 혼자 있었다. 그는 인그리드에게 커피를 권하였다. 그는 처녀가 거절하는 말을 채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잔에 커피를 붓다가 빳빳하게 풀을 먹인 탁상보에 몇방울 흘리기까지 했다.

《며칠후에 로씨야를 반대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럴수 없어요.》

《당신은 래일 크라꼬브로 가야겠습니다. 편집부에서 그것을 요구할겁니다. 전쟁의 희생물들인 〈아이들에 대한 민족사회주의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야 합니다. 크라꼬브에 고아로 된 우크라이나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이 생겨났습니다. 거기 가서 당신은 한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키보다 좀 더 크고 회색양복을 입었는데 옷깃에 나치스당원 휘장이 붙어있습니다.》 후고는 크라꼬브사진첩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강을 가로지른 다리를 가리켰다. 《여기서 저녁 여덟시 오른쪽으로부터 첫번째 장의자옆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말하여 여기입니다.》

그는 다시 손가락으로 사진에서 겨우 알아볼수 있는 장의자를 가리켰다.

《당신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명으로 마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스또크에서 온 교원으로 되여야 합니다. 련락방법에 대하여서는 그와 합의하십시오.》

《후고씨, 당신은 자기 얼굴빛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자기 얼굴빛인줄 압니까?》후고는 랭담하게 말하였다. 인그리드에게는 지어 그가 성이 난것처럼 보였다. 《누구에게 지금 자기 얼굴빛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1933년부터 자기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활의 가면, 보잘것없는 어리광대의 가면에 지나지 않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생활의 가면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탈을 쓰고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인그리드씨. 용서하십시오.》

그는 스스로 자기 말을 끊었다.

《크라꼬브에서 조심하십시오. 거기는 전선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웃으면서 성을 내라!〉는 게링그의 훈시를 리용하십시오. 나는 당

신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 대하여 매우 걱정합니다. 당신은 검은 머리를 물들이십시오. 지방에서는 당신이 아리아녀자의 표준이 아닙니다. 쿠르트와 련계를 취하십시오. 그는 전쟁전에 크라꼬브에 다니군하였는데 자꼬빠나에서 스키놀이를 하였습니다.》

《나는 벌써 사흘째 그와 련계를 취할수 없어요.》인그리드가 대답했다.

후고는 상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마치 허리가 부러진듯 인그리드쪽으로 몸을 쑥 내밀었다.

《화요일부터 전화를 하지 않았단말입니까?!》

《예.》

《당신이 찾아보았는데 대답이 없더란말이지요?》

《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가요?》

후고는 모를 일이라는듯 인그리드를 쳐다보고는 담배를 빨았다. 그는 손가락짬에 끼워있는 차숟가락이 구부러들도록 불끈 힘을 주었다. 한동안 지나서야 후고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크라꼬브에서 돌아오면 여기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태워다주겠습니다. 그러나 역에 내리지 말고 시외의 어느 한 역에서 내려야겠습니다.》

《당신은 감시하지 않는가를 검토해보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후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정말 당신이 쿠르트를 투쟁에 인입하지 말자고 한것이 옳지 않았을가요? 사실 그는 아직 아이가 아닙니까? 내 욕실에 머리물감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용사가 필요합니까?》

스쩨빤의 아들 미꼴라

1940년 겨울 부레슬라우로지방의 여기 노이하우젠의 그리 크지 않은 인적없는 장원으로 《남새》, 《과실》이라는 글이 뼁끼로 진하게 씌여진 유개화물차에 크라꼬브, 와르샤와, 류블린으로부터《남새》와 《과실》이 실려왔다.

이 《남새》와 《과일》들은 반데라의 부하들에 의하여 선발된 부농의 자식들이였다. 총독부가 있는 나라들에는 어디서나 《특수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고있었다.

그들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창문에서 좀 떨어진 방들에 배치하였다. 그리고는 로만 슈테비치와 오베들렌더와의 담화에 불러들이였다. 그들이 있는 사무실 유리창들은 치분을 발라 들여다볼수 없게 되여있었다. 오베들렌더는 우크라이나말을 하지 않고 모스칼사투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을 리해할수 있었다. 그는 거만한 티를 내지 않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바라보며 천천히 똑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젊은이들에게는 도이췰란드군복을 주지 않고《로동전선》에 온 사람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주었으며 매 사람에게 앞부분이 뭉툭하게 생긴 자동총과 탄알들을 푼푼히 나누어주었다. 그리고는 《남새》차에 태워 사격장으로 실어갔다. 거기서는 우크라이나말, 체스꼬말, 로씨야말, 흐르바쯔까말을 하는 교관들이 《동물》을 쏘는 법을 가르쳤다. 사격자세는 각이했다. 서서사격, 앉아사격, 숨어사격 등이였다. 사람처럼 생긴 허수아비를 칼로 찌르는 방법도 배워주었다. 그리고는 무기없이 격투하는 법, 어깨죽지에서 팔을 뽑아내는 법, 손을 꺾는 법, 면상을 타격하는 법, 급소를 찾아내여 적을 순간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법을 배워주었다.

이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그루빠들에서 군사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였다. 뽈스까가 강점된 후 이런 그루빠들이 총독부관할의 여러 지역들에 생겨났는데 이들은 새 정권의 지원을 받고있었다. 그들에게 집도 주고 비품과 해당한 도서들, 보조금도 주었다. 전반적으로 새 정권은 돈을 마구 뿌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로씨야망명자들에게보다는 많이 주었다. 로씨야망명자들은 겨우 연명해나갈수 있는 돈을 받았다.

《로씨야청년민족동맹》위원장은 게스타포에서 한달에 금화로 1만 5천마르크를 받았고 로씨야민족주의자조직책임자 예로힌장령도 그만큼밖에 받지 못했다. 유독《로씨야민족정치위원회》책임자 불라노브만이 선전성과 련계를 가지고있었으므로 돈을 많이 받았다. 겝벨쓰는 그에게 한달에 3만마르크를 주었다. 어쨌든 선전성은 게스타포보다 부자였다. 게다가 불라노브는 선전사업에 종사하고있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는 평범한 밀고행위보다 많이 주었던것이다. 교관들은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반데라의 《투사》들에 대

하여서는 여기 로씨야망명자들과 달리 보고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양성된 젊은이들중에는 너무 어린 사람들도 있었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수자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수자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나흐티겔》대대에 8백명을 채워야 했다. 《나흐티겔》은 로씨야말로 《꾀꼴새》라는 뜻이였다. 7백명은 이미 실천을 통해 검열된 사람들이였다. 이들은 작은 2층집(흔히 2층은 다락으로 된 집)이나 혹은 촌집들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머지 백명은 토벽집들에서 살았고 말도 우크라이나말을 사용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에서의 차이점이였다. 이 백명중에는 스쩨빤 샤뽈리의 아들 미꼴라도 들어있었다. 스쩨빤은 쏘베트사람들이 서부우크라이나에 들어왔을 때 총독부가 통치하던 땅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였다. 그의 땅에는 국경표말이 박히고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지나갔다. 거기에 암소가 닿기만 하면 혀를 한발이나 빼물고 죽어너부러졌다.
스쩨빤에게 국경선으로 하여 잃은것대신 땅을 주기는 하였지만 골짜기옆의 그늘진 척박한 땅이였다. 바로 이때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에서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로씨야사람들의 죄를 설명해주면서 쏘베트정권이 무너지면 도와줄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약소한 돈이나마 받으라고 내놓았다. 그리스도교인에게 필요한것은 돈이 아니라 배려였다. 하지만 돈도 어차피 제 손으로 벌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굶어죽을수 있는것이다.
량심적인 사람인 스쩨빤은 2월달에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들을 떠나보냈다. 그는 아들을 보고 군대에 성실히 복무하여 제 땅을 찾아야 한다고 타일렀다. 제가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로타고앉을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큰 싸움이 시작되면 선참으로 내쳐야 한다고 했다.
초기에 미꼴라는 정원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꾀꼴새》대대의 사람들이 건방지게 그를 놀려주고 무엇이든 시켜먹으려드는것이 마음에 거슬렸다. 집에서 아마 그렇게 습관되여온자들같았다. 도이췰란드주인들이 대하는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녁마다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려고 모여들 때는 더욱 그러했다. 주인들은 작은 이쑤시개로 이발을 쑤시면서 비웃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시시각각 대원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짬에서 꺼낸 찌꺼기를 살펴보기도 했다.

미꿀라는 주인들이 허연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는 마치 앞에 있는것들이 아무 생각없는 짐승들이기라도 한듯 입을 항 벌리고 이쑤시개를 다시 이새에 밀어넣는것을 보고 얼굴을 찌프리기까지 했다.

미꿀라는 일부 신대원들도 역시 자기처럼 주인들을 마뜩지 않게 바라보고있는것을 띄여보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어떤 체험을 거쳤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전혀 순수한 신대원이였고 자기 감정을 감출줄도 몰랐다. 반데라의 선동원들은 이것은 림시적인 조치이고 중요한것은 앞으로 있을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꿀라가 단 한가지 기쁨이라고 느낀것은 총으로 종일토록 사냥을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높은데서 《적》의 목에 뛰여내리기도 하고 자기보다 힘이 센 다른 《해방자》가 공병삽을 쥔 자기 팔목을 눈에서 불찌가 일도록 아프게 비틀 때 《앗!》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훈련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기뻤다. 돌아오면 2층 침대에 누워 불안한 꿈속에서 몸을 떨며 잘수 있었다.

전투훈련이 끝난 후 매 사람들은 《꾀꼴새》대대의 두 도이칠란드 장교들인 대위 헤르쯔너와 오베들렌더, 우크라이나교관 로만 슈헤비치의 참가하에 시험을 친 다음 개인무기들을 수여받았다. 무기는 번호가 새겨진 자동총과 단도, 수류탄 등이였다. 계속하여 정치상학이 시작되였다.

크라꼬브에서 도이칠란드자동차로 레베지, 스떼쯔꼬, 스따루흐를 실어왔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도이칠란드는 어떤 위대한 나라이며 아돌프 히틀러는 어떤 천재인가 하는데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총통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인민들을 쏘베트로부터 해방시키면 즉시 락원과 같은 생활이 시작될것이라고 알기쉽게 해설하였다. 강사들은 모든 우크라이나사람이 우크라이나사람들에게 형제로 되기때문에 공정한것이 지배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불행은 오직 공산주의자들이 같은 혈통의 자기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때에만 사라질수 없다고 력설하였다.

《레베지각하.》 미꿀라는 자기의 젊고 천진한 생각을 터놓았다. 《신의 아들, 우리의 예수는 유태인혈통을 가지고있지만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면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있지 않습니까?》

레베지는 솜털이 보시시한 우크라이나청년의 애젊은 얼굴을 한동

안 노려보다가 쓰겁게 웃었다.

《젊은이.》하고 그는 말을 뗐다. 《예수는 피가 없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요.》

《아닙니다.》 미끌라는 고집스럽게 응하려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불에 달군 못으로 예수의 몸에 못질을 하였을 때 그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미끌라, 당신은 설교자가 아니라 군대가 되여야 하오.》

《찌꼴새》대원들은 와 웃음을 터뜨렸다. 화목한 웃음소리는 이 탁상에서 저 탁상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의 웃음이 있었다. 미끌라는 그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웃으며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레베지각하, 우리가 우크라이나지주들밑에서 고생할 때 그들의 종들인 뽈스까사람들도 고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방안은 일시에 조용해졌다. 재향군인들은 쪼프린 눈들을 젊은 미끌라에서 선이 예리한 아직 젊으나 주름살이 잡힌 반데라보좌관의 얼굴에로 돌렸다.

《뽈스까사람들도 당신의 아버지를 억누르지 않았소?》레베지는 한참 동안을 두었다가 물었다.

《왜 억누르지 않았겠습니까!》

미끌라는 놀랐다. 《억누르지 않다니요. 군대를 위해 식량을 장만해가고 말도 빼앗아갔는데요.》

《좋소.》 레베지는 안도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내가 바로 거기에 대하여 말하는거요. 혈통이 다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요.》

《쓔들레쯔끼네 집에서는 곡식을 빼앗아가고 보츠꼽스끼네 집에서는 마당에 있는 말을 끌어갔습니다. 그게 다 뽈스까사람들이였지요.》

《당신네 고장에서 쏘베트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들을 하고있소? 그게 흥미있구만.》레베지는 특별히 진실감이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끌라는 그가 솔직한 이야기에로 유도하면서 호탕하게 웃고있다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하지요.》 미끌라가 대답했다. 《오스따쁘아저씨는 쏘베트하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도 없고 공부하는데 돈 한푼 안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우크라이나말로 공연을 하고 노래도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에 속한 문화단체보다 못지 않다

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있소.》 레베지는 차겁게 내쏘았다. 《오스따뻐아저씨의 성이 뭐요?》

《부랴크입니다.》 미꼴라가 대답했다. 《오스따뻐 부랴크. 우리는 그와 친척간입니다.》

첫 정치상학이 있은 후 18살난 스쩨빤의 아들 미꼴라는 고정취사당번으로 임명되였다. 그는 일이 이렇게 급변한것을 기뻐하였다. 쌀바가지가 크면 제 몫도 커질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미꼴라는 물론 레베지가 벌써 로만 슈헤비치와 함께 자기 운명을 놓고 토론한데 대하여 알리가 없었다. 레베지는 재향군인부대를 로씨야국경에 있는 싸노크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미꼴라를 집으로 돌려보낼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슈헤비치는 《꾀꼴새》부대에 상주하고있는 에쓰에쓰장교 크름제르와 토의하고 그를 다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실물로 교양하기 위하여 당분간 남겨놓기로 했다.

《리보브에서…》레베지는 다음번 상학시간에 이젠 방안에 자기 사람들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젊은이들은 정치일군들을, 체까대원들을 처단하여야 하오. 우선 자기 우크라이나놈들부터 시작해야 하오. 그다음에 로씨야놈들, 유태놈들, 뽈스까놈들을 처리해야 하오. 나는 매일 한사람앞에 열놈씩 섬겨줄테요. 당신들은 모두 800명이요. 열흘동안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적들을 모조리 죽일수 있소. 그러면 숨쉬기가 좀 쉬워질거요. 우리는 총독부에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오. 내가 중요한 이름들을 불러줄테니 당신들은 기억해두시오. 이 중요한 대상들에게 붙어서 알랑거리며 살아가는자들이 다섯명씩 있다고 생각해보오. 중요한 대상의 주위에 아첨쟁이가 다섯명이 있으면 이 매 다섯명에게는 또 스물다섯명의 아첨쟁이가 있게 될거요. 그러나 많을 때는 쉬운 법이요. 한사람은 끄떡 안한다쳐도 다른 사람은 굴복할수 있거든. 특히 녀자들과 아이들이 쉬운거요. 그들을 조이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숨어버렸을 때말이요. 물론 쓰지는 말아야 하오. 당신들은 탐정들이니까 펜과 종이가 필요없소. 쓰는것은 인테리들에게나 필요한것이지 우리는 집행해야 하오. 눈을 감고 잠시 휴식하시오. 그리고 자기를 그려보며 마음을 푹 가라앉히시오. 좋소, 그렇게 준비됐소?》

레베지는 문건을 펼치고 명단을 읽기 시작하였다.
이 긴 명단은 우크라이나성들로부터 시작되였다. 공산당원들과 비당원열성자들이 첫째 대상이였다. 그리고 로씨야사람들, 뽈스까사람들, 유태인들의 성이 뒤따랐다. 반데라는 이 명단을 아브웨르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반데라는 이 명단을 《꾀꼴새》부대의 오베들렌더와도 토론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대에 부딪칠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히틀러주의자들이 총독부에서 우크라이나지역을 감독하고있던 뽈스까무장헌병들로서 따로 조직을 내온 사실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과 함께 하나의 상전—히틀러에게 충실히 복무하여온 숨은 경쟁자들과 적수들을 단매에 꺼꾸러뜨리는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데라에게 가르쳐주었던것이다.
리보브의 꽃이며 쏘련과 유럽의 자랑이며 또 유럽슬라브족들의 자랑이라고만 볼수 없는 뽈스까의 우크라이나인테리들에 대한 명단은 오베들렌더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그리고 수천명의 교수들, 의사들, 화가들, 작가들을 처형할데 대한 문제도 승인되였다. 두번째 명단은 첫번째 명단에 첨부된것이라고도 볼수 있었다. 명단은 역시 명단이였다. 여기에는 사람들을 아무리 써넣어도 터질 걱정이 없었다. 총살자명단은 편리한것이였다. 이것은 중요하게는 행동의 자유를 주게 하는것이다.

쿠르트 슈트람 (3)

(에쓰에쓰대좌의 말이 옳다.) 쿠르트는 다리와 허리, 어깨박죽이 마비된듯한 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유감스럽지만 그의 말이 옳다. 아직도 한주일 여기에 나를 더 붙잡아두면 나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다. 아니면 한 뒤주일 더 견딜수도 있겠지.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것이다. 나는 수백가지 안을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그 하나하나의 안은 사실과 비슷하게 꾸며졌다. 모든 세부도 일치할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사소한 세부는 일치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나한테 연필과 종이가 없고 또 친구들인 후고와 인그리드가 없기때문이다. 그들도 이 매개의 안을 놓고 나와 미리 약속할수 없다. 그

러나 에쓰에쓰대좌는 협의회를 열고 일곱명의 부하들이나 혹은 백여명의 살인마들에게 나의 매 진술을 연구하게 한 다음 우리 동무들을 불러 그들에게 내가 한 말을 읽어주면서 심문을 들이댈수 있다. 대좌는 오래동안 자료를 파고들어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얻어낸 다음 그것을 후고와 인그리드에게 들이대면서 마치 내가 불기 시작하듯이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할수 있다. 내가 불기 시작하면 동무들을 파멸시킬수 있다. 우리는 서로 입을 다물기로 맹세를 다지지 않았는가.)

쿠르트는 마치 등이 가려워나는듯 어깨를 추슬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고통스러운 마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더 괴롭혔다. 차겁고 예리한 바늘같은것이 목이며 다리며 등을 마구 찌르는듯했다. 그리고 매번 움직일 때마다 엉거주춤 제대로 일어설수도 없는 이 작은 방안에서 무엇에 눌리운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에게 당당히 차례진것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다.) 쿠르트는 생각했다. (공장은 나에게 정정당당히 상속된것이 아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는 구좌들도 내가 공정하게 받은것이 못된다. 그러나 생명은 정정당당히 나의 부모들의 사랑속에서 물려받은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런 조건에서 자기의 생명만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다. 자, 어디 싸워보라. 쿠르트, 싸워보라. 리성은 언제나 출로를 찾을수 있게 하지 않는가. 허나 쿠르트, 너는 지금 그런 권리가 없다. 너는 투쟁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투쟁의 길에 떨쳐나서지 않았는가. 너는 내가 피와 땀으로, 손과 두뇌로, 지혜와 성대로 얻어진것만 정직한것이라고 하면서 우연히 선사받은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 물론 반대할수 있을것이다. 자, 어디 한번 다투어보라, 쿠르트! 끝까지 견디여내야 한다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것을 견지해내겠다고 약속해보렴.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기적을 바라고있으며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가다가 박산이 나든가 그의 대가리에 벽돌장이 떨어지든지 혹은 마비되여 죽어버리기를 바라고있는것이다. 물론 히틀러는 그런 마비에 걸리지 않을것이다. 의사가 매일 그의 건강을 돌보고있는데 왜 마비에 걸리겠는가. 히틀러는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 낮에는 해바라기를 하며 저녁에는 약초에서 뽑아낸 효능이 높은 물약을 먹고있다. 총통의 생명은 도이췰란드인민들에게 그처럼 귀중한것이다. 외부로부터 무엇이 도래할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직 자기에게만 기대를 가져야 한다. 자, 어디 반박해보라, 쿠르트. 《모든데서 언제나 자기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히틀러주의자들의 론리가 아닌가. 그런즉 나는 후고에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즉 나는 인그리드와 에곤에게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가? 어째서?! 그것은 그들이 나 하나를 위해 조직을 모험에 내맡길 권리가 없기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입을 다물것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마음놓고 우리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고있는 것이다. 쿠르트, 너는 《우리의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도미노쪽을 자기에게 던졌지. 이즈음 거기에 매달려야 한다. 그러다가 우리 사업이 승리하게 되지 않을가? 왜 말이 없는가?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 이것은 시련이였다. 우리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은 인차 승리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봄날의 보이지 않는 내물이 자기의 온기와 그 정갈한 흐름으로 회색눈껍데기를 점차 녹여내듯이 서서히 승리하는것이다. 나으리, 어디 한번 말해보라. 이 고통이 너희들과 같은 출신의 사람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너희들 손에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겠는가? 헌데 네가 어떻게 죽을수 있다는건가, 쿠르트? 너에게는 띠가 없다. 설사 띠가 있다고 해도 너는 자기 목에 올가미를 씌우지 못할것이다. 놈들은 수색할때 바지에서 쇠단추까지 뜯어냈다. 그걸 잊었단말인가? 쿠르트, 너는 자기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할것이다. 여기 이 나라에서는 인간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가질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아냈다. 감옥에서뿐만아니라 집에서도 그렇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다.)

《에이!》 하고 쿠르트는 소리쳤다. 《나를 속히 심문에 불러내게 해달라. 내가 이것을 요구한다고 말해달라.》

에쓰에쓰대좌의 방으로 데리고갔을 때 쿠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자루속에 들어있다간 정신이 돌겠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소.》 머리흰 대좌가 이 말에 수긍했다. 《그러나 이런 자루속에서 생기는 정신적충격은 우리가 매우 빨리 고칠수 있는 급성정신이상의 특성을 가지고있소. 그런데 의사들은 수인들이 정신이 돌아 헛소리를 칠 때 우리가 그처럼 완강하게 찾고있는 그런 사실을 몽땅 털어놓는다고 말하고있소.》

《나를 온전한 방으로 데려다주시오. 이 자루안에서는 내가 당신들이 제기하는것을 생각해볼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오. 지금 커피와 싼드위치를 가져올거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게 아니요.》
(내가 수갑을 벗겨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긴장해질수 있을거야.) 하고 쿠르트는 생각했다.
《헌데 당신이 나의 동무들을 심문에 부르고 나를 그들과 만나게 하면 그들은 내 상판을 보고 깜짝 놀랄겁니다.》
《내가 어디에 갔다오는통에 당신과 그렇게 행동하였구만.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요구를 거절한다는겁니까?》
《나는 거절하지 않을수 없소. 그 요구는 위법적인 성격을 띠고있소. 당신이 만일 전염병에 걸렸다든가 혹은 페스트와 페염에 걸렸다면 내가 당신을 병원으로 보내줄수 있을거요.》
(페염이란말이지.) 쿠르트는 속으로 환성을 질렀다. (고맙다. 에쓰에쓰 이놈아, 대단히 고맙다. 페염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빨리 그리고 믿음직하게 벗어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독감방으로 다시 끌리워올 때 쿠르트는 등뒤에 수갑으로 채워진 손을 몰래 놀려 바지를 추켜올렸다. 그것은 바지가 갑자기 밑으로 쑥 내려가게 하려는것이였다. 그는 요즘 몹시 배를 곯았기때문에 바지가 더 아래로 내려갈수 있었다. 그러면 독감방의 곰팡이가 나붙은 찬 돌벽에서 등을 보호해주고있던 속적삼이 겉으로 훌렁 드러날수 있었던것이다.

《베른에서 온 련락원과 접촉하다가 의심을 받고있는 쿠르트 슈트람과 련결된 그루빠성원들에 대한 감시대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합니다.
국내에서 자주 돌아치고있는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백작은 지방게스타포의 감시범위에 들어갈것입니다. 이 녀자가 총독부관할지역으로 떠나는것과 관련하여 그의 사진을 보내줄새가 없으면 인상특징이라도 와르샤와에 있는 롭스끼대좌와 크라꼬브에 있는 디쯔중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취할 대책안은 우리의 합의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로상에서는 우리가 그를

미행할것입니다. 소좌 홀로프.
동의함. 에쓰에쓰소장 뮬러.》

간나 쁘로꼬쁘츄크 (3)

이번에 위수경무부 관리는 간나를 더욱 살뜰히 대하였다. 그는 검은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프랑스경찰관에 대하여서는 무슨 애로되는 점이 없는가고 묻기까지 했다.

《프랑스경찰들은 완전히 정신이 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죄없는 사람들의 피를 탐내는 괴한들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망명자들을 잡아서 슈트떼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못난놈의 〈도이췰란드사람들〉까지 당신을 괴롭히고있지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간나는 얄팍한 갈색뚜껑의 자료집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경찰에서는 물론 저의 증명서를 검열했지만 그것으로 모든것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잘됐습니다. 이젠 당신이 쁘로꼬뽀비치에게 제기한 부탁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우린 모르고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청원서는 써야겠습니다.》

《새로말입니까?》

《예, 새로 짤막한 청원서를 써서 도이췰란드제국에 일하러 보내달라는 청원을 제기하십시오. 당신은 자기 직업에 따라 일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건축가가 요구됩니다. 거기 도이췰란드제국에서는 당신이 자기 아이들을 찾기가 조금도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사회주의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사람들을 도와줄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의 일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떨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일이 더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당

신은 자기 로동의 결과를 즉시 보게 될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제가 도이췰란드에서 뽈스까로 가는걸 허락해줄것 같습니까?》
《어디로요?》
《뽈스까에 있는 저의 아이들한테로말입니다.》
《뽈스까는 없습니다. 더는 그런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재생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관할지〉로 갈수 있는가고 말하십시오. 이 말은 뽈스까에 대한 류혈적인 깜빠니야가 있은 후 도이췰란드에서 고아신세가 된 사람들을 노엽히지 않을것입니다.》
(아니, 누가 뽈스까에서 고아로 되였단말인가?) 하고 간나는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가. 그는 이 끔찍한 말을 얼마나 태연하게 하고있는가.)
《도이췰란드로 일하러 가지 않고는 총독관할구역으로 갈수 있는 권리를 얻을수 없을가요?》
《그렇게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못할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의 청원으로 베를린에 보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리해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와르샤와의 새 정권에는 너무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도시는 파괴되고 려관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수 있는 집도 보장해줄수 없을겁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거기는 통행금지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크라꼬브에 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가 데리고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누구라구요?》
《시어머니입니다. 저의 남편의 어머니지요. 시어머니는 크라꼬브에 살고있습니다.》
《크라꼬브는 개방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프란크총독의 저택이 있지요.》
《그럼 와르샤와당국에 문의해야 합니까, 아니면 크라꼬브당국에 문의해야 합니까?》
《당신의 아이들 문제와 관련하여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떠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락해줄수 없습니다. 강점지역인 여기 빠리로는 더욱 그러하지요.》
《그럼 방도가 없는가요?》

《왜 없기야 하겠습니까?》 관리는 정말 놀라와했다. 《내가 제기하는 방도는 도이췰란드에서 일해보라는것입니다. 이건 당신에게 자기 아이들을 찾을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싸움에서 패한자들은 언제나 승리자들에 대하여 헐뜯기마련입니다. 우리는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겠습니다. 당신은 도이췰란드제국에서 마음껏 일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고있는 사람처럼 간나의 손에 자기의 뻣뻣한 손을 얹으며 덧붙여 말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아직 거짓말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내가 청원서를 불러주지요.》

스쩨빤 반데라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Б》 책임자 반데라는 슈틀리쯔와 그리고 스꼬로빠쯔끼두령의 특사 오멜첸꼬를 정중히 맞이하였다.

《시장하지 않습니까?》 반데라는 띠염띠염 늘어진 말투로 이야기했다. 《내가 상을 차리라고 말하지요.》

《감사합니다.》 오멜첸꼬가 말하였다. 《우리는 방금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방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고 슈틀리쯔는 이 말에 동의했다.

반데라는 잠시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유감스럽다는 뜻인지 쓰겁게 야유하는것인지 인차 리해하기 힘들었다.

《쨤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거야 아침식사가 아니지요. 이건 유럽생활에서 필수적이지요. 내가 돼지비게와 함께 닭알을 지지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그렇게 먹는답니다. 오멜첸꼬씨, 그렇지 않습니까?!》

반데라는 마디마디 곰곰히 생각해가며 힘을 주어 도이췰란드말로 말하였다. 아마 미리 머리속에 구상해둔것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우습게 보일것 같아 두려워하는 병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하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오멜첸꼬는 닭알지짐을 맛보고싶었으나 거절했다. 《스쩨빤, 먼저 사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을. 시간이 제한되여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할수 없지요.》하고 반데라는 수긍했다. 《가까이 와서 앉으십시오.》
《우리는 우선 깜빠니야가 시작된 초기에 우크라이나내각이 할 사업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오멜첸꼬가 물었다.
《우리는 내각수상인 변호사 고르보브이가 당신의 옛 친우이며 도이췰란드제국의 믿음직한 동맹자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거기에서 정보가 새나가고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수 없습니다.》반데라는 너그러운 표정으로 눈을 쪼프리며 대답했다. 《내각에는 검열된 투사들이 모여있습니다.》
《반데라씨, 나는 내각이 조직되였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하고 슈틀리쯔는 랭담하게 말하였다. 《나는 여기 크라꼬브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오멜첸꼬, 네가 말하였지.) 반데라는 대번에 모든것을 깨달았다. (네가 로만 슈헤비치, 레베지와 만나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이 목구멍이 간질간질하여 너에게 경솔하게 말하였겠지.)
《나의 사람들은 에쓰디대표와 도이췰란드사령부에 아무것도 숨기는것이 없습니다.》하고 반데라는 말하였다.
《그렇다고 믿읍시다.》슈틀리쯔는 쏘파에 편히 몸을 묻으며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마 당신들과 꾸비예비치씨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사람들사이에 미리 경계를 지으려고 내각을 조직한게지요.》
《꾸비예비치가 여기에 무슨 상관입니까?》반데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멜리니크의 손에서 놀아나는 피뢰입니다.》
《이건 나의 특권이 아닙니다.》슈틀리쯔는 단호하게 잘랐다. 《반데라씨, 나는 당신이 스꼬로빠쯔끼두령과의 협력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는 멜리니크와 당신들

간의 마찰에 끼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사람들은 내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령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찾아오지 못했습니까?》 반데라는 오멜첸꼬를 보고 입안소리로 웅얼거렸다. 《속내의를 뒤집어보여야 하겠던가요?》

《스쩨빤, 당신은 이상하게 말합니다.》 오멜첸꼬는 반데라를 뽈스까식으로 불렀다. 《두령은 당신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찾아오지 않을겁니다.》

《이 문제는 로젠베르그박사의 성에서 토의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협의를 거쳤습니다.》 하고 반데라는 거짓을 늘어놓았다. 슈틀리쯔는 반데라가 도이췰란드제국의 《최고성》으로서 동부지역성이 새로 생겨난데 대하여 알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두령이 로젠베르그박사와 합의를 보는것이 내가 여기서 그의 대표들과 합의를 보는것보다 훨씬 쉬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포흐트중좌를 념두에 두고있습니까?》

슈틀리쯔가 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와 일하기가 힘들던가요?》

《그는 령리하고 통찰력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하여 나나 나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어데 있습니까?》 슈틀리쯔가 물었다. 《말씀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명백한것 같습니다. 쏘베트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수 있는 강력한 도이췰란드와 친선적인 우크라이나를 건설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지요.》

《그건 결론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그리고 당신은 현단계에서 도이췰란드가 후방에 령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가지는것이 유익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군부대들을 배치할수 있고 군대를 위해 빵을 구워주고 부상자들을 위해 편리한 병원을 전개할수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를말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문제를 로젠베르그박사의 기관의 사람들과 충분히 론의하였습니다.》 반데라는 고집스럽게 되풀이했다.

(헌데 너는 군대에 대하여서는 왜 침묵을 지키는가?)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너는 왜 로젠베르그에게 모든것을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로젠베르그박사는 정말 이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스꼬로빠쯔끼두령은 그의 일군들과 두번에 걸쳐 만났습니다.》 오멜첸꼬의 말이였다.
반데라는 눈섭을 찡긋했다. 볼따귀의 얄팍한 살갗이 금시 터져나갈듯 안면근육이 푸들거렸다.
《나는 이야기대상을 잘 리해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반데라는 말하였다. 《내 생각엔 모든것이 충분히 합의되고 검열된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는 무거운 안색으로 슈틀리쯔를 바라보았다.
《새롭게 조성된 그 어떤 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건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정세인지 듣고싶습니다.》
《반데라씨, 나는 첩보기관을 대표하고있습니다. 도이췰란드제국의 정치첩보기관을말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안전국과 게스타포가 담당하고있지요.
나는 당신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도이췰란드후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듣고싶습니다. 강점된 도이췰란드후방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기 통치기구를 가진 우크라이나후방으로 보는가 하는겁니다.》
《나는 우리가 도이췰란드후방을 반석같이 다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반데라는 또 거짓말을 했다. 슈틀리쯔는 그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차렸다.
이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자기의 역할을 내놓고는 다른 그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나머지것들은 그것이 도이췰란드것이건 우크라이나것이건 아니면 그 어떤 다른것이건 모두 그에게 무관계한 것들이였다.
반데라가 거짓말을 하였다는것을 알고 슈틀리쯔는 부차적인 문제에로 말머리를 돌려 오멜첸꼬가 담화를 진행하도록 해주었다. 반데라는 두령이 내세운 후보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내각성원으로 받아들이는것을 반대하였다. 슈틀리쯔는 그들이 서로 찧고 받으며 지껄여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앞에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힘의 배렬

에 대하여 그리고 이 힘들을 어떻게 충돌시킬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예리하게 생각해보았다. 이것은 적으나마 조국에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슈틀리쯔는 오멜첸꼬가 자기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입수한 새로운 첩보자료들을 보여줄것을 요구하고 다른 방으로 나갔다.

《본부 앞.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도이췰란드지휘성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전쟁개시날자가 정확히 6월 22일이라는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유쓰따쓰.》

쿠르트 슈트람 (4)

쿠르트는 지척을 분간할수 없는 어둠속에서 고통스럽게 오래동안, 벌써 백번도 나마 머리를 돌렸다. (나는 어둠에 익숙되였다.

지금은 빛이 오히려 나에게 폭행으로 느껴지는것 같다. 사람은 오래동안 새로운 조건에 익숙되여간다고들 말한다. 그거야 조건이 어떤가 하는데 따라 다르겠지. 실례로 도이췰란드는 한해동안 익숙되였다.)

그는 도리를 젓고 지금 그 누가 자기를 볼수 있다면 자기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았다. 이 자루속같은 감방은 문에 작은 감시창조차 없었다. 수인은 앉을수도 누울수도 일어설수도 없었다. 그저 줄창 구부정하고있어야 했다.

쿠르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돌렸다. 그는 머리를 돌림과 동시에 등뒤에 수갑으로 채워진 손을 움직여 속내의를 당겨올렸다. 그것을 이발로 물어뜯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맨등으로 축축하고 차거운 벽에 기댈수 있을것이였다. 얼마전까지는 자기 본능에 순종하면서 자그마한 공간을 얻기 위해 벽에서 떨어지려고 애썼다. 이제 그는 속내의를 찢게 되면 자기 몸을 차거운 돌벽에 기대고 내장이 얼어들때까지 기다릴것이다. 그는 언제인가 알프스산에서 스키를 타다가 왼쪽 스키가 급한 곡선에서 돌려지며 넘어지던 때의 이런 느낌을 기억

하고있었다. 그날 해가 유난히 내려쪼여 눈결층이 녹아내리면서 뜻하지 않게 돌이 드러났던것이다. 쿠르트는 땅에 곤두박히면서 잔등을 지고 쾅 넘어졌다. 순간 그는 자기 몸에서 목이 긴 보헤미아유리병이 깨지는듯한 소리가 나는것을 들었다. 그리고는 정적이 깃들었다.

그것은 마치 부모들이 극장구경을 간 후 저녁에 몰래 찬장을 뒤지다가 그만 할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는 물병을 깨뜨렸을 때와 같은 쥐죽은듯한 정적이였다.

그때 쿠르트는 누워서 찬기운이 몸으로 스며드는것을 느꼈다. 그는 다리가 부러져 일어날수도 움직일수도 없었다. 길은 생소한데 날은 저물어갔다. 스키군들중에서 누구도 여기서 스키를 타는 사람은 없었다. 이젠 샤와를 하고 술집으로 가기전에 휴식할 때가 되였던것이다.

(제발 빨리 속내의를 찢어버리고 오래도록 랭기를 느끼면서 그때 산에서처럼 목구멍에서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어봤으면… 그리고 열이 오르고 심하게 기침이 나고 입안에 누런 색갈의 쓰거운 가래침이 생기여 머리흰 대좌가 나를 진료소로 보내주게 해주었으면… 거기엔 돌벽으로 막힌 길다란 복도가 있다. 아마 꼭 있을거야. 첫날 나를 끌고가던 그곳이 복도가 아닌가. 그런데 왜 그때 내가… 쿠르트, 그때 너는 환상을 간직하고있지 않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너는 기적을 바라고있었지. 그렇지 않단말인가? 너도 감옥이, 놈들의 감옥이 그처럼 빨리 환상을 버리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 좋아, 네가 옳다고 해보자. 자기자신을 정당화하는것보다 더 헐한것은 없다. 사실은 그런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정당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어려운것이다.)

그때 산에서 쿠르트를 발견한것은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였다. 그 녀자는 바로 그 경사지를 따라 내려오고있었다. 그때는 대부분의 스키군들이 이미 골짜기로 내려간 후였다.

인그리드는 허리까지 눈에 빠지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를 구급소까지 끌고갔던가. 처녀는 쿠르트의 몸밑에 자기 스키를 앉히고 자기는 말이나 혹은 이 고장의 개들처럼 두갈래의 띠를 가슴에 동여맸다.

처녀는 쿠르트의 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에 젖은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애무에 젖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쿠르트는 더욱 예리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인그리드의 애무에 의해 더 강하여졌다. 남자는 녀자와 다르게 애무에 반응하는것이다. 쿠르트는 더 굳세여졌다.

인그리드는 온몸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추운 날씨에도 그의 몸에서는 뽀얀 뜨김이 흩날렸다. 그때 쿠르트는 이것이 그 녀자의 아름다움과 녀성적인것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할수 있었다.

석달이 지나 하제교수의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쿠르트는 인그리드에게 청원하였다. 인그리드는 그가 늘 머리속에 그려오던 그런 녀자였고 동무였다. 허나 처녀는 그렇게 될수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쿠르트가 너무 부드럽고 어린탓이였다. 그때 인그리드는 호호호 웃고나서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힘을 요구하고있어요. 나는 열정적인 남자, 사랑과 리별, 행복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에게만 순종할거예요. 나는 그런 바보예요. 나는 우리가 한때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장나리라는것을 알고있어요. 나는 당신이 아파서 우는것을 보았어요. 녀자는 이런것을 용서치 않아요. 미안해요 귀여운 이…》

쿠르트는 마침내 이발로 깃을 물어 속내의를 찢었다. 거기에서 쩝쩔한 땀냄새가 풍겼다. 그는 등이며 이마며 목에 땀발이 선것을 느끼고 기뻐했다. 벽의 찬기운은 화끈 달아난 몸과 접촉하면 인차 결과를 나타낼것이다.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나는 내장이 얼어드는것을 느껴도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 산에서처럼 몸안에서 무엇인가 고통스러운것이 돌아가다가 기침으로 변할것이다. 제발 지금은 대좌가 나를 심문에 불러내지 말았으면… 그가 나를 심문에 불러낼 생각만은 하지 않았으면…)

배신의 력사

멜리니크가 살고있는 게스타포의 집은 반데라의 호화저택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여기 네 방에서는 (그중 방 셋은 직선으로 련결

되여있었다.) 전화가 쉬임없이 울리였다. 에쓰에쓰요원들은 도이췰란드말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군부대참모부들과 련결된듯한 커다란 야전전화기옆에서 젊은 사관이 전화직일을 서고있었다. 그는 희끄무레한 머리칼을 한옆으로 가리마를 타넘기고 향수냄새를 진하게 풍기였다.

에쓰에쓰장교들중에서 먼저 디쯔중좌가 슈틀리쯔를 보고 인사를 했다. 슈틀리쯔는 두달전 베를린과 로마가 저마끔 자기대로 흐르바쯔까파쑈조직 두목 안떼 빠벨리치를 정권에 올려놓는 놀음을 벌릴때 디쯔, 포흐트와 함께 자그레브에서 공작을 진행하였었다. 그때 디쯔와 포흐트는 각자가 자기 식으로 슈틀리쯔의 손에 쥐여있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이들의 잘못으로 아브웨르가 기대하고있던 유고슬라비아총참모부 중좌 꼬쏘리치가 살해되였던것이다. 그는 까나리스의 첩자였다. 디쯔도 포흐트도 징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처음에 슈틀리쯔가 이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생활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고 슈틀리쯔가 그대신 무엇을 요구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놀라게 했던것이다.

《안녕하오, 나의 친애하는 슈틀리쯔.》디쯔는 허물없는 사이나 되는것처럼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가 또다시 슬라브도시에서 만나게 되는것이 총통의 의사에 맞는가보오.》

《크라꼬브는 자그레브에 비해 조금도 못지 않은 도시지.》하고 슈틀리쯔는 대답했다. 《당신을 여기서 보게 되여 반갑소, 친구.》

《우리는 아침부터 당신을 기다렸소.》

《다른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소.》

《오멜첸꼬도 당신과 함께 왔소?》

《그렇소, 아는 사이요?》

《몇번 만나보았지.》디쯔의 얼굴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너그러운 표정이였다. 거기에는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높은 긍지가 어려있었다. 《그는 누구와 련계를 가지고있는 사람이요? 그는 자기 상급의 친구의 부하들인 비행사들과 련계를 가지고있소?》

《당신은 모든걸 다 알고있구만, 디쯔.》슈틀리쯔는 한숨을 내쉬였다. 《당신은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어 살아가기가 갑갑할거요.》
《가기요. 내가 여기 거두와 인사를 시켜줄테니.》디쯔가 말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제일 조용한 방을 내주었소.》
멜리니크는 창문가의 쏘파에 앉아있었는데 다리에 두툼한 스코틀랜드모포를 감고있었다. 그는 뾰족하게 다스린 연필로 꼼꼼히 글줄을 짚어가며 천천히 책을 읽었다.
《신경통때문에 이러고 있으니 용서하십시오.》그는 보드랍고 열기띤 손으로 슈틀리쯔의 손을 살짝 쥐였다놓으며 말하였다. 《맞바람을 5분간 맞으면 움직일수 없으니 야단입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그대신 기구가 잘 움직이고있지 않습니까.》슈틀리쯔가 말하였다. 《그것마저 움직이지 않으면야 사표를 내야지요. 모두가 중요한 거사를 준비하고있는 때에 어떻게 책이나 보면서 앉아있겠습니까?》
《이건 책이 아닙니다.》하고 멜리니크는 말하였다. 그는 반데라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자기의 좀 늘어진 말투로 강조하면서 천천히 쟁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옹호론〉이라는겁니다. 나는 교회들간의 차이점에 관한 그리스정교의 해설을 연구하고있습니다. 그리스정교는 매우 천진하게 자기 유식성과 진실성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복잡한 문제로 될것입니다. 3천만의 불행한 사람들을 카톨릭교도로 전환시킨다는게 간단치 않습니다.》
《혹시 그리스정교의 교도들을 카톨릭교의 친구들로 만드는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슈틀리쯔가 말하였다. 《3천만을 강제로 남의 교를 믿게야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멜리니크는 부드러우나 확고하게 말하였다. 《그리스정교는 이 교의 전통으로 모스크바와 련결되여있습니다. 그리스정교와의 동맹은 언제나 믿음성이 없는것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리스정교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가 그리 무서운것이 아닙니다.》슈틀리쯔의 말이였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것은 교회의 급진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과는 그럭저럭 합의를 볼수 있지요. 당신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로씨야에서

도 교회가 잘되는 경우라야 중립이나 지킬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론 그리스정교를 념두에 두고있습니다.》

멜리니크는 너그럽게 껄껄 웃었다.

《슈틀리쯔씨, 나는 그리스정교와의 동맹이 믿음성이 없다고 말할 때 내적인 절교를 념두에 두었습니다. 비잔틴의 영향은 그리스정교가 숭려의 거룩함을 인정하는것을 방해하고있습니다. 그리스정교도들은 언제 있을지 모를 일을 한정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서방사람들보다 실용주의적측면이 적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표현적으로 보면, 다시말하여 볼쉐위즘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총통을 따를것입니다.》

《나도 멜리니크와 동감이요.》 디쯔의 말이였다.

《장하오.》 슈틀리쯔는 《흠》하고 소리를 냈다. 《슬라브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던지. 〈당신의 생각대로 되겠는지?〉이렇게 말하던가요?》

《〈당신의 생각대로 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요.》멜리니크가 로어로 고쳐주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것은 가정과 공상과 추측입니다.

로씨야사람들은 공상가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그들의 비극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비극은 자기 본능상 실용주의자들인 우리들이 그자들의 락천적이고 정신착란적인 공상에 복종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로씨야문학에서 우크라이나사람인 고골리가 기본공상가였던것 같습니다.》하고 슈틀리쯔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골리를 우크라이나사람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글도 로씨야어로 쓰고 말도 로씨야말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슬픈 일이지만 그는 모스크바에 팔린 현대우크라이나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문기척소리가 들리더니 에쓰에쓰장교가 방안을 들여다보며 디쯔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리였다.

《당신은 반데라를 어떻게 대하고있습니까?》하고 슈틀리쯔는 느닷없이 물었다. 그는 멜리니크가 이런 로골적인 질문을 기대하고있지 않은것만큼 묻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행을 털어낸 악당이고 무식쟁이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뿐이지요.》하고 멜리니크는 대답했다.

《당신의 대답은 〈나, 안드레이 멜리니크 혼자만이 민족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다.〉라는 말을 보충적으로 담고있는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목사 쉐쁘찌쯔끼는 누구보다 나의 민족에 대하여 슬퍼하고있습니다. 그는 크라꼬브가 아니라 볼쉐위크가 있는 리보브에 있으니까 우리보다 살기가 훨씬 어려울겁니다.》

《쉐쁘찌쯔끼가 혈통이 로씨야사람이라는게 사실인가요?》

멜리니크는 손까지 내저으며 숨넘어갈듯이 웃어댔다.

《쉐쁘찌쯔끼가 로씨야사람인가구요?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가장 순결한 우크라이나사람입니다.》

리보브대주교 안드레이 쉐쁘찌쯔끼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M》책임자의 생활에서 특별한 역할을 놀았다. 오스트리아황제 합스부르그의 군대가 괴멸된 후 리보브에 눌러앉은 이전 오스트리아군대의 장교였던 젊은 멜리니크는 먹고 살아갈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자기와 같은 이전 오스트리아왕국 장교들과 련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때 리보브에는 《뻴스까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가 지배하고있었으며 이전 사회주의자 삘쑤드스끼의 군인들이 민족적승리를 축하하여 요란한 주연을 벌리고있었다. 멜리니크는 자기 힘을 알고있었다. 그는 사업을 여러모로 깐깐하게 연구하고 거기에 믿음직한 사람들을 인입하고《관건적인》문제에 그들을 배치하기도 하면서 조직사업을 할줄 알았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이전 오스트리아황제 합스부르그시기에 있은 일이였다. 그후 스꼬로빠쯔끼두령이 있을 때나 두령이 떠나고 뻬뜰류라가 있을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모든것은 끝장나고 멜리니크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것이 알려졌다. 바로 그렇게 불행하던 시기에 멜리니크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처럼 베를린의 도움으로 생겨난 우크라이나군사조직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베를린의 군사정치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에 대해서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조직한 력량으로서 귀중히 여겼지만 우크라이나군사조직은 매춘부를 대하듯하면서 그것을 제멋대로 리용하고 첩보망처럼 생각하였다. 또한 베를린은 이 조직을 통해 삘쑤드스끼의 《강대성》으로 위력을 떨친 새 유럽국가에 대한 군사적성

격의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짜내려고 서둘렀다.

우크라이나군사조직은 야르이의 《조사자료》를 통해 멜리니크의 실무적수완을 료해하고 그에게 리보브에 첩보망을 조직할것을 위임하였다.

무서운 굶주림은 흥청거리는 술놀이로, 자기가 멸망할수 있다는 의식으로 변하였다. 다른 나라의 첩자로, 쉽게 말하여 간첩으로 된다는것은 오스트리아군대의 대좌에게 있어서 소홀히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멜리니크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할줄 알았다. 그러나 서둘러 임무를 주지는 않았다. 열번 마르고 한번 자르라는 격언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었다. 그는 첩보망과 련계를 보존하면서 자기 식의 반탐기관을 꾸렸다. 그렇게 한 후에야 베를린에 정보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정보자료들은 그 정확성과 세밀한 분석으로 하여 베를린군사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멜리니크를 괴뢰수반들을 길러내는 부서로 옮겨놓자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뮨헨에서 멜리니크에게 첩보자료를 가지러온 련락원은 여기에 《수반의 직책》문제가 제기될수 없다고 잘라버렸다.

멜리니크는 이전날의 생활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첩보활동을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브웨르의 사람들은 그와 담화하면서 그의 사업분야를 규정해주었다. 다섯명으로 구성된 전투소조의 조직, 테로를 동반한 선전활동, 전뽈스까적으로 민족주의운동을 은밀히 보호해주는것이 기본사업이였다. 그가 자기 방조자에게 사업을 인계해주어야 했던 그날 뽈스까경찰이 그를 체포하였다. 멜리니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였다. 그는 돈에 매수되여 군사비밀을 제공한 도이췰란드간첩으로서 감옥에 갇히였다.

감방에 갇힌 초기에 멜리니크는 모든것에 무관심하고 허탈감에 빠져있었다. 바보같은 환상으로 자기를 위안할수 있었다. 이제부터 상승의 길은 영원히 막히고말았다. 그에게 있어서 상승이란 물론 정치였다. 오스트리아군대에서의 복무경력은 정치에로의 디딤돌이였다. 그렇게 강력해보이던 남의 군대는 지금 없어졌다. 우크라이나군사조직에서의 사업도 정치에로의 디딤돌이였다. 그런데 한발을 헛디디여 그만 계단이 무너지고말았다. 모든것이 끝장이다. 파멸이다. 악마에게 넋을 팔아먹고 장기간의 굴욕적인 파멸의 운명에 처하였다.

멜리니크는 감옥도서실에서 복음서를 빌려 독서에 열중하였다. 오직 여기에서 그는 구원의 길을 찾았다. 오직 이것만이 겉보기에 조용하나 마음속에서 광란하는 폭풍을 잠재울수 있었다.

복음서를 손에 틀어쥐고 그는 판결언도를 들었다. 감옥당국에서 선사한 이 복음서를 가지고 그는 출옥하였다. 그때 갈리찌야대주교인 안드레이 쉐쁘찌쯔끼백작이 멜리니크를 자기 령지의 관리원으로 받아들여 안식처를 제공해주었다.

력사는 해당 발전시기에 낡은 사상을 타파한 새로운 사상을 따르는 인민대중의 활동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개인과 그의 역할을 한 측면으로 하고 객관적발전과정을 다른 측면으로 볼 때 그것은 복잡한 문제인것이다. 외견상 바로 개인은 후에 인민과 국가의 생활로 되는 이러저러한 선언을 작성한다. 바로 개인이 전쟁을 선도하고 평화를 고창하며 자유를 주고 판결을 내리는것 같이 보일수 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력사의 순간에 벌어진 사건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격을 띠였다면 그것이 설사 특별히 류혈적이고 혹독한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것이였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안드레이 쉐쁘찌쯔끼백작은 력사에 자기 사상을 강요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결코 류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수도원의 고요한 사무실에서 작성된 론리적구상은 언제나 권세욕이 지나친 부족점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우크라이나인민의 운명과 그의 미래는 쉐쁘찌쯔끼에게 있어서 추상적개념이였다. 그의 사상은 전체 인민을 남의 신념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표본으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다른 목사들과는 달리 쉐쁘찌쯔끼는 자기 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외국의 힘과 협력할수 있다는것을 주장하였다. 더우기 제 1 차세계대전시기 그는 윈의 첩자로서 정보자료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먹었었다. 그의 행동의 깊은 리면에는 자기스스로 긍정하고있는 소유권에 관한 순수 세속적인 탐욕이 깔려있었다. 이 없앨수 없는 소유권에 관한 탐욕은 해가 감에 따라 내부로 더 깊이 침투되고 변화되여 바로 그 권세욕으로 자라났다. 일반적으로 권세욕은 위험한것이지만 오늘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현실에 눈이 어두운자들만이 결단성있는 행동을 죄많은 짓이라고 하고있소.》 쉐쁘찌쯔끼는 멜리니크와의 첫 담화시에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는 군중에게 호소하면서 선참으로 결단성있게 행동

했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리해하지 못하고 쫓아버릴수도 있고 배신행위를 할수 있다는것도 알고 용감하게 행동하였소. 안드레이, 당신도 결단성있게 행동해야 하오. 결단성있는 행동은 외적인것으로 보일뿐이지 사실은 언제나 내적인 행동, 다시말하여 자기자신을 반대하고 자기 힘에 대하여 확신을 못가지는것을 반대하는 행동이요. 군중의 지배자로 될수 있고 군중의 숭배를 받을수 있다는 이것이 자기를 위안해주고있소.》

쉐쁘찌쯔끼는 쏘파에 맥없이 퍼더버린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해말쑥하고 파리한 손으로 두드렸다.

《군중은 동요하는것을 용서치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군중은 미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요. 그들은 론리의 노예들이요. 그들은 론리를 빼앗겼소. 혹시 그래서 그것을 따를수도 있겠지. 군중은 항구적인 의의와 개념의 노예들이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신성한 교회는 이단교도들을 징벌한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오늘까지 자기 력사의 이 시기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이며 무고한 희생자들이 피로 그 신성함이 얼룩졌다는것을 거부하는것이요. 신성한 교회의 죄를 인정하는것은 곧 무신론에 복무하는것으로 될것이요. 수백만사람들은 우리의 진실을 의심하면서 악한짓을 일삼아오더니 왜 계속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거요. 안드레이, 내 말을 알겠소? 누가 어느때 자네를 형사사건으로 욕보게 했고 누가 자네를 간첩행위를 한것으로 기소했든지간에 자네는 죄가 없었다는것을 기억해두라구. 당신은 할수 있는껏 우리의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야. 자네의 행동엔 잘못이 없었어. 자넨 자기의 리익을 위해 살아온게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자기의 리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멜리니크는 겨우 알아들을 목소리로 부정했다. 《저는 그때 절망과 굶주림과 죽음에 직면한 운명으로 살았습니다.》

《아니요.》 쉐쁘찌쯔끼는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정신적고통이 신성한 교회의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오. 우리는 고기음식을 피하고있지만 사람들에게 영원한 금육생활을 강요하고싶지는 않소. 자넨 떳떳하게 살아왔고 자기를 악마에게 바쳐온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바쳐왔소. 그렇소, 안드레이. 친구에게 바쳐왔단말이요. 적의 적은 당신의 친구요. 가서 일하면서 휴식도 하고 힘도 키우오. 당신은 또 투쟁에 참가해야 할거요.》

나치스트들이 꼬노왈레쯔를 죽이고 멜리니크의 친구 야로슬라브

바라놉스끼를 로트르담에서 체포하였을 때 쉐쁘찌쯔끼는 이전 도이췰란드간첩 멜리니크가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친척의 장례에 참가할수 있도록 공민증을 쉽게 고쳐주었다. 멜리니크와 꼬노왈레쯔는 페다크의 녀자형제들에게 장가들어 동서가 되였다. 이 녀자들의 아버지 《드니스트로》은행총재에게는 딸 일곱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거의 모두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의 거두들과 결혼하였다.

멜리니크는 친척의 장례에 참가하고 리보브로 돌아와서 쉐쁘찌쯔끼의 수도원에 두주일동안 배겨있으면서 문밖에 얼씬도 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후 바람처럼 사라졌다. 아브웨르의 사람들이 히믈러기관의 지시에 따라 멜리니크를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의 새 《령수》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몰래 국경을 넘겨보냈던것이다. 반데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조건에서 누가 하든 사업을 계속해야 했다.

《령수》의 자리에 승격된 후 멜리니크가 진행한 첫 행동은 민첩성을 요구하는것이였다. 그는 반데라를 구출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그루빠를 파견하여 그의 도주를 조직해주려는것이였다. 멜리니크는 젊은 반데라를 자기에게 끌어들이고 그의 은인으로 되고싶었다. 구출문제는 부차적인것이였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투소조는 격전끝에 일부 체포되고 나머지는 멸살당하고 말았다.

쉐쁘찌쯔끼의 예언이 옳았다. 멜리니크는 빈터우에서 투쟁에 일떠섰다. 그는 베를린에서 살다가는 로마로 옮겨가고 거기에서 또다시 도이췰란드스승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멜리니크가 론리정연하고 세밀한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쓸모가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집회나 모임장소를 피하였고 사람들앞에 드물게 나섰다. 그리고는 될수록 아지트에 들어배겨 《변강》에 보낼 소책자들을 편집하고 리보브, 체르노웨쯔 지하조직들과의 련락도안을 작성하였다. 그는 또한 뽈스까와 쏘련에서 소멸대상들을 꼽아보았는데 그것은 주로 로출된자들이나 당원들이 아니라 당세포에 등록되지 않으면서도 볼쉐위크사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볼쉐위크사상에 충실히 복무하여온 사람들이였다.

그는 히틀러군대가 뽈스까를 침략하였을 때 자기가 진짜 가치있는 존재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도이췰란드군대와 함께 멜리니크의 악당들도 뽈스까에 기여들었다. 그들은 중세기 후반기처럼 적들의 집을 십자가로 표시하였다. 에쓰에쓰와 에쓰디는 이 깜빠니야시기에 멜리

니크의 또하나의 중요한 특기를 발견하였다. 그는 자기 위치를 알고있었고 힘에 의거할줄 알았다. 그는 이 힘이 자기를 위력한 존재로 만들어줄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그렇게 되였다. 뾜스까가 괴멸된 후에 생겨난 크라끄브종합대학 학부장 울라지미로브 꾸비예비치를 위시로 한 《우크라이나위원회》는 전적으로 멜리니크에게 복종되여있었다. 이 《위원회》는 그 어떤 《민족당》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프란크총독의 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총독관할지역의 유일한 《우크라이나정권》이였다. 프란크총독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해주었다. 그는 동쪽에로의 원정이 시작될 때 이들이 전투부대들에 인입되게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나치스트들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을 뾜스까지역에서 경찰력량으로 리용하고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지역에서 나치스트들이 모집한 뾜스까경찰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것이다.

에쓰디는 1940년초부터 멜리니크에게 혈통문제를 연구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로씨야나 뾜스까혈통으로 《더럽혀진》사람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두 밝혀내야 했다. 집시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었다. 멜리니크는 명단을 작성하였다. 나치스트들은 무엇보다먼저 공산당원들, 공장과 꼴호즈의 쏘베트핵심들, 쏘베트우크라이나의 인테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명단은 매우 구체적이였다. 수백장을 헤아리는 종이장들에는 이름, 성, 부칭, 난날, 난곳, 키, 눈과 머리칼색갈, 인상특징,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의 주소 등이 적혀있었다.

명단에는 갈리찌야사람의 후손인 안드레이 쉐쁘찌쯔끼의 이름이 없었다. 선조의 근원이 로씨야사람인지 뾜스까귀족인지 누가 알랴. 그의 이름이 명단에 오르지 않은것은 멜리니크가 그것을 감추려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 쉐쁘찌쯔끼를 우크라이나사람이 아니라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M》책임자 멜리니크와 재외에서 입수된 정보자료를 놓고 담화를 진행하면서 그에게 볼쉐위크후방이 견고한것 같은가 하는것을 묻고 대답을 들어보면 일정한 직위에 있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누구나 볼쉐위크들에게는 후방이라는것이 없으며 이것은 춘삼월 얼음이 첫비에 녹아없어지듯이 단번에 헤쳐지고말

여러가지 오가잡탕이라고 생각할수 있었다. 슈틀리쯔는 멜리니크에게 이 불같은 시각 중병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디쯔는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힘이 들었던지 전화기옆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에 송골송골 땀발이 서고 성난 표정이였다.

《고통스럽게 굴던게로구만?》 슈틀리쯔가 물었다.

《포흐트는 제 정신이 아니요.》하고 디쯔는 대답했다. 《우리 사업이 보고나 쓰고 일람표를 작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요. 그에게는 활동적인 사업이란것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소.》

《당신은 반데라와 만나보았소?》슈틀리쯔는 디쯔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는 군대의 보호를 받고있소.》 디쯔는 별생각없이 대답했다. 《우리 사람들은 그와 매우 드물게 만나고있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까나리스는 전술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하여 그를 가로챘다오.》

《알겠소.》슈틀리쯔는 옆방에서 젊은 하사관이 야전전화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있는데 귀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옆방에서 《어제 벌써 일곱개 행군종대가 뻬레뮈쉘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어제말입니다.》라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소.》 슈틀리쯔는 순간적으로 머리에 피뜩 떠오른 추측에 몹시 놀래며 같은 말을 곱씹었다.《그러나 반데라가 선참으로 월계관을 쟁취하지 않나 봐야겠소. 그는 멜리니크보다 훨씬 민첩한 사람이요. 반데라의 성과는 당신에게가 아니라 아브웨르에 월계관을 씌워줄거요, 디쯔.》

《그럴수 없소.》디쯔는 슈틀리쯔의 이야기속에 숨은 뜻을 단번에 깨닫고 늘 웃던 웃음마저 거두었다.《내 생각엔 당신이 과장하고있는것 같소.》

(이자들은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그렇게 하는외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다.) 하고 슈틀리쯔는 방에서 나오며 생각했다.

밤이 지새면 아침이 온다

련락원은 녀자였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숯처럼 검은 눈, 얼핏 생겼다 사라지는 보조개로 하여 녀인은 슈틀리쯔에게 너무도 화려하고 태평스러워보였다. 이러한 느낌은 이 녀자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눈길을 끄는것으로 하여 생겨난것 같았다. 바람이 휙 불어오자 짧은 원피스가 탄탄하게 생긴 스포츠형의 다리를 훌렁 드러냈다. 원피스의 목깃도 너무 깊이 파냈다. 녀인은 자기가 곱게 생겼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벌써 서른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래서인지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있는것 같지 않았고 저명한 시인이나 배우에게 고유한 그런 몸가짐이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아도 우쭐대지 않는다. 이들의 얼굴에서는 젊은이들이 그 명성에 진실로 탄복을 표시할 때 생겨나는 행복의 감정도 볼수 없다.

녀인은 도이칠란드사람이였다. 슈틀리쯔는 이것을 이 녀자의 발음과 강점된 도시에서의 이 녀자의 기분, 슈틀리쯔를 평가하듯 피끗 바라보는 그 눈길을 보고 알아맞혔다. 순간적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이렇게 바라보는것은 유럽사람들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슈틀리쯔가 확신하건대 서방사람들은 로씨야사람들과는 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른 척도로 살아가고있었다. 그는 여기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아도 다른것은 모르나 시간만은 풍족하다고 확신성있게 믿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슈틀리쯔는 작가 니깐드로브에 대하여 자주 회고해보았다. 그는 이 작가와 함께 스무해전 레벨스크감옥에 갇혀있었다. 그는 로씨야의 광대한 령토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지러진 유럽의 령토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사람들에게 자기 하나만을 믿는 특기한 기질을 키워주는 반면에 로씨야의 광활한 령토는 사람들을 서로 접근시켜주는것이다. 유럽사람은 자기자신만이 자기를 도와줄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누구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자신에 대한 기대와 자기 미래에 대한 책임의 자각은 시간을 특별히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낳았다. 사람은 무엇보다먼저 시간속에

서 매 순간순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것이다. 슈틀리쯔는 여기에서 처음에 이곳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태도가 의아하고 놀라왔으나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어느 한초도 필요없는것이 없었고 매 순간이 계산된것이였다. 사람들은 영원히 정해진 속도를 느끼며 살아갔다. 행동방식도 리해관계도 도덕도 여기에 복종되였다. 무엇이든지 먼저 리해하고 다음에 실행하려고 하는 로씨야사람들과는 달리 여기 사람들은 일로써 아침을 시작하였으며 만일 현실적으로 일감이 없으면 생각해내서라도 아무 일이나 일부터 시작했다. 이곳 사람들은 곡상에 복종하는 피아노연주가처럼, 박절기처럼 일하는 과정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 시작하는것이다. 나머지것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녀인은 동작이 결단성있어보였다. 짧으나 유연해보였다. 여기 녀성들은 자기들도 역시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는것을 잊지 않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왜냐하면 가정은 녀자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양보심이 많고 모든것을 리해하여주고 그래서 많이 용서해줄줄 아는 다정다감한 마음인것이다.

《시간을 어떻게 하기로 하고 왔습니까?》 하고 슈틀리쯔는 물었다.

《저는 래일 아침에 떠나가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마그다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나의 성은 볼젠입니다.》

《성이 명백히 바바리아성이군요.》

《오는 도중에 별일 없었습니까? 누가 미행하지는 않던가요?》

《제가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베를린에서 왔습니까?》

《저는 북쪽에서 살고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자기 자리를 뜬것을 어떻게 변명할것인가 하는것을 념두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행실이 나쁜 녀자를 대하는 겁쟁이남자처럼 저와 말하는군요.》 하고 마그다는 말하였다.

《나는 바로 겁쟁이남자입니다.》 슈틀리쯔는 이즈음 그처럼 바라던 마음속의 안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쪽에서 온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는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저쪽 조국에서 누가 오든 자기에게 안정을 가져다줄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국

에서 온 사람이 녀자인것이 좋았다. 이 녀자는 부드러운 손과 쉬임없이 얼굴을 가리우는 아마빛 머리칼을 가졌다.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두눈은 유난히 반짝이고 량볼에 얼핏 생겼다 사라지는 보조개는 매우 인상적이였다.

《당신은 지금 시장하시겠지요?》

《몹시 배가 고파요.》

《우리 장교회관에서 저녁식사를 하면 나쁘지 않겠지만 거기는…》

《그만두세요. 여기 카페에서 빵과 과실쨤을 먹을수 있겠지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저쪽에서 아무 소식도 없습니까?》

《저는 거기에 겨울에 갔댔어요.》

《합법적으로말입니까?》

《혹독하게 추운 때 갔댔어요.》

《거기는 어떻든가요?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것을 알고있습디까?》

《저는 거기에 춘추외투를 입고 갔댔어요. 로스또크는 거기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당신은 어디에 숙소를 정했던가요?》 슈틀리쯔는 이 녀자가 동문서답하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물었다.

《저는 〈오렌부르그〉라는 이상한 도이췰란드이름을 가진 포근한 흰 수건을 사야 했습니다.》

슈틀리쯔는 빙그레 웃었다. 그는 저도모르게 그 녀자의 얼굴에서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내가 당신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진짜 지하공작원입니다. 장합니다.》

《당신은 보매 이 사업을 하고있는지 그리 오래되는것 같지 않군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하고 슈틀리쯔는 수긍했다. 《당신이 옳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직업에 대하여 물을수가 없을가요?》

《저를 말로써 배를 채워주려는건가요. 이젠 진짜 남자로 되여주세요.》

《자, 여기가 카페입니다. 들어갈가요?》 슈틀리쯔의 말이였다.

카페주인은 판매대뒤에 서있었다. 천정밑에서 파리들이 윙윙 날고있었다. 파리들은 끈진끈진한 종이에 다닥다닥 붙어 비행기가 착륙

할 때처럼 요란스러웠다.
(식물도 구속을 받기가 싫어 장애물을 피해 자라는것이다.)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식물에 비해 파리는 사고하는 존재같이 보인다. 저것 보지. 뱅글뱅글 돌면서 발로 헤여나오려고 하는걸.)
《당신은 도이췰란드말을 압니까?》 슈틀리쯔가 묻자 주인은 도이췰란드말을 듣고 천천히 머리를 숙이였다.
《모릅니다.》
《커피를 주시오.》 슈틀리쯔는 주인에게 서투른 뽈스까말로 말하였다. 《빵과 과실쨤도 주시오.》
《레몬수뿐입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나으리, 레몬수라도 들어보십시오.》
《저녁식사를 어디서 할수 있습니까?》
《아마 베를린에서나 할수 있겠지요.》 뽈스까사람은 조용히 대답했다.
슈틀리쯔는 주위를 둘러보며 싱긋이 웃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없었다.
《어디서 저녁식사를 잘할수 있는지 알고있는데가 없습니까? 시장가격으로 돈을 물지요.》
《나으리, 그런 말을 하면 감옥에 붙잡아갑니다. 나는 그런데를 알고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내로 갑시다. 마그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이전에 내가 당신을 어디서 만날수 있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을 꾸며보시오. 저녁식사는 우리 회관에서 해야겠습니다.》
《무슨 회관입니까?》
《도이췰란드회관이지요.》 슈틀리쯔는 녀자앞에 문을 열어주며 말하였다.
《그건 필요없는 모험이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모험하고있습니다.》
《모를 일이군요.》
《그거야 자명한 일이지요.》 슈틀리쯔는 한숨을 내쉬였다.
《당신은 저를 로스또크에서 만날수 있었어요. 제가 거기 녀자학교에서 프랑스어로 강의하고있으니까요. 당신은 로스또크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난 녀자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수욕장에 들릴수 있었어요.》

《어느 해수욕장말입니까?》
《시내 해수욕장이지요. 거기는 해수욕장이 하나뿐이예요. 저는 언제나 왼쪽으로 치우쳐 요트들이 있는 가까이에서 수영을 하군합니다.》
《그럼 약속이 되였습니다. 당신은 민족사회당원입니까?》
《아니예요. 저는 〈건강을 통해 행복에로〉라는 조직에 속해있어요.》
《그렇게 해도 될가요?》슈틀리쯔는 마그다의 몸매를 훑어보며 물었다.
《전달할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달하세요. 전 역으로 가겠어요.》
《역으로는 왜 가려고 합니까?》
《호텔은 자리가 다 찼어요.》
《어제밤 당신은 어디서 잤습니까?》
《와르샤와역에서 잤습니다.》
《여기에 얼마동안 머물러있을 계획입니까?》
《이틀동안 있겠어요. 출장증명서가 이틀로 되여있으니까요. 슬라브야만들의 고대수도를 보고싶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골목길로 갑시다. 저기 내 차가 있습니다.》
마그다는 에쓰에쓰번호가 달린 승용차를 보자 낯빛이 긴장해지고 아래다리가 팽팽해졌다. 그는 나서자란지 한해밖에 안되는 우량종 말처럼 구두뒤축으로 때깍때깍 포장도로를 쪼으며 잰걸음을 놓았다.
(때깍때깍 울리는 저 소리는 귀에 익은 소리다.) 슈틀리쯔는 무엇인가 오래전에 있은 일이, 그러면서도 자기에게서 매우 귀중한것이 생각났다. 그는 자기 생활에서 무엇인가 특별히 중요한것이, 혹시 가장 중요한것일수도 있는 그 무엇이 저 소리와 련결되여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자동차에 앉아 마그다에게 반대쪽 문을 열어주어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는동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힐수 없었다. 그다음에는 시간이 없었다. 마그다가 긴장한 낯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던것이다.
《이건 체포인가요?》
그 녀자의 목소리는 놀란 사람의 어조같아보였으나 그속에는 나약성이 아니라 굳센 의지를 보여주는 그 무엇이 울리였다.

《먼저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에 체포하지요.》하고 말하며 슈틀리쯔는 발동을 걸었다. 《회관에 가면 나와 자고온듯이 행동하십시오. 고상한 행동은 의심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방탕한 사람들은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인양 하고있지만 사실은 다른 녀자들을 끼고 자는 사람들만 믿는답니다.》
《여보세요, 볼젠씨. 당신은 무엇때문에 저와 이런 놀음을 노는거예요?》
《나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그 누구와 연극을 놀아본적이 없습니다. 연극이 나의 생활로 되였으니까요. 연극을 놀아야 리로울것이 전혀 없지요. 기억력을 파괴할뿐입니다. 연극은 거짓을 전제로 하고있으니까요. 뜻하지 않게 물웅뎅이에 주저앉지 않으려면 이 불가피한 거짓말을 전부 기억속에 잡아두어야 하겠으니 왜 기억력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난 당신에게 연극을 놀자고 권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열다섯살이상은 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스물여덟살이예요.》
《그러니까 열세살이상이로구만. 하지만 나와 함께 갑시다. 나는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본의아니게 실수할것 같은 생각만 듭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마그다는 라지오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질서를 어기고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안마를 할줄 압니까?》
《뭐라구요?!》마그다는 또 놀라와했다.
《안마를 할줄 아는가말입니다.》
《그거야 내 사업을 하기보다야 쉽지요.》
《그럼 내 목과 뒤통수를 좀 안마해주십시오. 혈압이 오릅니다.》
그는 혈압이 정상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동지의 손길을 느껴보는것이 필요했다. 몹시 불안하고 절망에 사로잡혀있는 순간 누가 옆에 앉아 그렇게 요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건드리고 목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의 온기는 차츰 자기것으로 변하고 고독한 감정은 사라지고 몹시 슬픈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자기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아무런 특색없는 몽롱한 주위환경을 멍하니 바라볼것이 아니라 그것을 리해할수 있다면 자기를 사색에 잠기게

할수 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것이다.

(아, 과연 녀자의 애무가 나에게 있어서 단지 행동의 자극물로만 된단말인가?) 슈틀리쯔는 놀랐다. (정말 그 아름답고 평범한 인간의 정다운 감정이 나에게서 빠져 달아나버렸단말인가? 정말 흘러간 공작의 나날이 나의 온 존재를 직업에 복종시켜버렸는가?)

녀자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그의 몸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가속답판에서 발을 뗐다. 명령을 받은듯 즉시 눈이 감겨졌던것이다. 그는 손으로 몹시 아프게 얼굴을 문질렀다. 이것은 그가 눈을 감은 한순간뿐이였다. 슈틀리쯔는 마그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선생이 아니라 간호원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그다의 얼굴은 다르게 보였다. 그의 표정은 더 부드러워졌다. 눈가장자리의 엷은 주름살도 펴지고 량볼에 생긴 보조개도 슈틀리쯔의 말을 주의깊게 듣던 때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마그다는 마음 아름다운 녀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밀어던지며 그렇게 보듯이 머리를 돌리지 않고 줄곧 앞을 주시하였었다.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 가치를 의식하는것이 결코 거만한것이 아니다.)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하였다. (반대로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 힘을 믿지 않으며 자기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겉으로만 겸손하게 보일뿐이다. 정말 자기를 불필요한 존재로, 능력없는 사람으로, 아름답지 않은 인간으로 의식하면 그것은 인간의 열정을 꺾어뜨리고 부자연스러운것으로 만들며 마침내는 감정을 안으로 몰아넣어 겉으로 나타낼수 없게 하는 수줍음을 낳게 되는것이다.)

《마그다, 당신은 거울을 들여다보기 좋아합니까?》

《화장을 해야 할 때만 봅니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기를 매우 정확히 의식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끝날것 같습니까?》

《패배로 끝날것 같애요.》

《인차 패할것 같습니까?》

《일격에 망하고말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서말입니까?》

《히틀러에 의하여 멸시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도 단합시켜줄만한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치즘에 복종되여있는 모든것은

파국적인 운명에 처해있다고 봐요.》
《아, 당신은 정말 철학박사입니다.》슈틀리쯔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런즉 일격에 망하고말거란말이지요?》
《그럼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세요?》마그다는 갑자기 축축히 땀이 내밴 목을 안마하던것을 중지하였다. 《당신에게 나와 달리 생각할 근거가 있어요?》
《있습니다.》슈틀리쯔의 대답이였다.
슈틀리쯔는 차를 군인회관옆에 세우고 마그다가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아직도 해가 있었으나 작열된 하늘색을 보고 저녁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무더운 날 하늘은 본래의 맑고 푸른 색갈이 뜨거운 열에 작열되여 희끄무레한 연기색으로 보이는것이다.
《제가 당신을 여기서 뭐라고 불러야 할가요?》마그다는 슈틀리쯔가 자동차문을 잠그는 동안 그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물었다. 멀리서 보면 보드라운 금빛으로 보이는 녀자의 머리칼이 그의 볼을 스쳤다.
《막스라고 부르십시오.》
그는 문을 열고 어둑시그레한 회관에 들어서서 마그다가 따라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고있었다. 여기 접대책임자는 슈틀리쯔의 얼굴을 모르고있어 증명서를 요구했다. 슈틀리쯔가 에쓰디패쪽을 보여주자 그는 당장에 굽석거리며 홀로 앞서 달려갔다. 접대책임자는 묵은 먼지냄새가 풍기는 무거운 창가림천을 친 창문결의 작은 상에 슈틀리쯔와 마그다를 앉히고 차림표를 가져다주었다.
《토끼고기를 맛보시오. 지금은 토끼고기가 괜찮은것으로 취급되고있습니다. 헌데 맥주는 주정이 없습니다.》 접대책임자는 어설프게 미소지었다. 자기 사람들속에서는 부족한것이 많고 어려운 생활형편을 비난할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에게 표쪽지가 있으면 제가 진짜 라인맥주를 얼마간 보장해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당신들한테 보통술은 없소?》슈틀리쯔가 물었다.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가져다주시오.》슈틀리쯔는 접대책임자에게 가죽을 씌운 으리으리한 차림표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거기에는 토끼고기와 물고기, 두가지 료리이름이 적힌 광택나는 종이가 끼워있었다.
(옆에 녀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슈틀리쯔는 또다시 생각을 굴리였다. (조국에서는 내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는것을 알고 녀

자를 보내주었는가? 아니면 그저 우연일가? 다행히 나는 지금 아무런 걱정없이 믿을수 있는 녀자를 옆에 앉혀놓고 바라볼수 있다.)

《나도 역시 하루에 열번도나마 모든것이 일격에 끝장나고말것이라고 생각해보군합니다.》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그리고는 열번도나마 그것을 부인하군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 확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쓰고있어요.》 마그다는 조심스럽게 휑뎅그렁한 홀을 둘러보았다.

《진실이 아닙니다.》 슈틀리쯔는 담배를 꺼내여 붙여물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이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시간에 다섯번은 자기 견해를 바꾸고있습니다. 견해, 이것은 신념입니다. 다시말하여 견해의 변종이지요.》 하고 슈틀리쯔는 설명하였다. 《헌데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집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머리속에 우유부단한 견해를 가지도록 가르치고있단말입니다. 기본결함은 사람을 믿지 않는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거짓말을 배워왔고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또하나의 도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사람들은 변경시킨 견해를 드러내는것을 뢰롱(아메리카유라기의 공룡의 일종)으로 변신되는것만큼 무서워하고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 부르죠아철학을 규정하는 기본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말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자신을 숨기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똑같이 생각하고 주위환경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바로 여기에 말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였다고 하면 나는 그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고 배격하고 받아들이는 권리, 즉 견해를 변경시킬 권리를 잃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성에서 사람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우주에 대한 견해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마그다는 음울한 기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 녀자는 슈틀리쯔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첫마디부터 그것을 부정하고싶었으나 어떻게 부정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슈틀리쯔는 마그다에게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는것을 느꼈다.

《당신은 무례한 사람처럼 말하고있어요.》 마그다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당신과는 론쟁하지 말아야겠어요.》

《론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하고 슈틀리쯔는 권고했다. 《어쨌든 내가 론쟁에서 이기겠으니까요.》
《당신은 참 이상한분이예요.》
《당신은 아마 당신에게 반해버린 남자들과 당신에게 순종하는 남자들속에 둘러싸여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순종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첫시기에는 녀자들에게 마음에 들수 있어도 후에는 싫증나게 되는것입니다. 녀자자체가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굽신거리는 남자는 조만간에 녀자에게 불쾌하게 느껴지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들에서 티각태각하는 최고의 비밀이 있는것 같습니다.》
접대책임자가 빵, 빠다, 순대 그리고 술병을 가져왔다.
《쉬! 당신들에게만 주는겁니다. 농촌에서 가져온건데 진짜입니다.》
슈틀리쯔는 단번에 술을 나누어부었다. 마그다는 자기 손바닥을 슈틀리쯔의 손에 얹었다. 그는 작은 종처럼 생긴 술잔의 웃모서리를 잡았다.
《잠간만, 단번에 들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음식부터 드세요.》하고 마그다는 말하였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있습니다. 마그다, 내가 먼저 마실테니 당신은 음식부터 드십시오. 좋습니까?》
마그다는 슈틀리쯔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마에서 머리칼을 쓸었다. 슈틀리쯔에게는 지금 그 눈이 숯처럼 보이는것이 아니라 북쪽 어느곳에 있는 날씬한 어린 봇나무숲속의 호수처럼 그윽해보였다.
(그러다가 부대들의 이동이 쁘리빠뜨진펄쪽에서부터 시작된것이 아니면 어찌겠는가?) 슈틀리쯔는 멜리니크를 먹여살리고있는 게스타포저택에서 전화직일을 서고있는 젊은 하사관의 얼굴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만일 이것이 술책이라면 어찌겠는가? 나의 론리적인 사색은 확신적이였다. 나를 믿는다면 믿을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히틀러는 론리를 헌신짝처럼 집어던질수 있다. 그의 행동과 사색, 지향에는 론리가 없다. 그것은 인식할수 없는것이다. 히틀러는 무엇이나 제멋대로 지어내고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론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군대와 외교관들, 나치스당과 게스타포가 제멋대로 하고있는 그의 행동을 도와주고있다. 군부는 얼마전에 승리를 달성한 후 자기

를 낮은 지위에 놓으려고 하지 않고있다. 군부는 자기가 노리고있는 것을 달성하려고 할것이다. 히틀러도 군부와는 엇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군부는 지금 에쓰에쓰나 나치스당과 똑같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위험한것이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위험한것이다. 군부는 도이췰란드에서 항시적인 개념이며 나머지것들은 모두 일시적인것들이다.)

《맛있습니까?》 슈틀리쯔가 물었다.

마그다는 싱긋이 웃었다. 지금 그 웃음은 다른것이였다. 그속에는 무엇인가 신임할수 있고 마그다가 면밀히 감추고있는것이 담겨져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료리점에서 접대원으로 일했는데 어렸을적에 나는 아버지에게 다니군하였어요. 주인은 가족들중에서 한사람에게 한그릇을 주는것만은 허락했댔어요. 이것은 1929년의 공황때 있은 일이예요. 기억나세요?》

슈틀리쯔는 머리를 끄덕이고 또 한모금 마시였다. 술은 사탕무우처럼 달콤했다.

《료리사는 참 좋은 사람이였어요. 그는 남새국에 몰래 고기를 섞어주군했어요. 내가 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면 아버지는 잠시 시간을 내여 나한테 달려와서 〈맛있니?〉하고 묻군했답니다. 나는 주인이 내 국그릇에서 고기를 볼가봐 매우 겁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무서워하는것을 알고 내가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늘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는 이것저것 물으면서 나를 안심시켰는데 나는 후에 그것도 얼마전에야 그것을 대체로 깨닫게 되였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아주 사랑해요.》

《그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머니는?》

《살아계셔요.》

《어머니를 더 사랑하겠지요.》

《아니예요. 나는 어머니를 의무감으로부터 사랑해요. 나의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전혀 리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문에 아버지는 몹시 고통을 겪었어요.》

《내가 당신을 로스또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지요.》 슈틀리쯔는 식탁에 도청기가 설치되여있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눈짓으로 마그다에게 무엇때문에 자기가 어리석고 유치한, 그러면서도 믿음에 찬 질문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그다는 잠시 흐려진 눈길로 슈틀리쯔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얼마후 다시금 호수같이 그윽한 눈이 빛났다.

《그건 저의 동무였어요. 막스, 그는 아주 매력있는 사람이면서도 미련한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소개시키지 않았던거예요. 그래서말이예요.》 마그다는 약간 말을 늦추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똑똑한 녀자로구나. 그리고 민첩하고… 지금 내가 혼자 있지 않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슈틀리쯔는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마그다의 얼굴에서 오랜 세월 늘 자기 마음속에 유일하게 살아온 그 녀자의 얼굴과 비슷한것이 얼핏 스쳐가는것을 느끼고 몸을 떨었다.

악사들이 의자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무대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악보대를 옮겨놓고 케스에서 악기들을 꺼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가. 쾌활한 사람들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짓눌려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하다니.)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히틀러가 손을 뻗친 모든 나라들에서는 료리점들에 악사들이 교체되여 조용한 늙은이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전에는 젊은이들이 있었던것이다.)

바이올린수가 활대를 휘두르자 악사들이 《니논, 오 나의 니논. 밝은 해빛은 너 하나를 위한것》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노래는 얀 끼뿌라가 잘 불렀어요.》 마그다가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저속하게 연주하는군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것을 연주하고있습니다.》

《저에게 술을 부어주세요. 조금만 부어주세요.》

《조금이라는건 량이 각이하지요.》 슈틀리쯔는 빙그레 웃었다.

《얼마나 요구되는지 눈으로 가리키십시오.》

이때 디쯔와 오멜첸꼬 그리고 그의 처가 회관으로 들어왔다.

디쯔는 곧 슈틀리쯔를 띄여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오멜첸꼬

도 허리굽혀 인사했다. 그러나 엘레나는 멍하니 홀을 휘둘러보면서 슈틀리쯔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무대옆의 미리 주문해놓은 상에 앉았다. 슈틀리쯔는 크게 울리는 디쯔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좌는 슬로벤스끄말과 도이췰란드말, 로씨야말을 섞어가며 엘레나에게 무엇인가 유쾌하게 말하고있었다. 슈틀리쯔는 오멜첸끄가 담배며 쵸콜레트를 날라오고있는 애젊은 녀자접대원에게 눈길을 던지는것을 엘레나가 눈치채고 디쯔의 억센 손을 건드리며 뭐라고 말하는것을 띄여보았다. 얼마후 그들은 춤을 추려고 일어섰다. 오멜첸끄가 디쯔의 등뒤에 왔을 때 디쯔는 슈틀리쯔에게 엘레나의 머리쪽으로 눈짓을 하며 눈을 끔뻑했다.
《정말 애교가 있고 인테리다운 사람이군요. 그렇지 않아요?》마그다는 디쯔의 눈짓을 띄여보고 슈틀리쯔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 그렇구말구요. 매력있고 좋은 사람이지요. 진짜 인테리입니다. 다른 장소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가요?》
《커피는 내가 있는 역에도 있습니다.》
《역으로 갑시다.》슈틀리쯔는 동의했다. 《나는 추운 역전에서 덜덜 떠는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반대로 물궈죽을 지경이예요.》마그다는 호—한숨을 내쉬였다. 《지금 역전은 몹시 무더워요.》
그러나 그들이 돈을 물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그들의 식탁으로 디쯔가 다가왔다.
《안녕하오.》슈틀리쯔가 말하였다. 《인사하오, 친구, 로스또크에서 온 잘 아는 녀자요.》
《디쯔라고 합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앉으세요.》마그다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슈틀리쯔는 이 녀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스스럼없이 인사를 나누는것을 보았다.
(마그다는 자기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고 슈틀리쯔는 확신했다. (이 녀자는 꾸며진 경력대로 살아가고있다. 집에 있다면 아마 달리 행동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녀자의 말속에는 디쯔와 같은 사람들이 느낄수 없는 응당한 멸시의 뜻이 숨어있다.)
《우리 고장에 오래 계시렵니까?》하고 디쯔는 물었다.

《그럴수 없어요.》마그다의 대답이였다.
《숙소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지금 여기는 호텔조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자기 성격상 기질을 시험해보고있어요.》마그다는 알릴듯말듯 미소를 지었다. 《조건이 어려울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디쯔는 녀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슈틀리쯔에게는 디쯔의 얼굴에 피끗 떠오른 웃음이 어딘가 약간 당황해하는듯이 보였다.
《뭘 좀 마시지 않겠소. 디쯔?》슈틀리쯔가 물었다.
《감사하오.》 디쯔가 대답했다. 《만일 당신의 매혹적인 녀동무가 용서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두마디만 이야기하고싶소.》
《아, 물론 그렇게 해드려야지요.》마그다가 말하였다. 《당신은 남자들의 특수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녀자들을 두려워하시는게로군요.》
디쯔는 슈틀리쯔를 데리고 술매대쪽으로 가서 뭘 마시겠는가 묻지도 않고 술 두몫을 주문했다. 보건대 게스타포의 자료를 통하여 중좌 슈틀리쯔가 료정에서 첩자들과 상면할 때 술을, 그것도 80도짜리 와니스술을 즐겨마신다는것을 알고있는것 같았다.
《내가 어디서 당신의 녀동무를 본것 같은데 어디서 보았을것 같소?》하고 디쯔는 물었다.
《로스또크에서 보았겠지.》
《아니요, 베를린에서 보았소.》
《때때로 나다니기도 하니까 그럴수도 있겠지.》
《나를 혼돈시키지 말라구. 슈틀리쯔, 저 녀자는 수도에서 살고있소. 나는 아직도 베를린녀자와 지방녀자를 분간할줄 아오.》
슈틀리쯔는 갑자기 무서운 불안에 휩싸였다.
《오, 당신은 매우 예리한 탐정이요.》슈틀리쯔는 마그다를 이 회관으로 데리고온 자신을 속으로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디쯔가 슈틀리쯔에게 이런 질문을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오늘 아침 그는 련락군관으로부터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의 사진을 받았던것이다.
…뮬러는 비굴하게도 하이드리히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국안전총국의 특별비행기를 간청하였다. 외부감시조에서 이 《너절한 귀족년》을 놓쳐버렸기때문이였다. 후고 슐쯔가 인그리드를 자기 차에 태워

다른데로 싣고감으로써 밀정들이 대기하고있던 베를린 동부역에 이 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것이다. 후고는 인그리드가 비행기표를 잃어버렸다고 하기에 프랑크 푸르트까지 자동차에 태우고가서 지나가는 첫 급행렬차에 타도록 도와주었다고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들은 비행기표를 인그리드가 글을 발표하고있는 잡지사이에 끼워 케페니크로 가는 도중 어느 한 골목길에 몰래 던져버렸다. 이 꾸며낸 이야기에서 《잃어버렸다》는것을 내놓고는 모든것이 사실이였다. 그러나 게스타포두목 뮬러는 외부감시조가 자기 국에 속해있는 조건에서 이 감시조가 보덴 그라우제를 놓쳐버린것을 인정할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나치스운동이 시작된 초기 촌스러운 행동과 지나친 횡포성, 우유부단한 태도로 하여 달가와하지 않는 하이드리흐를 자기, 뮬러를 희생시켜서까지 춰주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헌데 뮬러는 자기 사람들이 귀족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를 《이끌고다닌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것이 로출되게 할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는 다만 디쯔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일렀을뿐이였다. 뮬러는 하이드리흐처럼 《구두묘사》리론을 믿지 않았다. 그는 다만 사진과 밀정들의 구체적인 정보자료만을 믿을뿐이였다.…

두시간전 련락장교가 디쯔에게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의 사진을 여덟장씩이나 전해주었다. 머리칼이 검고 곱게 생긴 녀자였다. 그러나 슈틀리쯔와 함께 앉아있는 녀자는 금발머리였다. 다만 길쑴한 얼굴과 눈만이 사진과 비슷하였다.

《여보게 디쯔, 내 처녀는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두오. 슬라브시인의 녀편네가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소.》

《당신 정신나가지 않았소.》디쯔가 이렇게 대답하자 슈틀리쯔는 그의 목소리에서 자기가 그처럼 듣고싶던것을 포착했다. 《나는 우리 리익의 견지에서 저 녀자에게 관심을 가지고있소.》

《그 녀자는 그것을 만족시켜줄거요.》슈틀리쯔는 신중해진 안색으로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디쯔의 말에 양념을 쳤다. 《흥미있는 구상이요. 디쯔, 아주 흥미있는 구상이요.…》

《그럼 당신이 오멜첸꼬를 자기 상으로 초청하오. 오멜첸꼬 하나만 말이요.》하고 디쯔는 간청했다. 《지금말이요.》

《나는 오늘중으로 관계를 맺어볼가하오. 그 녀자는 우리에게 자못 흥미가 없지 않을거요. 오멜첸꼬는 본래 속이 엉큼한 사람이요. 의

기소침한 그를 크게 믿지 마오. 우리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있소.》

《이 모든것을 래일 하면 안되겠소?》

《오래 걸릴것도 없소. 나는 벌써 세시간째 그들과 술을 마시고있소. 그리고 래일은 매우 바쁜 날이요. 혹시 당신이 로스또크에서 온 금발머리녀자와 뭘 계획하고있는게 아니요?》

디쯔는 환하게 웃으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슈틀리쯔는 디쯔가 이 말을 할 때 얼굴과 커다란 눈에 무엇인가 번뜩이는것을 읽고 자기 생각이 옳았다는것을 다시한번 굳게 확신했다.

《좋소, 오멜첸꼬를 나한테로 보내오. 그런데 당신들은 자리를 뜰터인데 그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소? 아마 여기서 떠나야겠지? 그렇지 않소?》

《우린 한시간후에 돌아오겠소. 기껏해야 한시간이요.》

슈틀리쯔는 한숨을 내쉬였다.

《디쯔, 휴식을 좀 하오. 너무 무리해선 안되오. 당신은 저녁시간마저 일에 몰두하는구만. 이건 물론 좋은 일이요. 허나 몸져 누우면 당신이 무슨 쓸모가 있겠소? 도이췰란드제국은 튼튼한 일군들을 귀중히 여기고있소.》

《괜찮소.》디쯔는 슈틀리쯔를 안심시켰다. 그는 또 웃으며 얼굴표정을 바꾸었다. 《나는 자기에게 힘이 충분하다고 느끼고있소.》

오멜첸꼬는 슈틀리쯔의 상으로 옮겨앉아 사양하지 않고 술잔을 기울이였다. 그리고는 즉시 시와 회화에 대하여, 서로 배제하는 자기들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리해하기 힘든 말로 멋을 부리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마그다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것이 확연히 눈에 띄였다.

슈틀리쯔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첩하고 랭정하게 생각을 더듬었다. 술에 취해 지껄이는 오멜첸꼬의 말이 방해로 되지 않았다. 드디여 그는 결심을 내렸다.

《마그다, 여기서 나를 기다리십시오.》하고 슈틀리쯔는 말하였다. 《내가 접대책임자에게 당신들이 내가 부탁해서 지체하고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돌봐드리겠습니다.》오멜첸꼬가 말하였다. 《허락하신다면 춤도 추지요.》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 더 좋아요.》 마그다는 슈틀리쯔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하였다. 슈틀리쯔는 눈을 약간 내려감으며 마그다를 안심시키고는 앞으로 몸을 수긋하고 급히 문께로 나갔다. 그는 자기 구상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달려있는 그 시간에 대하여 매우 촉박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차에 올라 마비가 온듯 싸늘한 운전대를 잡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슈틀리쯔는 디쯔가 지금 엘레나와 함께 어디에 가있을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실수할수 없었다. 술을 마실 때 디쯔의 얼굴표정에는 참을수 없는 정욕이 넘쳐있었다.

(바보, 그는 우리가 자기와 똑같은 일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고 슈틀리쯔는 판단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나를 대상했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론리와 지적인 능력에 맞게 모든것을 판단하고있다. 그는 물론 엘레나를 흡수할수 있을것이다. 혹시 첩보망을 확장하였다고 칭찬을 받을는지는 몰라도 별로 큰 수확물은 못된다. 그러나 내 판단이 정확하고 디쯔가 자기 남편을 매우 사랑하지 않는 이 계집을 이불속에 끌어들였다면 그는 나의 노복으로 될것이다. 외국녀자와 관계를 가진데 대하여서는 당장 재판이 적용되는것이다. 내가 결심한것을 설명한다면 마그다에 대하여 묻던 너의 가슴싸늘한 질문과 너의 저주로운 그 눈초리가 아무리 좋지 못한것이라 해도 두려운것이 없다. 그리고 디쯔, 가까운 장래에 너는 누구보다 나에게 필요하게 될것이다.)

슈틀리쯔는 디쯔가 엘레나를 어디로 끌고갔을가 하는것을 판단해야 했다. 빠츨린스끼 슬라브꼽스끼거리에 있는 게스타포 아지트들은 반데라와 멜리니크의 사람들로 차있다. 조직적인 문제들은 크라꼬브 게스타포에서 결정되였다.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은 거기에 얼굴도 들이밀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날 슈틀리쯔가 디쯔에게 바벨리맞은켠에 있는 장교려관이 믿음직한가고 묻자 그는 이 려관이 제일 믿음직한 곳이라고 대답하였었다. 외부사람들은 누구도 거기에 들어올 권한이 없다는것이였다. 다만 게스타포성원들의 동행하에서만 들어갈수 있었다.

슈틀리쯔는 라이타로 불을 붙여 천천히 담배를 피우고 려관으로 향하였다.

그는 손으로 하품을 가리우며 방심한투로 문지기에게 물었다.

《디쯔중좌가 벌써 자기 방에 와있소?》

《그는 이십분전에 왔는데 반시간동안 일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슈틀리쯔씨.》 문지기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전화로 불러줄가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하오. 내가 자기 방에서 그를 기다리지.》

슈틀리쯔는 주머니를 툭툭 어루만져보고 얼굴색을 흐리며 생각을 집중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주머니를 뒤져보고 분한듯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냈다.

《제길할거, 열쇠를 사무실에 두고왔구만.… 당신에게 공동열쇠가 없소?》

《예, 물론 있습니다.》

《그걸 잠간만 좀 주오.》

《제가 문을 열어주지요, 중좌님…》

《열쇠를 주시오.》 하고 슈틀리쯔는 곱씹었다. 《초소를 떠나서는 안되지. 나도 문을 열줄 아오.》

그들의 려관에는 특수자물쇠가 있었다. 안쪽으로 열쇠구멍대신에 단추가 있었다. 안에서 단추를 누르면 문이 잠겨지고 밖에서는 열쇠로 문을 열게 되여있었다.

슈틀리쯔는 디쯔가 들어있는 호실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였다. 라지오를 틀어놓았는데 프랑스의 협주곡이 울려나왔다.

(협주곡 제3번인것 같다.) 하고 슈틀리쯔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며 공동열쇠로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군인숙소들에는 반드시 이런 종합열쇠를 사용하게 되여있었다. 그는 발끝으로 조용히 컴컴한 작은 현관방에 들어갔다. 방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슈틀리쯔는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디쯔가 널직한 쏘파에서 후닥닥 일어났다. 슈틀리쯔에게는 그가 지금 별로 풀기없고 양기가 없어보였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언제나 절도있어보이던 그였다. 엘레나는 서서히 하불을 몸에 끌어당겼다. 디쯔는 현관방으로 뛰여나왔다. 그의 얼굴은 숯불을 뒤집어쓴듯 활딱 붉어졌다.

《참 미안하게 됐소.》 하고 슈틀리쯔는 말하였다. 《저기서 오멜첸꼬가 히스테리발작을 일으키고있어서…》

《슈틀리쯔, 내 말을 좀 듣소.》 디쯔는 볼을 문지르며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여보, 이건 무슨 잠꼬대같은 소리요.》

슈틀리쯔는 그의 어깨를 다독거려주었다.

《일을 계속 보오. 그리고 인차 돌아오도록 하오.》

《슈틀리쯔, 당신은 주머니에 뭐가 있소? 사진을 찍지 않았소? 여보, 제발 비렬한짓은 하지 말아주오.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요…》
《빨리 일어나 끝내도록 하오.》 하고 슈틀리쯔는 곱씹었다. 《그리고 인차 돌아오오. 후에 이야기해보기요. 좋소?》
《잠간만, 나를 좀 리해하여주오.》 하고 디쯔가 중얼거렸으나 슈틀리쯔는 들은척도 안하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는 모진 피로를 느끼며 오래동안 운전대에 앉아있었다. 그는 싸움을 걸고 1회전에서 적수를 꺼꾸러뜨렸다. 적은 지금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분별없이 날뛸것이다.
(아니다.) 하고 슈틀리쯔는 자기 생각을 부정했다. (자기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다. 함께 살고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자기처럼 생각한다면 실수할수 있고 모든 일을 망칠수 있는것이다. 아니다, 그는 지금 납작하게 되고말았다. 그는 이전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될것이다. 내가 혼자뿐이였고 증인이 없었다는것으로 자기를 위안할것이며 엘레나를 불러 묻는다 해도 로씨야반종인 이 우크라이나녀자의 말에 누구도 주의를 돌리지 않을뿐만아니라 그를 믿지도 않을것이라고 자기를 설득시키려 할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그의 지각표면에 떠오르는것이지 속은 이미 부러진 존재다. 그는 자기에게서 이런 생각을 몰아던지려고 할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가 나를 고맙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에 직면한 피검자처럼, 피검자들도 역시 자기 예심원들에게 굽신거리며 그들을 믿기 시작하는것이다.)
…회관으로 돌아온 슈틀리쯔는 오멜첸꼬에게 긴급한 일이 제기되여 자리를 떠야 하겠다고 하면서 디쯔씨와 엘레나가 곧 뒤따라올것이라고 말하였다. 엘레나가 도시의 야경을 구경하고싶어한다고 일렀다.
《갑시다. 마그다.》 슈틀리쯔는 손을 내밀었다. 《갑시다. 귀여운 사람.》
그는 마그다를 차에 태워 오래동안 시내를 돌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는 벌써 거리를 돌면서 마음속의 안정을 느꼈다. 그것은 옆에 마그다가 앉아있고 이젠 디쯔가 그를 보고 저 녀자는 누구인가, 어느 혈통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자주 려행하는가 하면서 물을수

없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물론 이런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디쯔가 상급에 제기하여 자기자신이 이 녀자가 누구이며 어느 혈통이며 어디서 무엇때문에 왔는가 하는것을 밝혀내겠다는 승인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그는 밝혀낼것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위슬라강기슭에서 슈틀리쯔는 차를 멈춰세운 다음 운전대에 턱을 기대고 고르롭지 못한 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한동안 지나서 머리로 강물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물을 좀 보십시오. 별들이 얼마나 황홀하게 비치고있습니까. 막 헤염치고있는것 같습니다.》

(나는 이 녀자에게 식사를 보장해주어야 했다.) 슈틀리쯔는 자기자신과 론쟁을 계속하듯 부지중 이렇게 생각했다. 계속하고싶지도 않은 이 론쟁을… (바로 그래서 내가 이 녀자를 거기로 데려갔다. 바로 그래서.)

그는 자기 변명의 이 말을 하기전에 속에 품고있던 다른 말들을 눌러버리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혼자서 되뇌였다.

(너는 절망에 사로잡혀 이 녀자를 거기로 데려갔었다. 그래서 데리고갔어. 막씸, 이 녀자는 너에게 있어서 태줄과도 같다. 이 녀자는 련락원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서워하고 몸부림치고있다. 너는 자기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있지. 너는 마그다가 오기전까지 계속 무서움에 사로잡혀있었지? 이 녀자가 무슨 마그다인가?! 이 녀자는 그 어떤 마그다도 아니다. 이젠 더이상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것은 지나치게 위험한것이다. 정신병자병원에서 죽을수도 있을것이다.)

마치 그의 생각을 알아맞힌듯 마그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등을 돌려대세요. 제가 당신의 목을 잘 안마해드리겠어요. 나의 불쌍한 이…》

마그다가 슈틀리쯔에게 전해준 본부의 암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나흐티겔〉테로분자들의 활동을 분산시킬 가능성을 찾아보라. 오베를렌더와 게스타포사이의 호상관계를 세밀히 살펴보라. 현지정황에 맞게 〈나흐티겔〉을 반대하는 대책을 취할수 있다. 우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아브웨르와 에쓰디사이에는 〈나흐티겔〉의 임무

와 관련하여 견해상 차이가 존재하고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있다. 그러나 에쓰디가 어떤 문제에서나 또 그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도 자기 권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추측할수 있다. 에쓰디와 민족사회당 외사부성원들과의 호상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라. 알렉스.》

《에쓰에쓰소장 쉘렌베르그 앞.

극비.

오멜첸꼬로부터 내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나흐티겔〉지휘성원들은 이민들에게 속해있는 우크라이나땅에서 징벌과 재판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있다. 이것은 징벌권은 오직 도이췰란드정권당국에만 있다고 강조한 도이췰란드인민의 위대한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리론과 모순되므로 활동방향을 요함. 에쓰에쓰중좌 슈틀리쯔.》

《슈틀리쯔 앞.

읽고 소각할것.

앞으로 특별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흐티겔〉을 반대하는 그 어떤 행동을 취하는것을 엄금한다. 또다시 조성된 이와 같은 정황과 관련하여 민족사회당 외사부와 동부지역성관리들의 립장을 통보하라.

징벌권을 가지려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의 의도가 오베를렌더의 발기인가 아니면 그가 민족사회당의 해당 기구와 협의하여 행동하는것인가를 밝혀내라.

쉘렌베르그.》

《에쓰에쓰소장 쉘렌베르그 앞.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오베를렌더는 아브웨르대좌 라후젠과 항시적으로 접촉하고있다. 그가 게스타포의 디쯔, 동부지역성의 포흐트와 련계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없다.

에쓰에쓰중좌 슈틀리쯔.》

《슈틀리쯔 앞.

읽고 소각할것.

이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라. 자기를 독자적인 성원으로 보려고 하는 오베를렌더의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통보하라. 여기에 대한 해당한 지시가 없이 그 어떤 행동도 금지한다.

쉘렌베르그.》

《알렉스 앞. 독자성을 소유하며 제국안전총국의 승인이 없이 징벌권을 가지려는 〈나흐티겔〉책임자 오베를렌더의 요구를 세밀히 연

구하라는 쉘렌베르그의 과업을 받았다. 그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행동도 금지되여있다. 유쓰따쓰.》

《유쓰따쓰 앞. 쉘렌베르그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에쓰디의 면전에서 〈나흐티겔〉의 위신을 저락시키기 위한 가능한 대책을 취해보라. 알렉스.》

《에쓰에쓰소장 쉘렌베르그 앞.

극비.

내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중좌 디쯔(제국안전총국 제4국소속)는 멜리니크와 항시적으로 비밀접촉을 가지고있다. 디쯔를 통해 〈나흐티겔〉재향군인들의 의도를 정확히 밝혀낼수 있을것 같다. 내가 디쯔에게 합류할수 있겠는가?

에쓰에쓰중좌 슈틀리쯔.》

《슈틀리쯔 앞.

읽고 소각할것.

디쯔와의 공동사업을 포기하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라. 즉 사건을 주시하고 정상적으로 나에게 새로운 소식을 통보하라. 〈나흐티겔〉재향군인단체는 우리에게 충실한 테로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것을 기억해두라.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것은 특별검토대상으로 될것이다.

쉘렌베르그.》

간나 뻬로꼬뻬츄크 (4)

기술자들이 타고가는 2급렬차가 도이췰란드국경과 《지대》(프랑스의 강점지역을 이렇게 불렀다.)를 넘어섰을 때 회색양복 앞깃에 민족사회당 휘장을 단 키가 껑두룩한 사람이 차칸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건을 펼치고 습관적으로 하던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명령하였다.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왼쪽으로, 남자들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부인들은 나한테로 오시오.》

그는 큰소리로 성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역시 그렇게 거칠고 무뚝뚝한 소리였다. 그의 호명에 뒤이어 나지막한 대답이 끝나면 무거운

침묵이 깃들고 증기기관차의 칙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나는 하얀 증기뭉테기가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어린 시절 증기기관차가 증기를 내뿜으며 쏜살같이 달리는것을 보던 일이 생각났다.

이처럼 긴장하게 정적이 깃드는것은 도이췰란드사람이 작은 수첩에 무엇인가 속필로 깐깐히 적어넣으면서 호명자들의 명단에 오래동안 표식을 하고있기때문이였다. 간나는 그가 왜 이렇게 오래 쓰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듣고 무엇을 쓸게 있는가?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원래가 말이 긴 사람들이니까 그럴수도 있겠지.) 하고 간나는 자기를 위안했다.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도 《도이췰란드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여겨들으면 아득히 뻗어간 철길이 련상된다.》라고 쓰지 않았던가. 내가 몹시 겁을 먹고있으니까 그들의 말이 길어보이겠지. 내가 겁쟁이야. 나는 지금 무서운 환각속에 잠겨있다. 하지만 그 빠리에서 만난 관리는 어쨌든 친절한 사람이였어. 만일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써보낼테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소까지 주지 않았던가. 괜찮아, 다소 걱정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대신 아이들한테 인차 갈수 있으니까 일없어.)

첫 대렬편성을 하면서 신입대원들의 이름을 부르듯 기술자들을 호명하고나서 도이췰란드사람은 짐들을 들라고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다른 차를 타고 계속 가게 됩니다.》

려객들은 높다란 창문에 철창을 댄 난방화차로 옮겨탔다. 여기서 이들은 《사랑하는 직종에서의 창작사업》이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전혀 다른것이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쥐죽은듯한 정적이 깃들었다. 마치 커다란 비애의 눈물이 볼을 타고 서서히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간나를 마치 송아지새끼를 무리에서 떼내듯 다른 기술자들과 분리시켜 베를린근방의 작은 도시로 데려갔다. 그는 판자로 지은 림시건물의 자그마한 방에 들었다. 창문에는 철창도 없었고 세면장은 한낮의 더위에도 서늘한 복도 한끝에 있었다. 그리고 변소는 나무 한대 없는 먼지투성이의 마당 한옆에 있었다.

이 바라크에서 간나는 혼자서 살게 되였다. 열쇠를 주기전에 도이췰란드사람은 간나에게서 《아리아인들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외국사람과 관계하여 임신해선》안된다는 서약을 받아냈다. 간

나는 보그다노브의 편집부에 갔을 때처럼 문맥에 담겨진 내용을 파악하려면 소리내여 읽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적혀진 뜻을 리해할수 없었다.

간나에게 해가 잘 드는 커다란 창문이 달린 작은 방을 작업장으로 내주었다. 식사도 거기서 했다. 아침식사에는 커피잔에 사탕 한덩이를 넣어주고 빵쪼각과 얼마간의 과자를 주었다. 도이췰란드건축가들에게는 사탕 세덩이와 빠다, 치즈를 주었다. 점심식사때 간나는 묽은 남새국과 쏘스(양념의 일종)를 친 감자잡채를 먹었다.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는 고기를 주었다. 간나는 저녁식사만은 침실에서 할수 있었다. 저녁에는 사탕 두덩이와 빵을 주었다. 빠다는 하루건너 한번씩 주었다.

얼마 안가서 간나는 새띠를 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전의것은 허리가 줄어들어 맞지 않았던것이다. 간나에게 첫 과제로서 괴상하게 생긴 길다란 건물을 설계할데 대한 과업을 주던 설계실책임자 에쎈은 간나의 청을 듣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으로 시내외출증을 떼주고 15마르크에 해당한 공업상품을 살수 있는 파란 표딱지 두개를 가져다주었다.

《돈은 한달에 한번씩 받게 됩니다.》 하고 책임자 에쎈은 말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술자들을 위한 공업품구매권도 역시 한달에 한번씩 내줍니다. 식료품은 아마 당신에게 충분할겁니다. 그러니까 먹는데는 보충구매권이 필요없을테지요. 담배와 성냥구매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주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담배를 좋아하는것 같군요.》 간나는 그의 긴말이 끝나자 화제를 돌렸다.

《빠리에서 제가 아이들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무슨 아이들말입니까?》 에쎈은 놀라와했다. 《난 그런데 대하여서는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뽈…총독관할지역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여기로 오는데 동의했습니다. 빠리위수경무부의 한 관리가 제가 도이췰란드로 떠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빠리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젠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나는 당신의 일솜씨에 만족합니다. 나는 전쟁전부터 벌써 당신의 설계도면에 대하여 알고있었습니다. 설계가 흥미있었습

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맡긴 구조물들을 아주 쉽게 처리하고있습니다. 헌데 우리 에쓰에쓰건축설계실은 정교하고 향좌를 충분히 고려한 그런 방에 대하여 구상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든든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런 방들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합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할줄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향좌를 고려하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에쎈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랭소가 비껴갔다.

《도이췰란드제국의 적들을 소멸한 후 우리 함께 향좌를 고려해봅시다. 아마 당신에게 우리 설계도를 몇장 보여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쁘로꼬쁘츄크부인, 그래야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하는것을 깨달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빠리에서 답변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주간에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방은 어떻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밤이면 무섭게 덥습니다. 낮에 지붕이 한껏 달아오르니까요.》

《그럴테지요. 류례없이 무더운 6월입니다.

래일 내가 당신이 시내영화관에 갈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외국사람들이 갈수 있는 상영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가혹한 영화는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자주 눈이 부석부석 부어있습니다. 울어서 그런가요? 새 고장에 익숙될수 없는게지요?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당신은 될수록 빨리 새로운 조건에 익숙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리해관계에서도 맞을테니까요.》

…간나에게 정말 영화관출입증을 내주었다. 영화관에서 나온 간나는 잠든 도시의 작은 광장을 지나 수림과 잇닿은 가로수길로 꺾어들었다. 여기는 한적했다. 뒤짐을 지고 한가로이 좀더 앞으로 걸어나가면 《인공태양등》으로 만성감기를 치료한 뻬르니예의사의 물리치료실에서와 꼭같은 땅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을수 있었다.

(대지는 아침마다 태양에게 자기를 내맡기고 낮에는 태양을 자기품에 그러안는다. 그리고 밤이면 태양을 기다린다. 순 정신적사랑은 바로 이런것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간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문득 마비가 온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한데 어울린 한쌍의 커다란 눈이 수풀속에서 그를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은 겁먹은 아이들의 눈처럼 데룩거렸다.

《오, 너였니.》 간나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따뜻한 온기가 마음속에 젖어드는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나를 겁내지 말아라.》

염소는 옆으로 훌쩍 물러났으나 도망치지는 않았다.

《원, 저런. 너 바보가 아니냐?》

염소의 옆배가 이상하게 푸들푸들 떨렸다. 마치 흥분으로 흐느끼듯이… 간나는 염소의 옆배가 왜 그렇게 경련이 일듯 푸들거리는가 하는것을 알아차렸다. 길에서 서너걸음 떨어진 곳에 종다리가 가느다란 조그만 새끼염소가 서있었던것이다.

《아이, 요거 귀엽기두 해라.》 간나는 이렇게 속삭이며 불과 며칠전에 태여났을것 같은 새끼염소에게로 다가갔다.

작은 염소는 고양이새끼처럼 간나에게서 옆으로 홀짝 튕겨나서 굳어진듯 서버렸다. 그리고는 비로도천같이 보드라운 털이 포시시한 코등을 호물거리며 우유빛갈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간나는 갑자기 숲이 설레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제야 간나는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정적이 사실은 살아숨쉬고있으며 삶을 기뻐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티티새가 휘파람소리를 내는가 하면 가슴이 노란 메새들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예고 딱따구리가 기관총소리처럼 나무를 쪼았다.

(아, 아이들을 숲속으로 데리고다녔어야 할것이였다.) 간나는 방금전까지 새끼염소가 서있던 곳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지금은 거기서 풀대들이 바람에 설레였다. 이젠 벌써 파란 눈도 호물거리던 보드라운 코도 없다. (아이들을 동물원으로 데리고가서 맹수들을 홀린듯이 바라보는것을 옆에서 지켜보느라면 행복에 겨워 가슴이 죄여드는것 같을거야. 그리고 나는 더 재능있는 녀자로 될수 있을거구. 아이들의 행복만이 진실한 안정감을 줄수 있으며 이 길만이 창작에로의 참된 길이다. 내가 집에서 자기 일을 할수 있다면 나의 모든 구상은 썩 후에 실현되여도 일없을것이다. 나의 아이들이 그것을 실현하라지. 나에게서 참된 행복은 오직 무엇을 구상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무르익혀 와트만지에 순차적으로 옮기는데 있다. 아이들과 떨어져있으면 자기자신을 도적맞힌듯이 느끼게 된다.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도 가고 공원에 산보도 다니며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것도 구경하여야 한다.

어린애를 돌보는 할머니는 자기 생각만 하는 법이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모래성을 쌓느라고 애를 쓰건말건, 아이가 날아가는 새를 어

떻게 바라보건 놀라울것이 없는것이다. 늙은이들은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리해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생활의 본질은 갓난아이가 더 잘 감수하는것이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계를 더 협소하게 보며 자기자신을 도덕규범으로, 힘과 악에 의하여 생겨난 자기 공포로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간나는 나무그루에 앉아 눈을 감고 해를 향하여 얼굴을 쳐들었다. 부드럽고 따스한 해볕이 눈시울이며 이마며 입술을 애무하였다.

(이젠 적게 움직여야 하는가봐.) 하고 간나는 생각하였다. (이전에 내가 너무 움직이였어. 나는 이제야 해볕이 이렇게 정다운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늘 일을 서둘러만 왔다. 이것이 필요한것인가? 만일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오래 있지 않기로 하고 찾아온 방랑자들이라면 흘려보낸 일들에 쾌락을 느끼며 떠나갈 때를 기다리는것이 더 좋을수도 있겠지?)

간나는 소나무그루에 앉아 오래동안 해를 쳐다보고있었다.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였다. 여기 수림의 고요속에 잠겨있으니 이전의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자기가 지금 다른 녀자로 변한듯이 느껴졌다. 그런즉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될것이다. 어쨌든 이 세상에 정의가 있지 않은가. 그가 숲속에서 손에 총을 든 사람을 만난것이 아니라 갓 태여난 새끼염소를 만난것도 정의로운것이 아니였던가.

쿠르트 슈트람 (5)

《친애하는 친구,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만 할 운명에 처해있소.》

대좌는 조금도 억양을 높이지 않고 여전히 고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누구나 암에만 걸리지 않고 칼스바드에 가면 꼭 몸을 회복할수 있소. 아름답고 쾌활하고 똑똑한 녀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처에게 배반당한 행복한 사람으로 되여야 하오. 일단 우리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배기오. 우리는 수백만 우리 선조들의 실용주의적사유로 립증된

도이췰란드민족의 성격상 특성을 잊지 않고있소.》
쿠르트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입에 가래침이 생겨났다.
(이제 내가 넘어질수 있다.) 하고 쿠르트는 생각했다. (아니야, 아직 일러. 대좌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사뭇 손톱만 바라보고있다. 내가 넘어지면 일부러 그렇게 한것같이 보일수 있다. 줄기침이 터져나올 때 넘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인그리드에 대하여 회상해본것은 그와 같은 힘과 안정이 나에게 부족하기때문이였다. 나는 인그리드가 지금 나를 보아주고 내 입술과 량볼에 생긴 보조개에 대하여 한 말이 맞지 않는것이였다는것을 인정하기를 매우 바라고있다. 젠장, 이건 복수심에서 생겨난 욕망이 아닌가. 거짓을 증명하면서 그에게 복수하려 하다니… 복수심—이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저조한 품성이다.)
《당신보다 내가 더 정당하다는데 동의하오.》 대좌는 말을 이었다.
《동의하오. 아, 이거야말로 론리적이 아니요.》
(아니다. 결코 복수심이 인간에게서 가장 저조한 품성이 아니다. 이것이 귀족적인 품성이 아니라 통치자의 품성과 같은 야만적인것이라면 다른 문제이다. 이 품성은 자기가 멸시당한 대가로 통치자를 복수할 권리를 가진 노예의 의식속에 생겨난것이다. 아니다. 권리를 가진것이 아니였다. 노예는 통치자를 타승할수 있었을뿐아니라 타승해야만 했다. 노예는 자유를 쟁취해야 했다. 그런데 자유로운 인간은 복수할수 없다. 징벌할수는 있어도 복수할수는 없다.)
《도이췰란드사람은 사유와 행동의 숨은 론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있소.》 대좌는 고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쿠르트는 듣고싶거나 혹은 잠시 휴식할 필요가 있을 때 짬짬이 대좌의 말을 들었다. 그는 머리가 화끈 달아올랐다. 《도이췰란드사람은 이 땅우의 그 누구보다도 필연성의 근본원리를 잘 알고있소. 당신은 내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있구만. 괜한 짓이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는 실무적충고를 주고있소.》
(이자는 나에게 눈을 쳐들지 않고있다.) 쿠르트는 이제 곧 줄기침이 터질것이라는것을 알고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이자가 무엇인가 예감할줄 알고 나의 결심을 판단할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죽고말것이다.)
《나는 필연성의 근본원리에 대한 개념에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키고싶소. 슈트랍, 첫 구성요소는 감옥이요. 여기서는 모든것이

특수하오. 지어는 시간도 특수하오. 여기서는 시간이 당신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지고있소. 두번째 구성요소는 당신이 조만간에 자기의 특수성을 느끼게 되고 당신의 두뇌가 육체를 통솔할수 없게 될뿐아니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거요. 세번째 구성요소는 우리가 당신에게 그 어떤 어리석은짓을 못하게 하는것이요. 다시말하여 자살행위라든가 혹은 자기 육체를 불구로 만드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거란말이요. 네번째 구성요소를 놓고 말하면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당신에게서 오직 한가지 사실만을 요구하며 당신이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게 해주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는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감옥에서 자기가 무력하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이요. 이것이 특히 무서운것이요. 왜냐하면 당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상한 인간으로 생각하고있기때문이요. 정말 그럴수도 있소. 우리는 성격이 거치른 사람을 예심원으로 붙여 당신과 같은 적수를 굴복시켜 자기가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것을 깨닫게 할수 있소. 그런 예심원은 질문을 제기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답변을 받아낼수 있소. 그것이 꾸며낸 거짓말이라 해도 좋소. 우격다짐으로 대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줄거요. 알겠소? 감옥은 국가의 특별한 수단이고 심문은 특별한 형태의 대화요. 자유로운 인간인 당신은 감옥에서 특별한 형태의 구속을 느끼고있소. 당신은 이 구속에 동의하고있고 이 사실을 객관적인 실재로써 받아들이고있소. 그런데 사람은 태여날 때에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요. 이러한 차이는 당신을 부단히 괴롭히면서 종당에는 내부로부터 당신을 파괴하고말것이요.그리고 당신은 예심원의 말에서 그가 무엇을 암시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내려고 애쓸것이며 그 말에서 관대성과 동정심을 찾아보려고 할것이요. 당신이 여기에 반대되게 행동할수도 있소. 허나 당신은 감방으로 도로 끌리워갈 때 자기를 저주할것이며 혀바닥을 잘못 놀려 그런 말을 쏟아놓은 자신을 질책하게 될것이요. 다음날 아니면 며칠 지나 곧 당신은 다시 말하게 될것이요. 나는 당신이 줄줄이 늘어놓는 거짓말속에서 사소한것이나마 사실을 골라낼수 있소. 그러면 우리는 후에 당신이 나쁜짓을 하였다는것을 증명할것이요. 당신은 어차피 이에 동의하고야 말것이요. 그리고 처형당하기 한시간전에 나를 만나 위안을 받아보려고 할것이요. 내가 당신을 동정하고있을뿐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알려고 애써온 당신의 친구로 되였으니 안그렇게 되겠소. 사실 이것

은 나에게 매우 필요한것이요. 당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수십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와 류사한 오유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서 도움을 줄것이요.》

쿠르트는 기침이 터지려고 했다. 기침은 페안에 한데 뭉쳐 마치 축축히 젖은 뜨끈뜨끈한 싯누런 덩어리로 변한듯싶었다. 그것은 신음소리, 울부짖음소리, 가래와 함께 왈칵 입밖으로 터져나왔다. 쿠르트는 금시 숨이 넘어갈듯 경련으로 몸을 떨며 재게 기침을 깇었다. 그리고는 숨소리마저 끊고 몸을 비틀었다. 목구멍에서 가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몹시 무거워났다. 그리고 머리안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그는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그때에야 머리흰 대좌는 네모나고 발가우리한 자기 손톱에서 눈을 쳐들었다. 그는 태연한 눈길로 머리칼이 헝클어진 쿠르트의 뒤머리를 바라보며 기침소리가 멎기를 기다렸다. 한참 지나서 그는 수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쪼그리고앉아 풀을 먹인 손수건을 꺼내여 터갈라진 쿠르트의 입술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이전에 산에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페가 나빠졌소?》 쿠르트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기쁨을 느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인그리드 보덴 그라우제가 아니였다면 그때 당신은 벌써 죽었을거요, 불쌍한 슈트람씨.》

쿠르트는 또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하고있소.》 대좌는 아주 조용히 말하였다. 《당신은 〈옳소. 아니요.〉라고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하오.》

《그렇습니다.》

쿠르트가 말하였다.

《자, 그럼 기침을 하고 목청을 가다듬소.》 대좌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물을 부어줄테니 담화를 해보기요. 과거에 대하여, 다만 과거에 대해서만 말이요.》

쿠르트는 머리를 쳐들고 간청과 감격과 고통이 실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렇게 합시다.》

그는 또다시 허리를 꺾고 더 오래 기침을 했다.

간나 뻬로꼬뻬츄크 (5)

에쓰에쓰건축설계실장 게르버트 에쎈은 날이 갈수록 간나를 더 각근하게 대하였다. 그는 간나의 등뒤에 서서 그 녀자가 일하는것을 오래동안 지켜보기도 했다.

베를린에서 교육을 받고 쌘프런씨스꼬와 런던에서 3년간 실습을 거친 에쓰에쓰소좌 에쎈은 재능있는 건축가였다. 그는 고지크건축양식이 아닌 다른 모든 양식을 시비하는것을 애국주의적임무로 생각하고있는 동료들과 달리 절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고있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것을 섭취하여 우리 사업에 유용하게 써먹어야 한다.》는 그의 론리는 에쓰에쓰후방국에서 지지를 받았다.

폴중장은 리성적인 사람이였다. 모든 진정한 리성주의는 사유에서의 대담성을 전제로 하고있는것이다.

에쎈은 간나의 섬세하고 대담한 기법에 취해 그의 작업모습을 바라보면서 폴을 보고 로젠베르그에게 직속되여있는 인류학연구소의 그 누구와 인종문제에 대하여 의논해볼것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간나는 머리칼이 갈색이고 파란 눈알을 가졌다. 그리고 매력있는 몸매에 귀쪽이 삐죽하게 나왔다. 그의 어머니가 도이췰란드인종에 가까운 녀자인지 누가 알랴. 그렇다면 도이췰란드제국은 이 재능있는 녀성건축가를 진짜 도이췰란드건축가로 인정할수 있을것이다.

폴은 에쎈의 말을 듣고 도리를 저었다.

《게르버트, 당신은 무례한 말을 하고있소. 당신은 필요하다고 하여 이런 무례한 말을 마음대로 해도 일없는줄로 생각하지 마오. 그녀자를 우리 목적에 리용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거요. 그의 처지를 좀 개선해주어도 좋소. 식사량도 더 늘궈주오. 내가 그에게 작센(도이췰란드의 지명)을 돌아다닐수 있게 허락해주겠소. 우리 건축술을 보게 해야겠소. 그러나 그이상의것은 안되

오. 섭취하는것은 언제나 주는것보다 더 좋은것이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교신자로서가 아니라 후방일군으로서 말할수도 있소. 하지만 어찌겠소. 직업은 자기 법칙대로 사람을 완성시켜주는것이요.》
《건축은 예술입니다. 중장각하, 예술인들은 모든것을 허용하고 모든것을 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벌이만 잘하고 이름을 빛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재능있는 건축가가 설계한 모든 훌륭한 건축물에는 반드시 설계가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있는것입니다. 쁘로꼬쁘츄크는 브라질, 네데를란드, 메히꼬 등에 이런 동판들을 가지고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소, 게르버트. 그러나 이것은 내가 히믈러부총통이나 로젠베르그를 찾아갈 문제가 못되오. 그들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들은 누구도 이 요구를 리해하지 못할거요.》 폴은 이 문제에 더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물었다. 《당신들한테서 표준설계사업이 어떻게 되여가고있소?》
《우리는 수용소설계를 끝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설계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특히 로씨야에 건설해야 할 수용소설계가 잘되였습니다. 나는 민족적특성을 고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슬라브사람들은 감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하우(1934년에 뮨헨부근의 다하우촌에 건설된 집중수용소)와 라벤스부류크수용소의 어마어마한 광경이 슬라브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것입니다. 자그마한 소공원을 예견하고 창문을 규격보다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소한것 같기는 하지만 로동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킬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야외극장과 배구장, 그리 크지 않은 도서실을 예견하려고 합니다. 로씨야가 4분의 1세기동안 집단적소유법에 기초하여 살아왔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녀자건축가의 영향에 빠진것이 아니요?》 폴은 껄껄 웃었다. 커다란 가죽쏘파에 파묻힌 그의 몸집이 가볍게 흔들렸다. 《감상주의는 횡포한 엄격성으로 꺾어버려야 하오. 게르버트.》
에쎈은 홀린듯 간나의 작업모습을 바라보며 녀자들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느물느물 피워올렸다. 이 담배는 폴의 서기부에서 선물로 준것이였다. 폴의 사람들은 최근에 자주 벌가리아에 가군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렇게 향긋하고 질좋은 담배가 있었다.
《당신은 연필을 잡기전에 벌써 마음속에 선을 그려봅니까?》 에쎈

은 간나가 잠시 쉬는 틈을 리용하여 이렇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간나는 몸을 돌리며 대답했다.
에쎈은 이 녀자가 담배를 바라보는것을 눈치채고 담배곽을 내밀었다.
《둬두고 피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공급사업이 말이 아닙니다. 담배가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담배표지를 얻어주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서는 피우지 마십시오.》 그는 한숨을 내쉬였다. 《우리한테서는 녀자들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녀자들은 방탕한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피우겠어요.》
《집에서 피우십시오.》 에쎈은 생각에 잠겨 곱씹었다. 《우리가 당신의 집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두달 지나면 내가 시내에서 방을 구해주지요. 나를 재촉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예요. 빠리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즉시 알려주고싶습니다.》
《대답을 오래 있어야 받을가요? 나를 도와줄 그 어떤 방도가 또 있을것 같은데…》
《내가 와르샤와위수경무부와 련계를 취해볼수도 있을것입니다. 나에게 아이들의 주소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한가지 물을것이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남편이… 당신은 결혼했는가요?》
《형식상으로는 그래요.》
《당신의 남편이 공산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는 아니였는가요?》
간나는 방긋이 웃었다.
《그는 점잖고 진정한 카톨릭교신자였습니다.》
《점잖은것도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가 좌익세력들과 련계가 없었다면 당신에게는 좋겠지만 나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어째서말입니까?》
《그가 만일 좌익인물이라면 즉시 답변이 올겁니다. 좌익인물들은

모두 등록되여있으니까요. 아, 괜치 않습니다. 내가 빠리에서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와르샤와와 련계를 취해보지요. 지금과 같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 그 어떤 특전이라도 쉽게 얻을수 있습니다.》

6월 20일 에쎈은 간나를 잠에서 깨웠다. 그는 새벽 3시에 간나를 찾아왔다.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하고 에쎈은 물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크라꼬브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루빠와 함께 당신을 데리고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잠간만, 잠간만 기다리세요.》 간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남자앞에 옷을 벗고 서있다는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곱씹었다. 《잠간만,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준비하겠어요.》

에쎈은 간나를 데리고갈 권한이 없었다. 그는 폴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해야 한다는것과 그러면 중장이 슬라브사람들을 전선지역에 데리고갈수 없다고 대답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재능있는 녀자의 청을 기억하고있었다. 자기들의 려행로정이 크라꼬브를 거치게 되여있고 돌아오는 길에 와르샤와를 거치게 되여있는 조건에서 왜 그 청을 들어줄수 없겠는가? 간나는 일을 잘하고있다. 에쎈은 비록 폴이 슬라브사람들의 강제로동수용소를 질적으로 새롭게, 농촌과 도시로동자들의 생활조건과 같이 하자고 하는 자기 의견을 지지해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의도를 간나를 통해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결국 중장과 함께 일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간나와 함께 일하게 되여있는것이다. 간나는 현지에서 설계해야할 내용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리해할것이며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포착할것이다. 그러면 자기, 에쎈은 크라꼬브주변에 시급히 건설해야 할 그 수용소에 대하여 구상해보면서 폴이 말한것과 같이 앞으로 건설해야 할 수용소들, 무엇보다먼저 포로수용소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만 담당해보면 될것이다.

간나는 5분후에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푸릿푸릿해보이기까지 했다.

《가방은 어데 있습니까?》 에쎈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떠나게 됩니다. 비누며 수건, 내의를 가지고가야 합니다.》

《좋아요, 곧 준비하겠어요.》
에쎈은 지금까지 자기가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생각하며 담배를 피웠다. 그는 간나에게 담배표지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던것이다. (전선에서는 담배를 예비로 축적할수 있을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전쟁은 로획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러나 준엄한 전쟁에서 얻어진 로획물자는 얼마나 좋은것인가. 남자는 평범한 생활에서도 정복자이다. 남자는 언제나 앞으로만 지향한다. 남자는 육체적으로도 녀자를 정복하고 그것을 정복된 국가처럼 생각하면서 새로운것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 달려나간다. 그러면 녀자는 후방의 책임자로서 자기가 맡은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다.)
에쎈에게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총체적으로 지금 자기자신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는 자기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 쉰살난 이 사람은 신식양복을 차려입고 다른 나라 녀자를 데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건설하게 될 수용소자리를 돌아보려고 국경을 넘어가고있다. 그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행동할수 있다는 그것으로 하여 갑자기 커다란 희열을 느꼈다.
간나는 어깨에 뜨개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자그마한 가방이 들려있었다.
《당신은 놀랄만큼 동작이 민첩합니다.》하고 에쎈은 말하였다. 《나는 아직 당신처럼 그렇게 빨리 길떠날 차비를 하는 녀성은 한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나의 차거운 손에서 가방을 받아쥔 다음 틈새가 크고 삐걱거리는 바라크문을 정중하게 열어 그 녀자가 앞서게 했다.
진동이 심하고 추운 군용비행기안에서 에쎈은 간나에게 돌아오는 길에 크라꼬브와 와르샤와에 들려 아이들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당신에겐 이것이 매우 힘든 일이였겠어요.》하고 간나는 말하였다.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이런 허가를 받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겠어요.》
《나는 허가를 받은것이 없습니다.》 에쎈은 대답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도와주고싶었을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도 우리 두사람의 머리를 함께 자를것입니다.》

종말의 시초를 예언할수 있다
(1941년 6월 21일)

디쯔는 저녁 7시경에 슈틀리쯔를 데리고 려관으로 왔다. 무더운 하늘은 높고 색갈이 선명치 않았다. 옛장마당우로 비둘기들이 날아올랐다. 새들은 짲짲한 날개를 퍼덕이며 지붕우에 높이 떠서 제비들마냥 상쾌하고 자유롭게 이리저리 뒤치며 쏜살같이 날아옜다.

《〈나흐티겔〉이 쵀슈브에서 싸노쪽으로 이동을 개시했소. 우리가 반데라의 연설을 들어봐야 할것 같소. 그는 자기 재향군인들에게 훈시를 주게 되여있소.》

《당신은 아브웨르를 통해 그에게 침투해들어갔소?》 슈틀리쯔가 물었다.

《이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였소.》

《그거야 사람나름이지. 포흐트는 나에게 당신이 나날이 성장하는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성장한다고 말하였소.》

《누가 그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 권한을 주었소?》

《그걸 몰랐소?》 슈틀리쯔는 야유조로 말했다. 《왜 그렇게 격했소?》

《그는 우리 사업을 모르고있소. 사업범위를 모르고있단말이요. 우리는 단지 그와 일시적으로 협력하고있을따름이요.》

《그는 그루빠책임자요. 명목상의 책임자요. 어떤 경우에나 그렇소.》 슈틀리쯔는 이렇게 덧붙이고나서 곧 자기가 마그다를 본따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마그다가 그렇게 빨리 정확히 말하였다. 그리고는 뒤이어 녀성다운 부드러운 어조로 란폭한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무엇인가 덧붙여말하군하였다.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꾸짖고나서 인차 그를 자기 품에 그러안고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는것과 같았다.

(이것도 역시 마그다에게서 본받은것이로군.)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나쁜짓은 쉽게 본받는다고들 한다. 맞지 않는 소리다. 나쁜 행동보다 옳바른 행동을 훨씬 더 본받는것이다. 물론 옳은 행동은

위선자의 너울을 쓰지 않는다.)

승용차는 쮜슈브로 뻗은 길을 따라 달리고있었다. 수림은 푸른빛으로 보였다. 주위는 적막속에 잠겨있었다. 군용자동차도 병사들의 행렬도 순찰병들도 보이지 않았다.

(솜씨있게 위장했구나.)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혹시 이것이 도발을 위한 하나의 큰 연극이 아닐가?)

슈틀리쯔는 속이 뜨끔해났다. (갑자기 놈들이 래일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가? 만일 놈들이 오래전에 나의 정체를 알아맞히고 모스크바와 연극을 놀고있다면 어찌하겠는가?)

슈틀리쯔는 잠시 눈을 쪼프리고 손가락으로 눈시울을 문질렀다. 그리고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는 이 무서운것에 대하여, 있을수 있는 무서운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멜리니크는 어떻소?》 슈틀리쯔는 오직 정적을 피할 목적에서 이렇게 허두를 뗐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요. 기계는 동작하고있소. 그는 자리를 차고일어났소. 그의 엉치에 벌을 세마리 붙여놓았소. 극히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지. 결국 그는 일어났소! 당신은 뭘 바라오? 슬라브사람들은… 그는 물론 많은 면에서 반데라에게 패하고있소. 당신이 옳게 말하였소.》

《나는 그가 어떤 면에서도 반데라에게 패하고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나는 한번도 그렇게 생각한적이 없소, 디쯔.》

《그런즉 내가 그때 당신을 잘못 알았던가?》 디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못 알았소. 자그레브에서도 마체크와 빠벨리치는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하지 않았소. 그렇지 않소?》

《흐르바쯔까에야 다른 운명이 지워져있었지.》

《옳은 말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잘못 알았소. 친구… 당신은 왜 멜리니크를 기계와 대비하였소?》

《그는 스위치를 끄지만 않으면 끝없이 동작할수 있기때문이요.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정책을 연구하고있소. 우리의 장기정책을…》 디쯔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단계를 뛰여넘어서? 왜 말이요?》

《그는 〈림박한 정책〉은 반데라의 〈나흐티겔〉이 작성할것으로 생각하고있는것 같소.》

《당신은 멜리니크가 반데라를 자기와 비교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요?》 디쯔는 어리벙벙해졌다.
《멜리니크는 군사첩보였소.》
《매우 흥미있는 생각이요.》 디쯔는 빙그레 웃었다.
《내가 선사하지.》 슈틀리쯔가 말하였다. 《나는 자기가 선사한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요.》
《감사하오. 당신이 옳은것 같소. 그는 복수심에 불타고있소. 아주 흥미있는 차이요.》
《뭐요?!》
《아주 흥미있는 차이라고 말했소. 두사람이 똥무지에 빠지면 똑같이 없어지고말거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없어진다〉는 말은 아주 현명한 말이요. 디쯔, 아주 현명하오.》
슈틀리쯔는 또다시 주의력을 집중하고 긴장해졌다. 그는 엘레나사건이 있은 후 오늘 처음으로 디쯔와 단둘이 만났다. 두사람은 각기 이 상봉이 그들의 관계에서 매우 많은것을 결정해주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디쯔는 게스타포가 쉘렌베르그의 정치첩보기구에 자기 사람들을 박아넣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슈틀리쯔는 자기대로 쉘렌베르그가 아직까지 뮬러의 기관에 한명의 밀정도 박아넣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틀전 디쯔가 인종의 순결성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크라끄브군인숙소에서 범한 비행은 그와 슈틀리쯔를 극히 특수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특수한것에 대한 본질을 누구나 리해하고 감수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감각적인 재능은 누구보다 음악가들과 문학가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 슈틀리쯔는 일정한 정도로 이런 재능을 소유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건을 재촉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비상한것이 발생하였을 경우 쓸데없이 서두르고 완강성과 힘을 발휘하고 기쁨을 나타낸다면 결국 승리한것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는 디쯔를 판단하는데서 그의 개성적특질로부터 출발하였다. 차후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정신상태가 이러저러하게 격증될수 있는것이다. 슈틀리쯔는 디쯔가 《특수하다》는 개념자체를 자기에게 비추어보고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기를 특수한 아리아인간으로 믿고있었던것이다. 슈틀리쯔의 생각이 옳았다. 정말 그 사건이

있은 후 디쯔는 겁을 먹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있었다. 그것은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리석게도 모든것이 잊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한가지 리유에서였다. 그러나 그 무엇도 잊어지지 않고있었다. 말도 행동도 잊어지지 않았다. 잊어버릴수 있다고 믿고있는 사람은 리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기보다 동물에 더 가까운 인간이였다.

슈틀리쯔는 이 상봉을 기다려왔었다. 그는 디쯔가 자기와 단둘이 있게 될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있다고 확신했다. 슈틀리쯔는 일련의 있을수 있는 디쯔의 행동선을 예상하여보고 그가 손을 내미는 경우 그에게 정확히 접근하기 위하여 이 매개 행동선들을 머리속에서 따져보았다.

슈틀리쯔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디쯔와 같은 사람은 더욱 그러했다. 만일 디쯔에게 그자신이 이야기한 방법을 써먹으면 아무것도 유익한것을 얻지 못할것이다. 자기가 알고있는것을 반대하여 싸우기는 쉬운것이다. 모르고있는것을 기다리기가 훨씬 어려운것이다. 슈틀리쯔는 이 기다리는것만이 디쯔를 손에 틀어쥐게 하여줄수 있고 이것이 게스타포요원으로 하여금 《린접》정보를 제공하게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정보는 슈틀리쯔의 직무상 발전을 도와주게 될것이다. 그가 이것을 내놓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군인려관에서 디쯔를 그렇게 망신시켰겠는가?

실현적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가 때때로 완전히 환상적인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디쯔는 가까운 사람을 희생시켜 행복을 마련해주는외에 자기가 무엇때문에 슈틀리쯔에게 필요한지 리해할수 없었다. 그는 자기 정보의 일부를 슈틀리쯔에게 제공하여줄것이다. 달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디쯔는 슈틀리쯔로 하여금 자기를 친구로 믿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할테면 하라지. 슈틀리쯔는 이것을 바라고있었다.

승용차가 크라꼬브—줴슈브간의 한적한 아스팔트도로에서 제비짜부근의 잘 닦아진 농촌길로 꺾어들어 5～7키로메터가량 달렸을 때 슈틀리쯔는 눈앞에 이외의 광경이 펼쳐지는것을 보고 놀랐다. 푸르스름한 황혼속에 여기저기서 땅크들이 우르릉거리고 순찰병들이 비수같은 전지불로 눈을 자극하며 분주히 싸다녔다. 작은 짬으로 겨우 내비치는 전조등불빛에 토막진 휘뿌연 먼지기둥속에 병사들을 실은 트럭들이 얼른거렸다. 국경까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줴슈브를 지나 뻬레믜슐로 가면 국경이 나질것이다.

《전쟁이요.》슈틀리쯔는 자기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렇소, 전쟁이요. 그리고 동시에 전쟁의 종말이요.》 디쯔가 대답했다.
《전쟁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종말이라는 말이 맞소.》슈틀리쯔는 눈을 뜨지 않고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들이 탄 《오뻴》의 옆을 지나 포병행렬이 지나갔다. 련결차에는 육고집 고기장사처럼 팔에 덧씌우개를 낀 병사들이 앉아있었는데 이발과 눈만 반짝거리고 온통 시커멓게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어 무슨 악마들같아보였다. 슈틀리쯔는 그들을 바라볼수 없었다. 자기로 하여금 태연하게 그들을 바라보게 할수 없었다. 자기 동족들에게 들씌울 죽음을 나르는 서리찬 무쇠악마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가슴이 서늘해왔다. 지금 동족들은 평온하게 지내면서 선제타격을 안길 생각도 하지 않고있을것이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 그러면 더 무서운것이다. 그들은 지금 라지오로 가극을 듣고있을수도 있고 회관에서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오고있을수도 있으며 작은 침대에서 딩굴며 장난질하는 아이들을 흡족해서 바라보고있을수도 있으리라. 책을 읽고있는 사람들, 서툴고 애무에 젖은 첫사랑을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나흐티겔》은 숨막힐듯 빽빽이 장방형으로 정렬하였다. 재향군인들은 완전행군장비를 갖추고있었다. 가슴에 자동총을 드리우고 옆구리에 편리하게 생긴 길다란 수류탄과 투박한 칼집에 꽂힌 날카롭고 예리한 피비린내가 풍기는 비수를 차고있었다. 대오의 한복판에 반데라의 대리인인 야로슬라브 스떼쯔꼬가 오베들렌더, 헤르쩨너, 슈헤비치, 레베지, 그리니오흐들에게 둘러싸여있었다. 스떼쯔꼬는 얼굴빛이 창백했다. 지어 어두운데서도 이것이 눈에 띄였다. 그의 예리하게 생긴 코구멍이 코카인(마취제)을 마시듯 벌름거렸다.
《형제들!》스떼쯔꼬는 기병장교마냥 길게 큰소리로 웨쳤다. 《새벽에 당신들은 우크라이나고향땅을 밟게 됩니다. 당신들은 흉악한 볼쉐위크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도이췰란드민족과 새 유럽의 령수 아돌프 히틀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기전에 자기 집에서 악을 청산해야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총통의 모범은 당신들에게 있어서 신성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손이 떨려서는 안됩니다. 당신들은 추호도 의

심할것이 없습니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하일 히틀러!》
대오는 길게 화답했다.
《하일 히틀러!》
(스떼쯔꼬는 교활하게 말하였다.)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그런즉 멜리니크는 공연히 반데라와 진흙탕속에서 자리다툼을 해보려했다.)
슈틀리쯔의 감각은 도래할 사변에 대하여 한두번만 예감한것이 아니였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있었으나 이제 곧 무엇인가 중요한 사태가 벌어질것이라는것을 피부로, 싸늘한 손끝으로, 찌르는듯한 심장의 동통으로 느꼈다.
슈틀리쯔는 옳게 느꼈다. 스떼쯔꼬의 뒤를 이어 레베지가 나섰다.
《형제들!》그는 마치 자기앞에 천여명이 아니라 한 댓명정도의 사람들이 서있는듯 조용한 목소리로 허두를 뗐다. 《재향군인 여러분! 당신들앞에는 정치일군들, 쏘베트위원회 위원들, 체까성원들, 공청원들, 교수들, 한마디로 같은 혈통의 우크라이나사람들과의 상봉이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환상으로 위안해서는 안됩니다. 우크라이나정치일군은 모스크바의 정치일군, 유태인, 뽈스까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적입니다. 주먹에는 주먹으로, 몽둥이에는 몽둥이로! 하일 히틀러!》
(저것 보지, 얼마나 과장해서 말하나.) 슈틀리쯔는 분하게 생각했다. (모두 각본대로 하고있다. 스떼쯔꼬는 정치가연 하고있다. 레베지도 징벌을 호소하고있으나 역시 정치를 탐내고있다. 이제 그들은 어느 한 계단도 뛰여넘지 않고 모조리 밟고지나기 위하여 로골적인 살륙을 호소할것이다.)
스떼쯔꼬의 가까이에 서있던 키가 작고 초췌하게 여위고 눈에 광기가 번뜩이는 재향군인이 길게 웨쳐댔다.
《꼼무나에 죽음을!》
《죽음을!》
(그렇지.) 슈틀리쯔는 깨달았다. (《령수》는 암시만 해주면 된다. 살륙을 벌릴데 대한 훈시는 미리 내려졌다. 《령수》, 이 개같은 놈아, 너도 서러울 때가 있으리라. 이 악당놈…)
로만 슈헤비치가 소리질렀다.
《스쩨빤 반데라 만세!》

《만세!》
《하일!》 슈헤비치는 목소리를 돋구어 웨쳤다. 그러자 《하일!》하고 대오가 화답했다.
땅크들이 표말을 짓뭉개며 국경지대를 돌파하였다. 아직도 피가 흐르는 방금 생겨난 폭탄구뎅이에서 매캐한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벌판을 지나 군대들이 달려나갔다. 이때 슈틀리쯔의 옆에 서있던 야로슬라브 스떼쯔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앉아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십자를 그으며 넉두리를 하였다.
《나으리들, 다됐습니다. 다됐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한 말을 들었지요. 당신들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소생시켜주었습니다.》
슈틀리쯔는 관자노리에서 땀을 씻었다.
《그만하면 됐소. 여기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소.》 그는 디쯔에게 돌아서서 피로한 목소리로 《이젠 가지 않겠소.》하고 말하였다.
전쟁이 시작된지 사흘 지나 슈틀프 나겔의 제17집단군 선두부대들이 뻬레미슐에서 붉은군대의 저항을 격파하였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던 《나흐티겔》은 도시에 진입하였다. 바로 여기 국경지대에 미꼴라와 그의 아버지 스쩨빤에게 쏘베트정권하에서 우크라이나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주던 오스따쁘부랴크아저씨가 살고있었다.
게스타포의 레이져는 세명의 재향군인들과 함께 황록색칠을 한 속도가 빠른 장갑차에 올라 명단을 쭉 훑어보고나서 숨죽은듯한 뻬뜨롭스끼골목길로 달려 제9호동건물로 갔다.
집은 겉에 하늘색을 칠했는데 정갈하고 알뜰해보였다. 지붕우에 앉아있는 황새가 거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맵시를 부리는 미인이 부채를 흔들듯 길다란 부리를 휘둘렀다.
레이져가 재향군인들에게 고개짓을 하자 그들은 발로 삽짝문을 걷어차고 마당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발에 매달리는 개를 총으로 쏴갈기고 한달음으로 집에 뛰여들었다.
창문을 뛰여넘던 재향군인 한놈이 유리에 베여져 피투성이가 되였다. 그는 자기가 바라던것을 성취하기라도 한듯 책상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옆에는 녀자가 젖먹이를 안고 앉아있었고 계집애와 총각아이들 셋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색이 되여 숨을 죽이고있었다.

재향군인놈은 남자를 책상에서 끌어냈다. 그러자 녀인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재향군인들중 한놈이 발로 녀자의 배를 걷어차자 녀인은 소리를 뚝 끊고 꼬꾸라졌다. 놈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남자를 밖으로 끌고나가 장갑차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거기서 큰소리로 물었다.

《오스따쁘 부랴크인가?》

《그렇소.》

《우편국장인가?》

《이전에 국장이였소.》

《류블린쉬나에 친척이 있는가?》

《있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적이 있지?》

《있었소.》

창문으로 뛰여들다가 손을 베인 재향군인놈이 부랴크의 귀를 잡아 얼굴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칼날같이 앙상한 무릎에 코와 이마를 두번이나 벼락같이 짓쪼았다.

《왜들 이러시오?》 오스따쁘는 시퍼렇게 되였다가 차츰 붉어지면서 피가 흐르는 얼굴을 재향군인들에게 쳐들었다. 얼굴에는 대뜸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입술도 퉁퉁 부어올랐다. 입에서 피가 쏟아져나왔다.

그를 장갑차에서 끌어내렸다. 오스따쁘는 자기 주위에 밀집한 대오를 보았다. 도이췰란드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은 서로 비슷하게 칠을 한것 같아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 비슷한 얼굴가운데서 문득 미꼴라를 띄여보았다. 그는 앗!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미꼴라에게로 달려갔다. 그러자 부대장 로만 슈헤비치는 얼른 레이져와 눈길을 맞추었다.

《미꼴라.》 슈헤비치가 말하였다. 《이 사람을 아는가?》

《예, 바로 오스따쁘아저씨입니다.》 청년은 얼굴이 해쓱해지며 대답했다.

《즉시 인정한건 좋은것이요.》 슈헤비치의 말이였다. 《자, 교관이 당신을 가르치던대로 물어보오.》

미꼴라는 대렬에서 나와 부랴크에게 다가가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을 끔찍하게 쳐다보았다.

《자, 어서!》 슈헤비치가 재촉했다. 《자, 어서. 미꼴라,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소. 그들이 피곤해하고있소. 래일 또 길을 떠나려면 휴식

해야 할게 아니요.》
《물어보아라.》보매 오스따쁘는 자기 운명을 깨달은듯 고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서 묻거라, 미꼴라. 내가 대답할테니.》
《오스따쁘아저씨, 당신은 볼쉐위크인가요?》
《아니다. 나는 볼쉐위크가 아니다.》
《아저씬 쏘베트를 위해 일하였나요?》
《그랬다. 나는 쏘베트를 위해 일하였다.》
《쏘베트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아니다, 미꼴라. 시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자신이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던가요?》
《아니다. 미꼴라, 괴롭히지 않았다.》하고 오스따쁘는 되뇌이였다. 《다른데서는 괴롭혔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한테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다. 미꼴라, 쏘베트정권하에서 우리 생활은 좋았다.》
슈헤비치는 새되게 소리질렀다.
《미꼴라, 네앞에 볼쉐위크앞잡이가 서있다. 그는 배신자이다. 그는 볼쉐위크들한테 매수되였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배신자들을 처단하듯이 그렇게 그를 처단하라!》
《이분이 바로 오스따쁘아저씨입니다.》 미꼴라는 슈헤비치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그가 무슨 배신자입니까?》
《배신자를 비호하는 사람자체도 배신자야, 미꼴라.》 슈헤비치는 꽥 소리질렀다. 《재향군인들이 기다리고있다.》
《아, 아닙니다.》 미꼴라가 말하였다. 《아저씨는 가서 푹 쉬라고 합시다. 그는 곤죽이 되게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슈헤비치는 재향군인들쪽으로 돌아섰다.
《뻬뜨로!》
대렬에서 키가 크고 느릿하게 생긴 청년이 나왔다. 그는 천천히 오스따쁘에게 다가와 검은 피로 물든 해쓱한 얼굴을 오래동안 노려보다가 칼집에서 단도를 뽑아 미꼴라에게 내밀었다.
《받게, 찌르고 당기라구.》
미꼴라는 키가 크고 느지게 생긴 청년에게서 뒤걸음질쳤다. 그러자 그는 느린 사람같이 않게 날렵한 동작으로 오스따쁘에게 타격을 가하고 쓰러지는 사람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렬에

들어섰다.

오스따쁘를 처형한지 한시간 지나 슈헤비치는 재향군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사람들을 비상동원시켜 리보브로 다그쳐몰았다. 도이췰란드사람들과 함께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반데라에게서 온 이 명령은 슈헤비치에게 뜻밖이였다. 그러나 오베들렌더가 《령수》와 협의를 본것으로 보아 모든것은 우에서 이미 합의된것 같았다. 그런즉《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하일!》하고 웨치면서 달려가야만했다.

《본부 앞. 제국안전총국내에서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붉은군대부대들과 경비대들의 저항이 〈동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을만큼 강한것이였기때문이였다. 반데라와 멜리니크는 우크라이나인민들이 히틀러를 해방자로 맞이할것이라고 자기 상전들을 확신시키면서 현실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였다.

〈나흐티겔〉은 서부우크라이나적으로 제일 처음 조직된 꼴호즈가 있는 삐틀리쎈촌에서 반데라악당들이 전체 쏘베트열성자들을 총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꼴호즈 분조장들과 작업반장들, 수훈자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면전에서 총살당하였다. 이완 프란꼬의 전우들인 와씰과 올가 꼬쯔까를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는 삐라가 나붙었다. 전설적인 뻴레하뜨의 가족들도 피살되였다.

로씨야유태인가족들을 숨겨주면 총살당할것이라고 위협하였지만 우크라이나사람들은 그들을 숨겨주고있다.

긴급접선을 요구한다. 지방조건을 잘 알고있는 우크라이나체까대원을 보내달라. 접선암호는 〈당신은 쿠인 메리때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도 그 배를 타고왔습니까? 몇등석에 타고왔습니까?〉라고 응답암호를 대도록 해달라. 이 물음에 나는 〈2등석입니다.〉라고 대답할것이다. 유쓰따쓰.》

《나흐티겔》의 퉁탕거리는 모터찌클들이 잠든 리보브의 시가지를 달리고있을 때 로만 슈헤비치는 자기옆의 흔들거리는 요람에 앉아있는 오베들렌더에게 머리를 숙이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인차 스뱌또유르스크산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베들렌더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가리운 커다란 안경을 슈헤비치의 이마쪽으로 쳐들었다. 그는 얼굴빛이 희끄무레하고 이발만 하

얗게 반짝거렸다. 눈 흰자위는 진주같이 아롱져보였다.
《흥분했소?》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흥분하지 않았소. 말하자면 나는 자기자신을 숭상하지 않소.》
《당신들은 숭배가 없이도 살아갈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슈헤비치는 모터찌클수의 어깨를 건드리며 그에게 명령했다. 《쉐쁘찌쯔끼에게로 가야겠소.》
로만 슈헤비치는 온몸이 노그라드는것 같고 마음이 이상하게 소심해지는것을 느끼며 모터찌클의 뒤자리에서 기여내렸다. 오베들렌더는 도이췰란드식으로 단정한 몸매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별로 흥분하지도 않았다. 첫 모터찌클을 뒤따라 교회당마당에 또 모터찌클들이 달려들어왔다. 두번째 모터찌클에는 《나흐티겔》의 궁정목사(카톨릭교의) 그리니오흐가 도이췰란드회색군복을 입고 앉아있었다. 그자도 역시 현관에 들어섰다. 하인들은 그를 알아보자 먼지오르고 휘발유에 어지러워진 그의 손에 머리숙여 인사했다. 그리니오흐가 대주교 안드레이가 어데 있는지 물어볼새도 없이 하인들이 그를 방으로 안내하여갔다. 하인들은 지금 대주교 안드레이가 깊은 명상에 잠겨있으며 그가 이 세상의 하찮은 인간들에게는 말할것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될 자기 아픔으로 하여 가슴을 조이고있다는것을 추측도 할수 없었다.
쉐쁘찌쯔끼는 자기한테로 슈헤비치, 그리니오흐, 오베들렌더를 데리고오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은 그의 손에 다가가 눈물을 감추지 않고 울었다. 쉐쁘찌쯔끼는 그의 먼지오른 딱딱한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지금 그의 눈에 자기자신에 대한 련민의 정이 어려있기때문이였다. 황제들, 대승정들, 상들과 대상하던 자기가 이 보잘것 없는 인간들과 대상하는데까지 이른것이다. 이제부터 이들은 새벽에 그의 방으로 찾아와 쏘파를 2층으로 올려가고 그를 베란다로 데리고나가서 집앞광장을 한가득 메운 병사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눈이 얼마나 행복에 겨워 반짝거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고 힘이 강하며 속세의 사람들이 그들앞에 어떻게 머리숙이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줄것이다.
쉐쁘찌쯔끼의 가슴속에는 무엇인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것이 부지중 되살아났다. 그는 또다시 자기 생활의 초시기를 믿게 되였으며

청렴하고 자기 힘에 의거하던 지난날이 되돌아올수 있다고 믿었다.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눈을 지지는것 같았다. 그는 다른 나라 군대이지만 같은 혈통을 가진 이 병사들의 위력에서 자기 힘을 느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축복의 인사를 했다. 재향군인들의 눈에도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였다. 주위엔 정적이 깃들었다. 갑자기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렸다. 한숨소리를 싣고 얼마후 퉁탕거리는 모터찌클의 동음이 터지고 재향군인들이 자기들의 여윈 몸뚱이를 안장에 실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당한 행동》을 보여주고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숨죽은듯 한적한 새벽거리로 달려갔다.

그들은 방금 축복을 받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들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 가장 숭고한것에 의하여, 쉐쁘찌쯔끼자신에게 전혀 있어보지 않은 그 숭고한것에 의하여 그들의 어깨에서 부담이 내려진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쉐쁘찌쯔끼는 허전한감을 느꼈다.

피로써 청산한다

반데라는 그날로 리보브에 도착하였다. 그는 가죽옷을 입고 성도 다른 사람의 성으로 변성명하였다. 그는 자기 모교인 공업대학 맞은편건물에 있는 비밀주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향긋한 누런 통나무가 아니라 무거운 돌로 쌓은 우렁우렁 울리는 우물과 비슷한 여기 모든 뜨락들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반데라의 마음에 정답게 느껴지는것은 농촌우물과 비슷한 뜨락만이 아니였다. 《령수》는 후에야 어찌하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는것을 느꼈다. 당장 나무를 독처럼 휘우듬하게 후려서 만든 발콘들은 농촌에 있는 고향집을 련상시켰다.

작고 어두운 현관방의 문옆에(도시에는 불이 없었다. 볼쉐위크들이 떠나가면서 발전소들을 파괴해버린것이다.)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성원들중에서 선발된 호위병 세명이 굳어진듯 서있었다. 반데라와 스떼쯔꼬는 담배냄새가 진하게 밴 방안에 앉아있었다. 창문들은 조용한 뜨락으로 나있었다.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한사람은 책

에 무엇이 씌여져있는가 하여 호기심을 품고 책장을 번지고있었고 다른 사람은 전화기에 시선을 박고있었다. 시간은 거칠고 갑갑하게 흘러갔다. 지금은 중요한것이 해결되였다. 반데라는 스뱌또유르스크산을 장악하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멜리니크의 지도목사이며 그의 오래전 보호자인 쉐쁘찌쯔끼가 확고한 결심을 채택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민족자유의 기치밑에 리보브에 선참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사람들을 지지하든가 혹은 그들에 대한 지지를 끊을것이다. 그가 수백명의 재향군인들을 축복한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제 그는 멀리 크라꼬브후방에 앉아있는 멜리니크가 아니라 반데라 한사람을, 바로 반데라를 축복해주어야 한다.

반데라는 멜리니크의 반탐기관책임자 쎄니크 그리보브스끼가 자기, 반데라처럼 일련의 과업을 받아가지고 몰래 리보브에 들어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Б》책임자를 자동총으로 쏴죽이든가 자그마한 《선물》꾸레미를 려관호실에 보내주어 폭발시킬수도 있을것이며 미친듯이 달리는 그의 자동차를 낭떠러지에서 굴려버릴수도 있을것이다. 적합치 못한 정치가들을 처단해버리는 일이 어디 좀 적은가?! 쎄니크 그리보브스끼는 이런 방법을 알고있었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알아맞힐줄도 알았다. 꼬왈레쯔가 살해된 후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당신들에게 그 누가 귀중한 선물을 준다면, 그것이 설사 우리 대주교님으로부터 보내온것일지라도 즉시 어느 멀리에 있는 조용한 곳에 파묻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시오. 자기 죽음을 파묻었다고 생각하고말이요.》라고 말했었다.

이런 방법을 알고있는 쎄니크 그리보브스끼는 멜리니크를 호위하는데서 그것을 아는것으로만 그친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데라를 반대하여 써먹을수 있었다. 쉐쁘찌쯔끼가 반데라를 축복해준 다음 그런 방법으로 모험할테면 하라지. 반데라는 지금 정확하고 예리하게 생각을 더듬고있었다. 멜리니크는 한때 쉐쁘찌쯔끼에게 반데라에 대하여 《그는 피를 즐기는 잔인무도한자입니다. 그에게는 성스러운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무슨짓이든지 마다하지 않을자입니다.》라고 말했었다. 그렇다. 반데라는 지금도 무슨 흉악한짓이든지 다 감행할 태세에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는 그것이였다.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고싶었다. 적수들과 볼쉐위크들을 타승하고…

담배연기가 푹 배인 조용한 방안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굴리면서 반데라는 팽팽하게 긴장된 론리의 선을 따라가고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사정이, 일정한 정도에서는 결정적인것이라고 볼수 있는것이 그의 생각밖에 밀려나있었다. 그는 그리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 누가 무엇때문에 그의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암살음모가 꾸며지고있다는데 대하여 통보해주었는가? 누가 무엇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그를 적극적인 행동에로 부추겼는가? 누가 이런 술책에 대하여 그가 미리 알고있다는것을 그처럼 잘 알고있었는가?

전화종이 맵짜고 예리하게 울렸다. 반데라와 스떼쯔꼬 두 사람은 시시각각 이 전화종소리를 기다리고있었지만 와뜰 몸을 떨었다. 스떼쯔꼬가 수화기에 손을 뻗치려 하자 반데라가 눈으로 그를 제지시켰다. 전화가 네번이나 울려서야 스떼쯔꼬는 수화기를 들고 시듯하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빠블로!》 그는 공포에 질린 녀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 반데라의 마당에서 미꼴라를 총살하고있어요, 빠블로!》

《수화기를 놓소.》하고 반데라가 조용히 말하였다. 그러나 스떼쯔꼬는 홀린듯 녀자의 고함소리를 듣고있었다. 그는 놀라서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반데라는 송수화기받침대를 눌렀다. 그러자 삑삑 불안한 소리가 련속 울렸다.

《누군지 알았습니까?》 스떼쯔꼬는 웅얼웅얼 입안소리로 물었다.

《쎄니크입니다.》

《그가 무엇때문에 이런 놀음을 놀고있소?》 반데라도 역시 그렇게 소곤소곤 말하였다. 《그가 우리를 발견했으면 놀음을 놀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게 아니요.》

《당신은 괜히 집입구에 모터찌클수들을 남겨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를 무조건 찾아냈을거요. 당신은 적의 행동을 자기 사람들한테 유인하려고 애쓰고있소. 야로슬라브, 만일 손바닥이 다른 손바닥으로 전부 가리워지면 그때는 두려워해야 할거요. 서로 일치했으니까. 그러나 당신이 손바닥을 책에 놓고 이렇게저렇게 아무리 대보아야 전부 가리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겁낼 필요

가 없소. 적수도 역시 우리 형제로서 똑똑한 사람이요. 그는 두번째 손바닥과도 같소. 당신은 그 손바닥에 대고 재여보오. 당신같으면 그렇게 행동할수 있었을것 같소?》 그는 고개로 전화기를 가리켰다.
스떼쯔꼬는 자기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을 딱딱 소리나게 꺾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두리에 은박칠을 한지 오래된 커다란 거울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질렀다. 그는 자기 얼굴을 히틀러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지어는 코수염까지도 총통처럼 길렀다.
《걱정스러운게로구만.》 반데라가 말하였다. 《살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소. 귀뺨을 맞은것처럼 얼굴에 퍼런 줄이 생겨났소. 일이 제대로 되면 유능한 의사한테 보이도록 하오.》
《질베르만이 나를 수술해주었습니다.》
《이젠 그가 더이상 치료해줄수 없을거요. 유태인이니까.》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야 유태인이라도 아껴야지요.》
《법을 위반해선 안되오. 법에는 례외적인것이 없는것이요.》
《당신생각에는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유태인의사가 하나도 남지 않은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자기 의사들이 있소. 건강은 깨져도 별일없는 접시와 같은게 아니요. 누구에게나 믿고 맡길게 못된단말이요. 당신은 심장이 아파서 질베르만을 찾아갔는데 그는 당신에게 궤양을 치료하듯 관장을 시켰소. 그러다간 얼마 못가서 죽고말겠소. 나도 질베르만을 기억하고있는데 그는 대학생들에게서는 돈을 받지 않았댔소.》 반데라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였다. 《야로슬라브, 생활이란 참 우스운것이요. 생활은 모든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순한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소. 말고삐를 잡으면 끝까지 달리라는 속담이 있지 않소. 당신은 생각하오? 내가 동요하면 후대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거요. 그들은 내가 과오를 범하면 〈반데라는 령수가 아니라 나약한 인간이다.〉라고 말할거요.》
그들은 문기척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처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던것이다. 호위대원이 슬며시 머리를 들이밀고 입속말로 말하였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랍니까?》
반데라는 맹수처럼 앞을 쏘아보며 마치 도약직전에 그렇게 하듯 발끝으로 살금살금 현관방으로 나왔다. 그는 문에 베개모양으로 손

을 가볍게 대고 거기에 귀를 갖다대였다. 그러면서도 임의의 순간에 옆으로 물러나 벽에 붙어설 태세였다. 벽은 총알을 뚫을수 없는것이다.
똑똑똑 문기척소리는 반복되였다. 그 소리는 감옥에서 들어온 낯익은것이였다.
반데라는 문에서 떨어져 후렁후렁한 바지뒤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낸 다음 호위병에게 《어서 문을 열어.》라고 하듯 턱질을 하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문지방에는 로만 슈헤비치가 서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먼지가 끼여있었으나 행복한 기상이였다.
《기다리고있습니다. 떠납시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쉐쁘찌쯔끼는 반데라를 찬찬히 살펴보고나서 얼핏 스떼쯔꼬에게 눈길을 돌렸다가 피로하고 흥심없는 손짓으로 손님들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는 벌써 자기가 보고싶은것을 다 보았다. 반데라는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는것을 감추려고 했고 스떼쯔꼬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Б》두령 반데라가 앉을 때까지 눈치를 보다가 그가 커다란 가죽쏘파에 조심스럽게 앉은 후에야 뒤따라 앉았다. 궁정목사 그리니오흐는 타는듯한 눈길로 반데라와 쉐쁘찌쯔끼를 번갈아보았다.
대주교는 목구멍에 치미는 한숨을 억지로 눌렀다. 그것은 고명하고 작위가 높은 인물들과만 거래하던 자기가 진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표징도 못갖춘 풋내기들, 명문가정의 출신도 아닌 이런 인간들과 사업하게 된데로부터 오는 한숨이였다.
《대주교님.》반데라는 상들의 집무실에 들어간 하급관리들이 그렇게 하듯이 가볍게 기침을 깇고 말머리를 뗐다. 《나는 당신이 우리를 맞아주는데 동의하여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교님을 우리의 신부로, 우크라이나의 구세주로 알고 민족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그 길로 가기 위해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권에 즉위하려는 우리를 축복해주기 바랍니다.》
반데라는 급히 스떼쯔꼬를 가리켰다. 《바로 이 사람이 새 정권의 수상입니다. 그리고 신부 그리니오흐는…》그는 약간 궁정목사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교회지도자입니다.》
쉐쁘찌쯔끼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속세의 교도들이 숭

려들을 스키마(엄격한 금욕생활을 요구하는 높은 승직)의 사람들로, 자기 교회의 사상만을 따르는 사람들로 생각하고있다는것과 이들, 속세의 사람들이 승려들을 무엇을 보고 인차 깨닫고 판단하고 결심을 채택하는 민첩하고 능란한 사람들로 생각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렇게 생각할테면 하라지. 자기를 사실보다 다르게 보면 오히려 유익할수 있다. 쉐쁘찌쯔끼는 침묵을 지켰다. 다른 사람들도 침묵했다. 침묵은 괴롭게 흘러갔다. 반데라는 촌스럽게 짱짱하고 네모진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가볍게 기침을 했다.

《헌데 왜 당신이 수상을 안하오?》 쉐쁘찌쯔끼는 반데라가 이 대답을 듣고싶어한다는것을 알고 이렇게 물었다. 대주교는 스떼쯔꼬를 정부의 수위에 임명한 진짜 원인을 제꺽 눈치챘다. 그는 반데라에게서 대답을 들으려고 물은것이 아니라 그가 이 대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것을 보기 위해서 물었다.

반데라는 얼굴이 푸들푸들 떨리고 관자노리가 파리해졌다. 그리고 깍지낀 손은 마비가 온듯했다.

《저는 저 개인이 전체 우크라이나사람들을 단결시키는데 방해가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저는 모든 민족적 력량들과 교섭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의 명예가 귀중한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민족의 행복이 귀중합니다.》

(특징적인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람이다. 그는 속세의 생활로써 온통 어지러워졌다.) 쉐쁘찌쯔끼는 쓰라린 감정과 함께 련민의 정을 느끼며 생각했다. (나도 젊었을적에 저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바로 저렇게. 다만 기침을 하지 않았고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우지 않았을뿐이지. 오,주여! 우리의 엄중한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당신은 모든 애국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회담할수 있다는거요?》 마침내 쉐쁘찌쯔끼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암살하려 하지 않고 회담을 하려 한다면말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죽인단말이요?》

《자기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죽이지요.》 반데라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는 낮고 부드러운 쏘파에 불편하게 앉은 자기 몸, 평감앞에 감추고있는 자기의 공포심을 똑똑히 느꼈다. 지어는 무릎에 바지천이 팽팽히 달라붙는것까지 느껴졌다. 이렇게 느껴진것은 그가 돌층계를 밟으며 대주교의 집에서 나오고있는 때에 가슴에 자동총을 틀

어쥔 청년이 교회당 벽에서 리탈하는것을 가까이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였다. 그는 쎄니크 그리보브스끼가 보낸 사람이 발사한 크고 예리하고 싸늘한 총알이 벌써 자기 몸을 꿰뚫고나간듯 아픔을 똑똑히 느꼈다.
《신경이 극도에 달했구만.》 쉐쁘찌쯔끼가 말하였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그렇게 되는 법이요.》
그는 반데라가 어떻게 대답할것인가 하고 기다렸다. 그는 주패장을 펼치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증거를 내놓을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자기자신을 파멸시킬수 있었다.
《저에게는 생명이 귀중하지 않습니다.》 반데라는 령감이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촉감으로 깨닫고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벌써 한번 생명을 잃었댔습니다. 허나 저는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적은것은 큰것에 복종하게 되여있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큰것에 복종하는것이 옳은 행동이지요. 제가 복무할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분할것입니다.》
《멜리니크나 스꼬로빠쯔끼와도 한회담석에 앉을 준비가 되여있소?》 쉐쁘찌쯔끼는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저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한단말이지.》 쉐쁘찌쯔끼는 이렇게 말하고 등받이가 높은 쏘파에 몸을 기댔다. 《좋은 때요. 스쩨빤, 나는 당신이 잘되기를 축복하오. 안녕히 가시오. 국가를 선포하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이 시각에 알프레드 비자네쯔와 함께 교수 한스 꼬흐가 들어왔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까나리스에 의하여 파견된 오베들렌더의 상급들이였다.
반데라, 그리니오흐, 스떼쯔꼬들은 장교 둘이 나타나자 병사들처럼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마치 쉐쁘찌쯔끼를 후려갈길듯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후려친것은 대주교가 속세의 인간 반데라에게 십자가를 그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스 꼬흐가 그에게 손을 쑥 내민 그것이였다. 쉐쁘찌쯔끼는 갑자기 이 젊은 승려의 아들과 인척관계를 맺았다. 그는 하늘에 닿으려면 자기자신의 천정을 마스려 할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천정을 짓부셔버릴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을 무한히 고맙게 생각하고있다. 자기들을 추켜올려세워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날 언제인가 한스 꼬흐가 쉐쁘찌쯔끼의 방에 소리없이 들어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쉐쁘찌쯔끼가 남이였고 그때는 그가 뾜스까에 있던 우크라이나카톨릭교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있었을뿐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것이 변하였다. 대주교의 카톨릭교도들인 우크라이나사람들이 꼬흐가 속한 군대의 군복을 입었다. 꼬흐는 지금 여기 주인으로 되였다. 오스트리아황제 칼이나 뻴쑤드스끼원수나 도이췰란드총통이 주인인것이 아니라 도이췰란드제국주의의 강력한 기구에서 작은 나사못에 불과한 군사첩보기관의 평범한 소좌 꼬흐가 주인인것이다.

《나는 당신들을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소. 반데라와 꼬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짓밟힌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쉐쁘찌쯔끼는 이전의 자기 바스성대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세계에 우크라이나국가가 힘있고 강대하다는것을 보여주시오. 신이 당신들을 도와줄것이요.》

자리를 뜨는 반데라, 스떼쯔꼬, 그리니오흐를 눈으로 바래우며 대주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이 순간을 두려워했으나 동시에 그것을 기다려왔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명백한것을 좋아하는 법이다. 그 명백한것에 의거하여야 작고 굴욕적인것을 자기 로선에 복종시킬수 있는것이다.

쉐쁘찌쯔끼는 오산하지 않았다. 《령수》가 문밖으로 사라지자 한스 꼬흐는 가방에서 종이장들을 꺼내여 대주교에게 내밀면서 말하였다.

《각하, 여기에 수표해주십시오. 내 생각엔 당신의 방식이 준수되고있는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정하게 수정을 가하려고 합니다.》

쉐쁘찌쯔끼는 두텁고 질긴 종이장을 집어들었다. 안경을 쓰지 않았다. 아직도 시력이 괜찮은데다가 멀리 쳐들고보면 별로 지장이 없었다. 그는 글줄에 시선을 집중하고 읽기 시작했다.

《승려들에게 보내는 대주교의 연설. 전지전능하고 인자하신 하느님의 의사에 따라 우리 조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지역을 점령하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준 백전백승의 도이췰란드군대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중요한 력사의 시각 아버지와 형제들인 당신들이 교회에 충실하고 정권에 순종하며 조국의 복리를 위한 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바입니다. 자기를 진정한 우크라이나사람으로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의 복리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볼쉐위크들에게 그처럼 천시당한 우리의 경제, 과학, 문화생활을 부활시키는데 힘을 합쳐 일해야 할것입니다. 하느님에게 사랑을 청원하기 위하여 모든 목사들은 다가오는 주일날에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백전백승의 도이췰란드군대와 우크라이나백성들의 만수무강을 빌어야 합니다.》

쉐쁘찌쯔끼는 무릎우에 천천히 종이장을 내려놓았다. 그것은 마치 구조물이기라도 한듯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한순간 림종직전의 공허감이 온몸에 엄습했다. 오랜 순간이 지나서야 그는 무슨 말을 듣고 이것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있는 자기 생각이라는것을 알았다. 이 생각은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 토막토막 끊어져 제 갈래로 움직이는 가련하고 망연자실한것이였다. 쉐쁘찌쯔끼는 눈을 뜨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면서 한순간이나마 이전처럼 육체를 자기 의사에 순종케 해보려고 애썼다. 그는 어깨를 쭉 펴면서 어깨뼈밑 어디인가 연골이 우지직우지직 하는것을 느꼈다.

육체가 자기 의사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그것은 대주교를 이전의 쉐쁘찌쯔끼로 되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는 다시금 결심을 내릴수 있게 되였고 자기를 자제할수 있게 되였다.

그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자기에게 작성해준 이 종이장을 찢어버릴수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땅에 들어온 남의 군대를 위해 기도를 드리도록 호소하는것을 거절할수도 있었다. 그는 자기가 거절하는것이 현정세하에서 히틀러를 신성한 교회의 적으로 생각하고있는 바티칸의 그 세력가들에게 유익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근 반세기라는 오랜 세월 자기가 지켜온 그 로선이 물질적힘으로, 자체의 충분한 내용을 가진 힘으로 자라났다는것을 알았다. 그 힘은 그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용해시켜버렸다. 마치 아무것이나 작은 금속쪼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시약처럼 자기가 조금도 자유로운 존재가 못되며 노예처럼 도이췰란드사상에 매여있을뿐만아니라 행동에서 무력한 인간이라는 자각은 지금 쉐쁘찌쯔끼에게 제3자의 립장에서

보는듯이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문득 자기자신에 대한 동심과 같은 불쌍한 생각이 치밀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모욕을 느낀 조용한 목소리로 《늦었소.》 하고 말하는 말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다.

《집단주의와 자립성에 대하여 뭘 좀 첨가하오.》하고 대주교는 중얼거리였다. 《내가 수표하겠소. 안녕히 가시오. 나는 혼자 있어야 겠소.》

따라스 말라르츄크는 수술실에서 나와 높다란 쏘파에 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맥을 푹 놓았다. 두팔은 맥없이 아래로 늘어졌다. 그는 다리가 떨려나는것을 느꼈다. 수술을 연거퍼 다섯번이나 했던것이다. 대부분이 파편상을 입은 아이들이였다.

그는 눈을 감자 곧 기이하리만큼 공허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잠은 들지 않았으나 자기 주위의 음향은 듣지 못하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 부상자들의 웨침소리, 간호원들과 의사들이 다급히 뛰여다니는 소리, 무서운 군화로 쿵쿵 땅을 구르며 시체를 담은 담가를 나르는 위생병들의 발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따라스 말라르츄크는 눈앞에서 이상한 색갈들을 보았다. 그의 앞에 놓여있던 진홍색과 선홍색은 서서히 황록색고름으로 변하여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옆에 서있던 외과간호원 옥싸나 찌모페예브나는 수술대에 파편에 넙적다리가 잘라진 소년이 누워있었으나 그의 어깨를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출혈이 너무도 심하여 살려낼상싶지 않았다.

《따라스 니끼찌치.》간호원은 소년의 웨침소리가 림종직전의 신음소리마냥 참을수없이 아츠럽게 들리자 이렇게 입속말로 말하였다.

《따라스 니끼찌치, 소년이…》

말라르츄크는 방금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사람같지 않게 벌떡 일어났다.

《뭐요?》 그는 머리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이렇게 물었다. 《뭐요. 간호원동무? 벌써 준비됐소?》

《예, 수술대에 누워있어요.》

《마취제는?》

《예, 당신을 기다리고있어요.》

말라르츄크는 수술실에 붙어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차거운 수도

물에 머리를 들이밀고 길다란 손으로 싸늘한 법랑세면대를 짚고서 오래동안 서있었다. 툭툭 뛰는 관자노리가 진정되고 푸들거리는 안면경련이 서서히 멎을 때까지 기다리려는것이였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여 엿새동안 내내 병원에 불박혀있으면서 주야를 계속하여 수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기간은 그에게서 악몽과 환영처럼 흘러갔다. 그는 자기 볼따귀를 꼬집으면 이러한 환영이 사라지고 모든것이 이전과 같이 될것 같았다. 그리고 가슴을 저며내는 공습경보싸이렌소리도 부상당한 소년들의 울부짖음도 림종직전의 로인들의 갈린 소리도 없어질것 같았다.

《따라스 니끼찌치.》 그는 물소리를 누르고 들려오는 웨침소리를 들었다. 《소년이…》

《이제 가겠소.…》

말라르츄크는 수도를 막고 바싹 마른 뻣뻣한 바둑판무늬수건으로 머리를 씻었다. 그리고나서 간호원에게 카페인과 피라미돈가루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진한 차와 함께 약을 마시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는 소년의 누런 얼굴과 파편으로 끔찍하게 창상을 입은 허벅다리와 산산이 부서진 뼈를 살펴보았다. 말라르츄크는 갑자기 울고싶도록 설음이 북받쳤다. 아이들은 전쟁놀이를 할뿐이지 싸움은 어른들이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죽고있는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단축하는데서 거대한 발전으로 되는 비행기를 제작한 학자의 훌륭한 지혜는 야만적인 행위로 변하였다. 지혜를 야만적인 행동의 상징이라고 하는것보다 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어데 있겠는가? 신성로마제국과 도이췰란드의 황제들, 군주들, 수상들, 총통들, 륙군원수들의 간악한 의사에 의하여 두쪽으로 깨여진 지혜, 즉 폭탄을 나르는 비행기설계가의 지혜, 건설이 아니라 파괴를 일삼는 공병—건축가의 지혜, 세계의 저명한 정신적재부를 보존하면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터득할수 있게 하여주는 도서관 사서의 지혜는 어느것이나 자기가 얻고저 하는것을 찾고있는것이다.

《따라스 니끼찌치…》

《메스!》 하고 말라르츄크는 말하였다. 《내 눈을 닦아주오. 그리고 말하지 마오.》

누구나 생활에서 허위적인것에 진실한것을 적극적으로 대치시키고싶은 때가 있군하는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력사발전행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사소하고 개인리기적인것을 미래를 위한 숭고한 공동위업에 복종시키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고상한 론리에 결합되는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사람이 풍부한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 직업에 대한 높은 기능을 소유할 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능력이 없는 공상가는 다만 선한 행동의 효소제로나 될수 있을뿐이며 그에 대한 기억은 그가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지고만다. 자기 공상을 사업과 자기 직업, 자기 능력에 복종시킬줄 아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파라데이, 멘델레예브, 아인슈타인, 뚜뽈레브와 같이 후대들의 기억속에 남게 되는것이다.

말라르츄크는 할수 없다고 하던 일을 해냈다. 그는 어린이의 생명을 구원해냈다. 이제 남은것은 상처를 꿰매는 사소한 일뿐이다.

그는 뻣뻣하게 느껴지는 억센 손을 놀려 상처를 아무리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시각 《나흐티겔》의 반데라악당들이 수술실에 뛰여들었다.

《수술실에서 썩 나가시오!》 말라르츄크는 목쉰 소리로 꽥 소리질렀다. 《누가 당신들을 들여놓았소?!》

악당들은 자기들이 즐겨쓰는 능숙한 강도의 동작으로 그의 덜미를 틀어잡아 타일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발길로 마구 걷어차다가 그를 출입구쪽으로 질질 끌고갔다.

말라르츄크는 기회를 엿보다가 날렵한 동작으로 땅에서 솟구치며 뼈가 앙상한 손으로 술에 취해 너털웃음을 웃고있는 놈의 벌거우리한 낯짝을 힘껏 쥐여박았다. 그는 또 한놈을 갈기려 하다가 자동총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의식을 잃고말았다.

레베지의 명단에서 주쏘베트대의원인 따라스 말라르츄크는 518번으로 등록되여있었다. 말라르츄크가 우크라이나사람인 조건에서 그에 대한 사형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3인위원회》 판결이 있은 후에 집행되게 되여있었다. 이 《3인위원회》는 우크라이나공산당원들, 공청원들에 대한 재판을 위해 조직된것이였다.

《우리한테서는 모든것이 법대로 집행되고있소.》 하고 레베지는 말하였다. 《우리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심문조서를 타자쳐서 후대들에게 교훈으로 남겨놓을것이요.》

말라르츄크는 컴컴한 방안으로 끌려들어왔다. 창문들은 두터운 카텐으로 가리워져있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벽난로에 불을 때고있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세사람이 커다란 책상에 앉아있었다. 말라르츄크는 불과 얼마전까지 이 방안에 있는 모든것이 들부셔지고 그후 몇시간사이에 질서가 잡힐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새로운 질서가… 벽에는 히틀러의 초상화가 걸려있었고 깜찍하게 생긴 작은 탁상우에 17세기의 육중한 시계가 놓여있었다. 이전 주인은 이런 시계를 거기에 한번도 놓아본 일이 없을것이다. 커다란 책상우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작은 녀자용잉크단지가 놓여있었다. 이 모든것은 여기서 우연한것으로 보였으며 혼란이 지나간 후 새롭게 질서를 세운 그 사람들의 저속한 취미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그래 어떻게 됐는가, 말라르츄크?》책상 저쪽 쏘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물었다. 《연극을 다 놀았는가?》

《당신들은 누구요?》

《너는 아직도 나에게 캐묻는가?》가운데 앉은 사람의 왼쪽에 불편하게 걸터앉은 작은 사람이 말하였다. 《대답이나 해, 망할놈의 새끼. 질문은 우리가 할테다. 위원장과 그의 동료들이말이다.》

《말라르츄크, 너는 우크라이나사람이고 재능있는 의사로서 어떻게 되여 볼쉐위크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배신적으로 넘겨줄수 있었는가 하는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라.》 위원장이란놈이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럼 개같은 너의 졸개들은 어떻게 수술대에 올라있는 소년을 죽일수 있었는가? 우크라이나소년을…》

키가 작은놈이 의자에서 발딱 일어나 말라르츄크에게 씽 달려와 후려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때리지 못하고 바닥에 허양 나가넘어졌다. 외과의사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던것이다.

작은놈은 쌍욕을 퍼부으며 손으로 권총집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를 제지시켰다.

《따라스.》 그는 별스레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는 나에게 죄를 씻으라. 따라스. 나는 너를 살려주고싶다. 나는 네가 기만당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고 말한다. 눈을 크게 뜨라. 너는 로씨야짜리가 너와 같은 우크라이나인테리들을 얼마나 많이 감옥과 류형지로 보냈던가 하는것을 생각해보라.》

《그럼 너는 짜리가 로씨야인테리들을 얼마나 많이 고역장에서 없애버렸던가 하는것을 생각해보라.》 하고 말라르츄크는 대답했다.

《내가 계산해달라는가? 필요없어?》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말로 나와 말하고있지 않는가, 따라스. 로씨야짜리는 학교에서 우리 말을 배우는것을 금지시켰다. 우리를 귀머거리로 만들려고 했단말이다. 따라스…》

《그럼 쁘베도노스제브는 로씨야사람들에게 로씨야말을 배우는것을 금지시키고 슬라브말을 배우라고 지시했는가?》 말라르츄크는 비양조로 웃었다. 《너는 나와 리론놀음을 놀아야 이기지 못해.》

《나는 지지 않을것이다.》 위원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 책상을 에돌아 따라스에게 도이췰란드담배를 권하였다. 그는 의사가 비웃는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인차 놓아줄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나한테 대답하라. 따라스, 너는 로씨야놈들이 강점자들로서 그처럼 오랜 세월 우리 땅을 짓밟아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무할수 있었는가?》

《모스크바가 우리한테 온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스크바에 도와달라고 찾아갔었다. 스웨리예도 크림도 뛰르끼예도 뽈스까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자 흐멜리찌끼가 모스크바에 가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거야 단순한것이 아닌가. 위원장, 너는 고대력사를 가지고 연극을 놀지 말라. 나한테 못견딘다고 내가 말하지 않던가. 너는 우크라이나를 뛰르끼예군주에게 내맡긴 도로카에 대하여서나 생각해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뽈스까에 내맡긴 브이곱스끼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너는 우리를 칼 슈헤드스끼에게 팔아먹은 마쩨빠를 잊지 말라. 너는 우리모두를 다같이 벨쓰드스끼에게 팔아먹은 뻬뜰류라를 잊지 말라. 위원장, 너는 모스크바를 건드리지 말라. 모스크바가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어려웠을것이다. 매우 어려웠을것이다. 그러니까 연극을 끝내는것이 좋겠다. 위원장, 이젠 너희들의 방법을 시작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나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다.》

《체까에서 지시를 주던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여간 우리 사람들이 했으니까.》

《좋다. 여기에 펜과 종이가 있다. 글을 남기고 집으로 가도 좋다. 너의 얼굴이 말이 아니다. 푹 자야 할것 같다.》

《무슨 글을 쓰라는건가?》

《별게 아니다. 그저 〈볼쉐위크들, 모스크바강도들에게 속히우고 그들의 강요에 따라 범죄적인 당원으로 되였던 나는 우크라이나가

해방된 오늘 자기의 모든 힘과 지식을 나의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바치겠다는것을 선언합니다.〉라고 쓰면 된다. 그리고 요일을 쓰고 수표를 해야 한다.》

《요일이 아니라 날자이겠지.》 하고 말라르츄크는 그의 말을 고쳐주었다. 《위원장, 너는 우리 말을 모르고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써줄수 있다. 〈나는 공산당원이였고 지금도 공산당원이며 공산당원으로 죽을것이다. 쏘베트우크라이나 만세! 6월 30일. 우크라이나 볼쉐위크외과의사 말라르츄크.〉》

악당들은 따라스 말라르츄크를 반데라의 《3인위원회》가 들어있는 여기 주택 목욕탕에 빠뜨려죽였다. 그리고 그의 안해 나딸리야를 아이들의 눈앞에서 강간한 다음 총창으로 찔러죽였다. 악당들은 다섯살난 딸 마리야를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아마빛머리칼을 가진 소녀의 작은 몸뚱이는 아스팔트에서 공처럼 딩굴었다. 놈들은 녀자용브로닝권총으로 세살난 아들 미하일을 쏴죽이였다. 크라꼬브고물시장에서 구입한 이 작은 권총의 위력을 시험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형도 방금 시작되였다.

히틀러악당들은 야겔롭스크종합대학의 전체 교수들을 체포하여 집중수용소에 몰아넣고 크라꼬브를 강점한 초시기에 총살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항의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났다. 이것은 워싱톤, 스톡홀름, 베른에 있는 총통의 외교관들에게 적지 않은 장애로 되였다.

놈들은 리보브에서는 외과수술실에서처럼 모든것을 단번에 전격적으로 해치우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자기들의 손으로가 아니라 반데라악당들의 손으로 만행을 감행하려고 했다. 필요한 경우에 모든 죄과를 그들에게 넘겨씌울수 있기때문이다.

12시간사이에 반데라악당들과 히틀러도배들은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사람들, 뽈스까사람들, 로씨야사람들, 유태인들, 집시들을 총살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반주검이 되게 매질을 했다. 도시에서는 총소리, 울부짖음소리가 그칠새없이 들려왔고 피와 연기냄새가 풍겨왔다.

《해방》이 다가온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뜨루슈니쯔끼는 자기 합창단을 둘러보았다. 음악가들은 가마마차를 뒤따라 마차를 타고왔다. 록회색군복은 뽀얗게 먼지가 올라 낡은 넝마무지에서 기여나온것 같았다. 6월 21일 밤에 그처럼 윤기나게 닥달질한 화려한 외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면도 하고 휴식도 할수 있게 숙소가 차례졌지만 그들의 얼굴은 아직도 먼지투성이였다.

이즈음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게 한 흥분은 자기의 흔적을 남겨놓은듯싶었다. 흥분은 그것이 기쁜 일로 하여 생길 때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여주며 불안과 그 어떤 책임으로 하여 생길 때에는 사람을 늙어보이게 만드는것이다. 사태가 급격히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지 모를 순간에는 더욱 그러하다.

뜨루슈니쯔끼는 피로한 눈으로 자기 음악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여올랐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자신도 감격의 웨침소리, 해방의 기쁨으로 왁작 끓어번지는 소음을 헤치고 꽃주단을 펼친 여기 조국의 거리로 돌아올것을 꿈꾸었었다. 거기서는 언제나 바하와 글린까의 음악이 들려왔다. 그러나 여기 그들의 우크라이나에는 음악이 없었다. 그들을 맞이한것은 한낮의 괴괴한 정적과 밤중의 총소리뿐이였다. 이것은 강점초시기에 지하에 들어간 우크라이나애국자들의 총소리였다.

글린까가 로씨야사람이라고 하여 그의 음악은 지금 완전히 금지되여있었다.

모든 합창대원들과 뜨루슈니쯔끼는 자기들의 노래를 가지고 시내에 나가 어떻게 출연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검은 제복을 입고 로만 슈헤비치의 부관과 함께 온 도이췰란드장교가 엄격히 명령했다.

《우리의 승인없이 절대로 군중을 집합시켜서는 안되오. 우리는 당신들이 오늘 공개음악회를 조직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할수 없소. 내가 당신들의 악보를 모두 가지고가겠소. 당신들의 노

래는 군사검열을 거쳐야 하오.》
뜨루슈니쯔끼는 보잘것없는 하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벌어지고있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라고 자기자신에게 변명케 하는것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해보았다.
지어 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마저 자기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론리가 확신적이고 정당한것으로 되도록 생각을 꾸며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것이였다. 매우 어려운것이였다. 《두번째 내》가 《첫번째 나》의 론거에서 나타난 약점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이였다. 그런즉 사람은 뱀처럼 꾀바르고 교활하고 령리한 존재로 되여가고있다. 마음 한구석에는 어쩔수없이 자기가 이러한 불성실성을 인식하고있는 불행하고, 나아가서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뜨루슈니쯔끼는 이것이 예술인에게 있어서 더욱 무서운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술인은 창조적인간인것이다. 시초부터 허위에 기초한 창조물은 언제나 쇠퇴하고 갈팡질팡하고 극도로 메마른 창작가의 사색때문에 진통을 겪는것이다. 이러한 사색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시적으로 자기를 하찮은 인간으로, 달리 말하여 필요없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그래 어떻게 하자오?》 하고 뜨루슈니쯔끼는 자기 성원들에게 물었다. 《련습을 시작하지 않겠소?》
재향단체의 합창단성원들은 장마당옆에 있는 《쁘로스비따》회관에 모였다. 관람실은 좁고 먼지투성이였다. 잘 닦지 않은 어지러운 창문들은 옆으로 절커덩거리며 지나가는 땅크의 무한궤도의 진동에 드르릉 떨렸다.
누구인가 말하였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시간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즐거운 호르스트〉의 가사들을 모두 기억할수 있겠소?》
《기억할수 있습니다.》 합창단성원들은 맥없이 대답했다.
《〈즐거운 호르스트〉로부터 시작합시다. 이 노래는 매우 활기있고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국가를 부릅시다. 그렇게 합시다.》 뜨루슈니쯔끼는 합창단성원들이 반대하는것을 알아맞히기라도 한듯 다시 조용히 덧붙였다. 《친구들, 나도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지시가 이렇단말입니다. 먼저 도이췰란드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도이췰란드노래를.》

《여기 로획한 소리판들중에 끼예브아까데미야합창단의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하고 누구인가 말하였다.
《그럼 축음기는 어데 있소?》뜨루슈니쯔끼가 물었다. 《그리고 종목은 어떤것이요?》
《고전작품입니다.》 웅글은 바스성대가 대답했다. 《우크라이나고전입니다. 그리고 축음기는 필리뻰쯔가 가져왔습니다.》
합창단성원들은 빽빽이 둘러서서 축음기를 틀어놓고 소리판을 올려놓았다. 한동안 《쉬》하고 야무진 소리가 들리다가 빠또르쥔스끼의 고르로운 바스가 울려나왔다. 합창단성원들은 갑자기 키가 줄어든듯 고개를 숙이였다.
음악은 끝났으나 모두 오래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가 한동안 지나 뜨루슈니쯔끼가 가엾게 기침을 깇고 침묵을 깨쳤다.
《자, 〈아베 마리야〉를 합창으로 부릅시다.》
그는 《합창으로》라는 말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합창단성원들모두가 자기처럼 당황해하고있으며 자기들이 고립무원하고 불필요한 존재라는것을 통절하게 느끼고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절망적인 감정을 누르기 위하여 가수들에게 손을 흔들며 시작해보자고 했다.
이리하여 고정불변한 음악의 달콤한 음향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라지슬라브의 아이들과 로파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뜨루슈니쯔끼는 부지중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끌리여 밤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있는것이다. 모든 잘못은 나혼자에게 있지 않는가.)
그는 손으로 성모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찬미하는 목소리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합창을 이루게 하면서 마침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였다.
(오직 내 잘못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해주옵소서. 나에게 나쁜 생각이야 없지 않았나이까. 나는 단지 부탁을 들어주었을뿐입니다.)
뜨루슈니쯔끼의 예민한 청각이 갑자기 그 어떤 날카로운 음향을 포착했다. 누구인가 벌컥 문소리를 내고 뒤이어 뚜걱뚜걱 구두발로 땅을 짓밟으며 홀로 들어왔다. 뜨루슈니쯔끼는 몸을 홱 돌리였다.
얼굴이 벌거우리한 젊은 레베지가 화려한 군복차림으로 웃고

있었다.

《여보, 뜨루슈니쯔끼.》 그는 숭엄한 음악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허두를 뗐다. 다른 사람들같으면 그 소리를 누구도 듣지 못했을것이다. 수백개의 악기로 편성된 관현악음향가운데서 화 베몰(반음을 낮추는 기호)과 화 지예즈(반음을 높이는 기호)를 가려낼수 있는 음악가만이 그 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하물며 음악의 정신과 내용에 그처럼 란폭하게 배치되는 높은 목소리야 왜 듣지 못하겠는가.

《여보, 뜨루슈니쯔끼.》 레베지는 곱씹어 말했다. 《련습을 중지하오. 극장에 가야겠소. 우리는 당신을 책임연출가로 임명하든지 아니면 기본지휘자로 임명하려고 하오. 당신은 어느것이 중요하다고 보오?》

가수들은 제가끔 소리를 내다가 마침내 잠잠해졌다.

《래일 공연을 해야겠소.》 레베지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민족합창단의 공연말이요. 갑시다. 여기선 당신대신에 다른 사람이 돌봐주도록 하오.》

레베지는 씨물씨물 웃었다.

뜨루슈니쯔끼는 방금전까지 속으로 가책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레베지를 증오하였다. 누구나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보다 큰 사람에게 넘겨씌우려고 하는것이다. 그런데 마침 레베지가 찾아와 극장에 가자고 하면서 뜨루슈니쯔끼가 책임연출가로 임명되였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이젠 《사상가》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살찌고 거만해보이지 않는다. 그의 눈밑에 잔잔한 주름살들이 보였다. 뜨루슈니쯔끼는 이 주름살들이 자기자신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에 의해 생겨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레베지가 《고통》이라는 말과 《불편》이라는 말의 개념상 차이를 납득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몰랐다. 누구나 자기에게 운명적으로 지워지고 허용된 것만을 실행할수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레베지에게는 강도행위와 악독한짓외에 또 무슨 운명이 지워져있는가.

어둑컴컴한 극장안은 조용하고 숭엄해보였다. 뜨루슈니쯔끼는 보드랍고 엄엄한 비로도의자를 만져보느라니 갑자기 가슴속에서 오래전에 잊어진 동심과 같은 열렬한 긍지가 솟구쳐올랐다. 그는 수많은 관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는것 같았고 연미복차림으로 지휘대앞에 서서 이마에 흥건히 땀이 내밴 얼굴로 허리굽혀 인사하는 자기

를 보는듯했다. 그리고 그는 악사들의 눈길과 활대를 쥐고 고르롭게 현줄을 긁는 그들의 손동작을 느껴보고있었다. 관현악은 오직 그렇게만 지휘자에게 감동과 숭배를 표시하는것이다.

뜨루슈니쯔끼는 훅 하고 느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자기의 차겁고 긴 민첩한 손으로 레베지의 후더운 손을 틀어잡고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였을 때 그의 눈앞에 또다시 아이들한테 달려가려고 하던 라지슬라브의 얼굴이 떠올랐다. 뜨루슈니쯔끼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 환영을 몰아던졌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것은 악마가 한짓이라고 말하였다. 오직 악마만이 완전한것앞에 부분적인것을 내세우는것이다. 이 생각은 순간적으로 생겨난것이였다. 그처럼 그는 순간적으로 론리정연한 법칙을 꾸며내며 그 법칙에 따라 모든것이 질서있게 합리적으로 배치되게 하였다. 한사람의 고통은 수천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느님에게 필요한것이다. 뜨루슈니쯔끼에게 방을 빌려주고 부엌에서 술을 마시게 해주었으며 자기의 소박한 저녁식사에서 남겨두었던 사탕무우와 빵쪼각을 먹여준 라지슬라브의 고통은 극장을 관리할 권한을 받은 사람의 론리에 의하면 하느님에게 유익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뜨루슈니쯔끼는 여기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것이다. 그는 단지 외부적인 의사의 표현자에 불과했다.

분주한 장난의 복잡한 내막

《나흐티겔》이 리보브에 들어왔다는 소식과 6월 30일 거리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하여 제일먼저 자기의 베를린신문에 통보한것은 종군기자 트라우브였다. 그는 생각에 잠겨 전화기의 검은 진동판에 시선을 보내고 멀리 시내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도이칠란드장교들이 차지한 려관창문밑을 분주히 쏘다니는 순찰병들의 다급한 발걸음소리에 귀를 귀울이며 자기 방에서 편집부에 천천히 기사를 불러주

고있었다.

《오늘 저녁 서유럽에서 온 백명의 우크라이나대표들의 회의가 리보브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스떼쯔꼬가 사회하였습니다. 그는 회의참가자들에게 반데라의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민족주의군대는 대교회당과 우크라이나국가를 위하여, 유럽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위하여, 위대한 총통 아돌프 히틀러를 위하여 싸울것이다! 스쩨빤 반데라에게 영광을!〉

스떼쯔꼬의 뒤를 이어 〈나흐티겔〉의 지도목사인 그리니오흐신부가 연설하였는데 그는 회의참가자들에게 로만 슈헤비치의 재향군인위수사령부의 열렬한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야로슬라브 스떼쯔꼬를 변강자치회 위원장으로 임명할데 대한 반데라의 명령이 발표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 슬리쁘이가 참가자들에게 대주교 안드레이 쉐쁘찌쯔끼의 축복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정교의 신부 뽈리까르쁘는 회의참가자들에게 동부우크라이나사람들은 모두 하나와 같이 위대한 총통 아돌프 히틀러를 따라갈것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끝으로 회의참가자들은 반데라와 쉐쁘찌쯔끼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였습니다.》

만일 이 통보가 공식적인 베를린의 시야에 들어간 유일한것이라면 앞으로의 사태발전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반데라는 슈헤비치친구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사건들을 매듭짓기로 결심하였다. 바로 그래서 《나흐티겔》의 재향군인들이 방송국에 뛰여들어 방송원을 마이크앞에 끌어다놓고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반데라의 선언서를 읽게 했던것이다. 이것은 트라우브기자가 베를린에 자기 기사를 날려보내기 세시간전에 있은 일이였다.

물론 모스크바에서도 끼예브에서도 베를린에서도 런던에서도 베른에서도 히틀러의 앞잡이, 이 알려지지 않은 《우크라이나해방자》의 히스테리발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기의 유럽은 현실적인 국가적력량외에 환상적인 세력들을 자기 품에 안고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중에는 슬로벤스꼬의 티쏘, 흐르바쯔까의 안떼 빠벨리치, 나치스정책에 추종한 마쟈르, 로므니아, 벌가리아의 파쑈정권들이 있었다.

마쟈르외무성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선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외무성 부상에게 제출할 보고를 급히 준비하였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부상은 매연제를 먹인 투박한 참나무로 칸을 막은 드넓은 방안을 천천히 거닐며 관리에게 물었다.

《각하, 무엇이라고 꼭 찍어서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를린은 자기들이 계획한 시책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에 대한 우리의 계승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국경을 재검토할데 대한 문제를 베를린과 쉽게 합의를 볼것 같소. 나는 지도를 연구해보았소. 현 우크라이나땅에서 3천평방키로메터를 우리한테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오. 나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 령토에 대한 문제를 혹독하게 제기해본적이 없소. 그러나 부꼬비니와 그에 린접한 지역들은 명백히 마쟈르땅이요.》

《베를린이 그렇게 하려고 할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은 먼저 행동을 취한 후에 해야 하오.》

《그럼 당면한 행동으로 〈자주적인 대교회우크라이나〉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선 리보브정권과 협의한 후에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인정한 후에 협의에 응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래 하많은 외교적술책중에 이 두가지 목적을 다 포괄케 하는 그런 방법이 없단말이요? 한마디로 말하여 행동해보시오. 이 지도를 가져가오.》 부상은 새끼손가락으로 우크라이나지역이 포함된 커다란 낡은 지도를 건드렸다. 지도는 밝고 푸른색으로 채색되여있었다. 부상이 방금 그렇게 해놓은것 같았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래일로 미루지 마오.》

로므니아외무상은 리보브에서 전하는 소식에 대하여 거의 마쟈르와 같은 반응을 보이였다. 동부담당과장도 역시 책상서랍에서 지도를 꺼내여 부꼬비나지역에 금을 그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이 지역은 마땅히 대로므니아에 포함되여야만했다. 마쟈르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여기에 밝은 오렌지색연필을 리용한것이 차이였다.

동부담당과장은 3국조약의 《가증스러운 동맹자》 마쟈르가 지금 아마 협의회를 소집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부꾸레슈띠

는 신속히 행동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이췰란드공사가 외무성에 초청되여왔다. 공사의 앞에는 《대교회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로므니아의 령토적야망이 표시된 지도가 펼쳐져있었다.
《우리는 력사적인 타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고찰하고있습니다.》하고 로므니아외교관은 말하였다. 그는 안또네스꾸에게도 허물없이 드나드는 사람이였다.
《이 모든것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도이췰란드공사는 비양조로 웃었다.
《어째서말입니까? 외교에서는 마지막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위험합니다.》 동부담당과장이 대답했다.
로므니아외교관은 로골적으로 조이려들었다. 도이췰란드공사는 이것을 알아챘다. 허나 그자신은 《죄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로므니아외교관의 자존심을 허용해주어야 했다. 그는 자기를 3국동맹에서 다름아닌 위대한 세계를 대표하는 고대로마사람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무쏠리니는 무원칙한 정객으로 퇴화되여버렸고 위대한 국가사상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오직 안또네스꾸만이 흑해를 지배하고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인 해협을 통제할 강력한 로므니아국가를 부활시킬데 대하여 구상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할테면 하라지. 로므니아사람들은 조만간에 흑해기슭에서 밀려날것이며 그것은 대도이췰란드의 내부지역으로 되고말것이다.
《내가 베를린과 련계를 가져보겠습니다. 각하.》하고 공사는 지나가는 말로 약속했다.
이것으로 면담은 끝났다. 동부담당과장은 이 면담을 매우 중요한것으로 보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부꼬비나에 선참으로 《말뚝을 박았다.》고 생각하였다.
자그레브와 브라찌슬라바에서는 리보브의 보도를 더욱더 세밀히 연구하고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자존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흐르바쯔까, 슬로벤스꼬괴뢰국가들은 특수한 《자아의식》의 시기를 겪고있었다. 이 《자아의식》은 물론 자기들이 도이췰란드의 강점하에 살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인민들에게 주입될수 없는것이였다. 이러한 《국가의식》은 관료주의적 혹은 반관료주의적의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보잘것없는 무능한자들과 극도로 공명주의적인 정객들은 민족주의사상에 포로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무하고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였으며《위대한 도이췰

란드》와의 친선에 대한 《전민족적의사를 표시》하는 사업을 정열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지의 앞날을 고려하여 자기의 생활을 꾸리기에 급급하였다. 정정당당히 법에 따라 집권하지 않고 강점자들에 의거하여 정권에 올라앉은 앞잡이들은 항시적으로 래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것이다.

그러므로 반데라를 위수로 한 우크라이나의 환상적인 《독립》은 여기에서 무엇보다먼저 외무성, 국가안전성, 국방성, 무역성, 교통성, 문화성, 체신성들의 해당 파들로부터 적어도 대사의 직위는 받게 되리라고 타산하고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더욱 저조한 수준에서 평가되고있었다.

이로부터 빠벨리치와 티쏘정권들의 반응은 얼마간 뒤늦어지게 되였다. 《련쇄된 리해관계들》을 정리하여야 했던것이다. 《특명전권대사》의 직위를 꿈꾸고있는 사람은 자기 동맹자들을 찾아내여 그들에게 자기를 임명하는것이 어떻게 유익한가 하는것을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 동맹자는 자기대로 새로운 국을 노리고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삼사십명의 대부호들중에는 티쏘나 빠벨리치와 직접 이 사상을 론의할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질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도이췰란드대사관 서기관과 같은 낮은 급에서 사전에 론의되군하였다. 그런데 서기관은 대사와 달리 자기자신에 대하여, 자기 리해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있는 그 나라의 책임적인 관리와 진행한 담화내용을 베를린에 어떻게 하면 기동성있게 보낼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한다. 게다가 서기관은 국가정책에 대하여서만 생각하면서 이 통보에서 많은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꾸며내여 쓸뿐만아니라 해당한 자료를 발견하고 판정한것도 자기가 한듯이 쓸수 있다. 이것으로 하여 그의 통보는 외무성 동부국지도성원들의 관심속에 들수 있으며 거기서 또다시 지금과 같은 과정이 반복될수 있다. 즉 이 자료를 먼저 받아쥔 관리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것이다. 이 사소한 자료를 자기에게 유익하게 가공하여야 하는것이다.

립벤트롭프의 하급관리들은 외교적인 간계를 즐겨했다.

그들은 정치가 때맞게 발견되여 옳게 평가되고 필요한 목적에 리용된 시시한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자주 말하군하였다.

이번에도 바로 그렇게 되였다. 부다뻬슈뜨, 부꾸레슈띠의 공사들이 자기들의 장황한 비망록을 작성하고있을 때 브라찌슬라바와 자그

레브로부터 어느새 약삭바른 서기관들의 보고가 날아와 외무성관리들의 책상우에 놓여있었다.

립벤트롭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승리의 시각이 다가왔다는것을 알았다. 새로운 성인 로젠베르그의 동부지역성에 대한 그들의 타격은 치명적인것으로 될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이 시각에 히믈러의 부하들 특히 하이드리흐의 부관 리체는 이 모든 문건들이 외무성에 들어가기를 긴장하게 기다리고있었다. 자그레브주재 도이췰란드대사관 서기관은 제국안전총국 제6국 밀정이였던것이다. 그는 흐르바쯔까《독립국가》 외무성 동유럽과장과 《자주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담화를 진행한데 대하여 미리 쉘렌베르그에게 통보하여주고 후에 련락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베를린에 보내주었다. 히믈러의 기관은 서기관이 형식상 자기 상급으로 되여있는 외무성관리들에게 이 담화내용에 대하여 적어보내는것을 반대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오히려 적극 장려하였다.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자기 밀정이 승급하도록 협력해주는것으로 되였던것이다.

《자주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외무성에 들어왔다는것을 확인하고 부관 리체는 이에 대하여 하이드리흐에게 보고하였다. 하이드리흐는 겝벨쓰가 만들어낸 《볼쉐위크들의 류혈적인 만행》에 대한 새 선전영화시사회에 떠나려고 하는 히믈러에게 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히믈러는 윌헬름거리에서 전화가 오면 자기를 전화로 부르라고 서기에게 지시했다.

립벤트롭프는 40분후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한시간후에 히믈러에게 찾아왔다. 그들은 두시간 지나 총통에게로 떠나갔다.

리체대좌가 꾸며낸 간계는 결과를 나타냈다. 스떼쯔꼬가 라지오방송을 한 후 도이췰란드제국의 고위인물들이 반데라에 대하여 알게 되였던것이다.

리체는 히틀러국가기구의 구조를 정확히 타산하였다. 그는 군사칭호가 한계단 더 높아졌다. 하이드리흐는 그의 능숙한 솜씨를 평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 상급들의 야심적인 투쟁을 도와주었던것이다.

히틀러는 광란을 부렸다. 그는 회색대리석을 깐 드넓은 자기 방안을 미친듯이 오락가락하며 소리질렀다.

《나는 자신이 무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소! 나를 군대와 싸우게 하려

는 사람들이 있소! 나를 민족과 싸우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소! 내가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에 대하여 약속하였는지 말해보오! 나는 언제나 오데르강으로부터 우랄까지의 동쪽땅은 식민지에 속한다고 확인했소! 이 땅들은 모두 도이췰란드 병사들과 거류민들에게 차례질것이요!》

히믈러는 립벤트롭프를 쳐다보았다. 그는 동정어린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였다.

《나의 총통, 저도 당신못지 않게 격분하였습니다. 부총통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는 제가 격분하고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군대는 여기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 구상이 새 동부지역성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저는 로젠베르그상을 알고있습니다. 아래사람들이 그를 속였을수 있겠지요.》

히믈러가 그의 말을 받아넘겼다.

《나의 총통, 저도 한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립벤트롭프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브웨르가 이 추악한 놀음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놀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대신에 정치에 끼여들려고 하는 까나리스의 특수선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고있습니다.》

《군대는 다치지 마시오.》 히틀러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통은 자기 부관 슈문트에게로 몸을 홱 돌렸다.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해 눈이 우묵하게 기여들어간데다가 성까지 나서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로젠베르그를 나한테 오라고 하오!》

히틀러는 주위를 둘러싸고있는 그늘로 하여 지금 별스레 커보이는 충혈된 눈으로 슈문트의 균형잡힌 꼿꼿한 등을 바래우고나서 히믈러와 립벤트롭프에게로 돌아왔다.

《히믈러, 내 생각엔 당신이 끄흐에게로 떠나가야 할것 같소. 그는 암담하게 꺼져들고있는 로젠베르그가 아니라 당의 리익을 대표하고있소. 우크라이나사람들이 우리 병사들에게 총을 쏘고있소. 그들은 우리와 싸우고있고 그들은 쏘베트를 보위하고있소. 그런데도 로젠베르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꽃을 안겨줄것이라고 말하고있소! 한마디

로 말하여 거기 가서 질서를 세우시오. 그리고 슬라브놈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허용한 모든 관리들을 즉시 베를린으로 돌려보내오! 장본인들은 처벌해야겠소!》
보르만은 히믈러, 립벤트롭프와의 동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처럼 능란한자들이 배겨있는 이 강력한 기관들이 그를 뒤로 밀어던질수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보르만은 게링그와 로젠베르그에게 리보브에서의 야만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총통이 분개하였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게링그와 로젠베르그는 륙군원수 카이젤과 만났다. 공동의 립장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이 립장의 최종목적은 히믈러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자는데 있었다.

간나 뻬로꼬뻬츄크 (6)

에쎈과 그의 설계가들이 고안해낸 작은 규모의 수용소들은 매우 형식적인것들이였다. 수용소는 서둘러 건설한것이 분명했다. 가시철조망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아래로 늘어졌고 발전기실에서 시작된 전선은 너무도 눈에 띄게 굵은 콩크리트기둥들에 의거하여 수용소구내로 30메터가량 뻗어나갔다.
《얼마나 보기 흉하게 되였는가 좀 보십시오.》하고 에쎈은 간나에게 말하였다.
《저는 벌써 생각했어요. 다만 나는 이 전선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로 전류가 통하게 됩니다.》
《왜서말이예요? 조명시설은 구내 저쪽 소형발전기에 련결되여있던데요.》
《이건 다른 전류입니다.》 에쎈은 이마를 찌프렸다. 《고압전류이지요. 이 전선을 지하까벨로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십시오.》
《좋아요.》
이 며칠동안 간나는 늘 뽀얗게 먼지를 들쓰고 서둘러대며 분주히

차를 타고다니였다. 와르릉거리는 땅크소리, 뜨거운 볕에 얼굴이 까맣게 탄 어지러운 병사들의 왁작 떠드는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이 속에서 그는 오직 에쎈만을 성실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병사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있고 자기가 왜 그들과 함께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간나는 오직 하나만은 알고있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를 여기 크라꼬브로 데리고왔고 바로 이 사람이 아이들을 찾아줄것이라는것이였다. 간나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기가 무서웠다. 그는 라지슬라브가 아이들을 못데려가게 할것이라는 생각을 자신에게서 쫓아버리려고 애썼다. 간나는 만일 남편이 아이들과 할머니와 함께 떠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명령하여줄것을 에쎈에게 부탁할 생각까지 하고있었다. 어쨌든 남편은 훌륭한 산림기사이며 전문가가 아닌가. 도이췰란드사람들도 그에게 관심을 가질것이다. 간나는 에쎈을 보면서 그를 어둡고 사나운 여울목의 그 어떤 믿음직한 부표처럼 생각해보려고 했다. 대위 모리스 그라샨이 몇번에 걸쳐 간나를 낚시터로 데리고간적이 있었다. 그는 듄케르크근방에서 전사하였다. 그가 전선에 가서도 편지를 보내온것으로 보아 간나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두고있은것 같았다. 국방성에서 간나에게 부고를 보내왔다. 죽은 사람의 의욕은 이러했다. 그라샨이 낚시질을 하던 거품쳐흐르는 컴컴한 여울목에서 부표는 그때로부터 평온의 상징으로 되였다. 그라샨은 간나를 격분시키지 않은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되였다. 그는 자기의 첫번째 안해를 탓하지도 않았고 간나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혹은 자기를 다른 남자들보다 썩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있는가 하는것을 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나에게 결혼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전화를 걸어 간나에게 시간이 있는가, 하루를 함께 보낼 생각이 없는가 하고 물었을따름이였다.

간나는 에쎈이 요구하는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그것도 날쌔게 그리고 정확히 하였다. 에쎈은 자기에게 천태만상으로 시름거리가 쌓여있었지만 간나가 한 일은 꼭꼭 검열해보았다. 수용소 식량창고를 에쓰에쓰경비대건물로부터 좀더 멀리 옮겨가야 했다. 그리고 장교들의 숙소지붕을 처음에 물결모양의 합석으로 씌우기로 예견하였었는데 폴중장의 참모부가 기와로 바꿀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복무하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조국에서처럼 익숙된 환경에서 살고있다는것을 항

시적으로 느끼게 하려는것이였다. 보르만의 대표는 에쎈에게 에쓰에쓰는 모든것을 일식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관건설을 반드시 예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사회당원들이 경축집회와 회의를 진행할 장소가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간나의 설계초안은 경제적이고 화려한것으로 하여 에쎈의 마음에 들었다.
간나는 그루빠성원들의 눈에 점차적으로 자기에 대한 적의가 로골적으로 표현되는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간나가 그리 눈에 띄지 않았었다. 트렁크마냥 자리도 크게 차지할것이 없고 방해될것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트렁크는 역시 트렁크인만큼 거기에 무엇이든 물건들을 넣어서 날라야 하는것이다. 사람들은 점차 간나를 책임자에게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녀자를 도이췰란드제국에서 모든 권리를 잃은 외국기술자로, 혈통이 다른 사람으로 보았다.

간나는 이것이 위험한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총에 맞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솔길옆에 서있는 새끼때문에 숲속으로 달아나지 못하는 염소처럼 일신의 위험에 대한 감각이 아예 무디여졌고 아이들이 없이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는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그루빠가 오스벤찜에서 《사용하고있는 대상》을 보려고 떠났을 때 에쎈은 한동안 간나를 데리고가는 문제를 놓고 망설이였다. 이 녀자가 거기에 가면 자기 동족들을 볼수 있게 되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그처럼 뜻밖에 찾아든 재능있는 새 일군의 믿음성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꼭 데리고가기로 결심하였다.

에쓰에쓰장교들은 무슨 냄새가 역하게 풍겨오는 소나무숲을 지나 에쎈의 그루빠를 안내하였다. 길에는 하얗게 모래가 깔려있었다.

숲속에서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새가 굉장히 많은것 같았다.

갑자기 눈앞에 수용소가 펼쳐졌다. 철길과 얼마간의 차량들, 높다란 큰뚝, 촘촘히 늘어선 콩크리트기둥에 의지한 담벽, 정확히 설계된 작은 정원들에 둘러싸인 에쓰에쓰의 아담한 건물들, 구내에 늘어선 바라크들, 얼굴에 재빛가루를 들쓴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안겨왔다. 간나는 사람들이 철조망 저쪽에서 무엇인가 하고있는데 딱히 무엇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왜냐하면 수인들가운데서 얼룩얼룩 줄간

옷을 입은 키큰 사람을 띄여보았던것이다. 그는 불균형적으로 얼굴이 크고 무거운 따치까손잡이를 불안하게 잡고있는 손이 우둔하게 생겼다.
《좀 세워주세요!》하고 간나는 소리질렀다.
운전사는 얼결에 차를 세웠다. 간나는 차에서 내려 철조망쪽으로 달려갔다. 달리면서 에쎈이 《거기는 전류가 흐릅니다.》하고 새된 소리를 지르는것을 들었다.
《라지슬라브!》 간나는 에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리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다. 《라지크 라두슈끄!》
라지슬라브는 몸을 옹크렸다. 갑자기 작아진듯했다. 무섭게 작아진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사위를 둘러보다가 간나를 발견하고 철조망쪽으로 달려왔다.
《간누슈까, 여보 간나!》
《왜 그러세요?》 간나가 소리쳤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어데 있어요?!》
수용소구내로 길다란 끈을 맨 개들을 앞세우고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아이들을 붙잡아서 끌어갔소! 간나, 간누슈까, 당신이 여기에 왔구만. 아이들과 어머니를 찾소. 어머니도 역시 아이들과 함께 여기로 끌려왔소. 그들을 여기서…》
그는 개들이 달려들어 물어메치는바람에 채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리고 간나는 이 순간 뼈가 부서지는듯 아프게 자기 손을 틀어잡는 우악스러운 손아귀를 느꼈다. 그리고 뒤미처 에쓰에쓰장교들과 에쎈의 커다란 얼굴들을 보았다. 허나 그는 의식을 잃고 수인들속에서 보았던 그 재빛얼굴을 더는 볼수 없게 되였다.
게스타포성원들은 날카로운 적의를 품고 바라보면서 에쓰에쓰내에서 직위상 상급인 에쎈에게 우크라이나녀자의 아이들은 이미 처단되였으며 그 녀자의 가족들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의 비밀을 위협하는 사람들로서 아브웨르의 밀정 레베지라는자의 요구에 의해 체포되였다고 보고하였다. 순간 어려서부터 일을 제일 중요한것으로 여겨온 활동력이 강한 도이칠란드사람인 에쎈의 기질이 살아났다. 게스타포는 벌써 제국안전총국 크라끄브국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그들은 지금 에쓰에쓰소장 크류게르에게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크류게르 역시 하이드리흐를 만나러 간 폴중장의

지시를 기다리며 전화기옆에 앉아있었다.
《자료에 이 불행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도이췰란드제국을 위해 일하고있으며 우리 사업에 큰 리익을 가져다주고있다는것이 지적되여있습니까?》 에쎈은 한마디한마디 강조하며 천천히 말하였다.
《우리는 그 녀자가 빠리에서 살았으며 건축에 종사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자료에는 쁘로꼬쁘츄크부인을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간부그루빠에 넘기자는 반데라의 요청이 지적되여있습니다.》
《그럼 나한테서 일군을 빼앗아간데 대하여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그 악취가 나는 반데라를 비롯한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이 책임지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관료주의자들이 지게 됩니까?!》
장교는 쏘파에 누워있는 간나를 피끗 바라보고 랭담하게 말하였다.
《당신의 일군이 벌써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좌.》
《그는 정신을 차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 같이 그렇게 일하지 못할것입니다. 당신은 그따위 술찌꺼기같은것들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길것 같습니까?! 당신은 후방이 질서있게, 깐지게 일해나가기를 바라고있습니까?! 당신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이나 해봅니까?! 당신은 동물적행동이 아니라 사려깊은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게스타포장교는 성을 발칵 냈다.
《당신은 크류게르소장의 명령을 토의하려고 여기 와있습니다. 이것은 당적도덕규범에 어긋나는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상급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보고하겠소.》
그는 상급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폴중장은 에쎈과 대면해보지도 않고 그의 군사칭호를 박탈하여 보통병사로 전선에 보낼것을 명령하였다. 하이드리히는 노발대발 성이 났다.
《우크라이나녀자를, 그 더러운 슬라브년을 수용소에 데리고갔단말이요?! 그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 이건 당신의 자유주의요, 폴! 이 모든것은 당신의 자유주의탓이란말이요! 에쎈은 자기를 어쩔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소! 우리는 수천명의 건축가들을 얻을수 있소! 그들은 일자리를 준데 대하여 우리 손에 입을 맞출거요!

그자를 전선에 보내시오! 총알이 비발치는 곳으로 말이요! 그렇게 하면 자만자족병을 잘 고칠수 있을거요!》

군사칭호를 박탈하라고 한것은 폴의 발기였다. 그는 자기가 에쎈을 호의적으로 대한데 대하여 모두가 알고있었기때문에 과도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하였다. 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이드리흐가 자기를 건드릴수 없게 최고의 원칙성을 발휘하고 응당한 발기를 내놓아야 했던것이다. 하이드리흐는 다만 전선에 대하여서만 말하였다. 헌데 폴은 명령서에 《보통병사》로 보내달라는것을 첨부하였다.

간나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소심해졌다. 그는 이 며칠사이에 몰라보게 늙고 파리해졌다. 그리고 얼굴은 늘 부어있었다. 눈시울은 무겁게 드리워져있었고 눈은 마치 동공이 없어진듯 멍청해보였다.

에쓰에쓰건축설계실장으로 릴튼에서 온 노베라는 녀자가 새로 임명되였다. 폴중장은 노베에게 높은 직위로 파견한다는것을 알려주면서 그와 진행한 지도담화에서 가까운 앞날에 건축설계실의 대부분 남자들이 전선에 나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부에서 공격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할 대상이 많아지는데 비해 능력있는 건축가—장교들이 부족했던것이다. 로씨야사람들은 떠나가면서 어느 한 공장이나 발전소도 성한채로 남겨놓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포로된 전문가들을 보내주겠소. 그들은 지금까지 도이췰란드사람들이 해오던 일을 해야 할것이요.》폴은 속으로 자기가 에쎈과 론쟁을 계속하고있다고 느끼면서 말하였다. 그는 에쎈을 믿어왔다. 그러나 모든것에는 한계가 있는것이다. 에쎈은 자기자신을 속이고 그를 속이였다. 모든데서 그리고 언제나 선택할줄 알아야 한다. 가능성과 있을수 있는 일들을 정확히 타산하면서…

《그들은 도이췰란드전문가들 못지 않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것을 실행하여야 하오. 그 어떤 관대성도 있어서는 안되오. 승리자는 자기 힘을 느껴야 하는것이요. 오직 이것만이 패배자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히 유지하게 하여줄것이요. 여기에서 물론.》 그는 덧붙였다. 《리성적인 엄격성이 절도가 있어야 하오. 우리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어리석은 편견으로 자기 인격을 깎아내려서는 안되오.》

에쎈과 달리 노베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과

녀자들을 위한 특수바라크들을 속히 설계하여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집중수용소들이 유럽에서 모든 악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필요할것이라고 말했다. 쁘로끄쁘츄크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알수 없다. 이것은 간나의 사업성과에 따라 밝혀질것이라고 하였다. 간나의 남편은 무슨 죄로 기소되였는가? 그는 반국가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노베는 간나가 기억속에서 남편에 대한 생각을 빨리 제거해버릴수록 좋을것이라고 하였다. 도이췰란드민족의 적은 동정을 받을수 없다는것이다.

간나는 쉰살난 도이췰란드녀자의 토막토막 끊어진 대답을 듣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방안에는 에쎈의 씁쓸한 담배냄새가 배여있었다.

그는 초점잃은 멍청한 눈으로 설계대에 압정으로 고정되여있는 커다란 흰 와트만지를 바라보다가 잘 움직이지 않는 차거운 손에 연필을 쥐였다. 이제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머리속에 그 어떤 생각도 붙잡아놓을수가 없었다. 그는 항시적으로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였고 그들의 얼굴을 그려보았을뿐이였다. 그러나 뛰놀며 웃는 아이들을 그려보던 빠리에서와는 달리 지금 그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고있는것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것 같았다. 아이들의 눈은 작은 새가 둥지에서 포르르 날아나오기를 기다리는듯 긴장하고 놀란 눈빛이였다.

간나는 영원히 운동을 멈추고 굳어진듯한,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자기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이 살아있지 않은 얼굴뒤에는 때때로 그 끔찍한 줄이 간 옷을 입은 키가 큰 아이들의 아버지가 손에 따치까를 잡고 나타나군하였다. 그리고 철조망도 보였다. 그럴 때면 간나는《거기는 전류가 흐르고있습니다.》하고 웨치는 에쎈의 목소리를 듣는듯했다. 그리고나면 또다시 허무한 공허감이 온몸을 휩싸고 마치 누구인가 《더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만두시오.》하고 조용히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간나는 누구인가 문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와뜰 놀랐다. 간단없이 가슴이 죄여들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일을 시작할수가 없었다.

《생각을 충분히 해봤어요? 이젠 일을 시작할 때가 된것 같은데 쁘로끄쁘츄크, 시간은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예, 예, 알겠어요.》하고 간나는 대답했다. 《이젠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다만 정신을 가다듬기만하면 돼요, 노베부인.》

《래일 저녁때까지 설계초안을 내놓으시오.》
《좋아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어요.》
《노력할것이 아니라 해야 해요.》
간나는 약속된것을 실행하였다. 그는 와트만지에 순전히 유리창으로 된 이상한 집을 그려놓았다. 한쪽면의 경사진 지붕은 마치 해를 향해 기도를 드리다가 굳어진 구부러든 녀자의 손바닥같았다.
온벽을 차지한 큰 창문곁에는 작은 물놀이장이 있었다. 아이들이 물을 보면 물장구를 치기 좋아하지 않는가. 게다가 물은 눈부시게 해를 반사한다. 구름이 낮게 드리워있을 때마저 물에는 늘 해가 비껴있게 된다. 간나는 아이들에게 철조망이 보이지 않도록 멀리 점선으로 표시했다.
《아니, 이건 뭐예요?》 노베는 연필로 물놀이장옆의 괴상한 언덕을 짚고 물었다.
《이건 모래예요.》 간나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모래로 집을 짓기 좋아하지 않나요. 애들이 모래로 집을 지으라죠. 모래를 실어오는것이 비싼것도 아닌데…》
노베부인은 간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방에서 나갔다. 이 우크라이나녀자는 해를 잡는 놀음을 놀고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구상을 실현해보려고 하는것이다.
노베부인은 민족사회당대표와 간나문제를 놓고 의논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녀자가 정말 자제력을 잃었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육체적로동과 더불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하여 의학적실험을 진행하는 집중수용소로 간나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노베부인은 쁘로꼬쁘츄크의 설계도면을 자기가 가졌다. 1년후 그는 이 도면을 선전성에서 조직한 고아원설계콩클에 제출하였다. 이 고아원은 아버지가 동부전선에서 죽고 어머니는 영국의 폭격에 죽은 고아들을 위하여 건설하는것이였다. 《노베부인의 설계》는 히틀러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도이췰란드제국의 공업이 완전히 국방적목적에 전환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1944년 폭격시에 도면이 불타버리고 초안조차 남지 않았다. 설사 그것을 갱신한다고 해도 누구도 간나 쁘로꼬쁘츄크가 설계하였던것처럼은 하지 못할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간나가 잃은 그 가장 귀중한것을 잃어야 할것이다.
간나는 행복하게 숨졌다. 몹시 굶주린 그를 실험을 위해 멘겔레의

병원으로 실어갔을 때 그는 속이 텅 빈 자기를 느끼면서 두고온 그때의 자기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방울을 굴리는듯 까르르 웃고 있었고 향취를 풍겼다. 그러나 살갗은 꺼칠꺼칠하고 손톱이 어지러웠다. 누구도 애들의 손톱을 깎아줄 사람이 없는것이다. 아이들은 손톱깎기를 매우 무서워했었다. 다만 어머니만이 아이들을 하얀 타올수건으로 감싸서 목욕탕에서 데리고나와 옛말을 들려주면서 손톱을 깎을수 있었다. 아이들은 가위를 보면서도 옛말을 들으며 울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다리가 가늘고 긴 그 새끼염소의 눈과도 같았다. 멘겔레는 지어 그의 얼굴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죽음의 가면은 그처럼 행복하고 그처럼 태연하고 그처럼 정답게 보였고 자기에게 아이들을 볼수 있게 하여주고 아주 쉽게 폭신폭신한 길로, 정적속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갈수 있게 하여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있었다. 이 정적은 주위에서 들려오던 수없이 많은 새들의 즐겁고 정다운 노래소리가 적막속에 잠겨들자 깃든 정적이였다.

무엇인가 증명해야 한다

슈틀리쯔는 전화종소리에 잠에서 깨여났다. 아직 게링그거리로 개칭되지 않은 여기 리보브의 붉은군대거리에서 이 전화종소리는 그에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위험한 순간에 언제나 그렇게 하듯이 슈틀리쯔는 천천히 머리맡의 불을 켜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새벽 3시였다. 전화는 여전히 울리고있었다. 반복하여 울리는 이 전화종소리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깃드는 불안한 정적속에는 무엇인가 안도감과 더불어 쓸쓸한것이 깃들어있는것 같았다.

(내 신변에는 아무 일도 없다.)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그는 이 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시보영화를 보듯이 생각을 굴리였다. (만일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전화를 걸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전화도 걸지 않고 내가 디쯔를 폭로한것처럼 슬며시 문을 열것이다.)

그는 전화기에 손을 뻗쳤다. 순간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손가락이 싸늘해지고 뒤머리가 뻐근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이것이 마그다와 련관된것이면 어찌겠는가?) 만일 마그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는 자기에게 대답할새도 없었고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하고 결심할새도 없었다. 그는 제꺽 송수화기를 쳐들었다.
《슈틀리쯔가 전화를 받습니다.》
《나 디쯔요.》 그는 게스타포놈의 별스럽게 만족해하고 어딘가 특별한데가 있어보이는 청높은 목소리를 들었다.
《좀 일찌기 전화를 걸순 없었소?》
《그랬더라면 아무 의의도 없었을거요. 베를린에서 비행기가 떠나지 않았댔으니까.》
《베를린에서 비행기가? 그게 무슨 소리요?》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못되오. 포흐트한테 찾아가보오. 이건 당신의 리해관계에 맞을거요. 나도 오베들렌더를 데리고 인차 포흐트에게로 가겠소. 나는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고싶지 않았소. 당신은 누구보다도 이 개같은 자식을 잘 알고있지.》
《좋소. 무슨 일인지 모르긴 하겠소만.》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못되오.》 디쯔는 환희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그가 어떤자인가 하는것을 증명할수 있었소.》 하고 수화기를 놓았다.
슈틀리쯔는 침대에서 일어나 수도물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물은 얼음같이 차거웠다. 슈틀리쯔에게는 물맛이 오래전에 잊어진 로씨야 물맛같이 느껴졌다.
옷을 입으면서 그는 베를린의 물과 그가 유년시절부터 기억하고있는 그 물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국의 물은 얼음같이 차고 맑았다. 그렇다. 바로 맑은 물이라고 해야 한다.
담청색물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너무 굼뜨게 느껴진다. 민활하지 못한것은 모두 가엾고 어리석은것이다. 사색과 동작에서 민활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보다먼저 자기의 인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것이다. 자기 인격에 대한 항시적인 관심은 병적인 의심으로 선한 행동에 대한 불신임으로 변화된다.
(가만 있자.) 슈틀리쯔는 자기 생각을 중지하였다. (내가 물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정말 어리석은짓이다. 물은 어디서나 같은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처한 내적형편에 따라 숭배하고있는 대상의 성질을

물에 부여하는것이다. 나는 자기가 왜 이처럼 집요하게 공상의 세계를 찾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상의 세계에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안정을 얻기 위해 자기자신과 장난을 하고있는것이다.)

바로 이 시각 후고 슐쯔는 보덴그라우제의 저택옆에 승용차를 멈춰세웠다. 그들은 류프트카페에서 진행된 경축연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였다. 슐쯔는 인그리드가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준 다음 그를 무거운 철대문까지 데리고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붙안고 술주정을 하십시오. 이제 곧 그들이 구배길에 나타날겁니다.》

인그리드는 발뒤축을 쳐들고 슐쯔를 그러안고 그에게 몸을 바싹 붙이였다. 정말 구배길에 《오펠》이 나타났다. 차에는 키꼴이 장대한 게스타포놈들이 타고있었다. 이들은 보통사람의 눈에 띄우지 않는 모든것을 가려보는 능력을 숙달한자들이였다. 놈들은 자기들이 감시하고있는 대상들을 발견하였다. 운전사가 속도를 늦추자 이들은 익숙된 동작으로 《방심》한체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쪽으로 꼬리를 사렸다.

《이제 놈들이 돌아올겁니다.》후고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니까 계속 붙어있어야 합니다.》

《뒤머리를 문질러줄가요?》

《난 그런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슐쯔가 대답했다. 《왜 웃습니까?》

《나는 막 울고싶을 지경이예요.》

《쿠르트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있습니다.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여내면 놈들이 아직도 한 둬달 더 우리를 끈덕지게 감시할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지금 사교적인 접촉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크라꼬브로 더이상 보내지 않겠지요?》

《당신은 거기에 갔다오지 않았습니다. 인그리드, 당신은 거기에 갔다오지 않았단말입니다. 전혀 가본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난 사람도 없고…》

인그리드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만났어요. 후고…만났어요.… 하긴 쿠르트도 역시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 당당하게 행동하고있어요.》
그는 《오뻴》이 다시 굽인돌이에서 나타났을 때 후고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무거운 대문을 열고 천천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슈틀리쯔는 불안에 잠긴 한적한 새벽거리를 떠나 포흐트의 집으로 가면서 도이췰란드병사들이 황록색 반데라의 기발을 내리우고 붉은 바탕에 흰 동그라미가 있고 그가운데 검은 만자가 그려진 어마어마하게 큰 도이췰란드제국의 기발을 세우고있는것을 보았다.
(이것은 놈들사이에 싸움이 시작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혹은 아닐수도 있지 않을가? 혹은 내가 앞질러가며 욕망을 현실로 보고있는건 아닌가? 하긴 싸움인들 왜 시작되지 않겠는가? 군대는 공격을 지향하고있었으나 믿음직한 후방이 없었다. 그런즉 여기에서 히믈러, 보르만, 로젠베르그사이에 싸움이 벌어질것이다. 과연 이 거두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질수 있겠는가? 왜 어제는 반데라의 기발이 온 도시를 어지럽게 뒤덮었고 에쓰에쓰병사들이 태연히 걸어가며 피를 물고 날뛰는 《나흐티겔》놈들과 나치스식인사를 주고받았는가? 왜 어제는 《나흐티겔》순찰병들이 뒤덮여있었는데 오늘은 반데라의 재향군인들이 한명도 안보이고 거리에 온통 검은 제복뿐인가? 디쯔는 어째서 나한테 전화를 걸면서 그처럼 환희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는가? 그는 왜 포흐트를 《개자식》이라고 하였는가? 포흐트는 지금 그의 상급이 아닌가. 혹시 디쯔가 포흐트보다 높아졌는가? 아니다.
이것은 어쨌든 싸움의 시작이다. 만일 내가 나의 론리와는 관계없이 저절로 발전하고있는 사건에 나의 의사를 강요한다면 내가 분명히 실패할수 있다. 디쯔는 엘레나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무슨 행동이든지 서슴지 않고 감행할수 있을것이다. 혹시 그렇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가? 나는 패할수 없다. 지금 나와 같은 위치에 서있는 우리 사람들이 매우 적은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내가 만일 옳게 행동하고있다면 내가 바라고있는 그것을 얻는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것이다. 이것이 모험인가? 모험이다. 모험으로 자기를 놀래우는 것은 우스운것이다.)
포흐트는 낯색이 새파랗게 질려 전화기옆에 앉아있었다. 그는 슈틀리쯔에게 손이 떨리는것을 감추려고 무진 애를 썼다.
(누구인가 먼저 디쯔를 움직이게 하였다.)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

했다. (군대가 미리 그에게 예고해준것 같다. 비행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군대가 받아들이고있지 않는가. 에쓰에쓰가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군대의 승인이 없이는 비행기를 한대도 군용비행장에 착륙시킬수 없는것이다. 전쟁은 역시 전쟁이니까.)

슈틀리쯔는 라지오를 켜고 대형《필립쓰》의 진공관이 달아오를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음악의 첫 선률이 울려나왔다. 그 음향은 마치 가볍게 떨리는 라지오의 천결면을 억지로 뚫고나오는듯하면서 점차 높아졌다. 슈틀리쯔는 담배를 붙여물고 포흐트에게 눈으로 벽에 있는 통기구멍을 가리키며 천천히 성냥을 껐다.

포흐트는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통기구멍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의 눈에 무엇인가 반짝하더니 즉시 꺼져버렸다. 슈틀리쯔는 왜 그것이 꺼져버렸는가 하는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믿지 않고있다. 그에게 차이점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했다. (포흐트는 차이점을 알게 될것이다. 그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자기 기관을 통해 알게 될것이다.)

《이제 곧 디쯔가 올거요. 그는 오베들렌더를 데리고오오. 그는 당신을 비행장에 실어내가려고 오는것이요.》 슈틀리쯔는 조용히 말하였다. 《비행기는 벌써 베를린에서 떠났소. 여기에서 검거가 시작되지 않았소?》 그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나는 모르고있소.》하며 포흐트는 입도 크게 벌리지 않고 말하였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를 스떼쯔끄나 레베지와 전화로 련결시켜주지 않고있소. 반데라와는 마찬가지요.》

《내가 당신을 구원해주겠소.》 슈틀리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당신을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구원해주자는것이 아니요. 나는 그런 감정을 잃은지 오래오. 이건 귀베라(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괴물)나 같은것이요. 나는 당신을 우리의 리익을 위하여 구원하자는거요. 내가 게스타포성원이 아니라 정치첩보국성원인 까닭이요.》

《미안하지만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포흐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손톱이 파르스름한 희고 매끈한 손으로 관자노리를 문지르기 시작하였다. 슈틀리쯔는 갑자기 그의 관자노리가 몹시 차겁고 축축해있을것이라고 느꼈다.

《알아맞춰보오. 시간이 없소. 당신은 모든것을 알고있지 않소. 포

흐트,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인차 리해할거요. 나는 당신이 자그레브에서 디쯔와 함께 우리의 첩자 끄쏘리치에 대한 간계를 꾸몄을 때 벌써 당신을 없애치울수 있었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소. 왜 그랬는가? 그것은 당신이 디쯔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기때문이였소. 디쯔는 게스타포이지만 당신은 국경밖으로 나다닐수 있는 다른 기관의 사람이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하오. 포흐트, 당신이 나의 첩자로 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지금 관계를 새롭게 할수 있소.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살아날수 있는 방도를 알려줄것이요. 나는 자기가 생각하고있는것을 그대로 말하고있소. 나한테는 매우 시간이 적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

《형식적인것을 집행하면 되오.》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할수 있다는거요? 나는 당신이 무슨 방도에 대하여 말하고있는지 모르겠소. 나는 아무 죄도 없소. 나는 총통과 도이췰란드제국에 충실한 사람이요.》

《그건 노래와 같은 소리요.》 슈틀리쯔는 이마를 찌프리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들어봤소. 그건 나한테 흥미없소.》

《난 장교요, 슈틀리쯔.》

《그건 좋은 일이요. 더욱 좋소.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의심하여 괴로와하는거요? 당신에게는 두길밖에 없소. 나의 첩자로 되는가 아니면 에쓰에쓰견장을 떼우고 자기 몸에 십자가를 걸머지는가 하는 길만이요. 당신은 우리가 곳곳에 자기 첩보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을거요.》

《내가 뭘 써야 하오?》 포흐트는 딱딱 소리나게 손가락마디를 꺾었다. 슈틀리쯔에게는 그 소리가 바람에 떨어진 마른 나무가지꺾는 소리처럼 들렸다.

《먼저 가명을 생각해보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소. 〈나는 볼젠이 주는 모든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요구되는 모든 자료들을 그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의 리익권에 들어있는 나의 모든 부하들이 그를 도와주도록 하겠다.〉라고 말이요. 마지막에 자기 가명으로 수표를 하오. 두번째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쓰되 다만 가명대신에 자기 성과 이름을 쓰고 당신이 문건들에 수표하듯이 그렇게 수표를 하오.》

(만일 슈틀리쯔가 희생되면 두번째 문건이 본부에 가있게 되는만큼 그를 대신하여 오는 사람에게 슈틀리쯔가 다른 모든 경우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포흐트가 집행하게 할수 있는 근거를 주게 될것이다.)

《나는 상급들의 눈을 쳐다볼수 없게 될거요. 슈틀리쯔.》 포흐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울렸다. 슈틀리쯔는 이전에 그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낮게 들렸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아마 그는 목소리의 음질과 그 위력이 파쑈국가의 조건에서 승급에 적지 않은 역할을 놀고있다는것을 정당한것으로 믿고 자기 목소리에 매우 주의를 돌리고있는것 같았다. 보르만의 사무실에서는 《현세계의 강자》후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있었다. 여기에서 외모, 목소리, 매력, 해학적인 품성과 같은 자료들은 대상의 지혜, 실무적능력, 인종적가치, 교육, 민족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충실성정도에 대한 자료들과 똑같이 문건에 기록되고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는것이 아니요. 포흐트.》 슈틀리쯔가 말하였다.《나는 당신에게 그 어떤 강요도 하지 않소. 그저 나는 당신에게 구원의 방도를 알려줄 시간이 없을뿐이요.》

《내가 첫번째 글을 쓸터이니 나에게 방도를 알려주오. 그다음에 내가 두번째 글을 쓰지.… 당신이 정말 나를 믿지 않는단말이요?》

《물론 그렇지는 않소. 내가 당신을 믿을수 있기엔 당신이 너무도 겁을 먹고있소. 당신은 내가 확인서를 받아야 당신이 살아남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하오. 우리는 전망성없는 사람들은 흡수하지 않소.》

포흐트는 두번째 확인서를 써서 슈틀리쯔에게 내밀었다. 그는 갑자기 놀라서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거리로 자동차가 달려갔던것이다.

《이건 그 사람들이 아니요.》 슈틀리쯔는 포흐트가 놀라는 까닭을 알아차렸다. 《화물자동차요. 그런즉 베를린에서 당신을 심문하기 시작하면 그렇소, 그렇소, 거기서 당신을 심문할거요. 당신은 디쯔에게 반데라에 대하여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다고 대담하게 말하오. 당신이 기억하고있는데 의하면 그에게 이것만 이야기한것이 아니라고 말하오. 그리고 슈틀리쯔가 아브웨르의 명령으로 작성된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 〈Б〉로선에 대하여 격

정하고있으며 디쯔와 당신에게 이에 대하여 예고해주었다는것을 강조하오. 당신은 게스타포가 모든것을 알게 되여있는것만큼 반데라의 행동이 승인된것으로 확신하고있었다고 주장하오. 당신은 반데라의 이러한 구상과 행동이 아브웨르의 원대한 구상의 결과였다는것을 베를린이 모르고있다는 생각을 허용할수 없었소. 당신은 로선에 대하여 책임지고있었소. 당신의 로선은 절대적인것이였소. 체포당한 모든 우크라이나공산당원들, 로씨야사람들, 유태인들, 뽈스까사람들은 고립되여 청산자명단에 올랐소. 그렇지 않소?》

《모두 그런건 아니였소.》

《모두가 그렇게 되였다고 주장하오. 멜리니크가 자료들을 준비했소. 그가 후방에 대하여 책임지고있지 않았소. 그렇지 않소?》

《그렇소.》

《그런데 멜리니크는 우선 게스타포사람이요. 아브웨르는 둘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타격에서 벗어나게 될것이요. 옳지, 이건 디쯔가 오는 소리요. 자, 진정하오. 나는 당신에게 방도를 대주었소. 그러니 당신은 비행기안에서 기억의 문의 자물쇠를 열고 공격체계를 세워보오. 그 어떤 경우에도 방어에 머물러서는 안되오. 알겠소?》

슈틸리쯔는 담배를 끄고 새것을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포흐트에게 애써 부드럽게 웃었다.

《만일 당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당신을 흡수하였다는것을 인정하면 당신의 출세는 진짜 끝장나고말것이요. 그렇게 되면 당에서도, 로젠베르그도 한마디로 말하여 그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을거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첩자들을 에쓰디간부로 쓰는 법이 없소. 극단한 경우 만일 디쯔가 오래동안 당신의 뒤를 파다가 무엇인가 얻어낸다면 당신은 그의 저조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보복에 대하여 폭로하도록 하오. 그는 끄쏘리치가 죽은데 대하여 당신에게 복수를 하였소. 당신이 그의 실패를 목격한 사람이였기때문이였소. 끄쏘리치와의 사업에서 디쯔의 실패를 목격한 두번째 사람은 나였소. 알겠소?》

비행기들은 벌써 가없이 맑은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 오베들렌더와 그의 사람들 그리고 포흐트를 각이한 비행기로 태워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 슈틸리쯔는 디쯔에게 빙그레 웃으며 《이젠 아침식사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소?》하고 말하였다.

《나한테는 30분밖에 없소. 심문하러 가야 하오.》

《당신은 흥미있는 작전을 진행했소, 친구.》
《총체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볼수 있지.》 디쯔는 슈틀리쯔의 말에 수긍했다. 그는 지금, 승리의 이 순간에 웃고싶지는 않았지만 거만한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매우 흥미있는 책략이였소.》
《그런 요술을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좀 배워주오.》 슈틀리쯔는 차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혹시 공개해선 안될게 아니요?》
《당신에게는 말할수 있소.》 디쯔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나는 반데라에게 우리 사람을 붙였댔소. 그는 반데라에게 나의 의도를 슬그머니 던져주었소. 그러니까 나머지일이야 저절로 되였지. 슈틀리쯔, 당신은 반데라의 명성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옳게 알아맞혔소. 성내지 마오. 그때 나는 침묵을 지키지 않을수 없었소. 멜리니크는 우리 사람이요. 그는 이제 우리가 명령한것을 집행할거요. 그러나 반데라는 아브웨르사람이요. 아브웨르는 군대요. 당신도 이걸 알고 있지 않소. 그에게 어떻게 의거할수 있겠소? 반데라의 가까운 친구인 나의 정보원이 그에게 방송으로 온 세상에 대고 큰소리로 자기에 대하여 선언하면 그가 우리 〈관료주의자들〉을 뚫고 총통에게까지 알려질수 있다고 말하자 반데라는 그것을 믿었소.》
《당신은 십자가를 세울 자리를 준비하고있소, 디쯔.》
《아무렴, 우리가 훈장을 위해 싸우고있단말이요?》 디쯔는 한숨을 내쉬고 차에 앉았다. 《에쓰에쓰군인들이 우리 관앞에서 검은 받치개에 훈장을 고여들고 걸어갈것이요, 슈틀리쯔.》 《아침식사를 나한테서 하겠소?》
《나한테서도 할수 있소. 랭동고에 맥주며 반찬이며 돼지비게가 있소.》
《나한테는 술, 맥주, 돼지비게, 쏘쎄지 그리고 치즈도 있소. 나한테로 가기요. 내가 더 저축심이 강한가 보오. 당신의 정보원이 성이 뭐요?》
《슈헤비치.》 디쯔는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기를 슈틀리쯔와 련결시키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디쯔는 후에 슈틀리쯔가 압력을 가하기보다 자기자신이 이렇게 하는것이 더 좋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창발성은 모든데서 발현되여야 하는것이다. 배신행위에서도 역시 창발성이 필요하다. 그때는 이것이 결코 배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략으로 되는것이다. 전쟁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법이다.

전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수 있다. 눈먼 총알이 등을 뚫을 수도 있는것이다.

쿠르트 슈트람 (6)

지금은 평온이 깃들었다. 지치고 맥빠진 평온이였다. 그의 팔을 부축하고있던 호송원이 좌측으로 꺾어돌자 쿠르트는 복도를 보았다. 자기가 바라던 바로 그 복도, 량켠에 흰벽이 서있는 좁고 긴 복도였다. 복도의 제일 끝에는 누르끼레하고 틈이 간 낡은 타일벽이 마주 서있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건강을 회복하는것이 더 좋을수도 있어.) 하고 쿠르트는 갑자기 생각했다. (그러면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수 있을것이다. 지금은 내가 도망갈수 없다. 나한테는 열이 있다. 심한 열이다. 호송원은 내 목을 틀어잡고 쓰러뜨릴것이다. 그들은 모든것을 깨닫고 내가 자기자신을 처리하지 못하게 할것이다.)

그는 타일벽까지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있다는것을 알고 자기의 매 걸음걸음을 정확히 느꼈다.

(쿠르트, 너는 쓸모없는 페물이다. 너는 머리흰 대좌를 속일수 있었다. 너는 그에게 지나간 과거에 대한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많이 써주었다. 대좌가 인그리드, 후고 혹은 에곤에 대하여 쓴것을 전부 읽으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그들은 알아차릴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지 못할것을 소리높이 웨쳤다. 그들은 너의 헛소리를 꼭 알아들을것이다. 그리고 후대들도 네가 쓴 그 진술서를 읽고 리해하게 될것이다. 머리흰 에쓰에쓰대좌에게 주는 진술서를 더 어리석게, 더 허황하게 쓸수록 모든 사람들은 네가 꿋꿋이 이겨냈고 비렬한 인간이 아니였으며 네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누구도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다는것을 더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너는 머리흰 대좌를 기만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너는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고있다. 부정하지 말라. 너는 몸이 쇠약해지고 열이 있다고 그리고 옆에 호송원이 있다고 핑게하지 말라. 네가 건강이 회복되면 그것들은 두배나 더 많아질것이다. 그리고 후에 너는 헛소리를 할수도 있다. 그 헛소

리가운데 네가 스위스에서 온 우리 련락원에 대하여 말할수 있다. 인그리드에 대해서도, 후고에 대해서도 말할수 있다.)
쿠르트는 누르스름하게 보이는 금이 간 타일벽이 자기한테로 움직여오는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전지전능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속으로 빌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대지에서 살면서 대지를 활보하고 아픔을 느끼고 사람의 고통을 느껴보는것이, 차거운 눈발이 가시처럼 너의 얼굴을 찌를 때 산에서 내려오는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아, 어째서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있는가?! 나는 지금 이것을 생각해선 안된다. 나는 천천히 살갗을 들치고 손톱밑으로 들어와 두뇌와 심장에까지 와닿는 예리한 바늘에 대하여, 놈들이 고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무섭게 속이 떨려나던 일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정말 내가 한갖 동물에 불과하단말인가? 동물에게는 살아서 숨쉬고 먹이를 받아먹고 굴속에 들어가 자는것이 내가 살아남아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것을 마음대로 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이다. 쿠르트, 이것은 한순간의 공포에 불과한것이 아닌가. 이제 곧 속에 벌써 균렬이 생긴 자기자신으로부터 벗어날 행복의 순간이 올것이다. 이 균렬은 따뜻한 3월의 첫 비를 맞은 후 얼어붙은 강에 얼룩얼룩한 반점이 커지듯이 점점 커질것이다. 너는 이 첫 비가 얼굴을 후려칠 때 혀를 내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몹시 차고 슴슴하다고 느꼈었지. …)
쿠르트는 호송병에게 얼굴을 돌리고 가엾게 웃었다. 그리고는 별안간 몸을 날려 두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푹 찔렀다. 쿠르트는 축축하고 차거운 눈알과 후더운 눈시울이 푸들거리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호송병의 앗! 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부상당한 짐승의 흔적을 잃어버린 사냥개의 그 어떤 애처로운 소리처럼 들리는, 부주의하고있던 사람이 놀라서 지르는 소리였다.
쿠르트는 머리를 숙이고 마루를 차며 쏜살같이 내달렸다. 산에서 스키를 타는 계절이 오기전에 륙상련습을 하러 경기장에 갔을 때처럼 달렸다. 그는 이제 순간이 지나면 자기가 된타격을 받게 될것이라는것을 느끼며 누르끼레한 타일벽에 자기 뇌수가 쏟아져나온것을 눈앞에 방불히 그려보았다. 그리고는 자기자신에 대한 참을수없이 애처로운 생각이 치밀어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딘가 옆에서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추격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쿠르트는 벽이 자기에게 와락 무너져내려 자기 두뇌를 박살내라고 손을 내저었다. 련락원의 이름과 후고에 대한 암호가 간직되여있고 이들중에서 그 누가 파멸되는 경우 몸을 숨길수 있는 주소가 있으며 인그리드에 대한 사랑이 간직되여있는 두뇌가 박살나라고…

이윽고 그는 어둠속에 자취를 감추고 구원되였다.

밤에 누구인가 슈틀리쯔의 호실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시자치위원회에서 왔습니다.》 누구인가 우크라이나말로 조용히 대답했다. 《보건과에서 의사 오빠나쓰 미로슈니첸꼬가 왔습니다.》

《뭐라구요? 》 슈틀리쯔는 놀라와하며 실내복을 걸치였다.

《도이췰란드말로 말하시오. 뭐라구요? 》

그는 문을 열었다. 문지방에 문양이 돋힌 우크라이나와이샤쯔를 입고 눈이 검은 사람이 서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혼돈했습니다. 》그는 도이췰란드말로 넘어갔다. 《나는 의사입니다. 려관을 소독할데 대한 책임을 지고있지요. 슈틀리쯔, 당신은 〈쿠인 메리〉때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만요.》

《당신도 역시 그 배를 타고왔습니까? 몇등석에 앉아왔습니까?》

슈틀리쯔는 피로하나 동시에 확신성있게 기쁨을 느끼며 물었다. 암호를 묻는 그의 말엔 커다란 기대가 담겨있었다.

《2등석이였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실습을 했습니다.》이것은 응답 암호였다.

《들어오십시오, 의사선생.》 슈틀리쯔는 이렇게 말하고 라지오를 켰다. 베를린은 승리적인 전진에 대하여 전하고있었다.

그는 값을 똑똑히 치르었다

뜨루슈니쯔끼는 아침 일곱시에 체포되였다. 모든것은 라지슬라브의 집에서처럼 벌어졌다. 뜨루슈니쯔끼는 조심스럽게 들리는 문기척소리를 듣고 누가 래일, 아니 오늘 극장에서 진행될 공연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잠에 취한 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주택관리부에서 왔습니다. 댁에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기에.》
뜨루슈니쯔끼는 어두운 방안을 둘러보았다. 어디서도 물은 새는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목욕탕의 수도가 잘못되였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 문지방에는 에쓰에쓰장교와 병사 두명 그리고 사복차림을 한 사람이 서있었다. 뜨루슈니쯔끼에게는 그 얼굴이 낯익어보였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그와 만났던지 생각을 더듬어볼 새가 없었다. 병사들이 날쌔게 들어오고 그 사복차림을 한 사람이 정중하게 말을 걸었던것이다.
《속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십니까?》 뜨루슈니쯔끼는 눈앞에 라지슬라브가 떠올라 간담이 서늘해졌다.
《당신이 자기 집에 있는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시내에서 빨갱이 지하공작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쟁이가 설명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도이췰란드병영가까이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으리들. 그런걸 난 또 놀랐습니다.》 뜨루슈니쯔끼는 억지로 웃어보였다. 지금은 다만 무릎밑이 떨릴뿐이였다.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나으리들, 앉아 기다리십시오. 제가 제꺽 준비하지요.》
그는 급히 옷을 주어입고 손바닥으로 볼따귀를 어루만졌다. 면도를 해야겠으나 시간이 없었다.
(젠장, 무엇때문에 빨갱이들이 나에게 손을 대겠는가? 여기서 빨리 떠나가야 한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세심한 사람들이다. 말할것도 없이 그들은 민족의 꽃을 보호해주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여기서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알고 다른 주택으로 옮겨주고있다. 거기 가서 면도를 해야지. …)
《나으리들, 짐을 어떻게 할가요?》 하고 그는 물었다. 《흥, 악보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병사 하나가 남아 짐을 모두 트렁크에 싸서 당신에게 가져다줄겁니다.》
뜨루슈니쯔끼는 자기가 장교와 사복쟁이사이에 비좁게 끼워앉아 감옥마당에 들어설 때까지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는 차에서 밀

려내린 후 자기한테 에쓰에쓰대원이 다가와 고개로 철문을 가리켰을 때에야 창문에 친 철창이며 높다란 벽이며 기관총이 설치된 망루며 처마밑 그늘에 장작처럼 촘촘히 가려놓은 시체를 보았다.
그는 걸으려고 했으나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이 반대방향으로 삐여져나온것 같았다. 그는 걸음을 걸으면 앞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뒤걸음질하게 될것 같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키가 큰 에쓰에쓰장교가 그를 심문하였다. 그는 순간에 웃음을 험악한 기상으로 바꾸었다. 사복입은 사람은 그에게 《디쯔씨.》하고 정중하게 대하였다. 뜨루슈니쯔끼는 마침내 사복쟁이가 멜리니크의 서기인 조용하면서도 민첩한 츄츠께비치라는것을 알았다. 반데라그루빠에서는 그를 《쥐새끼》라고 부르고있었다.
《여보, 뜨루슈니쯔끼.》디쯔는 검은 권연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빨리 말하였다. 《당신은 자기의 리익을 보아서도 우리에게 모든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오. 모든것을말이요. 알겠소?! 만일 당신이 사소한것이라도 숨기기만하면 당신을 즉시 총살해치우라고 명령할테요. 알겠소?! 지금은 전쟁이 진행되고있소. 우리는 빈 말공부를 하고있을새가 없소.》
《나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인정해야 합니까.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뜨루슈니쯔끼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나는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었다.《당신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츄츠께비치가 통역을 했다. 그는 뜨루슈니쯔끼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엇인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뜨루슈니쯔끼는 구명대에 매달리듯 서둘러 대답했다.
지금 이 키큰 게스타포요원에게 모든것을 설명하도록 도와주고있는 츄츠께비치의 우크라이나말은 뜨루슈니쯔끼에게서 구명대와도 같았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귀띔해주지요.》 츄츠께비치가 말하였다.
《당신은 레베지가 당신을 어떤 너절한 놀음에 끌어들였는지 리해하기가 힘들겁니다. 당신은 예술인입니다. 당신은 일상사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공상의 세계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절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당신을 연극에 끌어들였습니다. 뜨루슈니쯔끼, 그는 당신에게 극장에서 공연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지요?》 《예.》
츄츠께비치는 디쯔에게 도이췰란드말로 말하였다. 《기록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입니다.》디쯔는 속기원을 불러들

였다. 속기원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밝은 탁상등을 켰다. 츄츠께비치는 뜨루슈니쯔끼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땅에 고정시킨 등받이없는 차거운 철의자쪽으로 자기 의자를 바투 당겨놓고 앉았다. 두사람은 무릎이 서로 닿았다. 뜨루슈니쯔끼는 이러한 접촉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있었다. 한것은 이 사람이 자기 사람이기때문이였다.
《그러니까 공연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 뜨루슈니쯔끼, 레베지는 강점당국대표들과 일정을 토론하라고 요구하던가요?》
《아닙니다.》
《요구하지 않았단말이지요.》 츄츠께비치는 속기원이 뜨루슈니쯔끼의 대답을 기록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곱씹었다.
《그러나 그는 경축공연일정은 새 정권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지 않습니까? 알고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뜨루슈니쯔끼는 츄츠께비치의 말에서 구원의 뜻을 감수해보려고 애쓰면서 천천히 말하였다. 《물론입니다.》
《레베지가 당신을 극장책임연출가로 임명한다고 하던가요?》
《기본지휘자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구요?》
《기본지휘자로말입니다.》
《그거야 큰 차이가 없지요.》
《예,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뜨루슈니쯔끼는 서둘러 동의했다.
《그는 이 문제를 새 정권과 합의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는 당신에게 도이췰란드지휘자를 당신네 합창단에 배치시켜줄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즉 레베지가 새 정권의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했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아닙니다.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츄츠께비치는 가볍게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모르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대답은 디쯔씨에게 진실치 못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것을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뜨루슈니쯔끼. 환상세계도 환상세계이지만 당신은 밥이야 땅에서 지은걸 먹겠지요. 하늘에서 지은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위대한 총통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민족이 있기때문에 존

재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베지가 모든것을 틀어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모든것을 자신이 결정지으려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는 자기가 모든것을 결정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는 자립적인 사람이였습니다.》 뜨루슈니쯔끼는 공포에 가까운 기이하고 놀라운 생각과 더불어 모든데서 츄츠께비치의 말을 따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것을 느끼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건 당신이 옳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매우 자립적인 사람이였습니다.》 《거만하다고도 볼수 있지 않을가요?》 하고 츄츠께비치는 뒤를 달았다. 《정확히 말하여 거만하다고 볼수 있지요?》

《총체적으로 보아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권에 대해서는…》

《새 정권에 대해서는 어쨌단말입니까? 그는 단 한번이라도 새 유럽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하듯이 그렇게 당신과 인사를 하던가요? 당신을 만나서 단 한번이라도 〈하일 히틀러〉를 부르던가요?》

《말했습니다. …왜 비방중상이야 하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쩨빤 반데라총통 만세〉를 더 자주 웨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는 물론 〈스쩨빤 반데라총통 만세〉도 불렀습니다. 》

《그럼 이제 당신은 나에게 대답해보십시오.》 츄츠께비치는 뜨루슈니쯔끼를 완전히 파악하고 곱씹어 말했다. 《레베지가 자기를 새 정권우에 올려세우려고 시도하지 않던가요? 대답은 오직 하나 확정적인것만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도하던가요?》

《시도하였다기보다 대체로 그에게 그런데가 있지요. …그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뜨루슈니쯔끼는 목구멍을 꺽 막고있던 커다란 덩어리를 꿀꺽 삼키고 대답했다. 《이젠 내가 리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덧붙여말했다. 《모든것을 단번에야 알아맞히는 재간이 있습니까? 당신이 전적으로 옳게 말했습니다. 나는 음악의 세계에서 살고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속세의 허망한 일에서 분리시켜주지요. 음악은…》

《잠간만.》 츄츠께비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잠간만, 나의 친구, 만일 우리가 당신이 새 정권의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레베지의 욕망에 대하여 깨달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면 이제

는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가?〉하는 다음번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사람들에게 유익한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문화적인 도이췰란드정권이 없이는 죽고말것이며 산채로 썩어서 오물통에 들어가고말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권우에 올라서야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뜨루슈니쯔끼는 순진하게 눈으로 방조해줄것을 간청하면서 츄츠께비치의 물음을 되뇌였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에게 유익할것 같습니까?》

《웬일인지 나는 머리가 핑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나를 체포하였는지 리해할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뜨루슈니쯔끼, 언제나 모든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영원히 지휘대에 올라서지 못할것이며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듣지 못하게 될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자 자기가 더없이 가련해보였다.

《나으리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요, 무슨 죄를?》 하고 뜨루슈니쯔끼는 격하여 말했다.

《당신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 죄는 없습니다.》 츄츠께비치는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모든것은 시정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당신이 성실하여야 합니다. 매우 성실하여야 합니다. 디쯔씨나 혹은 그의 방조자인 내앞에서뿐만아니라 자기자신에게 성실해야 한단말입니다. 뜨루슈니쯔끼, 나에게 대답하시오. 새 정권의 꼭대기에 올라서려는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것 같습니까? 새 정권의 적들에게 필요한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적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자신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걸 상상해볼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요. 이건 누구도 상상해볼수 없소. 누구도 머리에 이런 생각을 가질수 없소. 여기서는 당신이 옳게 말했습니다. 론쟁할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레베지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새 정권의 적에게 복무한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물론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츄츠께비치는 디쯔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뜨루슈니쯔끼에게 심문조서에 수표하게 하고 감방으로 끌어갔다. 거기에서 그는 의식을 잃었다. 라지슬라브가 자기 아이들을 붙안고 그에게 들어와 속이 휑하니 뚫린 피투성이가 된 눈확으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던 것이다. 그의 한쪽눈이 빠져 길다란 퍼런 힘줄에 매달려있었다.

아침 10시경 츄츠께비치는 멜리니크의 자료카드에 《주대가 없는 자들》이라고 씌여진 또 다섯명의 얼치기들을 끌어다 조서를 꾸미였다. 이리하여 레베지, 스떼쯔꼬를 기소할수 있는 《론박할수 없는 증거물》이 준비되였다.

레베지는 체포된자들의 진술서를 보고 성이 나서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횡포해졌습니까?! 디쯔씨, 우리는 같은편이 아닙니까.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이 모든것은 멜리니크의 술책입니다. 우리는 리보브를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 정권을 위하여 이 모든것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디쯔씨. 이것이 멜리니크의 술책이라는것을 당신이 어찌 모른단말입니까?!》

츄츠께비치는 의자에서 일어나 육중하게 생긴 땀난 손으로 레베지를 고양이를 때리듯 후려갈겼다.

디쯔는 책상에서 벌떡 솟구쳐일어서며 벽력같이 소리질렀다.

《츄츠께비치. 여기서 나가시오!》

그는 한순간 어정쩡해있다가 자세를 바로하고 신뒤축을 딱 소리나게 모두어붙이고 감방에서 나갔다. 디쯔는 레베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수갑을 벗기고 음흉하게 웃으며 씨벌여댔다.

《정말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모르겠단말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베지도 역시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이 필요하오.》 디쯔가 말하였다. 《그래 리해하기가 그렇게 힘드오? 누구인가, 아니 바로 당신이 이것을 리해하고있어야 할것이였소. 레베지씨,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는 민족적고통의 가치관이 필요하오. 당신은 좀 뒤늦게 신중한 투쟁에, 가장 신중한 투쟁에 진입하게 될것이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만하오?》

게스타포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성원들중에서 세명의 자살사건을 기록하였다. 그 한명은 교원 그레베뉴크였는데 그는 유서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였으나 지금은 한갖 앞잡이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기를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애국자로 생각해왔는데 알고보니 나는 히틀러를 위해 불속에서 밤송이를 꺼내군한 원숭이나 같았다. 나는 살기가 부끄럽다.》라는 글을 남기였다.

스쩨빤의 아들 열아홉살난 《나흐티겔》의 재향군인 미꼴라는 리보브감옥마당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사형집행에는 도이췰란드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멜리니크의 참모부성원들은 멀리 뒤전에 서 있었다.

《도이췰란드제국의 사상을 배반한 미꼴라 샤뽀발을 위대한 도이췰란드의 위업을 배신한 죄과로 교수형에 처한다. 사상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위대한 도이췰란드를 배신한 모든 우크라이나사람들은 이런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디쯔는 멜리니크참모부성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판결문을 랑독하였다.

멜리니크의 패거리들은 모두 잠잠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속박받는 노예의 비굴한 굴종의 빛이 어려있었다.

까나리스해군제독의 보좌관 라후젠대좌는 여하튼 오베들렌더를 만났다. 베를린의 모든 비행장들은 군대의 통제속에 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 리보브에서 온 《융케르스》비행기가 머물게 될 기간에 대하여 즉시 알수 있었다.

오베들렌더가 체포된것이 아니라 단지 해명을 위해 당조직에 불리워오는만큼 라후젠은 그를 자기 《마이바흐》차에 태웠다.

《히물러가 이겼소. 이 단계에서는 그가 이겼소.》 대좌가 말하였다.

《그러나 로젠베르그와 까나리스는 반데라를 작센하우젠의 특별〈저택〉으로 옮겨놓을것을 주장하고있소. 거기에 앞으로 써먹을 〈민족주의예비〉를 보존해두자는거요. 일정한 단계, 일정한 정세가 도래하면 우리는 반데라에게 되돌아가려고 하오. 그는 민족주의사상의 수난자의 후광속에 빛날것이요. 이것이 아주 인상적이 아니겠소. 당신은 사태를 판단할줄 알아야 하오. 당신은 즉시 〈나흐티겔〉을 총독관할지역으로 가져가자는 의견을 내놓도록 하오. 그리고 재향군인부대가 뽈스까나 쓰르비아땅에서 경찰의 기능을 수행케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오.》 라후젠은 담배를 붙여물고 한모금 깊이 빨고나서 덧붙여말했다. 《혹은 프랑스에서말이요.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보존하는것이요. 까나리스는 종합대학에서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내부서의 선으로 당신을 빠리로 보낼데 대하여 합의를 본것 같소.

우리는 후에 모스크바가 함락되면 당신을 다시금 로씨야로 옮기도록 하겠소.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잘 짓자는것이 당신이 늘 즐겨하는 생각이 아니요.》
《분합니다.》하고 오베들렌더는 말하였다. 그의 둥글고 부드럽게 생긴 얼굴이 근엄해졌다. 《우리가 시시한 일에서 패한것이 분합니다.》
《모든 실패는 앞으로의 승리를 내포하고있는것이요. 패배를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대하시오. 히틀러가 사라져도 민족의 정신은 영원할것이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뿐이요. 일을 끝내는것은 우리들, 대도이췰란드사상의 실용주의자들에게 지워져있소.》
오베들렌더는 옆으로 라후젠을 찬찬히 흘겨보았다.
《너무 모험적으로 말하는게 아닙니까, 대좌?》
《자동차는 운전사가 아니라 내가 몰고있고 라지오도 켜놓았소. 게다가 당신은 추궁을 받기 위해 불리워왔소. 그렇다면 당신이 밀고해야 무슨 의의가 있겠소? 아돌프 히틀러개인을 규탄하면서 나는 도이췰란드의 위대성만을 생각했지 다른것은 생각한적이 없소. 당신은 손에 곡괭이를 들고 일한 값에 백마르크를 받느니보다 침묵을 지킨 덕분에 천마르크를 버는것이 더 좋다는것을 알고나 있소?》
《그럴듯한 말입니다.》오베들렌더는 그의 말에 수긍했다.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면말입니다. 그런즉 예속된 슬라브사람들의 사상이 이젠 밑창이 드러났다는건가요?》
《아직은 대답하기 곤난하오. 군대는 로젠베르그를 지지하고있소. 혹시 우리가 어느 한 중요한 문건에 매우 중요한 내용의 글을 몇줄 적어넣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총통이 우리 문건에 수표를 할것이라고 생각하오. 지금 볼쉐위크들이 발악적으로 맞서고있기때문에 총통이 글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을거요. 미래에 필요한 이런 글을 평화시기에는 작성하기가 힘든것이요. 전쟁이 모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소.》
로젠베르그는 동부지역성의 모든 관리들에게 지시문을 알려줄것을 당조직책임자에게 위임하고 그것을 리보브르로 보냈다.
이 지시문을 읽고 슈틀리쯔는 한동안 어리벙벙하여 앉아있었다. 그는 다시한번 소말리스또쯔끼의 수표를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경련이 인듯 실룩거리며 보기 흉하게 이그러졌다.
그는 자기의 새 련락원을 통해 본부에 보내기 위해 문건을 몇장 촬

영한 다음 그것을 철궤속에 넣고 디쯔에게로 갔다. 그는 이 며칠사이에 변모된 거리로 차를 몰아갔다. 그는 도이췰란드병사들이 거리이름이 적힌 패쪽을 뜯어내고있는것을 보았다. 시장앞의 광장은 크라카우에거리로, 아브라가모비치거리는 클랴인슈트거리로 그리고 뻬드발리나거리는 암 그라벤거리로 개칭되였다. 슈틀리쯔는 운전대를 꽉 틀어잡고 천천히 차를 몰아갔다. 그는 지금 이전의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를 자제해야 했다. 그는 로젠베르그의 문건을 읽고나서 히틀러의 멸망은 단지 시간문제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악과의 싸움을 제일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선참으로 피를 흘리게 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슈틀리쯔는 지금 침착하게, 이 며칠사이에 처음으로 이처럼 침착하게 생각을 더듬고 있었다. 그는 나치스분자들이 도이췰란드제국에서뿐만아니라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왜 소상인들에게 의거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슈틀리쯔는 사적소유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주는듯이 보일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다. 노예가 과연 새것의 전파자로 될수 있단말인가? 뿌슈낀과 켄트는 자기의 련합기업체들과 자기《국민의 공장》, 자기《국민의 도이췰란드은행》을 가지고있는 너, 게링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사유에서 자유로운 인간들이였고 무엇인가 생각할것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생각할것이 없다. 게링그, 너는 류프트 바페의 열병식을 사열하고 부관들의 보고를 듣고 총살을 승인하고 승리에 대한 전파보도를 들어야 한다. 이 모든것이 너를 높이 추켜올려줄수는 있으나 너의 정신에는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다. 그것은 네가 무엇을 인식하려는 열정을 잃었기때문이다. 너는 세상에 끝이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지 않는가. 만일 관심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머리에 새겨넣겠는가. 너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것이 어떤것이고 그것이 세기를 두고 어떻게 살아남고있으며 누가 이 기억력을 보존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통 관심이 없다.

우둔한 족속들인 너희들은 아이들의 공상—이것이 사회의 미래라는것을 모를것이다. 아이들은 무엇을 꿈꾸고있는가? 너희들은 도이췰란드제국의 내각에서 이에 대하여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너희들은 자기 아이들의 꿈을 기억이나 하고있는가? 너희들이 과연 자기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낼수 있을것 같은가? 정상적인 아이들은 비행사나 음악가로, 외과의사나 운전사로, 원수나 배우로 될것을 공상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중에서 누구도 구멍가게의 주인이 될 것을 꿈꾸는 아이는 없다. 아이들은 경기용자동차를 가지고싶은 꿈은 꾸어도 택시주차장을 가지고싶은 꿈은 꾸지 않는다. 구멍가게의 주인은 도달한 성과의 노예에 불과한것이다. 그에게는 지금 있는 모든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보존하고 남겨놓겠는가 하는외에 다른 리상이 없다. 세계에는 속도가 부여되고있다. 새로운 비상한 속도가 이것을 제지시킬수는 없는것이다. 헌데 물건의 노예이고 그것의 소유자인 작은 구멍가게주인은 목적지향성있는, 다시말하여 사상적인 새로운 속도의 세계에서 우습게 보인다.

원인과 우연이 세계를 규정한다. 원인이 리성적인 필연성과 리성적발전의 결과를 증명해준다면 우연은 무엇보다먼저 혼란을 표현하고있는것이다.

만일 너, 총통이 환상적인 사상에 복종하지 않고 신중하고 현실적인 사상에 복무하였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리념에 의거하였을것이다. 그런데 너, 총통은 우연적인간이다. 지금은 네가 그렇게 강하고 불패인듯해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위해 《하일》을 웨치고 네앞에 경건한 태도를 취하고있지만 철두철미 너는 우연적이다. 겉보이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본질적인것이 중요한것이 아닌가. 총통, 구멍가게주인들에게 기대를 걸라, 총통, 기대를 걸라! 나는 네가 그들을 자기 기둥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총통, 너는 수백만 사람들의 불행의 바다우에 떠있는 수천명의 사람들의 행복이 너에게 복무할 현실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라. 문제가 수백만과 관계되는것이라면 천이라는 수자는 기둥으로 될수 없다. 이 수백만의 사람들은 너의 로젠베르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이것을 알게 될것이다. 나는 벌써 노력하고있다.

슈틀리쯔는 자동차 석대가, 유개차 석대가 감옥으로 들어가는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 승용차를 정문옆에 멈춰세우고 암호패쪽을 보여준 다음 감옥마당으로 들어갔다. 총알에 맞아 가슴과 머리 두곳에 부상을 입은 벌거숭이시체들이 벽옆에 주런이 누워있었다.

민첩한 에쓰에쓰장교들이 시체들사이로 걸어다니며 몸뚱이들을 뒤집어보기도 하고 얼굴우에 허리를 굽히고 들여다보기도 했다. 에쓰에쓰놈들은 망치로 금이발을 두들겨 빼내고있었다.

슈틀리쯔는 메스꺼움을 느끼고 돌아서서 세면대로 가서 시원한 맑은 물에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는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감옥

에서 나왔다. 그는 오래동안 차에 앉아있었다. 발동을 걸 힘조차 없었다. 한식경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멜리니크한테로 가서 디쯔와 이야기를 나누고 쉘렌베르그에게 보고할 문건을 작성할 힘을 되찾았다. 모든것을 알아내고 기억해두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다. 복수—이것은 매우 나쁜 품성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에 대한 보복이 없다면 세계는 끝장나고말것이며 네발가진 아이들이 태여날것이다.

그리고 음악도 태양도 사라지고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 영원히 지속될것이다. 사람들은 기억을 보존하고있으며 달리는 행동할수 없을 때 투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것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한계가 있기때문인것이다.

장편소설

1941년의 봄

제 2 판

저자 율리안 쎄묘노브 역자 권치호
편집 구형회, 박성보 장정 안영호 교정 김은희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 76(1987)년 8월 20일
2판인쇄 주체 94(2005)년 1월 5일
2판발행 주체 94(2005)년 1월 10일

ㄱ-76266